

국제학술회의

古代 동아시아 石刻研究의 새로운 방향

日時 | 2016年 8月 24日~25日

場所 | 동북아역사재단

행사일정

| 고대 동아시아 석각연구의 새로운 방향 |

8월 24일(수)

10:00~12:20 사회 사회: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환영사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주제발표 (모두 발언과 주제발표, 각 25분 배정)

- 발표 이문기 (경북대학교)
墓誌銘으로 본 在唐 百濟系 遺民의 正體性 問題
氣賀澤保圭 (明治大學 東亞石刻文物研究所所長)
關於百濟人《禰軍墓誌》中“日本”一詞的理解及其課題
- 발표 毛陽光 (洛陽師範學院河洛文化研究中心)
洛陽近年新見唐代墓志述略
- 토론 趙振華(河洛文化國際研究中心), 여호규(한국외대)
- 오찬

13:30~15:30

주제발표

- 사회 권덕영 (부산외국어대학교)
- 발표 趙振華 (洛陽師範學院河洛文化研究中心)
唐代墓志中的“丸都”与“丸山”-兼谈其对于纠正古籍别写之意义-
윤용구 (인천도시개발공사)
- 발표 중국 출토 한국고대 관련 금석문 연구동향 -
고구려·백제·낙랑유민 묘지명을 중심으로-
- 발표 여호규 (한국외국어대학교)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 발표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記述方式 -家系와 出身地의 記載와 그 의미-
葛繼勇 (鄭州大學)
- 발표 入唐高句麗人的身分認定-以李隱之·李懷父子墓誌爲中心
-入唐高句麗人的出自考察-兼釋李隱之·李懷父子墓誌
- 토론 이정빈 (경희대), 김영관 (충북대), 陳朝雲 (鄭州大學),
速水大 (國學院大學), 이동훈 (고려대)

8월 25일(목)

09:30~12:20 사회 사회: 김경호(성균관대)

주제발표

- 발표 홍승현 (서강대학교)
墓碑의 출현과 後漢末 墓碑銘의 定型化
- 발표 소현숙 (원광대학교)
北齊 道教造像 研究
- 발표 平田陽一郎 (国立沼津工業高等専門学校)
西安出土「隋·郁久閻可婆頭墓誌(開皇十二年)」について
—「大賢真」を中心に—
- 발표 양진성 (연세대학교)
묘지명의 전통과 문서-南朝時期 梁代의 ‘奉敕撰墓誌銘’의 사례를 중심으로-
- 토론 권민균 (고려대), 정재균 (성균관대),
毛陽光 (洛陽师范学院河洛文化研究中心), 김성희 (한양대)
- 오찬

13:30~18:00

주제발표

- 사회 사회: 박근칠 (한성대)
- 발표 陳朝雲 (鄭州大學)
入唐高丽百济移民社会生活研究-以出土志碑为视角
- 발표 이장욱 (동북아역사재단)
唐宋時期 新興 官僚士族의 起興-樂安孫述과 清河南祖崔融 家族 墓誌를 中心으로
- 발표 速水大 (國學院大學)
洛陽出土<李阿葛羅墓誌>與開元年間的契丹
- 토론 정병준 (동국대), 葛繼勇 (鄭州大學), 하원수 (성균관대)
- 답사 부여 일원
8월 26일(금). 관광버스로 이동. 서울로 귀환

목 차

8/24(수)

- 墓誌銘로 본 在唐 百濟系 遺民의 正體性 問題 17
이문기 (경북대학교)
- 關於百濟人《禰軍墓誌》中“日本”一詞的理解及其課題 25
氣賀澤保規(明治大學 東亞石刻文物研)
- 洛陽近年新見唐代墓志述略 29
毛陽光(洛陽師範大學)
- 唐代墓志中的“丸都”与“丸山” - 兼谈其对于纠正古籍别写之意义 43
趙振華(河洛文化國際研究中心)
- 중국 출토 한국고대 관련 금석문 연구동향 - 고구려·백제·樂浪流民
묘지명을 중심으로 - 63
윤용구 (인천도시개발공사)
-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67
여호규 (한국외대)
-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記述方式 - 家系와 出身地의 記載와 그 의미 - 105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 入唐高句麗人的出自考察 - 兼釋李隱之 李懷父子墓誌 123
葛繼勇(鄭州大學)

- 墓碑의 출현과 後漢末 墓碑銘의 定型化 147
홍승현 (서강대학교)
- 北齊 道教造像 研究 155
소현숙 (원광대학교)
- 西安出土「隋 郁久閭可婆頭墓誌(開皇十二年)」について -「大賢真」を中心に- 173
平田陽一郎(國立沼津工業高等專門學校)
- 묘지명의 전통과 문서 -南朝時期 梁代의 ‘奉敕撰墓誌銘’의 사례를 중심으로- ... 177
양진성 (연세대학교)
- 入唐高麗百濟移民社會生活研究 - 以出土志碑为視角 - 185
陳朝雲(鄭州大學)
- 唐宋時期 新興 官僚士族의 起興 -樂安孫逖과 清河南祖崔融 家族 墓誌를
中心으로 213
이장욱 (동북아역사재단)
- 李阿葛羅墓誌と唐開元二十年代の契丹 217
速水大 (國學院大學)

8/24(수)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입니다.

멀리 중국과 일본에서 학술회의를 위해 와주신 趙振華 교수님 이하 중국측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氣賀澤保規 교수님 이하 일본측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계를 대표하여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이문기 교수님 이하 한국측 발표·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회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지를 비롯한 석각자료는 당대인이 남긴 기록으로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생생한 정보가 담긴 1차 자료입니다. 이에 한국고대사는 물론 중국 고증세사 연구에서 석각자료의 이용은 하나의 현상을 넘어 추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기술 내용이 단편적이며 허위적인 내용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이 자료의 적극적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역사상의 복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 필요하며, 그것은 석각자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석각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석각 연구는 연구자 한 사람이 다루기에는 벽찬 분야이기도 합니다. 각지에 분산된 자료의 소재와 내용을 개인이 알기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자료가 정밀한 판독과 난해한 용어의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한중일 3국의 관련 연구자들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연구내용

과 새로운 발견된 자료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석각자료의 공동연구는 간헐적으로 있어왔던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 학술회의는 1회성의 회의가 아니라 한중일 3국이 매해 돌아가며 열기로 한 석각연구회의 제1회 학술회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가 출발점이 되어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어 복원되는 역사상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나아가 이번 학술회의가 동북아의 역사연구에서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일깨우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발표를 맡아주시고 토론에 참가해주신 한중일 3국의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준비한 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

欢迎辞

大家好！我是东北亚历史财团理事长，金浩燮。

远道从中国和日本专程前来参加学术会议的赵振华教授为首的中国学者们，气贺泽保规教授为首的日本学者们，谨向各位专家学者们表示热烈的欢迎和诚挚的谢意。同时也向代表我们韩国学界参加会议的李文基教授为首的韩国学者们致以深深的感谢。也向关心并出席本次学术会议的在座各位来宾，真诚表示感谢。

墓志铭文等石刻资料是当时的人们所留记录，是不同于纸质文献的生动的原始资料。所以不仅是韩国古代史研究，中国的古中代史研究也常利用石刻资料等，利用石刻资料已经成为一种趋势。当然，石刻资料存在内容片面和虚假内容不少等问题，而阻碍其积极利用。但是，为立体复原历史本来面目，需要挖掘利用新的史料，而石刻资料可以成为很好的史料新来源，因此，对石刻资料的研究非常迫切。

与此同时，石刻资料研究很难仅靠少数几名研究者。分散各处的资料和内容，仅靠一两名个人的努力很难了解，更何况几乎所有的石刻资料都需要精密解读，也需要解释难解的用语。

基于此，我们东北亚历史财团本次特别准备学术会议，供韩中日三国有关研究人员分享期间所研究内容和新发现的资料。至今，石刻资料的共同研究不定期地有过，但是我要强调的是本次学术会议不是一次性的，而是今后韩中日三国轮流举办机制的第1届会议。希望这一次由我们财团主办的学术会议，成

为一个良好出发点，以后有更多新的史料得到挖掘，更多的历史史实得到复原。同时，也希望通过本次学术会议，更多的人能够认识到在东北亚历史研究中，韩中日三国的共同研究多么重要。

最后，再次非常感谢抽出宝贵时间前来发表和讨论的韩中日三国的专家学者老师们。也向为筹备本次会议的财团有关人士的辛劳表示感谢。

谢谢！

2016年8月24日

东北亚历史财团理事长 金浩燮

歓迎の辞

こんにちは。

東北亜歴史財団理事長の金浩燮です。

遠いところから本学術会議のためにいらして頂いた趙振華教授をはじめとした中国側の発表者の皆さん、そして氣賀澤保規教授をはじめとした日本側の発表者の皆さんに感謝の言葉をお伝えしたく存じます。そして、わが国の学界を代表して発表と討論を引き受けて頂いた李文基教授をはじめとした韓国の発表者、討論者の皆さんにも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本学術会議に関心をお持ちになり、ご参加頂いた一般の皆さんにも感謝の気持ちをお伝えしたく存じます。

墓誌をはじめとした石刻資料は同時代人が残した記録として文献では垣間見れない生き生きとした情報が込められた一次資料です。それゆえ韓国古代史はもちろん中国古中世史研究においても石刻資料の利用は一つの現象を超えて趨勢になってきていると言えます。反面、記述内容が断片的で虚偽的内容も少なくない点などが資料の積極的利用を妨げているのも事実です。それでも多様な歴史像の復元のためには新しい資料の発掘が必要であり、それは石刻資料を通じて可能であるという点において、石刻研究が必要なのです。

一方で石刻研究は研究者一人が取り組むには手に余る分野でもあります。各地に分散している資料の所在と内容を個人が把握するには限界があるのみならず、ほとんど全ての資料が精密な判読と難解な用語の解釈を必要としているからです。

そこで当財団では韓・中・日の三ヶ国の関連研究者がこの間進めて来られた研究内容と新たに発見された資料を紹介する場を設けることにした次第です。これまで石刻資料の共同研究は途切れ途切れに行われてきたものと存じますが、本学術会議は単発のものではなく、

韓・中・日の三ヶ国が毎年持ち回りで開くことにした石刻研究会の第1回学術会議である点を強調したく存じます。当財団にて開催される本学術会議が出発点になり新しい資料が発掘され、復元される歴史像が多くなることを望みます。更には本学術会議が東北アジアの歴史研究において韓・中・日三ヶ国の共同研究が必要である点を広く認識せしめる小さな礎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貴重なお時間を割いて頂き発表をお引き受け頂き、討論にご参加頂いた韓・中・日三ヶ国の皆さんにもう一度感謝のお気持ちをお伝えしたく存じます。併せて本学術会議を企画し準備した財団の関係者の皆さんにも感謝申し上げます。有難うございました。

2016年8月24日

東北亜歴史財団 理事長 金浩燮

墓誌銘으로 본 在唐 百濟系 遺民의
正體性 問題

李文基 (慶北大學校)

墓誌銘으로 본 在唐 百濟系 遺民의 正體性 問題

李文基 (慶北大學校)

<차례>

- | |
|----------------------------|
| I. 問題의 限定 |
| II. 出身地表記의 變化樣相 |
| III. 先祖關聯記錄의 變化樣相 |
| IV. 結語; 百濟系 遺民의 正體性의 弱화 過程 |

I. 問題의 限定

이 글은 지금까지 출토된 10점의 백제계 유민의 묘지명을 통해 당에서 활동하다가 死去한 백제계 인물들의 정체성 문제를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정의된다. 이를 참조하면 재당 백제계 유민의 정체성도 그들 스스로가 백제 출신 내지 그 후예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방하고 있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에는 약간의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묘지명이 과연 백제계 유민들이 가졌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묘지명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당의 史官을 겸한 관료의 개입이 인정되므로, 백제계 유민인 묘주나 그 후예들이 보유했던 정체성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그 묘지명이 묘주 가문의 후예들이 제출한 家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백제계 유민의 묘지명에도 묘주 혹은 그 후예들이 가졌던 정체성의 실체가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묘지명에는 백제계 유민들이 보유했던 정체성이 반영된 자료임을 전제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로 한다. 둘째, 정체성의 보유 문제는 실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환경에 의해 家門別로, 궁극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상당히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많이 검토되어 온 개인별·가문별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도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기가 곤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母集團이 10점에 불과하지만, 백제 멸망 후 약 3세대에 해당하는 90년 동안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작성되었음에 주목하여, 그 동안의 대략적인 변화의 추세 또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묘지명에서 묘주가 백제계 유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차적인 내용은 그들의 직계 선조가 백제에서 보유하고 있던 관등·관직 관련 기록이다. 백제 조정에서 관료로 활동했던 인물이거나 그 후예이기 때문에 그들을 백제계 유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은 또 다른 기록을 통해 드러나 있다. 하나는 묘주의 출신지와 그 선조들이 활동했던 지역에 대한 표기 방식이다. 그 곳이 백제 지역임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미묘한 방식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어, 그 변화의 추세를 통해 정체성의 보유 및 약화 과정이 드러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묘주의 선조에 대한 기록이다. 이는 遠祖에 대한 기록과 直系 祖上(3대 혹은 2대)에 대한 기록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후자는 그들이 백제에서 활동했음을 밝히고 있어 백제계 유민임을 알 수 있는 일차적인 내용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자는 원래 중국의 名族 출신이었지만, 어느 시기에 백제에 이주했다가 다시 직계 선조가 당으로 귀화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백제계 유민들의 정체성의 약화 추세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附表〉「在唐 百濟系 遺民 墓誌銘의 出身地 및 關聯地域과 先祖關聯記錄의 整理」를 작성하였다. 지금까지 출토된 10점의 백제계 유민의 묘지명을 작성연대 순으로 나열하면, 祿寔進(672), 祿軍(678), 扶餘隆(682), 陳法子(691), 黑齒常之(699), 黑齒俊(706), 祿素士(708), 難元慶(734), 太妃 扶餘氏(738), 祿仁秀(750) 등이다. 이 10건의 자료를 분석하여 백제계 유민의 정체성의 약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出身地表記의 變化樣相

묘지명이 발견된 백제계 유민 가운데서 묘주가 백제에서 활동하다가 입당한 인물은 (1)예식진·(2)예군·(3)부여용·(4)진법자·(5)흑치상지 등 5명이다. 이들은 유민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父親代에 입당한 (6)흑치준·(7)예소사 등은 유민 1.5세대 내지 2세대이며, 祖父代에 입당한 (8)난원경·(9)태비 부여씨·(10)예인수는 유민 3세대이다. 현재까지는 백제계 유민 3세대까지의 묘지명만 확인된 셈이다.

이들 묘지명들은 672년부터 750년까지 각각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백제가 멸망한 후 최소한 90년 동안의 재당 백제계 유민들의 정체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묘지명에서 백제계 유민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묘주의 출신지에 대한 표기이다. 〈부표〉에서 보듯이 출신지 표기 방식은 대략 4유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가)백제 출신임을 명기한 유형이다. (1)예식진(672)·(3)부여용(682)·(5)흑치상지(699)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나)직접적으로 백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백제 출신임을 밝히고 있는 유형이다. 웅진 출신으로 기록된 (2)예군(678)과 (4)진법자(691)의 사례가 그것이다. 셋째는 백제와 전혀 무관한 지역을 출신지로 기록한 유형이다. ‘楚國 琅琊人’이라고 기록한 (7)祿素士(708)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출신지를 기록하는 대신 부친 혹은 3대 조상을 기록한 유형이다. (6)흑치준(706)·(8)난원경(734)·(9)태비 부여씨(738)·(10)예인수(750)의 경우

가 그렇다. 그런데 넷째 유형과 같은 기록 방식은 은연중에 묘주의 출신지가 그의 부친 또는 선조와 동일하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6)흑치준·(9)태비 부여씨는 첫째 유형으로, (10)예소사는 셋째 유형으로 재분류해도 좋겠다.

결국 백제계 유민들의 출신지 표기 방식은 (가)백제 출신임을 명기한 것, (나)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백제 출신임을 밝힌 것, (다)백제계임을 은폐하고 중국 출신으로 표기한 것 등 3유형으로 대별된다. 이는 묘주와 그 후예들이 백제계임을 자각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를 표방했는지 여부, 즉 그들이 보유했던 정체성의 強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가)→(나)→(다)유형의 순서로 보유한 정체성의 수준이 약화되어 갔던 것이다.

다만 백제계 유민이 가졌던 정체성의 수준이 반영된 출신지 표기 방식의 변화 양상이 시기적 측면에서 정합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708년에 작성된 (7)예소사의 경우 (다)유형인데 비해 734년의 (8)난원경이나 738년의 (9)태비 부여씨의 경우 오히려 (가)와 (나)유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체성의 보유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가문별·개인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백제의 왕족 부여씨와 흑치씨 가문의 후예들이 백제계라는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까지 가졌던 데 비해 祿氏 일족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체성이 약화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장에서 다룰 선조 관련 기록에서 거듭 확인된다.

Ⅲ. 先祖關聯記錄의 變化樣相

묘지명에서 재당 백제계 유민들이 가졌던 정체성 문제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내용으로는 묘주의 先祖關聯記錄을 들 수 있다. 묘지명의 선조관련기록은 遠祖관련기록과 직계선조(3대 혹은 2대)에 대한 기록으로 양분되며,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우회적·은유적인 표현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 중 직계선조에 대한 기록은 묘주가 백제계 유민인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이 된다. 백제 왕실 구성원임을 밝히고 있기도 하고, 백제에서 관등·관직을 보유하고 관료로 활동했던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이를 백제계 유민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지어 논하기는 어렵다. 간접 기록에서도 이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滄海·靑丘·三韓·帶方·遼·遼川 등 백제임을 암시하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遠祖에 대한 기록은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과 관련하여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唐代 묘지명에는 遠祖의 출자를 조작하거나 名族에 가탁하여 모칭함으로써 원래의 출신을 숨기거나 개변하려 했던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백제계 유민의 원조관련기록도 이 범주에서 벗어 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부표〉에서 볼 수 있듯이 백제계 유민 묘지명의 원조관련기록을 정리하면 이 역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가)원조가 애당초 백제 땅에 자리 잡은 백제인이었음을 명기한 경우이다. (3)부여옹·(5)흑치상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흑치씨의 경우 그 조상이 부여씨에서 출자했다는 표현은 약간의 왜곡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는 비록 간접적

으로 표현하거나 기록을 생략하고 있지만, (6)흑치준과 (9)태비 부여씨도 포함될 수 있다. 둘째는 (나)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원조가 막연하게 중국인의 후예임을 암시하는 한편으로 백제인임을 부인하지 않는 유형인데, (8)난원경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다)원조가 원래 중국의 명족 출신인데 중국 내부의 혼란을 피해 백제로 이주했으며, 그 후예들이 백제 관료로 활동하다가 다시 입당했다고 서술하고 있는 유형이다. (4)진법자와 (2)예군·(7)예소사·(10)예인수 등 예씨 일족의 경우가 그러하다. 다만 예씨 일족 중 (1)예식진의 경우는 원조에 대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후술하는 예씨 일족의 원조관련기록이 변화하는 양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선조관련기록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나)·(다) 유형에서 원조를 중국 출신으로 기록한 부분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의 검토 대상이 되어 왔고, 현재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문면 그대로 신빙하여 難氏·陳氏·祿氏를 중국계 성씨로서 중국계 이주민의 후예로 파악하는 ‘신빙론’이 있는가 하면, 당에 거주하게 된 백제계 유민들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중국의 명족에 가탁하여 백제 출신임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허구로 파악하는 ‘불신론’도 있다. 한편 이러한 원조관련기록은 모종의 역사적 사실이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 아래 백제로 유입된 낙랑계 주민의 후예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정론’도 나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란 중에서 불신론이 옳다고 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예씨 일족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예식진(672): 원조관련기록 없음.

(2)예군(678): “그 선조는 중화와 같은데, 永嘉 말(4세기초)에 난리를 피해 동쪽으로 나아가 마침내 가문을 이루었다.(其先與華同祖 永嘉末避亂適東 因遂家焉)”

(3)예소사(691): “(동진 말:4세기말) 7대조 崇은 淮泗로부터 요양으로 건너와 드디어 웅천인이 되었다.…증조 진은 대방주자사였고 조부 선은 수가 내주자사를 맡겼다.(七代祖崇自淮泗浮於遼陽 遂爲熊川人…曾祖眞 帶方州刺史 祖善 隨任萊州刺史)”

(4)예인수(750): “수나라 말기(7세기초)에 내주자사 예선이 있었는데 대개 동한의 평원처사의 후예이다. 하늘이 隨德을 싫어함을 알고 뗏목을 타고 바다로 도망가 드디어 백제국에 이르렀다.(隨末 有萊州刺史祿善者 蓋東漢平原處士之後也 知天厭隨德 乘桴竄海 遂至百濟國)”

위의 자료는 예씨 일족 3대의 묘지명에 수록된 원조관련기록이다. 이를 一瞥할 때 약간의 비합리적인 서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묘지명마다 선조의 백제 정착 시기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영가말(4세기초)·동진말(4세기말)·수말(7세기초)와 같이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묘지명에 따라 선조가 역임한 관직 기록이 다른 경우가 있고, 심지어 예소사와 예인수의 묘지명을 따르면 조부 혹은 증조인 祿善은 선조가 정착했던 백제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 수말에 래주자사를 지내다가 다시 백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온다. 아무리 주민의 교

류가 빈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셋째, 세대에 따라 시기가 늦어질수록 원조에 대한 기록이 구체화 되고 있다. 顧詰剛의 ‘누층적으로 조성된 고대사’라는 지적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넷째, 제일 시기가 늦은 예인수의 경우, 前世代 묘지명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들이 동한시대의 저명한 인물인 평원처사 祿衡의 후예임을 명시하여, 중국 명족 출신 顯祖를 가진 가문임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생략하지만 唐代 묘지명에서 흔히 발견되는 명족과 현조에 가탁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예씨 일족의 비합리적인 원조관련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백제 멸망 이후 당에 살게 된 백제계 유민들 중에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백제계임을 숨기기 위해 자신들의 원조가 중국 출신, 그것도 명족이나 현조의 후예임을 표방했던 경우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백제계 유민 묘지명에 보이는 원조가 중국 출신이라는 기록이 허구라면, 이러한 현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백제계 유민의 정체성 약화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조관련기록을 통해서 백제계 유민들이 보유한 정체성의 수준은 (가)원조가 애당초 백제 땅에 자리 잡은 백제인이었음을 명기한 유형→(나)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원조가 막연하게 중국인의 후예임을 암시하는 한편으로 백제인임을 부인하지 않는 유형→(다)원조가 원래 중국의 명족 출신인데 중국 내부의 혼란을 피해 백제로 이주했으며, 그 후예들이 백제 관료로 활동하다가 다시 입당했다고 서술하고 있는 유형의 순으로 강약의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IV. 結語: 百濟系 遺民의 正體性의 弱化 過程

이상에서 현재까지 출토된 10점의 재당 백제계 유민의 묘지명을 분석하여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 문제에 접근을 시도하였다. 묘주의 출신지에 대한 기록과 선조관련기록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출신지기록과 선대에 대한 기록 두 가지 모두 백제계임을 명시한 유형 ; 부여용(682), 흑치상지(699), 흑치준(706), 태비 부여씨(738)
- (2) 출신지기록에서는 백제계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遠祖가 중국에서 이주한 것으로 기록한 유형; 예균(678), 진법자(691), 난원경(734)
- (3) 출신지를 중국으로 명시하면서 선조가 중국에서 이주했음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유형; 예소사(708), 예인수(750)

이러한 유형별 구분은 곧 백제계 유민들이 보유했던 정체성 수준의 강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적인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면 대략 유민 1세대가 활동했던 7세기 말~8세기 초까지는 자신이 백제계임을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강한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진법자 가문이나 예씨 일족의 사례처럼 유민 1세대부터 자신들이 중국계임을 내세우며 백제 출신임을 숨기려 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8세기 초·중엽의 유민 1.5 내지 2세대가 활동하면서부터 백

제계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간접적·우회적·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당 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서서히 약화되어 갔음을 시사한다. 8세기 중엽 이후는 자료 부족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유민 3세대인 예인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직계 조상(증조)이 중국에서 백제로 이주했다가 일시 거주한 후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갔음을 강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 백제계 유민의 후예들은 정체성 상실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것이 8세기 후반의 묘지명에서 백제계가 보이지 않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백제계 유민들의 정체성 약화 과정은 고구려계 유민의 경우와 거의 같은 궤적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附表> 在唐 百濟系 遺民 墓誌銘의 出身地 및 關聯地域과 先祖關聯記錄의 整理

순서	묘주	작성연대	(A)出身地 및 關聯地域表記			(B)先祖關聯記錄				(A)·(B) 統合記錄	묘주의 백제경력
			出身地 (出生記錄)	關聯地域表記	間接記錄	遠祖關聯	直系先祖關聯				
							曾祖	祖	考		
1	祚寔進	672	百濟 熊川人	占風異域 就日長安	(銘)溟海之東 遠截皇風	-	佐平譽多 (蕃官正1品)	佐平思善 (蕃官正1品)	馳聲滄海 孝節青丘		
2	祚軍	678	熊津 嶋夷人	去顯慶五年 官軍平本蕃日 見機識變 杖劍知歸/于時日本餘嘍 據扶桑以通誅/以公格謨海 左 龜鏡瀛東	若夫巍巍鯨山 跨青丘以東時/ 森森熊水 臨丹渚而南流/	其先與華同祖 永嘉末避亂適東 因遂家焉	福 (本蕃1品官 佐平)	譽 (本蕃1品官 佐平)	善 (本蕃1品官 佐平)	擅後異於三韓	(詞)靑胤 靑丘 芳基華麗 脈遠遐邇 會逢時濟 우무위 신천부 절충도위→ 좌응위낭장 →우령군위 증광장 검 김교응진도 독부시마
3	扶餘隆	682	百濟 辰朝人	氣蓋三韓 名馳兩貊/ 馬韓餘燼 狼心不悛 鷗張遼海之濱 蟻結丸山之域/以公爲熊津 都督 封百濟郡公 仍爲熊津道總管兼馬韓道 按撫大使/脩好新羅		[河]孫啓祚 暘谷稱雄 割據一方 跨躡千載	-	璋 百濟國王	義慈 金紫光祿大夫 衛尉卿	(銘)海隅 開族 河孫效詳/澤流 瀝水 威稜帶方/ 桂婁初擾 遼川不寧	웅진도독, 백제군공, 웅진도총관 겸 마한도안무 대사, 태상경 대방군왕
4	陳法子	691	熊津 西部人	官兵以顯慶五祀 甲人遼浪 府君因機一變 請吏明時		遠祖以衰漢末年 越鯨津而避地 胤緒以依韓導日 託熊浦而爲家	春 本邦太學正, 恩率	德止 麻連大郡將 達率	微之 馬徒郡 參司軍 德率	(銘)鳩川 命氏 遼海爲鄉 三韓挺懿 五部馳芳	기모군좌관 →품달군장 →사군 은솔
5	黑齒常之	699	百濟人	唐顯慶中 遣邢國公蘇定方平其國 與其主扶餘隆俱入朝	惟公之自東兮(銘)	其先出自扶餘氏 封於黑齒 子孫因以爲氏焉 其家世相承爲達率	文大 (達率:本國2品官)	德顯 (達率:本國2品官)	沙次 (達率:本國2品官)		달솔 →부여 응과 천자 알현 →만년 현 편직 / 절충도위 웅진성 진수 →충무 장군 행대방주장 사 →사지절 사반주제군 사 사반주사사
6	黑齒俊	706	(唐左領軍衛大將軍燕國公之子)	-	-	-	加亥 本鄉刺史	沙子 本鄉戶部尙書	常之 皇朝左武衛大將軍上柱國燕國公	熾種落於遐荒 積衣冠於中國/ 耀錦衣於日域/(

									贈左領軍衛大將軍	鉞東夷之子		
7	祿素士	708	楚國琅琊人		七代祖崇自淮泗浮於遼陽遂爲熊川人	眞帶方州刺史	善隨任萊州刺史		寔進入朝爲歸德將軍東明州刺史左威衛大將軍	(鉞)赫赫我祖奄營南土令尹稱功開封建宇/東浮鯨海北有雄津		
8	難元慶	734	(直系先祖3代記錄)		其先卽黃帝之宗也扶餘之介類焉昔伯仲枝分位居東表兄弟口政爰國臣韓	珣仕遼任達率官(今宗正卿)	汗入唐爲熊津都督府長史		武中大夫使持節支潯州諸軍事守支潯州刺史	(鉞)達率騰華遼陽鼎貴/氣蓋千古譽重三韓		
9	太妃扶餘氏	738	(直系先祖3代記錄)		家本東方之貴世	皇金紫光祿大夫故衛尉卿帶方郡王義慈	皇光祿大夫故太常卿襄帶方郡王隆		皇朝請大夫故潯州刺史德璋	異姓諸王之淑女/(鉞)東方君子兮異姓諸王克生淑女兮		
10	祿仁秀	750	(武衛府君之長子)		東漢平原處士之後	隨木萊州刺史祿善...知天獸隨德乘桴竄海遂至百濟國王中其說立爲丞相以國聽之	(祿善의子)寔進世官象賢也有唐受命東討不庭卽引其王歸依于高宗皇帝由是拜左威衛大將軍封來遠郡開國公		素士襲父封仕至左武衛將軍			

在唐百濟系遺民的認同問題-以墓志銘為視野

李文基（庆北大学教授）

本文試圖通過分析目前出土的十尊百濟系遺民的墓志銘，重新檢討在唐活躍的百濟系人物的認同問題。按照詞典的定義，認同是指“覺悟不變的存在本質的性質或具有這一性質的獨立存在”。參考這一定義，本文把在唐百濟系遺民的認同問題限定在他們是否自覺并標榜出自百濟或百濟后裔。

不過，這裡還需要一定的前提條件。第一，認同與否是因被賦予的條件、環境、家族乃至个性的不同而不同的。考慮到這一點，本文不把焦點放在個人案例而關注大概的趨勢或者趨勢的變化本身。第二，唐朝時期，在撰寫墓志銘的過程中一定有兼任史官的官僚的介入，所以無法完全排除百濟系遺民墓主或其後裔所具有的認同被歪曲的可能性。不過，墓志銘一般以墓主後裔提交的家狀為基礎撰寫，所以百濟系遺民的墓志銘在一定程度上可以反映出墓主或其後裔認同的實際情況。

在墓志銘之中，能夠把握在唐百濟系遺民認同的內容可分為兩個。一是，與墓主和其祖先的出自地區及活動地區有關的內容。這些記載直接或間接地顯示這一地區為百濟，所以通過其變化趨勢，可看出認同的堅持或淡化過程。二是，與墓主的祖先有關的內容。這些記錄可再分為關於遠祖的內容和關於直系親屬（三代或二代）的內容。尤其在前者之中有些記載強調，出自中國名族而遷至百濟的事實。通過隨時代變化而出現的記載變化，可推測在唐百濟系遺民的認同逐漸淡化的趨勢。

按撰寫年代而羅列目前出土的10尊百濟系遺民的墓志銘有：祿寔進（672）、祿軍（678）、扶余隆（682）、陳法子（691）、黑齒常之（699）、黑齒俊（706）、祿素士（708）、難元慶（734）、太妃扶余氏（738）以及祿仁秀（750）。雖然僅以十尊的墓志銘作為對象加以分析而有局限性，但是可以歸納出如下3個類型。

- (1) 出身地和有關地區的記錄與祖先記錄兩者都顯示百濟系的有：祿寔進（672）、扶余隆（682）、黑齒常之（699）、黑齒俊（706）、太妃扶余氏（738）；
- (2) 出身地和有關地區的記錄與直系親屬記錄都顯示百濟系，而記載元祖出自中國的有：祿軍（678）、陳法子（691）、難元慶（734）；
- (3) 顯示出身地為中國，也記載祖先出自中國的有：祿素士（708）、祿仁秀（750）。

通過這一分類，雖然每個家族和個人都不一樣，但是可以籠統地歸納在唐百濟系遺民的認同。結論如下：第一代遺民開展活動的7世紀末至8世紀初，他們具有較強的認同，直接標榜自己是百濟系；到了8世紀初至中葉，他們雖然堅持百濟系認同但是間接、迂回、隱喻地加以表現。可見，他們在適應中國社會的過程中逐漸弱化自我認同。8世紀末之後，因資料不足而無法確認，但其後裔很可能最終失去百濟系認同而隱瞞自己是百濟系。有趣的是，百濟系遺民的認同淡化過程與高句麗系遺民相當吻合。

墓誌銘から見える在唐百濟系遺民の アイデンティティ (正体性) 問題

李文基 (慶北大学校教授)

本稿はこれまで出土した10点の百濟系遺民の墓誌銘を通じて唐において活動した百濟系の人物達のアイデンティティ問題を再検討するものだ。アイデンティティの辭書的な意味は一般的に「変わらない存在の本質を悟る性質、あるいはその性質をもった獨立的な存在」と定義されており、これを参照しながらここでは在唐百濟系遺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彼らが百濟出身ないしはその末裔であることを自覺しながら、それを標榜していたかの有無に限定して考察したい。

ただしこのような接近には若干の前提が必要となる。第一にアイデンティティの保有問題は与えられた条件と環境によって家門、究極的には個人的な次元においてからして異なりうるものであるという点だ。この点を勘案しながらも本稿では個人別事例よりはその概略的な趨勢、あるいは傾向が変化する様相に注目したい。2点目は唐において墓誌銘が作成される過程において史官を兼ねた官僚の介入が認められ、百濟系遺民の墓主やその末裔が保っていたアイデンティティが歪曲した可能性を完全には排除できないという点だ。しかしながら墓誌銘は墓主の末裔たちが提出した家狀に根據を置いて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ゆえ、百濟系遺民の墓誌銘には墓主あるいはその末裔たちが持っていたアイデンティティの實態がどのような形であれ反映されているという前提でこの問題に接近したい。

墓誌銘において在唐百濟系遺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把握できる内容は大きく二つある。一つは墓主とその先代の出身地域および活動地域に対する記録だ。そこが百濟地域であることを直接的ないし隱喩的表現で多様に表現されていて、その変化の趨勢を通じてアイデンティティの保有及び弱体化過程が示されるのだ。もう一つは墓主の先祖に対する記録だ。これは更に遠祖に対する記録と直系祖(2, 3代)に対する記録に分けられるのだが、特に前者において中國の名族出身として百濟に移住したことを強調する事例が散見される。このような時代の流れによる記録の変化を通じて在唐百濟系遺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弱体化趨勢を推論す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まで出土した10点の百濟系遺民の墓誌銘を作成年代順に並べると 祿寔進(672)、祿軍(678)、扶餘隆(682)、陳法子(691)、黑齒常之(699)、黑齒俊(706)、祿素士(708)、難元慶(734)、太妃 扶餘氏(738)、祿仁秀(750)となる。わずかに10件を対象にした分析であるという点で限界があるが、分析結果は以下三つの類型に整理できる。

- (1) 出身地および關連地域に対する記録と時代に対する記録とも百濟系であることを示した類型：
祿寔進(672)、扶餘隆(682)、黑齒常之(699)、黑齒俊(706)、太妃 扶餘氏(738)
- (2) 出身地および關連地域に対する記録と直系先祖に対する記録においては百濟系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が、遠祖が中國から移住したものと記録している類型： 祿軍(678)、陳法子(691)、難元慶(734)

(3) 出身地を中國と明示し、先祖が中國から移住したと記録した類型： 祢素士(708)、祢仁秀(750)

これに根據を置き、もちろん家門や個人によって違いはあるものの、在唐百濟系遺民が持っていたアイデンティティ問題を見渡すと次のような結論を得ることができる。大概において遺民1世代が活動していた7世紀末～8世紀初めまでは本人が百濟系であることを直接的に標榜する強いアイデンティティを保有していた。しかし8世紀初め、中葉には百濟系である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ちはしたが、それを間接的、迂回的、隱喩的に表現していた。これは彼らが唐社會において適應する過程でアイデンティティが徐々に弱体化していったことを示唆している。その後は資料不足で確認が不可能であるが末裔たちは本人たちが百濟系であることを示さないアイデンティティ喪失段階に至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百濟系遺民たちのアイデンティティ弱体化過程は高句麗系遺民の場合とほぼ同一の軌道を見せており、興味深い。

關於百濟人《禰軍墓誌》中“日本”一詞的理 解及其課題

氣賀澤保規 (明治大學)

關於百濟人《禰軍墓誌》中“日本”一詞的理解及其課題

氣賀澤保規（明治大學）

一、前言

「日本」という国号は、701年に制定された「大宝令」で定まったというのが、今日ほぼ共通した認識となっています。しかし近年、中国西安（旧長安）の地で見つかった「禰軍墓誌」という百濟人墓誌（678年）には、「日本」という名称があり、「日本」の国名の始まりをめぐる解釈に、新たな問題を投げかけることになりました。同時にこの墓誌によって、六六〇年の百濟滅亡から始まる朝鮮半島・東アジアの大変動を考える貴重な材料が提供されました。

本報告は、この新発見資料に現れた「日本」の意味を、同時代（660年代）の激動する朝鮮半島・東アジアの時代状況のなかで見直し、それが日本列島ないしは「日本」という国名と重なる可能性を考えます。そして「日本」と名乗ることの起点が、607年の遣隋使・小野妹子が伝えた「国書」に記された「日出処」に求め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にも言及したいと思います。

二、「日本」國號的正式使用時期 —— 學術界現在通說的論據

国号「日本」を公式に確定した史料としてまずあげられるのは、「養老令」公式令の最初に来る「詔書式」の次の記事となります。

詔書式

明神御宇日本天皇詔旨云云。咸聞。

これは天皇が発布する勅命の書式を示したものですが、ここにある「日本天皇」が論拠となって、大宝律令が発布された大宝元年（701）に日本の国号も公的に定まったと理解されてきました。

そしてこの日本国内で正式に決定した国号をもって、翌大宝二年（702）に粟田真人を团长とする遣唐使（当時は則天武後の武周朝であるから、正しくは遣周使）が派遣さ

れ、703年（周・長安三年）に武后（武皇帝）に目通りがかない、鄭重に扱われ、おそらく日本号の承認を得て、704年（日本の慶雲元年）に無事帰国したとなります。そのことに関わるのが『旧唐書』卷一九九上・日本国伝の記事となります。

長安三年、其大臣朝臣真人来貢方物。朝臣真人者、猶中国戸部尚書、冠進德冠、其頂為花、分而四散。身服紫袍、以帛為腰帶。真人好讀經史、解属文、容止温雅。則天宴之於麟德殿、授司膳卿、放還本国。¹⁾

さらにこのときの情景に関わるものとして、日本側の『続日本紀』の卷三・慶雲元年（704）七月甲申朔の条にある遣唐使・粟田真人の報告の記事も注目されます。

秋七月甲申朔、正四位下粟田朝臣真人自唐国至。初至唐時、有人来問曰、「何処使人。」答曰、「日本国使。」我使反問曰、「此是何州界。」答曰、「是大周楚州塩城県界也。」更問、「先是大唐、今称大周。国号縁何改称。」答曰、「永淳二年、天皇太帝崩、皇太后登位、称号聖神皇帝、国号大周。」問答畧了。唐人謂我使曰、「亟聞海東有大倭国。謂之君子国。人民豊樂、礼義敦行。今看使人、儀容大淨。豈不信乎。」語畢而去。

すなわち粟田朝臣真人が遣唐使として彼の地（唐土）に上陸したとき、みずから「日本国使」と名乗り、土地の人間から王朝が唐より女帝が治める周に変わっていることを教えられます。また相手（唐人）から旧国名にあたる「大倭」を称賛する言辞を聞かされます。真人と唐人との遣り取りを通じて、この時点で倭より日本へ国名変更が確かになされたことが深く印象づけられます。

しかし私どもは、それで事足れるとす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実はこれとはやや異なる史料が存在するからです。すなわち『新唐書』卷二〇二・日本伝にはこうありました。

永徽初、其王孝徳即位、改元曰白雉。……時新羅為高麗・百濟所暴。高宗賜璽書、令出兵援新羅。未幾孝徳死、其子天豊財立。死、子天智立。……天智死、子天武立。死、子総持立。咸亨元年、遣使賀平高麗。後稍習夏音、惡倭名、更号日本。使者自言、国近日所出、以為名。

右の「日本伝」でいう王統関係、「孝徳－天豊財（斉明）－天智－天武－総持（持統）」は、継承の流れとしては基本的に問題ないのですが、関係をすべて父子関係で説明するのは誤りです。ただ咸亨元年（670）に遣唐使（河内直鯨ら）を遣わし、高句麗平定を祝賀させていることは事実と認められます²⁾。とするとその時点から比較的近い

1) なおこれに関係する記事は、同書卷六・則天皇后本紀の長安二年（702）の条の、

1) 「冬十月、日本国遣使貢方物。」

という一句に対応すると思われる。ただこちらは長安二年十月で、「日本国伝」とは一年のズレがあるが、ここには「日本国」と明確に記され、この点からも日本の国号が武後にスムーズに受け入れられたであろうと解釈できる。

時期に、「更号日本」とあるように、「日本」と改名されたと解釈できることになりま
す。ただしそこにはもう一つ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があります。「咸亨元年、遣使
賀平高麗」と「更号日本」との間に、「後稍習夏音、悪倭名」という一句が挟まってい
ることです。この「後稍習夏音」とある時間幅をどう理解するかです。日本史研究者の
主流となる“大宝律令制定時に国号が定まった”とみなす立場は、この幅をできるだけ大
きく取り、大宝時に国号が定まったことの直接的な裏付けに使おうとします。

とはいえ、「日本伝」の記事には咸亨元年（670）という年号があります。「後稍」
の時間幅を700年前後にまで引き下げ、大宝とほぼ同時期と扱うことはできるでしょ
うか。そこで日本古代史の吉田孝氏は、674年から701年の間の中間、689年施行の
飛鳥浄御原令あたりで「日本」と制度的に定められたと解しました³⁾。それに従えば、
701年の大宝律令での「日本」は、それを公的に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っても、起点
に位置するものではないとなりますが、日本史研究者の賛同は必ずしも広まっていま
せん。

三、史料所見倭國：同時論及「梁職貢圖」的倭人像

以上のところから、とりあえず「日本」国号は7世紀の末（後半）から701年施行
の大宝律令までの段階で、公的に定められ、翌702年の遣唐使（大宝の遣唐使）が唐
（当時は則天武後の周）に伝え、承認されたとしておきます。そこで今、『新唐書・
日本伝』の「後稍習夏音、悪倭名、更号日本」の記事に関わって、何故その時期、「
悪倭名」という観念が高まり、国名を改める必要があったのか。その結果として何故
「日本」になったのか。その問題に踏み出してみます。

それにあたり、倭の史料を二三出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まず『漢書』卷二八下・地
理志八下の燕地の条に、

玄菟・楽浪、武帝時置。……楽浪海中有倭人、分為百余国。

と出され、おそらく倭が登場する最初の記録となります⁴⁾。朝鮮に玄菟郡が設置された
のが漢の元封四年（前107）で、楽浪郡が元封三年（前108）であったとしますと（『
漢書』地理志）、晚くとも紀元前1世紀には、楽浪郡を介して「倭国」のことが漢（
前漢）には伝わっていたとなります。

2) 『日本書紀』卷二七、天智八年（六六九）の条に「是歳、遣小錦中河内直鯨等、使於大唐。」とあるのがこの場に対応する。

3) 吉田孝著『日本の誕生』（岩波新書、一九九七年六月）一一八—一一九頁。

4) 倭国に関する史料について、最も古いものとしてよく『山海経』第十二・海内北経にある「蓋国在鉅燕南、倭北、倭属燕。」の史料があげられる。ただし本書の成立年代にはっきりしないところがあり、ここでは『漢書』地理志を倭国の最も古い史料とみておく。

次に『後漢書』を見ますと、本紀卷一下・光武帝本紀には、
[建武中元] 二年（57）春正月、東夷倭奴国王遣使奉献。
とあり、これに対応する記事が同じく『後漢書』卷八五・東夷伝・倭の条に、
建武中元二年、倭奴国奉貢朝賀。使人自称大夫。倭国之極南界也。光武賜以印綬。
と出されています。倭の使者がこの時、後漢の光武帝から授与された「印綬」が有名な金印「漢倭奴国王印」となるわけです。

そして次に出しておきたいのが、よく知られた邪馬台国の女王卑弥呼が出る通称「魏志倭人伝」（『三国志』卷三〇・東夷伝倭条）にのる、

景初二年（238）六月、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求詣天子朝獻）。
という記事です。卑弥呼はここにおいて「親魏倭王」の称号と紫綬のついた金印、その上に「銅鏡百枚」を授けられます。この「銅鏡百枚」が日本の四世紀の古墳から出土する三角縁神獸鏡にあたり、邪馬台国の権力の所在と範囲を明かす手がかりとなると、日本では広く知られています。

そして最後に特に注目しておきたいのが、『隋書』卷八一・倭国伝に載る倭国遣隋使に関わる記事となります。

大業三年、其王多利思北孤遣使朝貢。使者曰、「聞海西菩薩天子重興佛法。故遣朝拜、兼沙門數十人來學佛法。」其國書曰、「日出處天子、致書日没處天子、無恙云云。」帝覽之不悅、謂鴻臚卿曰、「蛮夷書有無礼者、勿復以聞。」

ここに現れた倭王・多利思比孤の使者とは小野妹子を指しますが⁵⁾、彼が持参した「国書」に、よく知られた「日出處天子、致書日没處天子、無恙云云。」という文句が記されていて、煬帝を怒らせました。この文面のどの部分が煬帝の怒りをよんだかは論議が分かりますが、ここではそれに立ち入りません。代わって、煬帝が倭国の国書を「蛮夷書」とよんだこと、つまり倭国＝蛮夷＝無礼な存在として、倭国を文明度の低い「蛮夷」と蔑すむ観念を有していたことを指摘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この倭国を低くみる観念に関わって、従来あまり対象にならなかったことのない史料を掲げてみたいと思います。6世紀前半に南朝梁（520年頃）で描かれたとされる「梁職貢図」所載の「倭国使」の姿です。「梁職貢図」の原本は現存せず、北宋時代に作成された絹本着色画としての模写本が中国国家博物館（旧南京博物院蔵）に保存されています⁶⁾。この「北宋模写本」は人物表現や構図のとり方などに原画の特徴をとどめ、貴重な六朝後半期の絵画史料とされています。「北宋模写本」は本来35国の使者の図があったはずですが、その後散逸し、現在12国の使者だけが残っていて、幸いにもその

5) 氣賀澤保規編『遣隋使がみた風景—東アジアからの新視点—』（八木書店、2012年2月）参照。

うち氣賀澤「序章 東アジアからみた遣隋使——概説と課題」参照。

6) 金維諾「『職貢図』的時代与作者——読者画札記」（『文物』1960年7期）、榎一雄「梁職貢図について」（『東方学』26、1963年。『榎一雄著作集』七、汲古書院、1994年、所収）参照。

中に倭国の使者図がありました。また当時朝鮮三国のうちの百濟国使の図も含まれており、参考までに両国の使者図を掲げてみることにします（図1-①・②参照）。



図1-①倭国使（梁職貢図）



図1-②百濟国使（梁職貢図）

図からわかりますように、「倭国使」は頭部に頭巾をつけ、首に布を巻き、手甲と脚絆をつけ、足は裸足、上半身と下半身はそれぞれ一枚の布を巻きつけています。顔には髭を生やし、刺青をしていることも伺われます。相当な未開ぶりです。これがどこまで実際の姿を伝えているか疑問は多いのですが、少なくとも当時の中国人の観念に刻まれた倭国人イメージを示し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対する「百濟国使」はと違いますと、はるかに文明度の高い士人の格好で描かれています。

なお関連して、もう一つの「梁職貢図」ですが、唐代の著名な画家である閻立本が模写したとされる彩色の別系統の一本が、台湾の故宫博物院に所蔵されています⁷⁾。「王会図」とよばれるこの図巻には、「北宋模写本」より使者の数が多く、倭国使の他、朝鮮三国の使者の図も揃っています。そこでこれらを一堂に並べてみます（図2-①・②・③・④参照）。すると倭国使の姿の異様さ、文明度の低さが一目瞭然でわかるでしょう。因みに素足で登場する使者図は、「王会図」所載の二四国使でいえば、倭国使を含めてわずか五国だけであり（他は中天竺・北天竺・狼牙脩・建平蠻）、いずれも半裸に近く、当然士人的姿態とはかけ隔たっています⁸⁾。こうしたところからいって、

7) 深津行徳「台湾故宫博物院『梁職貢図』模本について」（『調査研究報告』四四、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一九九九年）参照。

8) 中天竺（『梁書』巻五四・海南諸国）・北天竺はインド、狼牙脩国はマレー半島中部にあったランカスカ（同・海南諸国）、建平蠻(蛮)は中国西南部の荊雍州蛮（『宋書』巻九七）となる。

倭国に込められたイメージや観念が差別的であったことは容易に読み取れます。日本史研究者の一部にある「倭には差別的意味はない」とする意見には、私は組みしないものです。

日本列島の国にたいし、何故「倭」の字が当てられたのか、これは大変難しい問題であり後日に譲りたいと思います。倭には「醜」を意味する「倭傀(醜女)」⁹⁾などの言葉がありますが、この倭の音は wei1(『広韻』於為切)であり、倭国の倭 wo3(『広韻』烏果切)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いずれにせよ、倭字には全体にあまり良い意味はない。そのことを直截に表したところに「梁職貢図」の倭国使の姿があると理解できないでしょうか。



図 2-①倭国使



図 2-②高麗国使



図 2-③百济国使



図 2-④新羅国使

9) 『文選』論一・王子淵「四子講德論」 「媮媮倭傀、善譽者不能掩其醜。苟有至道、何必介紹。」
(孫卿子曰、倭傀、醜女、未詳所見。倭、於為切。傀、古回切。)

四、介紹新發現的百濟人「禰軍墓誌」(678年)和禰軍

前述したように、国名を倭から日本へ改称した時期をめぐって、今日最も有力な理解が701年の大宝律令で定められ、それを遣唐使・粟田真人が中国に伝え、703年に時の皇帝則天武后（武周）の承認を得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ところが近年、その問題に一石を投ずるかもしれない資料が、中国西安市（唐の長安）の西南郊から出土しました。「禰軍墓誌」とよばれる墓誌がそれで、誌文中に「日本」の文字が刻まれていたからです。

この墓誌は本体（誌石）と蓋（墓誌蓋）のセットからなる百濟人の墓誌でした。じつはこの墓誌は盗掘されたもので、確かな墓地の所在と構造、また副葬品などはほとんどわかっておりません。しかし、2010年に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現西安市文物保護考古院）が西安西南郊外の長安区郭杜街道の場所を発掘して、三つの百濟人の墳墓を明らかにしました。おそらくその一帯が唐に降った百濟人の墓域であり、「禰軍墓誌」も付近から出土し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¹⁰⁾。最近の情報では、墓誌石は現在回収されて西安博物院の倉庫に保管されています¹¹⁾。因みに三墓に収められていた墓誌のデータは次のようになります。

○禰素士墓誌 60×60×15 cm 31字×30行 楷書 周圍陰刻唐草（卷草）紋様

（蓋：頂部 38.5×38.5 cm、底部 60×60×高 9.8 cm）。景龍2年（708）

○禰仁秀墓誌 51×51×9.5 cm 23字×23行 楷書 周圍陰刻唐草（卷草）紋様

（蓋：頂部 32×32 cm、底部 52×52×6.5 cm）。開元15年(727)、53歳（675－727）。

○禰寔進墓誌 58.5×58.5×13 cm 18字×18行・288字 楷書 四周陰刻12生肖紋様。

（蓋：57×57×15 cm）。咸亨3年（672）、58歳（615－672）。

さてその禰軍墓誌資料であります、最初にその内容を精査し、そこに「日本」の名前が出てくることを紹介したのが、吉林大学・王全龍氏の「百濟人《禰氏墓誌》考論」（『社会科学戦線』二〇一一年七期所載）という論文でした。氏は拓本を入手して紹介したのですが、そこから明らかになった誌石情報は次のようになります。

規模：縦 59 cm×横 59 cmの正方形、厚さが 10cm

誌石表面：罫線で一行 30 字・全 31 行のマス目を区切り、計 884 字、整った楷書体。

その墓誌の内容に少し立ち入りますと、最初の行に「大唐故右威衛將軍上柱國禰公墓誌銘」と出され、そのあとに禰氏の系譜そして禰軍本人の経歴が示されます。文章の作者、書者はわかりませんが、しっかりとした漢文体をとり、厳密な対句形式で構成さ

10) 西安市文物保護考古院が発掘した百濟人の三墓は、M 13 が禰素士墓（七〇八年）、M 15 が禰寔進墓（六七二年）、M 23 が禰仁秀墓（七二七年）となる同族のもので、禰軍もその一族である。三墓の墓誌は現在、M13 と M23 が西安市文物保護考古院（西安博物院）に、M15 が洛陽理工學院に収蔵されている。

11) 西安市文物稽查隊編『西安新獲墓誌集萃』文物出版社、2016年2月）所載「二八 禰軍墓誌」参照。

れています。本人に関する主たる情報を誌文から取り出すと、次のようになります。

①公諱軍、字温、熊津岬夷人也。其先與華同祖、永嘉末、避亂适東、因遂家焉。……
②曾祖福、祖譽、父善、皆是本藩一品、官號佐平。……③去顯慶五年、官軍平本藩日、見機識變、杖劍知歸、……④聖上嘉嘆、擢以榮班、授右武衛滄川府折冲都尉。……⑤（「日本」關係の記事）……⑥仍領大首望數十人將入朝謁、特蒙恩詔、授左戎衛郎將、少選遷右領軍衛中郎將兼檢校熊津都督府司馬。……⑦去咸亨三年十一月廿一日、詔授右威衛將軍。……⑧以儀鳳三年歲在戊寅二月朔戊子十九日景午遘疾、薨于雍州長安縣之延壽里第、春秋六十有六。……⑨以其年十月甲申朔二日乙酉葬於雍州乾封縣之高陽里。

- ①姓は祢、諱は軍、字は温、熊津岬夷の人。先祖は華（中華）と祖を同じくし、永嘉（307 - 313）の末、乱を避けて東に適き、因て遂にここ（百済）に家す。
- ②曾祖は福、祖は譽、父は善、皆是れ「本藩」（百済）の一品、官は佐平と号す。
- ③顯慶五年（660）、「官軍」（唐軍）が本藩（百済）を平らぐの日、機を見て変を識り、劍を杖して帰するを知り、唐に降伏（＝百済滅亡）した。48歳の時。
- ④聖上（唐高宗）は嘉嘆し、右武衛滄川府折衝都尉（正五下？）を授く。
- ⑤（「日本」關係の記事） 祢軍の百済・朝鮮半島問題
- ⑥「（旧百済の）大首望」数十人を引き連れて唐帝＝高宗に朝謁し、特に恩詔を蒙り、左戎衛郎將（正五品上）を授かり、次いで右領軍衛中郎將（正四品下）兼檢校熊津都督府司馬（従四品下？）に拔擢される。
- ⑦咸亨三年（672）十一月廿一日、詔により右威衛將軍（従三品）を授かる。60歳。
- ⑧儀鳳三年（678、戊寅歳）二月十九日、疾に遘い、雍州長安県の延寿里の第に薨す。享年66歳。
- ⑨其の年十月二日を以て、雍州乾封県（長安南郊）の高陽里に埋葬される。

祢軍は678年に66歳で亡くなりました。そこから逆算しますと、百済の武王十四年（613。中国では隋煬帝の大業九年、第二回高句麗遠征の年）に、大官（一品・佐平）の家に生まれました。それから660年の48歳の時に、百済が唐に滅ぼされ、以後唐に降り、678年に唐の都長安で死去しました（生卒613-678年）。彼は唐に降伏後、故国百済の鎮静化のために唐の意を受けて行動し、着実に地位を向上させ、禁軍の責任者、右威衛將軍（従三品）にまで上りました。

五、在禰軍墓誌的「日本」及其理解

祢軍墓誌における「日本」は、祢軍が唐のために旧百済の統合を進める過程で出現します。その箇所は、「聖上嘉嘆、擢以榮班、授右武衛滄川府折冲都尉」の顯慶五年（660）時点から、「僭帝一旦稱臣、仍領大首望数十人、將入朝謁、特蒙恩詔、授左戎

衛郎将、少選遷右領軍衛中郎将兼檢校熊津都督府司馬。」とある記事の中間になります。おそらく後者の記事は、白村江の戦いの終わり、百濟滅亡後の残党たちの抵抗が終息した唐龍朔三年（663）かその直後と想定してよいでしょう。つまり約3年間の内容がそこに表現されていると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ことはまず押さえ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

その記事をここに示しておきましょう。「日本」の語は最初に出てきます。

于時日本餘嘯，據扶桑以逋誅，風谷遺眈，負盤桃而阻固。萬騎亘野，与蓋馬以驚塵，千艘橫波，援原虵而縱瀾。以公格謨海左，龜鏡瀛東，特在簡帝，往尸招慰。公佞臣節而投命，歌皇華以載馳。飛汎海之蒼鷹，翥凌山之赤雀。決河皆而天吳靜，鑿風隧而雲路通。驚鳧失侶，濟不終夕，遂能說暢天威，喻以禍福千秋。

このうち、ここでは直接「日本」に関わる次の記事をどう解釈するか、を問題にします。この分析を通して、「日本」理解が進むからです。

于時日本餘嘯，據扶桑以逋誅，風谷遺眈，負盤桃而阻固。萬騎亘野，与蓋馬以驚塵，千艘橫波，援原虵而縱瀾。

右の文章を解釈することはなかなか難しいのですが、最初に「日本」以下の文章構造を見ておきましょう。何よりもまず気がつくのは、かなり厳密な対句の形式をとりながら、当時の百濟滅亡後の情勢を提示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です。対応する部分を取り出してみると、次のように整理できます。

于時日本餘嘯、拋扶桑以逋誅、↔ 風谷遺眈、負盤桃而阻固。

萬騎亘野、与蓋馬以驚塵、↔ 千艘橫波、援原虵而縱瀾。

ここでまず、「日本」の単語に直接関わる前段部分で、対句を構成する個々の単語に目を向けますと、

日本—風谷、餘嘯—遺眈、扶桑—盤桃、逋誅—阻固

という対応語句がすぐわかります。さらにいうと、「日本—扶桑」に対する「風谷—盤桃」という関係も問題になりそうです。

この語句の構成をふまえ、少し私の考えているところ、一つの解釈の可能性を示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日本」に対する「風谷」の解釈です。風谷という固有名詞で想起されるのは山西省太原北西の地名ですが、それはこの場には適合しない。風谷に関わる地名はそれ以上に出てきません。そこで注目するのが、先に申した日本—風谷の対応関係、また「扶桑」が介在していることをふまえると、「陽（陽）谷」の語が風谷のところに入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一つの解釈が導き出されることです。例えば『淮南子』第三卷・天文訓に次の史料があります。

日出于陽谷、浴于咸池、扞于扶桑、是謂晨明。登于扶桑、爰始将行、是謂朏明。

この陽谷（陽谷）の所在については、『書経』堯典にこうありました。

乃命羲和、欽若昊天、歷象日月星辰、敬授人時、分命羲仲、宅嵎夷、日暘谷、寅賓

出日、平秩東作。……

ここに出る「嶠夷」という、ただちに「禰軍墓誌」の最初に来る彼の本貫「熊津嶠夷人也」とある「嶠夷」が想起されます。嶠夷の語はもともと東方、山東地区を指す言葉であったようですが¹²⁾、いつしか百済においてそれが使われ、唐も百済地区を指す言葉として定着させていたように思われます¹³⁾。こうして「風谷」を「陽谷」で読み替えてみるならば、さらに「嶠夷」を介して百済にまで繋がるのがわかるでしょう。あくまで当面考えられる一つの解釈の可能性として。

ではなぜ「陽谷」の代わりに「風谷」の言葉を用意する必要があったのか。その理由は、対句の関係で表現するために、最初に「日本」を使った以上、日=陽=陽となる同系統の語は使えないから、文脈から意味は容易に類推できるが表現は異なる「風谷」が当てられたること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しますと、「日本」という語は固定した位置にあったこと、その言葉の重みが強く意識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風谷」の次に問題となるのが「盤桃」ですが、これも「扶桑」に対応する言葉として意識する必要があります。「盤桃」に直結する出典としては、隋煬帝が大業八年(612)の第一次高句麗遠征を命じた詔のなかに、

粵我有隋、誕膺靈命、兼三才而建極、一六合而為家。提封所漸、細柳・盤桃之外、声教爰暨紫舌・黃枝之域。(『隋書』卷四・煬帝紀下・大業八年春正月・壬午条)と出てきます。隋の領域が「細柳・盤桃の外(遠域)」にまで及んだといえます。この隋の領域について、別に「我大隋之有天下、於茲三十八載。高祖文皇帝聖略神功、載造區夏。世祖明皇帝(煬帝)則天法地、混一華戎。東暨蟠木、西通細柳、前踰丹徼、後越幽都。……」¹⁴⁾とも表現されます。盤桃とは蟠木のこと、「東海中の度索山(あるいは「滄海中の度朔山」)上に、三千里にわたって根を張り、枝幹を張る大桃樹」¹⁵⁾の場所となります。隋は、東の盤桃(蟠木)の地から西の細柳までを領有したと誇ることが、その表現に込められています。

ところでこの細柳に関わって、もう一つ『論衡』卷一一・説日篇にある記事、

日且出扶桑、暮入細柳。扶桑、東方之地、細柳、西方之野也。桑・柳天地之際、日

12) 『漢書』卷28上・地理志八上「海岱惟青州」条の師古注に「嶠夷、地名也。即陽谷所在。」とあり、「嶠夷=陽谷」と解釈する。

13) 『旧唐書』卷199上・新羅伝に「顯慶五年、命左武衛大將軍蘇定方為熊津道大總管、統水陸十萬。仍令〔金〕春秋為嶠夷道行軍總管、与定方討平百濟、俘其王扶余義慈、献于闕下。」として、百済地区を表すのに「熊津道」「嶠夷道」の語が用いられている。

14) 『隋書』卷59・越王侗伝。越王が李密を招いた時に降した書状。

15) 『史記』卷一・五帝本紀・帝顓頊の「東至于蟠木」に付けられた『集解』：「海外經曰、東海中有山焉、名曰度索。上有大桃樹、屈蟠三千里。……」および『論衡』訂鬼篇所引の「山海經(今本無)」：「滄海之中、有度朔之山、上有大桃木、其屈蟠三千里……」。

月常所出入之處。

についても注意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これによれば「西方」の細柳に対応するのが「東方」の「扶桑」、そして両者は「天地之際、日月常所出入之處」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つまり「扶桑」とは天と地が交わり、太陽や月が出てくる最東端の場所となります。対する「盤桃（蟠木）」は、東方であっても扶桑よりは中国側に近い範囲の、具体性をもって意識される場所（地域）として観念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ちなみに滄海（＝大海）というふつうに考えられるのが渤海です。広く渤海湾から黄海までを含めてよいかもしれません。朝鮮三国を「海東三国」といい（『旧唐書』百濟伝・新羅伝、『新唐書』百濟伝）、渤海国を「海東盛国」（『新唐書』渤海伝）という例からも、「海」が渤海を指すことを裏付けます。

であれば「盤桃（蟠木）」とは、ここでは朝鮮半島のどこかに当てられるだろうことは容易にわかります。そこで再度、前述した『隋書』の「細柳・盤桃之外」の「盤桃」に目を向けると、隋が最大のライバル視した相手＝高句麗を想定していることが見えてきます。『隋書』の時代と「禰軍墓誌」の時代は時期が近接することも考慮して、墓誌の「盤桃」が高句麗辺りを指すものと想定したいと思います。

かくして前掲の「禰軍墓誌」の一節に、次のような解釈をあてることが可能となります。——日本余嚙、拋扶桑以逋誅、風谷遺眈、負盤桃而阻固。

「日本」の余嚙（残党）は、扶桑（最東端の地＝日本の地）に抛って以て誅罰を逋（のが）れ、風谷（百濟）の遺眈（残党）は、盤桃（高句麗）を負って（背景に）阻固す。

「日本の余嚙」とは、顕慶五年（660）に百濟が唐に滅ぼされた当時、「倭国（扶桑）」に「質」として在留していた百濟王子扶余豊（余豊璋）に他ならないでしょう。百濟滅亡後、百濟遺民は国家再興のために彼を迎えて再挙し、それを日本側（斉明天皇一中兄大兄皇子）が全面的に支援し、その挙句が663年の「白村江の戦い」で唐・新羅連合軍に大敗を喫することに繋がります。

そのように考えてきますと、問題の「日本」とは、まさに倭国（およびその領域）を指す言葉と理解できます。禰軍は唐の儀鳳三年（678）の二月十九日に亡くなり、同年十月二日に墓誌と一緒に埋葬されていますから、その時点までにすでに倭を意味する「日本」という国号（地域名）は存在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す。これは前述した「日本」国号の成立年代説、大宝律令制定時とみなす701年説、飛鳥浄御原令制定時とする689年説と比べますと、かなり時間を遡らせる解釈となり、従来の定説に大幅な変更を迫るものとなります。

なお、残る後段の「萬騎亘野，与蓋馬以驚塵，千艘横波，援原地而縱瀾。」の解釈ですが、スペースの関係から簡単に言及しておきます。前段の文面が百濟の残党によ

る抵抗を表現するものであったという前提に立てば、「萬騎亘野」と「千艘横波」が百濟殘党にたいする外部勢力の支援と推定できる。「萬」と「千」は対句の表現とすれば、具体的な数値ではなく、“無数あるいは膨大な数”を表すこととなりますが、ただし白村江の戦いの際に、倭国は実際に膨大な兵員と船団を出しています¹⁶⁾。そう考えれば、「千艘横波」は海からの支援つまり倭国（日本）の動きとなり、「萬騎亘野」は北の高句麗の支援となるのが必然でしょう。

ただ高句麗側の場合、「蓋馬」が何を指すかが引っかけられます。蓋馬という言葉をやりに近いところで探せば、前述の隋煬帝が下した高句麗遠征の詔のなかに、「蓋馬道」の名前が出てきます。この記事に関わる『資治通鑑』の胡三省注に（巻 181・隋・大業八年正月壬午条）、「漢志……蓋馬，屬玄菟郡，有蓋馬大山。」とあり、蓋馬大山が北朝鮮東北部の狼林山脈辺りに重なる可能性があるから¹⁷⁾、「蓋馬」の意味するところは、当時の高句麗の東北部、あるいは高句麗の北側に居住する「靺鞨系種族」の可能性が考え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ただ他に「蓋馬」を“現地（百濟系）の反抗勢力”といった一般名詞的に理解する道も残されていることも付言しておきます。

以上のところをふまえると、後段の記事はおよそ次のようになるでしょう。

高句麗の援軍である「萬騎」が広範に展開し、靺鞨系の「蓋馬」（？）と砂塵を巻き上げて威圧し、一方、倭国の援軍である「千艘」の軍船が波を蹴散らして迫り、百濟系の抵抗勢力（原虵）を支援して勝手気ままに振る舞っている。

したがってこの後段の記事からも、百濟の滅亡からその殘党の抵抗、そして 663 年の白村江の戦いに至る状況が記さ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となりますが、この部分については今後さらに詰める予定です。なお従来の「禰軍墓誌」解釈では、だれもこの記事に踏み込んだ解釈をしていないことは強調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六、国号「日本」成立の背景 六、從百濟滅亡到白村江之戰

以上、「禰軍墓誌」における 660 年の百濟滅亡から 663 年の白村江の戦

16) 参考までに『日本書紀』巻 27・天智天皇の条から、倭の百濟支援に関わる記事を挙げておきたい。

〔齊明七年(661)〕九月、皇太子、御長津宮、以織冠授於百濟王子豐璋、……率軍五千餘、衛送於本國。於是、豐璋入國之時、福信迎來稽首、奉國朝政、皆悉委焉。

〔天智稱制〕元年(662)春正月辛卯朔丁巳、賜百濟佐平鬼室福信矢十萬隻・絲五百斤・綿一千斤・布一千端・韋一千張・稻種三千斛。三月庚寅朔癸巳、賜百濟王布三百端。……八月、遣前將軍大花下阿曇比羅夫連……等、救於百濟、仍送兵杖・五穀。……〔十二月〕是歲、爲救百濟、修繕兵甲、備具船舶、儲設軍糧。〔二年(663)〕三月、遣前將軍上毛野君稚子・間人連大蓋……、率二萬七千人打新羅。……〔八月〕戊戌、賊將至於州柔、繞其王城。大唐軍將率戰船一百七十艘、陣烈於白村江。戊申、日本船師初至者與大唐船師合戰、日本不利而退（＝白村江の戦い）。

17) 『中国歴史地図集』第三冊・三国魏・幽州条（10頁）、同・第五冊・隋・遼西諸郡室韋靺鞨等部条、参照。

いままでの時期に関わる記事の分析を通して、「日本」の語が倭国に代わる国名ないし地域名を表す可能性を論じてきました。

では国名を倭から「日本」に変えさせた裏に何があったか。一つの理由は前述したように、「倭」名に込められた蔑視の観念、非文明のイメージ、それらを払拭したいとの強い思いです。その上で注目したいのは、663年の白村江の戦いで大敗したこと、倭の国内ではそれに続いて唐・新羅連合軍が攻め込んでくるとの危機感に包まれます。その危機感の下で、各地の防衛体制が強化され¹⁸⁾、中心に立つ天皇の集権的体制が強まり、ナショナリズムが高まったものと推定されます。とすると、人々の間に“守ろうとする自国の国名”に目が向かうのは当然であり、そこに「日の本」たる「日本」の名が現れます。

「日本」の名の起点は、『隋書』倭国伝に載る倭の遣唐使をめぐる言動に求められます。まず隋文帝の開皇二十年（600）に最初の使者が訪れたとき、

上令所司訪其風俗。使者言「倭王以天為兄，以日為弟，天未明時出聽政，踟躕坐，日出便停理務，云委我弟。」高祖曰、「此太無義理。」於是訓令改之。

とあるように、文帝から倭の風俗を問われた時に、使者は「倭王が天を兄、日を弟とする」、つまり倭王は「天と日」の間の存在と答え、文帝から「此太無義理。」と批判される。ついで、煬帝の大業三年（607）に倭の遣隋使（小野妹子）がもたらした国書に、「日出處天子、致書日没處天子、無恙云云。」と記されていて、煬帝に「蛮夷書有無礼者、勿復以聞。」と激怒させたことは周知のところですが、倭王はこのように「日」との関わりを以て隋帝の前に姿を現しました。

この煬帝の怒りの原因がどこにあるか、これについて近年の解釈の基調は、倭の側が「天子」と称したこととあり、「日出處」は主たる問題ではなかったとされていますが¹⁹⁾、果たしてどうでしょうか。私は「日出處天子」全体に煬帝の怒りをよぶ原因があったと考えますが、今はそれ以上に踏みこみません。ただし「日出處」も関わって煬帝を激怒させたことは、当然の朝鮮三国に知られるはずであり、であれば三国は、自国の名称や表現に関わる場所で「日」に繋がる表現を使うはずはなく、中国側もあえて「日本」を朝鮮三国にあてることはあるのでしょうか。第一、三国には「倭」と

18) 白村江の戦いから日本国内の防衛体制については、森公章編『倭国から日本へ

日本の時代史3』（吉川弘文館、二〇〇二年）の「百濟救援と近江朝廷の日々」参照。¹⁶⁾

19) 東野治之「日出處・日本・ワークワーク」（『遣唐使と正倉院』岩波書店、一九九二年）、河内春人「遣隋使の「致書」国書と仏教」（前掲注5書所収）参照。

は違う自前の正式な国名がありました。

「日出処」は「日の本」＝「日本」とほぼ同義とってよいでしょう。したがって「日本」の国名の起点ないしは方向性は、倭の遣隋使とくに607年の時点に求められると考えられます。「日本」が成立する背景にはそのような長い時間的経過があり、中国も朝鮮三国も、東アジア最東端の倭国がそれを名乗ることに特段違和感を感じていなかったとみてよいでしょう。こうした面からいって、「禰軍墓誌」に使われる「日本」は単なる一般名詞とは扱えない重みをもつことは明らかです。

七、東野氏關於「日本」的理解及其疑問

だが日本の学界では、「禰軍墓誌」の「日本」を“倭と繋がる固有名詞”と理解する立場は少数派に近いかもしれません。日本は倭を指すものではないとの主張が、当墓誌が知られた直後から出されています。それを説く先頭に立つのが東野治之氏であり²⁰⁾、日本の古代史や文学の分野で最も支持を集める説であるように思われます。その前提には、「日本」国号は七〇一年の大宝令で定められ、それを大宝の遣唐使（粟田真人）が中国に伝え、武后（武周皇帝）の承認をうけてはじめて機能する、という牢固とした考え方があります（前掲）。

また八世紀になっても日本国内では「大倭国」など倭の字が用いられており、倭名を特段まずい文字とは解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次の『続日本紀』天平勝宝元年（749）四月朔日条の事例も傍証に使われています。

此大倭国者、天地開闢以来爾、黄金波人国用理献言波有登毛、斯地者無物止念部流仁……

さらに小川昭一氏の研究をふまえ²¹⁾、唐代の詩文に見える「日本」が新羅や百済を指すことも重要な論拠とします²²⁾。

その上で東野氏は、「禰軍墓誌」の「日本餘嚙」に対応する「風谷遺甿」の文章構造を問題とし、「風谷」が固有名詞でない以上、「日本」も倭を指す固有名詞となら

20) 東野治之「百濟人禰軍墓誌の「日本」」（『図書』二〇一―二―二）・同「日本国号の研究動向と課題」（『東方学』一二五、二〇―三年）。

21) 小川昭一「唐代の日本という称呼について」（『中哲文学会報』一、一九七四年）

22) 『杜陽雜編』（唐・蘇鶚撰、乾符三年=876）巻上

大中中、日本国王子来朝、献宝器音楽。上設百戲珍饌以礼焉。王子善围棋。上勅顧師言待詔为对手。王子出楸玉局・冷暖玉棋子云、「本国之東三万里有集真島。島上有凝霞台。台上有手談池。池中產玉棋子。不由製度、自然黑白分焉。冬温夏冷。故謂之冷暖玉。又產如楸木。狀類楸木。琢之為棋局。光潔可鑒。」及師言与之敵手、至三十三下、勝負未決。……

（参考）『旧唐書』卷一八下・宣宗本紀・大中二年（848）条

三月己酉、……日本国王子入朝貢方物、王子善碁、帝令待詔顧師言与之对手。

ないとします。かくして導き出される「日本」解釈は、広く百濟・東アジアを指す言葉であって、倭国に特定されるものではない、言い換えれば“中国から見て東方”を意味する「日本」の最古の用例が「禰軍墓誌」の「日本」であった、結論づけます。

しかし私は、前述しましたようにその説には賛同できません。東野氏の所説には多くの疑問点がありますが、詳細は他日に譲り、ここでは一部の指摘に止めます。何よりも先ず、氏は、「禰軍墓誌」の「日本」が出てくる「于時日本餘嚙，據扶桑以逋誅，風谷遺毗，負盤桃而阻固。」の部分だけを取りあげ、その背後にある時代状況（百濟滅亡から倭の白村江敗戦、およびその後の東アジア動向）が視野に収められていない。7世紀における「倭」から「日本」へと転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背後の時代状況も考慮されていない。

そもそも氏が重要な論拠とされた小川氏の考察は、8世紀・9世紀の文学的な「日本」表現であり、「禰軍墓誌」の場合にはまったく次元を異にします。8世紀に日本で使われたという倭字は、あくまで「大倭国」としての使用であって、倭の単独一字使用でも、倭人という表現でもない。つまり「大倭国」と「倭（倭人）」とはそこに込められた意味がまったくちがっているのです。

最後に改めて申しておきますが、「禰軍墓誌」における「日本」はやはり日本列島の国あるいは地域を意味する用語であった、というのが私の結論です。墓誌に拠れば、その「日本」の語が浮かび上がるのが、百濟の滅亡（660年）から百濟系の激しい抵抗を経て、白村江の戦いで倭が敗北する（663年）までの時期であります。その後さらに倭国は、唐・新羅連合軍が攻めてくるという大変緊迫した事態に直面し、その上に最後に、長年友好関係にあった高句麗が滅亡させられます（668年）。

660年代は朝鮮半島を中心とする東アジアが大きく揺らぎ、様相を一変させた時期にあたります。その変動の中で倭国も自国のあり方に変更を迫られ、初めて本格的なナショナリズムが芽生え、国号「日本」が定着したと考えられます。ではその時はいつか。私は『新唐書』日本伝でいう、

咸亨元年、遣使賀平高麗。後稍習夏音、惡倭名、更号日本。使者自言、国近日所出、以為名。

とあるところの「咸亨元年」=670年が適当とみています。倭はその年、唐の「平高麗」を祝う遣唐使を送った後、以後30年間唐朝との関係を絶つこととなります²³⁾。

《参考文献》

23) 参考までにその時期の政治的变化を年表形式で整理しておく

666年正月:唐高宗封禪於泰山, 倭参列(遣唐使)。

668年9月:高句麗滅亡。

670年:「(倭)遣使賀平高麗。」(遣唐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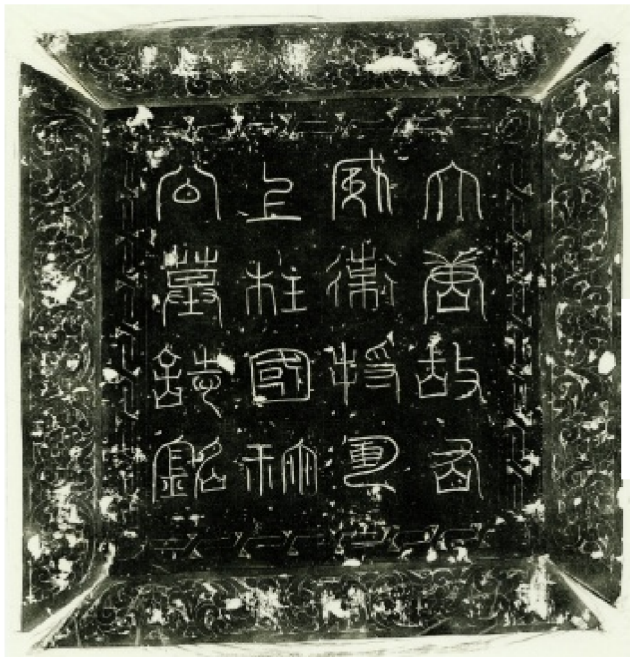
670年(唐咸亨元):「(倭)遣使賀平高麗。後稍習夏音, 惡倭名, 更號日本」(『新唐書』日本傳)

670年(新羅文武王10年)十二月……倭國更號日本, 自言近日所出」(『三國史記』6)

- 王全龍「百濟人《衞氏墓誌》考論」（『社会科学戦線』2007年7期）
- 東野治之「百濟人衞軍墓誌の「日本」」（岩波書店『図書』2012-2）
- 東野治之「日本国号の研究動向と課題」（『東方学』125、2013年1月）
- 荊木美行「衞軍墓誌の出現とその意義」（『皇學館論叢』45-1、2012年2月）
- 西本昌弘「衞軍墓誌中の「日本」と「風谷」」（『日本歴史』779号、2013年4月）
- 葛継勇「『衞軍墓誌』についての覚書——附録：唐代百濟人関連石刻の积文——」（『専修大学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6号、2012年3月）
- 葛継勇「『風谷』と『盤桃』、『海左』と『瀛東』——衞軍墓誌の「日本」に寄せて（三）」（『東洋学報』95-2、2013年9月）
- 葛継勇「《衞軍墓誌》所載東方地名称謂」（北京大学国際漢学家研修基地『国際漢学研究通訊』8期、2013年12月）
- 新川登亀男「“日本”称呼与遣唐使」（同上）
- 小林敏男著『日本国号の歴史』（吉川弘文館、2010年9月）
- 鈴木靖民「東アジア世界史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史—梁の国際関係・国際秩序・国際意識を中心に—」（『専修大学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6号、2012年3月）
- 早稲田大学古代東アジア史ゼミナール「衞軍墓誌訳注」（『史滴』34、2012年12月）
- 井上亘「衞軍墓誌「日本」考」（『東洋学報』95-4、2014年3月）
- 神野志隆光著『「日本」とは何か 国号の意味と歴史』（講談社現代新書2005年）
- 氣賀澤保規「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の始まり——近年発見の百濟人「衞軍墓誌」の理解をめぐって」（『白山史学』50号、東洋大学白山史学会、2014年5月）

祢軍墓誌銘

大唐故右衛將軍上柱國祢公墓誌銘
 公諱寧字溫能津嶋夷人也其先與華同祖永嘉末避亂適東因遂家焉若夫
 嶽嶽歸山跨嶺秀之於華衛靈文逸之高前芳於七子雲馬橫武擅後於蕩
 三輔華構增輝異材繼響綸圖不絕與代有聲曾祖福祖善善是太極一
 焉官号佐平五鐔地義以光身佩天爵而愍國忠俾鐵石操坊拉莠物者道
 之有成則士者文武不墜公雅輝靈祉鶴領生姿涇渭澄波裕光愛日千牛斗
 識靈杖鈞知歸似由余之出我加金碑之入漢 聖上嘉歎擢以榮班授右
 武衛將軍知歸似由余之出我加金碑之入漢 聖上嘉歎擢以榮班授右
 國萬騎巨野與馬以驚塵于艘橫波擢原地而縱跡以公格讓海左寬鎮滄
 東特在蘭齊往北馳而天吳靜擊風隨而雲路通驚兔去侶濟不終夕遂能
 有凌山之赤雀決河曾而天吳靜擊風隨而雲路通驚兔去侶濟不終夕遂能
 騎蒙 天賜諭以福千秩修帝一且稱臣仍領大署望穀十人將入朝謁
 司馬於光千里之是仁副首城之心舉燭靈臺器標於荒城懸月神淵芳掩於
 桂符衣錦畫行官貴無羊藿蒲夜覆字有方去咸亨三年十一月廿一日
 詔永經多祐登焉職馳易往霽洞馬陵之樹川閱難留風驚龍駭之水以從風
 三軍歲在代寅二月朔代子十九年景午道深苑州長安縣之近壽里
 春秋六十有六 皇情念切惟傷悼者久之贈絹布三百段粟三百斛蔡
 事通溫儀峻明珠不類白珪學士葉檢校本術長史王行奉恩護公雅識
 尚其美羊卷學扶之翼遠報連卷之帶粵以其年十月甲申朔二日百葬
 於葬州軋封縣之高陽里禮也駟馬悲鳴九有長往月輪夕駕呈精飛上日落
 樹芳名於壽家其詞曰 松聲響沙文榭字可通隨武山子安仰清風之歌
 宵淵青丘步基華麗賦遠題會近時濟族博秀許茶相銜歎歎風影程見
 無替其惟公基華麗賦遠題會近時濟族博秀許茶相銜歎歎風影程見
 歌今載指存基華麗賦遠題會近時濟族博秀許茶相銜歎歎風影程見
 哥於朝露靈輜子遠轉嘶嘶子踟躕嗟陵谷之賀還觀音徽之靡哉



祢軍墓誌蓋

백제인 「禰軍墓誌」 속 ‘日本’의 이해 및 그 과제에 대하여

氣賀澤保規 (明治大學)

‘日本’이라는 국호는 701년에 제정된 ‘大寶令’에서 정해졌다는 것이 오늘날 거의 공통된 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년 中國 西安(옛 長安) 지역에서 발견된 「禰軍墓誌」라는 백제인 묘지(678년)에는 ‘日本’이라는 명칭이 있고, ‘日本’이라는 국명의 시작을 둘러싼 해석에 새롭게 문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墓誌에 의해 660년의 백제 멸망부터 시작되는 한반도·동아시아의 대변동을 고찰할 귀중한 재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보고는 이 신발견자료에 나타난 ‘日本’의 의미를, 동시대(660년대)의 격동하는 한반도·동아시아의 시대상황 속에서 재검토하고, 그것이 일본열도 내지는 ‘日本’이라는 국명과 접칠 가능성을 고찰하겠습니다. 그리고 ‘日本’이라고 이름붙이는 일의 기점이 607년의 遣隋使인 小野妹子가 전한 ‘국서’에 기록된 ‘日出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학계에서는 「禰軍墓誌」의 ‘日本’을 “倭와 관계되는 고유명사”라고 이해하는 입장은 소수파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倭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이 묘지가 알려진 직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정하는 선두에 선 것이 토노 하루유키[東野治之]씨이고, 일본의 고대사나 문학 분야에서 가장 지지를 모으는 설인 듯이 생각됩니다. 그 전제에는 ‘일본’ 국호는 701년의 大寶令에서 정해져 그것을 大寶 연간의 遣唐使인 아와타노 마히토[粟田真人]가 중국에 전하여, 武周의 황제인 則天武后의 승인을 받아서 비로소 기능한다는 견고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또 8세기가 되어서도 일본 국내에서는 ‘大倭國’ 등 倭 자가 사용되고 있어서, 倭라는 이름을 특별히 좋지 않은 문자라고 해석하지는 않았다는 다음의 『續日本紀』 天平勝寶元年(749) 4월 초하루조의 사례도 방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此大倭國者，天地開闢以來爾，黃金波人國用理獻言波有登毛，斯地者無物止念部流仁…

게다가 오가와 쇼이치[小川昭一]씨의 연구에 입각하여 唐代 詩文에 보이는 ‘일본’이 신라나 백제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한 논거로 삼습니다.

더욱이 토노씨는 「禰軍墓誌」의 ‘日本餘嚙’에 대응하는 ‘風谷遺毗’의 문장구조를 문제로 삼아 ‘風谷’이 고유명사가 아닌 이상, ‘日本’도 倭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출되는 ‘일본’ 해석은 넓게 백제·동아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어서 倭國에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중국에서 보아 동쪽”을 의미하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용례가 「禰軍墓誌」의 ‘日本’이었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설에는 찬동할 수 없습니다. 토노씨의 설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다른 날로 양보하고, 여기에서는 일본의 지적에 그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토노씨는

「禰軍墓誌」의 ‘日本’이 나오는 ‘于時日本餘嘯，據扶桑以連誅，風谷遺毗，負盤桃而阻固.’라는 부분만을 다루어, 그 배후에 있는 시대상황(백제 멸망부터 倭의 白村江 패전 및 그 후의 동아시아 동향)이 시야에 놓여져 있지 않다. 7세기의 ‘倭’부터 ‘日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배후의 시대상황도 고려되어 있지 않다.

본래 토노씨가 중요한 논거로 삼은 오가와씨의 고찰은 8세기·9세기의 문학적인 ‘일본’ 표현이고, 「禰軍墓誌」의 경우에는 전혀 차원을 달리 합니다. 8세기에 일본에서 사용되었다는 倭 자는 어디까지나 ‘大倭國’으로서의 사용이어서 倭라는 단독 사용도 倭人이라는 표현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大倭國’과 ‘倭(倭人)’에는 거기에 포함된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해 둥니다만, 「禰軍墓誌」에서의 ‘日本’은 역시 일본열도의 나라 혹은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였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墓誌에 의하면, 그 ‘일본’이라는 말이 드러나는 것이 백제의 멸망(660년)부터 백제계의 격렬한 저항을 거쳐 白村江 전투에서 倭가 패배하기(663년)까지의 시기입니다. 그 후 다시 倭國은 唐·新羅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는 매우 긴박한 사태에 직면하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우호관계에 있었던 고구려가 멸망됩니다(668년).

660년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가 크게 흔들려서 양상을 일변시킨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 변동 속에서 倭國도 자국의 존재방식에 변경을 강요받아 처음으로 본격적인 내셔널리즘이 싹트고 국호 ‘일본’이 정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저는 『新唐書』 日本傳에서 말하는

咸亨元年，遣使賀平高麗。後稍習夏音，惡倭名，更號日本。使者自言，國近日所出，以爲名。

이라는 바의 ‘咸亨元年’=670년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倭는 그 해, 唐의 ‘平高麗’를 축하하는 遣唐使를 보낸 후, 이후 30년간 唐朝와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百济《祢军墓志》中的“日本”的理解及其课题

气贺泽保规（明治大學）

一般认为“日本”这一国号是由701年制定的《大宝令》所定。但是，近年在中国西安（过去的长安）出土的百济人的墓志《祢军墓志》（678年）里发现有“日本”之名称，为“日本”这一国名何时开始，提供新的争议点。同时，这一墓志，对660年的百济灭亡开始的韩半岛和东亚大变动，提供重要史料。

本文将重新分析新发现资料里出现的“日本”的意义，以及同时代（660年代）跌宕起伏的韩半岛和东亚时代的背景，以及其与日本列岛以及“日本”之名相重叠的可能性。另外，也要探讨冠名“日本”之名的开始可否从607年的遣隋使小野妹子所传《国书》所记录的“日出处”寻找。

日本学界对《祢军墓志》中的“日本”理解为“与倭相关联的固有名词”的人也许是少数。这一墓志出土后不久，即有这里的“日本”不是指“倭”的主张。其中的代表性人物就是东野治之，他的主张在日本古代史和文学领域受到最多的支持。其前提是“日本”之国号是在701年依《大宝令》所定，在大宝年间，遣唐使栗田真人传到中国，然后得到武周皇帝则天武后的承认后开始正式使用。这样的主张已经根深蒂固。

此外，到了8世纪时，在日本国内使用“大倭国”等倭字，说明“倭”字并没有特别不好的意思。《续日本纪》（天平胜宝元年（749）4月初一条也可证明：

此大倭国者，天地开辟以来尔，黄金波人国用理献言波有登毛，
斯地者无物止念部流仁…

再加上根据小川昭一的研究，唐代诗文中的“日本”是指新罗和百济也作为重要论据。

特别是，东野对《祢军墓志》的对应“日本余嚙”和“风谷遗眈”的文章结构，指出“风谷”不是固有名词的话，“日本”也不能成为指称倭的固有名词。由此推出的对“日本”的解释是，泛指百济和东亚，不是特指倭国。换句话说，作为表达“在中国以东”意思的“日本”的最早用例是《祢军墓志》中的“日本”。

但是，本人不能同意他的主张。东野的主张有很多疑问，详细内容不在这里赘述，这里只探讨部分。首先，东野只看《祢军墓志》中出现日本的“于时日本余嚙，据扶桑

以逋誅，風谷遺眈，負盤桃而阻固”这一部分，而没有看到其背后的时代背景（百济灭亡至倭的白村江战败以及其后的东亚动向），也没有考虑从7世纪的“倭”不能不转换到“日本”的时代背景。

本来东野作为重要论据的小川的考查是8、9世纪的文学上的“日本”之意，《禰军墓志》的情况完全不同。8世纪在日本使用的“倭”字就是指“大倭国”，因此，“倭”字的单独使用也不是指倭人。换句话说，“大倭国”和“倭（倭人）”所包含意义完全不同。

最后，再次要强调的是我的结论，那就是《禰军墓志》中的“日本”就是指日本列岛国家或地区的用语。《墓志》显示，“日本”之语出现的时期就是百济灭亡（660年）开始到百济系激烈抗争后，在白村江战斗中倭战败（663年）。其后，倭国再次面对唐和新罗联合军攻击的关键时刻，最后，长期友好关系的高句丽灭亡（668年）。

660年代，以韩半岛为中心的东亚地区是发生巨变的时期。在这样的变化期，倭国也被要求改变本国的存在方式，于是首次出现民族主义，国号“日本”也普及。那么这一时期是何时呢？

根据《新唐书》日本传：“咸亨元年，遣使贺平高丽。后稍习夏音，恶倭名，更号日本。使者自言，国近日所出，以为名。”

这里的“咸亨元年”应是670年。倭在当年，为祝贺唐的“平高丽”而派出遣唐使后，30年间，与唐朝中断关系。

「日本」という国号は、701年に制定された「大宝令」で定まったというのが、今日ほぼ共通した認識となっています。しかし近年、中国西安（旧長安）の地で見つかった「禰軍墓誌」という百濟人墓誌（678年）には、「日本」という名称があり、「日本」の国名の始まりをめぐる解釈に、新たな問題を投げかけることになりました。同時にこの墓誌によって、六六〇年の百濟滅亡から始まる朝鮮半島・東アジアの大変動を考える貴重な材料が提供されました。

本報告は、この新発見資料に現れた「日本」の意味を、同時代（660年代）の激動する朝鮮半島・東アジアの時代状況のなかで見直し、それが日本列島ないしは「日本」という国名と重なる可能性を考えます。そして「日本」と名乗ることの起点が、607年の遣隋使・小野妹子が伝えた「国書」に記された「日出処」に求め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ということにも言及したいと思います。

だが日本の学界では、「祢軍墓誌」の「日本」を“倭と繋がる固有名詞”と理解する立場は少数派に近いかもしれません。日本は倭を指す**ものではないとの主張が**、当墓誌が知られた直後から出されています。それを説く先頭に立つのが東野治之氏であり、日本の古代史や文学の分野で最も支持を集める説であるように思われます。その前提には、「日本」国号は七〇一年の大宝令で定められ、それを大宝の遣唐使（粟田真人）が中国に伝え、武后（武周皇帝）の承認をうけてはじめて機能する、という牢固とした考え方があります（前掲）。

また八世紀になっても日本国内では「大倭国」など倭の字が用いられており、倭名を特段まずい文字とは解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次の『続日本紀』天平勝宝元年（749）四月朔日条の事例も傍証に使われています。

此大倭国者、天地開闢以来爾、黄金波人国用理献言波有登毛、斯地者無物止念部流仁……

さらに小川昭一氏の研究をふまえ、唐代の詩文に見える「日本」が新羅や百済を指すことも重要な論拠とします。

その上で東野氏は、「祢軍墓誌」の「日本餘嚙」に対応する「風谷遺眈」の文章構造を問題とし、「風谷」が固有名詞でない以上、「日本」も倭を指す固有名詞とならないとします。かくして導き出される「日本」解釈は、広く百済・東アジアを指す言葉であって、倭国に特定されるものではない、言い換えれば“中国から見て東方”を意味する「日本」の最古の用例が「祢軍墓誌」の「日本」であった、結論づけます。

しかし私は、前述しましたようにその説には賛同できません。東野氏の所説には多くの疑問点がありますが、詳細は他日に譲り、ここでは一部の指摘に止めます。何よりもまず、氏は、「祢軍墓誌」の「日本」が出てくる「于時日本餘嚙，據扶桑以逋誅，風谷遺眈，負盤桃而阻固。」の部分だけを取りあげ、その背後にある時代状況（百済滅亡から倭の白村江敗戦、およびその後の東アジア動向）が視野に収められていない。7世紀における「倭」から「日本」へと転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背後の時代状況も考慮されていない。

そもそも氏が重要な論拠とされた小川氏の考察は、8世紀・9世紀の文学的な「日本」表現であり、「祢軍墓誌」の場合にはまったく次元を異にします。8世紀に日本で使われたという倭字は、あくまで「大倭国」としての使用であって、倭の単独一字使用でも、倭人という表現でもない。つまり「大倭国」と「倭（倭人）」とはそこに込められた意味がまったくちがっているのです。

最後に改めて申しておきますが、「禰軍墓誌」における「日本」はやはり日本列島の国あるいは地域を意味する用語であった、というのが私の結論です。墓誌に拠れば、その「日本」の語が浮かび上がるのが、百濟の滅亡（660年）から百濟系の激しい抵抗を経て、白村江の戦いで倭が敗北する（663年）までの時期であります。その後さらに倭国は、唐・新羅連合軍が攻めてくるという大変緊迫した事態に直面し、その上に最後に、長年友好関係にあった高句麗が滅亡させられます（668年）。

660年代は朝鮮半島を中心とする東アジアが大きく揺らぎ、様相を一変させた時期にあたります。その変動の中で倭国も自国のあり方に変更を迫られ、初めて本格的なナショナリズムが芽生え、国号「日本」が定着したと考えられます。ではその時はいつか。私は『新唐書』日本伝でいう、

咸亨元年、遣使賀平高麗。後稍習夏音、惡倭名、更号日本。使者自言、国近日所出、以為名。

とあるところの「咸亨元年」=670年が適当とみています。倭はその年、唐の「平高麗」を祝う遣唐使を送った後、以後30年間唐朝との関係を絶つこととなります

洛阳近年新见唐代墓志述略

毛陽光 (洛阳师范学)

洛陽近年新見唐代墓志述略

毛陽光 (洛陽師範學)

洛陽作為中國中古時期重要的都城，對這一時期的政治、經濟、文化產生了深遠的影響。而從上個世紀以來洛陽出土的大量墓志資料無疑又極大地推進了中古歷史研究的諸多方面。筆者自從2007年以來，一直從事洛陽流散民間的唐代墓志的整理與研究工作。2010年承擔了國家社科基金項目“洛陽流散唐代墓志整理與研究”。2013年出版了《洛陽流散唐代墓志匯編》一書（國家圖書館出版社2013年），其中以圖版和彙文的形式收入唐代墓志322方。當然，在洛陽從事古代墓志拓本搜集和整理工作的還有趙君平、郭茂育、齊運通等先生，而今天與會的趙振華教授則在洛陽古代石刻研究方面卓有成效。筆者由於精力和學力所限，近年來一直關注流散民間的洛陽唐代墓志。

眾所周知，洛陽唐代墓志主要出自周邊的北邙山、龍門山、萬安山以及洛陽東郊、偃師首陽山等處。上個世紀上半葉，主要出土於邙山。從上個世紀末葉開始，其他各處唐墓開始遭到大量盜掘，唐墓志大量出土。這些墓志很多已經刊布。而近年來，墓志出土比以往已經大為減少，但這並非是打擊盜墓力度加大的原因，而是由於長時間的盜掘，能夠出土墓志的墓葬已經越來越少。因此，近几年，筆者能夠看到的新墓志多是零星出土的，還有一些則是前些年出土，一直沉澱在收藏家手中秘不示人的。

目前流散民間的洛陽唐代墓志仍然有相當大的數量。就收藏情況而言，除了金石文字博物館、龍門博物館、九朝刻石文字博物館、華夏文化藝術博物館等規模較大的民營博物館外，許多收藏家手中都有一定數量唐墓志的收藏，如宋、李、侯、孟、程、朱、莫等，其中不乏重量級墓志。如肅宗時期的宰相崔渙，葬於邙山，墓志有兩方，一方是大曆三年在道州刺史任去世時歸葬洛陽時制作。另一方則是合祔墓志。而德宗時期的宰臣齊抗墓志也已在洛陽出土，但下落不明。而其妻蕭氏墓志目前就在私人收藏家手中。因此，繼續對這部分墓志進行查訪、搜集、整理與研究極為必要。以下將筆者近年來搜集整理的墓志資料做一簡要的概述。請大家批評指正。

長期以來，名人墓志以及名家撰文書丹墓志一直是學術界關注的對象。畢竟這些人物都是中古社會的精英階層，其經歷豐富，涉及到當時政治、經濟、軍事、文化的諸多方面，即便主體內容與傳統正史記載差別不大，但畢竟由於書寫角度和側重點的不同，仍舊具有較高的文獻價值。就兩《唐書》皆有列傳的官員墓志而言，新近發現的有玄宗時期名將郭虔瓘墓志，墓志長寬均73厘米，正書，未見志蓋。首題為“大唐故冠軍大將軍左衛大將軍涼州都督御史大夫同紫微黃門平章兵馬事安西大都護上柱國公墓銘”。墓志由玄宗時期知名文士蘇晉撰文，諸葛嗣宗書丹。郭虔瓘其人兩《唐書》均有傳記，但都較為簡略。《舊唐書》主要記載其開元初年擔任北庭都護，斬殺突厥默啜可汗同俄特勤的事跡。《新唐書》則詳細些，還增加了在西域軍政事務上郭虔瓘與阿史

那獻的矛盾。¹⁾ 但其他則甚少涉及，尤其是郭虔瓘前半生的情況。而新發現的墓志極為詳細地記載了其生平情況，很好地糾正和補充了傳統文獻。我們知道郭虔瓘本名郭湛，字虔瓘。可見郭虔瓘和同時期許多名人一樣，都是以字行。而且郭虔瓘出身官宦世家，其祖郭晟曾任太常卿，其父郭慶則任右監門衛將軍，封義章縣開國子。因此，郭虔瓘是以門蔭入仕，在麟德二年高宗往泰山封禪時，郭虔瓘在左親府充任輦腳。墓志還記載了郭虔瓘的功勳“破阿波啜二萬帳，克拔汗那十六城。斬同俄特勤，梟吐蕃贊普。”也更為詳盡。關於郭虔瓘的去世，《舊唐書》記載“尋遷右威衛大將軍，以疾卒。”《新唐書》載“久之，卒軍中。”而墓志記載，他以年老為由，上表請退，得到玄宗恩准，“祿俸等并令全給”。此后，他回到長安，開元十四年九月二日卒于長安大寧里第，享年八十三歲。從郭虔瓘墓志的官稱來看，他還曾任“同紫微黃門平章兵馬事”，這點也是史書失載的。從郭虔瓘的生平宦迹來看，其事迹主要在西域，回到長安也年屆八旬，因此這應該是玄宗為表優寵之意給予的差遣之職。

而曾在睿宗朝短暫出任宰相，以權謀機變助力玄宗討平韋后及太平公主的崔日用的墓志也在洛陽發現，墓志長76、寬75厘米，隸書，未見志蓋。著名文人許景先撰文，書法家郭謙光書丹。歐陽修在《集古錄》中稱其“工書，其字畫筆法不減韓、蔡、李、史四家，而名獨不著。”崔日用列傳見《舊唐書》卷九九、《新唐書》卷一二一。與兩《唐書》比較來看，墓志主要記載了其善于審時度勢，隨機應變。彈劾鄭普思，反對韋后亂政。最終投靠玄宗，取得功名的權謀之術，“深則洞徹，隱括合乎體道；明必先識，玄鑒合乎知機。”而對於崔日用奉承宗楚客，中宗時期結交安樂公主、武三思等人的行徑則莫諱如深。墓志還濃墨重彩地刻畫了崔日用與玄宗君臣的互動，“公之在冢宰也，嘗奏《封禪書》，陳以盛德之事。后之從朝覲也，嘗賦《五君咏》，叙以君臣之際。明詔優答，錫以繒彩。皆體茲至公，茂昭前訓。”墓志還記載“有文集十六卷”，體現出這位以權謀著稱的高官的文學才能。崔日用開元十年任并州大都督府長史，之后他到東都覲見玄宗。得病后希望去職。在玄宗的勉勵下又回到太原，不久去世。開元十一年二月十三日歸葬邙山旧茔，則這裡也是崔日用的家族墓地。根據墓志記載，崔日用的神道碑由張說撰寫，“忠公政事，世德叙官。已載于丰碑，或陳于詔策。志茲神道，故不備存。”因此墓志中對於其家世和仕宦情況記載不多。可惜，神道碑未見文獻著錄，早已無存了。

新近發現的武周時期宦官符鳳子的墓志也非常有趣。墓志煌煌巨制，長87、寬86.5厘米。志蓋篆書“大周故符君墓志之銘”，四殺裝飾着繁复的花紋。墓志由中書舍人劉憲撰文。墓志詳細刻畫了一位貞觀末年入宮，經歷高宗、武后時期政治風云的宦官的人生。墓志記載，他“篆隸包程子之工，紙墨盡蔡侯之妙。”因此他是以書法技藝在貞觀年間進入內侍省。在高宗時期，他主要是以有品直官的身份在內侍省侍奉。其散官也由從九品上的陪戎校尉一直到從六品上的奉議郎，但一直沒有職事官。弘道元年十二月，高宗死后，由于符鳳子在廢黜中宗的過程中起到了重要作用，“先懷立順之圖，首參建桓之策。”文明元年，他升遷為朝散大夫、行內謁者監。開始進入職事官系統。此后他青云直上，一直受到武則天寵信，“上秩承寵，中涓罕群”。到神功元年，位至銀青光祿大夫、行內給事、上柱國、天水縣開國伯，食邑五百戶。這在武周時期，應該是極為罕見的。

1) 《舊唐書》卷一〇三，《新唐書》卷一三三。

其墓志由著名文士劉憲撰文，也可以顯示其身份的不凡。符鳳子久視元年十一月卅日卒于神都觀德里第，春秋七十有二。大足元年正月廿八日葬于龍門東山。符鳳子墓志是唐前期少見的高品宦官的墓志，從中也反映出宦官在武周建立中的獨特作用。

而文人墓志中值得關注的則有何彥先與鄭惟忠墓志。何彥先在《舊唐書》中僅僅略有提及。只知道是齊州人，與當時文士員半千以著名學者王義方為師，“及義方卒，半千與彥先皆制服，喪畢而去。”²⁾除了上述內容外，《新唐書》卷一二〇《王義方傳》后有“彥先，齊州全節人。武后時，位天官侍郎。”³⁾此外，《冊府元龜》卷五百五十六《國史部·采撰門》有“何彥先，為地官侍郎，撰《三國戰策》十二卷，行于代。”《金石錄》則著錄了其撰文的《襄州靜真觀碑》、《瑞氣觀天尊像碑》。而新發現的何彥先墓志長寬87厘米。著名文士蘇頌撰文。墓志詳細記載了這位文士家世儒業，由廬江遷居山東的經過。何彥先十七歲師事王義方，“覃思百家，研精一紀。藏山坏壁，蠹簡漆書。陳農之所求，倚相之所讀。靡不發揮幽曠，刊正柢梧。”上元二年，應制舉“藻思清華，詞殫文律”中第。之後，先后任監察御史、侍御史、天官員外郎、鳳閣舍人、洛州司馬、太州刺史、天官侍郎、地官侍郎。墓志詳細記載了其在武周時期，執法平允，舉荐人才，兢兢業業的宦迹。何彥先長安三年九月二十五日卒于長安宣陽里，景龍三年與妻裴氏合葬于偃師石橋東首陽原。墓志還記載了何彥先的文學成就，“所著《帝圖秘錄》十卷、《三國戰策》十二卷、《政論》兩卷、《文集》廿卷。”而同時出土的還有其弟何彥則墓志。

曾與著名史學家劉知幾議論“史學三長”的禮部尚書鄭惟忠墓志近年來也在洛陽龍門。鄭惟忠在《舊唐書》卷一〇〇、《新唐書》一二八有列傳。墓志長寬均73厘米。墓志篆書：唐贈少保鄭府君志銘。墓志由其婿崔汪撰文。墓志記載鄭惟忠本名烈，字惟忠，可見其也是以字行。墓志稱其為滎陽開封人，與兩《唐書》“宋州宋城人”不同，墓志所載當為郡望。相比而言，墓志與兩《唐書》記載各有側重，但基本史實無誤。兩《唐書·鄭惟忠傳》重在通過典型事迹刻畫鄭惟忠的忠義與寬厚仁愛。墓志則細緻記載了鄭惟忠的家世及生平仕宦情況，多為兩《唐書》所失載。而其穩健的仕途，七十七歲的享齡恰好與唐代筆記中對其生平“金章紫綬，命祿無涯。既入三品，亦升八座。官無貶黜，壽夭遐長”的評價相印証。⁴⁾

著名書家則有宋儋書丹的《裴友直妻封氏墓志》，墓志2012年出土于萬安山北麓。宋儋在唐代書法理論家竇臯的《述書賦》中有“擅美中州，……開元末，舉場中后輩多師之”的記載，也有“作鐘體而側戾放踪，迹不副名”的評價。宋儋傳世作品極少，以至于宋人黃庭堅有“儋書清勁姿媚，惜不多見”的感慨。目前知道的只有嵩山會善寺的《道安禪師碑》，但上半部已經漫漶不清。⁵⁾而新出土的《裴友直妻封氏墓志》完成于開元十五年三月，與《道安法師碑》完成時間在同一年，二者書法風格極為近似，只是碑刻書法老辣，而墓志更為乖張，個性十足，是極為珍貴的宋儋墓志書法。

唐后期節度使的墓志，筆者搜集到的則有宣武節度使李萬榮墓志和昭義節度使劉悟墓志。其中

2) 《舊唐書》卷一九〇中《員半千傳》，5014頁。

3) 《新唐書》卷一二〇，4161頁。

4) 《太平廣記》卷二二一《魏元忠》。

5) 黃明蘭 朱亮編《洛陽名碑集釋》，157-159頁，朝華出版社2003年。

《李万榮墓志》長寬約74厘米，楷書，寇爽撰。李万榮由于任宣武節度使僅1年就因病去世，因此兩《唐書》的記載頗爲簡略。⁶⁾而墓志對於李万榮的生平以及貞元十一年至十二年五月的汴州軍亂都有較爲細致的記載。墓志稱其爲隴西人，爲漢將李广利之后，世代爲將，之后來到滑州匡城。從其祖父李珪沒有仕宦，父李貞因子貴而得到太子洗馬的職務來看，隴西人之說顯係僞托。此后，李万榮作爲軍將先后跟隨令狐彰、李勉，任濮州刺史。之后又跟隨劉玄佐參與了討伐李希烈的戰事，封泮陽郡王。而李万榮于貞元十年五月取得宣武節鉞，在貞元十二年五月一日夜得病，“上嗟嘆久之。遂降方士就医，手詔存問。中貴織路，天書盈篋篋。”而《旧唐書·李万榮傳》載是在十一年八月。墓志記載其少子李乃乘机奪權。事敗之后，德宗罪只及李乃，并加李万榮太子少保，且讓其到東都療疾。李万榮最終於貞元十二年七月六日才去世，去世時年七十，去世前還向德宗上奏遺表。這与《資治通鑿》載七月丙申（七日）去世的記載基本一致。⁷⁾貞元十二年十一月二十日由其子李向安葬于偃師西原。

《劉悟墓志》早年出自孟津三十里鋪，一直歸洛陽私人收藏。承蒙藏家厚愛，筆者有幸得到一張拓本。墓志形制巨大，長寬達1.35米，2000余字。在目前已經知道的唐代墓志中，除却何弘敬墓志、王元逵墓志、王士真墓志、劉濟墓志之外最大者。畢竟前面這些都是河北藩鎮節度使。而劉悟生前是昭義軍節度使，并非河北藩鎮，却有如此規格的墓志，從中可見劉悟去世之后唐朝中央政府的禮遇。墓志正書，未見志蓋。韋處厚奉敕撰，曹鄂奉敕書。可惜的是：除墓志下部八行外，其余文字悉被人爲鑿毀。該墓志的毀坏明顯出自故意，這應該是會昌四年其孫劉稹叛亂被平定后，唐中央政府除了族誅劉氏家族外，還在東都進行了毀墓行動，墓志就是這時被鑿毀的。值得慶幸的是，大部分被鑿毀的內容可按照字形并結合傳世文獻進行釋讀。墓志主要對劉悟的家族世系，劉悟在平定淄青李師道過程中起到的重要作用，劉悟去世及劉從諫接掌昭義軍的情況，都有正面而細致的記載。畢竟這是韋處厚奉敕撰文。当然，事實并非完全如墓志所記載的那樣。結合兩《唐書》、《資治通鑿》的相關記載，我們知道劉從諫的接任并非一帆風順，唐政府是非常糾結的。

中古時期的洛陽也是世家大族匯聚的重要城市，許多大族的家族墓地都在洛陽的邙山、万安山和偃師首陽山。這些家族成員的墓志近年來也多有出土，可以進行家族史的研究。如“甘露之變”的始作俑者李訓（仲言）撰文的其母《裴清墓志》也在偃師首陽山出土，墓志歸鞏義收藏家收藏。墓志是在大和六年五月其母去世后，在洛陽居喪期間，應其兄姊的要求撰寫的，其兄李仲京書丹。該墓志較爲細致地記載了李訓母系家族及李訓父輩以下的婚姻情況，以及大和年間李氏家道中落之際，裴氏的婦德對家族門風的影響。許多能够彌補《新唐書·宰相世系表》的疏漏，對於了解李訓的家世很有意義。從墓志記載來看，李訓出身姑臧李氏。其父名諱墓志雖然沒有明言，但曾在貞元年間出任泉州刺史，并于貞元十九年卒于泉州。查《唐刺史考全編》卷一五三《江南東道·泉州》，貞元中有刺史李震。⁸⁾李震在《新唐書·宰相世系表》李氏姑臧房有記載，并任泉州

6) 《旧唐书》卷一四五《刘玄佐传附李万荣传》，3933-3934页。《新唐书》卷二一四《刘玄佐传》，6001-6002页。

7) 《资治通鑿》卷二三五，7573页。《新唐书·德宗纪》记载其六月己丑去世。

8) 郁贤皓《唐刺史考全編》，2192页，安徽大学出版社2003年。

刺史，但李震之下无子嗣記載。⁹⁾而李震是肅宗宰相李揆的族侄，与憲宗朝宰相李逢吉是從兄弟。這一点与兩《唐書·李訓傳》所記李訓是李揆族孫，李逢吉從子吻合。¹⁰⁾而李訓兄弟除了文獻記載其兄仲京外，還有兄嬰甫，弟仲褒，异母兄仲文、仲宣。墓志記載，李訓兄弟三人具中進士。從墓志記載李訓父李震及諸兄弟姊妹的婚姻狀況看，皆為河東裴氏、太原王氏、范陽盧氏、博陵崔氏等高門大族。從中可以一窺世家大族的婚姻与家風。

2009年，洛陽偃師出土了中唐著名詩人李益及妻盧氏的墓志，引起了古代文學研究者的關注。2013年，李益次子李当墓志及妻盧氏墓志也在洛陽偃師出土。兩方墓志都形制巨大，《李当墓志》2500余字，內容及其丰富，可以极大地丰富晚唐政治史的資料。而且也可以進一步深入對李益家族的了解。有趣的是李当与前面提到的李訓同出姑臧李氏，是從兄弟的關係。

筆者在研究晚唐宰臣楊收墓志時曾指出，由于晚唐時期戰亂的原因，導致大量文獻未能傳世。因此兩《唐書》的相關記載于此相當疏略，而晚唐墓志由于文風的變化，高級官僚的墓志記載則極為詳盡，能够很好地彌補傳世文獻的不足。而晚唐時期的宰相孫偓及其妻鄭氏墓志，2013年出土于洛陽邙山。孫偓其人，以科第狀元而聞名，《新唐書》卷一八三有傳，但記載極為簡略，尤其是其后半生，僅記其被貶黔州司馬，此后并无記載。而墓志洋洋洒洒近2000字。極為細致地記載了孫偓的生平仕宦、文學、交游等情況。墓志還着重強調其忠于唐朝，不仕宦后梁的忠臣節操，“天佑之后，大臣全名節壽終者一人而已。”該墓志對於晚唐史的研究具有極為重要的意義。

新出土的洛陽粟特移民后裔墓志一直是筆者搜集的重点。此次搜集到的有曹乾琳墓志、石公夫人康媛墓志、康瓘墓志、處士康緒墓志及安義墓志。其中《曹乾琳墓志》2015年2月出土于洛陽龍門張溝附近，志主不僅具有粟特何氏、曹氏聯姻的背景，且是盛唐時期供奉宮廷，“万乘親教殊絕之藝”，受玄宗親自指点的梨園弟子。安史之亂中，曹乾琳離開宮庭，先在淮西節度使李忠臣幕府，之后又居住在洛陽陶化里，死后葬于洛陽龍門天竺寺。是目前唯一一方粟特人梨園弟子的墓志，對於研究這一時期的唐朝与西域的文化交流具有重要的意義。而《石公夫人康媛墓志》是2016年5月新發現的洛陽粟特人墓志，墓志記載“本族西國，后因輸質，枝叶相傳，飄寄年多，今為洛陽人也。”墓志還記載了安史之亂時期，洛陽“万姓波逃，士庶失業”的景象。此次搜集的几方粟特人墓志都是唐后期的洛陽居民，對於我們了解安史之亂后粟特人的動向，此時洛陽粟特人的宗教信仰、婚姻和喪葬都有一定的意義。

突厥人的墓志近年也搜集有數方。其中史大奈之孫史思光墓志，已經交給台灣中正大學歷史系朱振宏教授進行了相關的研究，以《唐突厥族史思光墓志考釋研究》為題，發表在張達志教授主編的《國史論叢》上。近來新收到的則有《阿史那明義之墓志》。墓志載阿史那明義之“曾祖緝繁施，任本藩可汗。祖惠真，本藩特勳。”其父阿史那承休“司徒、同中書門下平章事、云中郡王。”從墓志記載來看，該家族在唐朝強盛時歸附唐朝，“遠慕漢宣之化，遂逐呼韓之朝。”之后為唐朝守衛幽燕之地。由于戰功卓著，阿史那明義之先授右領軍衛左郎將，又轉左司御率府率，又轉左驍衛將軍，又轉左威衛大將軍。安史之亂中，由于其父投靠安祿山，得到了上面的職務和封号。

9) 《新唐書》卷七二《宰相世系表二上》，2453頁。

10) 《舊唐書》卷一六九，4395頁；《新唐書》卷一七九，5310頁。

因此，阿史那明義之得到了司膳卿的職務。他圣武二年八月卒于洛陽尊賢里，之后葬于洛陽城南。這支家族的情況史書未見記載。以往我們知道安史叛軍中的突厥將領只有阿史那承慶，那么他与墓志中的阿史那承休是什么關係？阿史那明義之家族屬於突厥哪一系？還有待深入的研究。

而筆者搜集的另一方突厥后裔墓志則揭示了這些游牧民族的結局。《劇誨如夫人史氏墓志》載其“其先陰山達官，在高宗朝內附，郁爲中華之豪族。”說明史氏祖上是高宗時期內附的突厥貴族。但到了其父史昭，家道中落，只是代州水運押衙。史氏也只能嫁給曾任邠州彙事參軍的劇誨做妾，但史氏謹守婦道“事長上以敬立，撫幼弱以慈聞。舉按而豈止齊眉，進賢而无非后己。中表宗族，曾无間言。”已經是典型的漢族婦女形象了。

此外，源出鮮卑族的素和氏墓志以往未曾出土，而此次筆者也收集到兩方。¹¹⁾其一是《定遠將軍素和喬墓志》，墓志称其河南谷陽人，族源則是“堯之義氏、和氏即其先焉。誅共工氏有功，堯以子仲代居岳牧，清素自守，民吏号曰素和，子孫相承，因而作氏。”尚不如《和守陽墓志》講得清楚，可見這個家族已經入住洛陽較長時間，漢化已經很深。而另一方素和氏墓志，志主是德宗時期名將、徐泗濠節度使張建封的側室。

這些墓志中不少都是高官和文人撰文的。如石抱忠撰文的《張童壽墓志》，蘇瓌撰文的《李重墓志》，呂向撰文的《裴友直妻封氏墓志》，席豫撰文的《張敬輿墓志》，賀知章撰文的《裴子余墓志》，李邕撰文的《尹元綽墓志》，盧若虛撰文的《李渾金墓志》，王魯復自撰墓誌。而《張塽墓志》則是洛陽新近發現的韋述撰文，徐浩書丹的墓志，墓志出土于伊川万安山張說家族墓地。張塽是張說第三子，因天宝十三載受其兄張均、張垆牽連，被貶宜春郡司馬，行至汝州驛舍去世。之后葬于万安山祖茔。這些都會丰富唐代文學史研究的內容。

通過對這些年來大量新出土唐墓志的研究，還可以糾正以往一些墓志記載的錯誤。如早在清末就在偃師出土的《柴憲墓志》，其人曾任郎官、給事中、中書舍人、大理少卿、工部侍郎、兗州都督，最后官至太子賓客。且著作甚丰，“又嘗着《中道》、《通教》二論，注《周易》，撰《三傳通志》廿卷，集《內經藥類》四卷，合《新旧本草》十卷。”由于出土時墓志姓氏就已經殘缺，而墓志中又有“漢有大將軍棘蒲侯武……平陽侯”等字句，而漢史中棘蒲侯有陳武和柴武兩說，因而被誤認爲姓陳。因此，《陳憲墓志》被收入《中州金石記》及《金石萃編》卷七七、《全唐文》卷九九五等書中。¹²⁾墓志還有“祖遠，雄武多大略，征晋昌令，不□。□□□□高量，系辭辟命，沒諡真隱先生。”近年來，其家族成員墓志相繼在偃師出土。其中大唐西市博物館近年收藏的《柴朗墓志》記載“父遠，隋上大將軍，皇朝樂昌令。”柴朗去世后，“執友等考行易名，諡曰：真隱先生。”¹³⁾志載其長子令將。則此墓志志主爲柴憲。此外，柴憲弟柴晦、侄柴闕墓志近年均在洛陽偃師出土，均散落民間。其內容也與《柴朗墓志》《柴憲墓志》一致。¹⁴⁾

11) 千唐志齋藏民國出土《和守陽墓志》，亦源出素和氏，彼時已改姓和氏。

12) 董誥《全唐文》卷九九五，第10307-10308頁，中華書局1983年。此後，《唐代墓志匯編》開元二三七也有收錄。

13) 胡戟榮新江主編：《大唐西市博物館藏墓志》一五五《柴朗及夫人楊氏墓志》，北京大學出版社2013年。

14) 毛陽光 余扶危主編《洛陽流散唐代墓志匯編》一《柴晦墓志》，國家圖書館出版社2013年。

近年來，由于墓志的文物价值被收藏界所認可，因此被盜掘后价格居高不下，也滋生了翻刻和偽造墓志的情况。一些有問題的墓志拓本在洛陽學者此前出版的几种圖录中就有收录。筆者也常常注意一些被翻刻墓志原拓本的收集，如晚唐名臣崔安潛之兄崔彥冲，以廉洁守正而著称，但收入《秦晋豫新出土墓志搜佚》中的《崔彥冲墓志》拓本，翻刻痕迹明顯。另外，《河洛墓刻拾零》收入的《薛鄭賓墓志》拓本也是翻刻品。¹⁵⁾ 洛陽師範學院收藏有該翻刻品。而原石經過我多年查訪目前已經找到，目前就在洛陽師範學院河洛文化中心張存才墓志精品館中展出。對比二者，差別還是非常明顯的。筆者這裡展示的都是原石拓本。当然，唐代墓志還存在夫妻一方先去世，之后合葬或合祔時將原來的墓志重新上石刊刻的情况，因此也會出現一人兩志，且極為相似的情况，這就要另當別論了。如筆者搜集的晚唐崔凝妻李氏磚志，相同內容的墓志還有一方考古發掘的石質墓志。兩志內容与格式均相同，只是發掘品在墓志左下角有“凝自書”三字，磚志沒有。¹⁶⁾ 此磚志當為李氏去世后，其夫崔凝將其安葬時制作，考古發掘品當為崔凝去世后合祔時所刻。

就筆者近年的訪察，流散民間的墓志情况堪憂，如筆者近來見到的民國出土的《泉州長史張言歲墓志》，由于一直散落民間保存不善，大多數字迹已經漫漶不清，還有人為刻畫的痕迹，頗為可惜。¹⁷⁾ 但畢竟還有存世的拓本流傳。而許多流散民間的墓志則沒有這樣幸運，龍門博物館新入藏的沈佺期撰文的《唐澤州高平縣令林公故夫人天水姜氏墓志》，墓志巨大，長寬近90厘米。也是早年出土，未見拓本流傳，墓志上被人為打了四个眼，据称原石被工厂作為固定机器的底座。現今石面已經極其漫漶，除前几行字迹尚依稀可辨，大部分已經無法釋讀，令人扼腕。

15) 赵君平 赵文成《河洛墓刻拾零》，第421页，北京图书馆出版社2007年。

16) 偃师商城博物馆《河南偃师县四座唐墓发掘报告》，《考古》1992年11期。

17) 拓本曾收入洛阳文物工作队编《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第二一六号，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唐代墓志汇编续集》据此收入，显庆025，上海古籍出版社2001年。

뤄양의 최근 발견 당대 묘지(墓志)에 관하여

毛陽光 (洛陽師範學)

뤄양(洛陽)은 중국 중고(中古: 위진남북조~당-역자주) 시대의 중요한 도성(都城)으로, 당시 정치, 경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뤼양에서 출토된 많은 묘지 자료는 중국 중고 역사 연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켰다. 필자는 2007년부터 뤼양의 민간에 흩어져 있는 당대 묘지의 정리 및 연구 작업을 시작해, 2010년 국가 사회과학기금 프로젝트인 '洛陽流散唐代墓志整理與研究'를 맡게 되었다. 2013년 도판과 기록문의 형식으로 당대 묘지 322개를 수록한 《洛陽流散唐代墓志匯編》(國家圖書館出版社, 2013년)을 펴냈다. 물론, 뤼양에서 고대 묘지 탁본 수집과 정리 작업을 하는 연구자로는 자오쥔핑(趙君平), 귀마오위(郭茂育), 치윈통(齊雲通) 등이 있으며, 오늘 회의 참석자인 자오진화(趙振華) 교수님도 뤼양 고대 석각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필자는 능력과 학식의 부족으로 최근 민간에 흩어진 뤼양 당대 묘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뤼양 당대 묘지는 주로 부근의 北邙山, 龍門山, 萬安山 및 뤼양 동쪽 교외, 偃師(偃師) 首陽山 등지에서 발견된다. 20세기 전반에는 주로 邙山에서 출토되었고, 20세기 말부터 다른 지역에서 당묘(唐墓)가 대거 도굴되면서 묘지도 대량 출토되었다. 이들 묘지는 대부분 이미 출판되었다. 최근 묘지 출토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이는 도굴 단속 강화가 아니라 장기간 도굴되면서 출토 가능한 묘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필자가 발견한 새로운 묘지는 대부분 산발적으로 출토되거나, 일부는 과거에 출토되었지만 그 동안 수집가들이 공개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현재 민간에 흩어진 뤼양 당대 묘지가 상당히 많다. 수집 현황을 보면, 金石文字博物館, 龍門博物館, 九朝刻石文字博物館, 華夏文化藝術博物館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민간 박물관 외에도, 宋, 李, 侯, 孟, 程, 朱, 莫 등 개인 소장가들도 당 묘지를 소장하고 있는데, 꽤 규모가 있는 묘지도 적지 않다. 일례로 숙종(肅宗) 당시 재상 최환(崔渙)은 망산(邙山)에 묻혔는데, 묘지가 2개로, 하나는 대력(大曆) 3년 도주자사(道州刺史)로 사망 당시 뤼양에 돌아가 장례를 치를 때 제작되었고, 다른 하나는 합장 묘지이다. 덕종(德宗) 당시 재신(宰臣) 제항(齊抗) 묘지 역시 뤼양에서 출토되었지만 소재불명이다. 하지만 그 처인 소씨(蕭氏) 묘지는 현재 개인 소장가가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묘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수집, 정리 및 연구가 시급하다. 다음을 필자가 최근 수집하여 정리한 묘지 자료에 대한 간단한 기술로서,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란다.

최근, 수집가들이 묘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도굴 후 가격이 치솟자 이를 복제하거나 위조하는 일이 빚어졌다. 뤼양 학자가 과거에 출판한 몇 종의 도록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묘지 탁본이 수록되었다. 필자도 복제된 묘지 탁본을 신지 않기 위해 매우 주의하고 있다. 일례로 당 말기

최안잠(崔安潛)의 형 최언충(崔彦冲)은 청렴과 정직으로 유명하지만 《秦晉豫新出土墓志搜佚》에 수록된 《崔彦冲墓志》 탁본은 복제의 흔적이 뚜렷하다. 이 밖에도, 《河洛墓刻拾零》에 수록된 《薛鄭賓墓志》 탁본 역시 복제품이다. 튀양사범대도 이 복제품을 소장하고 있다. 원석(原石)은 몇 년 동안 조사한 끝에 찾아서, 현재 튀양사범대 허뤄(河洛)문화센터의 張存才墓志精品館에 전시하고 있다. 두 개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히 보인다. 필자가 여기에서 보여준 것은 모두 원석 탁본이다. 물론, 당대 묘지 가운데에는 부부 가운데 한 쪽이 먼저 사망하여 나중에 합장할 때 본래의 묘지를 다시 상석(上石)에 새긴 경우도 있어, 한 사람의 묘지가 두 개이면서 매우 비슷한 경우는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일례로 필자가 수집한 당 말기 崔凝의 처 李氏의 벽돌 묘지의 경우, 돌로 만든 같은 내용의 묘지가 발굴되었다. 두 개의 내용과 격식이 동일하며, 발굴된 묘지 왼쪽 아래쪽에 벽돌 묘지에는 없는 “凝自書”라는 글자가 있을 뿐이다. 이 벽돌 묘지는 이씨 사망 이후 그 부군인 崔凝이 안장할 때 제작한 것이고, 발굴된 묘지는 崔凝 사망 후 합장할 때 새긴 것일 것이다.

최근 필자가 조사한 결과, 민간에 흩어진 묘지의 상황이 심각하다. 일례로 필자가 최근 발견한 중화민국 시대 출토된 《泉州長史張言歲墓志》는 민간에서 제대로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숫자가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인위적으로 덧새긴 흔적까지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다행히 세간에 탁본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 흩어져 있는 대다수 묘지는 그만큼 운이 따르지 않아, 龍門博物館에 새로 수장된 沈佺期가 쓴 가로 세로 90cm나 되는 《唐澤州高平縣令林公故夫人天水姜氏墓志》의 경우, 일찍이 출토되었는데 탁본이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위에 인위적인 구멍 네 개가 뚫려 있다. 원석을 공장에서 기계를 고정하는 받침대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표면이 흐릿해 앞 행의 글자 흔적만 식별 가능할 뿐 대부분 읽을 수가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洛陽で最近発見した唐代墓誌について

毛陽光 (洛陽师范学)

洛陽は中国中古時代(魏晉南北朝～唐: 訳者注)の重要な都城であり、当時の政治・経済・文化に大きな影響を及んだ。20世紀に洛陽で出土した数多くの墓誌資料は、中国中古時代に関する研究を多角的に発展させてきた。筆者は2007年から洛陽の民間に散在している唐代墓誌の整理および研究作業を始め、2010年に国家社会科学基金のプロジェクトである‘洛陽流散唐代墓志整理与研究’を担うことになった。2013年には図版と記録文の形式で唐代墓誌322個を収録した『洛陽流散唐代墓志匯編』(国家図書館出版社、2013年)を刊行した。勿論、洛陽で古代墓誌拓本の収集と整理事業を行っている研究者としては、趙君平・郭茂育・齊雲通などが知られており、今日の会議に参席している趙振華先生も洛陽古代石刻の研究という分野で卓越した成果を出している。筆者は能力と学識が不足しており、最近民間に散らばっている洛陽の唐代墓誌のみに専念している。

周知のように、洛陽の唐代墓誌は主に付近の北邙山・竜門山・万安山および洛陽東方の郊外、偃師の首陽山などで発見されている。20世紀前半には主に邙山で出土したが、20世紀末から他の地域で唐墓が多く盗掘されたため、墓誌も大量に出土するようになった。これらの墓誌はほとんどすでに出版された。最近では墓誌の出土が過去に比べて激減したが、これは盗掘の取締りが強化したためではなく、長期間にわたって盗掘されたため、出土可能な墓誌が大幅に減ったためである。したがって、最近筆者が発見した新しい墓誌は、ほとんど散発的に出土したものであり、それとも過去に出土したがこれまで収集家らが公開しなかったものである。

現在は民間に散らばっている洛陽の唐代墓誌がかなり多い。収集の現況を見れば、金石文字博物館、竜門博物館、九朝刻石文字博物館、華夏文化芸術博物館など比較的規模が大きい民間の博物館以外にも、宋・李・侯・孟・程・朱・莫など個人収集家も唐代墓誌を所蔵しているが、よほど規模がある墓誌は少なくない。例えば、肅宗期の宰相である崔渙は邙山に埋葬されたが、墓誌が二つである。一つは大暦三年に道州刺史として死亡し洛陽に帰郷して葬式を行う時に作られたものであり、もう一つは後に合葬した時に作られたものである。徳宗期の宰臣である齊抗の墓誌もまた洛陽で出土したが、現在は所在不明である。しかし、その妻である蕭氏の墓誌は現在個人収集家が所蔵している。したがって、これらの墓誌に関する持続的な調査・収集・整理および研究が急を要する。

最近、収集家が墓誌の文化財的価値を認識したため、盗掘後値段が突き上がるとこれらを複製し

たり偽造したりすることが発生した。洛陽の学者が過去に出版した幾つかの図録には、一部問題のある墓誌の拓本が収録されている。筆者も複製された墓誌の拓本を掲載しないように極めて注意している。例えば、唐末期の崔安潜の兄である崔彦冲は清廉と正直で有名であるが、『秦晋子新出土墓誌搜佚』に収録されている「崔彦冲墓誌」の拓本は複製の痕跡が著しい。これ以外にも、『河洛墓刻拾零』に収録されている「薛鄭賓墓誌」の拓本もまた複製品であり、洛陽師範大学はこの複製品を所蔵している。原石は何年間の調査の末発見して、現在洛陽師範大学河洛文化センターの張存才墓誌精品館に展示している。二つを比較すると、その差異は明らかに見える。筆者がここで示してくれたものはすべて原石拓本である。勿論、唐代墓誌の中では夫婦のうち一方が先に死亡して後に合葬する時本来の墓誌を再び上石に刻んだ場合もあり、一人の墓誌が二つでありながら極めて類似な場合は別途に扱うべきである。例えば、筆者が収集した唐末期の崔凝の妻である李氏の塋墓誌の場合、石で作った同じ内容の墓誌が発掘された。二つの内容と格式は同様であり、発掘された墓誌の左下部に塋の墓誌には見えない“凝自書”という文字があるだけである。この塋墓誌は李氏の死亡以降その夫君である崔凝が埋葬する時に製作したものであり、発掘した墓誌は崔凝の死亡後合葬する時刻んだものであろう。

最近筆者が調査した結果、民間に散らばった墓誌の状況は深刻である。例えば、筆者が最近発見した中華民国時代出土の「泉州長史張言歳墓志」は民間で保存がちゃんとなされておらずほとんどの数字が判読不可能になってしまい、しかも後に人為的に刻んだ痕跡まであり非常に残念である。だが、幸に世間に拓本が残って伝えられている。しかし、民間に散らばったほとんどの墓誌はそれほど運がよいわけではなく、竜門博物館に新しく収蔵され沈佺期が撰した縦横90センチもする「唐沢州高平県令林公故夫人天水姜氏墓誌」野場合、かつて出土したが拓本が伝えられておらず、その上に人為的な四つの穴が空いている。原石は工場で機械を固定させる控え柱として使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現在表面は不鮮明であり幾つかの行で文字の痕跡が確認できるぐらいに留めており、ほとんど判読不可能であり非常に残念である。

唐代墓志中的“丸都”与“丸山”

- 兼谈其对于纠正古籍别写之意义

赵振华（中国洛阳师范学）

唐代墓志中的“丸都”与“丸山”

- 兼谈其对于纠正古籍别写之意义

赵振华 (中国洛阳师范学)

摘要 唐代墓志中的“丸都”“丸山”是“丸都山”的简称，指代当时的高句丽。“丸”和“九”字形相似，容易混淆，现代隶文往往错为“九都”、“九山”，发生传抄之误，致使文意大变，须引起注意，予以纠正。其文辞和字形也是校对历史文献相关词语的可靠依据。

关键词 丸都；九都；丸山；九山；墓志；唐代

吉林学者张福有先生以对高句丽历史和都城的稔熟，撰文改文献记载唐太宗李世民的《辽城望月》结句“驻蹕俯九都，停观妖氛灭”中关键字为“丸都”，认为《太平御览》引《魏略》亦将“丸都”误为“九都”[1]。不久引起学界回应，认为发生这样的错误，并不是笔划上的一点之差，而是宋人抄书时避宋欽宗赵桓的名讳音近的“丸”字而缺笔造成的[2]。后来张先生重申观点[3]，征引有据，解疑释惑。三年前，张先生来电话，嘱我查询中古墓志拓片中是否有征讨高句丽的事迹而记录“丸都”的字样，来作为古人的原始证据，遂积心于此。

就字形看，丸与九亦与凡、丹相近似，传抄时容易混淆。那么北宋末年之前，是否有形近而伪的情况呢？肯定有。《史记》卷一，《五帝本纪》叙黄帝“东至于海，登丸山，及岱宗。”刘宋裴骃的《集解》、唐司马贞的《索隐》和张守节的《正义》，三家分别给山东半岛的“丸山”出了注释，或作“凡”，或作“丹”[4]，“凡”或是“丸”的古字。《水经注·巨洋水》说朱虚城东北二十里有丹山，世谓之凡山，或谓丸山，盖因字相类[5]，是为传抄而讹。

《魏书·东夷传》云：“高句丽在辽东之东千里，南与朝鲜、濊貊，东与沃沮，北与夫余接。都于丸都之下，方可二千里，户三万。”[6]都即国内城，丸都是山名。《南史·东夷传》云：“高句丽，在辽东之东千里……其王都于丸都山下。”校勘记云：“‘丸都’各本作‘九都’，据《梁书》改。”[7]可见误“丸”为“九”，由来已久。检索《四库全书》，历史文献中这个混淆多次出现。

文献记载与考古证实，高句丽国初期都城为纥升骨城（今辽宁桓仁县五女山城），西汉元始三年（公元3年）迁都国内城（今吉林集安市），同时于其附近筑尉那岩城即丸都山城。至北魏始光四年（公元427年）移都平壤，凡425年，为汉魏晋时期高句丽的政治、经济和文化中心。公元668年，唐高宗灭亡高句丽，在平壤设置安东都护府。近百年来的发现的初唐墓志中，有的记载墓志主人作为军官参加太宗和高宗征伐高句丽的战争，其中的13方墓志以“丸都”和“丸山”或为地名或为

典故來指代高句麗，也有1方墓志因錯刻而作“九都”者。由于“丸”与“九”字形相近，今人在做墓志彙文時，或因疏忽而以“丸”爲“九”，致使文意大變。今考察墓志拓本，核對彙文，予以辨正。同時利用墓志、碑刻拓本展示唐人書寫鐫刻的原始字形輔爲張福有先生之文作註。

此依照墓志主人葬年先后，制作兩表，彙出有關內容，關鍵詞以黑体字顯示。

表一 唐代墓志记载的“丸都”

名	相关内容	出处	图号
王君愕	既而三韩放命，六师薄伐。蚁徒云会，际日域以倾巢；丑类蜂口，阻苍波而借一。武旅争进，銜驾亲临。公躬率熊罴，先蒙矢石，出左入右，飘若凌风。拔帜斩旗，倏如奔电。声高百万，气勇三军。言纪 丸都 ，愴国殇之已及。	陕西卷1-16 新陕西壹-39 续编P32 补遗2-85	图一一
武希玄	属肃慎猖獗， 丸都 阻化，太宗文皇帝躬行吊罚。君名挂羽林之班，位列金吾之后，爪牙左右，侍卫帷幄。而丑类鸱张，凶徒蚁聚，君乃揽繁弱，接忘归，飞鞞挥鞭，直突而溃，应弦而倒者，鳞鳞相属。	北大卷1-35 汇编131 补遗3-350	图一
牛秀	（贞观）十八年内，从讨辽阴，检校右武侯大将军，总督巡警。齐朱纒于七萃，整儻革于六戎。驻蹕之时，率先告捷。大风□□，巨鳞斯絀。廿一年，又为沧海道行军大总管。玉舳云兴，珣戈星缚。山螿息拚，水若澄流。勒 丸都 之□，□□□之险。	陕西卷1-18 新陕西壹-42 续编58 补遗2-109	图一二
张士贵	（贞观）十六年四月追还，领屯兵如故。十一月授兰州都督，又迁幽州都督。十八年，以谴去官。泊朱蒙之绪，玄夷之孽，背诞 丸都 ，梟镜辽海；王师底伐，属想人雄。敕为辽东道行军总管，授金紫光禄大夫、涪州刺史。十九年，率师渡辽，破玄菟等数城大阵，勋赏居多。	陕西卷1-25 新陕西壹-51 昭陵碑石-30 汇编265 补遗1-42	图二
尉迟敬德	（贞观）十七年，抗表致仕，乃拜开府仪同三司，禄俸防閤，并同职事，六日一参。又降诏图画公等于凌烟之阁。越思范蠡之功，方申镕铸；汉述霍光之美，乃绚丹青，俦今望古，彼多惭德。属辰韩负险，独阻声教，凭 丸都 而举斧，恃涓水而含沙，太宗爰命六军，亲纒万乘，观兵玄菟，问罪白狼。乃授公左一马军大总管。	陕西卷3-50 新陕西壹-55 昭陵碑石-36 汇编291 补遗2-156	图三
娄敬	于是扬歷碧海，飞缴青丘，载刊不耐之城，重纪 丸都 之岌。至永徽三年，青丘道征，蒙授云骑尉。公玉帐飞算，石阵频临，既陷九重之围，遂攘千里之地。至龙朔元年，从总管契苾将军辽东道行，除检校果毅，至平壤城铁山阵，赏绯袍银带，授游击将军、检校果毅同正府领，表勤王也。	洛阳卷5-45 北图15-56 汇编476 补遗5-142	图一三
高感	属玄夷而鼓孽。君乃风情直上，壮气横秋，占募 丸都 ，义陪运伍，于是荷吴戈而入垒，裊沱霜销；提艷剑以排营，妖氛星落。岭云朝散，破数阵于狼川；边月晓沉，颓几城于兔堞。既而风夷载静，天阵方旋，勋锡荣班，功标厚赏。至贞观廿年四月五日，授勋上骑都尉。	山西卷-35 北图16-128 续编-246	图四
屈突诠	公以幕中神算，堂上奇兵，出九地而先登，连五符而告捷。扫 丸都 而填穢穴，策是攻心；服小貊而降右渠，明同屈指。	新获续-61、-351 芒洛-83 补遗8-300 补遗千唐-66	图五

莫义	初涇水口清， 丸都 尚雾，公身陪大树，勳预蒙骐，忠尽丧元之心，赏在酬功之地，因授云骑尉，转加陪戎校尉，又更加智果校尉。墓志铭曰：既参戎律，复践文局， 丸都 灭浸，奚局流声。	洛阳卷7-8 北图18-10 汇编-836 补遗3-497	图六
陆仁俭	麟德元年，以前功授左清道卫利仁府左果毅都尉，寻乾封元年，加授游击将军。辽隧（穉）残魂，尚潜山谷，朝廷以公为经略使，殄余寇，勒 九（丸）都 者，我诸将之功也。	洛阳卷7-42 续编-335 补遗5-217	图一四
于遂古	乾封元年，奉敕领兵于 丸都 道征平壤，口东爰至汉城，皆籍经略。公谋猷允著，才干克宣，陟岵衍以铭功，上 丸都 而勒颂。剽姚校尉，羞刊瀚海之劳；渡辽将军，虚纪沧波之难。	陕西卷3-120 新陕西壹-91 续编-374 补遗3-30	图七

表二 唐代墓志记载的“丸山”

名	相关内容	出处	
赵安	大业七年，辟蔡王府参军，俄除善政府校尉。于时涇水未宾， 丸山 作梗，王师薄伐，君乃参之，每先启行，威稜莫二。	洛阳卷3-49 汇编-167 补遗4-323 北图12-65	图八
泉男生	皇帝照彼青丘，亮其丹悬，览建、产之罪，发雷霆之威。 丸山 未铭，得来表其先觉；梁水无孽，仲谋忧其必亡。乾封元年，公又遣子献诚入朝。	洛阳卷6-50 北图16-120 汇编-668 补遗1-62	图一五
扶余隆	显庆之始，王师有征。公远鉴天人，深知逆顺，奉珍委命，削衽归仁。去后夫之凶，革先迷之失，款诚押至，褒赏荐加，位在列卿，荣贯藩国。而马韩余烬，狼心不悛，鸱张辽海之滨，蚁结 丸山 之域。皇赫斯怒，天兵耀威，上将拥旄，中权奉律。	洛阳卷6-87 北图16-187 辑绳-373 汇编-702 补遗3-457	图九

（说明：两表出处栏的图书简称陕西卷、北大卷、山西卷、洛陽卷，为《隋唐五代墓志汇编》，天津古籍出版社，1991年。新陕西壹为《新中国出土墓志·陕西壹》，文物出版社，2000年。北图卷为《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中州古籍出版社，1989年。辑绳为《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昭陵碑石为《昭陵碑石》，三秦出版社，1993年。芒洛为《邙洛碑志三百种》，中华书局，2004年。新获续为《洛陽新获墓志续编》，科学出版社，2008年。以上为著录墓志拓本的专书。补遗为《全唐文补遗》第1至8辑，三秦出版社，1994年至2005年。补遗千唐为《全唐文补遗·千唐志斋新藏专辑》，三秦出版社，2006年。汇编为《唐代墓志汇编》，上海古籍出版社，2007年。续编为《唐代墓志汇编续集》，上海古籍出版社，2007年。以上为著录墓志录文的专书。所引书后的阿拉伯数字为卷册及页码。）

此将上表诸书错录的句子简列于后：《武希玄墓志》作：“九都阻化。”[8]《婁敬墓志》作：“重紀九都之岵。”[9]《高感墓志》作：“占募九都”[10]。《屈突詮墓志》作：“掃九都而填穉穴。”[11]已有學者糾謬[12]。《陸仁儉墓志》本身有2个字十分關鍵：其“遼隧殘魂”應作“遼穉殘魂”，為

同音字，《屈突詮墓志》等可証。其“勒九都者”應作“勒丸都者”，許是書丹者之誤，少寫一点；或是鐵筆手誤，少刻一点[13]，于是象文便沿襲其錯[14]。《于遂古墓志》出現兩次，作：“奉敕領兵于九都道征平壤□東”，“上九都而勒頌”[15]。《趙安墓志》作：“丸山作梗。”[16]

由前引《魏書》《南史》知，墓志的丸都、丸山是丸都山的簡稱，《尉遲敬德墓志》《莫義墓志》《趙安墓志》還將其與涇水對仗爲文。《武希玄墓志》的“丸都阻化”（圖一），《張士貴墓志》的“背誕丸都”（圖二），《尉遲敬德墓志》的“凭丸都而舉斧”（圖三），《高感墓志》的“占募丸都”（圖四），《屈突詮墓志》的“掃丸都而填穢穴”（圖五），《莫義墓志》的“丸都尙霧”、“丸都滅稜”（圖六），《于遂古墓志》的“奉敕領兵于丸都道征平壤”（以行軍和戰爭的目的地爲行軍道名）（圖七），《趙安墓志》的“丸山作梗”（圖八），《扶余隆墓志》的“蟻結丸山之域”（圖九），皆以丸都山的簡稱，即以原國都近旁的名山來指代高句麗國家（政權）。一如張福有先生所言：“系高句麗之代稱。”并非指其山下山上已經荒蕪了200余年的兩座故城。其用如同乾隆《唐述聖記碑》的“獨有涇水亏風，丸山阻順”（圖一〇）[17]。而《王君愕墓志》的“言紀丸都”（圖一一），《牛秀墓志》的“勒丸都之□”（圖一二），《婁敬墓志》的“重紀丸都之嶠”（圖一三），《陸仁儉墓志》的“勒丸都者”（圖一四），《于遂古墓志》的“上丸都而勒頌”（圖七），《泉男生墓志》的“丸山未銘”（圖一五），意爲建立功業刻石勒銘于丸都山。語本《三國志·母丘儉傳》和《梁書》《北史》高麗傳叙幽州刺史母丘儉于曹魏正始五年（公元244年）率兵征討高句麗，攻破丸都山城，几亡其國。六年夏討，“至肅慎氏南界，刻石紀功，刊丸都之山，銘不耐之城”[18]的故事，由清代光緒年間集安板岔嶺發現的《母丘儉紀功碑》[19]殘石可証。唐代墓志以紀功、勒銘喻主人在與高句麗的戰鬥中建立武功。如同鄭萬英《大唐信法寺彌陀象碑》的“刻琬琰于丸都”（圖一六）[20]，韓國慶州《大唐樂浪郡王開府儀同三司上柱國新羅文武王陵之碑》第三石首句殘文“丸山有紀功之將”（圖一七）[21]。追根溯源，始于東漢車騎將軍竇憲大破北匈奴，“遂登燕然山，去塞三千余里，刻石勒功，紀漢威德”[22]之典故。

以上述墓志和碑刻中唐代文人所作“丸都”和“丸山”的文辭和字形爲依據，來審視下面幾條歷史文獻：《宋本冊府元龜》卷五六四：“封金岱嶺，昭累聖之鴻勛；勒石九都，成文考之先志。”[23]此書宋本卷一一七已遺，其他諸本同卷：“按馬九都，觀兵遼水。”[24]宋本《太平御覽》卷二七八：“（母丘儉）遂束馬懸車，登九都山，斬獲首虜以千數。”[25]影本《文苑英華》卷三七七：“契丹凶羯，敢謀亂常，蜂聚九（一作凡）山，豕食遼塞。”[26]同書卷七一八：“方且獵火九都，窮踏頓，存肅慎，吊姑余，彷徨赤山，巡御日域，以昭我王師襲天討也。”[27]就可以比較容易地糾正引文中相關詞語因傳抄錯誤或避諱闕筆而造成的別寫，從而正讀古籍。

注 釋

[1]張福有《“九都”“丸都”辨——〈全唐詩〉中李世民詩句的一處印誤》《光明日報》1998年3月5日。

[2]王建《丸都爲何變九都》《光明日報》1998年8月6日。

[3]張福有《長白山詩詞史話“九都”“丸都”辨》《學問》（后改名《東北史地》）2000年第11

- 期，第4頁。張福有《規範詞譜傳承〈紀遼東〉》，《中華詩詞》2010年第8期，第45頁。
- [4]《史記》卷一，《五帝本紀》：《集解》徐廣曰：“丸，一作‘凡’。”駁案：《地理志》曰丸山在郎邪朱虛縣。《索隱》注“丸，一作‘凡’”，凡音扶嚴反。《正義》丸音桓。《括地志》云：“丸山即丹山，在青州臨朐縣界朱虛故縣西北二十里，丹水出焉。”丸音紈。守節案：地志唯有凡山，盖凡山丸山是一山耳。諸處字誤，或“丸”或“凡”也。漢書郊祀志云“禪丸山”，顏師古云“在朱虛”，亦与《括地志》相合，明丸山是也。中華書局，1959年，第6頁。
- [5]楊守敬、熊會貞《水經注疏》卷二六，《巨洋水》：“城東北二十里有丹山，世謂之‘凡山’，（會貞按：《潛水注》亦云‘丹山’，俗謂‘凡山’。郇氏盖從應說，以‘丹’為正。如《廬江注》所云，廬江之名，山水相依也。考《史記·封禪書》、《漢書·郊祀志》、《地理志》并作‘凡山’。《五帝本紀》作‘丸山’，而《集解》引徐廣，互存之，張守節以‘丸山’為是。梁玉繩以‘凡山’為据。顧祖禹又言，‘“丸山”，或訛為“凡山”，俗名“丹山”。’王先謙則謂此山当如應說。）縣在西南，非山也。‘丹’‘凡’字相類，音從字變也。（趙云：‘按“丹”古篆作“凡”，故与“凡”相似。’）”，《楊守敬集》第4冊，《水經注疏》，湖北人民出版社、湖北教育出版社，1997年，第1599頁。
- [6]《三國志》卷三〇，中華書局，1959年，第843頁。
- [7]《南史》卷七九，中華書局1975年，第1969、1988頁。
- [8]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編《全唐文補遺》第三輯，三秦出版社，1996年，第350頁。周紹良主編《唐代墓志匯編》，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131頁。
- [9]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編《全唐文補遺》第五輯，三秦出版社，1998年，第142頁。周紹良主編《唐代墓志匯編》，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477頁。
- [10]周紹良 趙超主編《唐代墓志匯編續集》，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246頁。
- [11]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編《洛陽新獲墓志續編》，科學出版社2008年，第351頁。
- [12]繆韻《讀〈大周屈突詮墓志〉》，王双怀 郭紹林主編《武則天与神都洛陽》，中國文史出版社，2008年，第352頁。
- [13]啓功《广碑别字序》：“窃謂碑版之刻，其文字正别固由書人，而石工奏刀，于点畫或遺或略，則非盡由書丹者之筆誤也。”秦公 劉大新《广碑别字》，國際文化出版公司，1995年，第2頁。
- [14]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編《全唐文補遺》第五輯，三秦出版社，1998年，第217頁。周紹良 趙超主編《唐代墓志匯編續集》，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335頁。
- [15]周紹良 趙超主編《唐代墓志匯編續集》，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374頁。
- [16]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編《全唐文補遺》第四輯，三秦出版社，1997年，第323頁。周紹良主編《唐代墓志匯編》，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167頁。
- [17]北京圖書館金石組編《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第17冊，中州古籍出版社，1989年，第10頁。（清）董誥等編《全唐文》，中華書局，1983年，第1冊，第1005頁。（清）陸心源編《唐文續拾》卷一，（清）董誥等編《全唐文》，中華書局，1983年，第11冊，第11184頁。

- [18] 《三國志》卷二八，中華書局，1959年，第762頁。
- [19] 王綿厚 王海萍主編《遼寧省博物館藏碑志精粹》，文物出版社、日本中教出版株式會社，2000年合作出版，第44頁。
- [20] 北京圖書館金石組編《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第13冊，中州古籍出版社，1989年，第75頁。（清）陸心源編《唐文拾遺》卷一七，有《大唐信法寺弥陀象碑》，惜无“丸都”二字未录出而以“□□”表示。（清）董誥等編《全唐文》，中華書局，1983年，第11冊，第10551頁。
- [21] 韓國忠北大學校歷史科金榮官教授惠賜圖片。
- [22] 《后漢書》卷二三，《竇憲傳》，中華書局，1965年，第814頁。
- [23] （宋）王欽若等編《宋本冊府元龜》卷五六四，中華書局1989年，第1626頁。
- [24] （宋）王欽若等編纂、周勛初等校訂《冊府元龜》第2冊，鳳凰出版社，2006年，第1277頁。
- [25] （宋）李昉等撰《太平御覽》卷二七八，中華書局，1960年，第1296頁。
- [26] （宋）李昉等編纂《文苑英華》卷三七七，陳子昂《爲建安王誓衆詞》，中華書局，1966年，第1922頁。
- [27] （宋）李昉等編纂《文苑英華》卷七一八，陳子昂《送著作佐郎崔融等從梁王東征序》，中華書局，1966年，第3716頁。

당대 묘지(墓志)의 ‘환도(丸都)’와 ‘환산(丸山)’

- 사료에서 별칭의 의미 교정에 관하여 -

자오전화 (뤼양사범대)

요약: 당대 묘지의 ‘환도’와 ‘환산’은 ‘환도산(丸都山)’의 약칭으로, 당시 고구려를 가리킨다. ‘환(丸)’은 ‘구(九)’자와 비슷해 혼동하기 쉽고, 현대 문헌에서 종종 ‘구도(九都)’나 ‘구산(九山)’으로 잘못 기록되어 뜻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글귀와 글자 모양은 사료의 관련 어휘를 바로잡는 데 참고할 만한 근거이기도 하다.

핵심어 丸都, 九都, 丸山, 九山, 墓志, 唐代

고구려 역사와 도성 전문가인 지린(吉林)의 장푸유(張福有) 선생은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의 《遙城望月》의 결구(結句) “駐蹕俯九都, 停觀妖氛滅”의 키워드가 “丸都”이며, 《太平御覽》의 《魏略》 인용 역시 “丸都”를 “九都”로 오독하였다고 지적한 글을 발표했다.[1] 이는 곧 학계에서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착오가 점 하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송인(宋人)이 필사할 때 송(宋) 함종(欽宗) 조환(趙桓)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丸”자를 피하기 위해 점을 찍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보았다.[2] 이후 그는 이 관점을 재언급하면서[3],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근거를 밝혔다. 3년 전, 장푸유 선생이 전회를 걸어, 중고(中古: 위진남북조~당-역자주) 묘지 탁본에 고구려 정벌을 증명하는 ‘丸都’라는 글자가 있는 지 찾아 보고 1차 증거로 삼으라고 충고하였다.

글자 형태만 보면, 丸과 九는 凡이나 丹과도 비슷해, 필사할 때 혼동하기 쉽다. 그렇다면, 북송(北宋) 말년(末年) 이전에도 형태가 비슷해 바뀐 경우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史記》卷一의 《五帝本紀》 叙黃帝에 “東至于海, 登丸山, 及岱宗。”이 그것이다. 남송 배인(裴駟)의 《集解》, 당 사마정(司馬貞)의 《索隱》과 장수절(張守節)의 《正義》에서 각각 산둥반도(山東半島)의 “丸山”에 대해 “凡”이나 “丹”라거나[4], “凡”이나 “丸”의 고자(古字)라는 주석이 있다. 《水經注·巨洋水》에는 주허성(朱虛城) 동북쪽 20리에 단산(丹山)이 있는데, 글자가 비슷하여 세간에서 범산(凡山) 또는 환산(丸山)이라 부르니[5], 필사가 잘못된 때문이라고 했다.

《魏書·東夷傳》의 “高句麗在辽东之东千里, 南与朝鲜、濊貊, 东与沃沮, 北与夫余接。都于丸都之下, 方可二千里, 户三万。”[6]에서 都는 곧 국내성(國內城)이고, 丸都是 산의 이름이다. 《南史·東夷傳》의 “高句麗, 在辽东之东千里……其王都于丸都山下。”에 대해 교감기(校勘記)는 “丸都各本作九都, 据《梁书》改。”라고 지적했다.[7] 즉, “丸”을 “九”로 잘못 적는 예가 역사적으로 많았던 것이다. 《사고전서(四庫全書)》를 검색하면, 문헌에 이러한 혼동이 여러 차례 발견된다.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실증에 따르면, 고구려의 초기 도성은 걸승골성(紇升骨城, 현 遙寧 桓仁縣

五女山城)이며, 서한 원시(元始) 3년(서기3년) 국내성(현 吉林 集安市)으로 천도하고 부근에 위나암성(尉那岩城) 즉 환도산성(丸都山城)을 지었다. 북위(北魏) 시광(始光) 4년(427년)에 평양(平壤)으로 천도해 425년 동안 한(漢)·위(魏)·진(晋) 시대 고구려의 정치, 경제 및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668년, 당 고종(高宗)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했다. 최근 100년 발견된 초당(初唐) 묘지(墓志) 가운데 묘지의 주인이 군관으로 태종과 고종의 고구려 정벌에 참가했다고 기록한 경우가 있는데, 이 가운데 13개가 “丸都”와 “丸山”을 지명 또는 전고(典故)로서 고구려 대신 쓰고 있으며, 또한 실수로 “九都”라고 새긴 것도 하나 있다. “丸”과 “九”는 글자 모양이 흡사하므로, 묘지를 기록할 때 “九” 대신 “丸”으로 잘못 써 뜻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에 묘지 탁본을 연구하고 기록문과 대조해 오류를 바로잡고, 또한 묘지와 묘비의 탁본을 활용하고 당인(唐人)의 서예와 조각의 글자 형태를 참고하여 장푸유 선생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여기서 묘지 주인의 사망 년도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한 두 개의 표를 보자.(볼드체로 키워드 강조)

표1 당대 묘지에 기록된 “丸都”

성명	관련 내용	출처	번호
王君愕	既而三韩放命，六师薄伐。蚁徒云会，际日域以倾巢；丑类蜂口，阻苍波而借一。武旅争进，銜驾亲临。公躬率熊罴，先蒙矢石，出左入右，飘若凌风。拔帜斩旗，倏如奔电。声高百万，气勇三军。言纪 丸都 ，怆国殇之已及。	陕西卷1-16 新陕西壹-39 续编P32 补遗2-85	圖一 一
武希玄	属肃慎猖獗， 丸都 阻化，太宗文皇帝躬行吊罚。君名挂羽林之班，位列金吾之后，爪牙左右，侍卫帷幄。而丑类鸱张，凶徒蚁聚，君乃揽繁弱，接忘归，飞鞞挥鞭，直突而溃，应弦而倒者，鳞鳞相属。	北大卷1-35 汇编131 补遗3-350	圖一
牛秀	(贞观)十八年内，从讨辽阴，检校右武侯大将军，总督巡警。齐朱綰于七萃，整饬革于六戎。驻蹕之时，率先告捷。大风□□，巨鳞斯絺。廿一年，又为沧海道行军大总管。玉舳云兴，珣戈星缚。山螿息拚，水若澄流。勒 丸都 之□，□□□之险。	陕西卷1-18 新陕西壹-42 续编58 补遗2-109	圖一 二
张士贵	(贞观)十六年四月追还，领屯兵如故。十一月授兰州都督，又迁幽州都督。十八年，以谴去官。洎朱蒙之绪，玄夷之孽，背诞 丸都 ，泉镜辽海；王师底伐，属想人雄。敕为辽东道行军总管，授金紫光禄大夫、洺州刺史。十九年，率师渡辽，破玄菟等数城大阵，勋赏居多。	陕西卷1-25 新陕西壹-51 昭陵碑石-30 汇编265 补遗1-42	圖二
尉迟敬德	(贞观)十七年，抗表致仕，乃拜开府仪同三司，禄俸防閤，并同职事，六日一参。又降诏图画公等于凌烟之阁。越思范蠡之功，方申镕铸；汉述霍光之美，乃绚丹青，俦今望古，彼多惭德。属辰韩负险，独阻声教，凭 丸都 而举斧，恃溟水而含沙，太宗爰命六军，亲纆万乘，观兵玄菟，问罪白狼。乃授公左一马军大总管。	陕西卷3-50 新陕西壹-55 昭陵碑石-36 汇编291 补遗2-156	圖三
娄敬	于是扬麾碧海，飞缴青丘，载刊不耐之城，重纪 丸都 之岬。至永徽三年，青丘道征，蒙授云骑尉。公玉帐飞算，石阵频临，既陷九重之围，遂攘千里之地。至龙朔元年，从总管契苾将军辽东道行，除检校果毅，至平壤城铁山阵，赏绯袍银带，授游击将军、检校果毅同正府领，表勤王也。	洛阳卷5-45 北图15-56 汇编476 补遗5-142	圖一 三

高感	属玄夷而鼓舞。君乃风情直上，壮气横秋，占募 丸都 ，义陪运伍，于是荷吴戈而入垒，浸疹霜销；提鄴剑以排营，妖氛星落。岭云朝散，破数阵于狼川；边月晓沉，颓几城于兔堞。既而风夷载静，天阵方旋，勋锡荣班，功标厚赏。至贞观廿年四月五日，授勋上骑都尉。	山西卷-35 北图16-128 续编-246	圖四
屈突詮	公以幕中神算，堂上奇兵，出九地而先登，连五符而告捷。扫 丸都 而填穢穴，策是攻心；服小貊而降右渠，明同屈指。	新获续-61、-351 芒洛-83 补遗8-300 补遗千唐-66	圖五
莫义	初涘水□清， 丸都 尚雾，公身陪大树，勳预蒙骐，忠尽丧元之心，赏在酬功之地，因授云骑尉，转加陪戎校尉，又更加智果校尉。墓志铭曰：既参戎律，复践文局， 丸都 灭浸，奚局流声。	洛阳卷7-8 北图18-10 汇编-836 补遗3-497	圖六
陆仁俭	麟德元年，以前功授左清道卫利仁府左果毅都尉，寻乾封元年，加授游击将军。辽隧（穢）残魂，尚潜山谷，朝廷以公为经略使，殄余寇，勒 九（丸）都者 ，我诸将之功也。	洛阳卷7-42 续编-335 补遗5-217	圖一四
于遂古	乾封元年，奉敕领兵于 丸都 道征平壤，□东爰至汉城，皆籍经略。公谋猷允著，才干克宣，陟岵衍以铭功，上 丸都 而勒颂。剽姚校尉，羞刊瀚海之劳；渡辽将军，虚纪沧波之难。	陕西卷3-120 新陝西壹-91 续编-374 补遗3-30	圖七

표2 당대 묘지에 기록된 “丸山”

성명	관련 내용	출처	번호
赵安	大业七年，辟蔡王府参军，俄除善政府校尉。于时涘水未宾， 丸山 作梗，王师薄伐，君乃参之，每先启行，威稜莫二。	洛阳卷3-49 汇编-167 补遗4-323 北图12-65	圖八
泉男生	皇帝照彼青丘，亮其丹恳，览建、产之罪，发雷霆之威。 丸山 未铭，得来表其先觉；梁水无孽，仲谋忧其必亡。乾封元年，公又遣子献诚入朝。	洛阳卷6-50 北图16-120 汇编-668 补遗1-62	圖一五
扶余隆	显庆之始，王师有征。公远鉴天人，深知逆顺，奉珍委命，削衽归仁。去后夫之凶，革先迷之失，款诚押至，褒赏荐加，位在列卿，荣贯藩国。而马韩余烬，狼心不悛，鸱张辽海之滨，蚁结 丸山 之域。皇赫斯怒，天兵耀威，上将拥旆，中权奉律。	洛阳卷6-87 北图16-187 辑绳-373 汇编-702 补遗3-457	圖九

*설명: 두 개의 표에서 출처 항목에 陝西卷, 北大卷, 山西卷, 洛阳卷라고 간략히 표기한 책은 《隋唐五代墓志汇编》(天津古籍出版社, 1991년)이다. 新陝西壹은 《新中国出土墓志·陝西壹》(文物出版社, 2000년)이고, 北图는 《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中州古籍出版社, 1989년)이며, 辑绳은 《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1년)이다. 昭陵碑石은 《昭陵碑石》(三秦出版社, 1993년)이고, 芒洛은 《邙洛碑志三百种》(中华书局, 2004년)이며, 新获续는 《洛阳新获墓

志续编》(科学出版社, 2008년)이다. 이상은 묘지 탁본을 수록한 전문서이다. 补遗는 《全唐文补遗》(1-8辑, 三秦出版社, 1994년-2005년)이고, 补遗千唐은 《全唐文补遗·千唐志斋新藏专辑》(三秦出版社, 2006년)이며, 汇编은 《唐代墓志汇编》(上海古籍出版社, 2007년)이고, 续编은 《唐代墓志汇编续集》(上海古籍出版社, 2007년)이다. 이상은 묘지 기록문을 수록한 전문서이다. 인용서 뒤의 숫자는 권책(脈卷册)과 페이지이다.

위의 표에 열거한 잘못 기록된 구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武希玄墓志》의 “九都阻化。”[8], 《娄敬墓志》의 “重纪九都之峽。”[9], 《高感墓志》의 “占募九都”[10], 《屈突讜墓志》의 “扫九都而填穰穴。”[11]는 이미 오류를 바로잡았다. [12] 《陆仁俭墓志》는 원래 2개 글자가 매우 중요한데, “辽隧残魂”은 동음자인 “辽穰残魂”로 바꾸어야 하며 《屈突讜墓志》 등이 그 근거이고, “勒九都者”은 “勒丸都者”가 맞는데, 각인하기 위해 비석에 주필(朱筆)한 이가 점 하나를 안 찍었거나 각인할 때 실수했는데[13], 기록문도 그 잘못을 답습한 탓일 것이다.[14] 《于遂古墓志》에는 “奉敕领兵于九都道征平壤□东”와 “上九都而勒颂”[15]와 같이 두 차례 나온다. 《赵安墓志》는 “丸山作梗。”[16]가 그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魏書》《南史》와 같이, 묘지의 丸都和 丸山은 丸都山의 약칭이며, 《尉迟敬德墓志》《莫义墓志》《赵安墓志》는 이를 泃水(湏水)와 맺구로 쓰고 있다. 《武希玄墓志》의 “丸都阻化”(圖一), 《张士贵墓志》의 “背诞丸都”(圖二), 《尉迟敬德墓志》의 “凭丸都而举斧”(圖三), 《高感墓志》의 “占募丸都”(圖四), 《屈突讜墓志》의 “扫丸都而填穰穴”(圖五), 《莫义墓志》의 “丸都尚雾”와 “丸都灭祲”(圖六), 《于遂古墓志》의 “奉敕领兵于丸都道征平壤”(행군과 전쟁의 목적지로서 행군도명, 圖七), 《赵安墓志》의 “丸山作梗”(圖八), 《扶余隆墓志》의 “蚁结丸山之域”(圖九)는 모두 丸都山의 약칭으로, 즉 고구려라는 국가(정권)을 원래의 국도(國都) 부근 명산(名山)으로 대신 지칭하는 것이다. 장푸유 선생의 지적처럼 ‘고구려의 별칭’으로, 그 산 위와 아래에 이미 200여 년 동안 황폐해져 버린 두 개의 고성(故城)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쓰임은 건릉(乾陵)《唐述聖記碑》의 “独有泃水亏风, 丸山阻顺”(圖一〇)[17]과 같다. 《王君愕墓志》의 “言纪丸都”(圖一一), 《牛秀墓志》의 “勒丸都之□”(圖一二), 《娄敬墓志》의 “重纪丸都之峽”(圖一三), 《陆仁俭墓志》의 “勒丸都者”(圖一四), 《于遂古墓志》의 “上丸都而勒颂”(圖七), 《泉男生墓志》의 “丸山未铭”(圖一五)는 丸都山에서 공적을 세워 돌에 새겼다는 뜻이다. 《三國志·毋丘儉傳》와 《梁書》《北史》에 유주자사(幽州刺史) 모구검(毋丘儉)이 조위(曹魏) 정시(正始) 5년(244년)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정벌해 丸都山城을 파하고 멸망시켰다고 적고 있다. 6년 재정벌 당시 “至肃慎氏南界, 刻石纪功, 刊丸都之山, 铭不耐之城”[18]의 고사는 청(淸) 광서(光緒) 연간 집안(集安) 반분령(板岔岭)에서 발견된 《毋丘儉紀功碑》[19]가 증명한다. 당대 묘지는 공적을 기록하고 새겨 묘지 주인이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무공을 세웠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鄭萬英의 《大唐信法寺彌陀象碑》의 “刻琬琰于丸都”(圖一六)[20]와 한국 경주의 《大唐乐浪郡王开府仪同三司上柱国新罗文武王陵之碑》의 세 번째 비석의 첫 구절 “丸山有纪功之将”(圖一七) [21]과 마찬가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후한 차기장군(車騎將軍) 두헌(竇憲)이 북흉노(北匈奴)를 대파한 “遂登燕然山, 去塞三千余里, 刻石勒功, 纪汉威德”[22]의 전고(典故)가 있다.

상술한 묘지와 비석에서 당대 문인이 쓴 “丸都”와 “丸山”의 글귀와 글자 형태를 근거로 《宋本册府元龜》 권564의 “封金岱岭，昭累圣之鸿勋；勒石丸都，成文考之先志。”[23]과 같은 사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이 책의 송본(宋本) 권117은 이미 소실되었고, 기타 판본에는 “按马九都，观兵辽水。”[24]라고 되어 있다. 송본 《太平御覽》 권278은 “(毋丘俭) 遂束马悬车，登九都山，斩获首虏以千数。”[25]이며, 영인본 《文苑英華》 권377은 “契丹凶羯，敢谋乱常，蜂聚九(一作凡)山，豕食辽塞。”[26]이며, 같은 책 권718은 “方且猎火九都，穷踏顿，存肃慎，吊姑余，彷徨赤山，巡御日域，以昭我王师袭天讨也。”[27]이다. 이처럼, 인용문의 관련 어휘는 필사의 오류나 휘(諱)를 피하기 위해 다르게 쓴 것으로, 비교적 쉽게 바로잡아 사료를 바르게 읽을 수 있다.

注 释

- [1]张福有《“九都”“丸都”辨——〈全唐诗〉中李世民诗句的一处印误》《光明日报》1998年3月5日。
- [2]王建《丸都为何变九都》《光明日报》1998年8月6日。
- [3]张福有《长白山诗词史话“九都”“丸都”辨》《学问》(后改名《东北史地》)2000年第11期,第4页。张福有《规范词谱传承〈纪辽东〉》,《中华诗词》2010年第8期,第45页。
- [4]《史记》卷一,《五帝本纪》:《集解》徐广曰:“丸,一作‘凡’。”案:《地理志》曰丸山在郎邪朱虚县。《索隐》注“丸,一作‘凡’”,凡音扶严反。《正义》丸音桓。《括地志》云:“丸山即丹山,在青州临朐县界朱虚故县西北二十里,丹水出焉。”丸音纨。守节案:地志唯有凡山,盖凡山丸山是一山耳。诸处字误,或“丸”或“凡”也。汉书郊祀志云“禅丸山”,颜师古云“在朱虚”,亦与《括地志》相合,明丸山是也。中华书局,1959年,第6页。
- [5]杨守敬、熊会贞《水经注疏》卷二六,《巨洋水》:“城东北二十里有丹山,世谓之‘凡山’,(会贞按:《淄水注》亦云‘丹山’,俗谓‘凡山’。郦氏盖从应说,以‘丹’为正。如《庐江注》所云,庐江之名,山水相依也。考《史记·封禅书》、《汉书·郊祀志》、《地理志》并作‘凡山’。《五帝本纪》作‘丸山’,而《集解》引徐广,互存之,张守节以‘丸山’为是。梁玉绳以‘凡山’为据。顾祖禹又言,“丸山”,或讹为“凡山”,俗名“丹山”。王先谦则谓此山当如应说。)县在西南,非山也。‘丹’‘凡’字相类,音从字变也。(赵云:‘按“丹”古篆作“凡”,故与“凡”相似。’)”,《杨守敬集》第4册,《水经注疏》,湖北人民出版社、湖北教育出版社,1997年,第1599页。
- [6]《三国志》卷三〇,中华书局,1959年,第843页。
- [7]《南史》卷七九,中华书局1975年,第1969、1988页。
- [8]陕西省古籍整理办公室编《全唐文补遗》第三辑,三秦出版社,1996年,第350页。周绍良主编《唐代墓志汇编》,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131页。
- [9]陕西省古籍整理办公室编《全唐文补遗》第五辑,三秦出版社,1998年,第142页。周绍良主编《唐代墓志汇编》,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477页。
- [10]周绍良 赵超主编《唐代墓志汇编续集》,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246页。
- [11]洛阳市第二文物工作队编《洛阳新获墓志续编》,科学出版社2008年,第351页。
- [12]缪韵《读〈大周屈突谔墓志〉》,王双怀 郭绍林主编《武则天与神都洛阳》,中国文史出版社,2008年,第352页。

- [13]启功《广碑别字序》：“窃谓碑版之刻，其文字正别固由书人，而石工奏刀，于点画或遗或略，则非尽由书丹者之笔误也。”秦公 刘大新《广碑别字》，国际文化出版公司，1995年，第2页。
- [14]陕西省古籍整理办公室编《全唐文补遗》第五辑，三秦出版社，1998年，第217页。周绍良 赵超主编《唐代墓志汇编续集》，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335页。
- [15]周绍良 赵超主编《唐代墓志汇编续集》，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374页。
- [16]陕西省古籍整理办公室编《全唐文补遗》第四辑，三秦出版社，1997年，第323页。周绍良主编《唐代墓志汇编》，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167页。
- [17]北京图书馆金石组编《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7册，中州古籍出版社，1989年，第10页。（清）董诰等编《全唐文》，中华书局，1983年，第1册，第1005页。（清）陆心源编《唐文续拾》卷一，（清）董诰等编《全唐文》，中华书局，1983年，第11册，第11184页。
- [18]《三国志》卷二八，中华书局，1959年，第762页。
- [19]王绵厚 王海萍主编《辽宁省博物馆藏碑志精粹》，文物出版社、日本中教出版株式会社，2000年合作出版，第44页。
- [20]北京图书馆金石组编《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3册，中州古籍出版社，1989年，第75页。（清）陆心源编《唐文拾遗》卷一七，有《大唐信法寺弥陀象碑》，惜无“丸都”二字未录出而以“□□”表示。（清）董诰等编《全唐文》，中华书局，1983年，第11册，第10551页。
- [21]韩国忠北大学校历史科金荣官教授惠赐图片。
- [22]《后汉书》卷二三，《窦宪传》，中华书局，1965年，第814页。
- [23]（宋）王钦若等编《宋本册府元龟》卷五六四，中华书局1989年，第1626页。
- [24]（宋）王钦若等编纂、周勋初等校订《册府元龟》第2册，凤凰出版社，2006年，第1277页。
- [25]（宋）李昉等撰《太平御览》卷二七八，中华书局，1960年，第1296页。
- [26]（宋）李昉等编纂《文苑英华》卷三七七，陈子昂《为建安王誓众词》，中华书局，1966年，第1922页。
- [27]（宋）李昉等编纂《文苑英华》卷七一一，陈子昂《送著作佐郎崔融等从梁王东征序》，中华书局，1966年，第3716页。

唐代墓誌の「丸都」と「丸山」

-史料における別称の意味校正について

趙振華 (洛陽師範大学)

<要約>

唐代墓誌の「丸都」と「丸山」は「丸都山」の略称で、当時の高句麗を指す。「丸」は「九」と似通っていて混同しやすく、現代の文獻においてはしばしば「九都」や「九山」と誤って記録され、意味が異なってくるため注意し、正す必要がある。文言や文字の形は史料の関連語彙を正す上で参考に値いする根拠にもなる。

キーワード：丸都、九都、丸山、九山、墓誌、唐代

高句麗の歴史と都城に関する専門家である吉林の張福有先生は唐の太宗李世民の「遙城望月」の結句「駐蹕俯九都，停觀妖氛滅」のキーワードが「丸都」であり、『太平御覽』の『魏略』の引用がやはり「丸都」を「九都」と誤讀したと指摘する研究を發表した[1]。このことはすぐさま學會に反響を呼び、このような錯誤が点一つの違いのためではなく、宋人が筆寫した時、宋の欽宗趙桓の名前と發音が似通っている「丸」の字を避けるために点を打たずに引き起こされた出來事と解釋した[2]。以後彼はこの觀點を再び言及し[3]、論争の余地がない確實な根拠を提示した。3年前、張福有先生から電話を頂き、中古（魏晉南北朝～唐=譯者註）の墓誌拓本に高句麗征伐を証明する「丸都」という文字があるか探し、一次証據とするように忠告を受けた。

文字の形態だけを見ると、丸と九は凡と丹の關係と同様に、筆寫する時に混同しやすい。それならば、北宋末年以前にも形態が似ていて変わってしまった例があるだろうか？当然そういうケースがある。『史記』卷一の「五帝本紀」叙黃帝に「東至于海，登丸山，及岱宗」とあるが、その例である。南宋の裴駰の『集解』、唐の司馬貞の『索隱』と張守節の『正義』にてそれぞれ山東半島の「丸山」に對して「凡」や「丹」であるとか、「凡」や「丸」の古字であるという注釋が付されている。『水經注・巨洋水』には朱虛城の東北20里に丹山があるのだが、世間では凡山あるいは丸山と呼んでいて [5]、筆寫を間違えたためだとした。

『魏書・東夷傳』の「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南与朝鮮，濊貊，東与沃沮，北与夫余接。都于丸都之下，方可二千里，戶三万」 [6] にて都は國內城であり、丸都は山の名前だ。『南史・東夷傳』の「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其王都于丸都山下」に對して校勘記は「丸都'各本作'九都'，据《梁書》改」と指摘した [7]。すなわち「丸」と「九」と間違えて記した例が歴史的に多かったのだ。『四庫全書』を検索すると文獻にこのような混同を幾度となく見出すことができる。

文獻記録と考古學的實証によると高句麗初期の都城は紇升骨城（現在の遼寧桓仁縣五女山城）であ

り、前漢元始3年（世紀3年）國內省(現在の吉林集安市)に遷都して付近に尉那岩城、即ち丸都山城を築いた。北魏始光4年（427年）に平壤に遷都して、425年間、漢・魏・晋時代に高句麗の政治、經濟および文化の中心を置いた。668年唐の高宗が高句麗を滅亡させ、平壤に安東都護府を設置した。この100年の間に発見された初唐の墓誌の中で墓誌の主人が軍官として太宗と高宗の高句麗征伐に参加したと記録したものがあつたのだが、その中で13個が「丸都」と「丸山」を地名または典故として高句麗の代わりに使つており、また誤つて「九都」と刻んだものも一つある。「丸」と「九」は文字の形態が似ており、墓誌を記録する時、「九」を「丸」と間違えて書き、意味が全く変わってしまったのだ。以上の通り、發表者はこれに墓誌の拓本の研究を通じて墓誌と記録文を對照し、誤謬を正し、また近來になり出土した新しい墓誌と墓碑の拓本を活用し、唐の人々の書芸と文字の形態を參考にして張福有先生の主張を証明しようとする。ここに墓誌の主人の死亡年度を基準にして内容を整理した二つの表を見てみよう（太字でキーワード強調）。

表 1 唐代墓誌に記録された「丸都」

氏名	関連内容	出处	番号
王君愕	既而三韩放命，六师薄伐。蚁徒云会，际日域以倾巢；丑类蜂口，阻苍波而借一。武旅争进，銮驾亲临。公躬率熊罴，先蒙矢石，出左入右，飘若凌风。拔帜斩旗，倏如奔电。声高百万，气勇三军。言纪 丸都 ，愴国殇之已及。	陕西卷 1-16 新陕西壹-39 续编 P32 补遗 2-85	圖一一
武希玄	属肃慎猖獗， 丸都 阻化，太宗文皇帝躬行吊罚。君名挂羽林之班，位列金吾之后，爪牙左右，侍卫帷幄。而丑类鸱张，凶徒蚁聚，君乃揽繁弱，接忘归，飞鞞挥鞭，直突而溃，应弦而倒者，鳞鳞相属。	北大卷 1-35 汇编 131 补遗 3-350	圖一
牛秀	（贞观）十八年内，从讨辽阴，检校右武侯大将军，总督巡警。齐朱綬于七萃，整幢革于六戎。驻蹕之时，率先告捷。大风□□，巨鳞斯絀。廿一年，又为沧海道行军大总管。玉舳云兴，珣戈星缠。山螫息拚，水若澄流。勒 丸都 之□，□□□之险。	陕西卷 1-18 新陕西壹-42 续编 58 补遗 2-109	圖一二
张士贵	（贞观）十六年四月追还，领屯兵如故。十一月授兰州都督，又迁幽州都督。十八年，以谴去官。泊朱蒙之绪，玄夷之孽，背诞 丸都 ，泉镜辽海；王师底伐，属想人雄。敕为辽东道行军总管，授金紫光禄大夫、洺州刺史。十九年，率师渡辽，破玄菟等数城大阵，勋赏居多。	陕西卷 1-25 新陕西壹-51 昭陵碑石-30 汇编 265 补遗 1-42	圖二
尉迟敬德	（贞观）十七年，抗表致仕，乃拜开府仪同三司，禄俸防閤，并同职事，六日一参。又降诏图画公等于凌烟之阁。越思范蠡之功，方申镛铸；汉述霍光之美，乃绚丹青，俦今望古，彼多惭德。属辰韩负险，独阻声教，凭 丸都 而举斧，恃沮水而含沙，太宗爱命六军，亲纒万乘，观兵玄菟，问罪白狼。乃授公左一马军大总管。	陕西卷 3-50 新陕西壹-55 昭陵碑石-36 汇编 291 补遗 2-156	圖三
娄敬	于是扬麾碧海，飞缴青丘，载刊不耐之城，重纪 丸都 之岍。至永徽三年，青丘道征，蒙授云骑尉。公玉帐飞算，石阵频临，既陷九重之围，遂攘千里之地。至龙朔元年，从总管契苾将军辽东道行，除检校果毅，至平壤城铁山阵，赏绯袍银带，授游击将军、检校果毅同正府领，表勤王也。	洛阳卷 5-45 北图 15-56 汇编 476 补遗 5-142	圖一三

高感	属玄夷而鼓孽。君乃风情直上，壮气横秋，占募 丸都 ，义陪运伍，于是荷吴戈而入垒，侵沴霜销；提鄴剑以排营，妖氛星落。岭云朝散，破数阵于狼川；边月晓沉，颓几城于兔堞。既而风夷载静，天阵方旋，勋锡荣班，功标厚赏。至贞观廿年四月五日，授勋上骑都尉。	山西卷-35 北图 16-128 续编-246	圖四
屈突詮	公以幕中神算，堂上奇兵，出九地而先登，连五符而告捷。扫 丸都 而填穢穴，策是攻心；服小貊而降右渠，明同屈指。	新获续-61、 -351 芒洛-83 补遗 8-300 补遗千唐-66	圖五
莫义	初渭水口清， 丸都 尚雾，公身陪大树，勳预蒙骐，忠尽丧元之心，赏在酬功之地，因授云骑尉，转加陪戎校尉，又更加智果校尉。墓志铭曰：既参戎律，复践文局， 丸都 灭祲，奚局流声。	洛阳卷 7-8 北图 18-10 汇编-836 补遗 3-497	圖六
陆仁俭	麟德元年，以前功授左清道卫利仁府左果毅都尉，寻乾封元年，加授游击将军。辽隧（穢）残魂，尚潜山谷，朝廷以公为经略使，殄余寇，勒 九（丸）都 者，我诸将之功也。	洛阳卷 7-42 续编-335 补遗 5-217	圖一四
于遂古	乾封元年，奉敕领兵于 丸都 道征平壤，口东爰至汉城，皆籍经略。公谋猷允著，才干克宣，陟岵衍以铭功，上 丸都 而勒颂。剽姚校尉，羞刊瀚海之劳；渡辽将军，虚纪沧波之难。	陕西卷 3-120 新陕西壹-91 续编-374 补遗 3-30	圖七

表 2 唐代墓誌に記録された「丸山」

氏名	関連内容	出處	番号
赵安	大业七年，辟蔡王府参军，俄除善政府校尉。于时渭水未宾， 丸山 作梗，王师薄伐，君乃参之，每先启行，威稜莫二。	洛阳卷 3-4 9 汇编-167 补遗 4-323 北图 12-65	圖八
泉男生	皇帝照彼青丘，亮其丹扈，览建、产之罪，发雷霆之威。 丸山 未铭，得来表其先觉；梁水无孽，仲谋忧其必亡。乾封元年，公又遣子献诚入朝。	洛阳卷 6-5 0 北图 16-12 0 汇编-668 补遗 1-62	圖一五
扶余隆	显庆之始，王师有征。公远鉴天人，深知逆顺，奉珍委命，削衽归仁。去后夫之凶，革先迷之失，款诚押至，褒赏荐加，位在列卿，荣贯藩国。而马韩余烬，狼心不悛，鸱张辽海之滨，蚁结 丸山 之域。皇赫斯怒，天兵耀威，上将拥旄，中权奉律。	洛阳卷 6-8 7 北图 16-18 7 辑绳-373 汇编-702 补遗 3-457	圖九

*説明：二つの表にて出處に陝西卷，北大卷，山西卷，洛陽卷と簡略に表記した本は『隋唐五代墓志匯編』（天津古籍出版社，1991年）である。新陝西壹は『新中國出土墓志・陝西壹』（文物出版社，2000年）、北圖は『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中州古籍出版社，1989年）、輯繩は『洛陽

出土歷代墓誌輯繩』(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年)である。昭陵碑石は『昭陵碑石』(三秦出版社, 1993年)、芒洛は『邙洛碑志三百種』(中華書局, 2004年)、新獲續は『洛陽新獲墓誌續編』(科學出版社, 2008年)である。以上は墓誌拓本を収録した専門書だ。補遺は『全唐文補遺』(1-8輯, 三秦出版社, 1994-2005年)、補遺千唐은 『全唐文補遺·千唐志齋新藏專輯』(三秦出版社, 2006年)、匯編は『唐代墓誌匯編』(上海古籍出版社, 2007年)、續編は『唐代墓誌匯編續集』(上海古籍出版社, 2007年)である。以上は墓誌記録文を収録した専門書だ。引用書の後の数字は巻冊とページである。

上記表に列挙した誤って記録された文言を整理すると以下の通りだ。『武希玄墓誌』の「九都阻化」[8]、『婁敬墓誌』の「重紀九都之岍」[9]、『高感墓誌』の「占募九都」[10]、『屈突詮墓誌』の「掃丸都而填穰穴」[11]は既に誤謬を正した[12]。『陸仁儉墓誌』は元來二つの文字が極めて重要であるが、「遼隧殘魂」は同音字の「遼穰殘魂」に変えなくてはならず、『屈突詮墓誌』等がその根拠となり、「勒九都者」は「勒丸都者」が正しいが、刻印するため碑石に主筆した者が点一つを入れなかったか、刻印する時、間違えたもので[13]、記録文もその間違いを踏襲したためだろう[14]。

『于遂古墓誌』には「奉敕領兵于九都道征平壤□東」と「上九都而勒頌」[15]と二回現れる。『趙安墓誌』は「丸山作梗」[16]がそれに当たる。

先に引用した『魏書』『南史』のように墓誌の丸都と丸山は丸都山の略称で、『尉遲敬德墓誌』『莫義墓誌』『趙安墓誌』はこれを涇水の對句として使用している。『武希玄墓誌』の「丸都阻化」(圖一)、『張士貴墓誌』の「背誕丸都」(圖二)、『尉遲敬德墓誌』の「凭丸都而舉斧」(圖三)、『高感墓誌』の「占募丸都」(圖四)、『屈突詮墓誌』の「掃丸都而填穰穴」(圖五)、『莫義墓誌』の「丸都尙霧」と「丸都滅稜」(圖六)、『于遂古墓誌』の「奉敕領兵于丸都道征平壤」(行軍と戦争の目的地として行軍都名, 圖七)、『趙安墓誌』の「丸山作梗」(圖八)、『扶余隆墓誌』の「蟻結丸山之域」(圖九)は全て丸都山の略称で、即ち高句麗という國家(政權)を元來の國都付近の名山として代わりに称するのだ。張福有先生の指摘のように「高句麗の別称」としてその山の上下に既に200年間荒廢してしまった二つの古城を指しているのではない。このような使用のされ方は乾陵『唐述聖記碑』の「獨有涇水弓風, 丸山阻頌」(圖一〇)[17]と同様である。『王君愕墓誌』の「言紀丸都」(圖一一)、『牛秀墓誌』の「勒丸都之□」(圖一二)、『婁敬墓誌』の「重紀丸都之岍」(圖一三)、『陸仁儉墓誌』の「勒丸都者」(圖一四)、『于遂古墓誌』の「上丸都而勒頌」(圖七)、『泉男生墓誌』の「丸山未銘」(圖一五)は丸都山にて功績を立てて石に刻んだという意味だ。『三國志·母丘儉傳』と『梁書』『北史』に幽州刺史の母丘儉が曹魏正始5年(244年)軍隊を率いて高句麗を征伐し丸都山城を破り、滅亡させたこと記している。6年再征伐の時、「至肅慎氏南界, 刻石紀功, 刊丸都之山, 銘不耐之城」[18]の古事は清の光緒年間に集安の板岔峪にて發見された『母丘儉紀功碑』[19]が証明している。唐代の墓誌は功績を記録し刻み、墓誌の主人が高句麗との戦闘で武功を立てたと説明しているのだ。これは鄭萬英の『大唐信法寺彌陀象碑』の「刻苑琰于丸都」(圖一六)[20]と韓國慶州の『大唐樂浪郡王開府儀同三司上柱國新羅文武王陵之碑』の三番目の碑石の最初の文言「丸山有紀功之將」(圖一七)[21]と同様だ。過去に遡ると後漢の車騎將軍·竇憲が北匈奴を大破した「遂登燕然山, 去塞三千余里, 刻石勒功, 紀漢威德」[22]の典故が存在する。

上述した墓誌と碑石において唐代文人が書いた「丸都」と「丸山」の文言と文字の形態を根據に『宋本冊府元龜』卷564の「封金岱嶺，昭累聖之鴻勛；勒石九都，成文考之先志」[23]のような史料の意味を把握してみよう。この本の宗本卷117は既に消失し、他の版本には「按馬九都，觀兵遼水」[24]となっている。宗本『太平御覽』卷278は「（母丘儉）遂束馬懸車，登九都山，斬獲首虜以千數」[25]、影印本『文苑英華』卷377は「契丹凶羯，敢謀亂常，蜂聚九（一作凡）山，豕食遼塞」[26]となっており、同じ本の卷718は「方且獵火九都，窮踏頓，存肅慎，吊姑余，彷徨赤山，巡御日域，以昭我王師襲天討也」[27]となっている。このように引用文の關連語彙は筆寫の誤謬や諱を避けるために異なる形で書いたもので、比較的簡単に正して史料を正しく読むことができる。

注釋

- [1]張福有《“九都”“丸都”辨——〈全唐詩〉中李世民詩句的一處印誤》《光明日報》1998年3月5日。
- [2]王建《丸都爲何變九都》《光明日報》1998年8月6日。
- [3]張福有《長白山詩詞史話“九都”“丸都”辨》《學問》（后改名《東北史地》）2000年第11期，第4頁。張福有《規範詞譜傳承〈紀遼東〉》，《中華詩詞》2010年第8期，第45頁。
- [4]《史記》卷一，《五帝本紀》：《集解》徐廣曰：“丸，一作‘凡’。”駢案：《地理志》曰丸山在郎邪朱虛縣。《索隱》注“丸，一作‘凡’”，凡音扶嚴反。《正義》丸音桓。《括地志》云：“丸山即丹山，在青州臨朐縣界朱虛故縣西北二十里，丹水出焉。”丸音執。守節案：地志唯有凡山，盖凡山丸山是一山耳。諸處字誤，或“丸”或“凡”也。漢書郊祀志云“禪丸山”，顏師古云“在朱虛”，亦与《括地志》相合，明丸山是也。中華書局，1959年，第6頁。
- [5]楊守敬、熊會貞《水經注疏》卷二六，《巨洋水》：“城東北二十里有丹山，世謂之‘凡山’，（會貞按：《淄水注》亦云‘丹山’，俗謂‘凡山’。酈氏盖從應說，以‘丹’爲正。如《廬江注》所云，廬江之名，山水相依也。考《史記·封禪書》、《漢書·郊祀志》、《地理志》并作‘凡山’。《五帝本紀》作‘丸山’，而《集解》引徐廣，互存之，張守節以‘丸山’爲是。梁玉繩以‘凡山’爲据。顧祖禹又言，“丸山”，或訛爲“凡山”，俗名“丹山”。王先謙則謂此山当應說。）縣在西南，非山也。‘丹’‘凡’字相類，音從字變也。（趙云：‘按“丹”古篆作“凡”，故与“凡”相似。’）”，《楊守敬集》第4冊，《水經注疏》，湖北人民出版社、湖北教育出版社，1997年，第1599頁。
- [6]《三國志》卷三〇，中華書局，1959年，第843頁。
- [7]《南史》卷七九，中華書局1975年，第1969、1988頁。
- [8]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編《全唐文補遺》第三輯，三秦出版社，1996年，第350頁。周紹良主編《唐代墓志匯編》，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131頁。
- [9]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編《全唐文補遺》第五輯，三秦出版社，1998年，第142頁。周紹良主編《唐代墓志匯編》，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477頁。
- [10]周紹良 趙超主編《唐代墓志匯編續集》，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246頁。

- [11]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編《洛陽新獲墓志續編》，科學出版社2008年，第351頁。
- [12]繆韻《讀〈大周屈突詮墓志〉》，王双怀 郭紹林主編《武則天与神都洛陽》，中國文史出版社，2008年，第352頁。
- [13]啓功《广碑別字序》：“窃謂碑版之刻，其文字正別固由書人，而石工奏刀，于点畫或遺或略，則非盡由書丹者之筆誤也。”秦公 劉大新《广碑別字》，國際文化出版公司，1995年，第2頁。
- [14]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編《全唐文補遺》第五輯，三秦出版社，1998年，第217頁。周紹良 趙超主編《唐代墓志匯編續集》，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335頁。
- [15]周紹良 趙超主編《唐代墓志匯編續集》，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374頁。
- [16]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編《全唐文補遺》第四輯，三秦出版社，1997年，第323頁。周紹良主編《唐代墓志匯編》，上海古籍出版社，2007年，第167頁。
- [17]北京圖書館金石組編《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第17冊，中州古籍出版社，1989年，第10頁。（清）董誥等編《全唐文》，中華書局，1983年，第1冊，第1005頁。（清）陸心源編《唐文續拾》卷一，（清）董誥等編《全唐文》，中華書局，1983年，第11冊，第11184頁。
- [18]《三國志》卷二八，中華書局，1959年，第762頁。
- [19]王綿厚 王海萍主編《遼寧省博物館藏碑志精粹》，文物出版社、日本中教出版株式會社，2000年合作出版，第44頁。
- [20]北京圖書館金石組編《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第13冊，中州古籍出版社，1989年，第75頁。（清）陸心源編《唐文拾遺》卷一七，有《大唐信法寺弥陀象碑》，惜无“丸都”二字未泉出而以“□□”表示。（清）董誥等編《全唐文》，中華書局，1983年，第11冊，第10551頁。
- [21]韓國忠北大學校歷史科金榮官教授惠賜圖片。
- [22]《后漢書》卷二三，《竇憲傳》，中華書局，1965年，第814頁。
- [23]（宋）王欽若等編《宋本冊府元龜》卷五六四，中華書局1989年，第1626頁。
- [24]（宋）王欽若等編纂、周勛初等校訂《冊府元龜》第2冊，鳳凰出版社，2006年，第1277頁。
- [25]（宋）李昉等撰《太平御覽》卷二七八，中華書局，1960年，第1296頁。
- [26]（宋）李昉等編纂《文苑英華》卷三七七，陳子昂《爲建安王誓衆詞》，中華書局，1966年，第1922頁。
- [27]（宋）李昉等編纂《文苑英華》卷七一一，陳子昂《送著作佐郎崔融等從梁王東征序》，中華書局，1966年，第3716頁。

중국 출토 한국고대 관련 금석문 연구동향
- 고구려, 백제, 樂浪流民 묘지명을
중심으로 -

윤용구 (인천도시개발공사)

중국 출토 한국고대 관련 금석문 연구동향

-고구려·백제·낙랑유민 묘지명을 중심으로-

윤용구(인천도시공사)

1. 머리말
2. 高句麗·百濟遺民 묘지명과 연구
3. 북조대 樂浪·高句麗流民 묘지명과 연구
4. 맺음말

1. 머리말

중국에서 출토된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은 1917년 羅振玉(1866~1940)의 『芒洛冢墓遺文』 第4編에 扶餘隆(卷3)·高慈(卷4)·泉男生(補遺)의 墓誌가 수록되면서부터 알려졌다. 이후 2013년 하반기에 소개된 陳法子墓誌銘까지 현재 고구려와 백제유민 묘지명은 34점에 달한다.¹⁾ 1991년 이후 새로 알려진 묘지가 22점에 달해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西晉代 시작되어 北魏代 定型화된 墓誌銘은 문헌 사료의 기록을 상대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隋唐代 묘지명은 誌主의 事迹을 드높이고자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誌文에 수록되어 그 사료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헌에 없는 인물이 대부분이며, 또한 문헌과 다른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래 묘지명의 출토와 관련 연구가 늘어나는 한편 연구자의 폭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넓어졌다. 특히 渡唐 留學生인 일본인 井眞成墓誌가 2004년 발견되고, 이어 杜嗣先墓誌, 백제유민 祿軍墓誌 등에서 일본 國號 관련 기록이 확인되면서부터 국제규모 학술회의와 현지조사 및 관련 자료집의 간행이 활발하다. 2003년 이후 중국에서는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묘지명을 통해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후 王族을 포함한 遺民의 主力이 唐에 ‘歸屬’ 되고 이후 급격히 漢化 되었음을 강조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1) 拜根興, 2012 「高句麗·百濟遺民 墓誌銘匯集」 『唐代高句麗百濟移民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pp.257~307에 2012년까지 알려진 고구려유민 묘지명 21점, 백제유민 묘지명이 11점이 수록되어 있다. 2013년 고구려유민 高牟墓誌銘과 백제유민 陳法子墓誌銘의 출토가 알려지면서 현재 묘지명이 확인된 고구려유민은 22명, 백제유민은 12명에 달한다.

한편 北朝代 금석문 중에는 4세기 초 낙랑군 소멸 후 중국으로 유입된 樂浪流民과 高句麗流民의 묘지명 자료도 적지 않다. 당초 이들은 鮮卑慕容부에 의하여 요서지역에 僑置 혹은 강제 이주되었다. 이후 前燕·後燕·北燕의 지배하에 있다가 북위에 의하여 383년 후연이 멸망하고, 432년 北燕도 정복함에 따라 平城 일대로 대규모 徙民이 이루어 졌다. 낙랑유민과 부여·고구려유민의 묘지명은 遼西·平城·關中(낙양·장안 등)에서 확인된다. 특히 낙랑유민 한 가계의 묘지명이 평성과 낙양에서 확인되면서 종말기 낙랑군의 사정을 이해하고, 遼西지역을 두고 高句麗와 北魏의 교섭사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北朝代 高句麗流民 가운데는 唐代 까지도 그 가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주목을 요한다.

본고에서는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북조대 낙랑·고구려流民, 그리고 墓誌를 통한 연구 성과를 개관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²⁾.

2. 高句麗·百濟遺民 묘지명과 연구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羅振玉에 의해 시작되었다. 곧 1917년 洛陽에서 발견된 泉男生墓誌와 高慈墓誌 및 扶餘隆墓誌의 釋文을 같은 해 간행한 『芒洛冢墓遺文』 第4編에 수록하면서부터였다. 이후 羅振玉은 1923년 泉男產墓誌, 1926년 출토된 泉獻誠·泉毖·高震墓誌 등 7점의 묘지명의 釋文과 각기 跋文을 붙여 1937년 『唐代海東藩閩誌存』이란 冊題아래 集錄하였다.³⁾

羅振玉의 집록이후 1980년대까지 새로운 자료의 추가는 없었고, 묘지명을 이용한 연구도 미미하였다. 1990년 北京圖書館金石組에서 펴낸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전46책, 中州古籍出版社)을 통해 黑齒常之와 黑齒俊 父子의 墓誌가 알려진 이후에야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따라서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 연구는 1990년을 분기로 大分하고, 1990년 이후는 편의상 10년 단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헌의 나열은 國內와 國外로 구분하였다.

[1990년 이전의 연구]

초기의 연구는 1917년 羅振玉의 家刻本 『芒洛冢墓遺文』(第4編)을 시작되어 1937년 『唐代海東藩閩誌存』에 泉男生 등 고구려유민 6명, 백제유민 扶餘隆 등 총 7점의 묘지명이 집록되면서 일단락

2) 중국 출토 고구려, 백제인 묘지명과 遺民의 연구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拜根興, 2002 「中國 소재 韓國古代史 관련 金石文資料의 現況과 展望」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 新羅金石文의 現況과 課題』 23, 慶州市, pp.171~202 ; 정병준, 2008 「고구려 유민연구」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69~107 ; 권덕영, 2010 「한국고대사 관련 中國 金石文 조사 연구 : 唐代 자료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7, 한국사학회, pp.1~47.

3) 羅振玉의 묘지명 수집과 정리에 대해서는 趙振華·趙水森, 2004 「洛陽地下墓誌의 發現流徙與收藏著錄研究」 『洛陽新出土墓誌釋錄』 北京圖書館出版社, pp.18~23.

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0년 이전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羅振玉, 1917a 「扶餘隆墓誌」 『芒洛冢墓遺文』 4編3卷, 家刻本, 61~62葉 ; 1977 『石刻史料新編』 1輯19冊, 新文豐出版公司, p.14240.
- 羅振玉, 1917b 「高慈墓誌」 『芒洛冢墓遺文』 4編4卷, 家刻本, 18~20葉 ; 1977 『石刻史料新編』 1輯19冊, 新文豐出版公司, pp.14254~14255.
- 羅振玉, 1917c 「泉男生墓誌」 『芒洛冢墓遺文』 4編補遺, 家刻本, 20~24葉 ; 1977 『石刻史料新編』 1輯19冊, 新文豐出版公司, pp.14317~14319.
- 內藤湖南, 1920 「近獲の二三の史料」 『藝文』 11-3, pp.260~265 ; 同增補, 1929 『讀史叢錄』 弘文堂⁴⁾ ; 1970 『內藤湖南全集』 7, 筑摩書房, pp.559~577.
- 葛城未治, 1923 「百濟扶餘隆の墓誌に就いて」 『朝鮮』 103 ; 1924 「百濟扶餘隆墓誌」 『朝鮮史講座』 (特別講義 「朝鮮金石文」) 朝鮮史學會, pp.43~46 ; 1935 『朝鮮金石攷』 大阪屋號書店, pp.547~563⁵⁾
- 朝鮮總督府, 1923 「洛陽 百濟扶餘隆墓誌」 『朝鮮金石總覽』 下(「朝鮮金石總覽 補遺三」), pp.5~6. 拓本付
- 稻葉君山, 1924 「高句麗の泉男生墓誌に就て」 『朝鮮史講座』 (特別講義 「朝鮮古蹟及遺物」), pp.323~328 ; 1925 『朝鮮文化史研究』 東京 雄山閣, pp.333~337. 誌蓋・誌文 拓本付
- 朝鮮史編修會, 1937 「高慈墓誌拓本-今西春秋氏所藏」 『朝鮮史料集眞續解』 第1輯, pp.9~11.
- 朝鮮史編修會, 1937 「泉男生墓誌拓本-今西春秋氏所藏」 『朝鮮史料集眞續解』 第1輯, pp.12~14.
- 羅振玉, 1937 『唐代海東藩閩誌存』 家刻本 ; 1977 『石刻史料新編』 2輯 15冊, 新文豐出版公司, pp.11515~11533.

羅振玉은 천남생·고자·부여용 묘지명의 釋文을 『芒洛冢墓遺文』 (第4編)에 소개하면서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의 존재와 그 내용이 알려졌다. 이들 묘지명은 1920년 羅振玉의 자료 제공으로 內藤湖南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때 묘지문의 표점과 내용의 단락구분이 시도 되고, 고구려의 官等制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료로 주목하게 된다.

1924년 北京留學 중이던 今西龍의 자료 제공으로 葛城未治에 의해 부여용묘지가, 內藤湖南의 탁본 제공으로 稻葉君山이 천남생묘지에 대한 개별 연구가 이루어 졌다. 稻葉君山의 논문이 발표될 무렵 泉男生墓誌는 고구려 연구의 새로운 사료로 일반에 소개되기도 하였다.⁶⁾ 墓誌의 釋文은 羅振玉에 의해 이루어 졌지만, 標點과 拓本 사진은 內藤湖南 등 일인학자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탁본은 扶餘隆과 泉男生墓誌에 한하였지만, 1937년 朝鮮史編修會에서 今西龍의 아들 今西春秋의 소장 자료를 이용하여 高慈와 泉男生墓誌銘의 선명한 탁본과 함께 간단한 설명이 『朝鮮史料集眞續解』 (제1집)에 게재되었다.

4) 1920년 羅振玉으로부터 탁본과 석문을 제공받아 扶餘隆과 泉男生·高慈의 墓誌를 소개하였고, 1929년 泉男生墓誌를 추가하여 增補하였다.

5) 北京에 유학 중이던 今西龍의 자료 제공에 의해 扶餘隆와 함께 泉男生·高慈·泉男生墓誌의 소개와 간략한 고찰이 이루어졌다.(pp.169~200)

6) 「高句麗의 史料 發見-泉男生의 墓誌」 『時代日報』 1924년 6월 17일자 1면
「고구려의 사료 발견」 『독립신문』 1924년 7월 26일자 4면

羅振玉이 소개한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과 연대기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李弘植, 1956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斗溪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 1971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新丘文化社, pp.298~301.

李蘭暎, 1968(1976) 『韓國金石文追補』 (八) 附錄, 亞細亞文化社, pp.255~265.⁷⁾

盧泰敦, 1981 「高句麗 遺民史 研究-遼東·唐內地 및 突闕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 『韓沽宥博士停年紀念史 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pp.79~108.

秋本太二, 1939 「高仙芝の西征-特に其の小勃律征討に就いて」 『京城帝大史學會報』 15, pp.13~32.

內藤雋輔, 1955 「唐代中國に於ける朝鮮人の活動について」 『岡山史學』 1, 岡山大學史學會, pp.1~19 ; 1961 『朝鮮史研究』 京都大學文學部 東洋史研究會, pp.481~510.

那波利貞, 1955 「唐代の敦煌地方に於ける朝鮮人の流寓に就きて」 『文化史學』 9~11, 岡山大學史學會, 195

5~1957, pp.20~42(9號), pp.14~26(10號), pp.44~52(11號)

陳長安, 1989 「洛陽隋志史料淺釋」 『中原文物』 1989-2, pp.50~62.

泉男生·扶餘隆 등 7건의 묘지명은 羅振玉이 집록한지 30년이 지난 1968년 李蘭暎의 『韓國金石文追補』 에 수록하면서 국내 연구자에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韓國金石文追補』의 배열순서는 『唐代海東藩閩誌存』를 따랐지만 釋文은 그와 다른 부분이 많고, 內藤湖南의 판독문과도 차이가 있다. 『韓國金石文追補』의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은 중국·일본의 도서관과 개인 소장 자료 및 국립박물관 舊藏記錄 등을 수집한 것이라 하는데,⁸⁾ 판독문의 작성 자료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묘지명을 자료로 한 개별연구는 1990년 이전에 찾기 어렵다. 묘지를 통해 천남생의 降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을 지적한 李弘植의 연구와 중국 내지로 이주한 최고 귀족의 자의식 변화의 면모를 살펴 본 盧泰敦의 연구가 눈에 뜨일 뿐이다. 內藤雋輔에 의해 고구려·백제유민과 재당 신라인 존재양태를 개괄적으로 언급되었으며, 고구려유민 高仙芝에 대한 연구가 秋本太二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1989년 발표된 陳長安의 글은⁹⁾ 수대 묘지명 가운데 고구려와의 전쟁에 종군한 기록을 전투별로 발췌 정리하였는데 전쟁과정과 隋軍의 군대편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1990년대의 연구]

1990년대는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에서 백제 黑齒常之와 그의 자 黑齒俊墓誌銘을 비롯하여 1999년 高玄墓誌 등 3점이 국내 연구자에 의해 처음 학계에 소개, 연구되었다. 중국에서도 1995년 似先義逸墓誌, 1998년 李他仁墓誌가 처음 소개되었다. 1937년 羅振玉의 집록이후

7) (八) 附錄에 泉男生·扶餘隆·高慈·泉獻誠·泉男產·泉懋·高震墓誌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8) 李佑成, 2008 「書評:『韓國金石文追補』」 『歷史學報』 40, p.162.

9) 陳長安, 1989 「洛陽隋志史料淺釋」 『中原文物』 1989-2, pp.55~58.

60년이 가까이 지나서야 5점의 묘지명이 확인되었다. 이시기 주요 성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李文基, 1991a 「百濟 黑齒常之 墓誌銘의 判讀과 紹介」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21호(1991.5.31)
 李文基, 1991b 「百濟 黑齒俊 墓誌銘의 判讀과 紹介」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22호(1991.8.31)
 李道學, 1991 「百濟 黑齒常之墓誌銘의 檢討」 『우리 문화』 8월호, 전국문화인연합회 ; 『향토문화』 6, 대구, 향토문화연구회, pp.19-37 ; 同改題, 2010 「黑齒常之墓誌銘의 분석」 『백제 사비성 시대 연구』 일지사, pp.355-367¹⁰⁾
 李文基, 1991c 「百濟 黑齒常之 父子 墓誌銘의 檢討」 『韓國學報』 64, 一志社, pp.142-172
 朴漢濟, 1992 「고구려 유민 관련 금석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pp.491-544.
 宋基豪, 1992 「백제 유민 관련 금석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pp.545-582.
 梁起錫, 1995 「百濟 夫餘隆 墓誌銘에 대한 檢討」 『國史館論叢』 62, 國史編纂委員會, pp.135-159.
 馬馳, 1997 「《舊唐書》黑齒常之傳의 補闕과 考辨」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pp.317-341.
 梁起錫, 1997 「百濟 夫餘隆 墓誌銘의 '百濟 辰朝人」 『金顯吉教授定年紀念鄉土史學論叢』 修書院, pp.33-40.
 송기호, 1999 「高句麗 유민 高玄 墓誌銘」 『博物館年報』 10, 서울大學校 博物館, pp.3-14.
 黃清連, 1992 「從〈扶餘隆墓誌〉看唐代中韓關係」 『大陸雜誌』 85-2
 馬咏鍾·張安興, 1995 「唐似先義逸墓誌考釋」 『碑林集刊』 3, 西安碑林博物館, pp.98-101
 張乃蕪·張成昆, 1995 「跋洛陽出土的聖歷二年黑齒常之墓誌」 『唐史論叢』 6, pp.102-109
 李之龍, 1996 「唐代黑齒常之墓誌文考釋」 『東南文化』 1996-3, 南京博物院, pp.106-113
 束有春 焦正安, 1996 「唐代百濟黑齒常之、黑齒俊父子墓誌文解讀」 『東南文化』 1996-4, pp.61-72.
 馬馳, 1998 「黑齒常之事迹考辨」, 『武則天與偃師』 歷史教學社
 孫鐵山, 1998 「唐李他仁墓誌考釋」 『遠望集』 下(陝西省考古研究所華誕四十周年紀念文集), 陝西人民美術出版社, pp.736-739
 李之龍, 1999 「跋唐扶餘隆墓誌文」 『華夏考古』 1999-2,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p.24, pp.88-93.
 連劭名, 1999, 「唐代高麗泉氏墓誌史事考述」 『文獻』 1999-3, 北京圖書館出版社, pp.191-199.

1992년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에 대한 표점과 어구에 주석 및 지문 국역이朴漢濟와 宋基豪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다. 묘지명 자료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에서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에 대한 연구가 크게 늘어나고 연구자의 폭도西安과 洛陽 두 지역 넓어지고 있음이 눈에 띈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의 소개 외에는 여전히扶餘隆과 黑齒常之 두 인물의 唐에 기여한 활동상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李獻寄, 1994 「唐李多祚墓誌考釋」 『畫像磚石刻墓誌研究』 中州古籍出版社, pp.239-245.
 徐永大, 1995 「高句麗 貴族家門의 族祖傳承」 『韓國古代史研究』 8, pp.155-183
 劉景龍·李玉昆, 1998 『龍門石窟碑刻題記彙錄』 下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p.340.

10) 이외에도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한 무장의 비장한 생애에 대한 변명』 주류성, 1996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다.

그 밖에 문헌에 “三韓貴宗”으로 알려진 黑水靺鞨系 蕃將 李多祚墓誌가 1994년 알려졌고, 高慈墓誌를 통하여 고구려 왕권이 확립된 이후 귀족가문의 族祖傳承이 변모하는 양상을 규명한 주목할 연구도 나왔다.¹¹⁾ 1998년 龍門石窟 재877호 窟龕 좌측에 “一文郎將妻 扶餘氏 敬造兩區”라 새긴 불상조상기가 확인되어 逸名の 백제유민의 존재가 알려지기도 하였다.

[2000년대의 연구]

2000년 이후 10년간은 고구려·백제 유민 연구사상 가장 활발한 시기로 평가할 만하다. 먼저 8점의 새로운 유민 묘지명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시기 고구려·백제의 멸망이후 지배층을 비롯한 遺民의 主力이 중국에 歸屬與否가 동북공정의 논란과 함께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된 것도 연구 상의 특기할 점이다. 이 시기 묘지의 출토와 관련 연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卞麟錫, 2000 『唐長安의 新羅史蹟』 아세아문화사¹²⁾
 李文基, 2000 「百濟 遺民 難元慶 墓誌의 紹介」 『慶北史學』 23, 慶北史學會, pp.493~526.
 馬馳, 2000 「難元慶墓誌簡釋」 『春史卞麟錫教授停年紀念論叢』 亞細亞文化社 ; 2002 『洛陽出土墓誌研究文集』 朝華出版社, pp.291~303.
 金賢淑, 2001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동향」 『韓國古代史研究』 23, 한국고대사학회, pp.63~105.
 李文基, 2001 「高句麗 遺民 高足西 墓誌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6, 歷史教育學會, pp.441~474.
 拜根興, 2001 「高句麗 遺民 高足西 墓誌銘」 『中國史研究』 12, 중국사학회, pp.305~322 ; 2003 「高句麗 遺民高足西墓誌銘考釋」 『碑林集刊』 9, pp.27~35.
 李文基, 2002 「高句麗 寶藏王의 曾孫女 ‘高氏夫人墓誌’ 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29, 歷史教育學會
 拜根興, 2002 「中國 소재 韓國古代史 관련 金石文資料의 現況과 展望」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 新羅 金石文의 現況과 課題』 23, 慶州市, pp.171~202.
 尹龍九, 2003 「중국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韓國古代史研究』 32, 한국고대사학회, pp.293~325
 고구려연구재단, 2004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김현숙, 2004 「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33, 한국고대사학회, pp.75~94.
 이문기, 2005 「高句麗 遺民 高足西의 생애와 활동」 『民族發展研究』 11·12합,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閔庚三, 2007 「신출토 高句麗 遺民 高質 墓誌」 『新羅史學報』 9, 신라사학회, pp.341~353.
 송기호, 2007 「고구려 유민 高氏夫人 墓誌銘」 『韓國史論』 5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pp.485~492.
 金榮官, 2007 「百濟遺民 禰寔進 墓誌 소개」 『新羅史學報』 10, 신라사학회, pp.365~380 ; 金憲鏞
 譯, 2008 「百濟遺民《禰寔進墓誌》介紹」 『碑林集刊』 13, 西安碑林博物館
 李道學, 2007 「禰寔進墓誌銘을 통해 본 百濟 禰氏 家門」 『傳統文化論叢』 5, 한국전통문화학회,

11) 李獻奇, 1994 「唐李多祚墓誌考釋」 『畫像磚石刻墓誌研究』 中州古籍出版社, pp.239~245.
 徐永大, 1995 「高句麗 貴族家門의 族祖傳承」 『韓國古代史研究』 8, pp.155~183
 12) 장안 일대의 고구려, 백제인과 계당신라인 관련 유적과 묘지명 등의 금석문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高句麗 遺民의 中國遷徙 1. 고구려·백제의 徙民 2. 長安城南의 高麗曲 3. 兩京 都城 안의 海東三國人 소유의 家宅 4. 新羅事蹟의 調査... 8. 似先義逸 墓誌 출토지점의 현지조사 9. 難元慶墓誌의 現狀

- pp.66-91 ; 同改題,2010 「禰寔進墓誌銘」을 통해 본 禰氏 家門」 『백제 사비성 시대 연구』 일지사, pp.302~367
- 이동훈,2008 「高句麗 遺民〈高德墓誌銘〉」 『韓國史學報』 31, 고려사학회, pp.9~44.
- 배근홍~2008 「백제와 당 관계에 관련된 두 문제 -옹진 도둑 왕문도의 사망과 예식진묘지명에 관하여」 『百濟研究』 4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바이건성,2008 「고구려·발해유민 관련 유적·유물」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153~253.
- 閔庚三,2009 「中國 洛陽 신출토 古代 韓人 墓誌銘 연구 -高質 墓誌銘을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15, 신라사학회, pp.215~244.
- 배근홍,2009 「高句麗 遺民 高性文, 高慈 父子 墓誌의 考證」 『忠北史學』 22, 충북사학회
- 김영관,2009a 「百濟 義慈王 曾孫女 太妃扶餘氏 墓誌」 『百濟學報』 창간호, 백제학회, pp.115~144.
- 金榮官,2009b 「高句麗遺民 高鏡苗 墓誌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56, 한국고대사학회, pp.367~397.
- 박현규,2009 「天龍山石窟 제15窟과 勿部珣將軍功德記-선행학자들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西江人文論叢』 2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39~67.
- 崔珍烈,2009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の 正體性-唐代 墓誌銘에 보이는 高句麗의 別稱(朝鮮·三韓·扶餘) 分析을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24, 동북아역사재단, pp.205~255
- 陳長安,2002 「唐代洛陽의百濟人」 『洛陽出土墓誌研究文集』 朝華出版社, pp.324~353.
- 杜文玉,2002 「唐代泉氏家族研究」 『渭南師範學院學報』 2002-3, pp.34~40.
- 趙超,2002 「唐代墓誌中所見의高句麗與百濟人士」 『揖芬集—張政烺先生九十華誕紀念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485~494.
- 牛致功,2005 「有關泉男生降唐의問題-讀〈泉男生墓誌銘〉和〈泉獻誠墓誌銘〉」 『碑林集刊』 2006-2, 西安碑林博物館, pp.149~154 ;2006 『唐代史學與墓誌研究』 삼진출판사, pp.297~306
- 魏郭輝,2005 「唐代河隴朝鮮人之研究」 『敦煌學輯刊』 2005-2, pp.283~290.
- 張福有·趙振華,2005 「《洛陽、西安出土北魏與唐高句麗人墓誌及泉氏墓地》 『東北史地』 2005-4, pp.2~19;2008 「洛陽,西安から出土して北魏、唐代の高句麗人墓誌と泉氏墓地」 『東北アジア古代文化論叢』 北九州中國書店, pp.185~218.
- 錢伯泉,2006 「隋唐时期西域의朝鮮族人」 『新疆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6-4, pp.60~64.
- 馬一虹,2006 「從唐墓誌看入唐高句麗遺民歸屬意識의變化—以高句麗末代王孫高震一族及權勢貴族爲中心」 『北方文物』 2006-1, pp.29~37.
- 拜根興,2006 「高句麗、百濟遺民關聯問題研究的現狀與展望」 『中国歷史地理論叢』 21-2, pp.151~160.
- 王化昆,2007 「讀武周〈高質墓誌〉」 『武則天與神都洛陽』 中国文史出版社 ; 2007 「〈武周高質墓誌〉考略」 『河洛春秋』 2007-3, 洛陽歷史文物考古研究所
- 李健超,2007 「唐兩京及畿內의高麗,百濟人」 『漢唐兩京及絲綢之路歷史地理論集』 三秦出版社, pp.480~494.
- 董延壽·趙振華,2007 「洛陽、魯山、西安出土의唐代百濟人墓誌探索」 『東北史地』 2007-2, pp.2~12.
- 董延壽·趙振華,2007 「補正〈洛陽、魯山、西安出土의唐代百濟人墓誌探索〉中的掉字和錯字」 『東北史地』 2007-4, p.63.
- 黃兆宏,2008 「隋唐時期高麗人入遷河西問題考述」 『青海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28, pp.55~58.
- 拜根興,2008 「百濟遺民〈禰寔進墓誌銘〉關聯問題考釋」 『東北史地』 2008-2, pp.28~32.
- 張蘊,2008 「唐「故虢王妃扶餘氏墓誌」考」 『碑林集刊』 13, 西安碑林博物館, pp.95~104 ; 張蘊, 汪幼軍,劉古鳳,2008 「唐「故虢王妃扶餘氏墓誌」考」 한국목간학회, pp.223~236.
- 拜根興,2009a 「入鄉隨俗:墓誌所見入唐百濟遺民의生活軌跡-兼論百濟遺民遺迹」 『陝西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9-4, pp.72~80.

拜根興, 2009b 「在唐高句麗遺民遺物, 遺迹的現狀及其分布」 『中國歷史地理論叢』 2009-1, pp.87~97.

趙振華·閔庚三, 2009 「唐朝高句麗高氏高質、高慈父子墓誌研究」 『東北史地』 2009-2, pp.21~33, p.93

2000년 卞麟錫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진 백제 難元慶墓誌를 비롯하여 2001년李文基가 高足西墓誌와 보장왕의 증손녀 高氏夫人墓誌를 소개한데 이어 閔庚三이 1917년 묘지가 출토된 高慈의 아버지 高質(性文)묘지를, 金榮官이 禰寔進墓誌, 의자왕 증손녀 太妃扶餘氏墓誌, 高饒苗墓誌를, 이동훈이 高德墓誌의 존재를 보고하였다. 또한 윤용구와 박현규에 의해 黑齒常之의 사위로 알려진 백제 珣將軍의 실제 이름이 천룡산석굴에 남아있던 공덕비 잔편을 통하여 勿部珣임을 확인하여 그의 族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다.

자료 소개와 관련하여 새로운 현상은 그 신속성이다. 그 동안은 오래 전 금석서에 수록된 것을 우연히 찾아낸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黑齒常之·黑齒俊 父子墓誌를 비롯하여 高玄墓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료집이 간행되자마자 새로운 자료를 찾아냈으며, 심지어는 중국에서 정리되지 않은 생생한 자료를 국내에서 먼저 공개되기도 하였다. 禰寔進墓誌, 의자왕 증손녀 太妃扶餘氏墓誌, 高饒苗墓誌, 高德墓誌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자료 정리와 관련하여 2004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을 포함하여 수당대 금석문 전체를 섭렵하여 고구려 관련 기사를 발췌하였다. 이용의 편의를 위해 각 자료집에 중복 수록된 경우 誌文의 對校까지 이루어졌다. 대부분 고구려 침략에 종군한 誌主나 先代의 공훈 기록이다. 수당의 전쟁 동원방식을 재구성하고, 고구려를 지칭하는 용례(지역명, 하천, 산, 상징적 동물 등)를 통하여 그 시대 중국인의 고구려에 대한 인식의 변화상을 유추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묘지명이 출토된 현지를 실지답사하고 묘지명과 관련한 지역사 자료까지 세밀하게 조사하는 보고서의 간행도 주목할 진전이다. 2005년 張福有와 趙振華에 의해 고구려유민 묘지명 출토지에 대한 보고에 이어, 2007년 董延壽와 趙振華가 백제유민 묘지명 출토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다. 특히 묘지명이 수록된 目錄, 題跋, 拓本과 釋文 및 所藏處까지 명기하여 관련 연구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현재 같은 묘지에 대한 탁본과 석문 수록이 여러 자료에 중복되어 있는 점에서 유용한 정리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拜根興이 중국 내 고구려·백제유민의 유적과 유물을 현상을 조사한 것도 이 시기 중국 측 연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묘지명을 이용한 유민사 연구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기왕의 조사 자료를 종합하고 새로운 문제 제기를 시도한 연구가 늘어났다. 2002년 拜根興의 중국 소재 금석문 자료 현황 정리와 2006년 고구려·백제유민에 대한 연구동향 검토가 그에 해당한다. 자료 분야에서 언급한 대로 수당대 금석문 전체에서 고구려 관련 자료를 발췌하거나, 고구려·백제유민 관련 유적과 유물에 대한 실지조사와 기초적인 서지사항의 정리도 마찬가지로 입장이라 하겠다.

둘째, 중국 내 고구려·백제유민의 거주 현황을 계층별, 지역별로 살펴보면서 정체성 혹은 자

의식의 변화상을 살펴본 연구가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았다. 2001년 金賢淑의 연구를 비롯하여 2006년 馬一虹, 2009년 崔珍烈의 연구가 그에 해당한다. 특히 고구려유민들이 고구려 대신에 三韓, 朝鮮을 표방하거나 渤海 등 중국 군현명을 사용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戶籍制度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중국에서도 당대 사회 속에서 고구려·백제유민을 종족별, 지역별, 가계별로 개관하는 연구가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02년에 발표된 陳長安·杜文玉·趙超, 2007년 李健超의 연구를 비롯하여 河隴과 西域地域의 고구려유민의 실태를 정리한 魏郭輝(2005)·錢伯泉(2006)·黃兆宏(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셋째, 2002년 본격화된 중국 내 이른 바 ‘東北工程’과 관련하여 고구려유민의 당으로의 歸屬問題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중국 측의 연구는 고구려 붕괴 후 상층부와 군사력을 보유한 주력집단은 唐 內地로 移住하여 唐人으로 활동하다가 同化되었다는 것이 주된 논지였다. 이를 위해 중국으로 이주한 고구려인의 숫자를 가능한 늘려 보았다.¹³⁾ 이런 점에서 2004년 고구려 붕괴 후 유민의 거취 문제를 다룬 김현숙의 연구는 중국 측의 논리를 반박하고 고구려유민을 받아들여 ‘一統三韓’을 기치로 내세운 통일신라와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자처한 발해의 건국사실이 고구려 멸망을 이은 정통성 문제의 요체임을 강조하였다.

넷째, 河隴과 西域地域의 고구려유민의 실태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역으로 徙民된 고구려 주민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¹⁴⁾ 특히 那波利貞(1955)이 돈황문서(P.5522호; 808년 혹은 868년)에 기재된 平康百姓 朴顯長을 朝鮮人으로 보고 넓은 의미에서 고구려유민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2008년 黃兆宏은 문서번호는 P.5008호이며, 그 연대도 928년 혹은 988년이라고 정정하는 한편 새로운 판독을 통하여 ‘朴’字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2006년 錢伯泉은 1984년 투르판에서 발굴된 高耀(701~766)의 墓誌의¹⁵⁾ 주인공을 銘에 “望表渤海, 家於交河” 통하여 貫籍은 渤海로 하는 고구려 유민으로 보고하였다. 祖父 高德芳이 安西都護, 아버지 高玄琇는 守北庭副都護를 지내고 있어 선대에 交河로 이주하였다고 보았다. 龜車에 高仙芝가 있다면 西州 交河에는 고구려 유민의 무장가문으로 高耀가 있었다는 것이다.¹⁶⁾ 2005년 魏郭輝는 敦煌文書 P.3432 「龍興寺器物曆」와 敦煌文書 P.2613 「唐咸通十四年(873)正月四日沙州某寺就庫交割常住什物色目」의 去來物目 가운데 高梨錦, 高離錦은 高麗錦으로 당시 돈황 일대에 여전히 高句麗遺民의 聚落이 존재하였으며, 실제 敦煌文書 P.2255 「設壇發願文」에 보이는 願主 渤海高公이 그 반증의 하

13) 정병준, 2008 「고구려 유민연구」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69-107.

14) 秋本太二, 1939 「高仙芝の西征-特に其の小勃律征討に就いて」 『京城帝大史學會報』 15, pp.13-32.

內藤雋輔, 1955 「唐代中國に於ける朝鮮人の活動について」 『岡山史學』 1, 岡山大學史學會, pp.1-19 ; 1961

『朝鮮史研究』 京都大學文學部 東洋史研究會, pp.481-510.

那波利貞, 1955 「唐代の敦煌地方に於ける朝鮮人の流寓に就きて」 『文化史學』 9-11, 岡山大學史學會, 1955-1957, pp.20-42(9號), pp.14~26(10號), pp.44-52(11號)

15) 高耀墓誌(「大唐伊西庭支度營田副使銀青光祿大夫試衛尉卿上柱國渤海高公墓誌銘」)는 周紹良·趙超, 2001 『唐代墓誌匯編續集』 建中〇〇八, 上海古籍出版社, pp.727~728의 釋文에 따른다.

16) 吳震, 1988 「唐《高耀墓誌》補考」 『新疆社會科學』 1988年 4期 ; 2009 『吳震敦煌吐魯番文書研究論集』 上海古籍出版社文穎, 1991 「唐朝安西都護高賢的籍貫和族別」 『西域研究』 1991年 1期

나로 보았다. 唐代로부터 五代에 이르는 돈황일대 鳥羽冠을 쓴 인물화의 지속적인 제작도 단지 이미지만의 전승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밖에 묘지명과 연대기 자료를 이용한 고구려·백제유민에 대한 연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馬馳·姜清波, 2000 「沙吒忠義의 族出及事迹考」 『春史卞麟錫教授停年紀念論叢』 亞細亞文化社 ; 2001 『國際隋唐史學術研究會暨中國唐史學會第八屆年會論文集』 (2001.8, 青島), pp.1~6¹⁷⁾
- 劉春英, 姜維東, 2001 「唐王朝對內遷高句麗人的安置措施」 『長春師範學院學報』 2001-4
- 紀宗安·姜清波, 2004 「論武則天與原高麗王室和權臣泉氏家族」 『陝西師範大學學報』 (社會科學版) 33-6, pp.71~75. 지배선, 2006 『고구려 백제유민 이야기』 혜안
- 張春海, 2007 「試論唐代營州的高句麗武人集團」 『江蘇社會科學』 2007-2, pp.227~232.
- 정병준, 2007 「營州의 大祚榮集團과 渤海國의 性格」 『東北亞歷史論叢』 16, 동북아역사재단, pp.7~39.
- 姜清波, 2007 「百濟人沙吒忠義在唐事迹考論」 『暨南史學』 5, pp.176 ~ 183
- 李健超, 2007 「唐兩京及畿內的高麗, 百濟人」 『漢唐兩京及絲綢之路歷史地理論集』 三秦出版社, pp.480~494.
- 黃兆宏, 2008 「隋唐時期高麗人入遷河西問題考述」 『青海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28, pp.55~58.
- 정병준, 2008 「고구려 유민연구」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69~107.
- 정병준, 2009 「唐朝의 高句麗人 軍事集團」 『東北亞歷史論叢』 24, 동북아역사재단, pp.177~205.
- 김영관, 2009 「義慈王의 押送 過程과 唐에서의 行蹟」 『白山學報』 85, 백산학회, pp.113~143.
- 노태돈, 2009 「고구려 유민의 한과 눈물」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pp.221~231
- 바이건성, 2009 「고구려 마지막 군주 고장의 분묘 위치 추적 및 당에서의 삶에 관하여」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355 ~ 378.

2000년대 연대기 자료를 이용한 고구려·백제유민사 연구에 있어서는 營州지역 고구려유민의 군사집단 문제를 부각시키며 大祚榮의 발해 건국의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한 張春海(2007)·정병준의 연구가 주목된다.(207,2009) 또한 고구려·백제유민에 대한 지배선(2006)·정병준(2008)·노태돈(2009)의 개괄적 정리도 이 문제 이해를 크게 높이고 있다. 이 시기 중국 측의 연구는 고구려유민의 중국 내 분포와 하서로의 이주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본다. 고구려 유민에 비하여 백제유민에 관한 연구는 저조하다. 변장으로서 沙吒忠義의 활약을 다룬 馬馳·姜清波(2000, 2007)와 예식진묘지의 출토를 계기로 의자왕의 당내 행적을 추적한 김영관의 연구(2009)가 있을 뿐이다.

【2010년-2013년의 연구】

2010년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 연구는 양적으로도 2000년대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넘어섰다. 이 시기 새로 알려진 묘지명은 모두 8점에 달한다. 출토 사실과 이의 연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7) 姜清波, 2010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pp.137-145에도 「沙吒忠義의 族出及事迹考-兼及沙吒相如의 仕唐事迹」의 同文이 수록되어 있다.

- 권덕영, ~2010 「한국고대사 관련 中國 金石文 조사 연구 : 唐代 자료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7, 한국사학회, pp.1~47.
- 이문기, 2010 「墓誌로 본 在唐 고구려 유민의 祖先의식 변화」 『大丘史學』 100, 대구사학회, pp.61~96.
- 金榮官, 2011 「渤海人 諾思計 墓誌銘에 대한 고찰」 『木簡과 文字』 7, pp.149~166.
- 배근홍, 2012 「唐代 백제유민 禰氏家族 墓誌에 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66, 한국고대사학회
- 최진열, 2012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38, 동북아역사재단, pp.211~257.
- 김영관, 2012a, 「百濟 遺民들의 唐 移住와 活動」 『韓國史研究』 158, 한국사연구회
- 김영관, 2012b, 「中國 發見 百濟遺民 禰氏 家族 墓誌銘 檢討」 『新羅史學報』 24, 신라사학회, pp.89~158.
- 이영호, 2012 「새로 발견된 百濟遺民 禰素士·禰仁秀 묘지명 탁본」 『韓國古代史研究』 65, pp.241~244.
- 권덕영, 2012 「백제 유민 禰氏 一族 묘지명에 대한 斷想」 『史學研究』 105, 한국사학회, pp.1~35.
- 이용현, 2012 「백제 禰軍 墓誌銘의 "日本"」 한국고대사학회 제126회 발표문(2012.5.12)
- 樓正豪, 2013 「高句麗遺民 高牟에 대한 考察」 『韓國史學報』 53, 고려사학회, pp.389~412.
- 李成市, 2013 「禰軍 묘지 연구-禰軍의 외교상 사적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10, pp.233~250.
- 김영심, 2013 「墓誌銘과 문헌자료를 통해 본 백제멸망 전후 禰氏의 활동」 『역사학연구』 52, 호남사학회, pp.207~235.
- 김영관, 2013a 「百濟 義慈王 外孫 李濟 墓誌銘에 대한 연구」 『百濟文化』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163~180.
- 김영관, 2013b 「高句麗 遺民 高提昔 墓誌銘에 대한 연구」 『白山學報』 97, 백산학회 ; 同中譯, 2013 「高句麗遺民高提昔墓誌銘研究」 『碑林集刊』 19, 西安碑林博物館, pp.85~
- 안정준, 2013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源-高句麗에서 활동했던 柵城 지역 靺鞨 人의 사례」 『木簡과 文字』 11, 한국목간학회, pp.197~220.
- 김영관, 2014 「百濟 遺民 陳法子 墓誌銘 研究」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103~134.
- 정동준, 2014 「〈陳法子 墓誌銘〉의 검토와 백제 관제」 『韓國古代史研究』 74, pp.175~215.
- 김수진, 2014 「당으로 이주한 고구려 포로와 지배층에 대한 문헌과 묘지명의 기록」 『한국고대사연의 자료와 해석』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②), 사계절, pp.285~324.
- 李鎔賢, 2014 「禰軍墓誌의 "日本"」 『韓國古代史研究』 75, 한국고대사학회
- 拜根興, 2010a 「入唐百濟遺民研究的現狀——以中國學者的研究爲中心」 『韓國學論文集』 18, 遼寧民族出版社
- 拜根興, 2010b 「李他仁墓誌研究中的幾個問題」 『陝西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10-1, pp.41~48 ; 2010 「唐 李他仁 墓誌에 대한 몇 가지 고찰」 『忠北史學』 24, 충북사학회, 2010, pp.213~231.
- 張彥, 2010 「唐高麗遺民《高鏡苗墓志》考略」 『文博』 2010-5, pp.46~49.
- 姜清波, 2010 「誌石資料和筆記小說中所見三韓人事迹考」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pp.147~165.
- 張全民, 2011 「唐禰氏家族墓的考古發現與初步研究」 『西安地區中韓歷史文化交流學術會發表論文集』 pp.52~67. (2011.8.26. 西安) ; 同改題, 2012 「新出唐百濟移民禰氏家族墓志考略」 『唐史論叢』 14, 三秦出版社, pp.52~68.
- 王連龍, 2011a 「百濟人〈禰軍墓誌〉考論」 『社會科學戰線』 2011-7, 吉林省 社會科學院, pp.123~129

- 王連龍, 2011b 「新出百濟人祔軍墓誌」 『社會科學戰線』 2011-7, fog.3.
- 趙力光, 2011 「西安碑林所藏與海東關聯墓誌概述」 『碑林集刊』 17
- 氣賀澤保規, 2012 「百濟人祔氏墓誌の全容とその意義・課題」 國際シンポジウム(新発見百濟人祔氏墓誌と7世紀東アジアと日本)發表文, 明治大學 東アジア石刻文物研究所(2012.2.25)¹⁸⁾
- 王連龍(武藤ふみ子訳) 2012 「百濟人〈禰軍墓誌〉論考」 『古代学研究所紀要』 17, 明治大学, pp.187~195
- 東野治之, 2012 「百濟人祔軍墓誌の‘日本’」 『圖書』 2012年 2月號, 岩波書店, pp.2-4
- 荊木美行, 2012 「祔軍墓誌の出現とその意義」 『皇學館論集』 45-1, 皇學館大學人文學會, pp.15~27 ; 2014 『金石文と古代資料の研究』 燃焼社
- 葛繼勇, 2012 「祔軍墓誌についての覺書 - 附録:唐代百濟人關聯石刻の釋文」 『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 6, 専修大學社會知性開發研究センタ, pp.165~197 ; 同修正(鄭淳一 譯), 2012 「祔軍墓誌에 대한 覺書」 『新羅史學報』 25, 신라사학회, pp.437~498.
- 田中勝, 2012 「日本国号の新史料「百濟人〈禰軍墓誌〉」 『古代史の海』 68, pp.2~12
- 古代東アジアゼミナール, 2012 「祔軍墓誌訳注」 『史滴』 34, 早稻田大學 東洋史懇話會, pp.159~186 ; 鄭東 俊 譯 「부록: 〈禰軍墓誌〉 譯註」 『목간과 문자』 10, 한국목간학회, pp.252~284.
- 神野志隆光, 2013 「日本」の由来について」 『文化継承学論集』 10, 明治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 pp.1~11
- 葛繼勇, 2013 「国号〈日本〉とその周辺: 〈禰軍墓誌〉の〈日本〉に寄せて(1)」 『国史学』 209, pp.1~29
- 葛繼勇, 2013 「扶桑」について : 「禰軍墓誌」の「日本」に寄せて(2) 『早稻田大学日本古典籍研究所年報』 6, pp.18~32
- 西本昌弘, 2013 「禰軍墓誌の〈日本〉と〈風谷〉」 『日本歴史』 779, pp.88-94
- 葛繼勇, 2013 「〈風谷〉と〈盤桃〉, 〈海左〉と〈瀛東〉: 禰軍墓誌の〈日本〉に寄せて(3)」 『東洋学報』 95-2, pp.129-149
- 金子修一, 2013 「禰氏墓誌と唐朝治下の百濟人の動向」 『日本史研究』 615, pp.103~120, 2013-11
- 葛繼勇, 2014 「禰軍の倭国出使と高宗の泰山封禪: 禰軍墓誌の〈日本〉に寄せて(4)」 『日本歴史』 790, pp.1~17
- 氣賀澤保規, 2014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の始まり: 近年発見の百濟人〈禰軍墓誌〉の理解をめぐる」 『白山史学』 50, pp.1~22.
- 井上亘, 2014 「禰軍墓誌「日本」考」 『東洋学報』 95-4, pp.355~382¹⁹⁾
- 張全民, 2012 「新出唐百濟移民祔氏家族墓誌考略」 『唐史論叢』 14, 中国唐史學會, pp.52~68.
- 拜根興, 2012a 「唐代百濟移民祔氏家族墓誌相關問題研究」 『當代韓國』 73,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94~107²⁰⁾
- 拜根興, 2012b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以西安洛陽出土墓誌爲中心』 中國社會科學出版社²¹⁾
- 拜根興, 2013a 「入唐百濟移民陳法子墓誌涉及地名及關聯問題考釋」 『大明宮研究』 8, 大明宮研究院, pp.3~10.

18) 이 외에도 明治大學 심포지움에서는 張全民, 「唐祔氏家族墓の考古発見と祔氏一族の初步的考察」를 비롯하여 「禰軍墓誌」と百濟そして「日本」(王連龍), 「百濟・朝鮮史における祔氏の位置」(田中俊明), 「唐朝治下の百濟人の動向と新発見墓誌」(金子修一), 「白村江以後の「日本」國號問題 - 「禰軍墓誌」の発見に寄せて」(小林敏男) 등 5편의 논문의 발표되었다.

19) 井上亘의 견해는 2013년 3월 발표된 「唐から見た古代日本」 『国際日本学』 10(pp.328-306)에 제시된 바 있음.

20) 新疆哲學社會科學網 http://big5.xjass.com/lis/content/2013-04/19/content_277007.htm 2013.4.19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였다.

21) 上篇(高麗、百濟與唐朝關係及移民研究)에는 高麗與唐關係: 高麗移民入唐의 起因, 高麗移民相關問題研究的 現狀與展望, 唐人對高麗及高麗移民的認識, 踏訪高麗移民遺跡的實踐與探索, 入唐百濟移民研究的現狀 등 5편의 논문과 下篇(高麗、百濟移民遺跡分佈及個案研究)에는 入唐百濟移民遺物的現狀及其分佈, 入唐高麗移民遺物、遺跡的現狀及其分佈, 高麗末代王高藏在唐生活及其塚墓探討, 百濟移民祔氏進墓誌相關問題, 高麗移民高性文、高慈父子墓誌相關問題, 高麗移民高足西墓誌銘相關問題, 李他仁墓誌涉及的幾個問題 등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책 말미에는 高구려 21명, 백제 11명의 유민묘지명의 釋文을 수록하였다.

- 拜根興, 2013b 「入唐高麗移民墓誌及其史料价值」『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3-2, pp.159~165
- 胡戟, 2013 「大唐西市博物館藏中有關古代中韓交往的三方墓誌」『大明宮研究』8, pp.11~18.
- 張全民, 2013 「唐代百濟祢氏家族墓葬的發現與世系考證」『大明宮研究』8, pp.41~50.
- 陳璋, 2013 「新見武周百濟移民陳法子墓誌研究」『國際武則天學術研討會暨中國武則天研究會第十一屆年會會議討論論文集』, 2013년 9월 1일~3일(中國 四川省 廣元市)
- 王其禕·周曉薇, 2013 「國內城高氏:最早入唐的高句麗移民——新發現唐上元元年《泉府君夫人高提昔墓誌》釋讀」『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3-3, pp.159~165
- 拜根興, 2014 「入唐百濟移民陳法子墓誌關聯問題考釋」『史學集刊』2014-3, pp.65~71.
- 樓正豪, 2014 「新見唐高句麗遺民《高牟墓志銘》考釋」『唐史論叢』18, 中國唐史學會, pp.265~273

2010년에서 현재까지 새로 소개된 8점의 묘지명 가운데 내용 상 고구려 유민의 것으로는 2013년 王其禕·周曉薇가 처음 소개한 高提昔墓誌와 樓正豪가 보고한 高牟墓誌가 있다. 백제유민의 것으로는 2011년 張全民이 2007년 소개된 祢寔進의 아들 祢素土와 손자 祢仁秀墓誌의 발굴무덤과 함께 소개하였다. 같은 무덤 王連龍에 의해 祢寔進의 형 祢軍의 묘지 탁본이 공개되었다. 2013년 하반기 拜根興에 의해 백제 陳法子墓誌銘이 알려졌다. 高牟墓誌와 祢軍墓誌는 拓本 만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祢軍墓誌는 祢軍이 당에 투항한 후 응진도독부 관리로서 왜와 신라와의 외교교섭을 담당할 인물이라는 점, 誌文에 보이는 日本이라는 표현이 일본 國號의 성립시기와 연관된다는 점 등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2년 2월 일본 明治大學 東아시아 石刻文物研究所 주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되었다. 이때 祢氏家族墓를 발굴한 張全民과 祢軍墓誌를 처음 소개한 王連龍이 참석하는 등 百濟遺民 墓誌를 두고 中日의 학자 6명의 발표가 있었다.

이처럼 2010년 들어 고구려·백제묘지명 연구는 한국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연구 성과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0년 이후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도 국내 연구량보다 앞서고 있으며, 중국 내 연구도 西安과 洛陽 외에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국내의 연구가 위축된 것은 아니다. 2007년 祢寔進墓誌를 처음 학계에 소개하면서부터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해 온 金榮官이 祢氏家族 墓誌, 高提昔墓誌, 陳法子墓誌 등을 시차 없이 국내에 소개하였다. 묘지명의 조사와 연구까지를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내의 이해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해 왔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서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2001년 高足西墓誌銘을 시작으로 고구려·백제유민연구를 전담해 온 拜根興이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以西安洛陽出土墓誌爲中心』 冊題아래 그 동안의 연구 성과가 결집되었다. 말미에 그가 고구려유민으로 분류한 21명과 11명의 백제유민 묘지명의 誌文을 集錄하여 연구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백제유민 묘지명의 경우 2012년 葛繼勇이 祢軍墓誌를 검토하면서 그 부록으로 백제유민 묘지명을 집록한 것도 매우 유용하다. 이 글은 鄭淳一에 의해 국내 번역되는 가운데 오자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 연구자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또한 고구려 유민의 정체성과 관련 이문기와 최진열의 연구가 주목된다. 먼저 이문기는 19건의 고구려유민 묘지명의 계보인식에 대한 誌文을 검토하여 대체로 730년대부터 고구려인으로서의 자의식이 희박해져 감을 제시하였다. 묘지명에 보이는 출신지 표기에 대하여 이미 검토한 최진열은 고구려 대신 三韓·朝鮮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적지 않는 것을 곧바로 정체성의 문제와 결부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당대 문헌과 금석문에 高麗라는 국명 표기의 기피현상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주변 민족에 대한 표기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2013년 말 발표된 정동준의 陳法子墓誌銘을 통한 百濟官制 연구와 안정준의 李他仁墓誌銘에 대한 상세한 역주는 묘지명 연구의 방향과 자료의 기초적 이해에 유용한 시도라 생각된다. 祔軍墓誌에 보이는 '日本'의 실체를 百濟로 지목한 2012년 東野治之의 연구 이래 2013년 李成市·李鎔賢이 지지하면서 이 분야 연구를 고조시키고 있다.²²⁾

또한 2010년대에는 묘지명 자료의 급증과 함께 연대기 자료를 함께 이용한 고구려·백제 유민사연구도 크게 늘어났다. 주요한 논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河野通明, 2010 「民具から見た百済・高句麗難民の動向」 『商経論叢』 45-4, 神奈川大學經濟學會, pp.79~160
 苗威, 2010 「高句麗移民後裔高仙芝史事考」 『通化師範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10-11
 최진열, 2010 『대륙에 서다: 2천년 중국 역사 속으로 뛰어든 한국인들』 미지북스, pp.15~178.
 姜清波, 2010 『入唐三韓人研究』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苗威, 2011a 「泉男生移民唐朝史事疏正」 『北華大學學報』 (社會科學版) 12-5, pp.58-64
 苗威, 2011b 「泉男生及其後代移民唐朝述論」 『東北史地』 2011-3, pp.34~39.
 拜根興·侯振兵, 2011 「論唐人對高句麗及高句麗遺民的認識」 『唐史論叢』 13, 中國唐史學會, pp.15~26
 박윤선, 2012 「도일(渡日) 백제유민(百濟遺民)의 정체성 변화 고찰」 『역사와 현실』 83, 한국역사연구회, pp.89~137.
 김영관, 2012a 「百濟 遺民들의 唐 移住와 活動」 『韓國史研究』 158, pp.231~268.
 김영관, 2012b 「백제 멸망후 부여층의 행적과 활동에 대한 재고찰」 『百濟學報』 7, 백제학회, pp.79~110.
 岳東, 2012 「高句麗移民與陌刀」 『河西學院學報』 28-3, pp.58~62.
 王其禕·周曉薇, 2012 「新出北齊聘高麗使主《裴遺業墓誌》疏証」 『北方文物』 2012-2, pp.66~69.
 高明士, 2012 「日本」國號與「天皇」制的起源-以最近發見的墓誌、木簡爲據 『臺灣師大歷史學報』 48, pp.259~280.
 孫煒冉, 2012 「唐代百濟蕃將沙吒相如考疑」 『通化師範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12-7
 姜清波, 2012 「百濟國末代王室及後裔在唐朝的漢化過程考述」 『暨南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12年第11期, pp.151~154.
 井上直樹, 2013 「570年代の高句麗の對倭外交と高句麗・北齊關係 - 新出『裴遺業墓誌』の検討を中心に」 『高句麗渤海研究』 45, 고구려발해학회, 2013²³⁾

22) 이 문제에 대한 연구동향은 高明士, 2012 「日本」國號與「天皇」制的起源-以最近發見的墓誌、木簡爲據 『臺灣師大歷史學報』 48, pp.259~280 ; 東野治之, 2013 「日本國號の研究動向と課題」 『東方學』 125, 東方學會, pp.1~10.

23) 이 글은 井上直樹 2013 「『裴遺業墓誌』と高句麗-570年代の北齊・高句麗關係の一齣-」 『金壺集-石田肇教授退休祈念金石書學論叢-』 石田肇教授退休祈念事業會에 제목을 달리하여 재수록 되었다.

이처럼 2010년대 고구려·백제 유민사 연구는 묘지명과 연대기 자료를 이용한 연구도 크게 늘어났다. 연이은 묘지명의 출토와 더불어 중국의 동북공정의 연장에서 고구려·백제 유민의 당 의로의 '歸屬과 漢化' 문제, 여기에 국호 '日本'의 성립과정을 재검토하게 만든 백제유민 祿軍墓誌의 출토가 계기가 되었다. 이에 분위기 속에서 최진열에 의해 고선지·흑치상지와 같이 당대 변장으로서 영웅적 활동을 보인 인물에 대한 대중적인 논저의 출간이 이어졌다. 반면 왜로 건너간 고구려·백제유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그 가운데 일본 구주일대 유민촌이 형성된 지역의 농기구를 현지 조사하여 그 계통이 고구려와 백제에 있음을 밝힌 河野通明(2010)의 연구와 일본으로 간 백제유민이 왜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순조롭게 정착하며 정체성 또한 얻어져 갔음을 밝힌 박윤선(2012)의 연구가 주목된다. 중국 측의 연구는 여전히 고구려·백제유민의 '歸屬과 漢化'만을 주제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문헌 상 요서와 하서지역에서만 확인되는 '陌刀·陌刀兵·左右陌刀將'을 통하여 고구려 유민이 요서에서 하서로 이주한 사실을 추정하였다.(岳東, 2012) 곧 '陌刀'는 고구려 장창의 일종인 '貂刀'를 가리키는데 나아가 '陌刀兵·左右陌刀將'은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군사집단과 그 지휘관을 의미한다는²⁴⁾ 것이다. 실제 유물을 통하여 확인할 부분이지만 고구려 유민의 거주와 이동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3. 북조대 樂浪·高句麗流民 묘지명과 연구

1958년 姚薇元이 펴낸 『北朝胡姓考』 外篇에 東夷諸姓으로 遼東高氏(일부 渤海高氏 포함)와 樂浪王氏(拓王氏)를 언급하며 전자는 실제 고구려계이고 후자는 낙랑군 소멸 후에 前燕慕容廆 지배 아래 이주한 낙랑왕씨로 설명하였다. 『周書』에 기재된 高琳의 경우도 “六世祖欽，爲質於慕容廆”라 한데서 보듯이 3세기말 4세기 전반 樂浪流民만이 아니라 상당수 고구려인들이 遼西地域으로 흘러들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많은 夫餘住民들이 모용외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음은 『晉書』에 잘 나타나 있는 바다. 이 시기 선비 慕容部에 의해 요서로 이주된 고구려계 주민이 6만 명 정도이고, 부여계는 6~7만 명에 달했다.²⁵⁾

요서지역으로 옮겨진 많은 낙랑과 부여·고구려계 주민들의 실태와 이후 北魏에 의해 平城 일대로 徙民되고, 다시 북위의 南遷에 따라 關中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웠다. 1960년대 초 松井如流(1961)이 北魏代 樂浪王氏인 「元顯平妻王氏墓誌」를 소개하거나, 尾崎康(1963)이 「北魏における渤海高氏」에서 姚薇元이 제기한 高氏 가운데 永嘉亂의 혼란 중에 고구려로 피난 갔다가 150여년이 지난 466년경 돌아와 蓀縣을 貫籍으로 삼으면서 渤海 蓀縣高氏가 형성된 것을 통해 五胡十六國~북조대 고구려 유민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였지만 주목을 끌지 못하

24) 陌刀에 대한 專論으로는, 李錦綉, 1998 「陌刀與大唐帝國的軍事」 『唐代制度史略論考』 中國政法大學出版社, pp.295~308.

25) 三崎良章, 1998 「五胡十六國時代における遼東·遼西地方の住民構成の變化について」 『教育と研究』 16, 早稲田大學本庄高等學院, pp.21~22.

었다.

1984년 靳之林이 延安地區 黃陵縣 西峪村과 黃陵縣 香坊村에서 발견된 西魏造像碑에서 蓋와 似先氏 등 高句麗系 주민집단에 의해 造像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들이 어떻게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遼西와 平城일대 그리고 洛陽과 西安 일대에서 적지 않은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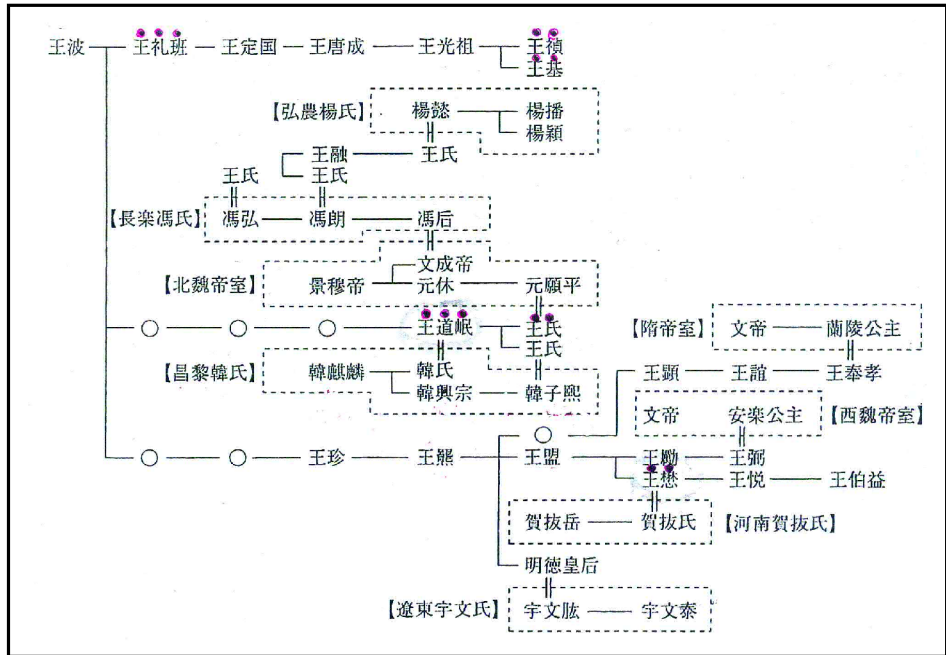
- 姚薇元, 1958 「外篇 第二. 東夷諸姓」 『北朝胡姓考』 科學出版社(2007, 修訂版 中華書局), pp.291~298.
- 松井如流, 1961 「北魏・元顯平妻王氏墓誌」 『書品』 117, 東洋書道協會, p.21
- 尾崎康, 1963 「北魏における渤海高氏」 『斯道文庫論集』 2, 慶應義塾大學附設 斯道文庫, pp.243~289.
- 靳之林, 1984 「延安地區發見一批佛教造像碑」 『考古與文物』 1984-5, pp.41~42
- 林起煥, 1992 「낙랑 유민 관련 금석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pp.583~592.
- 徐永大, 1993 「금석문 자료 소개 : 王基墓誌」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30, pp.18~20.
- 張乃翥, 1994 「北魏王溫墓誌紀史勾沈」 『中原文物』 1994-4, pp.88~93.
- 尹龍九, 1995 「樂浪遺民의 墓誌 二例」 『仁荷史學』 3, 인하역사학회, pp.3~16.
- 羅新, 1996 「北大馆藏拓本《給事君夫人韓氏墓志》辨偽」 『文獻』 1996-1, pp.255~257.
- 羅新, 1997 「十六國北朝時期的樂浪王氏」 『韓國學論文集』 6, 新華出版社, pp.15~19.
- 金憲鏞·李健超, 1999 「陝西新發現的高句麗人, 新羅人遺跡」 『考古與文物』 1999-6, pp.59~71.
- 井上直樹, 2001 「韓暨墓誌を通してみた高句麗の對北魏外交の一側面:六世紀前半を中心に」 『朝鮮學報』 178, 朝鮮學會, pp.1~37.
- 閔庚三, 2004 「中國 西北지역 출토 古韓人 金石文연구 : 北魏 文昭皇后 一家의 墓誌를 中心으로」 『中國語文論叢』 26, 中國語文研究會
- 이성규, 2005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 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최소자교수정년 기념논총) 서해문집, pp.203~244.
- 張福有·趙振華, 2005 「《洛陽、西安出土北魏與唐高句麗人墓誌及泉氏墓地》 『東北史地』 2005-4, pp.2~19 ; 2008 「洛陽、西安から出土して北魏、唐代の高句麗人墓誌と泉氏墓地」 『東北アジア古代文化論叢』 北九州中國書店, pp.185~218.
- 楊宏毅·賀達妍, 2005 「隋〈王懋暨妻賀拔氏墓誌〉考」 『碑林集刊』 11, pp.222~226.
- 殷憲, 2006 「從〈北魏王禮斑妻輿〉磚〈王斑〉殘磚說到太和遼東政治圈」 『中華文史論叢』 2006-4 ; 2008 『"1~6世紀中國北方邊疆・民族・社會國際學術研討會" 論文集』 科學出版社, pp.224~240.
- 閔庚三, 2006 「신출토 北魏 高句麗 遺民 碑誌 4座 소개」 『新羅史學報』 6, 신라사학회, pp.247~263.
- 閔庚三, 2006 「中國의 《鴛鴦七誌齋》 소장 古韓人 墓誌 연구」 『中國學論叢』 21, 한국중국문화학회²⁶⁾
- 園田俊介, 2007 「北魏時代の樂浪郡と樂浪王氏」 『中央大學アジア史研究』 31, pp.1~32
- 殷憲, 2008 「蓋天保墓磚銘考」 『北朝研究』 6, 科學出版社, pp.12~28.
- 윤용구, 2008 「樂浪 관련 出土文字資料의 몇 가지 문제」 한국목간학회 제2회 일례발표회발표문 (2008.4.26)
- 민경삼, 2009, 「고구려 유민 북위 문소황후 일가의 비지(碑誌) 연구」 『고구려의 등장과 그 주변』 동북아 역사재단, pp.156~227.

26) 北朝時期的石刻資料中, 被認定爲古韓人或與此有關的是“王禎墓誌銘、王基墓誌銘、夫人王氏墓誌銘、李渠蘭墓誌銘、公孫猗墓誌銘、公孫略墓誌銘、高僧護墓誌銘”, 共七種. 其中, 本文找出具體的證據, 來證明其中的王曉和 夫人韓氏的墓誌銘是 以王基和夫人王氏的墓誌銘爲底本而作的偽作.

- 苗威, 2009 「從高雲家世看高句麗移民」 『博物館研究』 2009-1, pp.37~42
- 殷憲, 2009 「北魏平城磚瓦文字簡述」 『山西大同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3-1, pp.38~41 ; 2012 『平城史稿』 科學出版社
- 殷憲, 2010 「北魏〈申洪之墓銘〉及幾個相關問題」 『山西大同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4-1, pp.26~31
- 羅新, 2010 「〈申洪之墓誌〉補釋」 『出土文獻研究』 9, 中華書局, pp.332~344.
- 苗威, 2011 「高肇家族的移民及其民族認同」 『民族學刊』 2011-5, pp.1~7.
- 王培峰·李繼高, 2011 「北魏延昌二年〈韓氏墓誌〉偽作說補証」 『西北農林科技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11-2, pp.137~140.
- 馬立軍, 2012 「北魏‘給事君夫人韓氏墓誌’與‘元理墓誌’辨偽-兼談北朝墓誌著錄中的偽刻問題」 『江漢考古』 2012-2,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 pp.88~94.
- 李梅田, 2012 「樂浪王氏墓誌及考古遺存述略」 『慶祝宿白先生九十華誕文集』 科學出版社, pp.136~148.

1992년 임기환에 의하여 북위대 樂浪遼城縣을 貫籍으로 표방한 王氏一家 墓誌銘 4건의 판독과 역주가 이뤄졌다. 곧 王基와 王禎형제 및 王道岷의 두 딸(왕씨, 한씨)의 묘지가 그것이다. 모두 낙양에서 발견되었다. 이때 소개된 王基墓誌를 통해 북위대 낙랑왕씨가 지닌 箕子系譜 관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서영대, 1993)

이후 같은 출신인 王舒墓誌(윤용구, 1993), 1994년 樂浪樂道人을 표방한 王濫墓誌가 낙양 멩진 현에서 발견되었다.(張乃燾) 여기에 2005년을 전후하여 북주 文帝의 어머니 명덕황후의 오빠가 되는 王盟의 아들 王懋의 묘지를 비롯하여, 딸들의 묘지명에만 그 존재가 알려진 王道岷의 묘지, 그리고 王基와 王禎형제의 高祖가 되는 王禮班(혹은 王班)의 墓磚이 출토되어 6대조 王波를 정점으로 형성된 북조대 낙랑왕씨의 계보와 그들의 지배적인 혼인관계가 드러나게 되었다.(尹龍九 1995, 2003, 羅新 1997, 이성규 2005, 殷憲 2006, 園田俊介 2007, 殷憲 2009) 특히 王懋·王道岷·王禮班 墓誌가 모두 북위 平城 유적 주변에서 발굴되어 遼西에서 平城을 거쳐 關中일대로 옮겨간 樂浪流民의 궤적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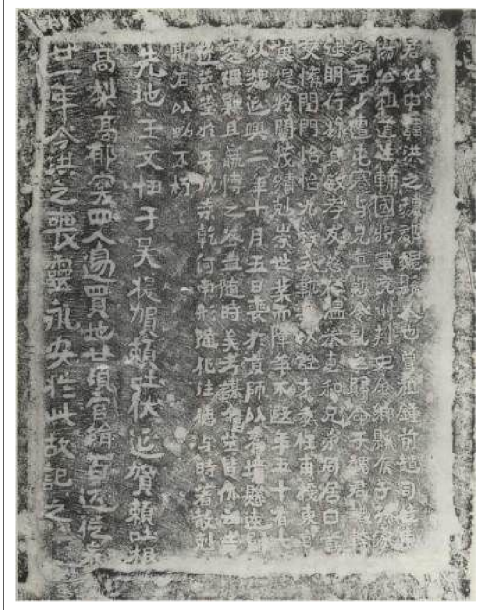


【표1】 북조대 樂浪王氏 世系表 (園田俊介, 2007, p.32 수정)



【그림1】 「王禮斑妻輿」墓磚과 「王斑」墓磚(殘缺)

2000년 7월 중국 大同城 동남쪽 智家堡에서 발견. 王禮斑(=王斑)은 낙양에서 출토된 낙랑군 수성현 출신의 王禎(515)·王基(523) 형제의 묘지에 高祖로 기록된 인물이다. 낙랑군 소멸이후 그 유민들이 북위 平城을 거쳐 洛陽으로 이주 경로를 알게 되었다.



【그림3】 大同출토 「申洪之墓銘」
(48×60cm, 472년)

말미 3행은 묘주가 21년 전 先地主 4인으로부터 官絹 100필에 30頃의 葬地를 매득한 내용이다. 先地主 가운데 高梨 高郁突의 '高梨'는 '高麗'의 鮮卑語 표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평성 유적에서는 낙랑유민 만이 아니라 고구려 계통의 유민 자료도 확인된다. 殷憲(2008,2010)에 의해 蓋天保墓磚, 申洪之墓銘(472)에 기재된 “高梨高郁突”의 기록을 들고 있다. 4세기를 전후하여 요서일대의 동이계 流民들은 고구려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계보관을 달리하였고, 혼인 등을 통하여 세력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2001년 井上直樹에 의해 소개된 「韓暨墓誌」의 誌主도 樂浪韓氏로 이해되고 있지만 고구려로 재차 이주되었다가 北魏로 귀환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계보를 수정하고 있음을 본다.(이성규,2005)

關中지역 고구려인의 흔적은 1999년 金憲鏞·李健超의 섬서성 關中 일대에서 발견된 北朝代 高句麗人 유적을 발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 ① 永壽縣 車村 北魏造像碑(520) : 蓋와 似先氏 등 高句麗系 주민집단
- ② 黃陵縣 西峪村 西魏造像碑(548) : 蓋와 似先氏 등 高句麗系 주민집단
- ③ 黃陵縣 香坊村 西魏造像碑 : 蓋와 似先氏 등 高句麗系 주민집단
- ④ 高陵縣 北周造像碑(562) : 拓王氏 樂浪王氏系 주민집단

당시 關中지역에는 여러 주변민족이 들어와 혼재하고 있었다.²⁷⁾ 더욱이 이들의 胡(虜)姓은 北

魏代를 거치면서 漢姓化와 이른바 ‘胡(虜)姓再行’을 반복하였고.²⁸⁾ 성씨의 轉義 및 冒姓의 弊風 또한 극심한 시기였다.²⁹⁾ 따라서 특정 성씨를 어느 종족에 한정키 어려운 점이 있다. 위의 題名 가운데 蓋의 경우를 羯族系의 盧水胡로 본 견해는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³⁰⁾ 물론 永壽縣과 黃陵縣 출토 조상비의 蓋氏가 似先氏와 一族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羯族系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고구려에 蓋氏가 있었음이 확인되기도 하지만,³¹⁾ 似先氏는 唐代이래 譜牒類에 일관되게 高句麗 姓氏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³²⁾

고구려계 유민은 이미 魏晉代부터 중국 내지에서 집단 거주하였던 것이 문제되었지만³³⁾ 이후로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이들의 姓氏가 고구려 당시에부터 사용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고구려로 通稱되었을 뿐이지 실상 夫餘濊貊의 유민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北魏와 西魏代 關中지역에 집단적 취락을 형성한 집단이 확인된다는 점이며, 이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온 계기를 살필 수 있다면 해당 한국고대사 이해에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拓王氏의 경우는 樂浪王氏의 후예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사실 6세기 전후 北魏, 北周의 宗室과 통혼하며 北朝代 유력 가문으로 부상한 樂浪王氏의 실체가 모호한 측면이 많았다. 高陵縣의 碑文에 보이는 拓王氏의 題名은 대부분 官職과 爵位를 지니고 있음을 본다. 鮮卑 宗室과의 通婚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同族의 集團的 基盤이 있었기 때문에 北周代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요서지역으로 옮겨진 많은 낙랑유민과 3세기 이래 옮겨진 이후 北魏에 의해 平城 일대로 徙民되고, 다시 북위의 南遷에 따라 關中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웠다. 요서지역에서 樂浪遺民과 高句麗流民이 平城으로 이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료가 대표적이다.

① 辛酉，車駕發自中山至于望都堯山，徙山東六州民吏及徒何·高麗·雜夷三十六萬·百工伎巧十萬餘口，以充京師。 (『魏書』2, 天興元年 春正月)

② 乙卯，車駕西還，徙營邱·成周·遼東·樂浪·帶方·元菟六郡民三萬家于幽州，開倉以賑之。冬十月癸酉，車駕至 (『魏書』4上, 延和元年 九月)

27) 馬長壽, 1985 『碑銘所見前秦至隋初的關中部族』 北京, 中華書局

28) 北魏代 胡姓의 漢姓化와 西魏-北周代 胡姓再行에 대하여는, 朴漢濟, 1994 「西魏北周時代 胡漢體制的 展開-胡姓再行의 經過와 그 意味」 『魏晉隋唐史研究』1, 魏晉隋唐史學會, pp.36~133 참조.

29) 諸橋轍次, 1975 「支那의 家族制-姓氏篇」 『諸橋轍次著作集』4, 大修館書店, pp.387~389.

30) 姚薇元 1977 「內入諸姓(59) 蓋氏」 『北朝胡姓考』, 臺北, 華世出版社, p.150

31) 『魏書』13, 孝文昭皇后高氏傳에 “孝文昭皇后高氏 司徒公肇之妹也 父颺 母蓋氏 凡四男三女 皆生於東裔” 와 동서 권 83에 “高肇 字首文 文昭皇太后之兄也 自云本渤海蓊人 五世祖顯晉永嘉中避亂入高麗 父颺 字法修 高祖初...入國...令肇出自夷土 時望輕之”로 보면 고구려에도 蓋氏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다(陳連慶, 1993 『中國古代少數民族姓氏研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p.163).

32) “似先氏 本高麗餘種也 唐武德中 右驍衛大將軍似先英問” (『通志』29, 氏族略 5)

“似 後魏官氏志 似先氏 改爲似氏” (『古今姓氏書辯證』21, 上聲)

“似先 高麗扶餘種也 唐武德中有右驍衛將軍似先英問” (『古今姓氏書辯證』22)

33) “蒙陽句驪 本居遼東塞外 正始中 幽州刺史毋丘儉伐其叛者 徙其餘種 始徙之時 戶落百數 子孫孳息 今以千計 數世之後 必至殷熾” (『晉書』56, 江統傳 所引「徙戎論」)

사료 ①은 후연이 멸망된 이후인 398년 북위는 하북과 산둥방면에서 5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을 平城부근으로 사민하였다. 북위대 최대의 기록적인 사민이었다. 이때 高句麗 流民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사료②는 5세기 들어 북위가 서방으로의 진출을 본격화 하면서 北燕을 제압하고 그 지역에서의 후환을 없애고자 432년 대능하 유역에 僑置되어 있던 요동·현도·낙랑·대방군 등 주민집단을 사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위는 이후에도 太延元年(435)까지 수차례 대능하 龍城방면에서 주민을 사민 시켰는데 漢人은 대부분 平城으로 옮겼다.³⁴⁾ 대능하 유역의 낙랑유민과 고구려유민들도 4세기 말부터 5세기 전반기 북위의 사민을 전후하여 이주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낙랑유민 고구려유민들은 4세기 초 大凌河 流域으로 慕容燕에 의해 僑置되었다가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 북위에 의하여 평성으로 옮겨지고, 낙양천도와 더불어 洛陽 등 關中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실상과 함께 北魏, 北齊·北周 등 北朝社會의 유력 가문으로 부상하였는지 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夫餘系 유민으로 알려진 似先氏가 唐代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면³⁵⁾ 당대 고구려유민의 구성이 일률적이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북조대 낙랑유민 묘지명과 관련하여서는 僞刻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곧 낙양출토 ‘給事君夫人韓氏墓誌’를 북위대 대표적인 僞刻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羅新,1996·王培峰·李繼高,2011·馬立軍,2012) 그렇다면 낙랑유민 묘지명 전체의 사료적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이해될 있는 문제이다.

위각의 근거로는 ‘給事君夫人韓氏墓誌’에서 夫人韓氏는 왕도민의 제 3녀이며 元願平의 처 王氏의 자매가 분명한 이상 본래 王氏라는 것이 의문이 없다. 또한 卒年과 遷葬日의 干支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고있다. 이에 대해 위각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 그리고 卒年의 연호 延昌을 永平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는 元願平의 처 王氏와 같은 날 사망한 경황 중에 작성된 오기로 이해하고 있다.(이성규,2005)

위진남북조시대 석각의 진위를 판별할 때 흔히 ①來歷不明 ②干支不合 ③字體不合 ④字形不合 ⑤史實不合 ⑥世系不合 ⑦地理不合 ⑧職官不合 ⑨抄襲他文 ⑩語辭不當 ⑪文理不通 ⑫違背情況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³⁶⁾ 간혹 탁본만이 傳存되는 경우나 지문의 형식·서체의 문제를 僞刻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특수한 사례가 많고, 北朝代는 한 碑誌에 여러 서체가 혼용되기도 하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다른 비문과 묘지 등의 내용을 베껴 쓴다면 쉽사리 위각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給事君夫人韓氏墓誌’의 위각 문제는 世系·情況·干支 등에서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樂浪韓氏와 樂浪王氏의 오랜 지역적·계보인식의 문제를 고려하여 판단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는 낙양출토로 전하는 王曉墓誌(523)는 王基墓誌를 대본으로 삼아 제작된 위각임이 분명하다.(馬立軍, 2012, 93쪽 北朝僞刻表) 王基墓誌가 없었다면 앞의 12가지 위각 판단의 기준 어디에도 불합리한 것을 찾아내기 어렵다. 역시 기존 碑誌의 일부를 변형하여 刻石하

34) 前田井名,1979 「四世紀後半期より五世紀末にいたる平城・桑乾河流域の住民構造」 『平城の歴史地理學的 研究』 風間書房, pp.74~76, 84~85.

35) 尹龍九,2003 「중국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韓國古代史研究』 32, 한국고대사학회

36) 梁春勝,2012 「魏晉南北朝石刻辨僞十例」

는 것이 가장 용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2】王基墓誌(左 : 53×53cm)와 偽刻王曉墓誌(右 : 50×55cm)
誌主의 名字만 다르고 사망일자와 연령·六世祖 이하 선계의 관직 등 誌文이 모두 동일하다. 先系의 名字를 바꾸거나 일부 누락시켜 별개의 誌石처럼 보이게 하였다.

4. 맺음말

중국 출토의 고구려·백제 유민의 묘지명을 비롯한 문자자료는 앞으로도 늘어 날 전망이다. 특히 기존 문헌자료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인물의 활동을 통해 한국고대사의 여러 부면이 새롭게 밝혀질 전망이다. 묘지명을 통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고구려·백제유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泉男生·夫餘隆 등 사적에 명백한 경우는 물론이고 백제 祿寔眞·陳法자와 같이 본래 漢人인데 降唐하였다는 인물이라도 내용상 명백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誌文에 墓主의 출자가 불분명한 籍貫만이 기록되고 한국고대 관련 지명이나 관직명 등 명시적인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논란의 대상이다. 연구자에 따라 고구려·백제유민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편차가 있다. 기준을 명백히 제시하고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기왕에 알려진 묘지명 자료의 기초 작업과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중국 내 여러 金石書나 연구 논저를 통해 소개된 자료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이어 개별 연구가 지속되는 형태이다. 서안과 낙양 등 關中지역의 개발에 힘입어 앞으로도 일정기간 새로운 자료의 출토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연구자들이 가공하여 소개한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 자료의 이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917년 알려진 자료부터 소장기관별로 현지조사와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는 재당 신라인의 묘지 등 당대 사회 내 신라인의 흔적을 보여주는 문자자료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장보고를 비롯한 8~9세기 신라인 거주지가 있는 지역의 碑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구려·백제유민과 재당 신라인의 관계도 앞으로 유의할 부분이다. 재당 신라인의 나말여초 塔碑와 墓誌 작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출토 한국고대 관련 금석문 연구동향

- 고구려·백제·樂浪流民 묘지명을 중심으로 -

윤용구 (인천도시개발공사)

본고는 1917년 이래 羅振玉에 의해 알려진 고구려·백제유민 墓誌銘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北朝代 낙랑·고구려 流民, 그리고 묘지를 통한 연구 성과를 개관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출토의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은 扶餘隆·高慈·泉男生의 墓誌로부터 최근에 소개된 백제유민 陳法子, 고려유민 高乙德까지 40점에 육박하고 있다. 1991년 이후 새로 알려진 묘지가 25점에 달해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 문헌에 보이지 않은 7세기 전후의 인물과 그 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백제의 멸망기 사회상과 특히 관직과 관등의 문제, 唐代社會 속에서 이들 유민의 自意識의 변모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한편 北朝代 금석문 중에는 4세기 초 낙랑군 소멸 후 중국으로 유입된 樂浪流民과 高句麗流民의 묘지명 자료도 적지 않다. 당초 이들은 鮮卑慕容部에 의하여 요서지역에 僑置 혹은 강제 이주되었다. 이후 前燕·後燕·北燕의 지배하에 있다가 북위에 의하여 383년 후연이 멸망하고, 432년 北燕도 정복함에 따라 平城 일대로 대규모 徙民이 이루어 졌다. 낙랑유민과 부여·고구려유민의 묘지명은 遼西·平城·關中(낙양·장안 등)에서 확인된다. 특히 낙랑유민 한 가계의 묘지명이 평성과 낙양에서 확인되면서 종말기 낙랑군의 사정을 이해하고, 遼西지역을 두고 高句麗와 北魏의 교섭사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출토의 고구려·백제·낙랑유민의 묘지명을 비롯한 문자자료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며, 기존 문헌자료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인물의 활동을 통해 한국고대사의 여러 부면이 새롭게 밝혀질 전망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첫째는 고구려·백제·낙랑유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泉男生·扶餘隆 등 史籍에 명백하거나 祿寔眞·陳法子和 같이 본래 漢人이었다 표기되어 있어도 내용상 백제인이 분명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誌文에 墓主의 출자가 불분명한 籍貫만이 기록되고 한국고대 관련 지명이나 관직명 등 명시적인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논란의 대상이다. 낙랑유민의 경우는 군현 소멸이후 遼西를 비롯한 중국 내지로 이동하였다가, 고구려의 세력 확장에 따라 그 소속이 변모하는 경우가 문제라 하겠다. 더욱이 樂浪流民은 北朝를 거쳐 隋唐社會 내에서는 아예 貫籍을 중국 내지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둘째는 기왕에 알려진 묘지명 자료의 기초 작업과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중국 내 여러 金石書나 연구 논저를 통해 소개된 자료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이어 개별 연구가 지속되는 형태이다. 서안과 낙양 등 關中지역의 개발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출토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연구자들이 가공하여 소개한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 자료의 이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917년 알려진 자료부터 소장기관별로 현지조사와 관련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중국 내 조사기관과의 공동 조사와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中国出土的韩国古代金石文研究动向

-以高句丽、百济、乐浪流民的墓志铭为中心-

尹龙九 (仁川都市開發公社)

本文以 1917 年以来因罗振玉而为人所知的高句丽、百济流民的墓志铭研究为中心, 试图概括期间对北朝乐浪、高句丽流民以及墓志的研究成果, 并提出研究方向。

中国出土的高句丽、百济流民的墓志铭, 从扶余隆、高慈、泉男生的墓志到最近研究的百济流民陈法子、高丽流民高乙德, 已达 40 余件。1991 年以后新研究的墓志达 25 件, 今后预计还会增加。大部分为文献未有记录的 7 世纪前后的人物及其家族的生动记录。通过这样的内容, 可以了解高句丽、百济灭亡时期的社会面貌, 特别是官职和官级问题, 以及在唐代社会这些流民的认同感的变化。

此外, 在北朝的金石文中, 也有不少 4 世纪初乐浪郡解体后, 流入到中国的乐浪流民和高句丽流民的墓志铭资料。当时, 他们被鲜卑慕容部“侨置”或强制迁至辽西地区。以后, 受前燕、后燕、北燕的统治, 再后 383 年后燕被北魏打败, 432 年北燕也被击败, 平城一带便发生大规模徙民。乐浪流民和扶余、高句丽流民的墓志铭在辽西、平城、关中(洛阳、长安等)一带可以看到。特别是乐浪流民一个家系的墓志铭在平城和洛阳的发现, 对了解乐浪郡末期的情况, 了解高句丽和北魏围绕辽西地区交涉的历史, 具有重要的史料价值。

今后, 中国出土的高句丽、百济和乐浪流民的墓志铭等文字资料今后还将不断出土, 这样的话, 通过原有文献资料未有记录的新人物的活动, 就可以更多了解到韩国古代史的各个方面。

为了今后的研究, 首先要设定高句丽、百济和乐浪流民的范围。像泉男生、扶余隆等史籍明确, 或像裒寔真、陈法子那样虽然标注为汉人但从内容上可明确其为百济人的情况不成问题。成问题的是, 志文只有出自不明确的籍贯, 而没有韩国古代相关的地名和官职名类的情况。像乐浪流民, 郡县消失后, 迁移到辽西等中国内地, 然后再随高句丽扩大势力, 其所属发生变化, 这样的情况就成为问题。特别是乐浪流民历经北朝后, 在隋唐社会内, 甚至将贯籍标为中国内地的情况也很多。

第二, 需要对已公开的墓志铭资料做基础作业和现场调查。现在的研究模式是, 中国的各种金石书或研究著作传到国内, 然后由国内研究者对此个别研究。随着西安和洛阳等关中地区开发, 新的资料将不断出现。被动地接受中国研究者所加工介绍的资料, 对理解原始资料有很多局限性。因此, 从 1917 年开始的资料到各收藏机关, 都需要做现场调查和对其资料的基础研究。就此, 希望通过本次学术会议, 有机会与中国国内调查机关进行共同调查和研究。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중심으로-

여호규 (한국외대)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여호규 (한국외대)

머리말

1. 660-670년대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動向
 - 1) 唐의 羈縻支配 시행과 高句麗 遺民의 參與
 - 2) 高句麗 遺民의 抗拒와 唐의 羈縻政策 수정
2. 680-690년대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動向
 - 1) 680년대 唐의 突闕 防禦戰과 高句麗 遺民의 動員
 - 2) 690년대 契丹의 부흥운동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맺음말

머리말

7세기 후반은 韓國史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상 대격동의 시기였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차례로 멸망당하고, 통일신라와 발해가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했다. 한국사의 이러한 전환은 唐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연관 아래 이루어졌다. 隋를 이은 唐은 自國 중심의 一元的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突闕, 吐谷渾, 高昌 등을 제압한 다음, 동방지역 특히 高句麗에 대해 '무력 정벌'이라는 강경책을 구사했다. 그렇지만 645년 唐 太宗의 고구려 정벌이 실패한 데서 보듯이 唐의 東方政策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唐은 신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백제를 먼저 멸망시킨 다음,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협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당은 궁극적으로 백제와 고구려뿐 아니라 신라 지역까지 唐의 羈縻州 지배체제로 편입하려는 목표 아래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당의 신동방정책에 대해 고구려 지배층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665년 淵蓋蘇文 사후 내분에 휩싸였다가 지리멸렬하게 멸망당하는 최후를 맞았다.

唐의 東方政策은 百濟 故地에 熊津都督府, 高句麗 故地에 安東都護府를 설치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다. 당의 동방정책이 난관에 봉착한 데는 吐藩과 突闕이 흥기한 탓도 있지만, 신라의 대당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도 중요한 작용을 했다. 가령 신라는 애초 밀약과 달리 당이 백제 고지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 고구려 멸망 이후 밀려올 당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강구했다. 이러한 신라의 대

응책은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과 맞물리면서 나당전쟁으로 이어졌고, 나당전쟁에서 패배한 당은 만주와 한반도 전체에 靺鞨州 支配體制를 구축하려던 동방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¹⁾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에서 발해가 건국되는 698년까지 약 30여 년의 기간은 당의 동방정책, 신라의 대당정책, 고구려 유민의 동향이 맞물리면서 만주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정세가 조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고구려 유민의 동향은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고구려 멸망을 전후해 당에 투항하거나 당의 동방정책에 협조한 고구려인도 있었지만, 상당수 고구려인은 부흥운동을 전개하며 당에 항거했다.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은 高句麗 故地 전역에 걸쳐 전개되었다. 한반도 지역의 부흥운동이 신라가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면, 만주 지역의 부흥운동은 발해 건국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고구려 유민의 동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²⁾ 이를 통해 7세기 후반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최근 중국의 西安과 洛陽 등지에서 고구려 유민묘지명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데, 이들 묘지명은 문헌사료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당의 동방정책 변화 양상이나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구려 유민묘지명을 바탕으로 7세기 후반 당의 동방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연계시켜 살펴보고자 한다.³⁾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유민의 동향, 신라의 대당정책, 당의 동방정책 변화 등이 맞물리며 통일신라의 확립과 발해의 건국으로 귀결된 한국사의 전개양상을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재조명할 단서를 확보하고자 한다.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⁴⁾

1. 660-670년대의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1) 唐의 靺鞨支配 시행과 高句麗 遺民의 參與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668년 9월에 멸망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은 곧바로 竇藏王과 男建 등 지배층을 長安으로 압송한 다음, 이해 12월에 大明宮의 含元殿에서 정토 기념식을 거행했다. 그리고는 고구려의 5部, 176城, 69만여戶를 9都督府, 42州, 100縣으로 재편함과 더불어, 平壤城에 安東都護府를 설치해 薛仁貴를 檢校 安東都護로 삼아 병사 2만명을 거느리고 劉仁軌와 함께 고구려 고지를 鎮撫하게 했다.⁵⁾

唐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지 불과 3개월 만에 高句麗 故地를 安東都護府 支配體制로 편제한 것이

- 1) 나당전쟁의 전개양상에 대해서는 拜根興 2003; 서영교 2006; 노태돈 2009; 이상훈 2012 등 참조.
- 2) 고구려 유민의 동향에 대한 종합 검토는 노태돈 1981; 김현숙 2001; 김종복 2009 등 참조.
- 3) 현재까지 출토된 고구려 유민묘지명은 20-25기 정도인데(권덕영 2010; 拜根興 2012; 김수진 2014; 윤용구 2015 등 참조), 이중 10여기의 묘지명에서 당의 동방정책과 관련한 고구려 유민의 동향이 확인된다.
- 4) 이 발표문은 中國 陝西師範大 拜根興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일부이다. 추후 拜根興 교수가 分擔한 부분을 합하여 수정 보완한 다음 학회지에 기고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 5) 《舊唐書》 권19 지리2 안동도호부조; 《舊唐書》 권199상 열전149상 고려전;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고종 總章원년 12월조; 《舊唐書》 권83 열전33 설인귀전

다. 그런데 《舊唐書》高宗紀에 따르면 唐이 670년 1월에 “요동 곧 고구려 지역을 나누어 州縣으로 삼았다”고 한다.⁶⁾ 이는 668년 12월의 安東都護府 설치 및 府·州·縣 편제는 圖上의 계획이었고, 그 이후 제반 사정으로 670년 1월에 비로소 州·縣 편제를 실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멸망 이듬해인 669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주목된다.

먼저 669년 2월에 보장왕의 서자인 安勝이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했는데,⁷⁾ 이는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唐에 대한 遺民의 離叛이 널리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唐이 고구려 유민을 대거 唐의 內地로 강제 이주시킨 사실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당은 669년 4-5월에 고구려 유민 28,200호를 萊州와 營州를 경유하여 長江과 淮河 남쪽 및 山南과 并州-涼州 서쪽의 여러 州로 강제 이주시켰다.⁸⁾

이러한 강제 이주를 《資治通鑑》에서는 “고구려 유민 가운데 離叛者가 많아” 이주시켰고, 그 결과 “貧弱者만 남겨 안동(도호부)를 지키게 했다”고 기술했다.⁹⁾ 고구려 유민의 강제 이주는 安東都護府 설치 당시에 계획된 조치가 아니라 당에 항거하는 ‘離叛者’가 많이 발생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 이주 결과 ‘貧弱者’만 남게 되었다고 하므로 강제 이주된 ‘離叛者’는 주로 지배층에 해당하는 유력자로 추정된다.

① <南單德基誌銘>¹⁰⁾ : 故饒陽郡王 諱單德, 字單德. (중략) 公生居平壤, 長隸遼東. (중략) 時夔曾祖行軍大總管平陽公¹¹⁾擐甲先驅, 隳拔城邑, 生擒其王莫麗支, 斬首獲俘, 不可勝計. 因此, 分隸遼東子弟, 郡縣散居. 公之家, 子弟首也, 配住安東. 祖狄, 皇磨米州都督. 父于, 皇歸州刺史. 昆弟四人, 單德元子也.

이 사료는 최근 발견된 <南單德基誌銘>의 일부이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이후 “遼東[고구려]의 자제들을 分隸하여 (당의) 郡縣에 散居시켰다”고 하는데,¹²⁾ 이는 669년 4-5월 고구려 유민을 唐의 內地로 강제 이주시킨 조치를 가리킨다.¹³⁾ 이에 비해 南單德 가문은 “(고구려) 子弟 중 으뜸이어서 安東都護府에 배치되어 거주했고, 조부인 南狄은 皇朝[唐]의 磨米州都督을 역임했다”고 한다. 南單德의 가문이 唐에 적극 협력하여 안동도호부가 관할하던 고구려 고지에 남았고, 조부인 南狄은 磨米州都督까지 지낸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唐의 郡縣으로 散居된 遼東[고구려]의 子弟는 대체로 南單德 가문과 달리 唐의 지

6) 《舊唐書》권5 고종기하 總章원년 춘정월 : “辛卯, 列遼東地爲州縣.”

7) 《三國史記》고구려본기10 보장왕하 : “(總章)二年己巳二月, 王之庶子安勝率四千餘戶, 投新羅.”

8) 《舊唐書》권5 高宗紀 하 총장2년 5월 경자조

9) 《資治通鑑》권201 唐紀17 고종 總章2년 4월조. 다만 《資治通鑑》에는 이때 38,200명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나오지만, 제반 사료를 종합하면 28,800명의 誤記로 파악된다.

10) 판독문은 王菁·王其禕 2015, 80-81쪽; 장병진 2015, 281쪽 참조.

11) 668년 12월에 平陽郡公에 봉해지고 檢校安東都護를 역임한 薛仁貴를 지칭한다.

12) “分隸遼東, 子弟郡縣散居”로 句讀하여 “고구려 降卒과 移民을 요동지구에서 분산 배치하고, 부·주·현을 설치하여 분산 관리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王菁·王其禕 2015, 80쪽),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13) 장병진 2015, 283쪽 각주 23

배정책에 항거했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취했다고 파악된다. 바로 《資治通鑑》의 ‘離叛者’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료에서는 移住 대상을 ‘子弟’라고 명시했다. 여기의 子弟를 唐의 團結兵 관련 사료에서 ‘城傍子弟’를 ‘城傍兵’으로 일컬은 사례를 참조하여¹⁴⁾ ‘고구려 병사 혹은 민’을 지칭한다고 보기도 한다.¹⁵⁾ 그런데 ‘子弟’는 흔히 ‘貴族子弟’의 줄임말 또는 ‘父老’에 대비되는 청장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여기의 ‘子弟’는 일반 백성보다는 南單德 가문과 같은 유력자의 자제로 《資治通鑑》의 ‘貧弱者’에 대비되는 존재로 추정된다.

이처럼 사료 ①은 669년 4-5월에 강제 이주된 高句麗 遺民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당은 高句麗 故地の 유력자들이 자신의 지배정책에 항거하거나 협조하지 않자, 子弟 곧 유력자층의 청장년을 대거 唐의 內地로 강제 이주시켰던 것이다. 이는 당이 고구려 멸망 직후 고구려 고지에 대한 기미 지배 정책을 수립했지만,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唐은 자신의 지배정책에 항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유력자를 가려내 內地로 이주시키는 한편, 南單德 가문과 같은 협조적인 유력자를 선발해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唐이 669년 4-5월에 고구려 유민을 이주시킬 때 경유한 萊州와 營州는 각각 현재의 山東半島와 遼西地域에 해당한다. 萊州가 중국대륙과 만주-한반도를 잇는 海路上의 요충지라면, 營州는 陸路上의 요충지이다. 이로 보아 唐은 海路上의 요충지인 萊州를 통해서는 주로 평양 등 한반도 서북지역의 유민을 長江과 淮河 방면으로 이주시켰고, 陸路上의 요충지인 營州를 통해서는 요동지역의 유민을 山南과 并州-涼州 방면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¹⁶⁾ 唐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의 고구려 유민을 강제 이주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平壤城에 파견되었던 檢校 安東都護 薛仁貴가 699년경 요동의 新城으로 옮긴 사실이 주목된다.¹⁷⁾ 薛仁貴는 667-668년 고구려 공략 과정에서 부여성과 그 주변의 40여성을 공략한 다음 渾河-蘇子河 유역의 남소성, 목저성, 창암성 등을 함락시킨 바 있다. 이로 보아 薛仁貴는 종전의 전투경험을 바탕으로 요동지역의 유력자를 협조자와 비협조자로 選別한 다음, 협조자는 당의 관리에 임명하는 한편[有幹能者, 隨才任使] 비협조자는 강제 이주시켰다고 파악된다. 이때 劉仁軌는 평양성에서 서북한 지역의 고구려 유민에 대한 선별과 강제 이주 업무를 총괄했을 것이다.¹⁸⁾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 멸망 직후 唐의 支配政策에 대한 抗拒는 高句麗 故地 각지에서 일어났다고 파악된다. 《資治通鑑》에 나오는 離叛者는 劍牟岑이나¹⁹⁾ 安勝²⁰⁾ 등 특정 세력을 지칭한다기보다는 <南單德基誌銘>에 나오는 ‘遼東子弟’ 곧 高句麗 故地 각지의 유력자를 가리킨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고구려 유민의 항거나 비협조로 인해 唐은 고구려 고지에 대한 지배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당은 669년 4-5월경 비협조적인 유력자를 대거 강제 이주시킨 다음, 670

14) 정병준 2005, 257쪽

15) 장병진 2015, 283쪽 각주 22

16) 日野開三郎 1964; 1984(제8권), 62쪽; 노태돈 1981, 81쪽 및 97쪽

17) 《舊唐書》 권83 열전33 설인귀전

18) 김종복 2009, 24-25쪽

19) 이병도 1964; 이병도 1975, 460쪽

20) 김종복 2009, 22-24쪽

년 1월에야 고구려 고지를 安東都護府 예하의 州縣으로 편제할 수 있었다. 당은 668년 12월에 고구려 고지에 대한 지배정책을 수립했지만, 1년여의 준비를 거쳐 670년 1월에야 비로소 羈糜支配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¹⁾

그런데 唐은 安東都護府를 설치한 다음 각 府·州·縣의 장관에는 현지의 유력자[酋帥]를 임명하는 한편, 唐의 관인[華人]을 파견해 함께 다스리도록 했다고 한다.²²⁾ 이러한 羈糜州 支配와 관련된 양상은 최근 발견된 고구려 유민묘지명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료 ①에 따르면 高句麗 遺民의 자제들이 강제 이주될 때, 南單德 가문은 “子弟 중 으뜸[首]이어서 安東都護府에 배치되었고, 南狄는 皇朝[唐]의 磨米州都督을 역임했다”고 한다.

磨米州는 645년 唐 太宗의 고구려 침공때 함락당하기도 했던 磨米城에²³⁾ 설치한 羈糜州인데, 그 위치는 本溪 邊牛山城으로 비정된다.²⁴⁾ 《舊唐書》나 《新唐書》지리지에도 磨米州가 安東都護府 예하 羈糜州의 하나로 나온다.²⁵⁾ 南單德의 조부인 南狄는 고구려 유민의 酋帥[유력자] 가운데 安東都護府 예하의 羈糜州 장관에 임명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磨米州는 都督府가 아니라 州의 하나였으므로 南狄가 실제 역임한 관직은 磨米州 刺史였을 것이다. 또한 그의 아들인 南于는 歸州刺史를²⁶⁾ 역임했다고 하므로 南單德 가문은 南于代에는 唐 內地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㉑ <高欽德墓誌銘>²⁷⁾ : 公諱欽德, 字應休, 渤海人也。」 曾祖湊, 建安州都督. 祖懷, 襲爵建安州都督. 父千, ○唐左玉鈐衛中郎,」 公即先君仲子也.

②-㉒ <高遠望墓誌銘>²⁸⁾ : 其地逼烏丸·鮮, 接夫」餘·肅慎. 東征西討, 其邑里或遷于河北, 勃海高氏則其宗盟, 或留於漠南. 曾祖懷, ○唐雲麾」將軍, 建安州都督. 祖千, ○唐左玉鈐衛中郎, 襲爵建安州都督. 父欽德, 襲建州都督, ○皇右」武衛將軍·幽州副節度知平盧軍事, 承世簪組, 禮有聞, 方伯家綏, 宣和威秩, 君即將軍第一」子也.

사료 ②는 부자관계인 <고흠덕묘지명>과 <고원망묘지명>이다. 이들 묘지명에 따르면 고흠덕 가문은 曾祖인 高湊 이래 高欽德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建安州 都督을 襲爵했다고 한다. 建安州는 고구려의 建安城으로 遼寧省 蓋州의 高麗城山城으로 비정되며, 고구려 멸망 이후에는 安東都護府 예하의 建安州都督府가 설치되었다.²⁹⁾

21) 노태돈 1981, 81쪽; 김종복 2009, 26-27쪽

22) 《舊唐書》권199상 열전149상 고려전

23) 《資治通鑑》권198 貞觀19년 10월조

24) 본 발표문 2장 2절 참조.

25) 《舊唐書》권19 지리2 안동도호부조; 《新唐書》권43하 지33하 지리7하

26) 唐의 歸州는 山南道[湖北省]와 靜邊州都督府[甘肅省]에 설치된 적이 있다(장병진 2015, 284쪽 각주 26).

27) 판독문은 《唐代墓誌彙編(下卷)》 1416쪽;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316쪽; 拜根興 2012, 272쪽; 권은주 2014, 45-46쪽 참조

28) 판독문은 《全唐文補遺(第八輯)》 47-48쪽;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315-316쪽; 拜根興 2012, 273-275쪽; 권은주 2014, 7-8쪽 참조.

29) 《舊唐書》권19 지리2 안동도호부조; 《新唐書》권43하 지33하 지리7하

그런데 고희덕이 677-733년에 활동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의 증조부인 高湲은 고구려 멸망 이전인 7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³⁰⁾ 高湲은 고구려 멸망 이전에 당의 都督에 비견되었던 建安城 嚮薩을 역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부인 高懷가 역임한 建安州 都督은 고희덕의 활동시기로 보아 고구려 지방관이었을 가능성과³¹⁾ 安東都護府 예하 靺鞨府의 장관일 가능성이 모두 있다. 이에 비해 부친인 高千이나 고희덕이 역임한 建安州 都督은 安東都護府 예하에 설치된 建安州都督府의 都督으로 파악된다.

고흥덕 가문은 고구려 멸망 이전부터 고구려 최고 지방관인 建安州의 육살을 역임했고, 멸망 이후에도 安東都護府 예하 建安州都督府의 都督을 襲爵했던 것이다. 唐이 “靺鞨州 장관에 임명한 고구려 酋帥[유력자]”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희덕의 아들인 고원망은 출仕하기 이전부터 무예를 익히고 집안 대대로 군졸을 거느렸다고 한다.³²⁾ 그의 가문이 대대로 建安州 都督을 襲爵한 사실을 고려하면,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蕃兵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³³⁾ 그러므로 安東都護府 예하 靺鞨州의 장관으로 임명된 高句麗 酋帥는 해당 지역의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蕃兵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된다.

唐이 699년에 유력한 고구려 유민을 협조자와 비협조자로 선별한 다음, 비협조자를 唐의 內地로 강제 이주시킨 이유는 여기에 있다. 唐이 최소 비용으로 高句麗 故地에 대한 靺鞨支配를 시행하려면 고구려 유민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이들을 蕃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高句麗 遺民의 反唐 저항력을 제거해야 했다.³⁴⁾ 이에 당은 강제 이주 조치를 통해 고구려 유민의 반당 저항력을 상당 부분 제거한 다음, 南單德이나 高欽德 가문처럼 협조적인 유력자를 靺鞨州 장관에 임명하여 蕃兵을 통솔하며 唐의 기미지배를 구현하도록 했던 것이다. 다만 高句麗 故地에 대한 靺鞨支配를 高句麗 遺민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예기치 않은 反唐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③-㉠ <李氏夫人墓誌銘>³⁵⁾ : 大父元哲 官至安東大都護長史, 與太宗有故, 賜姓李氏. (중략) 府君更郎將中郎將各一, 將軍大將軍凡四, 前後領左右羽林二軍禁營, 清海鴨綠二道總管. (중략) 神龍元年十二月二十二日, 寢疾終於洛陽之德懋里, 春秋若干.

③-㉡ <南郭生墓誌銘>³⁶⁾ : 卽以龍朔二年, 樂浪道征, 公參百戰, 遼海息其妖氛, 威懾九梯, 肅慎貢其楛矢, 爰從獻凱. 式備疇庸, 尋授上柱國. (중략) 解褐擢授安東都護府錄事參軍事.

30) 拜根興 2012, 168-169쪽; 권은주 2014, 63-64쪽

31) 권은주 2014, 63-64쪽

32) <고원망묘지명> : "君早習弧矢, 家傳將率 (중략) 解褐有制, 超拜淨蕃府果毅兼保塞軍副使. (중략) 白衣拜將, 豈埋輪而足榮. 集退晏如, 子父同道."

33) 고원망(697-740년)은 730년대에 요서지역에서 전공을 세운 다음 安東大都護府 副都護 겸 松漠使에 임명되었는데,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蕃兵을 통솔하며 契丹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34) 노태돈 1981, 81쪽

35) 판독문은 《全唐文新編》 232; 권덕영 외 2015, 368쪽 참조

36) 판독문은 《全唐文新編》 994; 권덕영 외 2015, 124쪽 참조

(중략) 去延載元年八月十八日, 終於官第, 春秋五十有七.

③-㉔ <李氏夫人墓誌銘>³⁷⁾ : 祖光嗣, 皇安東都護府功曹參軍.

③-㉕ <楊玄基墓誌銘>³⁸⁾ : 龍朔元年(661년), 隨契苾何力破鴨綠, 授游擊將軍, 左驍衛善信府果毅. 總章元年(668년), 授鹿陵府長上折衝, 仍檢校東柵州都督府長史.

사료 ③은 安東都護府나 그 예하 羈縻州의 관원을 역임한 唐 官人의 묘지명이다. 먼저 ③의 ㉔-㉕에 따르면 唐의 官人들이 安東都護府의 長史, 錄事參軍事, 功曹參軍 등을 역임했다고 한다. 唐이 羈縻支配를 위해 설치한 都護府의 屬僚로는 長史, 司馬, 錄事參軍事, 錄事, 各曹參軍事, 參軍事 등이 있는데,³⁹⁾ 安東都護府의 경우 長史, 錄事參軍事, 諸曹參軍事 등을 唐의 官人으로 충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唐이 自國 官人을 잠시 철수한 676-680년경을 제외하면 安東都護府의 屬僚는 기본적으로 唐의 관인으로 충당했다고 파악된다.

唐은 自國 官人을 安東都護府의 屬僚로 파견하여 高句麗 故地에 대한 지배정책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는 唐이 安東都護府에 파견한 唐의 官人을 통해 각 羈縻府州를 강력하게 통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唐이 각 羈縻府州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羈縻府州에도 唐의 官人을 파견할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의 酋帥[유력자] 가운데 공이 있는 자는 都督·刺史·縣令에 임명하고, 唐의 官人[華人]과 함께 백성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기사⁴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唐이 각 羈縻府州에도 唐의 官人을 屬僚로 파견하여 고구려 유민 출신의 장관과 함께 해당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료 ③-㉕은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상기 사료에서 보듯이 楊玄基는 661년에 契苾何力을 따라 고구려 원정에 參戰한 바 있고, 고구려가 멸망하던 668년에는 鹿陵府의 長上 折衝을 수여받았다가 檢校 東柵州都督府 長史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楊玄基가 일찍이 고구려 원정에 참전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668년에 長史로 부임한 東柵州都督府는 두만강 유역의 고구려 重鎮이었던 柵城에 설치한 安東都護府 예하의 羈縻府일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멸망 이전에 柵城에 최고 지방관인 曷薩[都督]이 파견되었고, <李他仁墓誌銘>에서 柵城을 柵州라고 지칭한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방증한다.⁴¹⁾

이처럼 당이 羈縻府州에도 속료를 파견한 사실은 후수말갈의 사례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즉 唐이 黑水靺鞨에 都督府를 설치한 다음, 토착 수령을 都督으로 삼고, 최고위 속료인 長史에는 唐

37) 판독문은 《唐代墓誌彙編》; 권덕영 외 2015, 370쪽 참조

38) 판독문은 《全唐文補遺》 8; 권덕영 외 2015, 254쪽 참조

39) 각 관원의 품계와 정원은 도호부 등급에 따라 달랐다(《舊唐書》 직관지3 大都護府 및 上都護府 조 참조).

40) 《舊唐書》 권199상 열전149상 고려전 : “擢其酋渠有功者授都督·刺史及縣令, 與華人參理百姓.”

41) <高質묘지명> : “父量, 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

<高慈묘지명> : “祖量 本蕃, 任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 少稟 弓冶, 長承基構, 爲方鎮之領袖, 實屬城之准的.”

<李他仁묘지명> : “君諱他仁, 本遼東柵州人也. (중략) 于時, 授公柵州都督兼總兵馬, 管一十二州高麗, 統三十七部靺鞨.”

의 官人을 파견하여 각 部落을 監領했다는 것이다.⁴²⁾ 이로 보아 고구려 유민 출신의 靺廝府州 장관과 함께 백성을 다스렸다는 당의 官人은 靺廝府州의 高位 屬僚로 파견된 長史나 司馬 등을 지칭한다고 추정된다.⁴³⁾ 唐은 安東都護府뿐 아니라 각 靺廝府州의 고위 속료에도 唐의 관인을 파견해 기미지배를 도모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高句麗 遺民 출신의 靺廝府州 장관은 安東都護府의 통제와 함께 자신의 府州에 屬僚로 파견된 唐 官人의 감시도 받아야 했을 것이다. 高句麗 遺民 출신의 靺廝府州 장관은 상급 기관인 安東都護府와 휘하 屬僚의 이중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高句麗 故地에 대한 唐의 통제력이 강화될수록 高句麗 遺民 출신 靺廝府州 장관의 권한과 세력기반은 오히려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高句麗 遺民 출신 靺廝府州 장관이 자신의 세력기반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唐에 抗拒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高句麗 遺民의 抗拒와 唐의 靺廝政策 수정

실제 高句麗 遺民들은 唐이 기미지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670년 1월 직후부터 대대적으로 唐에 抗拒했다. 670년 3월에는 고구려 태대형 高延武가 신라의 사찬 薛烏儒와 함께 압록강을 넘어 屋骨城[오골성, 요녕성 봉황산성] 방면으로 진공하여 4월 4일에 皆敦壤에서 말갈병과 접전을 벌여 승리했다.⁴⁴⁾ 이해 4월에는 劍牟岑이 溟江[대동강] 일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唐도 이해 4월에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 李謹行을 燕山道行軍總管에 임명하여 각각 唐軍과 蕃兵을 거느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도록 했다.⁴⁵⁾

이와 함께 唐은 薛仁貴를 鷄林道總管에 임명하여 百濟故地로 파견해 신라를 공략하게 했다.⁴⁶⁾ 그런데 薛仁貴는 670년 4월 吐蕃 전역에 투입되었다가, 670년 7월 吐蕃에게 대패를 당하고 면직되었다.⁴⁷⁾ 薛仁貴가 鷄林道總管에 임명된 것은 670년 7월 이후라고 봐야 하는데, 671년 7월 26일에 鷄林道總管의 자격으로 신라 문무왕에게 외교문서를 보내고 있으므로 그 하한은 671년 7월이다. 제반 상황으로 보아 671년 상반기에 계림도총관에 임명되어 해로를 통해 백제고지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⁴⁸⁾

42) 《舊唐書》 권199하 열전149하 말갈전 : “開元十三年, 安東都護薛泰請於黑水靺鞨內置黑水軍. 續更以最大部落爲黑水府, 仍以其首領爲都督, 諸部刺史 屬焉. 中國置長史, 就其部落監領之.”

43) 김종복 2009, 32쪽

44) 《三國史記》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 3월조

45) 《新唐書》 권3 고종기 咸亨원년 4월조; 《三國史記》 권6 문무왕 10년 6월조.

46) 《舊唐書》 권83 열전33 설인귀전: “尋而高麗衆相率復叛, 詔起仁貴爲雞林道總管以經略之.”

47) 《舊唐書》 권5 고종기하 咸亨원년 7월 무자조

48) 존 씨 재미슨 1969, 3-4쪽. <郭行節墓誌銘>(《唐代墓誌彙編續集》; 권덕영 외 2015, 658쪽)의 “屬靑丘背命, 玄菟挺災, 軍將等以公習戎昭, 夙閑韜略, 遂表公爲鷄林道判官兼知子營總管. 又奏公爲押運使. 於是揚舲巨海, 鼓棹遼川, 風起濤驚, 船塊而溺, 形沉水府, 神往脩文, 其化迹之時, 卽唐咸亨二年(671년)之歲也(671년).”라는 명문은 鷄林道總管軍이 671년에 海路를 통해 출정했음을 알려준다. <楊福延墓誌銘>에 따르면 楊福延은 672년에 ‘鷄林道行軍長史’에 임명되었다고 한다(<全唐文補遺> 권9; 권덕영 외 2015, 701쪽).

이는 唐이 東州道行軍總管府·燕山道行軍總管府와 鷄林道總管府를 시차를 두고 편성했으며, 처음에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신라와의 연대를 認知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671년 7월 薛仁貴가 문무왕에게 보낸 외교문서에 고구려 부흥세력과 신라와의 연대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도 이를 시사한다. 이에 唐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신라군 진압을 총괄 지휘하는 大總管府를 편성하지 않고, 위상이 동일한 東州道行軍總管府·燕山道行軍總管府와 鷄林道總管府를 시차를 두고 별도로 편성했던 것이다.

고구려 방면에 투입된 高侃은 먼저 安東都護府의 治所를 平壤에서 遼東州로 옮긴 다음,⁴⁹⁾ 671년 7월에 安市城의 고구려 부흥세력[餘衆]을 격파했으며, 다시 泉山에서 신라의 지원병 2천명을 사로잡았다. 李謹行도 發廬河에서 고구려 부흥세력을 격파했다.⁵⁰⁾ 그런 다음 高侃이 이끄는 唐軍은 671년 9월 평양성에 도착해 황해도[帶方] 방면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⁵¹⁾ 그 뒤 당군은 671-673년에는 황해도 평야지대에서 고구려 부흥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신라군과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674년에는 薛仁貴 대신 劉仁軌를 鷄林道大總管으로 삼아 대규모 원정군을 재편성하여 임진강 유역까지 진격해 675년 9월까지 신라군과 전투를 벌였다.⁵²⁾

이로 보아 唐이 羈縻支配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670년 1월 직후에 고구려 유민들이 唐에 항거하며 671년 7월까지 遼河-鴨綠江 및 西北韓 일대 두 방면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고 파악된다. 다만 요동지역의 부흥운동은 671년 安市城 함락을 계기로 점차 약화되었고, 671-673년에는 신라의 후원 아래 주로 황해도 일대에서 전개했다고 파악된다.

④ <李他仁墓誌銘>⁵³⁾ : 從英公入朝, 特蒙勞勉, 蒙授右戎衛將軍. 卽而姜維構禍, 復扰成都, 穰穴挺妖, 俄翻穢境. 公又奉詔, 進討扶餘, 重剪渠魁, 更承冠帶. 凱還飲至, 帝有嘉焉, 遷授同正員右領軍將軍. 上元二年歲次丁巳二十三日, 遇疾, 薨于長安之私第, 春秋六十有七.

상기 묘지명의 주인공인 李他仁은 두만강 방면인 柵城지역의 최고 지방관[裨薩]을 역임하다가, 667-668년에 唐에 투항하여 평양성 함락 시에 세운 전공으로 唐의 右戎衛將軍을 제수받았다.⁵⁴⁾ 그런데 상기 사료에 따르면 고구려가 멸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姜維가 禍를 일으켜 다시 成都를 어지럽히듯이, 고구려[穰穴]가 妖怪로 이탈하여 잠시 고구려 지역[穢境]을 뒤집었는데, 공이 詔

49) 이 무렵 高侃이 安東都護를 역임한 것으로 추정된다[존 씨 재미슨 1969, 5쪽; 《舊唐書》 권152 高固전 : “高祖侃(중략) 官至安東都護, 事具前錄.”].

50) 《新唐書》 권220 열전145 고려전 : “侃徙都護府治遼東州, 破叛兵於安市, 又敗之泉山, 俘新羅援兵二千. 李謹行破之於發廬河, 再戰, 俘馘萬計.”

《資治通鑑》 권202 당기18 咸亨2년 7월조 : “乙未朔, 高侃破高麗餘衆於安市城.”

51) 《三國史記》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1년 9월조

52) 671년 이후 당군과 고구려 부흥세력 및 신라군의 전반적인 전투양상에 대해서는 서영교 2006; 노태돈 2009; 이상훈 2012 등 참조.

53) 판독문은 孫鐵山 1989, 736-737쪽; 안정준 2015, 380-382쪽 참조. 다만 <李他仁墓誌銘>에 관한 기존 판독문에는 誤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수정한 別稿를 준비 중에 있다.

54) 拜根興 2010a, 220-225쪽; 안정준 2013, 210-211쪽

책을 받들어 扶餘 지역으로 나아가 토벌하여 (부흥운동의) 우두머리를 제거하고 다시 冠帶의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고구려 멸망 이후 扶餘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李他仁이 이를 진압했다는 것이다. 李他仁은 675년 3월에 사망했으므로 부여지역의 부흥운동은 675년 이전에 일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670년 4월경에 일어났던 遼東지역의 부흥운동이 671년 7월 이후 약화된 사실을 고려하면, 부여지역의 부흥운동도 670-671년경에 전개되었다고 추정된다. 문헌사료에는 전하지 않지만, 부여지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기 사료에서는 부여지역의 부흥운동을 姜維(202-264년)의 蜀漢 부흥 시도에 비유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姜維는 본래 曹魏의 장수였다가 諸葛亮의 1차 북벌 시에 蜀漢에 투항했는데, 曹魏가 蜀漢을 멸망시킬 때는 曹魏의 鍾會에게 투항했다가 鍾會를 부추겨 촉한의 부흥을 도모했던 인물이다.⁵⁵⁾ 이로 보아 부여지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우두머리[渠魁]도 姜維처럼 唐에 투항했다가 부흥운동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부여지역 靺廝府州의 장관이나 唐의 靺廝支配에 협력했던 유력자가 부흥운동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李他仁이 柵城지역에서 고구려인과 靺鞨人을 함께 다스린 바 있고, 松花江 유역의 부여지역에는 粟末靺鞨이 다수 거주한 사실을 상기하면, 상기 고구려 부흥운동에 속말말갈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⁵⁶⁾ 후술하듯이 보장왕이 677년 요동지역으로 돌아온 이후 말갈과 연계하여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모했는데, 송화강 유역의 부여지역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高句麗 遺民과 靺鞨人이 연대하여 唐에 抗拒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기 기사는 670-671년경 고구려 부흥운동이 遼河-鴨綠江이나 西北韓 일대뿐 아니라 부여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靺鞨과의 연대도 일찍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당은 673년경 황해도 일대에서 고구려 부흥세력을 토벌한 다음, 674년에는 薛仁貴 대신 劉仁軌를 鷄林道大總管으로 삼아 대규모 원정군을 재편성하여 임진강 유역으로 진격했다. 唐이 고구려 고지의 부흥운동을 진압한 다음, 新羅와의 전면전에 착수한 것이다. 이때 唐은 670년 燕山道行軍總管을 맡았던 右領大將軍 李謹行으로 하여금 劉仁軌를 보좌하게 했는데, 東州道行軍總管을 맡았던 高侃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⁵⁷⁾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새롭게 알려진 <高乙德基誌銘>이 주목된다.

- ⑤ <高乙德基誌銘>⁵⁸⁾ : 公年纔立志, 仕彼邦官, 受中裏小兄, 任貴端道史. 暨乎, 大唐龍朔元年(661년), 天皇大帝, 勅發義軍, 問罪遼左. 公率兵敵戰, 遂被生擒. 聖上捨其抗拒之愆, 許以歸降之禮. 二年蒙授右衛藍田府折衝長上. 至總章元年(668년), 高麗失政東土, 歸命西朝, 勅以公奉國盡忠, 令檢校本土東州長史, 至咸亨五年(674년), 蒙授左清道率府頻陽府折衝.

55) 《三國志》 권44 蜀書14 姜維전

56) 孫鐵山 1993, 739쪽

57) 《舊唐書》 권5 고종기하 咸亨5년 2월조

58) 판독문은 여호규 2015, 255쪽 참조.

高乙德은 본래 ‘貴端道史[道使]’ 곧 新城 方面의 지방관을 지내다가, 661년에 唐軍에게 생포된 다음 唐에 투항한 인물이다. 高乙德은 고구려 멸망 이후 本國[本土]의 ‘檢校 東州長史’에 임명되었다가, 674년(咸亨五年)에 唐 內地의 ‘左淸道率府 頻陽府 折衝(都尉)’로 轉任되었다. 高乙德이 역임한 ‘檢校 東州長史’의 ‘東州’를 安東都護府 예하 羈縻州의 하나로 신라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高侃이 역임한 ‘東州道行軍總管’의 ‘東州’도 이 州府에 기초하여 설정한 行軍路線이며, 고구려 부흥군이나 신라군에 의해 이 지역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674년에 高乙德이 唐 內地로 轉任되었다고 추정했다.⁵⁹⁾

이에 대해 高侃의 작전 지역은 遼東의 안시성이었고 대동강 이남에서는 李謹行이 활약했기 때문에 이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며, ‘東州長史’는 특정한 羈縻州의 屬僚가 아니라 高侃이 지휘한 ‘東州道行軍總管府’의 長史를 지칭한다고 파악하기도 한다.⁶⁰⁾ 필자도 高乙德이 역임한 ‘東州長史’의 ‘東州’가 특정 羈縻州가 아니라 ‘東州道行軍總管府’를 지칭한다고 생각한다.⁶¹⁾ 다만 高侃의 작전지역이 遼東의 안시성 일대에만 국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高侃은 671년 9월에 李謹行과 함께 평양에 주둔해 황해도 방면으로 진격했고,⁶²⁾ 672년에도 황해도 방면의 白水城[白水山, 재령]이나 橫水(서흥강?) 등지에서 활약했기 때문이다.⁶³⁾

高侃이 671년 7월경까지 요동방면에서 활약하다가 671년 9월 이후 황해도 방면의 작전을 지휘한 것이다. 그런데 673년 윤5월에 李謹行이 瓠盧河(임진강)에서 고구려 부흥군을 격파했다고 하는데,⁶⁴⁾ 673년 이후 高侃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⁶⁵⁾ 더욱이 이해 9월에는 당군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瓠盧河와 王逢河 등지에서 크게 패배했다.⁶⁶⁾ 또한 唐이 674년에 薛仁貴 대신 劉仁軌를 鷄林道大總管으로 삼아 신라와의 전면전에 착수했는데, 이때 李謹行의 임무는 燕山道行軍總管에서 鷄林道副總管으로 바뀌었지만, 高侃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675년 2월에는 李謹行이 劉仁軌를 대신해 ‘安東鎮撫大使’로 신라와의 전쟁을 지휘했다.⁶⁷⁾

이렇게 본다면 高侃은 672-673년경까지만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唐으로 귀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은 674년에 鷄林道總管府를 鷄林道大總管府로 확대 재편하여 新羅와의 전면전에 착수했는데, 이때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편성했던 東州道行軍總管府과 燕山道行軍總管府를 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李謹行의 임무가 燕山道行軍總管에서 鷄林道副總管으로

59) 葛繼勇 2015, 326쪽

60) 이성제 2015, 206쪽

61) 胡三省은 《資治通鑑》에 대한 주석에서 “高麗在東，時而列置州府，故曰東州道。”라고 한 바 있으며, 東州를 遼東州의 줄임말로 추정하기도 한다(김종복 2009, 29쪽).

62) 《三國史記》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11년 9월조

63) 《舊唐書》 권5 고종기하 咸亨3년; 《資治通鑑》 권202 咸亨3년 12월조; 《三國史記》 권7 문무왕十二年; 《三國史記》 권22 고구려본기10 寶藏王하

64) 《舊唐書》 권5 고종기하 咸亨4년 閏五月 丁卯

65) 이 무렵 高侃이 신라군에게 패배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존 씨 재미슨 1969, 5-6쪽).

66) 《三國史記》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9월조

67)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上元2년 2월조

바뀐 것은 이를 반영하다. 그러므로 高乙德이 ‘東州長史[東州道行軍總管府의 長史]’에 在任하다가, 674년에 ‘左淸道率府 頻陽府 折衝(都尉)’로 轉任한 것도 東州道行軍總管府를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결국 高乙德이 ‘東州長史’에서 ‘左淸道率府 頻陽府 折衝(都尉)’로 轉任된 것은 당이 고구려 부흥운동 진압작전을 신라와의 전면전으로 전환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唐이 673년경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거의 진압하고, 674년부터 신라와의 전면전에 착수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新唐書》 고려전의 “於是平壤夷殘不能軍, 相率奔新羅, 凡四年乃平”라는 기사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670년에 일어나 673년까지 4년간 전개된 사실을 전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唐은 674년 劉仁軌를 鷄林道大總管으로 삼아 신라와의 전면전에 나섰지만, 675년 9월에 임진강 유역의 매소성에서 李謹行이 이끄는 陸軍이 대패하고, 676년 11월에는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薛仁貴가 이끄는 水軍이 대패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唐은 高句麗故地에 대한 羈縻政策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唐은 安東都護府에 파견했던 唐의 官人을 철수시키고, 676년 2월에 安東都護府 治所를 遼東城으로 옮겼다가 677년 2월에는 다시 新城으로 옮겼다.⁶⁸⁾ 이와 함께 677년에 寶藏王을 遼東州都督 朝鮮郡王에 임명해 요동으로 귀환시켰으며, 唐의 內地로 강제 이주했던 유민들도 요동으로 귀환시켰다.⁶⁹⁾

唐이 안동도호부에 파견했던 官人을 철수시켰다는 것은 고구려 유민 출신의 羈縻府州 장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완화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장왕을 羈縻府州 장관 중 최고위인 요동주도독에 임명하고 조선군왕에 봉했다는 것은 고구려 유민 사회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보장했음을 의미한다. 唐이 羅唐戰爭에서 패배한 다음 종전의 강력한 羈縻支配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상당히 완화된 羈縻支配 정책을 구사했던 것이다.⁷⁰⁾ 물론 唐이 遼東의 建安城에 熊津都督府를 僞置하고, 唐 內地에 遷徙시켰던 백제 유민도 이곳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보아⁷¹⁾ 한반도 지역에 대한 병탄 의도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⁷²⁾

오히려 唐이 678년 9월까지도 신라를 정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⁷³⁾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활용해 요동지역을 안정시킨 다음, 신라 공격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⁷⁴⁾ 그렇지만 唐은 고구려 멸망 직후 高句麗故地에 대한 지배정책을 수립했다가, 유민의 반발에 부딪혀 1년

68) 《舊唐書》 권19 지리2 安東都護府志 : “上元三年二月, 移安東府於遼東郡故城置. 儀鳳二年, 又移置於新城.”

《資治通鑑》 권202 儀鳳元年 2월조 : “甲戌, 徙安東都護府於遼東故城. 先是有華人任安東官者, 悉罷之.”

69) 《舊唐書》 권220 열전145 高麗전 : 儀鳳二年, 授藏遼東都督, 封朝鮮郡王, 遷遼東以安餘民, 先編僑內州者皆原遣, 徙安東都護府於新城.

70) 노태돈 1981, 82-83쪽; 김종복 2009, 39쪽

71)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儀鳳2년 2월조 : “丁巳, 又以司農卿扶餘隆爲熊津都督, 封帶方王, 亦遣歸安輯百濟餘衆,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以統之. 時百濟荒殘, 命隆寓居高麗之境.”

72) 池內宏 486쪽; 日野開三郎 66쪽에서는 安東都護府의 移置를 한반도 지역 포기로 이해하고 있다.

73) 《資治通鑑》 권202 당기18 儀鳳3년 9월 신유조

74) 노태돈 1981, 82쪽; 古畑徹 1983, 14-18쪽; 김종복 2009, 42쪽

여의 정지작업을 거쳐 670년 1월에야 비로소 시행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唐이 고구려 고지에 대한 지배를 고구려 유민 출신 靺鞨府州 장관에만 맡겨놓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 ⑥-㉠ <泉男生墓誌銘>⁷⁵⁾ : 儀鳳二年(677년), 奉勅存撫遼東, 改置州縣, 求瘼卹隱, 襁負如歸, 劃野疎疆, 奠川知正. 以儀鳳四年(679년) 正月「廿九日, 邁疾薨於安東府之官舍.
- ⑥-㉡ <泉獻誠墓誌銘>⁷⁶⁾ : 調露元年(679년) 九月, 有制奪禮, 充定襄軍討「叛大使, 金革無避, 非公所能辭也, 使還錄功, 授上柱國. (중략) 垂拱二年「三月奉勅充神武軍大總管, 部領諸色兵, 西入寇境, 公妙閑風角, 深達鳥情, 山川起伏之形, 原野孤虛之「勢, 莫不暗符鈐決, 洞合胸襟, 次廻滿川, 賊徒大去, 善戰不陣, 斯之謂歟.
- ⑥-㉢ 儀鳳中, 高宗授高藏開府儀同三司·遼東都督, 封朝鮮王, 居安東, 鎮本蕃爲主. 高藏至安東, 潛與靺鞨相通謀叛. 事覺, 召還, 配流邗州, 并分徙其人, 散向河南·隴右諸州, 其貧弱者留在安東城傍. 高藏以永淳初卒, 贈衛尉卿, 詔送至京師, 於頡利墓左賜以葬地, 兼爲樹碑. (《舊唐書》 권199상 열전 149上 高麗전)
- ⑥-㉣ 王至遼東, 謀叛, 潛與靺鞨通, 開耀元年(680년), 召還邗州, 以永淳初死, 贈衛尉卿, 詔送至京師, 葬頡利墓左 樹碑其阡.(《三國史記》 권22 高구려본기10 寶藏王하)

사료 ⑥-㉠에서 보듯이 唐은 677년에 보장왕을 요동으로 귀환시킴과 동시에 唐軍의 향도를 맡아 고구려 공격의 선봉에 섰던 男生을 요동으로 파견했다. 상기 사료에서 보듯이 男生은 요동으로 파견된 다음 당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州縣의 개편, 유민 안무, 농경지 획정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⑥-㉠). 사실상 安東都護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파견되기 이전에 安東都護府에서 唐의 官人을 철수시켰고, 679년 安東都護府 관사에서 사망한 사실을 상기하면, 男生은 安東都護 또는 그에 준하는 職任을 띠고 요동에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장왕이 고구려 유민 출신의 靺鞨府州 장관을 대표하는 존재였다면, 男生은 고구려 유민이지만 당 황제의 칙명을 받드는 唐의 官人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⁷⁷⁾

따라서 唐이 676년 安東都護府의 이치와 함께 靺鞨支配 정책을 완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장왕과 남생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유민 세력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파악된다.⁷⁸⁾ 다만 唐의 이러한 의도는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고구려 유민의 抗拒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오히려 요동으로 귀환한 보장왕은 말갈과 연대하여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모했다(⑥-㉢). 보장왕의 부흥운동은 사전에 발각되어 무위로 끝났지만, 唐이 완화된 기미지배 정책과 고구려 유민세력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도 고구려 고지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힘들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보장왕이 말갈과 연대하여 부흥운동을 도모한 사실과 함께⁷⁹⁾ 부흥운동을 도모한 시점에

75) 판독문은 박한제 1992, 493-496쪽 참조.

76) 판독문은 박한제 1992, 519-521쪽 참조.

77) 노태돈 1981, 83쪽

78) 김종복 2009, 40-42쪽

79) 보장왕이 연계를 도모했던 말갈은 대체로 松花江[粟末水] 유역으로 粟末靺鞨로 추정되는데, 당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장왕이 부흥운동을 도모한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료는 없다. 다만 보장왕을 견제하던 男生이 679년 1월 29일에 안동도호부 관사에서 사망했고(⑥-㉠), 보장왕이 680년에 소환되어 耶州로 유배된 사실을 고려하면(⑥-㉡), 남생이 사망한 679년에 부흥운동을 도모했다가 680년에 耶州로 유배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679년 9월부터 突闕이 唐에 항거하기 시작하고, 돌궐의 영향을 받은 契丹과 奚가 이해 10월에 營州를 공격한 사실을 고려하면,⁸⁰⁾ 679년 말경에 부흥운동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⁸¹⁾

한편 唐은 보장왕의 모반 사건 이후 요동으로 귀환시켰던 고구려 유민을 다시 河南과 隴右 지역으로 강제 천사했으며, 이로 인해 안동도호부 주변[安東城傍]에는 다시 貧弱者만 남게 되었다(⑥-㉢). 고구려 유민 중 당의 기미지배에 抗拒할 소지가 있거나 비협조적인 유력자를 다시 강제 이주시키고, 貧弱者만 남겼던 것이다. 특히 唐은 內地로 이주시킨 고구려 유민들이 結集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州에 분산 배치했다.⁸²⁾ 이는 唐이 보장왕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고구려 고지에 대한 羈縻政策을 677년 이전 상태로 되돌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⑦-㉠ <屈突詮墓誌銘>⁸³⁾ : 北庭無事, 旣聞三表之功, 東隅未康, 北佇八條之績, 拜銀青光祿大夫安東都護, 臨五部之邊邑, 輯九種之遺黎, 微暘煦而谷春, 巨浪銷而海謐, 風夷雜舞, 陳于上帝之庭. (중략) 朝庭嘉焉, 復拜安東都護. (중략) 以載初元年(690년) 八月廿八日, 邁疾終於雍州之旅館, 春秋六十有九.

⑦-㉡ <屈突季札墓誌銘>⁸⁴⁾ : 君謂季札, 京兆長安人也. (중략) 父詮, 營州都督, 瀛州刺史, (중략) 以開耀元年(681년) 七月廿九日, 隨父任終於遼東之貢州, 時年一十有三, 延陵去國.

사료 ⑦-㉠에서 보듯이 屈突詮은 두 차례나 安東都護를 역임한 다음 690년에 69세로 사망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아들인 屈突季札이 681년 그의 임지인 遼東의 貢州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⑦-㉡). 屈突詮이 681년에 安東都護를 역임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安東都護府 예하의 羈縻州인 貢州에 官人으로 파견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는 唐이 보장왕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唐의 官人을 철수시켰던 종전 정책을 재수정하여, 680년 보장왕의 소환과 더불어 다시 安東都護府에 唐의 官人을 파견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唐은 여러 羈縻府州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인 遼東의 朝鮮郡王府도 폐지했다.

이 보장왕의 부임과 함께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성에서 신성으로 옮긴 것도 요동의 고구려 유민과 외부인 특히 속말말갈의 교섭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日野開三郎 70-71쪽; 노태돈 1981, 82-83쪽). 말갈이 고구려와 연대해 당에 항거했을 가능성은 <李他仁墓誌銘>을 통해 유추할 수 있고, 673년에는 고구려와 말갈이 연대하여 伐奴城을 공격한 사실이 확인된다(《資治通鑑》 권202 당기18 咸亨4년 윤5월조).

80) 정재훈 2016, 397-401쪽

81) 김종복 2009, 53-55쪽

82) 《唐六典》 권5 尙書兵部 : “凡關內團結兵, 京兆府六千三百二十七人, 同州六千七百三十六人, 華州五千二百二十三人, 蒲州二千七百三十五人, 秦·成·岷·渭·河·蘭六州有高麗·羌兵.”

83) 판독문은 《全唐文補遺》: 권덕영 외 2015, 117쪽 참조

84) 판독문은 《全唐文新編》: 권덕영 외 2015, 113쪽 참조

결국 唐은 동방지역의 정세에 따라 기미지배 정책의 강약을 조절했지만, 고구려 고지에 대한 안정적 지배기반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기반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주변 정세의 변동에 따라 당의 기미지배 체제는 언제든지 와해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突闕의 復興과 契丹의 興起로 唐의 주변 정세가 요동치던 680-690년대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680-690년대 唐의 동방정책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1) 680년대 唐의 突闕 防禦戰과 高句麗 遺民의 動員

630년 동돌궐의 패망과 함께 고비사막 남쪽으로 移置되었던 突闕은 吐蕃과 西突闕의 흥기에 자극을 받아 67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唐에 항거하기 시작했다. 契丹과 奚도 돌궐의 영향을 받아 679년 10월 唐에 抗拒했지만, 곧바로 평정되고 696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그렇지만 突闕은 唐의 北方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다가, 687년에는 당의 추격을 따돌리고 고비사막 북쪽으로 이동하여 몽골초원에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했다. 이로써 북방지역에 대한 당의 기미지배 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했으며,⁸⁵⁾ 당 중심의 국제질서도 무너지고 다각적인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⁸⁶⁾

이에 唐은 한반도 방면으로의 진격을 포기하는 대신,⁸⁷⁾ 唐의 內地로 천사시킨 고구려 유민을 突闕을 방어하는데 적극 동원했다. 唐이 突闕 防禦戰에 고구려 유민을 동원하던 양상은 유민묘지명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⑧-㉓ <高質墓誌銘>⁸⁸⁾ : 咸亨元年(670년), 奉○○○勅差邏娑·涼州, 鎮守燕山·定襄道行, 亟忽軍塵, 荐持戎律. 攻城野戰, 陷敵摧堅. 累效殊功, 爰加懋賞. 永隆二年(681년), ○○○制除左威衛將軍, 又奉○○○勅單于道行. 文明年中(684년), 充銀勝道安撫副使. 光宅元年(684년), ○○○制封柳城縣開國子, 食邑四百戶.

⑧-㉔ <泉獻誠墓誌銘>⁸⁹⁾ : 調露元年(679년) 九月, 有制奪禮, 充定襄軍討, 叛大使, 金革無避, 非公所能辭也, 使還錄功, 授上柱國. (중략) 垂拱二年(686년), 三月奉勅充神武軍大總管, 部領諸兵, 西入寇境, 公妙閑風角, 深達鳥情, 山川起伏之形, 原野孤虛之勢, 莫不暗符鈴決, 洞合胸襟, 次廻滿川, 賊徒大去, 善戰不陣, 斯之謂歟.

⑧-㉕ <高玄墓誌銘>⁹⁰⁾ : 至垂拱二年(686년) 二月, 奉○勅差行, 爲神武軍統領. 三年(687년)

85) 김호동 1993, 168쪽

86) 정재훈 2016, 414쪽. 돌궐의 흥기에 대해서는 정재훈 2016, 397-440쪽 참조.

87) 唐이 신라 정도 의지를 표명한 것은 678년 9월이 마지막이다(《資治通鑑》 권202 당기18 儀鳳3년 9월). 그 이후 돌궐의 흥기에 따른 정세변화로 한반도 방면으로의 진격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88) 판독문은 《全唐文補遺(千唐誌齋新藏專輯)》, 《河洛春秋》 2007-3,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閔庚三 2007, 拜根興 2009, 趙振華·閔庚三 2009, 拜根興 2012 등 참조.

89) 판독문은 박한제 1992, 519-521쪽 참조.

四月, 大破賊徒,」 薊北振其英聲, 燕南仰其餘烈. 俄而蒙授右玉鈐衛中郎將. 又以永昌元」年(689년), 奉○勅差令諸州簡高麗兵士. 其年(689년) 七月, 又奉○勅簡洛州兵士, 便充」新平道左三軍總管, 征行. 天授元年(690년) □月九日, ○恩制改授左豹韜衛行」中郎將.

⑧-㉔ <高足西墓誌銘>⁹¹⁾: 旣而惹山動祿, 紫塞驚塵, 甘泉見烽」火之輝, ○○天子下徵兵之令. 大周, 天授元年(690년), 拜公爲鎮軍大將軍, 行左豹韜衛大將軍,」登壇受策, 禮逾韓信, 野戰頻勝, 事逸張飛. 眷彼二蕃, 如湯沃雪, 觀茲再舉, 疑是神行. 長城」絕飲馬之篇, 萬里罷輪臺之戍.

사료 ⑧-㉔에 따르면 高質은 고구려 멸망 직후인 670년에 邏娑와 凉州로 가서 燕山·定襄道 行軍을 鎮守했다고 한다. 670년 4월에 吐蕃이 白州 등 18주를 함락시키자 唐이 薛仁貴를 邏娑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토번을 공격했다가, 설인귀가 대패하자 윤8월에 다시 좌상 姜恪을 凉州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토번을 방어하게 했다.⁹²⁾ 이로 보아 ‘邏娑와 凉州로 나아가’라는 표현은 高質이 邏娑道行軍과 凉州道行軍에 편성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燕山·定襄道라는 명칭은 돌궐 방면과 연관된 것이므로, 이때 高質은 吐蕃戰보다는 突闕의 남하에 대비하는 군대에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⁹³⁾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를 돌궐 방어전에 투입한 가장 이른 사례인 것이다.

돌궐이 679년 10월 唐에 항거하며 본격적으로 부흥을 도모하자, 당은 이해 11월에 裴行儉을 定襄道大總管으로 삼아 토벌에 나섰다.⁹⁴⁾ 이때 泉獻誠은 부친 男生의 사망으로 喪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奪禮 制書를 받고 定襄軍討叛大使에 임명되어 돌궐 방어전에 참전했다(⑧-㉔). 泉獻誠이 裴行儉의 定襄道大總管府에 편성되어 돌궐 방어를 투입된 것이다.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가 돌궐 방어전에 본격적으로 동원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喪中이던 泉獻誠에게 奪禮 制書를 내릴 정도로 唐의 상황이 긴박했음도 보여준다. 이때부터 돌궐은 거의 매년 唐의 북방을 공략했으며, 唐도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해 대응했다.

681년에는 高質이 종3품 左威衛 將軍으로 제수된 다음, 單于道 行軍의 조직을 받들어 돌궐 토벌에 나섰다(⑧-㉔). 다만 681년에는 돌궐이 原州와 慶州 등을 공격하자, 당이 裴行儉을 定襄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토벌에 나섰다.⁹⁵⁾ 그리고 당은 683년 11월과 684년 9월에 걸쳐 鄭務挺을 單于道按撫大使로 삼아 돌궐 토벌에 나선 바 있다.⁹⁶⁾ 그러므로 <高質墓誌銘>의 연도가 정확하다면 高質은 681년에 定襄道行軍大總管府에 편성되어 돌궐 공략에 나섰고, 行軍의 명칭이 정확하다면 683년에 單于道按撫大使 鄭務挺이 이끄는 원정군에 참전했다고 추정된다.⁹⁷⁾ 전자의 가능성이 높지

90) 판독문은 《唐代墓誌彙編續集》, 《唐代墓誌彙編附考(11책)》, 《全唐文補遺(第二輯)》,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宋基豪 1998 등 참조.

91) 판독문은 《唐代墓誌彙編續集》, 《全唐文補遺(第五輯)》, 《洛陽新獲墓誌》,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拜根興 2001, 李文基 2001, 拜根興 2012 등 참조.

92) 《舊唐書》 권5 高宗하 咸亨원년: 《資治通鑑》 권201 당기17 咸亨원년

93) 趙振華·閔庚三 2009, 27쪽

94) 《舊唐書》 권5 高宗하 調露원년 11월조

95) 《舊唐書》 권5 高宗하 永隆 2년 춘정월조

96) 《新唐書》 권3 고종기 弘道원년 11월조 및 권4 측천무후기 光宅원년 9월조

97) 高質이 684년에는 銀勝道 安撫副使에 충원되었으므로 單于道로 출정했을 가능성이 없다.

만, 후자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高質은 684년에도 銀勝道 安撫副使에 충원되어 돌궐 방어전에 참전했다. ‘銀勝道’는 지금의 陝西省 橫山縣 일대에 설치했던 銀州 및 內蒙古 准格爾旗 東北 일대에 설치했던 勝州와 연관된 行軍 명칭으로 보인다. 684년 7월에 돌궐이 朔州 일대를 공격하자, 唐이 左威衛 大將軍 程務挺으로 하여금 방어하게 했다고 하는데,⁹⁸⁾ 당시 高質의 직임이 程務挺과 같은 소속의 左威衛 將軍이라는 점에서 程務挺의 지휘를 받으며 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질은 이때 세운 전공으로 684년 11월 29일에 柳城縣開國子 食邑 4백호에 책봉되었다.

686년 2월에는 高玄이 神武軍 統領에 임명되었고(⑧-㉔), 이해 3월에는 泉獻誠이 神武軍 大總管에 임명되었다고 한다(⑧-㉕). 神武軍은⁹⁹⁾ 代州(山西省 代縣) 북쪽에 설치한 守捉兵인데, 본래 大同軍으로 불리다가 680년에는 神武軍, 691년에는 平狄軍으로 改稱되었다.¹⁰⁰⁾ 高玄과 泉獻誠은 686년에 1개월의 시차를 두고 代州 북쪽에 위치한 神武軍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神武軍의 지휘관에 임명되기 직전인 685년 3월에 突闕이 代州를 공략했다는 점에서 돌궐 방어의 최전선에 투입되었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泉獻誠이 神武軍 大總管이었다는 점에서 高玄은 泉獻誠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泉獻誠이 神武軍 大總管으로 ‘諸色兵’을 거느린 점이 주목된다. 色兵은 이민족 출신의 병사를 지칭하는데, ‘諸色兵’이라 했으므로 ‘여러 이민족’ 출신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泉獻誠의 지휘를 받은 高玄은 ‘諸色兵’ 중 고구려 유민 출신 병사를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唐이 686년을 전후해 이민족 출신 병사를 돌궐 방어전에 적극 활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吐蕃戰에서 활약했던 백제 유민 출신의 黑齒常之가 686년부터 돌궐 방어전에 투입된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黑齒常之는 687년 8월에는 燕然道行軍 大總管으로 돌궐 방어전을 총지휘하기도 했다.¹⁰¹⁾

唐이 고구려 유민을 돌궐 방어전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실은 <고현묘지명>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高玄은 689년 칙명을 받들어 여러 州에서 고구려 병사를 선발하고, 7월에는 다시 洛州의 병사를 선발한 다음, 新平道左三軍惣管에 임명되었다고 한다(⑧-㉔). 唐은 689년 5월에 薛懷義를 新平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아 突厥을 공격했으며, 8월에 다시 그를 新平道中軍大總管으로 삼아 돌궐을 공격한 바 있다.¹⁰²⁾ 그러므로 高玄이 여러 州에서 고구려 병사를 선발하고, 7월에 洛州의 병사를 선발해 突闕 원정군을 편성했다고 파악된다.

전술했듯이 唐은 679년경 보장왕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高句麗 故地의 유민을 다시 內地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때 고구려 유민의 결집을 방지하기 위해 각 州에 분산 배치했는데, 8세기 초에도 關內의 6개 주에 고구려 병사를 團結兵으로 분산시켜

98) 《舊唐書》 권6 측천황후 文明元年 7월조

99) 唐의 神武軍으로 北衛十軍에 속한 禁軍 조직도 있지만, 738년(開元 26년)에 羽林軍을 나누어 설치한 것이므로 高玄의 활동시기와 맞지 않는다(《新唐書》 권49상 百官志 左右神武軍).

100) 《新唐書》 권39 地理志3 河東道 代州 雁門郡조

101) 《資治通鑑》 권203 垂拱2년 9월조 및 《新唐書》 권4 측천무후기 垂拱3년 8월조

102) 《新唐書》 권4 측천무후기 永昌元年 5월조 및 8월조

놓은 사실이 확인된다.¹⁰³⁾ 이로 보아 高玄은 689년에 唐의 각 州에 분산 배치된 고구려 유민 출신 병사를 선발해 돌궐 방어군을 편성했다고 파악된다. 즉 高玄이 689년 8월 新平道左三軍惣管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唐 內地로 강제 遷徙된 고구려 유민 출신 병사를 통솔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 ㉔-㉞에 따르면 690년 변경지방의 소요로 인해 징병령이 내려졌는데, 高足酉는 鎮軍大將軍 行左豹韜衛大將軍에 임명되어 二蕃 토벌에 나섰다. 이때 고현도 高足酉와 소속이 같은 左豹韜衛의 行中郎將으로 참전했다고 하므로 高足酉의 지휘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토벌 대상인 二蕃을 武則天 시기의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돌궐과 거란으로 상정하기도 한다.¹⁰⁴⁾ 그렇지만 <고족유묘지명>에 따르면 唐 서쪽의 총령과 친산, 북방의 만리장성 일대에서 夷狄이 침공했다고 하며, 高足酉 휘하의 高玄이 주로 돌궐 방어전에서 활약한 사실을 고려하면, 당시 唐을 거세게 공격하던 突闕과 吐蕃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을 통해 唐이 680년대 돌궐 방어전에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를 적극 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686년에는 泉獻誠과 高玄이 神武軍의 大總管과 統領, 690년에는 高足酉와 高玄이 左豹韜衛의 大將軍과 行中郎將 등으로 각기 동시에 임명되어 상하 지휘 관계를 이루었는데, 이는 당이 고구려 유민을 돌궐 방어전에 조직적으로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689년 高玄이 唐의 각 州에 분산 배치된 고구려 유민 출신 병사를 선발해 돌궐 방어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唐이 보장왕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內地로 다시 강제 遷徙시켰던 고구려 유민을 686년경부터 突闕 防禦戰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던 것이다.

다만 이때 唐이 高句麗 故地の 遺民을 돌궐 방어전에 동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돌궐 방어전이 주로 高句麗 故地和 멀리 떨어진 唐의 북방 지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이지만, 高句麗 故地に 남은 遺民의 동요를 우려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686년에 보장왕의 손자인 高寶元을 朝鮮郡王에 봉한 사실이 주목된다.¹⁰⁵⁾ 唐이 686년경부터 高句麗 遺民을 돌궐방어전에 대거 동원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에 朝鮮郡王府를 부활시킨 것은 唐의 內地뿐 아니라 高句麗 故地に 남은 遺民의 동요를 예방하기 위한 慰撫策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高句麗 故地에 대한 당의 지배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했음을 반영한다.

2) 690년대 契丹의 부흥운동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한편 696년 5월 松漠都督 李盡忠과 刺史 孫萬榮의 舉兵으로 契丹의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때 遼西와 遼東 地域의 고구려 유민도 부흥을 도모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契丹의 부흥운동 전개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⁶⁾

103) 《唐六典》 권5 尚書兵部

104) 이문기 2001, 464쪽

105) 《舊唐書》 권199상 열전 149上 高麗宗 : “垂拱二年, 又封高藏孫寶元爲朝鮮郡王.”

106) 契丹의 흥기와 이에 대한 唐의 대응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은 《舊唐書》 권199하 열전149하 契

李盡忠과 孫萬榮은 696년 5월에 唐에 반기를 들고 營州都督 趙文翽를 죽인 다음, 遼西의 營州 일대를 점거했다. 唐이 696년 5월 曹仁師 등 28장군을 보내 거란 공략에 나섰지만, 8월에 灤河-大凌河 분수령의 西硤石谷에서 참패했다. 이에 唐은 9월에 募兵 制書를 내리는 한편,¹⁰⁷⁾ 武攸宜를 淸邊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契丹 토벌에 착수했지만, 군사를 모집하는 일이 여의치 않았다. 이때 突闕의 默啜可汗이 '唐과의 혼인 및 河西지역 降胡의 반환'을 조건으로 契丹 토벌을 돕겠다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거란의 배후를 습격하도록 밀약을 맺었다.

696년 10월 李盡忠의 病死로 거란 세력이 일시 약화되었지만, 孫萬榮이 다시 部落를 통솔하며 唐의 冀州, 瀛州 등을 공격했다. 이로써 孫萬榮은 세력을 재규합하는데 성공했지만, 당 공격을 위해 본영을 비웠다가 突闕의 공격을 받아 李盡忠과 자신의 가족이 노획되고 물자도 약탈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唐은 契丹을 공략한 默啜可汗을 特進·頡跌利施大單于·立功報國可汗에 책봉했지만, '唐과의 혼인과 降戶 반환'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돌궐은 다시 697년 1월에 靈州와 勝州를 공격하며 唐에 반기를 들었다.

孫萬榮도 거란의 잔여세력을 규합하여 697년 3월에 冀州를 공격하여 刺史 陸寶積을 살해했다. 그리고 武攸宜 휘하의 淸邊道總管 王孝傑과 蘇宏暉 등이 17만 대군을 거느리고 거란 토벌에 나서자, 이들을 灤河-大凌河 분수령의 東硤石谷으로 유인하여 王孝傑을 전사시키는 등 대패했다.¹⁰⁸⁾ 孫萬榮이 승전의 여세를 몰아 幽州를 공격하자, 武攸宜가 裨將을 파견해 방어했지만 패배했다. 당으로서 다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唐은 默啜可汗과 "6州 降胡의 반환, 單于都護府 지역 반환, 각종 물자의 제공(穀食과 種子 10만곡, 雜彩 5만단, 농기구 3,000구, 무쇠 수만근)"을 조건으로 契丹 토벌을 위한 밀약을 맺었다. 그리고 697년 4월에는 河內郡王 武懿宗을 神兵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右豹韜衛將軍 何迦密을 출정시켜 거란 토벌에 나섰고, 이해 5월에는 樓師德을 淸邊道副大總管, 沙吒忠義를 (淸邊中道) 前軍總管으로¹⁰⁹⁾ 삼아 20만을 이끌고 거란을 공격하게 했다. 唐이 돌궐과의 밀약을 바탕으로 契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손만영도 당군을 방어하기 위해 남쪽으로 출정했는데, 영주에 있는 본영은 매부인 乙冤羽에게 맡겼다.

697년 6월 唐의 武懿宗은 趙州까지 진격했다가 거란군이 冀州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相州로 퇴각했다. 이에 거란군은 趙州를 공략하고 幽州로 진격했다. 이때 孫萬榮은 배후를 걱정하여 默啜可汗에게 함께 唐을 공격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이 오히려 거란의 약점을 노출시켰다. 그리하여 거란은 돌궐과 당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고, 피신하던 孫萬榮도 수하의 노비에 의해 살해당했

단전: 《通典》 권200 契丹전; 《資治通鑑》 권205와 권206 萬歲通天 원년-久視원년의 관련 기사 참조.

107) 《資治通鑑》 권205 萬歲通天 원년 9월 조 : "制: 天下系囚及士庶家奴驍勇者, 官償其直, 發以擊契丹."

108) 唐軍이 契丹軍에게 대패해 王孝傑이 전사한 것은 3월 庚子일(4일); 《陳伯玉文集》 권7 <國殤文一首> 또는 戊申일(12일); 《資治通鑑》 권206 神功원년 3월 조)이고, 蘇宏暉가 피신해 幽州에 도착한 것은 4월 6일이다(《陳伯玉文集》 권4 謝衣表).

109) 697년 3월에 戰死한 王孝傑의 직임이 본래 淸邊中道前軍總管(《陳伯玉文集》 권4 <奏白鼠表>)이었다는 점에서 沙吒忠義는 王孝傑를 대신해 淸邊中道前軍總管에 보임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 1년여에 걸친 契丹의 흥기가 막을 내린 것인데, 돌궐의 주도하에 거란군이 격파된 이후 거란과 해는 돌궐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¹¹⁰⁾

이로써 契丹의 흥기는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돌궐이 唐의 군사력 약화를 간파하고 더욱 거세게 공략하여 700년경에는 유목제국의 위상을 회복했다.¹¹¹⁾ 또한 주지하듯이 高句麗 遺民들도 靺鞨과 연합하여 698년에 발해를 건국했다. 이렇게 본다면 696년 契丹의 부흥운동 이후 고구려 고지의 유민들도 다시 부흥을 도모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와 관련한 상황을 전하는 문헌사료는 거의 없다. 오히려 契丹이 擧兵한 다음 요동진출을 시도했는데, 安東都護府나 그 예하 靺廝府州의 장수들이 이를 봉쇄했다는 단편적인 사료만 전할 뿐이다.

가령 696년 9월경에 契丹이 安東都護府를 포위했는데, 安東都護 裴玄珪가 막아냈다고 한다.¹¹²⁾ 또한 696년 연말 또는 697년 1월경에 遼東都督 高仇須가 契丹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에 거란 토벌전을 총지휘하던 淸邊道行軍大總管 武攸宜가 697년 1월 말에 高仇須에게 勝戰을 치하하는 서신을 보내는 한편,¹¹³⁾ 安東都護府 예하 靺廝府州의 장관과 속료에게도 거란과의 전투를 독려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¹¹⁴⁾ 특히 武攸宜는 高仇須에게 보낸 서신에서 697년 2월에 蕃漢의 정예병 40만을 진격시켜 거란을 토벌할 계획인데, 이때 중랑장 薛訥로 하여금 5만의 蕃漢 정예병을 이끌고 海路를 통해 東進할 것이라고 밝혔다.¹¹⁵⁾

그런데 武攸宜는 697년 3월에 王孝傑과 蘇宏暉 등으로 하여금 17만 대군을 거느리고 거란을 토벌하도록 했다가 東硤石谷에서 대패한 바 있다. 이로 보아 武攸宜가 高仇須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은 697년 3월에 실행된 거란 토벌 작전을 지시한 것이라고 파악된다. 즉 자신이 직접 40만 大軍을 이끌고 평주 방면에서 진격하고, 海路로는 薛訥을 파견해 거란을 공격할 계획이니, 遼東都督 高仇須도 薛訥의 작전을 지원하라는 것이다.¹¹⁶⁾ 이는 唐이 海路를 통해 요동방면에서도 거란토벌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요동방면에서 이루어진 당의 거란 토벌 작전이나 고구려 유민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헌사료는 거의 없다.

다만 武攸宜의 參謀였던 陳子昂이 거란이 안동도호부를 공략할 것을 우려한 것을 보면,¹¹⁷⁾ 거란의 부흥운동은 고구려 유민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神兵道行軍大總管 武懿宗 등은 則天武后에게 올린 戰勝 上表文[露布]에서 “작년(696년 8월)에 군사를 일으켰다가 一軍이 盡滅당했고, 금년 봄(697년 3월)에는 적군을 가볍게 보다가 3군의 장수가 돌아오지 못했다. 적의 무리가 번성해지고 적의 군사력이 더욱 강성해져 山戎과 결탁하여 서쪽으로 침공하고, 島夷와 연대하여 동쪽으로 진입했다”고 언급했다.¹¹⁸⁾ 여기서의 島夷는 본래 중국의 東海岸이나 海島에

110) 《舊唐書》 권194상 열전144상 돌궐전 : 契丹及奚自神功(697년)之後, 常受其徵役

111) 정재훈 2016, 434-440쪽

112) 《舊唐書》 권59 열전9 許欽寂전; 《資治通鑑》 권205 萬歲通天 원년 9월 丁巳조

113) 《陳伯玉文集》 권10 書啓 <爲建安王與遼東書>

114) 《陳伯玉文集》 권10 書啓 <爲建安王與安東諸軍州書>

115) 노태돈 1981, 84-85쪽; 김종복 2009, 64-65쪽

116) 노태돈 1981, 84쪽

117) 《陳伯玉文集》 권8 雜著 <上軍國機要事>

118) 《文苑英華》 권647 <張說爲河內郡王武懿宗平冀州賊契丹等露布> : “去歲嘗師, 疑一軍之盡化,

거주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7세기 중후반에는 고구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武懿宗 등의 戰勝 上表文은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이 거란과 연대하여 당에 항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697년 3월 契丹 토벌에 앞서 武攸宜가 거행한 禱祭의 祭文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武攸宜는 祭文에서 “거란의 흉악한 무리들이 감히 하늘의 도리를 어지럽히니, 벌떼가 丸山에 모여들었고, 돼지들이 遼野를 잠식했다”고 언급했는데,¹¹⁹⁾ 여기의 丸山은 고구려의 환도성, 遼野는 요동평원을 지칭한다. 거란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이후, 고구려 유민들도 결집하여 요동지역을 잠식했다는 것이다. 결국 거란이 696년 5월 당에 반기를 든 직후, 고구려 유민들도 이에 호응하여 당에 항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武攸宜가 697년 2-3월경 海路를 통해 薛訥을 파견하려고 한 계획은 거란 토벌 작전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요동지역 고구려 유민의 동향과도 밀접히 연관된다고 추정된다. 다만 697년 2-3월경에 海路를 통해 薛訥을 파견하려던 계획이 실행되었는지, 또 고구려 유민의 동향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전하는 문헌사료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부자 관계인 <高質墓誌銘>과 <高慈墓誌銘>이 주목된다.

⑨-㉓ <高質墓誌銘>¹²⁰⁾ : 旣而林胡作梗, 榆塞驚塵, 鶻騎起於邊亭, 靛騎橫於朔野. ○○○大君當宇, 按龍劍而發雷霆, 驍將鑿門, 擁虹旗而驟雲雨. ○○○制命, 公爲瀟河道討擊大使, 仍充清邊東軍惣管. 公肅承○○○玄旨, 電發星駟, 徑度滄波, 選徒徵騎. 雖貊虎叶志, 擐甲者爭馳, 而蜂蠆盈途, 提戈者未集. 公以二千餘兵, 擊數萬之衆, 七擒有效, 三捷居多. 萬歲通天二年(697년) 正月, ○○○制除左玉鈐衛大將軍·左羽林軍上下. 公撫巡士衆, 推以赤心, 宣布威恩, 得其死力, 解衣推食, 惇蠶感惠而守陴, 挾纊投醪, 童孺銜歡而拒敵. 上聞○○○旒宸, 特降○○○恩徽, 有○○○勅稱之曰, “高性文旣能脫衣, 招携遠藩, 宜內出衣一副, 并賜物一百段. 又性文下高麗婦女三人, 固守城隍, 与賊苦戰, 各賜衣服一具, 并資物卅段.” 但兇狂日熾, 救援不臻, 衆寡力殊, 安危勢倍. 城孤地絕, 兵盡矢窮, 日夜攻圍, 卒從陷沒, 爲虜所執, 詞色懍然, 不屈兇威, 遂被屠害. 以萬歲通天二年 五月 廿三日, 薨於磨米城, 春秋七十有二.

⑨-㉔ <高慈墓誌銘>¹²¹⁾ : 萬歲通天元年五月, 奉勅差, 父充瀟河道討擊大使, 公奉勅從行, 緣破契丹功, 授壯武將軍, 行左豹韜衛翊府郎將, 添跡中權, 立功外域, 旣等耿恭之寄, 旋霑來歙之榮, 尋以寇賊憑陵, 晝夜攻逼, 地孤援闕, 糧盡矢殫, 視死猶生, 志氣彌勵, 父子俱陷, 不屈賊庭, 以萬歲通天二年(697년) 五月 廿三日, 終於磨米城南. 春秋卅有三.

今春輕敵, 見三帥之不歸. 蟻聚實繁, 豺牙益厲, 結山戎以西寇, 連島夷而深(東)入.”

119) 《陳伯玉文集》 권7 <禱牙文> : “萬歲通天二年三月朔日, 清邊道大總管建安郡王某, 敢以牲牢告軍牙之神 (중략) 契丹凶羯, 敢亂天常, 乃蜂聚丸山, 豕食遼野.”

120) 판독문은 《全唐文補遺(千唐誌齋新藏專輯)》, 《洛洛春秋》 2007-3,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 閔庚三 2007, 拜根興 2009, 趙振華·閔庚三 2009, 拜根興 2012 등 참조.

121) 판독문은 박한제 1992, 510-512쪽 참조.

전술했듯이 高質은 돌궐 방어전에 여러 차례 투입된 바 있는데, 696-697년에는 契丹[林胡] 토벌전에 참전했다. 高質은 696년 5월에 瀟河道 討擊大使에 임명되었다가(9-10), 다시 淸邊東軍總管을 맡았다. 이때 高質은 2천 여 명의 군사로 수 만 명을 대적하는 전공을 세워 697년 정월에 左玉鈴衛 大將軍 및 左羽林軍 大將軍[上下]을 제수받았다. 이때 부친을 따라갔던 高慈도 전공을 세워 壯武將軍 行左豹韜衛翊府郎將을 수여받았다. 그 뒤 高質은 병사와 백성들을 巡撫하면서 死力을 다해 싸웠으나, 적군은 나날이 더욱 강성해지고 원병의 손길은 이르지 않아 衆寡不敵으로 형세가 악화되었다. 결국 주둔하던 성곽이 함락당하고, 高質과 高慈 父子 모두 생포되어 697년 5월 24일에 磨米城 남쪽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전술했듯이 唐은 거란의 항거가 일어난 696년 5월에 曹仁師 등 28장군을 보내 거란 공략에 나섰다. 이해 8월에 曹仁師 등이 西碭石谷에서 참패하자, 9월에는 武攸宜를 淸邊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토벌군을 재편성했다. 이로 보아 高質은 696년 5월에는 曹仁師 등 28장군으로 편성된 거란 토벌군에 瀟河道 討擊大使로 참전했고, 696년 9월에는 武攸宜가 이끄는 淸邊道行軍大總管府의 淸邊東軍總管으로 참전했다고 파악된다.¹²²⁾

그런데 高質이 ‘瀟河道 討擊大使’와 ‘淸邊東軍總管’으로 활약한 것에 대해 “푸른 바다를 최단 거리로 건너 무리 속에서 기병을 선발했다.”고 한다. 高質은 陸路가 아니라 海路로 진격해 募兵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瀟河道’와 ‘淸邊東軍’이라는 行軍의 명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瀟河는 612년 隋 煬帝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병참 보급기지를 설치했던 瀟河鎮을 지칭하는데, 遼河 河口 서쪽의 遼寧省 錦州市 일대로 비정된다. 이는 高質이 海路를 통해 거란의 동쪽인 遼河 하류 일대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淸邊東軍’이라는 行軍 명칭도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唐은 679년 11월 突闕을 토벌하기 위한 定壤道行軍大總管府를 편성하면서 定壤道 西軍과 東軍을 각기 별도로 설치한 바 있다.¹²³⁾ 698년에도 突闕을 공략하기 위한 天兵道行軍總管府를 편성하면서 中道大總管, 西道大總管, 東道大總管으로 구성해 설치했다.¹²⁴⁾ 이로 보아 696년 9월에 편성된 淸邊道行軍도 中軍(中道), 西軍(西道), 東軍(東道) 등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실제 中軍(中道)과¹²⁵⁾ 西軍(西道)의¹²⁶⁾ 사례가 확인된다. 高質은 淸邊道行軍大總管府 예하의 3軍 중 주로 동쪽 지역을 담당한 ‘淸邊道 東軍’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高質이 海路를 통해 진격해 임무를 수행했고, 본래 遼河 하류와 연관된 ‘瀟河道 討擊大使’에 임명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淸邊道 東軍의 주요 임무는 海路를 통해 遼河 유역으로 건너가

122) 拜根興 2009, 16-17쪽

123) 《舊唐書》 권5 고종기하 儀鳳4년 11월조

124) 《資治通鑑》 권206 唐紀22 聖曆원년 8월조

125) 697년 3월에 戰死한 王孝傑의 직임은 淸邊中道前軍總管(《陳伯玉文集》 권4 <奏白鼠表>)이었고, 그가 전사한 다음 4월에 沙吒忠義가 淸邊中道前軍總管에 보임되었다(《新唐書》 권4 神功원년 5월 癸卯).

126) <閻虔福墓誌銘>(《唐代墓誌彙編》景龍2) : “尋轉檀州刺史, 仍爲淸邊西道前軍大總管.”
<公孫思觀墓誌銘>(《唐代墓誌彙編》開元100) : “尋以匈奴作梗, 充淸邊西道前軍押官.”

거란 토벌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파악된다. 高質의 주요 작전 지역은 高句麗 故地인 요동지역이었다고 추정되는데, 高質이 아들 高慈와 함께 磨米城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한다. 磨米城은 唐 太宗이 645년에 공취했다는 ‘玄菟, 橫山, 蓋牟, 磨米, 遼東, 白巖, 卑沙, 麥谷, 銀山, 後黃’ 등 10성의 하나로도 나온다.¹²⁷⁾ 645년 唐軍의 진공로와 비교하면 위의 城郭은 함락 순서에 따라 기재되었는데, 磨米城은 당군이 개모성을 점령한 다음 요동성·백암성 공격에 앞서 함락시킨 성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磨米城은 瀋陽 塔山山城[개모성]과 백암성 사이에 위치한 本溪 邊牛山城 일 가능성이 높다.¹²⁸⁾

결국 高質은 696년 하반기에 海路를 통해 高句麗 故地인 遼東地域으로 파견되어 거란 토벌을 위해 고구려 유민을 募兵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파악된다.¹²⁹⁾ 묘지명의 “高性文[高質]이 이미 옷을 벗어주어 遠藩을 招携했다”라는 명문도 이를 반영한다. 그런데 高質의 募兵 양상에 대해 “貂과 虎가 뜻이 맞았지만 갑옷을 입은 자들은 다투어 달려왔다. 다만 벌과 전갈이 길을 꼭 메워 창을 든 자들이 모이지 않았다. 이에 공은 2천여 명의 병사로 수 만 명의 무리를 격파했다”고 기술했다. 여기의 ‘貂’이 고구려를 지칭한다면, ‘虎’는 契丹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즉 高句麗 유민과 契丹의 반당 세력이 힘을 합쳤지만, 갑옷을 입은 유력자들은 高質의 모병에 적극 호응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갑옷을 입지 못하고 창만 든 일반 병사는 거의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高質은 2천 여 명의 병사로 수 만 명을 상대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高質의 募兵에 대해 고구려 유민 가운데 일부 유력자가 호응했지만, 대다수 유민들은 오히려 唐에 抗拒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현전하는 문헌사료에는 696년 하반기에 安東都護 裴玄珪나 遼東都督 高仇須 등이 契丹을 격파한 기록만 확인되지만, <高質墓誌銘>을 통해 이 무렵에 이미 고구려 유민들이 광범위하게 唐에 抗拒하던 상황을 유추할 있다. 이러한 상황은 697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高質과 高慈 부자가 磨米城을 지키다가, 697년 5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함락당하고 전사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전술했듯이 磨米城은 安東都護府 예하 羈縻州의 하나로¹³⁰⁾ 南單德의 조부인 南狄이 羈縻州 장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그러므로 697년 5월 磨米城 함락은 安東都護府 예하의 주요 羈縻州가 당에 抗拒한 고구려 유민에게 점령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高質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전사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淸邊道行軍大總管 武攸宜는 高仇須에게 보낸 서신에서 697년 2월에 蕃漢의 정예병 40만을 진격시켜 거란을 토벌할 계획인데, 이때 중랑장 薛訥로 하여금 5만 정예병을 이끌고 海路로 東進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高質墓誌銘>에 기술된 697년 5월 磨米城의 상황으로 보아 이때까지도 薛訥은 요동지역으로 파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¹³¹⁾

127) 《資治通鑑》 권198 貞觀19년 10월 조

128) 孫進己·馮永謙 1989, 313쪽; 여호규 1999, 59쪽

129) 趙振華·閔庚三 2009, 28쪽

130) 《舊唐書》 권19 지리2 안동도호부 조; 《新唐書》 권43하 지33하 지리7하

131) 高質이 薛訥을 따라 요동지역으로 파견되었다고 보기도 한다(김종복 2009, 70쪽). 그렇지만 高質은 696년 하반기에 요동지역에서 활동한 반면, 薛訥의 파견은 697년 2월에도 실행되지 않았다.

결국 高質은 唐兵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발대로 ‘淸邊東軍總管’으로 파견되어 고구려 유민을 상대로 거란 토벌을 위한 모병을 전개하다가, 오히려 唐에 抗拒하는 고구려 유민의 공격을 받아 전사했다고 파악된다. 그러므로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은 696년 5월 거란이 흥기한 직후부터 당에 항거하는 부흥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697년 5월에 安東都護府 예하의 靺靨州가 설치된 磨米城이 고구려 유민에게 점령당한 데서 보듯이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통제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唐은 697년 6월 돌궐의 협조를 받아 거란의 부흥운동을 평정한 다음, 당초 계획대로 薛訥로 하여금 대병을 이끌고 가서 요동지역을 평정하도록 했을 것이다. 狄仁傑이 697년 윤10월 安東都護府 폐지를 주장하는 상소에서 ‘罷薛訥’이라고 언급한 사실은¹³²⁾ 이때는 薛訥이 요동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¹³³⁾ 다만 唐에 항거하는 高句麗 遺民의 세력이 이미 강성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狄仁傑이 두 차례나 상소하여 安東都護府를 폐지하고, 보장왕의 후손으로 하여금 自治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고구려 고지에 대한 기미지배 정책을 완화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唐은 狄仁傑의 주장과 같이 寶藏王의 손자 高寶元을 忠誠國王에 봉해 고구려 유민의 통치를 맡기려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¹³⁴⁾ 696년 하반기부터 전개된 고구려 유민의 抗拒를 완화된 기미지배 정책으로는 잠재우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보아 698년 발해의 건국은 요서지역으로 遷徙되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뿐 아니라, 요동지역에서 唐에 抗拒하던 고구려 유민 세력이 다수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파악된다. 高句麗 故地에 대한 唐의 靺靨支配 실패가 발해 건국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에 唐은 698년 6월에 安東都護府를 安東都督府로 降格시켜¹³⁵⁾ 高句麗 故地에 대한 지배기반의 약화를 自認할 수밖에 없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유민묘지명을 검토하여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동방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당의 동방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상호 연계시켜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검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唐은 고구려 멸망 직후 고구려 고지에 대한 靺靨支配 政策을 수립했지만, 高句麗 遺民의 반발에

132) 《通典》 권185 邊防1 고구려전: “臣請罷薛訥, 廢安東鎮. 三韓君長, 高氏為其主, 誠願陛下體存亡繼絕之義, 復其故地, 此之美名, 高於堯舜遠矣.” 및 《資治通鑑》 권206 神功원년 윤10월조

133) <王慶墓志>에 따르면 薛訥이 海路로 파견되는 詔書를 수여받은 것은 696년이며(“萬歲通天元年 白虜越趙, 鋒交竭石. 靑林失律, 火照甘泉. 天子詔左衛將軍薛訥, 絕海長驅, 掩其巢穴, 飛葛輓粟, 霧集登萊”; 《唐代墓誌彙編》), 《陳伯玉文集》 권7 <榮海文>에서는 697년에 唐軍이 海路를 건너기 위한 祭儀를 거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萬歲通天二年(697年) 月日, 淸邊軍海運度支大使, 虞部郎中王玄珪, 敢以牲酒, 馳獻海王之神, 神之聽之. (중략) 故有渡遼諸軍, 橫海之將, 天子命我, 羸糧景從.”)

134) 《舊唐書》 권199상 열전149상 고려전

135) 《舊唐書》 권19 지리2 안동도호부조 : 聖曆元年(698년) 六月, 改爲安東都督府.

부딪혀 1년여의 정지작업을 거쳐 689년 1월에 비로소 실행했다. 이때 唐이 취한 핵심 조치는 唐의 羈縻支配에 반발하는 ‘離叛者’를 內地로 강제 遷徙하는 것이었는데, 〈南單德墓誌銘〉을 통해 유력자의 청장년[子弟]를 대거 이주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협조적인 유력자는 安東都護府 예하 羈縻州 장관 등에 임명했는데, 南單德의 조부인 南狄을 磨米州都督에 임명한 사례, 高欽德 가문이 建安州 都督을 襲爵한 사례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高欽德 가문은 高句麗 遺民으로 구성된 蕃兵을 통솔했는데, 唐이 자신의 羈縻支配에 협조하는 유력자의 세력기반을 일정 부분 용인하며 羈縻支配를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高句麗 故地에 대한 羈縻支配를 高句麗 遺民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예기치 않은 反唐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唐은 安東都護府뿐 아니라 각 羈縻府州에도 唐의 官人을 屬僚로 파견했는데, 唐 官人의 墓誌銘을 통해 安東都護府의 屬僚로 파견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高句麗 遺民 출신의 羈縻府州 장관은 상급 기관인 安東都護府뿐 아니라 휘하 屬僚의 감시도 받아야 했고, 권한과 세력 기반도 점차 축소되었다.

이에 고구려 유민들은 唐이 羈縻支配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670년 1월 직후부터 唐에 항거하며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문헌사료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671년 7월까지 遼河-鴨綠江 및 西北韓 일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다가, 671년 安市城 함락 이후에는 신라의 후원 아래 황해도 일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전한다. 그런데 〈李他仁墓誌銘〉을 통해 670-671년경 부여지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靺鞨과 연대했을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었다.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이 고구려 고지 거의 전역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에 당은 670년 4월에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 李謹行을 燕山道行軍總管으로 삼아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을 진압하는 한편, 671년 초에 薛仁貴를 鷄林道總管으로 삼아 신라 방면을 공략했다. 그리고 674년에는 鷄林道總管府를 鷄林道大總管府로 재편하여 新羅와의 전면전에 착수했다. 이때 東州道行軍總管府와 燕山道行軍總管府는 해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李謹行을 鷄林道副總管에 임명한 것은 이를 반영하다. 高句麗 遺民 高乙德이 674년에 東州道行軍總管府의 長史에서 ‘左淸道奉府 頻陽府 折衝(都尉)’로 轉任된 것도 東州道行軍總管府 해체에 따른 조치로 추정된다.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唐이 673년경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고, 674년부터 신라와의 전면전에 착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唐은 675-676년 신라에게 잇따라 패배한 다음,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했다. 그리고 安東都護府의 治所도 676년 2월 遼東城으로 옮겼다가 677년 2월에 다시 新城으로 옮겼다. 이와 더불어 安東都護府에 파견했던 唐의 官人을 철수시키는 한편, 寶藏王을 遼東州都督 朝鮮郡王에 봉해 요동지역으로 파견하고, 강제 이주시켰던 유민들도 귀환시키며 종전보다 완화된 羈縻政策을 시행했다. 다만 男生을 요동으로 파견해 安東都護나 그에 준하는 職任을 수행하도록 했다(〈泉男生墓誌銘〉과 〈泉獻誠墓誌銘〉). 당이 보장왕과 남생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유민 세력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도모했던 것이다.

唐의 이러한 의도는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고구려 유민의 抗拒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다. 보장왕이 남생이 사망한 679년경에 말갈과 연대해 부흥운동을 도모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唐은 보장왕을 소환하고 비협조적인 유민들을 대거 강제 천사시키는 한편, 安東都護府에 唐의 관인을 파견해 기미지배를 다시 강화했다. 安東都護를 두 차례나 역임한 〈屈突詮墓誌銘〉

과 그의 아들 〈屈突季札墓誌銘〉을 통해 681년 安東都護府 예하의 貢州에 唐의 官人이 파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突闕이 679년 10월부터 唐에 반기를 들면서 唐의 羈縻州 支配體制도 점차 붕괴되었다. 이에 唐은 매년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해 돌궐의 침공을 방어했는데, 여러 유민묘지명을 통해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들이 돌궐 방어전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泉獻誠은 679년 定襄道大總管府에 편성되었고, 高質은 681년과 684년에 單于道行軍과 銀勝道 安撫副使에 충원되었다. 그리고 686년에는 泉獻誠과 高玄이 神武軍의 大總管과 統領, 690년에는 高足酉와 高玄이 左豹韜衛의 大將軍과 行中郎將 등으로 임명되어 상하 지휘 관계를 이루었는데, 고구려 유민을 조직적으로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689년 高玄이 唐의 각 州에 분산 배치된 고구려 유민 병사를 선발해 돌궐 방어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이때 唐은 高句麗 故地의 遺民을 돌궐 방어전에 동원하지는 않았다. 이는 돌궐 방어전이 주로 高句麗 故地와 멀리 떨어진 唐의 북방 지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이지만, 高句麗 故地에 남은 遺民의 동요를 우려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唐은 686년에 보장왕의 손자인 高寶元을 朝鮮郡王에 封해 보장왕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폐지했던 朝鮮郡王府를 부활시켰는데, 唐의 內地뿐 아니라 高句麗 故地에 남은 遺民의 동요를 예방하기 위한 慰撫策으로 해석된다. 이는 高句麗 故地에 대한 唐의 지배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했음을 반영한다.

契丹도 696년 5월부터 唐에 반기를 들고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契丹의 부흥운동은 697년 6월에 일단락되지만, 그 여파로 高句麗 遺民들이 靺鞨과 연대해 발해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契丹의 흥기 이후 고구려 유민도 당에 항거했을 텐데, 그와 관련한 상황을 전하는 문헌사료는 거의 없다. 오히려 696년 9월에는 安東都護 裴玄珪, 696년 말경(또는 697년 1월)에 遼東都督 高仇須가 각각 契丹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기록만 전할 뿐이다.

그렇지만 武懿宗의 上表文이나 武攸宜의 祭文을 통해 거란과 고구려 유민의 연대, 고구려 유민이 요동지역을 잠식하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高質墓誌銘〉과 〈高慈墓誌銘〉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해준다. 高質은 696년 5월에 瀟河道 討擊大使, 696년 9월에 淸邊東軍總管에 임명되었는데, 海路를 통해 요동지역으로 건너가 고구려 유민을 募兵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高質의 募兵에 대해 고구려 유민 중 일부 유력자는 호응했지만, 대다수 유민들은 오히려 唐에 抗拒했다. 더욱이 高質과 高慈 부자는 安東都護府 예하 羈縻州의 하나인 磨米城을 지키다가, 697년 5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함락당하고 전사했다.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이 거란이 흥기한 직후부터 광범위하게 부흥운동을 전개했고, 이로 인해 羈縻州가 함락당할 정도로 唐의 통제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唐은 697년 6월 거란의 부흥운동을 평정한 다음, 곧바로 대규모 원병을 파견해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도모했다. 그렇지만 唐에 항거하는 高句麗 遺民의 세력이 강성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698년에 고구려 유민들은 말갈과 연대해 발해를 건국했다. 高句麗 故地에 대한 唐의 羈縻支配 실패가 발해 건국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참고문헌>

1) 묘지명 집성 및 역주서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중국소재 고구려관련 금석문 자료집》고구려연구재단
 권덕영 외, 2015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朴漢濟, 1992 <고구려 유민 관련 금석문>《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여호규, 2015 <제1부 고구려, 제3장 유민묘지명>《신출토 한국고대문자자료집성》주류성

-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李獻奇·郭引強 編著), 1996 《洛陽新獲墓誌》文物出版社
 毛漢光, 1991 《唐代墓誌彙編附考》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拜根興, 2012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 編(吳綱 主編), 1995-2005《全唐文補遺》(1-8집) 三秦出版社
 陝西省古籍整理辦公室 編(吳綱 主編), 2006 《全唐文補遺(千唐誌齋新藏專輯)》三秦出版社
 李永強·余扶危 主編, 2011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匯編》河南美術出版社
 趙君平, 趙文成 編, 2007 《河洛墓刻拾零》北京圖書館出版社
 周紹良·趙超 主編, 2001 《唐代墓誌彙編續編》上海古籍出版社
 周紹良·趙超 編, 1992 《唐代墓誌彙編(下卷)》上海古籍出版社
 陳長安 主編, 1991 《隋唐五代墓誌匯編·洛陽卷(7-10冊)》天津古籍出版社
 河南省文物研究所·河南省洛陽地區文管處 編, 1984 《千唐誌齋藏誌(上-下)》文物出版社
 郝本性 主編, 1991 《隋唐五代墓誌匯編·河南卷》天津古籍出版社
 趙力光 主編, 2014 《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誌續編(上-下)》陝西師範大學出版總社有限公司

2) 연구서

- 김중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연구》일지사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모시는 사람들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영교, 2006 《나당전쟁사연구》아세아문화사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 연구》일조각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신서원
 이상훈, 2012 《나당전쟁연구》주류성
 李弘植,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新丘文化社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한나래
 정재훈, 2016 《돌궐유목제국사》사계절

- 苗威, 2011 《高句麗移民研究》吉林大學出版社
 姜清波, 2010 《入唐三韓人研究》暨南大學出版社
 拜根興, 2003《七世纪中叶唐与新罗关系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
 拜根興, 2009《唐朝与新罗关系史论》中国社会科学出版社
 拜根興, 2012《唐代高丽百济移民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

3) 연구 논문

- 葛繼勇, 2015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韓國古代史研究》79
- 권덕영, 2010 <한국고대사 관련 중국 금석문 조사 연구>《사학연구》97
- 권덕영, 2014 <당 묘지의 고대 한반도 삼국 명칭에 대한 검토>《한국고대사연구》75
- 권은주, 2014 <고구려유민 高欽德, 高遠望 부자 묘지명 검토>《대구사학》116
- 김수진, 2014 <당으로 이주한 고구려 포로와 지배층에 대한 문헌과 묘지명의 기록>《한국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교수정년기념논총) 사계절
- 金榮官, 2009 <高句麗 遺民 高鏡苗 墓誌 檢討>《韓國古代史研究》56
- 金榮官, 2012 <百濟 遺民들의 唐 移住와 活動>《韓國史研究》158
- 김영관, 2013 <高句麗 遺民 高提昔 墓誌銘에 대한 연구>《백산학보》97
- 김영심, 2014 <유민묘지로 본 고구려, 백제의 관제>《한국고대사연구》75
- 金賢淑, 2001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동향>《한국고대사연구》23
- 김현숙, 2004 <고구려 붕괴 후 그 유민의 거취 문제>《한국고대사연구》33
- 김호동, 1993 <당의 기미지배와 북방 유목민족의 대응>《역사학보》137
- 盧泰敦, 1981 <高句麗 遺民史 研究>《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 樓正豪, 2013 <高句麗遺民 高牟에 대한 考察>《韓國史學報》53
- 閔庚三, 2007 <신출토 高句麗 遺民 高質 墓誌>《신라사학보》9
- 閔庚三, 2009 <中國 洛陽 신출토 古代 韓人 墓誌銘 연구-高質 墓誌銘을 중심으로->《신라사학보》15
- 바이건싱(拜根興), 2008 <고구려·발해 유민 관련 유적·유물>《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동북아역사재단
- 박승범, 2007 <중화인민공화국 학계의 고구려 유민 연구 검토>《高句麗研究》29
- 拜根興, 1999 <新罗文武王代的对唐交涉述论>(한국어)《新罗文化》第16輯
- 拜根興, 2001 <高句麗 遺民 高足酉 墓誌銘>《中國史研究》12
- 拜根興, 2002 <激蕩50年—高句麗与唐朝关系研究>(한국어)《高句麗研究》第14輯
- 拜根興, 2002 <罗唐战争研究中的几个问题>(한국어)《中国学报》第46輯
- 拜根興, 2008 <고구려·발해 유민 관련 유적·유물>《중국학계의북방민족·국가연구》(한국어), 동북아역사재단, 2008
- 拜根興, 2009 <高句麗 遺民 高性文·高慈 父子 墓誌의 考證>《忠北史學》22
- 拜根興, 2010a<唐 李他仁 墓志에 대한 몇 가지 고찰>《충북사학》24
- 宋基豪, 1998 <고구려 유민 高玄 墓誌銘>《서울大學校博物館年報》10
- 宋基豪, 2007 <고구려 유민 高氏夫人 墓誌銘>《韓國史論》53
- 안정준, 2013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源>《목간과 문자》11
- 안정준, 2015 <‘李他仁墓誌銘’ 탁본 사진의 발견과 새 판독문>《고구려발해연구》52
- 여호규, 1999 <고구려 후기의 군사방어체계와 군사전략>《한국군사사연구》3 국방군사연구소
- 余昊奎, 2010 <1990년대 이후 고구려 문자자료의 출토 현황과 연구동향>《한국고대사연구》57
- 여호규, 2016 <新發見 ‘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백제문화》54
- 尹龍九, 2003 <중국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한국고대사연구》32
- 윤용구, 2005 <隋唐의 대외정책과 고구려 원정>《북방사논총》5
- 윤용구, 2014 <중국 출토 고구려 백제 유민 묘지명 연구동향>《한국고대사연구》75
- 이강래, 2007 <한·중 사서에 보이는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 기록 비교 검토>《동북아역사논총》15호
- 이동훈, 2008 <高句麗遺民 高德墓誌銘>《韓國史學報》31
- 이문기, 2000 <고구려 말리지의 관제적 기능과 성격>《백산학보》55
- 李文基, 2000 <高句麗 遺民 高足酉 墓誌의 檢討>《歷史教育論集》26

- 李文基, 2002 <高句麗 寶藏王의 曾孫女 <高氏夫人墓誌>의 檢討>《歷史教育論集》29
- 이문기, 2003 <고구려 중리제의 구조와 그 변화>《대구사학》71
- 李文基, 2010 <墓誌로 본 在唐 高句麗 遺民의 祖先意識의 變化>《大邱史學》100
- 이성제, 2014 <고구려 백제 유민 묘지의 출자 기록과 그 의미>《한국고대사연구》75
- 李成制, 2015,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 - 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分析>,《中國古中世史研究》38
- 이정빈, 2009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세력과 부흥운동의 전개>《역사와현실》72
- 장병진, 2015 <새로 소개된 고구려 유민 ‘南單德’ 묘지에 대한 검토>《高句麗渤海研究》52
- 정병준, 2005 <‘營州城傍高麗人’ 王思禮>《고구려연구》19
- 정병준, 2007 <營州의 大祚榮 集團과 渤海國의 性格>《동북아역사논총》16
- 정병준, 2008 <고구려 유민 연구>《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동북아역사재단
- 정병준, 2009 <唐朝의 高句麗人 軍事集團>《동북아역사논총》24
- 존 씨 재미슨, 1969 <나당동맹의 와해>《역사학보》44
- 최진열, 2009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의 正體性>《동북아역사논총》24
- 최진열, 2012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동북아역사논총》38
- 金憲鏞·李健超, 1999 <陝西新發現의 高句麗人·新羅人 遺迹>《考古与文物》1999-6
- 馬一虹, 2006 <从唐墓志看入唐高句麗遺民歸屬意識의 變化>《北方文物》2006-1
- 蒙曼, 2007 <唐朝軍事系統中的朝鮮半島徙民>《中央民族大學學報》2007-2
- 拜根興, 2003 <高句麗遺民高足西墓誌銘考釋>《碑林集刊》9
- 拜根興, 2005 <论罗唐战争的性质及其双方的交往>《中国边疆史地研究》2005-1
- 拜根興, 2006 <高句麗, 百濟遺民關聯問題研究的現狀与展望>《中國歷史地理論叢》2006-4
- 拜根興, 2009 <在唐高句麗遺民遺物, 遺迹的現狀及其分布>《中國歷史地理論叢》2009-1
- 拜根興, 2010b <唐李他仁墓志研究中的幾個問題>《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9-1
- 拜根興, 2010c <“唐罗战争” 关联问题的再探索>,《唐研究》第16卷
- 拜根興, 2013 <入唐高麗移民墓志及其史料价值>《陝西師範大學學報》2013-3
- 拜根興·侯振兵, 2011 <論唐人對高句麗及高句麗遺民的認識>《唐史論叢》13
- 孫進己·馮永謙, 1989 《東北歷史地理》二 黑龍江人民出版社
- 孫鐵山, 1998 <唐李他仁墓志銘考釋>《遠望集》下, 陝西人民美術出版社
- 楊軍, 2006 <高句麗人口問題研究>《東北史地》2006-5
- 梁志龍, 2005 <泉氏家族世系及其事略>《東北史地》2005-4
- 王其禕·周曉薇, 2013, <國內城高氏: 最早入唐的高句麗移民-新發現唐上元元年(泉府君夫人高提昔墓志)釋讀>《陝西師範大學學報》2013-5
- 王連龍, 2015 <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志及相關問題研究>《吉林師範大學學報》2015-4(7월호)
- 王菁·王其禕, 2015 <平壤城 南氏: 入唐高句麗移民新資料>《北方文物》2015-1
- 王化昆, 2007 <‘武周高質墓誌’考略>《河洛春秋》2007-3
- 李德山, 2006 <高句麗族人口去向考>《社會科學輯刊》2006-1
- 張福有·趙振華, 2005 <洛陽, 西安出土北魏與唐高句麗人墓志及泉氏墓地>《東北史地》2005-4
- 張彥, 2010 <唐高麗遺民“高鏡苗墓誌”考略>《文博》2010-5
- 趙力光, 2011 <西安碑林所藏與海東關聯墓誌概述>《碑林集刊》17
- 趙炳林, 2010 <高句麗滅亡後的人口流向考>《前沿》2010-9
- 趙振華·閔庚三, 2009 <唐高質高慈父子墓誌研究>《東北史地》2009-2

〈요지문〉

본 발표문은 유민묘지명을 검토하여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동방정책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상호 연계시켜 고찰한 것이다. 검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唐은 고구려 멸망 직후 고구려 고지에 대한 羈縻支配 政策을 수립했지만, 高句麗 遺民의 반발에 부딪혀 1년여의 정지작업을 거쳐 689년 1월에 비로소 실행했다. 이때 唐이 취한 핵심 조치는 唐의 羈縻支配에 반발하는 ‘離叛者’를 內地로 강제 遷徙하는 것이었는데, 〈南單德墓誌銘〉을 통해 유력자의 청장년[子弟]를 대거 이주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협조적인 유력자는 安東都護府 예하 羈縻州 장관 등에 임명했는데, 南單德의 조부인 南狄을 磨米州都督에 임명한 사례, 高欽德 가문이 建安州 都督을 襲爵한 사례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만 高句麗 故地에 대한 羈縻支配를 高句麗 遺民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예기치 않은 反唐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唐은 安東都護府뿐 아니라 각 羈縻府州에도 唐의 官人을 屬僚로 파견했는데, 唐 官人의 墓誌銘을 통해 관련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高句麗 遺民 출신의 羈縻府州 장관은 상급 기관인 安東都護府뿐 아니라 휘하 屬僚의 감시도 받았으며, 권한과 세력기반도 점차 축소되었다. 이에 고구려 유민들은 唐이 羈縻支配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670년 1월 직후부터 唐에 항거하며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문헌사료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671년 7월까지 遼河-鴨綠江 및 西北韓 일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다가, 671년 7월 安市城 함락 이후에는 신라의 후원 아래 황해도 일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전한다. 그런데 〈李他仁墓誌銘〉을 통해 부여지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靺鞨과 연대했을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었다.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이 고구려 고지 거의 전역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에 당은 670년 4월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 李謹行을 燕山道行軍總管로 삼아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는 한편, 671년에 薛仁貴를 鷄林道總管으로 삼아 신라 방면을 공략했다. 그리고 674년에는 鷄林道總管府를 鷄林道大總管府로 재편하여 新羅와의 전면전에 착수했다. 이때 東州道行軍總管府와 燕山道行軍總管府는 해체했는데, 李謹行을 鷄林道副總管에 임명한 것은 이를 반영하다. 高句麗 遺民 高乙德이 674년에 東州道行軍總管府의 長史에서 ‘左靑道率府 卿場府 折衝(都隲)’로 轉任된 것도 東州道行軍總管府 해체에 따른 조치로 추정된다.

唐은 675-676년 신라에게 잇따라 패배한 다음,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安東都護府의 治所도 676년 2월 遼東城으로 옮겼다가 677년 2월에 다시 新城으로 옮겼다. 이와 더불어 安東都護府에 파견했던 唐의 官人을 철수시키는 한편, 寶藏王을 遼東州都督 朝鮮郡王에 봉해 요동지역으로 파견하고, 강제 이주 시켰던 유민들도 귀환시키며 종전보다 완화된 羈縻政策을 시행했다. 다만 男生을 요동으로 파견해 安東都護나 그에 준하는 職任을 수행하도록 했다. 唐이 고구려 유민 세력을 상호 견제시키며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도모한 것이다.

唐의 이러한 의도는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고구려 유민의 抗拒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다. 보장왕이 남생이 사망한 679년경에 말갈과 연대해 부흥운동을 도모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唐은 보장왕을 소환하고 비협조적인 遺民들을 다시 강제 遷徙시키는 한편, 安東都護府에 唐의 관

인을 파견해 기미지배를 강화했다. 安東都護府를 두 차례나 역임한 <屈突詮墓誌銘>과 그의 아들 <屈突季札墓誌銘>을 통해 681년 安東都護府 예하의 貢州에 唐의 官人이 파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突關이 679년 10월부터 唐에 반기를 들면서 唐의 羈縻州 支配體制도 점차 붕괴되었다. 이에 唐은 매년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해 돌궐의 침공을 방어했는데, 여러 유민묘지명을 통해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들이 돌궐 방어전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泉獻誠은 679년 定襄道大總管府에 편성되었고, 高質은 681년과 684년에 單于道行軍과 銀勝道 安撫副使에 충원되었다. 그리고 686년에는 泉獻誠과 高玄이 神武軍의 大總管과 統領, 690년에는 高足西와 高玄이 左豹韜衛의 大將軍과 行中郎將 등으로 임명되어 상하 지휘 관계를 이루었는데, 고구려 유민을 조직적으로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689년 高玄이 唐의 각 州에 분산 배치된 고구려 유민 병사를 선발해 돌궐 방어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이때 唐은 高句麗 故地의 遺民을 돌궐 방어전에 동원하지는 않았다. 이는 돌궐 방어전이 주로 高句麗 故地와 멀리 떨어진 唐의 북방 지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이지만, 高句麗 故地에 남은 遺民의 동요를 우려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唐은 686년에 보장왕의 손자인 高寶元을 朝鮮郡王에 封해 보장왕의 모반사건을 계기로 폐지했던 朝鮮郡王府를 부활시켰는데, 唐의 內地뿐 아니라 高句麗 故地에 남은 遺民의 동요를 예방하기 위한 慰撫策으로 해석된다. 이는 高句麗 故地에 대한 唐의 지배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했음을 반영한다.

契丹도 696년 5월부터 唐에 반기를 들고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契丹의 부흥운동은 697년 6월에 일단락되지만, 그 여파로 高句麗 遺民들이 靺鞨과 연대해 발해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契丹의 흥기 이후 고구려 유민도 唐에 항거했을 텐데, 그와 관련한 상황을 전하는 문헌사료는 거의 없다. 오히려 696년 9월에는 安東都護 裴玄珪, 696년 말경(또는 697년 1월)에 遼東都督 高仇須가 각각 契丹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기록만 전할 뿐이다.

그렇지만 武懿宗의 上表文이나 武攸宜의 祭文을 통해 거란과 고구려 유민의 연대, 고구려 유민이 요동지역을 잠식하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高質墓誌銘>과 <高慈墓誌銘>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전해준다. 高質은 696년 5월에 瀟河道 討擊大使, 696년 9월에 淸邊東軍總管에 임명되었는데, 海路를 통해 요동지역으로 건너가 고구려 유민을 募兵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高質의 募兵에 대해 고구려 유민 중 일부 유력자는 호응했지만, 대다수 유민들은 오히려 唐에 抗拒했다. 더욱이 高質과 高慈 부자는 安東都護府 예하 羈縻州의 하나인 磨米城을 지키다가, 697년 5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함락당하고 전사했다.

요동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이 거란이 흥기한 직후부터 광범위하게 부흥운동을 전개했고, 이로 인해 羈縻州가 함락당할 정도로 唐의 통제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唐은 697년 6월 거란의 부흥운동을 평정한 다음, 곧바로 대규모 원병을 파견해 고구려 고지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도모했다. 그렇지만 唐에 항거하는 高句麗 遺民의 세력이 강성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고구려 유민들은 말갈과 연대해 698년에 발해를 건국했다. 高句麗 故地에 대한 唐의 羈縻 支配 실패가 발해 건국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唐朝的东方政策与高句丽遗民的动向

- 以遗民墓志铭为视野 -

余昊奎 (韩国外国大学历史系)

本文以遗民的墓志铭为对象，把高句丽灭亡后唐朝的东方政策与高句丽遗民的动向相联系加以研究。内容如下。

高句丽灭亡之后，唐朝虽然想立即对高句丽故地采取“羁縻支配”政策，但是遭到高句丽遗民的反抗，再经过一年多的整理工作，到689年1月才得以实施。当时，唐朝所采取的核心措施之一就是，强迫抗拒羁縻支配的“离叛者”迁至内地。从《南单德墓志铭》中了解到，当时多数权贵人士的子弟被移居。相反地，较为配合的权贵人士则获任安东都护符属下的羁縻州长官等官职，如南单德的祖父南狄就任磨米州都督、高钦德家门袭封建安州都督等。

不过，如果对高句丽故地的羁縻政策完全任由高句丽遗民的话，很可能出现出乎意料的反唐活动。因此，唐朝除了安东都护府之外，还在各羁縻府州作为属员派遣唐朝官员。这可从唐朝官人的墓志铭之中可见一斑。随之，高句丽遗民出身的羁縻府州长官不仅从上级机关安东都护府，还被属下官僚接受监督，其权限和势力基础也在缩小。所以，在唐朝积极实施羁縻支配政策的670年1月之后，高句丽遗民开始展开抗拒唐朝的复兴活动。

文献资料显示，671年7月之前，高句丽遗民先于辽河、鸭绿江以及朝鲜半岛西部开展复兴活动；在671年7月安市城失守之后，在新罗的支持之下再到黄海道开展复兴活动。还有，我们从《李他仁墓志铭》中可猜测，在扶余地区也出现过复兴活动，还有可能与靺鞨合作。可见，高句丽遗民的复兴活动是在整个高句丽故地开展的。

670年4月，唐朝任命高侃为东州道行军总管、任命李谨行为燕山道行军总管，来镇压高句丽复兴活动，671年还任命薛仁贵为鸡林道总管而进攻新罗。674年，唐朝把鸡林道总管府改为鸡林道大总管府，与新罗开展全面战争。当时，唐朝撤离东州道行军总管府和燕山道行军总管府，任命李谨行为鸡林道副总管就反映这一点。高句丽遗民高乙德于674年从东州道行军总管府的长史转任为“左清道率府颍阳府折冲(都尉)”，也可能是东州道行军总管府解体的结果。

唐朝于675-676年陆续败于新罗之后撤离朝鲜半岛。676年2月，唐朝把安东都护府的治所迁到辽东城，于677年2月再迁到新城。同时，唐朝撤离曾派到安东都护府的唐朝官员，任命宝藏王为辽东州都督朝鲜郡王到辽东地区去，归还曾强迫移居的遗民等，实施较为缓和的羁縻政策。不过，唐朝还是让男生去辽东履行安东都护或类似于此的职务。唐朝要使高句丽遗民势力之间互相牵制，从而加强其对高句丽故地的监管力度。

在此方面，唐朝虽然获得了一定的成果，但并没能釜底抽薪而熄灭高句丽遗民的抗拒。例如，宝藏王于男生去世的 679 年与靺鞨合作试图展开复兴活动等。当时，唐朝在召回宝藏王并迫使不太配合的遗民群体搬迁的同时，在安东都护府派遣唐人官员等，加强羁縻支配。从两次历任安东都护的《屈突诠墓志铭》和其子《屈突季札墓志铭》中可见，有唐人官员于 681 年被派遣到安东都护府属下的贡州。

还有，随着突厥从 679 年 10 月开始揭竿而起，唐朝的羁縻州支配体制逐渐崩溃。至此，唐朝每年编制大规模远征军防御突厥入侵。一些遗民墓志铭撰写有高句丽遗民出身的将领参加这一战场的事实，如 679 年泉献诚被编制到定襄道大总管府，高质于 681 年和 684 年分别被任命为单于道行军和银胜道安抚副使等。此外，686 年泉献诚和高玄分别被任为神武军的大总管和统领，690 年高足酉和高玄分别被任为左豹韬卫的大将军和行中郎将而形成上下指挥关系。这令人想到，唐朝系统地调动高句丽遗民的可能性。还有，689 年，高玄为突厥防御战而选拔过在分散安置于各州的高句丽遗民士兵，以方便调用组织。

不过，当时唐朝为突厥防御战而并未调动高句丽故地的遗民。这是因为突厥防御战主要在远离高句丽故地的北边接壤地区进行，也有可能他们忧虑高句丽故地遗民的动摇。例如，686 年，唐朝把宝藏王的孙子高宝元奉为朝鲜郡王，恢复了以宝藏王叛乱为契机曾废除过的朝鲜郡王府。这应该说是唐朝为防范高句丽故地移民的动摇而采取的安抚措施。可见，当时唐朝对高句丽故地的支配基础并不稳固。

契丹也从 696 年 5 月开始揭竿而起展开复兴活动。虽然契丹的复兴活动于 697 年 6 月告一段落，但是受其影响，高句丽遗民与靺鞨合作成立渤海。所以，契丹兴起时，高句丽遗民也会抗拒唐朝。但是与此有关的文献资料很少。恰恰相反，可以看到 696 年 9 月和年底（或 697 年 1 月）安东都护裴玄珪和辽东都督高仇须分别战胜契丹等的记录。

不过，从武懿宗的上表文或武攸宜的祭文中可推测出，契丹与高句丽遗民之间的合作以及高句丽遗民逐渐占据辽东地区的情况。《高质墓志铭》和《高慈墓志铭》具体撰写当时的情况。高质于 696 年 5 月和 9 月分别被任命为泸河道讨击大使和清边东军总管，海路到辽东去，以高句丽遗民为对象募士兵。对于高质的募兵，虽然部分权贵人士积极配合，但是大部分遗民反而抗拒唐朝。加上，高质和高慈父子在死守安东都护府属下羁縻州之一的磨米城的时候，于 697 年 5 月被孤立而沦陷战死。

羁縻州被沦陷的事实告诉我们，当时辽东地区的高句丽遗民在契丹兴起之后展开了广泛的复兴活动，使得唐的监管能力急剧减弱。唐朝于 697 年 6 月镇压契丹的复兴活动后，立即派遣大规模兵力而致力于加强其对高句丽故地的管制。但是，由于抗拒唐朝的高句丽遗民的势力已经发展壮大而难以镇压，高句丽遗民最终于 698 年与靺鞨一起成立渤海。这是唐朝对高句丽故地的羁縻遭到失败的结果。

遺民墓誌銘を通じて見る唐の東方政策と 高句麗遺民の動向

余昊奎 (韓国外国大学)

本發正文は遺民墓誌銘を検討し高句麗滅亡以降、唐の東方政策と高句麗遺民の動向を互いに関連付けながら考察したものだ。検討内容を簡単に整理すると以下の通りになる。

唐は高句麗滅亡直後、高句麗の故地に對する羈縻支配政策を樹立したが、高句麗遺民の反發に遭い、1年余りの整地作業を経て689年1月に初めて實行に移した。この時唐が採用した核心的な措置は唐の羈縻支配に反發する「離反者」を内地に強制遷徙することであったが、「南單德墓誌銘」を通じて有力者の青壯年(子弟)を退去移住させた事實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一方で協力的な有力者は安東都護府隸下の羈縻州長官等に任命したのだが、南單德の祖父である南狄を磨米州都督に任命した事例、高欽徳家門が建安州都督を襲爵した事例などはこのことをよく示している。

ただし、高句麗の故地に對する羈縻支配を高句麗遺民にのみ委ねる場合、予測し得ない反唐の動きが起こりえた。このため唐は安東都護府のみならず、各羈縻府州にも唐の官人を屬僚として派遣したのだが、唐官人の墓誌銘を通じて関連の事例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こうして高句麗遺民出身の羈縻府州の長官は上級機關の安東都護府のみならず、麾下屬僚の監視も受けつつ、権限と勢力基盤も徐々に縮小していった。これに對し高句麗遺民達は唐が羈縻支配を本格的に施行し始めた670年1月直後から唐に反拒し、復興運動を展開した。

文獻資料には高句麗遺民たちが671年7月まで遼河-鴨綠江および西北韓一帯にて復興運動を展開し、671年7月安市城陥落以降には新羅の後援の下、黃海道一帯で復興運動を展開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ところが「李他仁墓誌銘」を通じて夫餘地域にても復興運動が起き、鞅鞞と連帶した可能性も類推することができる。高句麗遺民の復興運動が高句麗故地のほぼ全域にて展開されたことになる。これに對し唐は670年4月、高侃を東州道行軍總管、李謹行を燕山道行軍總管として高句麗復興運動を鎮壓する一方、671年には薛仁貴を鷄林道總管として新羅方面を攻略した。そして674年には鷄林道總管府を鷄林道大總管府に再編し新羅との全面戦に着手した。この時、東州道行軍總管府と燕山道行軍總管府は解体したが、李謹行を鷄林道副總管に任命したことはこのことを反映したものだ。高句麗遺民の高乙徳が674年に東州道行軍總管府の長史から「左清道率府頻陽府折衝(都尉)」に轉任したことも東州道行軍總管府解体による措置と推定される。

唐は675-676年、新羅に相次いで敗北した後、韓半島から撤収した。安東都護府の治所も676年2月遼東城に移ってから677年2月に再び新城に移った。これに合わせて安東都護府に派遣した唐の官人を撤収する一方で宝藏王を遼東州都督朝鮮郡王に封じて、遼東地域に派遣し、強制移住させた遺民達も歸還させ以前よりも緩やかな羈縻政策を施行した。ただし男生を遼東に派遣して安東都護かそれに準ずる

職任を遂行するようにした。唐が高句麗遺民勢力を互いにけん制させながら、高句麗故地に對する統制力を強化する狙いがあったのだ。

唐のこのような意図は一定程度効果を収めはしたが、高句麗遺民の抗拒を完全になだめ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宝藏王が男生が死亡した679年頃に靺鞨と連帯して復興運動を企てた事実はこのことをよく示している。これに對し唐は宝藏王を召還して非協力的な遺民を再び強制遷徙させる一方、安東都護府に唐の官人を派遣して靺鞨支配を強化した。安東都護を二度も歴任した屈突詮の墓誌銘と彼の息子の屈突季札の墓誌銘を通じて681年安東都護府隷下の貢州に唐の官人が派遣された事実を確認できる。

一方突闕が679年10月より唐に反旗を翻すと唐の靺鞨州支配体制も徐々に崩壊していった。これに對し唐は毎年大規模な遠征軍を編成して突闕の侵攻を防御したのだが、様々な遺民墓誌銘を通して高句麗遺民出身の將帥が突闕防御戦に投入された事実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泉獻誠は679年、定襄道大總管府に編成され、高質は681年と684年に單于道行軍と銀勝道安撫副使に充員された。そして686年には泉獻誠と高玄が神武軍の大總管と統領、690年には高足酉と高玄が左豹韜衛の大將軍と行中郎將等に任命され上下の指揮關係が築かれたのだが、高句麗遺民を組織的に動員した可能性が示されている。實際に689年、高玄が唐の各州に分散配置された高句麗遺民の兵士を選抜して突闕防御戦を遂行した事実が確認できる。

ただし、この時唐は高句麗の故地の遺民を突闕防御戦に動員しなかった。これは突闕防御戦が主に高句麗故地とは遠く離れた唐の北方地域にて遂行されたためであるが、高句麗故地に残る遺民の動搖を憂慮したためである可能性もある。實際に唐は686年に宝藏王の孫の高宝元を朝鮮郡王に封じて宝藏王の謀反事件を契機に廢止されていた朝鮮郡王府を復活させたのだが、唐の内地のみならず高句麗の故地に残った遺民の動搖を予防するための慰撫策と解釋できる。これは高句麗故地に對する唐の支配基盤が依然として不安定であったことを反映している。契丹も696年5月から唐に反旗を翻し、復興運動を展開した。契丹の復興運動は697年6月に一段落したが、その余波で高句麗遺民達が靺鞨と連帯して渤海を建國するに至る。それゆえ契丹の興起以降、高句麗遺民も唐に抗拒したはずだが、それに關連した状況を伝える文獻資料はほとんどない。むしろ、696年9月には安東都護裴玄珪、696年末頃（あるいは697年1月）に遼東都護高仇須がそれぞれ契丹との戦闘で勝利を収めたという記録のみ伝わるのみである。

しかし、武懿宗の上表文や武攸宜の祭文を通じて契丹と高句麗遺民の連帯、高句麗遺民が遼東地域を蚕食した状況を類推することができる。「高質墓誌銘」と「高慈墓誌銘」はそのような状況を更に具体的に伝えている。高質は696年5月に瀘河道討撃大使、696年9月に清邊東軍總管に任命されたのだが、海路を通じて遼東地域に渡り、高句麗遺民を募兵する任務を遂行した。高質の募兵に對して高句麗遺民の中で一部有力者は好反応を見せたが、大多數の遺民はむしろ唐に抗拒した。更に高質と高慈の父子は安東都護府隷下の靺鞨州の一つである磨米城を守っていたところ、697年5月に孤立無援の状態に陥り、陥落し戦死した。

遼東地域の高句麗遺民が契丹が興起した直後から廣範囲にわたり復興運動を展開し、これにより靺鞨州が陥落するほど唐の統制力も急速に弱体化したのだ。これに對し唐は697年6月契丹の復興運動を平定するや否や、大規模の遠征軍を派遣し高句麗故地に對する統制力強化をもくろんだ。しかし唐に抗拒する

高句麗遺民の勢力が強まる状況により鎮壓が簡単ではなく、結局高句麗遺民は靺鞨と連帯し698年に渤海を建國した。高句麗故地に對する唐の羈縻支配の失敗が渤海の建國に結びついたと言えるのだ。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記述方式

- 家系와 出身地의 記載와 그 의미 -

李成制 (東北亞歷史財團)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記述方式

- 家系와 出身地의 記載와 그 의미 -

李成制 (東北亞歷史財團)

그동안 高句麗·百濟遺民 묘지의 출자 기록은 이들의 正體性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이해해왔다. 그러나 자료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先行된 것은 아니었다. 묘지에는 거의 예외없이 亡者가 어느 家系에 속하며 출신지는 어디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동안의 연구는 이들 기록이 어떤 방식에서 작성된 것인가를 살피지 않은 채 유민의 계보 인식을 다루어 왔던 것이다.

당대 官人들의 묘지는 대개 망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朝廷에 제출한 行狀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行狀은 死者의 履歷을 밝혀 그 활약상을 唐朝로부터 평가받고자 하는데 있었던 만큼 이를 전거로 삼은 묘지의 기술내용 상 특징도 여기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行狀을 근거로 實錄의 개인 傳記를 작성했다는 『唐會要』 기록으로 보아, 관인의 行狀은 公的인 기록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묘지의 제작을 위해서는 書家·石工 등 제 3자의 관여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그 기록 내용은 私的인 것이라 해도 공적인 성격을 띤 자료로 이해되어야 옳다. 여기에 더해 유민은 늘 主流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했던 異族이며 降將이었다. 이들의 묘지에 대해 정체성과 같은 자의식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없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泉男生의 묘지와 列傳을 비교한 결과, 두 기록은 동일한 典據를 이용하였고, 그것이 일족이 唐 朝廷에 제출한 行狀이었음이 확인된다.

묘주의 출자는 先代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泉男生墓誌〉처럼 자세하게 기술하기도 하지만, 〈高足西墓誌〉와 같이 그 계보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前者는 그가 고구려 國政을 좌우했던 가문 출신으로 그의 귀부로 고구려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고족유의 것은 唐 將帥로서의 활약상만으로 그 이력을 채웠다. 이로 보아 계보를 포함한 망자의 이력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당조의 평가를 더 받을 것인가를 고려한 유민들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고, 그것이 묘지 간 기술 내용의 차이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出身地는 출자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어떻게 쓴다라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유민은 망국에 따라 당의 臣民으로 편입된 까닭에, 본적을 떠나 현재의 거주지에 안치된 경우는 就官의 유래와 歷官을 언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 이에 본적과 새로 얻은 貫籍을 기재하여 출신지의 변화상을 보이는 것이 상례였지만, 둘 가운데 하나만을 기재한 경우도 보인다. 이는 출신지를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망자의 활약상을 돋보이게 할 것인가를 고려한 기술방식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본적만을 언급한 천남생과 달리 藩將으로 활약했던 고족유나 黑齒常之는 출신지의 변화상을 기재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한편 묘주의 출신지를 ‘遼東郡 平壤城人’이나 ‘熊津 嶺夷人’이라 기술한 것은 망자가 어디 소속의

지역 출신임을 밝히는 것으로, ‘都督府+지역’의 기재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는 당대 대표적 유민집단인 突厥人에게서도 동일한 기술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일부 묘지에는 조상의 기원을 중국 전설상의 인물이나 유명인에 두고 그 후손임을 자처한 사례들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유민 1세대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계보인식의 변화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보다는 突厥人과 소그드人에게서도 동일한 현상이 보인다는 점에서 異民族으로 당에 정착하게 된 이들의 생존전략이었다고 이해된다.

高句麗、百濟遺民墓誌的記述方式

—家系、出生地の記載与其意义—

李成制 (东北亚历史财团)

I. 序言

在自唐回到故乡的高句麗和百濟的遺民留下的墓誌中几乎无一例外地纪录着亡者的出生地区是哪里，其祖先为何人等内容。也就是不仅提供有关其属于哪一个家系的人物的资料，还显示出可以复原其家谱的基础资料。但虽然这样宝贵的情报在增加，但至少学术界对遺民家谱的认识与过去并无两样。例如，泉男生的曾孙泉毖墓誌上记载着他是“京兆万年人”，与泉男生为“辽东郡平壤城人”的纪录相比较，这是使一直认为高句麗后孙的观念变得模糊的的意识变化的一个事例。¹⁾

那么，从第一代遺民到第三代，高句麗或百濟出身的遺民就所剩无几并都成为唐人了吗？这一问题令人生疑的部分是高句麗人移居到中国的事例此前也发生过，但未发生像唐代时期一样的快速同化现象。与唐代遺民所不同的是，此前可以发现到保持其作为高句麗的个性在中国史的变化中生存下来的事例。²⁾ 对于此前对遺民家系认识的理解产生疑问的另一个原因是此前的研究是将墓誌上所叙述的内容作为历史资料来使用的。这是因为对于墓誌中事实的歪曲视为私人纪录的视角所致。

但查看唐代葬礼文化和墓誌建造过程可知，成为墓誌和其基础资料的行狀虽然由私人记述，但同时它也是具有公众性质的资料。³⁾ 从资料的性质来看，可认为墓誌上不可将自我意识毫无保留地展现出来。特别是考虑到唐代社会中高句麗、百濟遺民处于何种境地就更是如此。此外，考虑到行狀是带有公众性质的资料的事实，其记述目的就令人好奇了。从行狀会按符合记述目的的内容叙述，并将其作为典据的事实来看，墓誌上的记述内容也会与此不无关系。

本文的目的在于从这一疑点出发对遺民墓誌的出身纪录再次进行探讨。此前的研究注重的是各个世代间记述内容的差异，但如果考虑构成墓誌内容的项目保持一定的一致性来看，会

1) 盧泰敦, 1981 「高句麗 流民史 研究-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韓洵博士 停年紀念史學論集』, 知識産業社; 金賢淑, 2001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動向」『韓國古代史研究』 23; 李文基, 2002 「高句麗 寶藏王의 曾孫女 「高氏夫人墓誌」의 檢討」『歷史教育研究』 29; 拜根興, 2009 「高句麗 遺民 高性文·高慈 墓誌의 考證」『忠北史學』 22, 以外多數。

2) 因曹魏田丘儉的侵入而被拉走的高句麗人們曾在西晋时期江统的徙戎論中被提及, 这可从被拉到前燕的高句麗人被北魏徙民的事例中发现。

3) 有关唐代墓誌建造过程及其性质的理解参考了最近的两篇研究成果(石見清裕, 「唐代墓誌史料の概観-前半期の官撰墓誌·規格·行狀との關係-」『唐代史研究』 10(“石刻史料からみた唐宋元の社會と文化” 2006年度唐代史·宋代史研究會夏期合同シンポジウム特輯 및 窪添慶文, 2012 「石に刻された生涯」『東洋文化研究』 14)。

存在一定的定型化的记述方式，而且出身也被视为根据这一内容进行纪录。从而，有必要关注典型的出身记述内容为何。因为若能掌握相关内容，即可重新理解遗民墓志出身记述所意味的内容。

II. 唐代墓志的记述过程与资料性质

笔者欲就遗民墓志是以何种目的建造，建造过程为何开始进行探讨。因为至今在未能明确墓志资料性质的情况下使用于研究工作。

与此相关，遗民史研究中有关墓志资料性质的有益的学说并不多见。但可以发现到基于亡者家庭提供的行状建造了墓志，从而可以人为他们对先祖所具有的意识体现在纪录内容中。⁴⁾虽无具体的记述，但可视为大部分的研究也是以相似的判断来理解墓志的。大概是从建造墓志所需基本资料的提供和墓志的撰述由亲属所为这一点来认为墓志是属于私人纪录。

但从唐代葬礼过程与行状的关系来看，又无法这么理解。据相关研究所述，⁵⁾亡者死后直至埋葬的期间长达7~10个月的也是常见的情况。需要如此长时间的理由是因为建造安放亡者的坟墓所耗费的时间和向朝廷申请亡者谥号并得到通知为止需要相当一段时间。

这里值得关注的是，家人为申请亡者的谥号将包括其官历的一生行迹的行状提交给了唐朝。当然其前提条件是亡者曾为官吏，但从至今所掌握的资料来看，高句丽、百济遗民中大部分到了唐以后以官员的身份结束了自己的一生。从而，遗民的行状虽由亡者家人所书，但从其被提交到朝廷来看，它不可能是私人纪录。更重要的是存在以行状等资料为典据记述唐代实录的个人传记的《唐会要》⁶⁾中行状被视为公众纪录。

同时，据称墓志通常是在等待朝廷通知期间建造。撰述墓志上的文章，并由书家将其写在石头上，而石工则将其刻在石头上。同时，直至朝廷的通知到来之前留下了纪录谥号的空间。这时文章的撰述此前是由有利害关系的亲友来负责，但由朝廷下令官员来撰述的情况也常见。这时，墓志记述的基本资料就成了行状。因此，如果属于后者，就同行状一样难以将墓志视为仅由家人和亲友共享的纪录。因为要意识到官员来记述，行状就会成为墓志的基础资料。⁷⁾

从而，将墓志上记述的内容按原样作为历史资料来使用是有问题的。墓志是按行状作为典据来建造的，而从记述行状的理由来看至少如果墓主为官人，其目的就在于呈现出其履历，并希望唐朝来对其活动进行评价。因此，行状的记述是按符合其目的的内容来进行，而以此为典据的墓志记述内容也不会与此无关的。

4) 李文基, 2010 「墓誌로 본 在唐 高句麗 遺民의 祖先意識의 變化」『大丘史學』 100.

5) 註 3 參照.

6) “公主百官定諡<考績錄·行狀·諡議 同送> … 已上事 並依本條所由 有即勘報史館 修入國史” (『唐會要』 卷63, 史館 上 「諸司應送史館事例」, 中華書局, p.1090. <>는 夾註를 의미). 高官死后, 行状和谥议等曾被作为列传撰述的基础历史资料的事实可从福井重雅的研究中发现(1984 「『舊唐書』-その祖本の研究序説-」『中國正史の基礎的研究』(早稻田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 編), 早稻田大學出版部)。

7) 同时, 对于《高氏夫人墓志》、《高堤昔墓志》等妇女的墓志是通过何种途径建造还不得而知。只不过考虑到墓志建造不仅需要撰写者, 还需要书者和刻者参与的事实, 这是无法不考虑他人视线的。

从这一点来看，笔者对于此前基于墓志记述内容认为遗民对系谱的认识发生改变的理解不禁怀有疑问。这是因无论是以何种方式进入唐，遗民在唐代社会中只能是降将。通过下列两个纪录可呈现出他们的处境。

A-1. “(上元) 3年 遷中書侍郎 尋同中書門下三品. 時高宗幸溫泉交獵 諸蕃酋長亦持弓矢而從. 元超以爲既非族類 深可爲虞 上疏切諫 帝納焉.”(『舊唐書』 卷73 薛元超傳, p.2590, 中華書局. 以下 省略)

-2. “天授中以右衛大將軍兼羽林衛. 武后嘗出金幣 命宰相·南北牙群臣舉善射五輩 中者以賜. 內史張光輔舉獻誠 獻誠讓右玉鈴衛大將軍薛吐摩支 摩支固辭. 獻誠曰 陛下擇善射者 然皆非華人. 臣恐唐官以射爲恥 不如罷之. 后嘉納.”(『新唐書』 卷110 泉獻誠傳, p.4124)

通过A-1的纪录来看，可通过上元3年(676)的事件得知唐代统治阶级是如何看待遗民的。对于蕃将为在皇帝身边进行守护而携带武器的问题，唐代朝廷感到有可能发生变乱。这说明，唐虽积极任用了遗民，并将其大多数任用任命为唐军的藩将，但并未放松对其警戒的眼神。此外，有一个众所周知的有关泉献诚的故事，这就是这些藩将时常会意识到唐人即主流社会的视线的证据。泉献诚与其父一同在唐攻击高句丽时立下了汗马功劳，他是投身唐朝的高句丽遗民的代表性人物。而即便是这样的人物仍要对主流社会的视线感到负担的事实，应该是理解高句丽、百济遗民处境使要考虑到的部分。

虽然是已灭亡的国家，高句丽和百济曾经是与唐对峙的敌对国家。特别是高句丽曾使唐朝伟大的君主太宗在亲征中受挫，而且也是在此后屡次不屈服于唐军的攻击。问题是，虽然这一令人感到荣耀的历史虽与遗民的过去不无关系，但将其照实记述有可能不小心会翻起唐王朝令人蒙羞的过往。从而，体现纪念遗民自身的过去或先祖华丽时期的心情的表示，在唐朝有可能成为在身在唐朝但对现实不满甚至其行为会使人们对其心中对唐的忠诚持怀疑态度。⁸⁾ 因此，尽量不要提及相关内容，即使提及也要注意不要使其引发问题。

从这一方面来看，有关遗民墓志体系的记述内容应从新的视角出发来看待。此前被认为遗民的认同性随着时间的推移渐渐淡化，而且呈现出逐渐被唐吸收的倾向。其根据出现在在有关墓志系谱的在记述内容中。但陈述有关遗民自身的出身以及其先祖为何人的资料，与其说是展现出对这些人的认识，不如说是与上述的资料制作目的有关联的可能性更大。从而可以认为这属于根据制作人的意图进行加工的纪录(就此将在下一章进行陈述)。

除此以外，要考虑到墓志并非根据不同撰写人建造人可自由记述的资料，而是根据所规定的格式记述亡者相关内容的一种文书。根据此前的研究，墓志由包括我们所关注的系谱和与

8) 作为同是亡国人这一点，突厥人的事例可有些帮助。执失思力是唐抓住颉利可汗并摧毁突厥第一帝国时立下汗马功劳的人，他虽与公主成婚并稳固其作为唐朝勋臣的位置，但最终被牵连到高宗初期的谋反事件导致落马。他的儿子奉节也因这一事件的影像被发配并在34岁时死亡。从执失思力所立下的功绩来看，他的落马和和悲惨的死有些过分的感受。尽管如此，《执失奉节墓志》中只用模棱两可的词语描述事件，对于其被陷入破灭结局的愤怒或愤懑完全没有提及。

其相关的姓氏、乡邑、族出(世系)等共13个项目组成。⁹⁾ 从这一点来看,墓志属于定型化的文书。¹⁰⁾ 就此,笔者特别对乡邑的项目更为关注。因为无法认可在未制定纪录方式标准情况下注明出生地区。从而,应注意观察纪录乡邑的一定格式是怎样的。

同时,族出(世系)是如何纪录的呢。与此相关,可将注明亡者先代4代祖视为唐代墓志的一般形式,但是否可以断定就是如此呢?¹¹⁾ 特别是在遗民墓志可以发现到明确而详细地注明父祖或其上一代履历,或长篇大论地对亡者在故国的官历进行记述的事例(《泉男生墓志》)。而与此相反,也存在着不仅未提及先代,甚至对于亡者归附于唐以前曾有过怎样的经历都完全没有记述的情况(《高足西墓志》)。若考虑到墓志是为显示亡者事迹的资料,这一记述的差异可最终成为发现该墓志的焦点放在何处的线索。通过这一点就会有有助于我们掌握所关心的对系谱的认识出身于何种背景。

Ⅲ. 墓志记载方式与遗民的出生地

让我们将上述的推断通过事例来查看相关内容。为了解决这一课题,虽然应对遗民的行状开始进行探讨,但目前遗民的行状并未流传下来。对此,要查看一下泉男生的纪录。虽然行状未留下来,但却留有墓志和列传的纪录,从而可以查看典据资料的内容和性质。

표 1. 泉男生 墓誌, 列傳

내용	墓誌	列傳
出自	·原夫遠系 本出於泉 既託神以隕社 遂因生以命族 ·曾祖子遊 祖太祚 竝任莫離支 父蓋金 任太 大對盧 ·遼東郡 平壤城人	高麗蓋蘇文子
관력	·9歲 先人 父任爲郎 ·15歲 中裏小兄 ·18歲 中裏大兄 ·23歲 中裏位頭大兄 ·24歲 中裏位頭大兄 兼將軍 ·28歲 莫離支 兼三軍大將軍 ·32歲 太莫離支 摠錄軍國 ·(33歲) 特進 太大兄如故 平壤道行軍大摠管 兼使持節按撫大使	·9歲 以父任爲先人 ·遷中裏小兄 猶唐謁者 ·又爲中裏大兄 知國政 凡辭令 皆男生主之 ·進中裏位頭大兄 ·爲莫離支 兼三軍大將軍 ·加大莫離支 ·平壤道行軍大摠管 兼使持節按撫大使 ·(35歲) 遷遼東大都督·玄菟郡公 ·(36歲) 進右衛大將軍·卞國公

9) 朴漢濟, 2008 「魏晉南北朝時代 墓葬習俗의 變化와 墓誌銘의 流行」『東洋史學研究』104. 以上提及的3个项目添加讳、字、行治、履历、卒年、寿年、妻、子、葬日和葬地等成为叙述对象。

10) 東賢司, 2013 「墓誌に見られる婚姻の記述」『愛媛大學書道研究』3.

11) 突厥人执失善光是以上提及的执失奉节的堂兄弟, 是陪葬于昭陵的人物。这一人物的墓志中提及了曾祖、祖父、父和伯父执失思力等祖先, 而其中最多的就是有关伯父的内容。查看为什么提及伯父, 可从其昭陵陪葬以其伯父的功绩为背景, 从而可知将焦点放在这一点对记述其祖先的内容进行整理。

·(35歲) 使持節遼東大都督·上柱國·玄菟郡開國公 食邑二千戶 ·(36歲) 右衛大將軍 進封十國公 食邑三千戶 特進勳官如故 兼檢校右羽林軍 仍令仗內供奉 ·(44歲) 奉勅存撫遼東 改置州縣	·(44歲) 詔按撫遼東 并置州縣
--	-------------------

以上列表为整理墓志和列传记录内容的表格。简单查看即可发现两份资料的内容也大同小异。虽是出身不同的资料，但按“出身”和“官历”的分类来看，各个不同资料中记述的内容几乎相同。从男生的官历来看，墓志上将其9岁得到官位直至46岁人生终止时为止的经历按年龄顺序一目了然地进行了记述，而列传记录中也是如此。只不过这里遗漏了24岁成为“中里位头大兄兼将军”的事实，而墓志官历内容几乎全部可在列传里同样得以确认。

特别是从最后的官历“奉敕存抚辽东改置州县”所代表的意义来看，这与《唐会要》第73卷安东都护府条中出现的“至仪凤二年二月二日，移安东都护府於新城安置仍令特进充使镇府”的纪录相同。这里纪录着墓志是男生获得了勅命而抚慰了辽东，但与《唐会要》的纪录相比却并不太具体。因为后者记述着根据安东都护府的新城移置派遣男生为大使来进行镇抚。与此相比，列传相关纪录只不过是表现方式不同，与墓志上的记述并无大的差异。也就是说，墓志和列传中以与《唐会要》中有关男生的相关纪录不同系统的资料作为典据来使用。

那么墓志和列传作为典据来使用的基础资料是什么呢？这可从这两项纪录中的先后关系中较早的墓志中发现端倪。男生墓志是由中书侍郎王德真所撰写的。从墓志的字体是由欧阳询的儿子欧阳通所书可知其遵循了朝廷的指示。因为很难认为王德真清楚男生的经历。这里还提供了撰述所需的基础资料，可以料想到这就是行状。

同时，这两项资料对于“主要事件”大体分3种内容来记述。其内容为被弟弟们逐出，归附于唐并加入唐军，攻击平壤城并导致高句丽灭亡，其内容虽略有不同，但基本上可以认为其记述的事实相同。至少从“官历”和“主要事件”部分来看，墓志和列传是使用同一个典据资料和行状来进行记述的。

这样看来，从墓志和列传内容中可发现的特征是两项纪录并非单独的，而这源于它们将同一个行状作为典据来使用。与此相关，可在上列表格发现到一个有趣的事实。将从9岁到44岁多达10项的经历视为其在一生中经历的所有的官历也不为过。而从32岁到历任太莫离支时在高句丽的具体活动内容却未得到体现。与此相反，对其从归附于唐直至高句丽灭亡过程中所起到的作用进行详细的描述是值得关注的。

也就是，男生的经历局限在与唐的关系范围内，可知他对高句丽的灭亡起到了决定性的作用，而在归附于唐后为支配高句丽故地起到了推波助澜的作用。从而对其在高句丽的官历进行详细的纪录也可从这方面来理解。这样做的意图是为了凸显其为左右高句丽国政的非凡的人物，以此来彰显他的归附所代表的意义。

从以上的探讨来看，男生墓志中记述的履历与其说是照实呈现出他的一生，还不如说是选择将焦点放在他为唐的国家利益所做出的贡献方面。如有关亡者自身经历的墓志的记述内容如此，是否应对其出身的纪录也按同样的脉络来审视。那么就墓志的这一性质出发来审视

一下成为问题“出身”。

综上所述，官历和主要活动的内容是有关亡者本人的记述。此外，墓志中有关家系的内容也要作为必需的事项来进行纪录的。根据以上探讨的本墓志的构成要素，姓氏、乡邑(籍里)、族出(世系)等项目正属于这些内容，笔者在以上表格中一并对“出身”进行了整理。从男生的出身情况来看，提到了其姓氏源自于泉，还有其曾祖到其父盖苏文等的相关内容，然后就记述其为“辽东郡平壤城人”，而对“高句丽”却没有提及。

可像泉男生墓志这样对其出身部分并未提及“高句丽”而只叙述为“辽东”的事例也可在其他高句丽遗民的墓志中得到确认。“辽东三韩人”(《高玄墓志》)、“辽东平壤人”(《高足西墓志》)和“辽东朝鲜人”(《泉男产墓志》)等正属于这种情况。从这一点来看，此前的研究对为何在泉男生等高句丽遗民的墓志上未提及“高句丽”提出疑问，并将其原因视为遗民们受到了难以标榜其高句丽出身的唐社会内部的限制。但遵循这一观点却感到有些疑惑。

高句丽遗民的墓志上岁很难发现注明出身国名的情况，而百济遗民的墓志上却能够发现到注明“百济”出身的事例。《黑齿常之墓志》中讳和字后注明其为“百济人”，从而可知其为百济出身的遗民。¹²⁾ 《扶余隆墓志》中标注为“百济辰朝人”的也是另一个注明遗民出身国的事例。¹³⁾ 特别是扶余隆是有代表性的附唐百济遗民，从而可与高句丽遗民中男生的地位进行比较。在扶余隆的墓志上标注其为百济出身的事实告诉我们这是源于其他理由的现象。¹⁴⁾

此外，从百济遗民的事例来看，高句丽遗民的墓志上未标注高句丽出身的现象无疑是需要关注的问题。那么我们不禁对这一现象体现出高句丽遗民对系谱的认识的哪一方面的问题感到好奇。

首先，从这一出生地部分来看，根据以上探讨的墓志构成要素来看应属于乡邑或籍里。如果是唐人则记述其居住地即可，但遗民则是其祖国灭亡而归附于唐并成为唐的臣民。因此，其离开故国到现在的乡邑安置的经过在提及其就官由来和历官时是需要重点考虑的部分。而可证明这一想法正确的资料正是下列墓志。

- B-1. “君諱他仁 本遼東柵州人也. 後移貫雍州之萬年縣焉.” <李他仁 墓誌>
- 2. “君諱足西 字足西 遼東平壤人也. 乃效款而往 遂家於洛州永昌縣焉.” <高足西 墓誌>
- 3. “府君諱常之 字恒元 百濟人也. … 俱入朝 隸爲萬年縣人也.” <黑齒常之 墓誌>
- 4. “君諱玄 字貴主 遼東三韓人也. … 自東徙而來王 因而家貫西京 編名赤縣.” <高玄墓誌>

根据李他仁和高足西的墓志记述内容，他们本来虽是辽东○○人，但随着归附于唐被重新

12) “府君諱常之 字恒元 百濟人也. 其先出自扶餘氏 封於黑齒 子孫因以爲氏焉”

13) “公諱隆 字隆 百濟辰朝人也. 元□□孫啓祚 暘谷稱雄 割據一方 [跨][躡][千]載”

14) 《高足西墓志》中提及了“高丽藩长”，这可在“高句丽”的用例发现。此外，即使《泉男生墓志》中未注明，但也可到处发现可使人联想到高句丽的线索(高句丽的官位、父盖金、平壤城出身、与唐军的交战等内容)。

編籍。雍州万年县或洛州永昌县是因其成为遗民而获得的新的贯籍。这一乡邑变化的内容从其呈现遗民安置经过这一点来看，应该是有关遗民出生地的基本信息。在为数不多的遗民墓志中可发现最少4件事例也是因为这一情况。也就是李他仁等的墓志对其贯籍的变化进行了如实的纪录。

但男生墓志中的“辽东军平壤城人”的纪录中未注明乡邑的变化情况。只不过纪录了相当于祖籍的出生地和新获得的贯籍其中一项内容。那么把亡者籍里纪录为故国出生地这一点是应该关注的部分。抛下现在的贯籍却纪录故国出生地的理由是什么，这与将贯籍变化全部进行记述的遗民有何不同呢？

对此，或许可认为因为墓志主人公属于第一代遗民，从而还保留着高句丽色彩。也就是在建造于733年的泉慈的墓志上发现了纪录着“京兆万年人”这个出生地，从这一点可知虽然是高句丽遗民但随着不同的世代有关其出生地的纪录也不相同。以此为依据，此前研究的观点是遗民的意识里已没有了自己是高句丽后裔的概念。从这里可以知道，此前的理解是根据将出生地即贯籍纪录为哪里来判断亡者或其家人是否认为自身是高句丽的后裔。

但不可将在他们的墓志上纪录的出生地视为显示高句丽、百济遗民如何看待自己系谱的资料。不能因为B的墓志上纪录着唐的贯籍，而认为这些亡者或家人比男生等人更为中国化。而且也很难认为出生地纪录方式的差异是因为撰写者的问题。这从它属于亡者家人提供的基本信息这一事实可知。也就是如何记述出生地完全在于书写行状的人，如果从他的意图来看，应该是他考虑到纪录哪一边会使亡者的生涯更令人关注，并以此来决定是否要纪录贯籍的变化。根据这一推论，在遗民墓志只纪录亡者祖籍与对系谱的认识并无太大的关联。

可做出这一判断的资料应为《高足西墓志》。墓志文由32行，1,018个字构成，在遗民墓志中是内容较多的一个。比较特殊的是，尽管内容如此之多却没有提及直系先祖。¹⁵⁾ 这是与一般性通例所不同的地方。虽能够发现提及家族的内容，¹⁶⁾ 但因其内容模糊，从而只能推测出其高句丽显赫的家族。至少该墓志并未将重点放在从先代开始的系谱上。高足西归附于唐时年龄已到40多岁，而在唐的初官为“明威将军守右武卫真化府折冲都尉”，从这里可推断出其在高句丽应该是到了相当高的地位。尽管如此，在墓志上完全没有提及其归附于唐以前的活动轨迹。因此，如果没有“辽东平壤人”这个出生地的说明和“玄兔”、“高丽蕃长”等词语的出现，那么在墓志的任何地方都无法找到没有可以了解到其为高句丽遗民的线索。

也许因为这一原因，墓志的本文即志序上写满了自668年到690年作为唐的将领在各地参加战斗的所立下的功勋的内容。特别是689年(永昌元年)~690年(天授元年)时立下的军功应该是与骨笃祿(骨咄祿)即突厥第二帝国战斗获得的。¹⁷⁾ 他成为从2品的镇军大将军并被封为高丽蕃

15) 李文基, 2000 「高句麗 遺民 高足西 墓誌의 檢討」『歷史教育論集』26.

16) “族本殷家 因生代承 昔居玄兔 獨擅雄蕃 今聲口誠”

17) “永昌元年(689) … 既而蔥山動祿 紫塞驚塵 甘泉見烽火之輝 天子下徵兵之令. 大周天授元年(690) 拜公爲 鎮軍大將軍 行左豹韜衛大將軍 … 野戰頻勝 事逸張飛 … 長城絕飲馬之篇 萬里罷輪臺之戍.” <高足西 墓誌> 该内容和与此相符的事件可从以下纪录发现。

① “(永昌元年 五月) 乙巳 白馬寺僧薛懷爲新平道行軍大總管 以擊突厥”(『新唐書』 卷4 則天順聖武皇后, p.88)

长是因为其功绩受到了唐朝廷较高的评价才可能。

将高足西墓志的这一记述方式与男生的相比，其特征变得相当明显。在记述后者时突出强调了男生是出身于显赫家族的人并在高句丽为执政者，但却帮助唐推倒高句丽的部分，但对其在唐的活动则仅简单提及了他在晚年被派到辽东的这一件事。与男生相比，可知高足西自己和后人们不仅对其在高句丽的履历，甚至对其归附于唐这一事实也并不太在意。也就是说，比起这些功绩或在故国的地位，其作为唐的将领解除内忧外患的功绩是更具有价值的。因此，墓志之间记述内容的差异是因为考虑到何种活动更能够得到唐的较高的评价而致使遗民做出的战略性选择。

那么高足西墓志上记述的出生地具有何种意义呢？回想起在以上探讨的行状的性质和墓志的关系，“辽东平壤人”以下的出生地只是对其作为高句丽遗民到唐成为将领的由来进行说明而所需的部分而已，与其高句丽人的意识并无关系。

换言之，只凭着泉男生、泉男产、泉献诚、高慈等的墓志上纪录亡者出生地为“辽东○○人”是难以成为证明在唐生活的高句丽人对其本人的处境有所认识的旁证的。反而可将其看做为强调其放弃故国的地位归附于唐的事实而使用的修辞手法。虽曾作为唐的将领立下了功劳，但从他们的立场出发是将重点放在作为高句丽人为了唐推翻了自己故国的事实上。

IV. 遗民墓志的家系与假托现象

那么在高句丽出身的亡者墓志上大部分将出身纪录为“辽东”而非“高句丽”的理由是什么呢？对于这个问题，涉及百济遗民的最近研究中以8世纪纪录中呈现为“东明人扶馀俊”为例，认为到这一时期百济遗民也不再使用“百济”的国名。¹⁸⁾从而虽与高句丽遗民相比有时间上的差异，但百济遗民中也最终出现了未注明出身国名的现象。

虽然在墓志上看不到，但纪录在列传的高句丽遗民无一例外地将其出身纪录为“高丽(高句丽)人”。上述的泉男生为“高丽盖苏文子”，此后与其隔几代的王毛仲(“本高丽人也”)、高仙芝(“本高丽人也”)、王思礼(“营州城傍高丽人”)、李正己(“高丽人”)等人也被纪录为“高丽人”。也就是，墓志上虽然注明其出生地称其为“辽东○○人”，但唐朝廷仍将其视为高句丽人的事实是不可改变的。因此，可认为百济遗民扶馀俊也同样虽是百济人，但却被纪录为东明人。

下面将通过资料查看“辽东○○人”所代表的意思。

- C-1. “公諱軍 字溫 熊津 嶧夷人也。” <禰軍 墓誌>
- 2. “君諱法子 字士平 熊津 西部人也。” <陳法子 墓誌>
- 3. “君諱施 子勿施 淳維之後 夏禹之苗 雲中部人也。” <阿史那施 墓誌>
- 4. “公性泉 諱男生 字元德 遼東郡 平壤城人也。” <泉男生 墓誌>

② “九月 壬子 以懷懷義爲新平道行軍大總管 將兵二十萬討突厥骨篤祿”(『資治通鑑』卷204 唐紀20 則天后永昌元年(689))

18) 金榮官, 2012 「百濟 遺民들의 唐 移住와 活動」 『韓國史研究』 158.

查看C-1和2的纪录可知熊津代表熊津都督府是因为“岨夷人”中有岨夷这个词语。¹⁹⁾ 那么“熊津○○人”用法是否局限于这两座墓志中呢？与此相关，有趣的资料是C-3的阿史那施墓志。阿史那施在其父归附于唐以后出生，作为在长安度过一生的突厥人，这里发现的“云中部人”是表示他出生于唐在突厥故地设置的云中都督府属下的(阿史那)部落。这里我想强调的是不仅是百济遗民，在归属于唐的突厥人上也可以找到相同的纪录方式。

由此，可知不仅是百济人，在突厥的墓志上还可发现到其出生地并非其归附以前的地区而为与唐设置的都督府一同被改编的地名。遗民墓志上呈现的出生地纪录时间按唐的标准，注明其属于哪个地区。此外，可发现其标注方式为“都督府+地区(部落)”的形式。从这一点来看，就像“云中部人”一样即使看起来像是地名，但实际上也可视为是属于某一个地区的意思。²⁰⁾

这样看来，在C-4的泉男生墓志上发现的“辽东郡平壤省人”应按照“都督府+地区”的纪录方式来理解。也就是，从注明“辽东郡”这一点来看，这与唐曾将高句丽国王册封为“辽东郡开国公”、“辽东郡王高丽王”这一历史事实有关联。²¹⁾再有，未注明“辽东”这个地名而纪录为“辽东郡”，是要注明如同在百济人和突厥人墓志上所看到的“都督府+地区”纪录方式一样，要表明其为唐属地的蕃国出身。²²⁾同时，辽东对于唐人是比较熟悉的地名也是其中的一个原因。与百济人和突厥人的墓志相比较，并不突出属于高句丽故地都督府的安东(都护府)这一点也正因为此。²³⁾

从以上的探讨来看，标注“辽东○○人”或“熊津○○人”为出生地所代表的不仅在于说明亡者为高句丽或百济出身的遗民。而是欲强调其为辽东郡和熊津都督府这个属于唐土的高句丽和百济出身。但实际上他们的出生地是作为遗民归附于唐以前的地区，难以称为辽东郡或熊津都督府的某一个地区。尽管如此，这些亡者或其家人的出生地还是改变为唐土地。因而可知出生地的出处纪录也被做为确定亡者或其家人为唐百姓的工作使用。

最后，就遗民对“出身”相关的认识方面，将就属于“族出(家系)”一项的内容进行探讨。在高句丽和百济遗民的墓志中可发现将祖先的起源视为中国传说中的人物或著名人士并称自己为其后孙的情况。这一现象与以上探讨的贯籍的变化情况同样被视为对高句丽出身的认识到了后代越来越模糊的一个证据。但下列纪录中表明这一现象还出现在属于第一代遗民的人们之中。

D-1. “公諱軍 … 其先與華同祖 永嘉末 避難遼東 因遂家焉。” <禰軍 墓誌>

-2. “公諱質 … 青丘日域 聳曾構而凌霄 滄海谷王 廓長源而繞地。白狼餘社 箕子之苗裔寔繁 玄驚殊祥 河孫之派流彌遠。” <高質 墓誌>

19) 这里看到的无名都督府是熊津都督府。

20) 从这一点来看，故人的墓志上看到的“公諱慈字智捷朝鲜人也”应视为指的是《高慈墓志》的朝鲜人是辽东郡属下的朝鲜人。这从其父高质墓志上标注的“公諱质字性文辽东朝鲜人也”得以确认。

21) 註 4 參照。

22) 为显示亡者为蕃国出身的相关内容可从高玄(“本州都督”)、高慈(“本蕃”)、泉献诚(“本国”)、扶余隆(“蕃国”)、黑齿常之(“本国”)、陈法子(“本邦”)等多个墓志上发现。

23) 以下的两项纪录记述了唐仪凤2年(677)将宝藏王封为辽东都督，并将其派往安东都护府的事实。对此《旧唐书》纪录中有纪录为“安东”的部分，到了《资治通鉴》的纪录则更改为“辽东”。尽管是后代的纪录，但对于刘仁轨的回国将其纪录为百济故地“熊津”，而高句丽的故地“安东”则纪录为“辽东”。

- 3. “君諱足酉 … 族本殷家 因生代承. 昔居玄菟 獨擅雄蕃 今罄口誠 特隆殊寵.” <高足酉 墓誌>
- 4. “君諱元慶 其先卽黃帝之宗也 扶餘之亦類焉. 昔伯仲枝分 位居東表 兄弟同政 爰國臣韓 妙以治民之難 因爲姓矣.” <難元慶 墓誌>

祢军是胁迫义慈王使其降服于唐军的百济将领，高质为平壤城陷落以前归附于唐的高句丽将领，高足酉也属于这类人物。据了解，他们的死亡和墓志建造时期如下。祢军为678年，高质为697年(墓志建造年度为700년)，高足酉为695년(墓志建造年度为696年)。他们是高句丽和百济人中进入唐的第一代遗民。

祢军的出生地标注为熊津岬夷人，而对其家族履历则标注为“其先与华同祖”。虽然未标注具体的人物，但却将家系按中原出身来标注²⁴⁾是令人关注的部分。在这里可以发现到此前的研究中指出的高句丽遗民欲将自身与中原名门“渤海蔭人”即渤海高氏扯上关联同样的情况。此外，还称高质为“箕子之苗裔寔繁玄鑿殊祥河孙之派流弥远”。²⁵⁾ 这里的“箕子”和“河孙”是将移居到东方的古代中国人的代表箕子和高句丽的建国神话²⁶⁾关联在一起的。将家系的起源视为箕子，即与殷国相关联的情况可在高足酉的情况也得到确认。从“族本殷家”的句子也可得知。²⁷⁾

以上D的纪录显示出第一代遗民中至少有3人的墓志家系起源与中原是有关联的。由此可知，很难以家系与中原相关联的现象为依据来断定对高句丽出身的认识越到后代越模糊的这一推论。而且也无法将这一家系的假托现象视为欲隐瞒其高句丽或百济出身这一事实。²⁸⁾ 在高质和高足酉的墓志上就家系的起源提及了箕子和殷，同时还与高句丽也有关联。这一情景可在注明其出身为黄帝和扶餘的两个出处的D-4的百济遗民难元庆的墓中发现。虽然确实是强调了与中原的关联性，但也并非忽视其高句丽或百济出身。从而，在遗民墓志中将家系起源与中原相关联的现象是在初期就已有的现象。

那么这一情况源于哪种背景呢？笔者认为这是源于归附于唐的异民族中较为普遍存在的生存战略的肯能性较大。根据涉及唐与突厥关系的研究，在突厥的第一帝国灭亡的630年代在唐首都长安生活的突厥人多达数千家。因为是获得批准居住在长安的人们，他们在突厥内的地

24) 这样在初期模糊地表示其祖先与中国同样祖先的祢氏一家的第三代祢仁秀的墓志上就更具体地称其为后汉的祢衡(권덕영, 2012 「백제 유민 禰氏 一族 묘지명에 대한 斷想」『史學研究』105)。

25) 墓志后半部的铭文中“箕子八条奄有清辽河孙五族遂荒蟠木”的句子与其有关联。

26) 閔庚三, 2009 「중국 洛陽 新出土 古代 韓人 墓誌銘 연구-高質 묘지명을 중심으로-」『新羅史學報』15.

27) 此前的研究对于这一部分认为，该部分应按“其家人本出生于名门”(李文基, 2000前面的文章)或“富足之家”(拜根興, 2001 「高句麗 遺民 高足酉 墓誌銘」『中國史研究』12)来解释，但从文脉上却难以如此解释。这可从高质的事例得到认证。

28) 这一现象可从唐代代表性遗民集团之一的粟特人的墓志上得到确认(李相勳, 2009 「唐代 소그드인의 自己認識과 政治參與 樣相-墓誌銘을 중심으로-」『서울대 東洋史學科論集』3)。此外，从该文多次引用的突厥人的墓志中发生的现象这一点，可将其视为在中原定居的异民族的生存战略之一。因此，在墓志纪录中最恣意的记述就属于这种情况，从而可推断出这一主张难以得到唐的认可。这可参考强调渤海高氏后裔的北魏时代高肇的事例。

位和为唐立下的功劳并不简单。

归附的高句丽、百济将领如面对的唐社会是这样的地方，如不是高句丽、百济社会内地位较高的人是难以得到身份的认可的，而且在唐社会内难以凸显其存在感。从这一点来看，亡者本身或其祖先为唐立下功劳的内容无法与泉男生一家的²⁹⁾相比的大部分遗民，为在唐社会内牢固其在社会的地位对于有些造假并不太在意的可能性较大。从这里可以了解到自称为箕子的后裔，并凸显其历史悠久的家族的原因应源于此。

29) 据男生的曾孙《泉愷墓志》，他仅在2岁时已被封为“淄川县开国男”，而且还立即被进封获得了400户的食邑。官职经鸢骑尉、太墓斋郎和宣德郎，但却在22岁夭折了。通过墓志序言可知先祖泉男生和猷诚的功勋至少给泉愷一代起到了影响。

高句丽·百济遗民墓志的记述方式

—家系和出身地的记载与其意义

李成制（东北亚历史财团）

一般认为，高句丽和百济遗民墓志的出自记载是反映墓主认同的信息。不过，之前没有人充分探讨这一信息的准确与否。墓志毫无例外地记录墓主属于哪一家系或哪里出身等信息。不过，期间学界并没有充分检讨这些信息如何撰写，并以此为基础研究遗民认同问题。

唐朝官吏墓志一般按照墓主家属或亲戚向朝廷提交的行述而制作。行述旨在记述故人经历和业绩而获得朝廷肯定。以此为基础撰写的墓志很可能在内容和形式方面受到一定的影响。此外，《唐会要》记载有根据行述而撰写实录的个人传记。可见，官人的行述被视为公共记录。同时，制作墓志离不开与书家、石工等第三者的合作。所以，即便墓志的记载在内容属于隐私也应视为带有公共色彩。加上，遗民因为是异族也是将降，因而一直对主流社会的评价非常敏感。所以我们很难说，他们的墓志自由地表现出自我认同。基于这样的观点，比较泉男生的墓志和列传的内容，发现两者使用同样的资料，即家属向唐朝提交的行述。

墓主的出自记载从表示祖先开始，有的像“泉男生墓志”那样详细描述，还有的像“高足酉墓志”那样半句不提。前者强调，泉男生出身于左右高句丽国政的家族，他的归附导致高句丽最终灭亡。相反地，后者只讲他作为唐朝名将做了些什么。可见，遗民考虑在包括家系的墓主经历中哪些内容能够获得唐朝的肯定而做战略性选择，这是墓志记载内容出现差异的原因。

此外，出身地是来源的主要内容之一，依照一定的格式撰写。因为遗民是亡国入唐的臣民，所以为提到他做官的由来和历任的官衔而需要谈及他离开家乡安置到现在居住地方的来龙去脉。因此，一般同时记载家乡和新的籍贯而显示出身地的变化过程，也有的仅写其中之一。为了突出墓主的业绩，墓志采取不同的记述方式。与仅写家乡的泉男生不同，作为蕃将立下汗马功劳的高足酉和黑齿常之的墓志则记载了出身地的变化情况。这一点就证明上述内容。

另外，把墓主的出身地描述为“辽东郡平壤城人”或“熊津岬夷人”，等于显示故人出身于哪些地区。这是遵循“都督府+地区”的记载方式。例如，从唐朝具有代表性的遗民集团突厥人的墓志中，我们能够找到同样的记载方式。

部分墓志把祖先的来源追溯到中国传说中的人物或名人，自称为其后裔。这种现象在第一代移民中能够发现，在突厥人和粟特人中也有类似的现象。所以，这与其说是籍贯认识的变化，不如说是他们作为异民族入唐定居的生存战略。

高句麗・百濟遺民墓誌の記述方式

- 家系と出身地の記載とその意味 -

李成制（东北亚历史財団）

この間、高句麗・百濟遺民墓誌の出自記録は彼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示す資料と理解されてきた。しかし、資料の性格に対する検討が先行した訳ではなかった。墓誌にはほとんど例外なく亡者がどの家系に属していて、出身地がどこ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のだが、この間の研究はこれらの記録がいかなる方式にて作成されたものであるかを検討せずして遺民の系譜認識を取り扱ってきたと言える。

唐代の官人たちの墓誌は大概亡者の家族か縁故者が朝廷に提出した行状を土台に制作された。行状の目的は死者の履歴を明らかにして、その活躍した様子を唐朝廷から評価されることにあっただけに、これを典拠とした墓誌の記述内容の特徴もここに由来した可能性が高い。更に行状を根拠に実録の個人伝記を作成したという『唐会要』の記録から見ても、官人の行状は公的な記録物として取り扱われたことが分かる。また墓誌の制作のためには書家・石工など第三者の関与が不可避だった。従ってその記録内容は私的なものとは言え、公的な性格と帯びた資料として理解するのが正しい。更に遺民は常に主流社会の視線を意識せざるを得ない異族であり降将だった。彼らの墓誌に対しアイデンティティなど自意識を自由に示すことができる記録とは見なし得ない理由がここにある。このような視角から泉男生の墓誌と列伝を比較した結果、二つの記録は同一の典拠を利用し、それが一族が唐朝廷に提出した行状であったことが確認できる。

墓主の出自は先代を明らかにするものとして始まるが、『泉男生墓誌』のように詳しく記述することもあるが、『高足西墓誌』のようにその系譜をあえて言及しないケースもある。前者は彼が高句麗の国政を左右した家門の出身で彼の投降で高句麗が崩壊したという事実を強調している。一方高足西のものは唐将帥としての活躍の様子のみがその履歴を彩る。このことに鑑みて系譜を含む亡者の履歴の中でいかなる内容が唐朝廷の評価を更に受けるかということを検討した遺民たちの戦略的選択があり、それゆえ墓誌の中で記述内容が異ってくるのがわかる。

また出身地は出自を構成する主要要素の一つとして一定の様式に基づいて作成された。遺民は亡国によって唐の臣民として編入されたために、本籍を離れ現在の居住地に定着した経緯は就官の由来と歴官を言及するため是非とも必要な内容だった。それゆえ本籍

と新しい貫籍を記載し出身地の変化を見せるのが通例だったが、二つのうち一つのみを記載したケースもうかがえる。

この違いは亡者の活躍の様子をいかに浮き彫りにするかを考慮した方策の違いによって生じた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本籍のみを言及した泉男生のものとは違い、藩将として活躍した高足西や黒齒常之の場合は出身地の変化の様子を記載した事実でもこれは明らかだ。

一方墓主の出身地を「遼東郡平城城人」であるとか「熊津嶋夷人」と記述したのは亡者がどこの所属地域出身であるか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都督府+地域」という記載方式によるものだ。これは唐代の代表的な遺民集団であった突厥人にも同じ記述を見出せることで確認できる。

一部墓誌には先祖の起源を中国の伝説上の人物か有名人に置き、その子孫であることを自任したケースがある。このような現象は遺民一世代においても発見されており、系譜認識の変化と見なすことができない。それよりも突厥人とソグド人にも同一の現象が見られる点から異民族として唐に定着するに至った彼らの生存戦略だったと理解できる。

入唐高句麗人的出自考察

- 兼釋李隱之、李懷父子墓誌

葛繼勇（鄭州大學）

入唐高句麗人的出自考察

- 兼釋李隱之、李懷父子墓誌

葛繼勇 (鄭州大學)

前言

最近，伴隨著入唐高句麗人、百濟人的墓誌在中國發現，有關古代朝鮮半島出身者的國際遷徙，越發受到學界的關注。此研究領域的集大成者，當數拜根興先生《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該書出版後，受到了各國學者的關注和重視。筆者也撰文介紹拜著到日本學界¹⁾，並嘗試對相關墓誌進行了初步研究²⁾。

目前，對於入唐高句麗人、百濟人的稱謂，韓國學者多使用“遺民”一語，國內學者早先也不加辨別地使用。“遺民”，乃是對本國（或王朝）滅亡後仍自稱本國（朝）人的稱謂，側重梳理的是該人（集團）對本國（朝）的歸屬意識以及所持有的本國（朝）文化體系，比如廣為人知的赴日明遺民朱舜水。但是，入唐的異族人在唐生活不久後，多強化與華同祖的歸屬意識；又因自身文化水準發展滯後，故舊有的文化體系多被中華文化沖散淹沒，多以蕃將的身份活躍于唐土。因此，使用“遺民”并不妥當。³⁾

在《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一書中，拜先生使用“移民”，令人耳目一新。不過，“移民”屬於近代新造詞彙，側重探討該人（集團）的位置移動以及在遷徙地開創新生活的過程。例如，古代移居日本的中國人多因擁有先進文化知識，故被日本朝野尊崇，委以重任。他們甚至被賜姓改名，但仍被標註“唐人”出身；雖在日為日本文化的發展做出了很大貢獻，但其自唐至日的位置移動的歷程及動因卻未見史料記載。因此，從事赴日唐人研究時，不僅關注他們移居日本的移動過程和生活狀況，更為重要的是梳理他們原本所擁有的文化知識、技藝能力和生活習俗，以及這些知識和技能如何發揮作用，或者這些習俗如何影響異域的歷史本原軌跡。⁴⁾故籠統地使用“移民”一語似乎也不準

1) 葛繼勇《書評 古代中韓關係史研究の新たな視角：

拜根興『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によせて》（《史滴》（東京）34號，2012年12年）。

2) 葛繼勇《新出高乙德墓誌與高句麗末期的內政外交》（《韓國古代史研究》（首爾）79號，2015年9月）

、葛繼勇《從高句麗・百濟人墓誌看高句麗末期的對外關係》（《東洋學》（首爾）58號，2015年1月）

、葛繼勇《祿軍墓誌の発見と研究課題》、《日本歴史》（東京）804號、2015年5月）。

3) 葛繼勇《書評 古代中韓關係史研究の新たな視角：

拜根興『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によせて》（《史滴》（東京）34號，2012年12年）。

4) 葛繼勇《七至八世紀赴日唐人研究》，北京：商務印書館，2015年。

確。

從“遺民”到“移民”的用語變遷，雖然標誌著研究重點的挪動位移、研究方法的開拓創新，但仍需要進一步探索，尋求更爲恰當的學術用語。最近，在從事赴日中國人研究時，筆者嘗試使用“赴日唐人”，尋求東亞諸國通識認可的用語。因此，對入唐的高句麗人（百濟人），可稱之爲“入唐高句麗人（百濟人）”。

在此想探討的是，入唐高句麗人的出自問題。也就是說，如何來判斷一個人的出身所屬或移居的地方是否爲高句麗、是否在唐代自高句麗移居中原地域等問題。若不加辨別地把與移居遼東一帶的人均視爲高句麗人，未根據時代及其地理疆域進行剖析梳理，對入唐高句麗人的人數統計則會出現差異。

一、入唐高句麗人的出自考察

至今爲止發現的入唐高句麗人墓誌中有關出自的記載，可以整理如下：

（一）朝鮮人、高句麗人

（1）“公諱慈，字智捷，朝鮮人也。先祖隨朱蒙王平海東諸夷，建高麗國，己後代爲公侯宰相。……父文，本藩任三品位頭大兄兼將軍。預見高麗必亡，遂率兄弟歸款聖朝。”（《高慈墓誌》，高質之子）

（2）“君諱獻誠，字獻誠，其先高句驪國人也。”（《泉獻誠墓誌》）

（3）“君諱男產，遼東朝鮮人也。……屬唐封遠暨，漢城不守，貂弓入獻，楛矢來王。君以總章元年，襲我冠帶。”（《泉男產墓誌》）

（4）“公諱質，字性文，遼東朝鮮人也。……乃攜率昆季，歸款聖朝。”（《高質墓誌》）

其中，（1）不僅出現了“朝鮮人”，而且還記載其祖先就任高句麗公侯宰相。（2）中明確記載為“高句驪人”。其中，高慈之父在唐征伐高句麗時歸降唐朝，泉獻誠則隨其父泉男生歸降唐朝。（3）與（4）均記載為“朝鮮人”。其中，高質為高慈之父。

（二）國內城、平壤城等高句麗統治地域人。

（1）“夫人諱提昔，本國內城人也。……往以貞觀年中，天臨問罪，祖乃歸誠款塞，率旅賓庭。”（《高提昔墓誌》）

（2）“公姓泉，諱男生，字元德，遼東郡平壤城人也。”（《泉男生墓誌》）

（3）“君諱玄，字貴主，遼東三韓人也。……棄其遺氓，從男生而仰化。慕斯聖教，自東徙而來王。”（《高玄墓誌》）

（4）“君諱他仁，本遼東柵州人也。……公辯亡有預，見梁水之一星，處須知歸，識魏軍之百日，遂率所部，效款轅門。”（《李他仁墓誌》）

(5) “越滄波、歸赤縣，漸大化，列王臣，顛顛焉即高將軍韞之矣！公諱足酉，字足酉，遼東平壤人也。乃效款而往，遂家於洛州永昌縣焉。”（《高足酉墓誌》）

上述七人墓誌記載為“遼東（郡）某某（高句麗統治的城、州）人”的出身，明確標示為高句麗人。

其中，高提昔祖父于貞觀年間率軍歸降唐朝，高玄則隨泉男生降唐。李他仁在唐李世績征伐高句麗時歸降唐朝。高足酉也是在唐征伐高句麗時歸唐。

（三）遼東人、安東人

(1) “君諱，字，遼東人也。族高辰、卞，價重珣、琪。……背滄海而來王，仰玄風而入仕。”（《高鏡苗墓誌》）

(2) “君諱牟，字仇，安東人也。族茂辰韓，雄門譽偃。……候青律以輪誠，依白囊而獻款。”（《高牟墓誌》）

其中，雖然僅記載“遼東人”“安東人”等內容，但前者載有“族高辰（韓）、卞（韓）”，後者記載“族茂辰韓”。而且二人均在唐伐高句麗時投降唐朝。因此，上述二人為高句麗人當無疑問。

（四）渤（勃）海人

(1) “公諱欽德，字應休，勃海人也。曾祖瑗，建安州都督。祖懷，襲爵建安州都督。父千，唐左玉鈐衛中郎。”（《高欽德墓誌》）

(2) “公諱震，字某，渤海人。……祖藏，開府儀同三司、工部尚書、朝鮮郡王、柳城郡開國公；禰諱連，雲麾將軍、右豹韜大將軍安東都護。公乃扶餘貴種，辰韓令族。”（《高震墓誌》）

(3) “夫人姓高氏，渤海人也。……曾祖，皇朝韓王。祖諱連，皇封韓王。父震，定州明驛。”（《高氏墓誌》，高震之女）

其中僅記載為“渤（勃）海人”，但（1）記載“曾祖瑗，建安州都督。祖懷，襲爵建安州都督”，故可知其祖、父二人曾入仕高句麗。（2）記載高震為“扶餘貴種，辰韓令族”，且為高句麗王高藏之孫。（3）誌主為高震之女，是為入唐高句麗人第四代。

（五）中國內地郡縣出自

(1) “諱毖，字孟堅，京兆萬年人也。曾祖特進、卞國襄公男生；祖左衛大將軍、卞國莊公獻誠；父光祿大夫、衛尉卿、卞國公隱。”（《泉毖墓誌》）

(2) “君諱遠望，字幼敏，先殷人也。時主荒漚，攻惟暴政。崇信奸回，賊虐諫輔。比幹以忠諫而死，故其子去國，因家於遼東焉。”（《高遠望墓誌》，高欽德之子）

- (3) “君諱善富，字暉，其先扶風平陵人也。……六世祖步蕃，西魏將，鎮河曲，爲北齊神武所破，遂出奔遼海，後裔因家焉，爲豆氏。皇唐征有遼之不庭，兵戈次玄兔之野，君考夫卒慕遠祖融河外納款，遂斬九夷列城之將，稽顙旌門。”（《豆善富墓誌》）
- (4) “公諱景曜，字明遠，其先太原人。……公之遠祖，避難海東。自乎唐初，龍飛在天，公之父焉，投化歸本。亦由李陵之在匈奴，遂作匈奴之族；蘇武之歸於漢，即爲漢代之臣。公之族代播遷，亦其類也。聖主嘉之，賜第京兆，今爲京兆人也。……父排須，皇朝贈安東副大都護。”（《王景曜墓誌》）
- (5) “府君諱德，字元光，其先渤海人也，漸離之後。……府君先代，避難遼陽，因爲遼陽世族。自隋原鹿走，唐祚龍興。廓四海而爲家，奄八紘而取俊。府君祖宗，戀恩歸本，屬乎仗內，侍衛紫宸。方李陵之在匈奴，遂作匈奴之族；比蘇武之還漢代，長爲漢代之臣。乃祖乃父，有孝有忠，勤勞王家，多曆年所。”（《高德墓誌》）
- (6) “君諱木盧，渤海蔭人也。……君之遠祖，避難海隅。暨我皇唐，大敷淳化。君乃越溟渤，歸桑梓。”（《高木盧墓誌》）
- (7) “故饒陽郡王諱單德，字單德，昔魯大夫蒯之後，容之裔也。公生居平壤，長隸遼（遼）東。時夔曾祖行軍大總管平陽公環甲先驅，隳拔城邑，生擒其王莫麗支，斬首獲俘，不可勝計。因此分隸遼東，子弟郡縣散居。公之家，子弟首也，住安東。”（《南單德墓誌》）

其中，(1) (2) 的誌主分別爲高句麗人泉玄隱之子（泉男生之曾孫）、高欽德之子。故二人可謂入唐高句麗人第四代。

(3) 記載，其祖先原爲中國內地出身，六世祖豆步蕃後避難海東。父高夫卒在唐進攻高句麗時入唐。(4) 記載，其祖先原爲中國內地出身，後避難海東。父王排須在唐進攻高句麗時入唐，死後被贈予“安東副大都護”之職。(5) 記載，高德祖先原爲渤海出身，後避難遼陽。其祖宗（祖父）“戀恩歸本”入唐。其中的“渤海”爲內地渤海郡（今河北滄州）。

(4) (5) 均提到了李陵入籍匈奴和蘇武還漢爲臣之事，藉以指代王景曜、高德祖先入籍高句麗，後二人父親歸降唐朝爲唐臣之事。二人可謂中國系高句麗人第二代。

(6) 記載，高木盧祖先原爲中國內地渤海郡出身，後避難海東。在唐“大敷淳化”之時回歸故土。“大敷淳化”當指唐消滅高句麗，實施教化之事。“溟渤”當指渤海，上述《高足西墓誌》也載有“越滄波、歸赤縣”、《高慈墓誌》載“揚帆滄溟，搗戈蠡賊。”“越溟渤，歸桑梓”，表示其越渤海，回歸唐朝之舉。因此，高木盧可謂中國系高句麗人第一代。

(7) 記載，南單德祖先原爲中國內地出身，後入籍高句麗。其本人“生居平壤”“住安東”。關於南氏，宋鄧名世撰《古今姓氏書辯證》卷一東氏條載：“按中國有東、西、南氏，高麗有北氏。必其先皆以方爲氏。”可知，南氏爲中國古姓。從“公生居平壤，長

隸遼（遼）東。……祖狄，皇磨米州都督”來看，至少在其祖父時，全氏一族已入唐，其可謂中國系高句麗人第三代。（表 1、中國出土的唐代高句麗人墓誌情況一覽表）

另外，需要提及李仁德墓誌和似先義逸墓誌。與出自相關的記載如下：

（1）“公曰仁德，族李氏，其先蓋樂浪望族也。自堯臣類馬，周史猶龍，真裔散于殊方，保姓傳於弈代。考甲子，皇贈定州別駕。”（《李仁德墓誌》）

（2）“昔周孝王□□□有酷肖其先者，命爲似先氏，其後或居遼東，或遷中部。武德中，右驍衛將軍英問、□□命□□□□、昭文館學士諶、鴻臚外卿翰，亦其族也。常仕諱義逸，字仁休，處士府君諱鳳榮之孫，隨州長史諱進之第二子。”（《似先義逸墓誌》）

其中，（1）記載，李仁德“其先蓋樂浪望族”，散于“殊方（遠方，異域）”，但何時從樂浪移居中原地區，難以究明。拜根興先生認爲：“李仁德可能是入中原較早的朝鮮半島移民，可能于四世紀初樂浪郡滅亡後大量人士進入中原地區有關。”⁵⁾若李仁德祖先于四世紀初樂浪郡滅亡後進入中原地區，因當時樂浪郡在漢晉統治管轄之下，故李仁德一族不能視爲高句麗人。因此，李仁德及祖先曾居住于高句麗管轄的地域、爲高句麗人的說法，尚難以確定。⁶⁾

至於（2）的似先氏，宋鄧名世撰《古今姓氏書辯證》卷二十一似氏條載“《後魏官氏志》：似先氏改爲似氏。”同書卷二十二似先氏條載：“高麗、扶餘種也。唐武德中有右驍衛將軍似先英問。”（也見於《通志》卷二十九）可知，似先氏出自高句麗。從“其後或居遼東，或遷中部”來看，似先氏入中國在唐之前已有先例。陝西永壽縣永泰鄉出土的北魏造像碑中記載了 4 位、黃陵縣雙龍鄉土的西魏造像碑中記載了 1 1 位姓似先的人名。⁷⁾因此，似先義逸一族雖出自高句麗，但並非唐代高句麗人。⁸⁾

從上述分析來看，入唐高句麗人的第三代、第四代後裔，尤其是開元年間之後製作的墓誌中，均不再出現“三韓”、“朝鮮”、“平壤”等表明高句麗出自的用語，代之而起的是中國內地郡縣出自。究其根源，恐怕是由於入唐高句麗人的第三代及其後裔出生於中國內地，對已經亡國的高句麗認識模糊，祖先所具有的文化體系多被中華文化沖散淹沒，故多強化與華同祖的歸屬意識。當然，這種民族意識，也與當時律令制度有關。《唐六典》卷三《戶部尚書》“凡諸國蕃胡內附者亦定爲九等”條載：“凡內附後所生子，即同百姓，不得爲蕃戶也。”可知，入唐後所生子孫可入籍唐朝，待遇同於內地百姓。

5) 拜根興《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2年6月，第181頁。

6) 葛繼勇《從高句麗·百濟人墓誌看高句麗末期的對外關係》。

7) 金憲鏞、李健超《陝西新發現的高句麗人、新羅人遺跡》（《考古與文物》1999年6期）。

8) 馬詠鐘、張安興《唐似先義逸墓誌考釋》文中絲毫未提及高句麗出身之事。參見馬詠鐘、張安興《唐似先義逸墓誌考釋》（《碑林集刊》第三輯，1995年12月）。

而對於入唐高句麗人的第二代，則由於距離高句麗滅亡不久，且可能會從父輩獲取到相關知識，在強化祖父輩的功勞時，則可能把家族出自的認識也體現到墓誌銘文中去。或因此，目前出現的第二代高句麗人墓誌才會出現高句麗和中國內地郡縣兩種不同的出自。當然，也可能出現從中原內地移居至遼東乃至入籍高句麗後、再次遷移至中原地區的現象。所以，墓誌中所載內容當是該時代對墓誌主人及其祖先的認識，這種認識不能簡單地視爲“捏造”“假冒”。因爲埋在墳墓之中的墓誌，與公開示眾的顯彰文章，在目的乃至本質上是不同的。

此外，中國系高句麗人來說，因祖先出自中國內地，雖曾入籍高句麗，但在回歸唐朝之後，無論是第一代還是第二代、第三代的墓誌中，均不再出現曾爲高句麗人的詞彙內容。這種現象自然與高句麗稱霸朝鮮半島、不願接受唐王朝的華夷秩序的敵對行爲有關。

因李懷父李隱之的墓誌最近被發現，故在此對李隱之、李懷二人的墓誌進行論述。

二、李隱之與李懷父子墓誌所載的家族系譜

李隱之墓誌，樓正豪先生最先撰文予以介紹，中外學界遂得以知曉。據樓文介紹，誌石長 48.5 釐米，寬 53 釐米，二十二行，行滿二十二字，正書。誌蓋篆書“大唐故李府君墓誌銘”，四殺飾鴛鴦及卷草紋；出土時間、地點無法確定，現藏在位於洛陽瀘河區馬坡的洛陽九朝刻石文字博物館中。⁹⁾

由於其長子李懷墓誌出土於洛陽北的南陳莊村。從嫡長子多與父同葬于家族墓區的習俗來看，李隱之墓誌也當出土於南陳莊村一帶。¹⁰⁾2015 年 12 月筆者與李成制先生、余昊奎先生等前往該博物館搜尋時未果，2016 年 7 月 26 日終於在該博物館看到李隱之墓誌實物。現在大家看到的照片，就是當時拍攝的。

《李隱之墓誌》02 行銘文中出現“其先遼東人也”。03-04 行記載，李隱之祖李敬、父李直二人聲名遠播“樂浪”“夫余”兩地。“樂浪”“夫余”均與高句麗地緣關係密切，曾被高句麗攻佔統治。故此處的“樂浪”“夫余”當指代高句麗。04 行載“公猷（厥）海孺之風，慕洛汭之化，重譯納貢，隨牒（牒）受官”，標示李隱之仕唐爲官之事。

李懷墓誌 1928 年出土，現藏河南新安縣千唐志齋，誌石長 54.5 釐米，寬 53 釐米，三十行，行滿三十字，正書，志蓋不存。

《李懷墓誌》03 行載“其先趙郡贊皇人”，05 行中載“因爲遼東人也”。也即李懷

9) 樓正豪《高句麗遺民李隱之家族的出自意識的考察——以新發現的李隱之墓誌銘爲中心》（《韓國古代史探索》21 卷，2015 年 12 月）。

10) 拜根興《新見入唐高麗移民墓誌的新探索》（《洛陽「國際「洛陽學」的再構建」國際學術研討會資料集》，2015 年 12 月，洛陽師範學院）。

祖先原為趙郡人，十二葉祖晉人李敏遷徙至遼東，遂為遼東人。但 05 行載，李敏之孫李胤曾自遼東返回中原，任晉尚書令。而且 06-07 行記載，李懷曾祖李敬在唐太宗征遼時被尋訪，后移居長安。

另外，《李隱之墓誌》13 行載：“嗣子初有，左領軍衛翊府右郎將”。而《李懷墓誌》03 行載“公諱懷，字初有”，13 行載“授左領將軍衛翊府右郎將”。《李隱之墓誌》08 行載：“帝皇悼懷，贈泉州司馬。”而《李懷墓誌》07-08 行載：“（李敬）其子曰直，直生隱之，贈清源郡司馬。公則清源府君之塚子也。”清源郡即為泉州。因此可以確認，李隱之與李懷為父子。因此，可以把李隱之李懷家族的系譜整理如下：（表 1、李隱之李懷墓誌所載家族系譜）

表 1 李隱之、李懷墓誌所載家族系譜

李隱之墓誌			李懷墓誌		
人名	官職·封爵	事跡	祖先	官職·封爵	事跡
			(十二葉祖) 敏	河內太守	移居遼東
			胤	晉尚書令	仕晉，回歸中原
(祖) 敬		因孝德、忠勤聲名遠播于樂浪、夫余地域。	(曾祖) 敬	隋襄平郡從事	太宗征遼返程后不久，赴長安
(父) 直			(祖) 直		
(本人) 隱之	贈泉州司馬	移居中原，就仕為官。享年 51 歲 (655—705)	(父) 隱之	贈清源郡司馬	
(夫人) 劉氏	河間縣君 (封號)	開元十八年去世。享年 86 歲 (654—739)	(母) 太夫人		
嗣子 初有 (懷)	左領軍衛翊府右郎將		(本人) 懷	左龍武軍翊府中郎將 / 東京左屯營檢校 / 雲麾將軍	享年 68 歲 (678—755)
			(夫人) 劉氏	太原縣君 (封號)	享年 47 歲 (684—730)
仲子 懷德	左驍衛翊府右郎將				
季子 懷敏	代州陽武鎮將				
			(子) 智通	西河郡開遠府別將	

從上述表格可知，二人墓誌出現了如下的問題：（1）《李隱之墓誌》記載李隱之“慕洛汭之化”，移居中原；而《李懷墓誌》李懷曾祖李敬舉家隨唐太宗赴長安。（2）《

李隱之墓誌》和《李懷墓誌》記載李隱之、李懷祖先為“遼東人”。對於“遼東”的解釋，有學者把李隱之和李懷視為高句麗人。¹¹⁾

從時間是來看，《李隱之墓誌》(739年)的製作時間早於《李懷墓誌》(745年)。不過，《李隱之墓誌》乃李隱之夫婦合葬墓誌，而非李隱之神龍元年(705)去世時製作的。《李懷墓誌》雖成立時間在後，但為墓誌主人去世后立即製作、專述本人事跡之物，故不能簡單否定其史料性。應該考梳整理，論證辨析，結合歷史事實，得出合理的闡釋。

三、李氏一族最先移居遼東考辯

關於《李懷墓誌》出現的李敏，《晉書》卷四十四李胤傳載：“祖敏，漢河內太守。去官還鄉里，遼東太守公孫度欲彊用之。敏乘輕舟浮滄海，莫知所終。胤父信追求積年，浮海出塞，竟無所見。”可知，李胤祖李敏浮海出塞，去向不明。其父李信曾浮海出塞尋找，但不獲而終。樓文認為李敏“越過黃海移住三韓”¹²⁾，但不知何據。當時被公孫度忌憚的名士如劉政，多是浮海逃至山東東萊（《三國志·魏書》卷十一邴原傳）。

關於李敏浮海出逃，《三國志·魏志》卷八公孫度傳載：“故河內太守李敏郡中知名，惡度所為，恐為所害。乃將家屬入于海。度大怒，掘其父冢，剖棺焚屍，誅其宗族。”可知，李敏浮海出逃時曾攜帶“家屬”，“其宗族”被誅殺。但至少李敏子李信等存世。

從上述遼東太守公孫度“掘其父冢”、“誅其宗族”來看，李敏父及其宗族在此之前已居留于遼東。《新唐書》卷七十二《宰相世系表》遼東李氏條載：“璣少子齊，趙相，初居中山。十三世孫寶，字君長，後漢玄菟都尉，徙襄平。生雄，車騎長史。生亮，字威明，原武令。生敏，河內太守。生信，生胤，字宣伯，晉司徒、廣陸成侯。生固，字萬基，散騎侍郎。”據此可知，遼東李氏始祖為後漢人李寶，因擔任東漢玄菟都尉，而遷徙襄平。但從李寶孫李亮擔任原武（今河南原陽）令來看，遼東李氏部分家族又回歸了中原。不過，從公孫度“掘其父冢”來看，李亮去世后埋葬于遼東。李敏去官后，或如父李亮一樣，回到了故土——公孫度控制的遼東。

《李懷墓誌》03—04行所載：“昔晉氏乘乾，遼川塵起，帝欲親伐，實要□□。○公十二葉祖敏為河內太守，預其選也。克滅之後，遂留拓鎮，俗賴其利，因為遼東人。”樓文考證指出，“晉氏乘乾，遼川塵起”指代的是司馬懿238年率軍攻滅公孫淵之事。¹³⁾筆者讚同此說，《李懷墓誌》25行銘文中“晉氏東伐，隨軍桑沼”，當與此呼應。若《李懷墓誌》所載與樓文考證均無誤，則可以這樣理解：或因喪父而去官回歸故土遼東的李敏被公孫度逼迫，浮海出逃，回至中原；或因熟悉遼東情況而被曹魏王朝及司馬

11) 樓正豪《高句麗遺民李隱之家族的出自意識的考察——以新發現的李隱之墓誌銘為中心》。

12) 樓正豪《高句麗遺民李隱之家族的出自意識的考察——以新發現的李隱之墓誌銘為中心》。

13) 樓正豪《高句麗遺民李隱之家族的出自意識的考察——以新發現的李隱之墓誌銘為中心》。

氏看重，并委以重任，引導司馬懿大軍攻滅公孫淵，遂留遼東開拓疆土，成爲遼東人。

從《晉書》卷四十四李胤傳載“李胤，字宣伯，遼東襄平人也”來看，其祖父李敏應該定居在遼東襄平。因此，《李隱之墓誌》《李懷墓誌》中出現的“遼東人”應該指代的是“遼東襄平人”。

《李隱之墓誌》02行記載：“晉尚書令胤，即其枝類。”《李懷墓誌》05行所載：“至孫胤，舉孝廉，仕至河南尹，加特進，遷尚書令，晉之崇也。”據此可知，李敏孫李胤也曾返回中原，仕晉，得到司馬氏的厚遇。也就是說，李寶一族移居遼東襄平之後，孫李亮（原武令）、曾孫李敏、五世孫李胤等返回中原，仕漢晉王朝。¹⁴⁾

另據《晉書》卷四十四李胤傳載爲“（信）既生胤，遂絕房室，恒如居喪，禮不堪其憂，數年而卒。……（李胤）三子固、真長、脩。固字萬基。散騎郎、先胤卒。固子志，嗣爵。志字彥道，歷位散騎侍郎、建威將軍、陽平太守。真長，位至太僕卿。脩，黃門侍郎、太弟中庶子。”故可知，李胤父李信爲李敏獨子，李胤三子均仕晉。因此，漢晉之際，李隱之、李懷一族的祖先並沒有逃亡高句麗統治的地域，沒有其成爲高句麗人的史料及墓誌銘文記載。

根據上述分析，李隱之一族的系譜整理如下：

李璣（戰國）——李齊（趙相）……十三世孫李寶（後漢玄菟都尉，徙襄平）——李雄（車騎長史）——李亮（原武令）——李敏（晉河內太守）——李信——李胤（晉尚書令）——□□——□□——□□——□□——□□——□□——李敬（隋襄平郡從事）——李直——李隱之（唐贈泉州司馬）——李懷（左龍武軍翊府中郎將）——李智通（西河郡開遠府別將）

需要指出的是，《李懷墓誌》記載，李隱之家族最早遷居遼東的是魏晉時期的李敏，而《新唐書》卷七十二《宰相世系表》遼東李氏條載爲後漢人李寶。不過，李敏、李信、李胤三人的忠勤、孝德事跡，晉王隱《晉書》、唐房玄齡《晉書》等曾特別記錄，故當時即已經名留於世。因此，在重視孝德、忠勤的古代王朝，尤其是在墓誌的撰寫者心裡，晉人李敏的活動和影響力要高於後漢人李寶。因此，《李懷墓誌》記載李隱之家族最早遷居遼東的是魏晉時期的李敏，并非是捏造、混亂或杜撰。

四、隋唐時代李氏一族的遷徙

關於李隱之祖先在晉之後的活動，兩方墓誌以及史籍文獻中均無相關記載。隨後出現

14) 《北史》卷四十五李元讓傳載：“遼東襄平人，晉司徒胤之八世孫也。胤子順、璠及孫沉、志皆有名宦。沉孫根仕慕容寶，爲中書監。根子後智等隨慕容德南渡河，居青州。數世無名，三齊豪門多輕之。”可知，李胤還有子順、璠，曾孫後智等越海遷徙至青州。

的是李敬。《李懷墓誌》06行載：“曾祖敬，隋襄平郡從事。”可知，李懷的曾祖敬仕隋，任襄平郡從事。樓文認為，高句麗佔據遼東，襄平（遼東城）不在隋朝的管轄範圍，李敬的官職“隋襄平郡從事”是將高句麗官職按照隋代同級官職的名稱改寫而來的。¹⁵⁾

但是，根據譚其驤《中國歷史地圖集》繪製的隋大業八年（612）遼西諸郡圖來看，當時遼東郡和遼西郡都不在高句麗的管轄之內。遼東郡治所為位於遼河西岸的武厲邏城，非隸屬於高句麗的遼東城（今遼陽市）。

隋大業八年（612）遼西諸郡圖



漢晉之際的襄平郡，的確位於遼東城（今遼陽市）。5世紀之後，遼東城也確實被高句麗攻佔。但是，高句麗攻佔之後，北朝歷代僑置郡縣，在遼西一帶設立原位於遼東的郡縣。同時，也大規模地遷徙遼東居民，安置于遼西一帶乃至中原內地。至隋也不例外。

《隋書》卷八十一高麗傳載：“大業七年，帝將討元之罪。車駕度遼水，上營於遼東城。分道出師，各頓兵於其城下。……於是班師。是行也，唯於遼水西拔賊武厲邏，置遼東郡及通定鎮而還。”可知，大業七年隋煬帝征遼，曾至遼東城。班師回朝時，于遼水西攻佔武厲邏城，置遼東郡及通定鎮¹⁶⁾。也就是說，隋遼東郡僑置于大業七年¹⁷⁾。

《舊唐書》卷五十六羅藝傳載：“藝黜柳城太守楊林甫，改郡為營州，以襄平太守

15) 樓正豪《高句麗遺民李隱之家族的出自意識的考察——以新發現的李隱之墓誌銘為中心》。

16) 馮永謙《武厲邏新考》（《東北史地》2012年01、02期）。

17) 《資治通鑑》卷一九七載胡三省註曰：“通定鎮在遼水西，隋大業八年伐遼所置。”把通定鎮的設置記載為大業八年。

鄧曷爲總管。”（也見於《資治通鑑》卷一八三隋煬帝大業十二年（616）十二月條）可知，隋末，襄平郡爲隋所管轄，鄧曷爲隋任命的郡太守。據《資治通鑑》卷一八三隋煬帝本紀下收錄胡三省註曰：“《隋志》：柳城縣帶遼西郡與襄平郡，蓋皆帝所置。改郡爲州，示復開皇之舊也。”同書卷一八六唐高祖武德元年（618）十二月條載：“丁酉，隋襄平太守鄧曷以柳城、北平二郡來降，以曷爲營州總管。”胡三省注曰：“隋置襄平、柳城郡，皆在遼西郡柳城縣界。”可知，襄平郡乃隋帝設置于遼西，在柳城縣界。

因此，李敬的官職既然是隋設置的襄平郡從事，應該在隋朝的管轄範圍，爲隋王朝所任命。

《李懷墓誌》06-07行所載：“太宗東幸海關，訪晉尚書令李公之後，僉曰末孫敬在。帝許大用。盡室公行，爰至長安。”文中“海關”，當指臨渝關（今山海關）。《隋書》卷八十一高麗傳載，開皇十八年征遼時，“師出臨渝關，復遇疾疫，王師不振。及次遼水”。可知隋軍也曾至臨渝關，后到達遼河。同書卷七十八庾質傳載：“（大業）八年，帝親伐遼東。徵詣行在所，至臨渝謁見。”可知，隋煬帝也曾至臨渝關，住臨渝宮。

唐太宗行幸海關（臨渝關），也見諸史籍。《舊唐書》卷三太宗本紀下載：“（貞觀十九年）九月不尅，乃班師。冬十月丙辰，入臨渝關。皇太子自定州迎謁。”因此，《李懷墓誌》載唐太宗征遼時，尋訪到晉尚書令李胤之後李敬，也符合史實。

《李隱之墓誌》02-03行載“祖敬、父直，或孝德動天，馳名於樂浪；或忠勤濟物，譽表於夫餘”。除《李懷墓誌》所載李敬曾任隋襄平郡從事之外，未見李直的任官。其實，李隱之的任官情況也未見墓誌記載，從其死後被贈予從五品下的“司馬”來看，李隱之生前也非顯赫于時。李直事跡不詳。但從上述記載“盡室公行”的內容來看，李敬舉家全部遷徙至長安。故其子李直應同行移居長安。又因李敬“爰至長安，未貴而沒”，故子李直依據父蔭而擔任高官的可能性較小。

其次，據《李隱之墓誌》記載，其於705年去世時51歲，可知李隱之生於655年，唐太宗貞觀十九年（645）十月征遼返程時，其尚未出生。其父李直年齡不詳，李直若任官，估計也在九品官“郡從事”之下。如其父李敬一樣，雖具備“馳名於樂浪”、“譽表於夫餘”的地理條件，但也難以具備相應的身份和地位。

因此，上述“或孝德動天，馳名於樂浪；或忠勤濟物，譽表於夫餘”記載，與其說表明李敬、李直二人在唐太宗征伐遼東之前于襄平一帶的活動，倒不如說表述李胤及其父李信的孝德、任官等在遼東一帶的影響。《李隱之墓誌》20行載“司馬令德，來從異域”，顯然與03-04行中的“或孝德動天，馳名於樂浪；或忠勤濟物，譽表於夫餘”相呼應。因此，“司馬令德”應該指代被贈予“泉州司馬”李隱之家族的美德。也就是說，李胤家族的孝德、任官等在遼東一帶的聲名影響，遠播樂浪、夫余等當時高句麗統治的異域。

在此，也需要指出的是，《李隱之墓誌》載“公馱（馱）海孺之風，慕洛汭之化，

重譯納貢，隨牒（牒）受官”，標示李隱之入唐之事。“海墻”，即海邊地，亦泛指沿海地區。“洛汭”，即洛水之汭，泛指中原地域。從神龍元年（705）卒時五十一歲來看，李隱之出生於永徽六年（655），具備“狀（厥）海墻之風，慕洛汭之化”的學識能力應該在 15 歲前後。因此，李隱之自移居中原、“隨牒（牒）受官”，應該在 668 年高句麗亡國之後。因此，或可以這樣理解：李敬一族雖在唐太宗時被尋訪，“許大用”，但舉家遷徙至內地，在高句麗滅亡之後。而此時，由於太宗去世，李敬“未貴而沒”，其子李直、孫李隱之也未能仕任高官。

因此，《李懷墓誌》25-26 行載“高宗左眄，曜武襄平，搜訪遺逸，攜手同行”的“高宗”，或許並非樓文認為的“太宗”之訛。¹⁸⁾應該揭示了李敬、李直和李隱之至長安的時間在唐高宗消滅高句麗之後。

綜上可知，根據目前的資料，還不能明確判斷其出身于高句麗。不過，不論是《新唐書·宰相世系表》還是《晉書·李胤傳》，其中都記載遼東李氏一族雖然就仕中原王朝，但致仕后大都返回遼東居住。古代中原人移居遼東并在其後回歸中原的現象有待進一步深入探討。

最後，需要指出的是，樓文認為，相隔 6 年的《李隱之墓誌》與《李懷墓誌》記載李氏家族的出身不同，是由於 739 年—745 年這六年間與李林甫受唐玄宗之命編撰《天下郡望姓氏族譜》的時間一致。¹⁹⁾但是，李林甫編撰的《天下郡望姓氏族譜》頒行于天寶八年（649）。²⁰⁾即使李林甫奉敕于開元末年開始編撰《天下郡望姓氏族譜》，但未頒行的《天下郡望姓氏族譜》，自然不會對社會產生很大影響。不過，開元十年（722）前後，韋述編撰成《開元譜》二十篇（卷）。²¹⁾倘若《李懷墓誌》記載李氏家族的出身為“其先趙郡贊皇人也”受唐朝重新編撰譜牒的影響，則應該是受到韋述編撰成《開元譜》二十篇（卷）的影響。這也與開元十年后製作的入唐高句麗人墓誌中不在出現“平壤城人”“高句麗國人”等明確標示異國出身的現象是相吻合的。

附錄一：

表 2 中國出土的唐代高句麗人墓誌一覽表

序號	墓誌名	志主出自	出生年	去世年	墓誌製作年	撰寫者	備註
----	-----	------	-----	-----	-------	-----	----

18) 樓正豪《高句麗移民李隱之家族的出自意識的考察——以新發現的李隱之墓誌銘為中心》。

19) 樓正豪《高句麗遺民李隱之家族的出自意識的考察——以新發現的李隱之墓誌銘為中心》。

20) 陳麗萍《敦煌本〈大唐天下郡望姓氏族譜〉的綴合與研究——以 S.5861 為中心》（《敦煌研究》2014 年 1 期）。《唐書》卷一三二韋述傳載：“開元初為櫟陽尉。祕書監馬懷素奏述與諸儒即祕書續七志，五年而成。述好譜學，見柳沖所撰《氏族系錄》，每私寫懷之。還舍，則又繕錄。故於百氏源派為詳，乃更撰《開元譜》二十篇。累除右補闕。張說既領集賢院。薦述為直學士。遷起居舍人，從封太山。”唐玄宗封禪泰山之行，始於開元十三年（725）十月。

①	高鏡苗墓誌	遼東人	不明	咸亨 4 年 (673)	咸亨 4 年 (673)	不明	唐征高句麗時，本人入唐
②	高提昔 (泉夫人) 墓誌	本國內城人	貞觀 23 年 (649)	咸亨 5 年 (674)	上元元年 (674)	不明	唐征高句麗時，祖父入唐
③	李他仁墓誌	遼東柵州人	隋大業四年 (608)	上元二年 (674)	儀鳳 2 年 (677)	不明	唐征高句麗時，本人入唐
④	泉男生墓誌	遼東郡平壤城人	貞觀 8 年 (634)	儀鳳 4 年 (679)	調露元年 (679)	中書侍郎兼檢校相王府司馬王德真	唐征高句麗時，本人入唐
⑤	高玄墓誌	遼東三韓人	貞觀 16 年 (642)	天授元年 (690)	天授 2 年 (691)	不明	隨泉男生入唐
⑥	高足酉墓誌	遼東平壤人 (族本殷家，後移居玄菟)	貞觀元年 (627)	萬歲通天元年 (696)	萬歲通天 2 年 (697)	不明	唐征高句麗時，本人入唐
⑦	高牟墓誌	安東人	貞觀 14 年 (640)	延載元年 (694)	聖曆 2 年 (699)	不明	唐征高句麗時，本人入唐
⑧	高質墓誌	遼東朝鮮人	武德 9 年 (626)	萬歲通天 2 年 (697)	聖曆 3 年 (700)	朝散大夫行鳳閣舍人韋承慶	唐征高句麗時，本人入唐
⑨	高慈墓誌	朝鮮 (高麗國) 人	麟德 2 年 (665)	萬歲通天 2 年 (697)	聖曆 3 年 (700)	不明	高質之子
⑩	泉獻誠墓誌	高句驪國人	永徽元年 (650)	天授 2 年 (691)	大足元年 (701)	朝議大夫行文昌膳部員外郎梁惟忠	泉男生之子
⑪	泉男產墓誌	遼東朝鮮人	貞觀 13 年 (639)	大足元年 (701)	長安 2 年 (702)		唐征高句麗時，本人入唐
⑫	高木盧墓誌	渤海僭人 (後避難海隅)	永徽元年 (650)	開元 18 年 (730)	開元 18 年 (730)	不明	唐征高句麗時，本人入唐
⑬	泉恣墓誌	京兆萬年人	景龍二年 (708)	開元 17 年 (729)	開元 21 年 (733)	父光祿大夫衛尉卿上柱國卞國公隱	泉男生之曾孫、泉獻誠之孫
⑭	王景曜墓誌	其先太原人 (後避難海東)	調露 2 年 (680)	開元 22 年 (734)	開元 23 年 (735)	不明	唐征高句麗時，其父入唐
⑮	豆善富墓誌	其先扶風平陵人 (後避難遼東)	光宅元年 (684)	開元 29 年 (741)	開元 29 年 (741)	不明	唐征高句麗時，其父入唐
⑯	高德墓誌	其先渤海人 (後避難遼陽)	儀鳳元年 (676)	天寶元年 (742)	天寶元年 (742)	不明	唐征高句麗時，祖父入唐
⑰	高欽德墓誌	勃海人	儀鳳 2 年 (677)	開元 21 年 (733)	天寶 9 年 (750)	孫婿東海徐察	唐征高句麗時，祖父入唐
⑱	高遠望墓誌	(其)先殷人 (後移居遼東)	萬歲通天 2 年 (697)	開元 28 年 (740)	天寶 4 年 (745)	不明	高欽德之子
⑲	高氏 (邵俠妻) 墓誌	渤海人	開元 19 年 (731)	大曆 7 年 (772)	大曆 7 年 (772)	不明	高震之女
⑳	南單德墓誌	昔魯大夫蒯之後 (後移居遼東)	聖曆 2 年 (699)	大曆 11 年 (776)	大曆 11 年 (776)	中大夫行秘書省著作佐郎薛夔	唐征高句麗時，祖父入唐
㉑	高震墓誌	渤海人	神龍二年 (706)	大曆 13 年 (778)	大曆 13 年 (778)	獻書待制楊愨	高句麗王高藏之孫

附錄二：墓誌銘文（○爲空格）：

1、李隱之墓誌

01 唐故贈泉州司馬李公墓誌銘並序

02 公諱隱之，字大取，其先遼東人也。晉尚書令胤，即其枝類。

03 祖敬、父直，或孝德動天，馳名於樂浪；或忠勤濟物，譽表於

04 夫餘。公馱（馱）海壖之風，慕洛納之化，重譯納貢，隨牒（牒）受官。勇

05 武既自於天然，果斷（斷）寧由於學得。異夫子之入夢，且歎山

06 類。殊仙客之延齡，還嗟海變。嗚呼哀哉，春秋五十有一，以

07 大唐神龍元年正月廿五日，寢（寢）瘳終於上林里之私第。朝

08 野痛惜，親故哀傷。○○帝皇悼懷，贈泉州司馬，以成送終

09 之義。遷殯于河南府河南縣平樂鄉之原。夫人河間（間）縣君

10 劉氏，貞節孤高，孀居荏苒。在家慕克己之德，訓子從擇隣

11 之規。風樹不停，隙駒難駐。琴亡鶴（鶴）去，鏡破鸞沉。嗚呼哀哉，

12 春秋八十有六，以大唐開元廿七年四月五日，寢疾終於

13 道政裡之私第。粵以其年五月壬辰朔五日景申，合葬於

14 公之舊塋西南一里半。禮也。前臨清洛，川聲夜雜於松風。

15 卻背崇邱，嵐氣曉凝於薤露。嗣子初有，左領軍衛翊府右

16 郎將。仲子懷德，左驍衛翊府右郎將。季子懷敏，代州陽武

17 鎮將等。類高柴之泣血，哀慕充窮。若顧悌之絕漿，攀號崩

18 迫。畏桑田之改易，慮高岸之淪移。旁求斯文，以作爾誌。其

19 詞曰：

20 司馬令德，來從異域。人之云亡，○○○天子贈職（職）。志不惑

21 兮。夫人道終，合葬順理。二龍次喪，兩鳳倫死。情難已兮。三

22 子至孝，七日絕漿。思○○親勒石，地久天長。不朽芳兮。

2、李懷墓誌

01 大唐故雲麾將軍行左龍武軍翊府中郎將趙郡李公墓志銘並序

02 昔杜武庫沈碑漢水，恐深谷爲陵。況乎玄堂冥冥，封樹催雜，安可息其志焉。

03 公諱懷，字初有，其先趙郡贊皇人也。昔晉氏乘乾，遼川塵起，帝欲親伐，實要

04 □□。○公十二葉祖敏爲河內太守，預其選也。克滅之後，遂留拓鎮，俗賴其

05 利，因爲遼東人。至孫胤，舉孝廉，仕至河南尹，加特進，遷尚書令，晉之崇也。○

06 曾祖敬，隋襄平郡從事。○太宗東幸海關，訪晉尚書令李公之後，僉曰末孫

07 敬在。○○帝許大用。盡室公行，爰至長安，未貴而沒，悲夫！其子曰直，直生隱

08 之，贈清源郡司馬。○公則清源府君之冢子也。○公少而純和，長實貞固，內

09 剛外順，後已先人。承家以孝聞，結友以信著。常欲以身許國，宣略濟□。○○

10 君門九重，難以聞上。遭中宗棄世，韋氏擅權，釣陳夜驚，秦城洶洶。○公

11 告難○○皇邸，剪除無遺。○○國祚中興，實賴先覺。拜遊擊將軍、行右衛扶

12 風郡積善府左果毅，仍留長上。○○聖主封禪，加宣威將軍，改左威衛河南
13 洛汭府折衝。俄加壯武將軍，授左領將軍衛翊府右郎將。未盈五考，加忠武將
14 軍，授左龍武軍翊府中郎將，舉其要也。仍留東京左屯營檢校。時○太夫人
15 遘疾彌留，○公不脫冠帶，曉夜就養，及屬纊之後，仍在於抱。左右苦奪○○
16 俸而不許。及被起事，泣就外除。雖周文之問膳寢門，高柴之未嘗見齒，殆無
17 以過也。會○○上親拜○曜魄，加雲麾將軍，餘如故。所冀坐登軍首，秉節開
18 邊；和圖天不慙遺，梁嶽頽峻。天寶四載二月二十九日寢疾，薨於東京道政
19 坊私第，春秋六十八。二京名流聞之，莫不垂涕。○夫人太原縣君王氏，擢質
20 華宗，分輝李徑，蘭薰雪皎，玉潤金聲。始光四德之規，終應兩門之慶，禮雖判
21 合，命虧偕老，去開元十八載七月四日終於思恭坊正寢，春秋四十七。昔年
22 半死，已慘龍門之桐；今日全沈，更蒔牛亭之栢。以天寶四載四月二十二日
23 合葬於洛陽縣平樂鄉之原，從周禮也。哀子西河郡開遠府別將智通等，孝
24 以因心，柴毀骨立，仰思○先闕，勒石神逵，僕雖不才，敢述高跡。其詞曰：
25 崇崇厥先，系彼全趙。晉氏東伐，隨軍桑沼。謫罪撫人，父賢子紹。○○高宗左
26 眄，曜武襄平，搜訪遺逸，攜手同行。○公之潛輝，時人未識。天啓○○宗聖，妖
27 生紫極。銜威○○慶宮，殄彼韋賊，○○日月更朗，京華再邑。攀○龍得志，受賞
28 清朝，垂朱曳紫，武烈戎昭。三命戎期，雙轡漸發，薤唱悲露，松門吊月，慄慄
29 貞風，千齡靡歇。
30 處士弘農楊坦撰。

입당 고구려인의 출자 고찰

- 李隱之, 李懷 부자 묘지 해석을 겸하여 -

거지음 (정저우대학)

최근 입당 고구려인과 백제인의 묘지가 중국에서 발견되면서, 고대 한반도 관련 출신자의 국제적인 이동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분야를 집대성한 연구로는 바이건싱(拜根興)의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가 있다. 이 책은 출판되자 각국에서 주목을 받았다. 필자 역시 이 책을 번역해 일본학계에 소개했으며¹⁾, 관련 묘지에 대한 연구도 시도한 바 있다.²⁾

현재 입당 고구려인과 백제인에 대한 호칭으로, 한국학자들은 대부분 ‘유민(遺民)’이라 부르고, 중국학자도 처음에는 무비판적으로 사용했다. ‘유민’이란 자국(또는 왕조)가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스스로 자국(왕조)인이라 자처하는 호칭으로, 주로 자국(왕조)에 대한 그 사람(집단)의 소속감과 그가 가진 자국(왕조)의 문화체계에 주목한다. 일본으로 건너 간 명(明)의 유민 주순수(朱舜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에 귀화한 이민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중국과 같은 조상이라는 소속감을 강화하고, 또한 자신의 문화수준이 낮아서 과거의 문화체계가 대부분 중화문화에 의해 해체되거나 파묻히면서 대부분 번장(蕃將)의 신분으로 활약했다. 따라서 ‘유민’이라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다.³⁾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에서 바이건싱은 ‘이민(移民)’이라는 참신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민’은 근대 신조어에 속하며, 그 사람(집단)의 지리적 이동과 이주지에서 새로운 삶을 여는 과정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고대 일본에 이주한 중국인은 대부분 선진 문화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일본 조야의 존경을 받고 중용되었다. 그들은 심지어 성을 하사 받고 개명해도 여전히 ‘당인(唐人)’ 출신이라고 설명되었고, 또한 일본에서 일본문화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했음에도 당에서 일본으로 간 이동 경로 및 이유에 대해서는 사료에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간 당인을 연구할 때 그들이 일본이 이주한 이동경로와 생활상에 주목해야 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래 보유하고 있던 문화 지식, 기예 능력 및 생활 습속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기능의 역할 또는 이들 습속이 이역의 역사 본원의 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해야 한다.⁴⁾ 따라서 구분

1) 葛繼勇 《書評 古代中韓關係史研究の新たな視角：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によせて》（《史滴》（東京）34號，2012年12年）。

2) 葛繼勇 《新出高乙德墓誌與高句麗末期的內政外交》（《韓國古代史研究》（首爾）79號，2015年9月）、

葛繼勇 《從高句麗・百濟人墓誌看高句麗末期的對外關係》（《東洋學》（首爾）58號，2015年1月）、

葛繼勇 《祿軍墓誌の発見と研究課題》、《日本歴史》（東京）804號，2015年5月）。

3) 葛繼勇 《書評 古代中韓關係史研究の新たな視角：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によせて》（《史滴》（東京）34號，2012年12年）。

4) 葛繼勇 《七至八世紀赴日唐人研究》，北京：商務印書館，2015年。

없이 '이민'이라고 통칭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듯하다.

'유민'에서 '이민'으로의 용어 변화는 비록 연구 초점의 이동과 새로운 연구방법론 등을 의미하지만, 보다 적절한 학술 용어를 찾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에 건너간 중국인 연구 작업에서 필자는 동아시아 각국에 통용 가능한 용어로서 '부일당인(赴日唐人)'이라는 표현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에 들어간 고구려인[백제인]을 '입당고구려인(入唐高句麗人)[백제인(百濟人)]'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여기서는 입당고구려인의 출자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즉, 한 사람의 출신지 또는 이주 지역이 고구려인지, 당대 고구려에서 중원 지역으로 이주했는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만약 요동 일대에 이주한 이들을 구분 없이 모조리 고구려인으로 보고 시대나 그 지리 강역에 따라 분석하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입당고구려인의 통계 수치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入唐高句麗人の出自の考察 - 李隱之・李懷父子の墓誌の解釋を兼して -

葛継勇（鄭州大学）

最近、入唐高句麗人と百濟人の墓誌が中国で発見され、古代の朝鮮半島関連の出身者の国際的移動が学界の関心を集めている。この分野を集大成した研究としては、扨根興の『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がある。この本は出版されてから各国で注目された。筆者もこの本を翻訳して日本の学界に紹介し、関連の墓誌に関する研究も試みたことがある。

現在入唐高句麗人と百濟人に対する称呼として、韓国の学者はほとんど‘遺民’と呼び、中国の学者も初めてはその言葉が無批判的に使った。‘遺民’とは自国(または王朝)が滅亡した後にも依然として自ら自国(王朝)人と自称する称呼であり、主に自国(王朝)に対するその人(集団)の所属感と彼が有した自国(王朝)の文化世界に注目する。日本に渡来した明の遺民である朱舜水が代表的である。しかし、唐に帰化した異民族はやがてほとんど中国と同じ祖先を共有するという所属感を強化し、また自身の文化水準が低いため、過去の文化体系がほとんど中華文化によって解体したり埋没したりし、ほとんど蕃將の身分で活躍した。したがって、‘遺民’という表現は妥当ではない。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で扨根興は‘移民’という斬新な表現を使ったが、‘移民’は近代の新造語に属し、その人(集団)の地理的移動と移住地での新しい生活を開く過程に注目する。例えば、古代日本に移住した中国人はほとんど先進の文化知識を保有したため、日本の朝野の尊敬を受けて重用された。彼らはその上に姓を賜って改名しても依然として‘唐人’出身と説明された。また日本で日本文化の発展のために大きく貢献したにも拘わらず、唐から日本へ移動した経路およびその理由については、史料から記録が見つからない。したがって、日本に渡来した唐人を研究する時、彼らが日本へ移住した移動経路と生活相に注目すべきであるだけでなく、より重要なことは彼らが本来保有した文化知識、技芸能力および生活習俗、そしてこのような知識と技能の役割、またはこれら習俗が異域の歴史の本源の軌跡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のかをまとめるべきである。したがって、区別せずに‘移民’と通称することも正確ではないようである。

‘遺民’から‘移民’への用語の変化は、仮令研究の焦点の移動と新しい研究方法論などを意味するとはいえ、より適切な学術用語を見つけるために一層努力する必要がある。最近、日本に渡来した中国人の研究作業で、筆者は東アジア各国に通用できる用語として‘赴日唐人’という表現を試みたことがある。こ

れによって唐に入った高句麗人(百濟人)を'入唐高句麗人(百濟人)'と呼ぶことができよう。

ここでは入唐高句麗人の出自の問題を議論したい。即ち、ある人の出身地または移住地域が高句麗であるか、唐代に高句麗から中原地域へ移住したかなどの問題をどのように判断するかということである。もし遼東一帯に移住した者を区別せずにすべて高句麗人と見て、時代やその地理疆域によって分析・整理しなければ、入唐高句麗人の統計数値に差異が現れるようになるのであろう。

以上のように、現在の資料ではその出身を高句麗であると確定できない。だが、『新唐書』宰相世系表と『晉書』李胤伝では共に遼東李氏の一族が假令中原王朝で仕官したとはいえ、辞職してからはすべて遼東に帰って生活したと記している。古代の中原人が遼東に移住しその後裔が中原に帰る現象について、今後より深い研究が必要である。

最後に指摘する部分は、楼正豪の論考で見えるように、六年の時差がある「李隱之墓誌」と「李懷墓誌」に記載された李氏家族の出身が異なっているが、七三九年～七四五年というこの六年は李林甫が唐の玄宗の命によって『天下郡望姓氏族譜』を編纂した時期と一致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李林甫が編纂した『天下郡望姓氏族譜』は天宝八年(七四九)に公表された。李林甫が開元末年に皇帝の命によって『天下郡望姓氏族譜』の編纂を始めたとしても、まだ公表されていない『天下郡望姓氏族譜』が社会的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わけではない。しかし、開元一〇年(七二二)を前後して、韋述が『開元譜』二〇巻を編纂した。「李懷墓誌」で李氏家族の出身を“其先趙郡贊皇人也”と記載したことが唐における家譜の再編纂から影響を受けたとすれば、それは韋述が編纂した『開元譜』からの影響であろう。これは開元一〇年以降製作された入唐高句麗人の墓誌に他国の出自を明らかに示す‘平壤城人’、‘高句麗国人’などが、もう見えない現象とも符合する説明である。

8/25(목)

墓碑의 출현과 後漢末 墓碑銘의 定型化

홍승현 (서강대학교)

墓碑의 출현과 後漢末 墓碑銘의 定型化

홍승헌 (서강대학교)

이 글은 목적은 後漢時期 墓碑의 定型化 과정을 복원하고, 그를 통해 묘비에 투영된 후한시기 사회상을 究明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묘비의 초기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묘비는 무덤 속에 棺을 내리기 위해 세웠던 豐碑에 君主 또는 父親의 功德을 기술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功績이 기술된 묘비가 출현하는 후한대를 묘비 출현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周禮』 및 『漢書』 등의 서술에 따르면 묘비의 최초의 형태는 標識의 의미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卒年卒日과 墓主의 성명만이 기록된 墓表로서 성격이 강했던 묘비가 어떤 필요와 계기를 통해 ①碑額, ②諱, ③字, ④本籍, ⑤家系(=世系), ⑥品行, ⑦官歷을 중심으로 하는 履歷, ⑧卒年月日, ⑨享年, ⑩追贈, ⑪葬日 혹은 立碑日, ⑫銘辭 등을 포함하며 정형화되었을까? 분석을 통해 묘비는 최초로 卒年월일, 묘주의 성명이 기술되었던 형식에 官력과 가계, 품행이 더해졌고, 뒤이어 명사가 더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갖추며 묘비가 정형화되는 것은 140년대 이후였다. 그 시간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선 묘비의 정형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石刻들을 살펴보았다. 바로 후한 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墓記’, ‘封記’, ‘畫像石題字’ 등이다. 이것들은 지상에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묘주의 이름과 貫籍, 官력, 사망일, 장례일, 가족관계 등이 서술되어 있었으며, 死者를 위해 기념물을 세운 이와 그 기념물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들 석각들은 대부분 묘지 건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사자를 위해 누가 얼마를 사용하여 무엇을 만들었는가’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것은 이 석각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지극한 효성을 드러내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墓室 내부, 혹은 祠堂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 효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아마도 이러한 한계가 지상의 묘비를 출현시키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묘비의 역할을 효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묘비에 묘지 건축에 대한 서술과 건축 비용, 그리고 그 제작자가 서술되지 않는 것은 지상에 올라온 묘비의 주된 쓰임이 효성의 선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묘비에는 사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실렸다. 그 중에서도 그의 官력이 자세히 기술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汝南 袁氏 집안의 일련의 묘비에는 묘주의 官력이 소상하게 서술되어 있다. 한 집안의 정치적 능력이 돌에 새겨져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구히 공개된 것이다. 당시 지역에서 名聲에 근거한 選舉가 행해지는 것과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그 집안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었을 것임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즉, 묘주의 관력과 가계가 서술된 묘비의 등장은 대외적으로 효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증대하여 지역의 지배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해나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기념비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묘비의 정형화라는 현상이 선거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후한 중기를 기점으로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묘비가 단순히 효의 표현만이 아니었다는 것은 후한시기 상당수의 묘비가 문생과 고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선거와 관련이 있다. 스승과 故主에 대한 지극한 헌신과 복종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묘비가 이용되었던 것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가 추천자와 피추천자의 관계가 되면서, 지방관이 地方官學에서 教授하게 되면서, 혹은 선거가 지방관의 추천에 의해 행해졌기에 지방관과의 밀착된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의 표시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등장한 銘辭가 주목된다. 묘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序와는 달리 명사는 頌德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묘지 정형화에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운문의 명사는 주로 經典을 글귀를 차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이는 스승과 고주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선거의 기준인 유가적 소양의 습득 정도를 보일 수 있는 좋은 수단임과 동시에 建碑者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墓碑的出现与后汉末墓碑铭的定型化

洪承贤(西江大)

绪言

I. 墓碑的渊源与变化

II. 墓记、封记、画像石题字的作用

III. 后汉末定型化墓碑的登场

1. 汝南袁氏家族的墓碑-官历与世系的叙述

2. 门生故吏的立碑行为与铭辞的出现

结语

绪言

墓碑可成为古代中国丧葬仪礼的特征之一。刻上纪念墓主简略的信息和亡者遗德的颂辞并竖立在坟墓前的纪念物至今一般被理解为厚葬的象征¹⁾。那么墓碑是什么时候出现的呢？从禁止厚葬的皇帝的诏书与前汉文帝时期开始登场²⁾，此后《盐铁论》中也出现有关厚葬的纪录来看³⁾，厚葬自前汉初期起已成为社会问题。但在这些纪录中未发现有关墓碑的问题。但无法准确了解这是因前汉时期墓碑未出现，还是直到那个时期墓碑并未成为厚葬的呈现方式。或许因这一原因，大部分学者认为墓碑是在后汉时期出现的。

与此不同的是，杨宽认为前汉石刻中的《庶孝禹刻石》是墓碑的先驱⁴⁾。但《庶孝禹刻石》中只记载了卒年卒月日和墓主的祖籍还有姓名，从而研究人员中将其与此后登场的后汉墓碑相比较，并以形态各异和构成要素等方面的差异为由并未将其认为墓碑⁵⁾。根据规定墓碑的形态和定型化内容的标准即一般以墓主的姓名、官历、事迹、享年、卒年月日等为基本的序和哀悼墓主的铭，难以将后汉以前的墓碑起源追补起来。

1) 市村瓚次郎，《汉代建碑の流行及び其后世の禁制に就いて》，《书苑》2-19(1938)。市村瓚次郎以后的学者们对此并无异议，只将墓碑视为厚葬的结果。

2) 《史记》卷4，《文帝纪》，“朕闻盖天下万物之萌生，靡不有死。死者天地之理，物之自然者，奚可甚哀。当今之时，世咸嘉生而恶死，厚葬以破业，重服以伤生，吾甚不取。”

3) 《盐铁论》，《散不足》，“今富者绣墙题凑。中者梓棺纆棺，贫者画荒衣袍，缿囊緹囊…今厚资多藏，器用如生人…今富者积土成山，列树成林，台榭连阁，集观增楼。中者祠堂屏阁，垣闑罍。”

4) 杨宽，《中国古代陵寝制度史研究》(上海：人民，2003)，pp.155~156.

5) 范邦瑾，《东汉墓碑溯源》，《华夏考古》1991-4，p.94.

实际上, 不同学者对最初的墓碑指定上是有差异的, 但范邦瑾认定147年建立的《武斑碑》为最初的墓碑⁶⁾, 滨田瑞美则认定117年建立的《袁安碑》⁷⁾, 冢田康信认定143年建立的《北海相景君碑》为最初的墓碑⁸⁾, 从而在将后汉时代墓碑来找寻墓碑起源是相同的。而完全具备①碑额、②讳、③字、④本籍、⑤家系、⑥品行、⑦以官历为中心的履历、⑧卒年月日、⑨享年、⑩追赠、⑪葬日或立碑日还有⑫铭辞⁹⁾等定型化因素的墓碑并不多见。今后我们将继续查看, 但这些因素并非在一瞬间, 而是随着时间的变化逐渐备齐的。因此, 只以全部满足这些因素的来区分为墓碑, 反而会忽视墓碑的历史性、社会性发展过程。那么最初的墓碑是什么, 是如何变化的呢?

本论文目的为将从这一疑问为出发点, 将中国古代墓碑的出现和碑文的定型化过程进行复原。特别是欲将焦点放在对碑文的定型化带来影响的因素为何, 碑文的定型化是什么时期的问题上。其理由如下。

一般墓碑的出现被视为厚葬的结果。特别是后汉时期随着儒教成为国教化, 社会上以实践孝道成为官僚录用或晋升标准, 有人主张墓碑与其是为纪念墓主的功绩而建, 不如说是被作为体现子孙孝道的手段来使用¹⁰⁾。但难以解答为什么墓碑的建立进入后汉时期才开始变得活跃。从历代禁止厚葬的诏书中可知, 厚葬的弊端从历史上自前汉时期开始已存在。此外, 从存在华丽的坟墓建造或建立祠堂的表现无微不至孝道的方式来看, 无法寻到墓碑登场的理由。最后, 认为后汉时期随着儒教的国教化, 社会上实现孝道成为录用官僚或晋升的标准, 从而使墓碑的建立变得活跃的主张虽然具有强有力的说服力, 但对于后汉后期以后由门生故吏所建立的墓碑较多的事实¹¹⁾却无法解释。这是立碑行为的流行具有超过单纯的厚葬结果或从社会层面体现孝道的意义的反面论据。

因而, 本文欲通过墓碑的出现和墓碑结构因素定型化过程的复原工作, 对立碑行为有影响的诸多因素进行分析。在这一过程中, 不可将墓碑仅仅视为厚葬的体现这一事实将得到证实。此外, 本文还将通过确认立碑行为变得活跃的时期, 来阐明其为何种社会现象的体现。笔者希望通过这一研究能够体现后汉社会的各种面貌。

I. 墓碑的渊源与变化

目前有关墓碑的大部分研究将墓碑的出现时期视为后汉时代。其源于《释名》。因刘熙将墓碑定义为“臣子与子女将其君主和父亲的功德记述在石头上”¹²⁾。而这一立场则被欧阳修再次进行阐明。其在后汉后期的碑文登场, 但其起源则自门生故吏立碑并对德行进行称颂开始¹³⁾。由此可知, 在传统时期的中国认为“通过记述功德来纪念”是墓碑最重要的因素, 同时也是存在的理由。

6) 范邦瑾, 前揭论文, p.98.

7) 滨田瑞美, 《汉碑考-かたちと意匠をめぐる》, 《美术史研究》41(2003), p.186.

8) 冢田康信, 《碑の起源と形式の研究 I》, 《福岡教育大学纪要 第5分册》28(1978), p.51.

9) 洼添庆文, 《墓誌の起源とその定型化》, 《立正史学》105(2009), p.2.

10) 朴汉济, 《魏晋南北朝时代墓葬风习的变化与墓志铭的流行》, 《东洋史学研究》104(2008), pp.59~60.

11) 《隶释》, 《慎令刘修碑》, “汉碑多门生故吏为之。”

12) 《释名》, 《释典艺》, “臣子述君父之功美, 以书其上, 后人因焉。”

13) 《集古录跋尾》, 《宋文帝神道碑》, “自后汉以来, 门生故吏多相与立碑颂德矣…至后汉以后始有碑文, 欲求前汉时碑碣, 卒不可得。是则冢墓碑自后汉以来始有也。”

在无有关墓碑起源的定论的情况下，我们能够从郑玄的《仪礼注》和《礼记注》寻找到线索。据以上资料显示，墓碑的起源可按两个系统来进行说明。也就是，其一是为将牺牲捆绑在宗庙旁而竖立的柱子¹⁴⁾，而另一个是在为埋葬而挖好的坑旁边的丰碑，它在坑里放入棺材时使用¹⁵⁾。对此，矣野贞将前者 and 后者均视为墓碑的起源¹⁶⁾，冢田康信则在这两种系统中将丰碑视为墓碑的起源¹⁷⁾。但从结果来看，其将是否记述功绩视为墓碑的前提条件方面来看与矣野贞是同样的。与此不同的是，北宋孙宗鉴在《东皋杂录》称，“自周衰，战国秦汉皆以碑悬棺，或以木，或以石，既葬碑留坑中，不復出矣。其后稍书姓名爵里其上，至后汉，遂作文字”¹⁸⁾，从而认为最初的墓碑标识意义较为重大。据碑最初的形态接近标识的主张，墓碑的出现要追溯到后汉时期以前更早的时期。

具有代表性的是杨宽认为前汉时期已出现了墓碑¹⁹⁾。据他的观点，作为分类为墓碑的前汉时期石刻包括《庶孝禹刻石》。《庶孝禹刻石》由2行共15字组成，其内容可分为死亡日期和墓主的祖籍，还有墓主的姓名(河平三年八月丁亥，邑口里庶孝禹)。但这里并未纪录可称为墓主事迹的内容，与后汉末登场的墓碑有所差异。这可从竖立在墓前而单纯使人了解墓的主人为何的墓表的性质得知。

后汉前可区分为墓碑的还包括《莱子侯刻石》。由7行5字组成的石刻中刻有“始建国天凤年二月十三日，莱子侯支人为封，」 诸子良等」百余人，」后」孙毋坏败”的内容。该石刻引发问题的正是“封”字。杨宽将封解释为“封坟”，将石刻视为立在墓前的即墓碑。但最初发现石刻的人们则将“封”视为“封田”²⁰⁾，将该石刻封土境界石。而即使是将该石刻视为墓碑，仍存在问题。因其与《庶孝禹刻石》同样，未对墓主的事迹进行叙述。

未将其视为墓碑的另一个原因是形式的问题。作为从墓碑形态来进行的研究有滨田瑞美的研究。滨田瑞美将穿和晕视为墓碑的外形性必要因素²¹⁾。而在更早时期冢本靖也将穿和晕视为汉碑的形态型特征²²⁾。一般穿指的是在举行葬礼时将棺材放下时使捆绑棺材的绳子穿过的孔²³⁾。而晕则是在圆首形碑的碑首部分的意匠，它在将棺材放到洞穴时起到防止捆绑绳子的脱落或滑动的作用²⁴⁾。但墓碑中也有无孔的情况，晕只在圆首形碑中存在，从而不可只将有空和晕的视为墓碑。例如，作为方形碑有《乙瑛碑》，而作为圆首形碑的《史晨碑》是没有穿和晕的代表性碑。因此，没有理由只靠形式方面将这些视为并非墓碑的原形。

14) 《仪礼注》，《聘礼》，“凡碑，引物者，宗庙则丽牲焉，以取毛血。其材，宫庙以石，窆用木。”

15) 《礼记注》，《檀弓下》，“丰碑，斫大木为之，形如石碑，于槨前后四角树之，穿中于间为鹿卢，下棺以辘绕。”

16) 矣野贞，前揭论文，p.5.

17) 冢田康信，《碑の基源と型式の研究 I·II》，《福冈教育大学纪要 第5分册》28·29(1978·1979). 赵翼也曾在丰碑中寻找碑的起源。《陔余丛考》，《碑表》，“然则墓道之有碑刻文，本由于悬窆之丰碑，而或易以石也。”

18) 徐乾学，《读礼通考》(《文渊阁四库全书》所收)卷98，p.114-358下右中再引用。

19) 杨宽，前揭书，pp.155~156.

20) 汪璠，《莱子侯刻石》，《秦汉石刻题跋辑录》(上海：上海古籍，2009)，p.208上，“嘉庆丁丑秋，腾七四老人颜逢甲、同郡孙生容、王辅、仲绪山得此于卧虎山前，盖封田贻族，勒石戒子孙者。近二千年未泐，亦无知者，可异也。逢甲记，生容书。”

21) 滨田瑞美，前揭论文(2003).

22) 冢本靖，《碑の装饰》，《考古学杂志》5-12(1915)，pp.812~813.

23) 封演，《封氏闻见记》，《碑碣》，“天子诸侯葬时下棺之柱，其上有孔，以贯辘索，悬棺而下，取其安审…古碑上往往有孔，是贯辘索像。”

24) 毕沅，《山左金石志》，《泰山都尉孔宙碑》，“其辘绕鹿卢横而斜过碑头，碑头为此晕，以限辘使之滑且不致外脱。”

而剩下的问题就是未记述墓主的事迹，并没有颂辞的是否可视为墓碑。解决这一问题，可从《汉书》中登场的“楬”得到帮助。对于表示“记述姓名”的意思的²⁵⁾“楬”，颜师古对其说明如下“楬，杙也。椽杙于瘞处而书死者名也。”²⁶⁾，从而说明“楬”是作为墓地建成后的标识来使用的。同时，“楬”与《汉书》中登场的“表”是相同的。“表”是建好墓地后在其注明墓主姓名来看²⁷⁾，是与“楬”相同的。

前汉时期建立墓地后在墓地钱竖立包括墓主信息的标识，从而可将其视为墓碑初期的形象²⁸⁾。从而，即使其上边并无有关墓主的颂词，只要上边有墓主的信息，即可视其为墓碑。那么不仅是具有较强的墓碑性质的《庶孝禹刻石》，就是《菜子侯刻石》也同样没有理由不可将其视为碑的初期形态。因此，墓碑的出现可追溯到后汉以前。

那么包括颂词的定型化的墓碑是什么时候登场的呢？大部分研究人员将后汉时期视为定型化的墓碑登场时期，但对于其根据的见解有所不同。根据不同的研究者，将《谒者景君墓表》²⁹⁾，《国三老袁良碑》³⁰⁾，《北海相景君碑》³¹⁾，《刘修碑》³²⁾，《武斑碑》³³⁾，《三老讳字忌日记》³⁴⁾等被视为最早的定型化墓碑。通过这些定型化的构成因素分析可建造如下图表。

《表1》被视为最初的墓碑的石刻构成因素

	① 碑额	② 讳	③ 字	④ 本籍	⑤ 世系	⑥ 品行	⑦ 官历	⑧ 卒年	⑨ 享年	⑩ 追赠	⑪ 葬日	⑫ 铭辞
三老讳字忌日记 (52)	×	○	○	×	○	×	×	○	×	×	×	×
谒者景君墓表 (114)	×	×	×	○	×	×	×	○	×	×	×	○
国三老袁良碑 (131)	×	○	○	○	○	×	○	○	○	×	×	○
北海相景君碑 (143)	○	×	×	○	×	○	○	○	×	×	×	○
武斑碑(147)	○	○	○	×	○	○	○	○	×	×	×	○
刘修碑(171)	×	○	○	×	×	○	○	○	○	×	×	○

对其进行分析的结果，可知对研究人员们规定定型化墓碑起到重要影响的因素为⑧卒年卒日和⑫铭辞，②、③的姓名和字，还有⑦官历等。目前留下的墓碑，最先具备按卒年卒月标准的构成因素的是

25) 《汉书》卷90, 《酷吏 尹赏传》, “楬着其姓名。”

26) 《汉书》卷90, 《酷吏 尹赏传》.

27) 《汉书》卷44, 《淮南厉王 刘长传》, “又阳聚土, 树表其上曰《开章死, 葬此下。》。”

28) 何如月, 《汉碑文学研究》(北京: 商务, 2010), p.57.

29) 汪庆正, 《东汉石刻文字综述》, 《上海博物馆馆刊》1(1981), p.64.

30) 刘宝楠, 《汉石例》(台北: 台湾商务, 1966), p.1.

31) 矣野贞, 前揭论文, p.7; 水野清一, 《碑碣の形式》, 《书道全集 二 中国2 汉》(东京: 平凡社, 1969), p.31; 冢田康信, 前揭论文(1978), p.44.

32) 王芑孙, 《碑版文广例》(《石刻史料新编 第三辑》所收), p.303

33) 范邦瑾, 前揭论文, p.98.

34) 李德品 《论东汉墓碑文的发展分期》, 《遵义师范学院学报》11-3(2009), p.34.

前汉时期的《庶孝禹刻石》，而从铭辞来看《谒者景君墓表》是最早的。同时，包括构成因素最多的正是《国三老袁良碑》和《武斑碑》。而这一构成因素中卒年卒日和姓名也是墓表的构成因素，而最终其为定型化墓碑的最重要的因素为官历和铭辞。从而可知墓主的功绩和与其相关的颂辞被视为规定定型化墓碑的重要因素。那么墓碑最重要因素即官历和铭辞正式开始登场是什么时期呢？

为此笔者对其他石刻的构成因素进行了探讨。在《表1》中提及的石刻前后期建造的其他石刻情况如下。

《表2》最初被视为墓碑的石刻前后期建造的石刻构成因素³⁵⁾

	① 碑额	② 讳	③ 字	④ 本籍	⑤ 世系	⑥ 品行	⑦ 官历	⑧ 卒年	⑨ 享年	⑩ 追赠	⑪ 葬日	⑫ 铭辞
庶孝禹刻石(前26)		○		○				○				
莱子侯刻石(16)		○						○				
三老讳字忌日记(52)		○	○		○			○				
谒者景君墓表(114)				○				○				○
子游残碑(115)			○	○	○	○	○	○				
袁安碑(117)		○	○	○			○	○			○	
袁敞碑(117)			○				○	○			○	
王孝渊墓碑(128)		○		○	○		○	○				○
国三老袁良碑(131)		○	○	○	○		○	○	○			○
阳嘉残碑(133)						○	○	○			○	
沙南侯获碑(140)		○	○	○							○	
北海相景君碑(143)	○			○		○	○	○				○
武斑碑(147)	○	○	○		○	○	○	○				○
孔君墓碣(155)	○				○	○	○	○				
郑固碑(158)	○	○	○		○	○	○	○	○			○
刘修碑(171)	×	○	○	×	×	○	○	○	○	×	×	○

正如以上《表1》、《表2》可知，《谒者景君墓表》和《国三老袁良碑》、《王孝渊墓碑》上虽然有铭辞登场，但可知其并非截止140年代的一般现象。反而从115年开始至140年代，呈现明显增加趋势的是墓主的官历、祖籍、家族系统和品行等因素。也就是，可知从记载墓主姓名和卒年卒日等的简单的墓表发展为记述墓主的功绩和官历及家系等的情况。那么在简单的墓地标识石上添加了功绩和家系后，再添加上颂词有什么因素起到了作用？为什么其在140年代后定型化呢？在探讨这一问题之前，需要对墓碑作用相关的当时流行的另一种石刻进行探讨。

35) 洪承贤, 《后汉代墓碑的盛行与在建安十年禁碑令颁布》, 《东洋史学研究》124(1913), p.74, 引<表 1>.

II. 墓记、封记、画像石题字的作用

在墓碑流行以前开始，作为丧葬禮俗之一的“墓记”、“封记”、“画像石题字”等是刊刻在墓地内或墓地旁 祠堂内或进行掩埋的。对其出现并无定论，但可从秦始皇陵区西侧赵背户村刑徒墓中挖掘的瓦志刻文初期景象可以了解到³⁶⁾。该石刻自战国时期一直被使用，到了后汉时期开始正式流行。随着流行其内容也多样化，从纪录墓主的姓名和贯籍的内容添加了葬礼日期、死亡日期、家庭关系、有关墓主功德的颂辞、自朝廷获得赠赐等相关内容。不仅如此，还发现了墓地建筑相关的信息及所耗费的经费，以及后孙的悼词等内容。此外，虽然按形式或内容并未定型化，但不难确认逐渐开始将显示给他人的内容进行纪录。这些石刻在当时起到了什么作用呢？这些纪录与建在地上的墓碑有什么关系呢？

目前，对于自后汉初开始登场的墓记、封记、画像石题字等并无正式的研究。对此，只是对墓志相关问题有相关探讨，而对墓葬制度变化逐渐对其他人公开相关问题，有必要对与墓碑相关问题进行探究。为了便于探讨，首先对几个墓记、封记、画像石题字等进行如下整理。

《前汉以后建造的墓记、画像题记、石阙一览》

①题目 ②制作年代 ③内容

①制作者 ②制作物 ③费用 ④墓主 ⑤家族关系

1. ①路公食堂画像题记 ②天凤 3年(16) ③□□元年二月廿日□□□□□□荆①路公昆弟□□[天][凤]三年 ②立食堂，④路公治严氏春秋，不踰。

2. ①三老讳字忌日记 ②建武 28年(52) ③(左一段) ④三老讳通，字小父，「庚午忌日。」④祖母失讳，字宗君，「癸未忌日。(左二段) ④掾讳忽，字子仪，「建武十七年，岁在辛「丑，四月五日辛卯忌日。」④母讳捐，字谒君，「建武廿八年，岁在壬「子，五月十日甲戌忌日。(左三段) ⑤伯子玄曰大孙，「次子但曰仲城，「次子纡曰子渊，「次子提餘曰伯老，「次子持侯曰仲雍，「次子盈曰少河(左四段) 次子邯曰子南，「次子士曰元土，「次子富曰少元，「子女曰无名，「次女反曰君明。(右段) 三老德业赫烈。克命先己，汁稽履仁，难名兮。而右九孙，日月亏代，犹元风力射。」 ①邯及所职祖讳，钦显后嗣。盖春秋义，言不及尊，翼上也。念高祖至九子未远，所讳「不列，言事触忌。贵所出严及□，敬晓末孙，冀副祖德焉。

3. ①肥城县栾镇画像石题记 ②建初 8年(83) ③建初八年八月成。①孝子张文思「哭父而礼。③石治三千，王次作，勿败襄。

4. ①莒南孙氏石阙题记 ②元和 2年(85) ③元和二年正月六日，①孙仲阳□升父物故。行□□礼□②作石阙，③价直万五千。

36) 袁仲一，《秦代陶文》(西安：三秦，1987)，p.31；毛远明，《碑刻文献学通论》(北京：中华书局，2009)，p.107。被称为“刑徒砖”或“刑徒瓦”等的该瓦志刻文中记述的有关被埋葬的刑徒的简单信息，按①贯籍+人名、②贯籍+ 爵名+ 人名、③贯籍+ 刑名+ 爵名+ 人名、④贯籍+ 刑名+ 爵名+ 人名的形式记述。

5. ①南武阳功曹闕题铭 ②章和 元年(87) ③故④南武阳功曹、乡啬夫、府文学掾平邑君□□卿之②闕。卿□□□□□困苦，天下相感□□□□任□□□□□观朝廷□□明君□□直任人□□□□来□德□道，以为国三老。□□□□章和元年二月十六日。」 ①□□子文学叔□□石工□□□□乡啬[夫]□□□□□□□□□□伯□廷□③直□四万五千。」 此上□□皆食□仓。

6. ①永元八年食堂题记 ②永元 8年(96) ③永元七年九月辛卯朔，昌德□于□□君，②为石食堂。」 八年二月十日戌□□上成，□□□□③直钱十万。」 □□本治…□□官…□□□□□□□□□□君…①弟兄竝立。

7. ①阳三老石堂题记 ②延平 元年(106) ③延平元年十二月甲辰朔十日，②石堂毕成。时太岁在丙午。□□鲁北乡侯…□阳三老自思省居，乡里无宜，不在朝廷，又无经学。志在其养子道，未[报]…□感切伤心，晨夜哭泣，恐身不全。朝半祠祭，随时进[食]，…

8. ①戴氏画像题记 ②永初 7年(113) ③(右段) ①戴[目]孔道②建石。③直五千，②郭□③二千五百，□□□□□伍者①承□□□□苑卿张□□③九千五百，以永初七年闰月十八日，始立成。(左段) ④戴掾君，寿九十三，薄命以永初四年六月十七日庚午病卒。⑤戴母年九十二，以永初五年八月廿九日病卒，父母夭蚤□□。

9. ①张盛墓记 ②元初 2年(114) ③故④左郎中邓]里亭侯沛国]丰张盛之墓]元初二年记。

10. ①永建五年食堂画像题记 ②永建 5年(130) ③永建五年太岁在庚午二月廿三日。…②立[此]食堂，③[直][万]…[居]□□[意]□□学□□阳何意被天灾蚤离父母□□□□泣□□□□□□。

11. ①永和二年食堂画像题记 ②永和 2年(137) ③永和二年，太岁在卯，九月二日，第乡广里泲□，①昆弟男女四人，少□□□，復失慈母。父年…□□经有钱刀，自足思念父母。弟兄悲哀，迺治冢②作小食堂，传孙子。石工刑续□昭所□□财□③直万…。

12. ①永和六年食堂画像题记 ②永和 6年(141) ③(左段) ④永和四年四月申朔廿七日壬戌，桓彝终亡。①二弟文山，叔山，悲哀治②此食堂，到六年正月廿五日毕成。自念悲(右段)通，不受天祐少终。有⑤一子男伯志，年三岁却，到五年四月三日终，俱归皇[泉]。何时复会，慎勿相忘。传后世子孙，令知之。

13. ①文叔阳食堂画像题记 ②建康 元年(144) ③建康元年八月乙丑朔十九日丁未，寿]贵里文叔阳②食堂。④叔阳故曹史、行]亭市掾、乡啬夫、廷掾、功曹、府文学]掾。有立子三人，女宁，①男弟叔明，女弟]思。⑤叔明蚤失春秋，①长子道士[司]立[成]□□。③直钱万七，⑤故曹史市掾。

14. ①武氏河石闕铭 ②建和 元年(147) ③建和元年，太岁在丁亥，三月庚]戌朔四日癸丑。①孝子武始公、弟]绥宗、景兴、开明，使石工孟李、李]弟卯②造此闕，③直钱十五万。①孙宗]②作师子，③直四万。」 ⑤开明子宣张，仕]济阴。年廿五，曹府君察举孝廉，]除敦煌长史。被病夭没，苗秀不]遂，呜乎哀哉，士女痛伤。

15. ①芑他君石祠堂题记 ②永兴 2年(154) ③永兴二年七月戊辰朔廿七日甲午, ①孤子芑无患, 弟奉宗顿首。家父④主吏, 年九十, 岁时加寅,」 五月中, 卒得病, 饭食衰少, 遂至掩忽不起。母年八十六, 岁移在卯, 九月十九日被病。卜问奏解, 不为有」差, 其月廿一日, 况忽不愈。旬年二亲蚤去明世, 弃离子孙, 往而不反。帝王有终, 不可追还。内外子孙, 且至百人, 抱持啼唼,」 不可奈何。惟④主吏夙性忠孝, 少失父母, 丧服如礼。修身仕宦, 县诸曹、市、主簿、廷掾、功曹、召府。更离元二, 雍养」孤寡, 皆得相振。独教儿子书计, 以次仕学。⑤太子伯男, 结缡在郡, 五为功曹书佐, 系在门阁上计。守临邑尉, 监蒞案狱, 贼」决史。还县廷掾、功曹、主簿, 为郡县所归。坐席未竟, 年卅二, 不幸蚤终, 不卒子道。呜唼悲哉, 主吏蚤失贤子。无患」奉宗, 克念父母之恩, 思念怛悲楚之情, 兄弟暴露在家, 不辟晨夏, ②负土成墓, 列种松柏, 起立石祠堂。冀二」亲魂零有所依止, 岁膺拜贺, 子孙懽喜, 堂虽小, 偃日甚久。取石南山, 更逾二年, 这今成已。使师操毅, 山阳虾丘」荣保, 画师高平代盛、邵强生等十余人。③价钱二万五千, 朝莫侍师。不敢失摧心, 天恩不谢, 父母恩不报。兄弟共居,」 甚于亲在。财立小堂, 示有子道, 差于路食。唯观者诸君, 愿物贩伤。寿得万年, 家富昌,」 此上人马, 皆食大仓。

16. ①安国祠堂题记 ②永寿 3年(157) ③(第29石 右段) ⑤国子男, 字伯孝, 年适六岁, 在东道边。孝有小弟, 字闰得, 夭年俱去, 皆随[国]。(第29石 左段) 永寿三年十二月戊寅朔廿六日癸巳。惟许④卒史安国, 礼性方直, 廉言敦笃, 慈仁多恩, 註所不可。稟寿卅四年, 遭」[祸]。泰山有剧贼, 军士被病, 佞气来西上。正月上旬, 被病在床, 卜问医药, 不为知闻。闇忽离世, 下归黄泉。古圣所不勉, 寿命不」可诤。乌唼哀哉, 蚤离父母三弟。其①弟婴、弟东、弟翠, 与父母并力奉遗, 悲哀惨怛。竭孝行, 殊义笃, 君子烹」之。内修家, 事亲顺勅, 兄弟和同相事。悲哀思慕, 不离冢侧。草庐」容, ②负土成坟, 徐养凌柏。朝奠祭祠, 甘珍」滋味, 嗟设随时, 进纳省定, 若生时。以其余财, ②造立此堂。募使名工高平王叔、王坚、江湖、栾石, 连车採石县西南小山」阳山。琢磨磨治, 规矩施张, 褰帷及月。各有文章, 调文刻画。交龙委蛇, 勳虎延视, 玄媛登高, 师熊」皞。衆禽羣聚,」 万狩云布。台阁参差, 大兴舆驾。上有云气与仙人, 下有孝友贤仁。尊者俨然, 从者肃侍, 煌煌濡濡其色若儻。作治连月, 功扶无亟。③贾钱二万」七千。父母三弟, 莫不竭思, 天命有终, 不可復追。惟倅刑伤, 去留有分。子无随没寿, 王无扶死之臣。恩情未反, 迫慄有制。财币务隐藏, 魂灵悲痛, 奈何涕泣双并。传告后生, 勉修孝义, 无辱生生。唯诸观者, 深加哀怜, 寿如金石, 子孙万年, 牧马牛羊, 诸僮皆良。家子来入, 堂」[宅]」但观耳, 无得琢画。令人寿, 无为贼。祸乱及孙子。明语贤仁四海士。唯省此书, 无忽矣。●冢以永寿三年十二月十六日大岁在癸酉成。(第28石 右段) 阳遂富贵。此中人马皆食大仓饮其江海。

17. ①曲阜徐家村画像石题记 ②延熹 元年(158) ③[延]熹元年十月三日始②作此臧堂。□为珉相皆□□[守]丞, 使工③五万, 又食九万, 并直钱十□万。即□□[廿]日, 成此田买奴。以十一月七日葬妇。此臧中」車马延, □龙虵虎牛皆食大仓。

笔者根据以上内容建造了如下简单的图表。

《表3》前汉以后建造的墓记、画像题记及石阙题记的分类

連番	内容	构成	资料
1	墓主是谁人？	④	9 <张盛墓记>
2	为了死者谁做了什么？	①, ②	7 <阳三老石堂题记>
3	为了死者使用了多少, 做了什么？	②, ③	10 <永建五年食堂画像题记> 17 <曲阜徐家村画像石题记>
4	为了死者使用了多少, 做了什么？	①, ②, ③	3 <肥城县栾镇画像石题记> 4 <莒南孙氏石阙题记> 6 <永元八年食堂题记> 11 <永和二年食堂画像题记>
5	墓主是谁, 是谁为了死者做了什么？	①, ②, ④	1 <路公食堂画像题记>
6	墓主是谁, 是谁为死者建了墓地? 家人是谁?	①, ④, ⑤	2 <三老讳字忌日记>
7	墓主是谁, 是谁为死者做了什么? 家人是谁?	①, ②, ④, ⑤	5 <南武阳功曹阙题铭> 12 <永和六年食堂画像题记>
8	谁为死者使用多少, 做了什么? 家人是谁?	①, ②, ③, ⑤	14 <武氏祠石阙铭>
9	墓主是谁, 是谁为死者使用多少, 做了什么? 家人是谁?	①, ②, ③, ④, ⑤	8 <戴氏画像题记> 13 <文叔阳食堂画像题记> 15 <芑他君石祠堂题记> 16 <安国祠堂题记>

这一墓记、画像题字等的流行终究与墓祭的发达有着深深的关系。与古代对祖先的祭祀为庙制³⁷⁾所不同的是墓祭逐渐发达³⁸⁾。对于宗庙祭祀何时转变为陵墓祭祀, 各自意见不一。《汉书》中有“上冢”的陵墓祭祀的固有词语反复登场, 从而笔者认为陵墓祭祀已在前汉时期登场³⁹⁾。但通过与“上冢”并记的“召宗族”、“会宗族故人”、“会宾客”、“与故人期会”等词语, 陵墓祭祀已超越单纯的对先祖祭祀的行为, 还具有可以确认宗族结合的作用⁴⁰⁾, 而且是可以确认并扩大社会、政治上影响力的行为。

这一陵墓祭祀的执行与墓地形式的变化有关。根据有关墓地形式的研究, 前汉中期以后祠堂开始减少, 而室墓则大量登场。而这一室墓经过祠堂内相通的(祠堂内开通)第一阶段和与墓地外相通的(向外界开通)的第二阶段, 发展到祭祀空间独立的阶段⁴¹⁾。从此墓并非死者独有的空间, 而是转变为活着的人同时行礼并呈现孝道的空间⁴²⁾。因而, 在这一空间不仅为死者, 还为活着的人准备了相应的设置。正

37) 《后汉书》 志第9, 《祭祀下》, “古不墓祭, 汉诸陵皆有园寝, 承秦所为也。”

38) 《论衡》, 《四讳》, “古礼庙制, 今俗墓祀。”

39) 《汉书》 卷100上, 《敍传》, “伯上书愿过故郡上父祖冢。有诏, 太守都尉以下会。因召宗族, 各以亲疏加恩施, 散数百金。”; 《汉书》 卷92, 《游侠 楼护传》, “过齐, 上书求上先人冢, 因会宗族故人, 各以亲疏与束帛, 一日散百金之费。”; 《汉书》 卷92, 《游侠 原涉传》, “涉欲上冢, 不欲会宾客, 密独与故人期会。”

40) 杨宽分析称, 前汉中期以后在地区社会扩大势力的豪族们通过墓制摸索大族团结。杨宽, 前揭书, p.41.

41) 黄晓芬, 《汉墓的考古学研究》(长沙: 岳麓书社, 2003), pp.71, 90-92.

42) 据最近研究, 汉代墓中的便房中设有神坐, 并在墓中进行了祭祀活动。那玄, 认为墓室也是祭祀的空间也不会

是在以上整理的墓室或被称为食堂的祠堂内备有墓记和题记⁴³⁾。

这些题记中占据最多数量的是包括有关墓地建筑相关信息的题记。这些题记记录着墓地建筑的主体和所花费的经费等内容。根据不同题记其主体有可能省略，同时也有未显示墓地建筑的内容的。此外，还有未记述其建筑费用的。但目前无法判读的内容中极有可能包括相关内容，从而可知“是谁为了死者花费多少，建造了什么”是题记中最重要的内容。这意味着什么呢？依据以往的主张，这些题记的焦点并不在纪录祖先的生涯或业绩，而是在活着的人们为供奉祖先做出的德行或业绩上⁴⁴⁾。

其中有些是在表达对死者的深深的哀悼。内容方面虽有不同，但这些墓记大部分是家人为追悼故人而建造的。但是通过非常详细的费用计算以及标明费用主体的铭文来看，我们可以推断出除了单纯体现出活着的人的哀思并呈现此后严肃的气氛以外，还是另有目的的。也就是，不难发现他们通过努力用壁画来装饰墓地来建造华丽的坟墓，以此期待自身可得到的回报的心理⁴⁵⁾。这种心理可以解读为向成为神的祖先寄托，求其可让自身能够得到富贵荣华而在现世生活得更好的想法。或者也可能是在所有亲朋和地区有权势的人们参加的墓地落成仪式上，通过将纪录个人努力的墓记放置在墓室或祠堂中来炫耀其富有⁴⁶⁾。

但通过显示为了准备相应费用所耗费的时间事例来看，这无法只用炫富来说明。反而其主要目的应是体现无微不至的孝道。它与在后汉社会通过体现出无微不至的孝道可获得社会名声有关。特别是它与依据地区人物评价的选拔有直接关系，对政治经验起到重要的作用⁴⁷⁾。其中刻石行为不仅在亲朋和宾客聚集的墓地落成仪式中进行，在每年举行的祭祀过程中在石头上刻上的体现自己无微不至的孝道的内容可以具有在聚集在那里的人们面前重复暴露的效果，从而成为了不可缺的葬礼仪式。题记中直白地出现的“孝子○○○”这一词语应该与其效果不无关系。

但从墓记或题记最终在墓室或祠堂内部来看，这应该局限于个人或一个家庭的葬礼中。当然后汉时期是在墓室或祠堂进行定期祭祀仪式⁴⁸⁾，可猜得出是公开祠堂内的墓记或题记。特别是亲朋好友及宾客或与故人聚会是在祠堂这个祭祀空间展开，从而墓记或题记的公开是不言而喻的。但因为祭祀根据家庭原理是子孙供奉直系血缘关系的祖先，其根本性质只能是隐蔽而私密而且是封闭的行为。从而，除了亲朋和部分相关他人以外，无法看到墓记的内容。那么是否有办法可以更有效地对不特定多数展现自己的孝道呢？

就此可查看地上的纪念碑资料⁵《南武阳功曹阙题铭》。南武阳功曹阙是曾历任南武阳的功曹和乡啬夫、府文学掾等职位的墓主平邑君的儿子文学叔□□为其父耗费4万5千费用找石工来建造的。这是公元

有太大的问题。向井佑介，《墓中の神坐-汉魏晋南北朝の墓室内祭祀-》，《东洋史研究》73-1(2014)，pp.5, 6, 15.

43) 郑岩称，丧葬画像是与制作人的意图无关的全部为“观者”所制作的。郑岩，《关于汉代表葬画像观者问题的思考》，《逝者的面具-汉唐墓葬艺术研究》(北京：北京大，2013)，p.147. 原载：《中国汉画研究》2(2006).

44) 巫鸿 著/金炳骏 译，《瞬间与灵魂》(서울：아카넷，2001)，p.463.

45) 韩正熙，《中国坟墓壁画的墓主图变迁》，《美术史学研究》261(2009)，p.110.

46) 同时，加藤直子表示，从祠堂题记中显示的制作费用极高这一点来看，这些数值有可能是夸张的数额。此外，他还提及了动员优秀工匠的纪录，并认为这一夸张的表现是为了体现极度的孝道而做出的。加藤直子，前揭论文，p.72~73.

47) Martin Powers, *Art & Political Expression in Early China*(New Haven, 1991), pp.42~43.

48) 李如森称，王莽时期前后在墓室里祭祀已广泛流行。李如森，《汉代丧葬礼俗》(沈阳：沈阳出版，2003)，p.64.

87年后汉章帝章和元年 这个比较早期的石刻。仔细查看内容，首先出现的是有关历任南武阳的功曹、乡啬夫和府文学掾的墓主的简单介绍。虽然有不少缺漏而无法准确解释其内容，但可推断出是叙述有关墓主生前的业绩。因为将其视为叙述他可成为国三老的理由比较合理。也就是，有关墓主的介绍和对其业绩的叙述。其后出现的是日期，是章和元年元年2月26日。但无法确认这是卒年卒日还是葬礼日期，或是该庙殿建立的日期。

同时，该墓厥令人感兴趣的是如下内容。这里出现了墓碑上没有的有关建立该石制建造物的人物的内容。虽无法确认是第几个儿子，但纪录着文学掾□□找石工来耗费4万5千的庞大的费用建立了该石厥。从而经过这一墓厥的所有不特定大多数人对于为爸爸花费巨资建立纪念碑的孝心充满的儿子表示赞许。也就是在墓碑 登场以前，显示孝心的纪念碑在地下和地上同时存在。

III. 后汉末定型化墓碑的登场

如上所述，定型化墓碑的登场最早也是在140年代。那么这一时期出现定型化墓碑的原因是什么呢？换言之之定型化墓碑是经过那种过程登场的呢？本章就要就墓碑定型化过程进行复原。若能将墓碑定型化过程复原，即可探究出墓碑中体现出来的后汉社会的变化。为此，首先探讨的是汝南元氏家族的墓碑《袁安碑》、《袁敞碑》和《国三老袁良碑》。

1. 汝南袁氏家族的墓碑-有关官历与世系的叙述

最初的墓碑具有较强的墓表的性质。但在其中会添加墓主的官历，也会叙述世系的情况，还有纪录铭辞。这一变化最初可解释为是接近《释名》中所提及的墓碑乃“记述功德”之物这个标准。较早时期的《袁安碑》和《袁敞碑》中与此前的墓碑不同，出现了有关墓主事迹的详细记述。让我们探讨一下《袁安碑》的情况。

司徒公汝南南阳袁安召公，授易孟氏[学]，永平三年二月庚午，以孝廉除郎中，四[年]十一月庚午，除给事谒者，五年四月乙□，迁东海阴平长，十年二月辛巳，迁东平[任]城令，十三年十二月丙辰，拜楚郡[太]守，十七年八月庚申，徵拜河南尹，[建]初八年六月丙申，拜太仆，元和三年五[月]丙子，拜司空，四年六月己卯，拜司徒，孝和皇帝加元服，诏公为宾，永元四年[三]月癸丑薨，闰月庚午葬。

众所周知，袁安是后汉最大门阀之一豫州汝南袁氏的一个成员。他是家系开始的袁良之孙，是家族最初成为三公(司空、司徒)的人。此后，汝南袁氏家族有两位成了司空(袁敞、袁逢)，还各有一位成了司徒(袁隗)和太尉(袁汤)，从而成立超一流著姓⁴⁹⁾。袁氏家族与参与创建后汉的功臣集团——三辅的名门一同靠儒学能力掌管后汉初期三代(光武、明、章帝)政治而成长⁵⁰⁾。但是到了窦宪和三辅人士作为权利核心人物活动的和帝时期，与其对立的《孟氏易》不仅靠学问还因其与他们对立并反外戚的态度成为了

49) 矢野主税，《改订魏晋百官世系表》(长崎：长崎大，1971)，p.6 <袁氏世系图>。

50) 东晋次，《后汉時代の政治と社会》(名古屋：名古屋大，1995)，pp.136~137。

政府重要的势力⁵¹⁾。

袁安是为汝南袁氏家族奠定基础的人，因他实际上从这个时期起袁氏家族的成长才开始表面化。《袁安碑》正是在袁安死后竖起的墓碑。那么与此前具有差异的记述墓主的事迹，特别是详细叙述官历的墓碑登场的原因是什么呢？为什么将只能在地下的“墓记”、“封记”和“画像石题字”中发现的有关墓主履历给不特定多数人看呢？这里需要注意的是，“墓记”、“封记”、“画像石题字”中墓主的履历来到地上，但未在这里发现为墓主做出的无微不至的孝心。这在袁安的儿子袁敞的墓碑上也同样。

字□平，司徒公□□□
 □月庚子，以河南尹子除
 □五月丙戌，除郎中，九年
 门侍郎，十年八月丁丑，
 十月甲申，拜侍中
 步兵校尉，延平元
 匠，其十月丁丑，拜东
 丙戌，徵拜太仆，五年
 初二年十二月庚戌
 薨，其辛酉葬。

因此，可以知道叙述墓主官历的该墓碑其墓地并非在于体现无微不至的孝心。那么其他的目的是什么呢？这是否与选举有关联呢？与后汉时期其他地区相比，根据将重点放在陈留、汝南和颖川三郡人物评论较重要的事实上的冈村繁的分析，这三个郡优秀人才较多，从而要比任何其他地区靠孝廉来选拔人才的竞争较为激烈，而且也是如图辟召这样人才铨衡较难得地区。因此，这里自然形成了较强的靠对人品的评判来做判断标准的风气⁵²⁾。当然冈村繁所分析的时期是桓帝、灵帝时期，从而难以成为准确的根据。但根据有关汝南郡人士受重视的时期并非为桓帝、灵帝时期，而是后汉中期的论证研究⁵³⁾，将汝南郡中孝廉及辟召竞争激烈的时期视为袁安或袁敞所在的时期也不为过。

而袁氏家族也会为在激烈竞争长占据有利的地位做出努力，而完全有可能将通过这一努力使其家门前有人可以成为三公的事实“刻在石头上”“永久性”“向不特定多数人公开”的方式来体现。当然汉代的人才选拔与魏晋时期不同，是靠个人的能力来进行选拔的。但高官子弟在人才选拔过程中占据有利的位置也是不可否认的事实。因而，可很容易地推断出将袁氏家族的官历一一详细注明的立碑行为对当时推举所起到的影响。此外，这一立碑行为定会在地区社会有助于袁氏家族的影响力极大化。为此，需要看一下袁安的祖父袁良死亡后建立的墓碑。

可视为汝南袁氏家族的起点的袁良的墓碑自被选为孝廉后，有关郎中、谒者、将作大匠、丞相令、广陵太守、议郎、符节令到国三老的墓主官历被详细叙述，与此同时有关其家族的叙述占据了整体墓碑内容的一半。

51) 《后汉书》卷45, 《袁安传》, “自天子及大臣皆恃赖之。”

52) 冈村繁, 《后汉末期の评论的风气について》,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论丛》22-文学8(1960), pp.73~74.

53) 渡邊义浩, 《后汉国家の支配と儒教》(东京: 雄山阁, 1995), pp.116, 124~125, 130~135.

厥先舜苗，世为封君。周之兴，虞阏父典陶正，嗣满为陈侯，至玄孙涛涂，初氏父字，立姓曰袁。鲁僖公四年，□为大夫。哀十一年，颇□司徒。其末或适齐楸，袁生独留陈。当秦之乱，隐居河洛，高祖破项，寔从其册。天下即定，还宅扶乐。孝武征和三年，曾孙干斩贼公先勇，拜黄门郎，封关内侯，食遗乡六百户。后锡金紫，迁修城之□。干薨，子经嗣。经薨，子山嗣。传国三世至王莽而绝。君即山之曾孙也。

通过这一墓碑，我们可以得知汝南袁氏家族不仅是出了两名三公的新兴高级官僚之家，而且其根源在舜，并且在春秋时期和前汉时期世代为名门望族。将这一家族的伟大显示给不特定多数人的理由是什么？我们有必要回想起建造于106年的记述有袁家谱的详细内容的《贾武仲妻马姜墓志》⁵⁴⁾。但它是在地下墓地而非在地上。从而只有家族的成员或最少相关人员才可以看到它。而袁氏家族的家谱不仅向其家人，还向地区所有的人公开了。如果将其与该时期豪族的自主化或地方支配力的增加⁵⁵⁾相结合会是过分的事情吗？

其实，这样在墓碑上叙述家谱的情况要比袁良的墓碑早3年的四川地区已出现。这正是《王孝渊墓碑》，其中出现了墓主的讳、祖籍、官历、卒年、葬日和有袁家谱的叙述和铭辞。那就查看一下除去铭辞的部分，即序部分。

永初二年七月四日丁巳，故县功曹，郡掾□□孝渊卒。呜唼□□孝之先，元祐关东，丧秦揭益，功烁纵横。汉徙豪杰，迁□□梁，建宅处业汶山之阳。崇誉休□，昌与比功，故刊石纪□□德所行，其辞曰。

因无有关王孝渊的文献纪录，从而存在无法复原的部分。但可知王孝渊的家族因在汉朝建立后实施的豪杰移居政策⁵⁶⁾，移居到今天的四川省郫县北部汶山下，以及他们是山东的名门望族。但墓主王孝渊以前的王氏家族却没有特别以官历著称的人。从而应该是直至王孝渊经过县的功曹成为了郡的掾史，当时属于被称为“县中士大夫”中的一员。他们是属于该地区豪族出身⁵⁷⁾。其中王孝渊在该地区不仅进入县廷还跻身于郡廷可知其属于比较上层的豪族出身。

在开始获得社会经济力量的豪族之中，到后汉中期开始形成了影响地方社会的学习儒学的风潮，而这一风潮得以普及。开始出现了豪族出身的诸生、儒生，而他们基于地方统治所需的教养和能力开始独占郡县的掾史层⁵⁸⁾。而同时这也意味着豪族对地区社会的影响力加大，其结果与地方官和豪族携手不无关

54) “惟永平七年七月廿一日，汉左将军特进胶东侯。」第五子贾武仲卒，时年廿九。」夫人马姜，伏波将军新息忠成侯之女，」明德皇后之姊也。生四女，年廿三而贾君卒。」夫人深守高节，」劬劳历载，」育成幼媛，光□祖先。遂升二女为」显节贵人。其次适鬲侯朱氏，其」次适阳泉刘氏，朱紫缤纷，宠」禄盈门，皆犹」夫人。夫人以母仪之德，为宗族之覆。春秋」七十三，延平元年七月四日薨。」皇上溇悼，兩宮贖贈，赐秘器，以刘瘞，以九月十日葬于芒门旧茔。□□子孙，惧不」能章明，故刻石纪。”

55) 东晋次分享称，经过和帝、安帝时期地方豪族自主化，而且对地方的支配力加大。东晋次，前掲书，p.253.

56) 据《汉书》《高祖纪》记载，在9年(前198)最初实施了将齐、楚五大族移居到关中的大型徙民政策。《汉书》卷1下，《高祖纪下》，“十一月，徙齐楚大族昭氏·屈氏·景氏·怀氏·田氏五姓关中，与利田宅。”但根据有关前汉强干弱枝政策的研究，徙民的对象并非仅为齐和楚，而是面向旧六国整体的广泛而彻底的行为。许富文，《汉代中央与地域的相互关系研究》，西江大博士学位论文(1998)，pp.44~45.

57) 增渊龙夫，《所谓东洋的专制主义と共同体》，《一桥論丛》47-3(1962)，p.276.

58) 东晋次分析称，这一现象以豪族为中心的地区形成了知识阶层=士大夫集团。东晋次，前掲书，p.254.

系。是否可将这一系列情况视为在地区发挥影响力的豪族公开呈现自身家系的背景呢？特别是《王孝渊墓碑》基于儒家素养来展现自身教养的王氏家族的自豪感以铭辞的形态呈现在世上。

不仅是有关墓主的简单信息，还详细叙述了墓主的官历和家谱的墓碑的登场并非局限于对外展现孝道的方式，而是遵循后汉时期地方豪族成长的另一种现象。当然不可否认其最终是为了在推举中占据有利地位的努力的结果。对于加大地区社会的影响力，进行炫耀并巩固其地区支配者地位的地区豪族来说，墓碑是一个好的工具。

2. 门生故吏的立碑与铭辞的出现

正如洪适指出的，汉碑的大部分是由门生故吏所造，后汉代所建的墓碑大部分由门生故吏所建。据称特别是桓帝和灵帝时期所建的135个墓碑大部分由门生故吏为其师傅或故主所建⁵⁹⁾。其中由门生为其师傅所建的墓碑中较早的有《谒者景君墓表》。安帝元初元年114年，为了死亡的师傅由14名门生和1名义士所建立。上门刻有为吊念于元初元年5月丁卯死亡的曾任谒者的任城县(今天的山东省济宁市)出身的景君，并为纪念其德行而建立的较短的序和铭辞。

碑阴刻有建立此墓表的景君门生的名字。这些门生如下。

《表4》谒者景君墓表碑阴分析

連番	区分	姓名	字	地域(广)	地域(狭)
1	义士	张敏	公辅	北海(现 山东)	剧县(现 寿光市 纪台村)
2	弟子	宁尊	伯尊	济北(现 山东)	茌平(现 茌平县)
3	弟子	方京	孟平	山阳(现 山东)	南平阳(现 邹城市)
4	弟子	吴良	威贤	济北(现 山东)	茌平(现 茌平县)
5	弟子	宋成	子宾	齐国(现 山东)	临淄(现 淄博市)
6	弟子	刘封	汉辅	齐国(现 山东)	临淄(现 淄博市)
7	弟子	吕昌	永兴	鲁国(现 山东)	卞(现 泗水县)
8	弟子	牟龙	文世	乐安(现 山东)	高宛(现 邹平县 苑城县)
9	弟子	刘翼	仲禹	清河(现 山东)	灵(现 高唐县 南镇)
10	弟子	孟诉	辅公	清河(现 山东)	灵(现 高唐县 南镇)
11	弟子	孟福	叔道	清河(现 山东)	灵(现 高唐县 南镇)
12	弟子	田朗	季特	魏郡(现 河北)	斥丘(现 成安县)
13	弟子	景茂	元愷	魏郡(现 河北)	内黄(现 汤阴县 故城村)
14	弟子	尹仓	升进	山阳(现 山东)*	湖陸(现 鱼台县)
15	弟子	董奋	元夜	山阳(现 山东)	湖陸(现 鱼台县)

*山阳按治所标准属于现河南，但湖陆县属于今天的山东，从而山阳归类为山东。

属于今天山东省济宁市的任城出身的景君的门生们也是按当时流行的游学风潮聚集在其师傅门下。但从被称为义士的一个人和大部分门生是山东人这一点比较引人注目。也就是难以断定是因为有关景君的信息不足还是因其他情况所致，但从其门生大部分为山东出身这一点，可推测出他们是景君在山东任地

59) 黄金明, 《汉魏晋南北朝诂文研究》(北京: 人民大, 2005), p.45.

方官时所教授的人们⁶⁰)。即这些人虽是师傅和门生关系，但也可能是故人和故吏的关系。他们为什么为景君建立了墓碑呢？

后汉时期师傅和门生之间人格的结合会得到强化，而门生对师傅的服从和献身成为社会普遍现象也是众所周知的⁶¹)。作为这一现象的原因也可从私学繁盛来解释。这可分析为因私学的昌盛使师傅和门生之间的恩义感更加紧密而发生的事情⁶²)。但徐干对当时师傅对门生的态度称为“袭婢妾之态”，并将其理由解释为是因为“图仕进”，可知这一现象为何发生⁶³)。也就是，后汉时期作为门生强有力的可成为官僚的方法即改变性格⁶⁴)而发生了该现象。随着师傅和门生之间变为推荐人和被推荐人的关系，他们的关系逐渐转变为一种君臣关系，⁶⁵)并因此使门生对师傅服从和献身成为社会普遍现象。因汉代士大夫的最终目标为入仕⁶⁶)，从而这一现象到了推进竞争更加激烈的后汉末期更加严重。门生们面临必需向师傅服从和献身的现实。

同时，汉朝的推举由地方官来推荐，从而与地方官的紧密关系也成了决定推举的重要因素。因而，得到地方官的教授，成为地方官门生在推举中是具有非常重要意义的⁶⁷)。接受地方官教育的人们积累儒家素养，最终得到地方官的推举成为郡县掾史的可能性较大的事实已在现有的研究中进行阐明⁶⁸)。因而，接受地方官儒学教育的人们有可能以更特别的态度追悼其师傅的死亡。从而也许这一系列情况是由门生以建立《谒者景君墓表》的现场造成的。

这里值得注意的是正是铭辞。应该是最早时期的铭辞⁶⁹)，但很遗憾因遗漏的部分过多而难以进行解释。但不难发现使用了“脩仁”、“言信行笃”、“谦廉”、“孝亲忠君”等儒家用语。也就是，很容易了解这是由具有儒家素养的人书写的。例如，从《王孝渊墓碑》中发现的一样，是具有儒家素养的人们为显示自身的学术能力而通过铭辞来体现⁷⁰)。在精通儒学为成为官吏资格的后汉时期⁷¹)，表现出对师傅的追悼之心的同时可以展现自己的学术能力的铭辞可成为对推举有利影响的手段。

但至今《谒者景君墓表》的铭辞中却未发现儒家经典字句。而且即使登场也还不是完全的儒教世界的景象。其中《王孝渊墓碑》的铭辞具有代表性。这里虽然引用了“台台勿忘”等体现和顺景象的《论语》的句子⁷²)，但同时也发现了体现道家世界“清约”、“节俭”、“进退”和“应命”等词句⁷³)。而建于汉安2年

60) 碑文未记述官历，从而无法知晓景君是否历任地方官，但根据后汉地方官在任地郡国学或县校负责教授儒学的情况较多的分析(东晋次，前揭书，p.264)，有必要考虑作为地方官负责教授儒学。

61) 朱子彦，《论先秦秦汉时期的两重君主观》，《史学月刊》2004-2，p.22.

62) 王彦辉，《汉代的“去官”与“弃官”》，《中国史研究》1998-3，p.21. p.25.

63) 徐干，《中论》，《讷交》.

64) 川胜义雄，《六朝贵族制社会の研究》(东京：岩波书店，1982)，p.268.

65) 余英时，《士与中国文化》(上海：上海人民，1987)，p.298.

66) 这是孔子以来传下来的儒家传统，儒家们相信当官吏以此实现道来在世上行义(《论语》，《微子》，“子路曰，不仕无义，长幼之节，不可废也。君臣之义，如之何其废之。欲挈其身，而乱大伦。君子之仕也，行其义也。”)。特别是与“治国平天下”的行动相关的汉代儒学使人们认为是实现士大夫任官的媒介。

67) 汉代地方官中具有功曹、督邮、主簿等属吏的任命权，这从严耕望做出的详细分析得知。严耕望，《中国地方行政制度史 甲部 秦汉地方行政制度》(台北：中央研究院语言研究所，1990)，p.77.

68) 远藤祐子，《汉代における地方官学の政治的机能》，《立命馆史学》14(1993)，pp.35-47.

69) 《隶释》，《谒者景君墓表》，“盖表阡，铭圻之濞觴也。有文而传于今，则自景君始。”

70) 郑岩将画像题记也视为孝子们显示自身文学修养的结果。郑岩，前揭论文，p.156.

71) 远藤祐子，前揭论文，p.29.

72) 《论语》，《子路》，“朋友切切偲偲，兄弟怡怡。”

(143)的《北海相景君碑》的铭辞中不仅发现了《论语》74)中的字句,还发现了源于《诗》75)、《书》76)、《礼记》77)等的字句。此外,除了铭辞以外,在序言部分还发现了引用《论语》、《诗》、《易》、《礼记》等经典的字句78)。再有,这一倾向到了后代更加明显,建于建和元年(147)的《武斑碑》的墓碑文中除了卒年卒日、墓主的姓名以外的世系、墓主品德、官历叙述部分引用或变相使用包括《论语》79)、《诗》80)、《书》81)、《左传》82)、《孟子》83)等中的字句。因而铭辞成了建立墓碑或建造铭辞的人们展现其儒家教养的良好手段。

此后,开始出现了专门书写墓碑铭的人们,蔡邕可称为代表性人物84)。不仅是蔡邕,当时会写文的人们85)大部分参与了书写碑文。据范文澜引用的《墓志铭考》,可知这一行为是为了获得名声的行为86)。当然,汉末碑文的建造并非只是与推举有直接的关系。这一时期通过集体吊念行为、立碑及献私谥等在民间获得好名声而与皇帝权势对峙的士大夫们,应该是为了建立独立而具有自主性世界的复杂的意图做出此事的。因而,后汉时期碑文的建造不可以统一的标准来解释。但正如以上探讨的,不可否认铭辞的登场与当时推举有关并可体现出儒家素养,还有因此获得名声的特定目的具有紧密的联系。

结语

本文旨在复原后汉时期墓碑定型化过程,并透过此对通过墓碑体现的后汉社会景象进行分析。为此,本文查看了以下内容。

- 73) 《淮南子》,《主术训》,“尧乃身服节俭之行,而明相爱之仁。”;《庄子》,《达生》,“进退中绳,左右施中规。”;《尹文子》,《大道上》,“名者,名形也。形者,应名也。”
- 74) 《学而》,“主忠信”;《学而》,“慎终追远”
- 75) 《大雅·板》,“藩屏”;《幽风·七月》,“不永瘵寿”;《召南》,“甘棠”
- 76) 《尧典》,“考积”;《禹贡》,“海岱”
- 77) 《丧服四制》,“谅闇”;《乐记》,“礼备”
- 78) 《左传》,《哀公16年》,“歎歎哀哉”;《诗》,《小雅》,“于何穹苍”;《论语》,《颜渊》,“有生有死”;《诗》,《邶风》,“天寔为之”;《书》,《舜典》,“上世群后”;《论语》,《卫灵公》,“帅礼蹈仁”;《论语》,《颜渊》,“克己治身”;《易》,《说卦传》,“寔柔寔刚”;《诗》,《鲁颂》,“乃武乃文”;《诗》,《大雅》,“鞶衞改节”;《诗》,《鲁颂》,“夙宵朝廷”;《孝经》,《三才》,“先以敬让”
- 79) 《先进》,“颜回之懋质,长敷游夏之文学。”;《述而》,“先圣与仁”;《子张》,“生荣死哀”
- 80) 《小雅》,“孝友玄妙”;《大雅》,“求福不回”;《大雅》,“薄伐□□”;《商颂》,“自古在昔”;《大雅》,“是为万年”
- 81) 《吕刑》,“百姓赖之,邦域既宁。”
- 82) 《僖公5年》,“勋臧王府”;《隐公8年》,“因以为氏焉”;《文公18年》,“不陨其美”;《成公12年》,“慈惠宽□”;《昭公元年》,“帝庸嘉之”;《哀公16年》,“匡正一□”
- 83) 《公孙丑上》,“贯洞圣□”
- 84) 王应麟,《困学纪闻》卷13,《考史》,“蔡邕文今存九十篇,而铭墓居其半,曰碑,曰铭,曰神诰,曰哀赞,其实一也。”;《文心雕龙》,《诔碑》,“蔡邕铭思,独冠古今。”;《文心雕龙》,《诔碑》,“才锋所断,莫高蔡邕。”
- 85) 除蔡邕以外,以制作后汉时期碑文著称的还包括桓麟、崔瑗、胡广、孔融、马融、卢植、服虔、张升、张超、皇甫规、刘珍等人。
- 86) 范文兰,《文心雕龙注》,《诔碑》,“东汉则大行碑文,蔡邕为作者之首,后汉文苑诸人,率皆撰碑,东京土风,虽号淳厚,意者慕声市利之事。”

首先, 查看了墓碑初期形态。研究人员的一般理解是墓碑是为在墓地填埋棺而建立的丰碑, 而碑文是为叙述君主或父亲的功德开始产生的。从而, 将出现记述了功绩的墓碑的后汉时期设定为墓碑出现的时期。当依据《周礼》及《汉书》等的叙述, 墓碑最初的形态中表志的意义较强。那么作为具有只纪录了卒年卒日和墓主姓名的墓表性质的墓碑, 是通过什么契机转变为以①碑额、②讳、③字、④本籍、⑤家系(=世系)、⑥品行和⑦官历为中心的包括履历、⑧卒年月日、⑨享年、⑩追赠、⑪葬日或立碑日和⑫铭辞等的定型化墓碑的呢? 通过分享可知墓碑在卒年月日和墓主姓名上首先添加了官历、家谱和品德等内容, 此后还添加了铭辞。再有, 这一形式定型化是在140年代以后。那么, 这段时间发生了什么事呢?

首先, 探讨了有可能给墓碑定型化带来影响的石物。这正是后汉初期以后正式开始登场的“墓记”、“封记”和“画像石题字”等。这些墓碑并非建在地上, 但上边记述着墓地的姓名、籍贯、官历、死亡日期、葬礼日、家庭关系等, 此外还叙述了为死者建立墓碑的人和纪念物的内容等。特别是纪录墓地建筑的信息的墓碑占大多数, 而且可知“为死者由谁花费了多少, 建造了什么”是题记中最重要的内容。这是因这些石刻建造的第一目的是活着的人为显示其无微不至的孝心而制作导致的。但因这些石刻位于墓室内部或祠堂里, 从而只可暴露在特定人群面前, 从而显示其孝心是有局限性的。也许是因为这一局限性是使墓碑出现在地上的原因。此外, 笔者认为在这一过程中题记中记述的墓主的官历和家谱等相关内容开始出现在墓碑上。

但墓碑上未出现墓地建筑相关叙述和建筑费用还有其建造人等信息, 可知到地上的墓碑的作用并不限于宣传其建造人的孝心。墓碑中记述了有关死者的更具体的信息。其中开始对其官历进行仔细的记述。有代表性的是汝南袁氏家族的一系列墓碑中对墓主的官历进行了详细的叙述。一个家族的政治能力被刻在石头上反复被公开在不特定多数人面前。这很难与当时根据地区的名声进行推举的行为分开来想。再有, 也可以很容易地推断出这是在地区社会将其家族的影响力极大化的好的工具。也就是, 叙述墓主官历和家谱的墓碑的登场是一种对外宣传孝道的方法, 但太也具有使在地方成长的豪族在推举中占据有利的位置, 并加大在地区社会的影响力以此来巩固其在地区支配者的位置的过程中被利用的里程碑的性质。

墓碑并非单纯地成为孝道的体现, 从后汉时期相当数量的墓碑由门生和故吏所建可知。这最终与推举有关。作为对师傅和故主的全身心的献身和服从的体现方式, 墓碑被利用起来。师傅和门生之间成为推荐人和被推荐人的关系, 地方官成为地方官学的教授, 或是推举由地方官来执行, 从而与地方官之间的密切关系变得重要, 并需要对其作出特别的感情表示。这个事情登场的正是铭辞。体现出对师傅和雇主的哀思之情, 同时还可呈现其学习作为推举标准的儒家素养的程度的铭辞应该是可以展现其名声的良好手段。

墓碑的出現與後漢末期墓碑銘的定型化

洪承賢 (西江大學)

本文旨在復原後漢時期墓碑的定型化過程，從而了解投映在墓碑上的後漢時期社會面貌。為此，本文將探討如下內容。

首先，研究墓碑的早期發展過程。一般認為，墓碑從古時在引棺入墓的大木即“丰碑”上面記述君主或父親的功德開始的。所以，本文把記述功績的墓碑出現的後漢時期定位為是墓碑出現的年代。不過，根據《周禮》和《漢書》等敘述，最早的墓碑標識功能較強。那麼，本來僅寫卒年卒日和墓主姓名的、以墓表的特点為主的墓碑，通過何種需求和契機而定型化，變得以①碑額、②諱、③字、④本籍、⑤家系(=世系)、⑥品行、⑦宦迹等經歷、⑧卒年月日、⑨享年、⑩追贈、⑪葬日或立碑日、⑫銘辭為主要內容的墓碑呢？通過分析可以了解，早期墓碑主要以卒年月日、墓主姓名為主，加上宦迹、家系及品行，然後再加上銘辭。這樣的墓碑俱全內容而定型化是在一世紀40年代之後完成的。那麼，這一時期到底發生什麼事情呢？

為此，本文研究可能影響墓碑定型化的一些石刻，即後漢初期出現的“墓記”、“封記”、“畫像石題字”等。這些雖然不是地上石刻，但是都記述墓主的姓名、籍貫、宦迹、卒葬日及家系等內容，還記載為故人造就紀念物的人和紀念物的內容。這些石刻多半提供有關墓志建築的信息，尤其以誰為故人投入多少錢、做什麼為主要內容。這是因為這些石刻以表現出後裔孝順為第一目的而造就。不過，這些石刻放在墓室內部或祠堂里面，具有僅向特定人員顯現自己孝心的局限性。這樣的局限性應該使得地上墓碑出現。

不過，我們不能把墓碑的作用完全歸於孝心的表現。還有，墓碑並無敘述有關墓碑建築的過程、費用以及制造人員等內容。這告訴我們，地上墓碑的主要用途不是孝心的宣傳。墓碑主要記載有關故人的具體信息，特別詳細記述的是他的宦迹。例如，汝南袁氏家屬的墓碑都詳細地描述墓主的宦迹。這樣，一家的政治能力刻在石頭上，反復永久地展現在多數公眾面前。這與當時地方普遍進行根據名聲進行選舉的事實有一定的關係。可見，墓碑是在地方社會最大限度地擴大一家影響力的最佳方法。總之，敘述墓主的宦迹和家系的墓碑出現，不僅是對外表現出孝心的好辦法，而且也是地方豪族為在選舉占據優勢、擴大其影響力而進一步鞏固其地方主導者地位，而利用的一種紀念碑。墓碑定型化現象在選舉競爭日趨激烈的後漢中期出現，也不是偶然的。

墓碑並不是單純孝心的表現，從後漢時期大部分墓碑由門生故吏造就的事實也可證明。這也終究與選舉有關。他們為表現出自己對師傅和故主的服從和獻身而利用墓碑。師生關係變為推荐者和被推荐者的關係，地方官員想在地方官學任教，選舉由地方官推荐。所以，他們與地方官的緊密關係變得非常重要，也因此需要一種表現出格外感恩的方式。在這裡，當時出現的銘辭值得矚目。與“序”以墓主信息為主不同，以頌德為目的的“銘辭”可謂墓地定型化的重要標志之一。韻文銘辭主要借用經典的句子而寫，既能表現出撰者對師傅和故主的悼念，又能展現出撰者的選舉標準，即儒家素養水平，同時還成為提高建碑者聲名的最佳途徑。

墓碑の出現と後漢末の墓碑銘の定型化

洪承賢 (西江大学)

本稿の目的は、後漢時期の墓碑の定型化過程を復元し、それを通じて墓碑に投映された後漢時期の社會相を究明することである。そのために、本稿では以下のような内容を検討してみた。

まず、墓碑の初期の形態について検討した。大多数の研究者は、墓碑は墓の中に棺を下すために立てた豊碑に、君主または父親の功德を記述したことから始まったと理解してきた。したがって、功績が記述された墓碑が現れる後漢代を墓碑の出現時期として設定した。しかし、『周禮』および『漢書』などの敘述によると、墓碑の最初の形態は標識の意味が強かったことが分かる。そうであれば、卒年月日と墓主の姓名のみが記された墓表としての性格が強かった墓碑がどのような必要と契機を通じて、①碑額、②諱、③字、④本籍、⑤家系(=世系)、⑥品行、⑦官歴を中心とする履歴、⑧卒年月日、⑨享年、⑩追贈、⑪葬日または立碑日、⑫銘辭などを含む形で定型化したか。分析によって、墓碑は最初に卒年月日と墓主の姓名のみが記述された形式に官歴と家系、品行が追加され、後に銘辭が加えられた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そしてこのような内容を具えて墓碑が定型化することは一四〇年代以降であった。その間にどのような出来事があったのか。

墓碑の定型化に影響を及ぼしたのであろうと推定される石刻を検討したが、それは後漢初期から本格的に登場した‘墓記’‘封記’‘畫像石題字’などである。これらは地上に立てられたものではないが、墓主の名前と貫籍、官歴、死亡日、葬禮日、家族關係などが敘述されており、死者のために記念物を立てた人とその記念物の内容が書かれていた。これらの石刻は大多数が墓地の建築に関する情報を提供しているが、特に‘死者のために誰がいくらを拂って何を作ったか’という点が最も重要な内容であった。これはこれらの石刻が生きている者の至極な孝誠を表すことを一次的目的としたために生じたのであると思われる。しかし、これらは墓室の内部あるいは祠堂の中に位置している点のために、特定の人のみにその孝誠を表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限界を持つ。恐らくこのような限界が地上の墓碑を出現させるようになった原因であろうと思う。

それにしても、墓碑の役割を孝誠を表すためのものだけである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ろう。墓碑に墓地の建築についての敘述と建築の費用、そしてその製作者が敘述されていないことは、地上に上がった墓碑の主な用途が孝誠の宣傳ではないことが分かる。墓碑には死者についてより具體的な情報が載せられた。その中でも彼の官歴が詳細に記述し始めた。代表的に汝南袁氏家門の一連の墓碑には墓主の官歴が詳細に敘述されている。ある家門の政治的能力が石に刻まれて反復的に不特定の多數に永久に公開されたのである。當時、地域で名聲に基づいた選挙が行われることとこれを分離して考えることは難しいのであろう。またこれがこの地域社會でその家門の影響力を極大化するいい道具になったのであろうことも易しく推測できる。即ち、墓主の官歴と加笄が敘述された墓碑の登場は、對外的に孝を表すための方法でもあった

が、地方で成長した豪族が選挙で有利な高地を占めて地域社会で影響力を増大し、地域の支配者として位置を鞏固にしていこうとする過程で利用した記念碑の性格を持ったのである。墓碑の定型化という現象は、選挙の競争が激しくなる後漢中期を起点に現れたことは偶然ではないのであろう。

墓碑が単に孝の表現だけではなかったことは、後漢時代の相当な数の墓碑が門生と故吏によって作られたことから分かる。これもまた窮極的には選挙と關聯がある。師匠と故主に對する至極な献身と服従を表現する方法として墓碑が使われたのであろう。師匠と弟子の間が推薦者と被推薦者の關係になってから、地方官が地方官學で教授すると、あるいは選挙が地方官の推薦よって行われて地方官との密着した關係が重要になってから、これらについて特別な感情の表示が必要したのである。さてこの時に登場した銘辭が注目される。墓主についての情報を含んでいる序とは異なり、銘辭は頌德を目的として作成されたものであり、墓誌の定型化に重要な指標であると言える。韻文の銘辭は主に經典の文句を借用して作成されたが、これは師匠と故主に對する追慕の心を表すと同時に、選挙の基準である儒家的素養の習得程度を示すことができるいい手段であることと同時に、建碑者の名聲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いい方便であったのであると思われる。

北齊 道教造像 研究

소현숙 (원광대학교)

北齊 道教造像 研究

소현숙 (원광대학교)

I. 머리말

남북조시대 도교 조상은 5세기 후반, 즉 북위 太和 연간부터 출현하기 시작해¹⁾ 6세기에 이르러 다수 제작되었다. 최근 통계로 볼 때, 제작시기가 분명한 것은 50여건에 이른다.²⁾ 이 가운데 남조의 도교 조상은 사천성 成都 출토 석상이 유일하게 현존하며, 나머지는 모두 북조 조상이다.³⁾

북조 도교 조상은 대부분 섬서 關中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밖에 산서 등지에서 소량 출토되는 등 전반적으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⁴⁾ 특히 북위 멸망 이후의 북조지역 도교 조상은 대부분 西魏·北周에 편중되어 있으며, 東魏·北齊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동위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도교 조상이 없다.⁵⁾ 북제도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많은 학자들에 의해 북조 도교 조상이 정리되었는데, 북제 조상의 현존 수량에 대해선 저록들마다 차이가 있다. 대략 2~5건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神塚淑子가 집록한 수량이 가장 많아 5건에 이른다. 그는 도교 조상 연구로는 비교적 이른 1993년 논문에서 남북조시대 도교 조상(佛道조상비 포함) 49건을 표로 정리했는데, 북

- 1) 일반적으로 魏文朗造像을 북위 始光元年(424) 제작으로 보고 가장 이른 시기의 도교조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 石松日奈子の 견해를 따라 이 상을 정광 연간 제작으로 보고자 한다(『陝西省耀縣藥王山博物館藏<魏文朗造像碑>の年代 — 北魏始光元年銘の再検討』, 『佛教藝術』 240號, 1998. 이 글의 中文은 『關於陝西省耀縣藥王山博物館藏<魏文朗造像碑>의年代』란 제목으로 『敦煌研究』 1999年 4期 참조). 그렇다면 현존하는 도교 조상, 혹은 불도 혼합조상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태화20년(496) 姚伯多造像이다.
- 2) 張勛燦·白彬, 『中國道教考古』 2, 北京: 線裝書局, 2006, p.643에서는 55건으로 분류했다.
- 3) 成都市文物考古工作隊·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成都市西安路南朝石刻造像清理簡報』 『文物』 1998年 11기, p.11, p.18의 도21.
- 4) 胡文和, 『中國道教石刻藝術史』 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p.2; 張勳燦·白彬, 『中國道教考古』 2, 北京: 線裝書局, 2006, p.661.
- 5) 神塚淑子は 『南北朝時代の道教造像-宗教思想史的考察を中心に』에서 大阪市立美術館 소장 천보 5년명 도교사면상을 동위로 분류했는데, 천보5년(554)은 북제시기에 해당한다. 그가 『六朝道教思想の研究』, p.477에서 제시한 이 사면상의 명문에는 “歲次甲戌十二月十八日”만 쓰여 있을 뿐, 왕조 이름과 연호 등은 없다. 북조 말년의 갑술은 북제 天保5년과 서위 恭帝 拓拔廓 원년에 해당하는데, 이 명문만으로는 북제로 비정하기 어려워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 조상은 佳文賢造四面像碑로도 알려져 있는데, 조상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夫至道沖妙, □□□隱□象□□□□□業, 精進士佳文賢仰爲亡母造四面像一. 採石名山, 京色秀巧, 刊見眞容, 華艷妙又?. 願亡母上昇天堂, 見在元吉, □受□延, 了覺群表. 又願皇帝太子大丞相受命中興, 祚延七百, □及眷屬, 咸同□□□. 歲次甲戌十二月十八日”. 한편 張勳燦·白彬은 이 사면조상을 구체적 설명 없이 북제시대로 비정하였다(『中國道教考古』 3, 北京: 線裝書局, 2006, pp.712-713).

위 28건, 서위 1건, 북주15건, 북제 5건 등이다.⁶⁾ 많게 추산해도 북제 도교 조상의 수량은 북주의 1/3에 불과한 셈이다.

제작연대가 분명한 북제의 도교 조상은 현재 3건이다. 천통원년(565) 姜纂造老君像碑(‘강찬조상비’로 약칭), 무평7년(576) 孟阿妃造老君像碑(‘맹아비조상비’로 약칭), 그리고 무평9년(578) 馬天祥等八人造像(‘마천상조상’으로 약칭)이다. 그런데 현재 탁본만 전하는 마천상조상의 명문 속 무평9년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북제는 무평 7년 북주에 멸망당했다. 즉 엄밀히 말해 이 조상은 북주시대에 해당하나, 북제 멸망 직후 제작된 데다 조상자가 북제 연호를 계속 쓴 것 등으로 미루어 북제 유민의 작품으로 추정, 북제 도교 조상에 포함하였다.⁷⁾

한편 神塚淑子が 북제로 편년한 道民大都宮主馬寄造像碑(‘마기조상비’로 약칭)의 경우, 명문의 마손이 심해 제작연대를 판별하기 어렵다. 때문에 중국 도교 석각을 집대성한 胡文和는 『中國道教石刻藝術史』에서 이 조상비를 넓게 북조로 편년했다.⁸⁾ 현재 洛陽古代藝術館에 소장된 이 조상비는 인물상들의 두툽한 조형적 특징으로 미루어 북제시대 제작으로 볼 수 있다.⁹⁾

북제 도교 조상은 이처럼 수량이 적어 그동안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松原三郎이 「道教像論考-齊周の道教像について」를 발표했지만, 북주 도교 조상을 중심으로 논한 것이며 북제 조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¹⁰⁾ 神塚淑子は 강찬조상비를 불교와의 관계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북조 조상기 연구의 범위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북제 도교 조상을 범주화해 연구하지는 않았다.

상술한 북제 도교 조상 가운데 연대가 분명한 3점은 모두 북제 후기에 제작되었다. 또한 3점의 출토지가 낙양과 그 인근이다. 강찬조상비와 맹아비조상비는 모두 淸 乾隆 연간(1736-1795) 하남성 偃師 董家村에서 출토되었으며, 전자는 실물이 현존한다. 마기조상비 역시 일찍이 낙양에서 수집된 것이다. 현재 탁본만 전하는 마천상조상은 출토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글씨체가 龍門石窟의 북위 石刻體와 매우 유사하여 洛陽 일대 출토품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마천상조상의 발원문은 북위 正始2년(505) 馮神育等邑子220人道教造像碑(‘풍신육조상비’로 약칭. 臨潼 櫟陽鎮 출토, 현 임동시박물관 소장)와 아주 유사한데,¹¹⁾ 후술하는 것처럼 寇謙之의 北天使道와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6) 神塚淑子, 「南北朝時代の道教造像-宗教思想史的考察を中心に」, 礪波護編, 『中國中世の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學研究所, 1993, pp.230-236의 ‘표’.

7) 명문은 단지 ‘석상’을 만든다고 했으나 명문의 내용은 도교적인 것으로 일관되어 있어 도교조상에 포함하였다. 그런데 명문 속 조상자들은 ‘읍자’와 ‘도민’ 등 두 종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두 종류의 구분이 도교의 계율을 받은 자인가의 여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불교도와 도교도의 구별인지는 불분명하다(柏夷(Stephen R. Bokenkamp) 著, 孫齊等譯, 『道教研究論集』, 上海: 中西書局, 2015, p.105).

8) 胡文和, 『中國道教石刻藝術史』 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9) 丁明夷는 북위의 작품으로 추정했는데(丁明夷, 「從強獨樂建周文王佛道造像碑看北朝道教造像」, 『文物』 1986년 제3기), 河南博物院, 『河南佛教石刻造像』, 鄭州: 大象出版社, 2009, p.328에서는 북제시대로 편년했다. 필자도 조형적 특징으로 미루어 북제시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10) 松原三郎, 『增訂 中國佛教彫刻史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6, pp.211-229.

11) 馮神育等邑子220人道教造像碑의 발원문은 胡文和, 『中國道教石刻藝術史』 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p.212 참조

있다. 이처럼 비록 수량은 적지만 현존하는 도교 조상의 명문과 조상의 형태, 그리고 지역적 분포 상황 등을 통해 북제 도교와 조상의 존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II. 명문에 드러난 북제 도교의 양상

강찬조상비의 명문(이하 ‘강찬조상기’로 약칭)은 청대 畢沅(1730-1797)의 『中州金石記』 권1, 武億의 『偃師金石遺文記』 권상, 王昶의 『金石萃編』 권34(1805년 완성) 등에 수록될 정도로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¹²⁾ 일본으로 流散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¹³⁾ 현재 偃師商城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조상의 앞뒤 모습과 명문 사진이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공개된 것은 『河南佛教石刻造像』에서다.¹⁴⁾

강찬조상비는 현존 높이 70cm, 너비 45cm, 두께 8cm의 交龍螭首形 扁體碑로, 하단의 대좌 부분은 결실되었다. 명문에 의하면, 도교 교단의 높은 직책에 있었던 男官 강찬이 죽은 아들 元略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명복을 빌며 만든 老君像이다. 죽은 육친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상을 만드는 것에는 또 북제의 맹아비조상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섬서 도교 조상에서는 많지 않으며 藥王山 조상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¹⁵⁾ 조상기에서는 아들 원략이 도교의 玄源에 달통해있었다고 했지만, 강찬은 아들을 통상 불교도를 지칭하는 淸信士로 표현하고 있는 등 명문 전체에 불교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사용된 어휘나 자구, 그리고 내용 등이 모두 그러하다. 神塚淑子は 조상기 속 ‘踊出, 六塵, 八難, 彈指, 合掌, 妙果, 龍華’ 등은 한역불전에서 등장하는 불교어휘이며, ‘娑婆, 波斯, 優填, 閻浮’ 등은 불전에 나오는 梵語의 음사어란 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龍華三會와 관련된 미륵 하생사상 등이 표현되었음을 거론하는 등¹⁶⁾ 강찬조상기에 나타난 불교적 요소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조상기 내용 가운데서도 “梅檀木에 깎고 조각한 것은 파사익왕도 그 기이함을 부끄러

12) “大齊天統元年太歲乙酉九月庚辰朔八日丁亥，南官姜纂爲亡息元略敬造石像壹軀。夫靈暉西沒，至理東遷，曷盡神明，像窮變現，逍遙業峻，因藉報遠，淸信士姜元略，志隆邦國，仁越州閭，衡巷仰風，鄉邑譽望。早洞玄源，夙達空旨。而石火電爛，倏忽從化。松摧落岫，蘭彫夏霜，寶散閭闔，玉碎黃壤。父纂，情慕東門，心憑冥福，特爲亡略，敬造老君像一軀，左右二侍，聖相眞容，妙絕娑婆。雕檀刻削，波斯惡奇，鑄金鏤石，優填慙巧。神光照爛，遍滿閻浮，香氣氤氳，充塞世界。業盛飛行，事符踊出，以此勝因，迨資亡略，直登淨境，獨步虛空，逍遙天服，垂出六塵，遨遊慧體，長超八難，彈指則遍侍十方，合掌則歷奉衆聖。過去尊卑，見存眷屬，亡生淨鄉，現獲妙果，當來龍華，願昇初唱，皇家慶隆，澤沾邊地，三途楚毒，俱辭苦海，六道四生，咸蒙勝福，壹切有形，同成正覺。”

13) 胡文和, 『中國道教石刻藝術史』 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p.128.

14) 河南博物院, 『河南佛教石刻造像』, 鄭州: 大象出版社, 2009, pp.196-197.

15) 神塚淑子は 49건의 북조 도교 조상 가운데 친숙을 위해 제작한 경우는 강찬조상비 이외에 隆緒元年(527) 女官王阿善像, 북주 천화3년(568) 杜崇□造老君像, 북주 건덕원년(572) 李元海等造元始天尊像碑, 그리고 북제 무평7년(576) 孟阿妃造老君像碑 등 모두 5건이라고 밝혔다(『南北朝時代の道教造像—宗教思想史的考察を中心に』, pp.266-268).

16) 神塚淑子, 『南北朝時代の道教造像—宗教思想史的考察を中心に』, 礪波護編, 『中國中世の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學研究所, 1993, pp.267-268.

위할 정도이며, 금을 주조하고 돌에 새긴 것은 우전왕도 그 교묘함을 부끄러워할 정도다(雕檀刻削, 波斯惡奇, 鑄金鑲石, 優填慙巧)는 표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神塚淑子が 이미 지적한 것처럼 『增一阿含經』 등에 언급한 불상의 기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절이다.¹⁷⁾ 그러나 단순히 『증일아함경』이라는 단일 경전에 기초한 것은 아니며, 당시 낙양 일대의 특징적인 불교 인식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석가모니의 상을 만든 고사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4세기 말 동진에서 번역된 『增一阿含經』 권28, 5세기 중후반에 번역된 『大方便佛報恩經』 권3,¹⁸⁾ 그리고 『觀佛三昧海經』 권6 등이다. 『관불삼매해경』은 5세기 佛陀跋陀羅 번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번역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인도 경전의 번역이 아니라 중국에서 편찬된 위경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일본학자 야마베 노부요시(山部能宜)에 의해 제기되었는데,¹⁹⁾ 북조시대 불교 신앙과 불교 석굴의 조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²⁰⁾

그런데 불상의 기원과 관련한 세 경전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강찬조상기처럼 우전왕과 파사익왕이 불상을 처음 만들었다는 기록은 『증일아함경』에만 나온다. 이 경은 먼저 인도 인도의 優填王(King Udayana)의 석가상 제작을 언급한 후 파사익왕의 석가모니상 제작을 설명한다.²¹⁾

어느 여름 석가모니가 90일 동안 보이지 않았다. 당시 기원정사에 있던 석가모니는 죽은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고자 그녀가 있는 도리천(忉利天)으로 올라가 종적을 감춘 것이다. 석가를 그리워하며 병이 난 우전왕이 나라의 장인들을 불러모아 전단목(栴檀木)으로 석가모니상을 만들게 했다고 한다. 우전왕의 석가모니상 제작 소식을 들은 拘薩羅國 舍衛城의 파사익왕 역시 석가모니상을 제작하여 세상에 두 개의 석가모니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다. 이 때 우전왕은 전단목을

17) 神塚淑子, 「南北朝時代の道教造像—宗教思想史的考察を中心に」, 礪波護 編, 『中國中世の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學研究所, 1993, p.267.

18) 『증일아함경』은 담마난제(384-385)의 번역과 승가제파(397-398)의 번역 등 두 가지가 존재했으나, 현존하는 『증일아함경』은 승가제파의 것이다. 『대방편보보은경』은 후한 말 번역으로 알려졌지만, 연구에 의하면 5세기 중후반 경에 번역되었다고 한다(稻本泰生, 「優填王像東傳考—中國初唐期を中心に」, 『東方學報』 69, 京都: 京都大, 1997, p.435의 주60).

19) 그는 ‘이 경전에 산스크리트어로 복원할 수 없는 의심스런 표현이 많고, 또 많은 구절이 인도 원전이 아니라 초기의 한역 경전에서 따온 듯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야마베 노부요시 글, 이귀정 譯, 「중앙아시아 불교의 관상 수행—문헌과 미술자료」,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사계절, 2006, p.190.

20) 劉慧達, 「北魏石窟與禪」, 宿白, 『中國石窟寺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1996.

21) “是時, 二王思睹如來, 遂得苦患. 爾時, 群臣至優填王所, 白優填王曰, 今為所患. 時王報曰, 我今以愁憂成患. 群臣白王云, 何以愁憂成患. 其王報曰, 由不見如來故也. 設我不見如來者, 便當命終. 是時, 群臣便作是念, 當以何方便, 使優填王不令命終. 我等宜作如來形像. 是時, 群臣白王言, 我等欲作形像, 亦可恭敬承事作禮. 時, 王聞此語已, 歡喜踊躍, 不能自勝, 告群臣曰, 善哉. 卿等所說至妙. 群臣白王, 當以何寶作如來形像. 是時, 王即敕國界之內諸奇巧師匠, 而告之曰, 我今欲作形像. 巧匠對曰, 如是, 大王. 是時, 優填王即以牛頭栴檀作如來形像高五尺. 是時, 波斯匿王聞優填王作如來形像高五尺而供養. 是時, 波斯匿王復召國中巧匠, 而告之曰, 我今欲造如來形像, 汝等當時辦之. 時, 波斯匿王而生此念, 當用何寶作如來形像耶. 斯須復作是念, 如來形體黃如天金, 今當以金作如來形像. 是時, 波斯匿王純以紫磨金作如來像高五尺. 爾時, 闍浮里內始有此二如來形像.” 『增一阿含經』 권28, T2, No.125, p.706上.

이용해, 그리고 파사익왕은 금을 가지고 석가모니상을 제작했다. 이는 강찬조상기에서 파사익왕이 전단목으로, 우전왕이 금으로 불상을 만들었다는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반면 梁 혜교의 『高僧傳』에서는 우전왕상을 단상, 파사익왕상을 금상으로 서술하고 있어,²²⁾ 『증일아함경』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북조에서는 강찬조상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조와 달리 불상의 기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이 공존하고 있었다.²³⁾

『증일아함경』 등 많은 불전에서는 석가모니상을 최초로 만든 이를 우전왕으로 보고 있다. 우전왕은 출애왕(出愛王)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인도 갠지스강과 아무나강이 합류하는 지금의 알라하바드(Allahabad) 지역에 있던 코삼비국(橋賞彌國)의 왕으로 그가 제작한 석가모니상은 ‘우전왕상’으로 불린다. 후한 명제 때 중국에 처음 전해진 불상 역시 인도 우전왕상의 모사그림이었다. 이처럼 불상의 대명사는 우전왕상이었다. 그리하여 『대방편불보은경』과 『관불삼매해경』에는 우전왕의 불상 제작만 기록했을 뿐이다. 다만 5세기 초 인도 구법여행을 다녀온 법현의 『法顯傳』에 파사익왕의 석가모니상 제작 사실이 기록돼 있다. 흥미롭게도 법현의 인도 여행기에는 우전왕상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파사익왕상을 불교 최초의 불상으로 적고 있다. 그리고 『증일아함경』의 기록과 달리, 법현이 기원정사에서 본 파사익왕상은 전단목으로 만든 것이었다.²⁴⁾

강찬조상기처럼 우전왕이 전단목이 아닌 금으로 석가모니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경전은 『관불삼매해경』이 유일하다.²⁵⁾ 그런데 북위 낙양 천도 이후 제작된 불교 조상기 가운데 우전왕상을 금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두 낙양 일대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북위 정광5년(524) 劉根41人等造像記와 용문석굴 연화동 남벽의 북위 永熙2년(533) 元□□20餘人造像記다.²⁶⁾ 전자는 현재 하남박물원 소장이며, 용문석굴은 낙양의 伊河 근처에 조성되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낙양 일대에서는 『관불삼매해경』에 따라 우전왕상을 금상으로 인식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강찬조상기에서 보듯 그런 관념이 북제시대까지 낙양 일대에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낙양 일대의 불교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강찬조상기와는 달리 마천상조상기는 섬서 지역 조상기와 매우 유사하다. 마천상조상기는 王昶의 『金石萃編』 권35에 처음 소개되었는데,²⁷⁾ 현재 탁본만이 전하고 있어 조상의 상황은 알 수 없다.²⁸⁾ 일반적인 음각조상기와 달리 양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관례와 달리 글의 전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개된다.²⁹⁾ 서체는 매우 力

22) 『高僧傳』 권13 「興福論」, T50, No.2059, p.413上.

23) 이에 대해서는 蘇鉉淑, 「中國 魏晉南北朝時代 ‘瑞像’ 숭배와 그 地域性」, 『中國史研究』 55, 2008, pp.15-49 참조.

24) “佛上切利天, 為母說法九十日. 波斯匿王思見佛, 即刻牛頭栴檀作佛像, 置佛坐處. 佛後還入精舍, 像即避出迎佛. 佛言, 還坐. 吾般泥洹後可為四部眾作法. 像即還坐. 此像最是眾像之始, 後人所法者也.” T51, No.2085, p.860中. 이 내용은 불전에 나오는 우전왕의 불상 제작과 그 이후 발생한 고사의 내용과 거의 같으며, 단지 다른 점이라면 파사익왕이 우전왕을 대체한 정도이다.

25) T15, No.643, p.678中.

26) 명문은 각각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 4권,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89, p.164; [清]陸增祥 撰, 『八瓊室金石補正』 (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編, 『先秦秦漢魏晉南北朝石刻文獻全編』 1,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pp.119-120 참조.

27) 張勛燦·白彬, 『中國道教考古』 2, 北京: 線裝書局, 2006, p.643.

28) 京都大 人文연구소와 북경도서관에 탁본이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强하여 용문석굴의 북위석각체와의 연관성이 강하여 낙양 일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천상조상기(1)는 북위 정시2년(505) 풍신육조상기(2)와 아주 흡사한데(밑줄), 다음과 같다.

(1) 夫幽宗玄家，眞麗潛□，然隱顯沖機而名隨化浪，洪闡彌廓，遐□□□，自非鏤像汚形，其孰能觀之者哉。 北齊武平九年二月廿八日，邑主馬天祥·邑子馬天成·邑子馬天相·邑子馬天慶·道民王成人·道民王大人·道民王强人·道民王恭人，投委壇靜，仲追冥果，造立石像，永□緜虔，□□肅恭，祚延無窮，尊師崇業，□□□□。

(2) 夫幽宗玄寂，負麗潛暉，然隱顯沖機而名隨化浪，洪闡彌廓，遐瓌超倫，唯合登群生，□□難尋，自非鏤像汚形，其孰能觀之者哉。 大代正始二年秋九月己巳朔廿六日甲午眞□，道民馮神育同邑二百人等，投委壇靜，仲追冥果，造立石像，永式象，更願帝主熙隆，百□恭肅，延祚無窮，尊師崇業。 諸邑七世以來，生緣眷屬，住居常樂，恒在願願從心，常與善緣，九□□□，普同慈慶，願願從心，合邑二百廿人造造石像一區，弟立名字，若有人刊試者身入。

두 명문의 “壇과 靜屋에 몸을 맡겨, 그 가운데 영험한 응보를 쫓는다(投委壇靜,³⁰⁾ 仲追冥果³¹⁾)”는 구절을 통해 두 조상에서는 단을 만들어 수행을 하거나 의례를 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풍신육조상비에는 또한 정면 감의 왼쪽 공양인 옆에 “道民馮世紹施地安壇”란 다소 흔하지 않은 제기가 있는데³²⁾ 이를 통해 당시 풍세소란 도교도가 땅을 희사하여 단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단’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임동에서 발견된 두 건의 佛道造像碑이다. 북위 신구2년(519) 邑老田淸等70人造像碑(‘전청조상비’로 약칭)와 연대가 불확실한 劉道生等70人佛道造像碑(‘유도생조상비’로 약칭)이다.³³⁾ 전청조상비에는 ‘太上君’ ‘太上道君’ 등의 제기가 있어 북천사도의 최고신인 태상노군을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비석 배면 향로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공양인이 ‘壇衛’라는 이색적인 邑職을 가지고 있다. ‘단위’란 단을 관리하는 직위,³⁴⁾ 혹은 단 위에서 거행하는 의례의 질서와 기강을 담당하는 직위로 추정되는데,³⁵⁾ 유도생조상비의 정면 龕 상단의 왼쪽 공양

29) 이 조상기에 대한 논의는 辛德勇, 「《馬天祥造像記》與北齊武平九年紀年」, 『文史』 2013年 4期 참조.
 30) 壇靜은 경을 외우며 도를 닦는 곳이다. 梁 陶弘景 『冥通記1』에 “勿令小兒輩逼壇靖, 靖中有眞經”이란 구절이 있는데 淸 黃生은 『義府 下』에서 “勿令小兒輩逼壇靖” 부분에 대해 “門是前中隔閣, 靜屋及壇在閣外. 按靖即靜, 壇與靖, 皆道家奉經修事之處”라고 주를 달았다.(단국대, 한한대자전, 3권 p.705)
 31) ‘冥果’는 북제 河淸2년 8월 魏收의 <爲武成帝以三臺宮爲大興聖寺詔>에도 출현한다.
 32) 陝西省考古研究院陝西省銅川市藥王山管理局 編, 『陝西藥王山碑刻藝術總集 第7卷 臨潼·渭南地區造像碑』,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3, p.4.
 33) 두 조상비는 陝西省考古研究院陝西省銅川市藥王山管理局 編, 『陝西藥王山碑刻藝術總集 第7卷 臨潼·渭南地區造像碑』,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3, pp.30-54 참조. 유도생조상비는 劉田氏造像碑, 張乾度佛道造像碑 등으로도 불린다.
 34) 陝西省考古研究院陝西省銅川市藥王山管理局 編, 『陝西藥王山碑刻藝術總集 第7卷 臨潼·渭南地區造像碑』,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3, p.33.
 35) 胡文和, 『中國道教石刻藝術史』 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p.278.

인에도 동일한 읍적이 출현한다.

이처럼 단을 중시하는 의례와 관련하여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 세 조상은 모두 臨潼 출토로 공양인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즉 전청조상비에 출현하는 馮元興은 풍신육조상비에도 출현하고, 유도생조상비에는 풍신육이 공양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로 미루어 세 조상비는 동일한 지역의 동일 계파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단을 중시하고 단에서 거행하는 의례를 중시하는 것은 북위의 寇謙之(365-448)가 창시한 북천사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위서·석로지』에 의하면, 李譜文(太上老君)이 승악의 구검지에게 와서 경전을 주며 당부하는 여러 말 가운데, ‘현재 지상의 생민들은 末劫에 처해 가르침을 펴기가 어려우나, 남너로 하여금 壇宇를 세워 朝夕으로 예배케 하고, 집에 嚴君이 있으면 功이 上世에 미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³⁶⁾ 이를 통해 구검지가 이후 교화를 위해 단을 만들어 예배하고 수행하는 것을 중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례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공양인들이 손에 든 물건들이다. 풍신육조상비 정면 하단의 커다란 향로 옆 오른쪽 공양인은 왼손에 작은 향합 같은 것을 들고 오른손을 향로로 뺨어 마치 향로 속에 향을 넣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도교에서 燒香儀式은 구검지의 『老君音誦誡經』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그 11條에는 ‘燒香求願을 할 때는 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 속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풍신육조상비는 마치 이런 의례를 시각화한 것으로 보인다.³⁷⁾ 풍신육조상비에 등장하는 4인의 ‘三洞法師’ 역시 단을 설치하고 의례를 거행할 때 壇官으로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다.³⁸⁾

풍신육조상비에는 구검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공양인이 출현한다. 비상의背面에 “萬年縣寇文安”의 제기가 있는데, 공양인의 이름 앞에 貫籍을 붙이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이다. 寇文安은 북천사도의 지도자였던 구검지와 성이 같은데, 구검지 역시 馮翊萬年人임을 상기할 때,³⁹⁾ 구문안의 관적을 특별히 넣은 것은 그가 구검지와 族人일 가능성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인다.⁴⁰⁾

북천사도와의 관련성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은 조성일이다. 전청조상비는 7월7일 건립되었다.⁴¹⁾ 일반적으로 조상비를 건립한 후에는 그 공덕을 기념하고 持戒 혹은 滅罪와 관련된 의례를

36) “又地生民，末劫垂及，其中行教深難。但令男女立壇宇，朝夕禮拜，若家有嚴君，功及上世。”『魏書』 권114, 釋老志(중화서국본), pp.3051-3052.

37) 胡文和, 『中國道教石刻藝術史』 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p.276.

38) 胡文和, 『中國道教石刻藝術史』 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p.278. ‘三洞法師’는 남방 도교에서 유래한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三洞’의 명칭은 劉宋의 陸修靜(406-477)이 도경을 정리하면서 ‘三洞四輔’로 나누면서 처음 출현하므로 풍신육조상기의 ‘삼통법사’는 북조 도교가 적어도 6세기 초인 정시 연간에는 南天師道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張助燎·白彬, 『中國道教考古』 3, 線裝書局, 2006, p.728).

39) 任繼愈 主編, 『增訂本 中國道教史』 上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pp.209-210.

40) 陝西省考古研究院·陝西省銅川市藥王山管理局 編, 『陝西藥王山碑刻藝術總集 第7卷 臨潼·渭南地區造像碑』,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3, p.7. 여기서는 “萬年縣寇文安”의 제기가 조상비의 정면에 있다고 했지만, p.4의 사진과 p.14의 탁본을 살펴보면 비의 背面 主龕의 좌측에 새겨져 있다.

41) 陝西省考古研究院·陝西省銅川市藥王山管理局 編, 『陝西藥王山碑刻藝術總集 第7卷 臨潼·渭南地區造像碑』,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3, p.32에서 ‘七月廿日’로 석독했으나 p.43에 제시된

거행한다. 때문에 조성일은 통상 석가탄신일인 4월8일, 혹은 十齋日(1, 8, 14, 15, 18, 23, 24, 28, 29, 30)이나 三元日(1,15일 상원일, 7월15일 중원일, 10월15일 하원일), 음양이 교대하는 八王日(입춘, 춘분, 입하, 하지, 입추, 추분, 입동, 동지) 등이 특별히 선택되었다. 마천상조상비는 2월28일, 즉 십재일에 조성되었다. 풍신육조상비는 9월 26일에 조성되었는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 7일로⁴²⁾ 입동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청조상비의 7월7일은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魏書釋老志』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북위 태무제가 구검지의 건의대로 道壇에 나가 符籙을 받은 이후, 북위 멸망 때까지 북위 황제들은 모두 즉위 때마다 도단에 나가 부록을 받았다.⁴³⁾ 북위가 동서위로 분열된 후 동위에서도 역시 천도한 鄴城에서 ‘관례대로 南郊에 道壇을 설치했다. 그리고 1월7일, 7월7일, 그리고 10월15일에 壇主, 道士, 哥人 106인이 拜祠의 예를 행했다’고 한다.⁴⁴⁾ 다시 말해 북천사도에서 중시한 의례일 가운데 하나가 7월7일인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풍신육조상비를 필두로 하는 입동 출토 북위 도교조상비나 불도 조상비는 구검지가 창안한 북천사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풍신육조상비와 거의 동일한 명문을 가진 마천상조상비 역시 북천사도와의 관련 속에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약왕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중 일대의 북조 도교 조상을 樓觀派 조상으로 추정하고, 현재 구검지의 북천사도와 관련된 조상이 없다는 인식과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다.⁴⁵⁾ 그렇다면 섬서와 낙양 일대에서 북천사도와 관련된 조상이 출현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가.

敦煌에서 나온 『太上靈寶老子化好妙經』은 구검지의 찬술로 추정되는데, “三陽地의 남녀 800인, 북방 魏都地 1300인, 秦川漢地 350인, 長安晋地의 남녀 287인이 각각 득도”했음을 기록하고 있다.⁴⁶⁾ ‘북방 위도’는 북위 수도 평성을 지칭할 것이다. 삼양지는 평성 다음으로 득도인의 수가 많은데, 姜望來는 구검지가 嵩嶽에서 30여 년 동안 수도한 점, 그리고 唐代에 송악에 三陽宮이 있었고, 구검지가 “三陽之處에 仙宮을 건립했다”는 기록 등을 근거로 경전 속 삼양을 ‘송악’ 혹은 송악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⁷⁾ 그러므로 위 기록대로라면 당시 북천사도의 유포와 관련된 주요 지점은 북위 평성, 송악 일대, 그리고 장안 등의 관중지역, 태원 일대 등이 된다.⁴⁸⁾ 그러므로 입동과 낙양 일대에서 북천사도와 관련한 조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은 명확하다 하겠

탁본을 보면 ‘七月七日’이 맞다. 다른 많은 저록에서도 이 조성일을 7월7일로 보았다.

42) 方詩銘·方小芬 編著, 『中國史歷日和中西歷日對照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7, p.365.

43) 『魏書』 권114, 釋老志, p.3053.

44) 『魏書』 권114, 釋老志, p.3055.

45) 대표적인 사례가 張勳·白彬, 『中國道教考古』 3, 北京: 線裝書局, 2006, p.744이다. 반면 胡文和는 의례 방면의 분석을 통해 풍신육조상비와 전청조상비 등을 구검지의 북천사도와 관련시켰다(『中國道教石刻藝術史』 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pp.276-278).

46) 姜望來, 「皇權象徵與信仰競爭: 劉宋·北魏對峙時期之崇嶽」,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제31집, 2015, 7, p.119

47) 姜望來, 「皇權象徵與信仰競爭: 劉宋·北魏對峙時期之崇嶽」,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제31집, 2015, 7, pp.119-120.

48) ‘秦川漢地’는 장안을 포함한 관중일대를 지칭하며, 晋地는 지금의 太原 일대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長安晋地’란 표현은 오류로 생각된다.

다. 특히 두 지역은 구검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 현재의 임동은 구검지가 생장한 만년현에서 가까우며, 낙양 일대는 후술하듯이 구검지가 30여 년 동안 수행한 송악 일대에 포함된다. 이 점을 상기할 때, 두 지역 도교(불도)조상비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은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그런데 구검지의 북천사도는 동위 말년인 무정6년(548) 100여 년 역사를 가진 道壇이 철폐됨으로써 타격을 입었다.⁴⁹⁾ 실권자 文襄王 高澄이 도술이 있는 도사들을 업성에 따로 館을 두고 예로 대함으로써 일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⁵⁰⁾ 북제 초대 황제인 문선제가 천보6년(555) <廢李老道法詔>를 내려 도교를 폐하고 도사를 승려로 만드는 조치를 내림으로써,⁵¹⁾ 북제에서 도교는 절멸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⁵²⁾ 그런데 문선제 사후 북제 후기에 낙양을 중심으로 도교 조상이 갑자기 출현하고 있음은 매우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낙양이 가지는 특별한 지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송악은 고래로 五嶽 가운데 中嶽으로, 도교의 洞天福地로 알려져 있었다. 일찍이 王子喬가 伊洛之間에서 노닐다 도인 浮丘公을 만나 嵩山에 올라 선인이 되었다는 『列仙傳』의 기사 등은⁵³⁾ 일찍부터 송악 일대가 도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위 태무제 태원 연간에 건립된 <中嶽嵩高靈廟碑>에 의하면⁵⁴⁾ 구검지 역시 송악에서 30여 년 동안 수도를 했다. 구검지는 이후 423년 북위가 낙양을 점령한 다음 해인 태무제 시광 초년(424) 낙양을 떠나 북위 도성 平城으로 갔으며,⁵⁵⁾ 崔虎의 지원 아래 태무제와 결탁하여 북천사도를 발전시켰다. <中嶽嵩高靈廟碑>는 天使 구검지가 太平眞君, 즉 태무제를 보좌하여 북위가 태평의 교화를 이룩한 것을 찬양하고 이곳에 새로이 도사를 보내 新廟를 건립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송악과 그 인근이 북위 전기 도교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도교를 폐한 문선제 사후 도교 조상이 언사와 낙양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은 구검지 이래의 북천사도의 전통이 송악 일대에서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III. 도상과 형태 등으로 본 북제 도교 조상

북제 도교 조상 가운데 실물이 현존하는 것은 강찬조상비와 마기조상비이다. 전자는 현존 높이 70cm, 너비 45cm, 두께 8cm로 6마리의 용이 영킨 交龍螭首形 扁體碑로, 하단의 대좌 부분은 결실되었다. 후자는 현존 높이 165cm, 너비 44cm, 두께 35cm로 柱形에 가깝지만 상단은 교룡형

49) 『魏書』 권114, 「釋老志」, p.3055; 任繼愈 主編, 『增訂本 中國道教史』 上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p.210.

50) 『魏書』 권114, 「釋老志」, p.3055.

51) 『廣弘明集』 권4, T52, No.2103, pp.112下-113中.

52) 『資治通鑑』 권166, 「梁紀22」 (중화서국본), p.5131.

53) 『後漢書』 권28下, 「馮衍傳」, 「庶幾乎松喬之福」條 (중화서국본), p.987.

54) 이 비석의 조영연대에 대한 여러 주장은 姜望來, 「皇權象徵與信仰競爭: 劉宋-北魏對峙時期之崇嶽」,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제31집, 2015, 7, p.123의 주1 참조.

55) 劉屹, 「寇謙之的家世與生平」, 『華林』 제2권, 北京: 中華書局, 2002, pp.271-281. 姜望來, 「皇權象徵與信仰競爭: 劉宋-北魏對峙時期之崇嶽」,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제31집, 2015, 7, p.117서 재인용.

이수가 조각되어 전통적인 비석형태를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소장처를 알 수 없는 멩 아버지조상비도 교류이수형 비석으로 전해진다.⁵⁶⁾ 이처럼 낙양 출토 도교 조상은 모두 교류이수형으로 조성되었는데, 하남 지역에서 출토되는 불교 조상비와 거의 유사한 형식이다. 그렇다면 세 건의 조상비 모두 하남지역의 미술전통 속에서 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제재면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강찬조상비를 살펴보자. 전면의 비액의 소형 감 안에는 장방형의 欄牀 위에 결가부좌상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 얼굴이 마손되었다. 머리에는 높은 관을 쓰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寶珠를 받쳐 들고 있어 보살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복조 보살상과는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는 데다 연화좌가 아닌 탑상 위에 앉아 보살상으로 보기 어렵다. 도교 존상으로 보는 게 적합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신 중앙에는 노군삼존상을 배치했다. 수염이 긴 노군은 右衽의 속옷을 입고 고관을 썼는데,⁵⁷⁾ 几案에 기대어 결가부좌하고 있다. 대좌는 높은 수미좌이다. 노군의 좌우에는 홀을 든 협시상이 蓮子 위에 侍立하고 있다. 두 협시상의 좌우에는 연 줄기가 마치 두 그루의 나무처럼 위로 뻗다가 연화를 활짝 피우며 삼존상의 위로 보개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앙에는 괴수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 하단 중앙에는 역사가 향로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으며, 그 좌우에 각각 사자가 한 마리씩 배치되었다. 그리고 불교조상에서 통상 力士가 배치되는 자리에는 손에 공양물과 연화를 든 두 인물이 배치되었는데, 공양인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 크기가 다르게 표현되었다. 배면의 비신은 도상은 없으며 명문만을 새겼다. 비액의 가운데는 끝이 잘린 圭 형태로 표현했는데, 가운데 세로줄을 그어 마치 문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전체적으로 강찬조상은 존상이 도교 존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당시 하남지역 불교 조상비에서 통상적으로 출현하는 사자, 향로 등이 모두 출현하여 불교 조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 조상비에서 주목되는 것은 삼존상의 머리 위에서 보개처럼 형성된 연화이다. 연화는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삼존상의 좌우에서 가지를 뻗어 머리 위에서 불감을 형성하는데, 복제 불교조상에서 크게 유행한 雙樹文 형식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쌍수문은 존상의 좌우에 각각 두 그루, 혹은 네 그루의 나무가 위로 뻗다가 존상의 머리 위에서 불감을 형성하는 모티프로써, 복위 말기 도성 낙양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해⁵⁸⁾ 동위-북제시기 불교미술에서 성행한 장엄의장이다.⁵⁹⁾ 특히 동위시대 현존 유물 가운데 쌍수문이 등장하는 것

56) 胡文和, 『中國道教石刻藝術史』 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p.129의 주1.

57) 河南博物院, 『河南佛教石刻造像』, 鄭州: 大象出版社, 2009, p.196 의 사진은 左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진이 反轉되어 잘못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반전된 사실은 비신 하단의 공양인 좌우에 새겨진 테두리 근처의 뒤집힌 명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8) 516년 완성된 낙양 永寧寺 탑지 소조편, 龍門石窟 路洞의 남벽과 북벽, 永安3년(530) 造像碑(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 東京: 吉川弘文館, 1995, 도209), 普泰 원년(531) 이불병좌상 등이 있다.

5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蘇鉉淑, 『東魏北齊莊嚴紋樣研究-以佛教石造像及墓葬壁畫爲中心』, 北京: 文物出版社, 2008, pp.180-214; 蘇鉉淑, 『東魏 武定年間 白石製 半跏思惟像 研究-鄴城 北吳莊 新出 '武定2년상'을 통한 地域性 탐색 및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소장 半跏像의 제작지 추정』, 『東岳美術史學』 17, 2015, pp.429-461 참조.

은 대부분 낙양지역 출토품으로, 천평2년(535) 嵩陽寺 조상비(登封 嵩陽書院 진열) 정면 碑身의 상단, 동위 무정 원년(543) 張永洛 조상비 碑首,⁶⁰⁾ 동위 무정3년(545) 報德寺 七佛碑像,⁶¹⁾ 기년이 명확하지 않은 北周村 조상비 비수⁶²⁾ 등이다.

이와 같은 낙양지역의 유행 상황을 반영하듯 마기조상비에서도 쌍수문이 등장한다. 마기조상비 정면 碑身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하단에는 향로와 사자, 두 역사가 배치되었으며, 중앙에는 가옥 안에 손에 주미를 든 도교존상이 탑상 위에 앉아 있으며, 그 좌우로 시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최상단의 존상 역시 가옥 안 탑상 위에 앉아 손에 주미와 유사한 물건을 들었는데 가옥의 바깥 좌우에 쌍수문이 배치되었다.⁶³⁾

그런데 섬서지역 도교조상비나 불도조상비는 일반적으로 主龕 상부 좌우에 日月을 배치하거나 동근 연화를 배치한다.⁶⁴⁾ 그리고 전통적으로 존상은 원공감이나 가옥형 감 안에 배치되며, 쌍수문을 배치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북주 武成 원년(559) 絳阿魯佛道造像碑(약왕산박물관 소장)에서 나타나는 정도이다.⁶⁵⁾ 이처럼 낙양을 중심으로 출토된 북제 도교 조상비는 모티프 등 조형적으로 섬서지역 조상비와 달라 하남지역 조각전통 속에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4건의 북제 도교 조상을 중심으로 명문, 조형 등 두 방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낙양 출토품이라는 데 주목하고, 명문을 통해 임동 출토 3건의 조상비와의 비교를 통해 북제 도교 조상이 북천사도의 전통 속에서 제작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과거 누관파 전통 속에서 고찰해온 관중 일대 도교조상비들이 북천사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한편 북제 도교 조상은 명문이나 조형 등에서 관중 조상들과도 다르며, 낙양지역의 불교조상과 강한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낙양 지역 북제 도교조상비는 북위 이래 낙양의 신앙과 예술 전통 속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문선제 시기, 양의 도교 금지 정책에 반감을 품은 남조의 육수정 일파가 북제로 집단 이주한 기록들이 보여 북조 도교에 대한 남조 천사도의 영향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런 남조의 영향

60) 河南博物院 編, 王景荃 主編, 앞의 책, p.144 도1, p.149 線畫; 河南博物院, 『河南佛教石刻造像』, 鄭州: 大象出版社, 2009, p.165, p.167의 線畫.

61) 이 조상비는 원래 낙양에 있었으나 현재는 일본에 있다. 松原三郎, 『增訂 中國佛教彫刻史研究』(圖版), 東京: 吉川弘文館, 1966, 도117; 金申, 『中國歷代紀年佛像圖典』, 北京: 文物出版社, 1994, 도176.

62) 河南博物院, 『河南佛教石刻造像』, 鄭州: 大象出版社, 2009, p.169 도6.

63) 河南博物院, 『河南佛教石刻造像』, 鄭州: 大象出版社, 2009, p.325 도32.

64) 李靜杰의 불교조상비 분류에 의하면 조상비 주간의 상부에 日月을 배치하는 것과 원공감 감미에 二龍을 배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중지역의 특징이다(『佛教造像碑分期與分區』, 『佛學研究』 1997, pp.34-51).

65) 陝西省考古研究院陝西省銅川市藥王山管理局 編, 『陝西藥王山碑刻藝術總集 第3卷 北周造像碑』,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3, p.261

이 상술한 북제 도교 조상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는 후일의 연구과제로 삼고 싶다.

北齊 道教造像 研究

蘇鉉淑 (圓光大學)

남북조시대 도교 조상은 5세기 후반, 즉 북위 太和 연간부터 출현하기 시작해 6세기에 이르러 다수 제작되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제작시기가 분명한 것만 5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남조의 도교 조상은 사천성 成都 출토 석상이 유일하게 현존하며, 나머지는 모두 북조 조상이다.

북조 도교조상은 대부분 섬서 關中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밖에 산서 등지에서 소량 출토되는 등 전반적으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북위 멸망 이후의 북조지역 도교 조상은 대부분 西魏·北周에 편중되어 있으며, 東魏·北齊는 소수에 불과하다. 동위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도교 조상은 없으며, 북제도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많은 학자들에 의해 북조 도교조상이 정리되어 왕조에 따른 조상의 통계가 가능해졌는데, 북제의 경우 학자들마다 그 수량이 다르다. 이 가운데 神塚淑子가 집록한 북제의 도교 조상이 가장 수가 많다. 도교 조상 연구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3년 논문에서 그는 남북조시대 도교 조상(佛道造像 포함) 49건을 표로 정리했는데, 북위 28건, 서위 1건, 북주 15건, 북제 5건이다. 다시 말해 북제 도교 조상의 수량을 많이 잡더라도 북주의 1/3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5건 가운데도 북제시대 제작으로 편년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며, 한 건은 제작연대가 불분명하다. 그리하여 제작 연대가 분명한 북제 도교 조상은 모두 3건이다.

천통원년(565) 姜纂造老君像碑(‘강찬조상비’로 약칭), 무평7년(576) 孟阿妃造老君像碑(‘맹아비조상비’로 약칭), 그리고 무평9년(578) 馬天祥等八人造像(‘마천상조상’으로 약칭)이다. 앞의 두 건은 모두 하남성 偃師 董家村 출토이며, 마지막 조상은 현재 탁본만 전하며 출토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탁본을 보면 龍門石窟의 북위 石刻體와 매우 유사하여 洛陽 일대 출토품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절대 연대를 알 수 없지만 북제로 편년이 가능한 道民大都宮主馬寄造像碑도 낙양 출토품이다.

상술한 북제 도교 조상은 출현시기가 모두 북제 후기에 속하며 마천상조상은 심지어 북제 멸망 후에 조성된 것이다. 또한 모두 낙양과 그 인근에서 제작되어 북위에서 섬서나 산서지역에 도교 조상이 집중되는 상황과도 차이를 보여준다. 강찬조상비와 맹아비조상비는 개인의 친속을 위해 상을 조성했는데, 이 또한 섬서 지역 북조 도교 조상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神塚淑子는 강찬조상비를 중심으로 불교적 요소가 강한 도교 조상의 특색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본 발표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雕檀刻削, 波斯惡奇, 鑄金鏤石, 優填慙巧”라는 글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交龍螭首碑形의 조상비 형태, 조상비에 표현된 도상 등을 중심으로 강찬조상비가 낙양지역의 전통적인 신앙과 조상 전통 속에서 제작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탁본만 남은 마천상조상의 발원 문은 臨潼 櫟陽鎮에서 출토된 북위 正始2년(505) 馮神育等邑子220人道教造像碑의 그것과 아주 유사한데, 이는 북위 寇謙之가 창안한 新天仗道의 傳承이라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북제 도교 조상의 존재양상을 銘文과 조상의 형태, 그리고 도상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北齐道教造像研究

苏铉淑（圆光大学）

南北朝時代，自從五世紀后期即北魏太和年間開始出現道教造像，到六世紀造像活動逐漸興盛。据最新統計，其制作年代比較明确の道教造像有50多尊。其中，現存道教造像中，南朝の只有四川成都出土の石像，其余都是北朝の造像。

北朝道教造像偏重于部分地區，如陝西關中一帶有大量出土，還有山西等地有少量出土。尤其在北魏滅亡之后，北朝地區の道教造像大部分集中于西魏和北周時期，而東魏和北齊時期の爲數不多。

至于東魏時期の道教造像，到目前爲止未曾發現，北齊時期の也很少。最近許多學者整理和研究北朝道教造像，使得我們能够分朝代統計造像數字。不過，北齊時期の造像統計數字，因人而异。其中，神塚淑子收集和記录の北齊道教造像爲數最多。神塚淑子道教造像研究較早，早在1993年編寫の論文中，以表格形式整理出49尊南北朝時代道教造像（包括佛道造像）：北魏28尊、西魏1尊、北周15尊及北齊5尊等。可見，北齊道教造像最多也只有北周の三分之一。而這5尊造像中還包括一些很難認定其年代爲北齊時期の；還有1尊造像年代不太明确の。

總之，我們能够確認北齊道教造像の總共有3尊：天統元年（公元565年）の姜纂造老君像碑（簡称为“姜纂造像碑”）、武平七年（576年）の孟阿妃造老君像碑（簡称为“孟阿妃造像碑”）以及武平九年（578年）の馬天祥等八人造像（簡称为“馬天祥造像”）。前兩尊都出土于河南偃師董家村，后者現在只有拓本留傳而无從得知出土地方。不過，鑒于其拓本非常相近于龍門石窟の北魏石刻，這很可能是在洛陽一帶出土の。此外，目前很難確認制作年代而只能猜測爲北齊の“道民大都宮主馬寄造像碑”也是洛陽出土の。

上述北齊道教造像の制作時期都爲北齊后期，甚至“馬天祥造像”是在北齊滅亡之后制作的。同時，這些造像都在洛陽和其附近造就，不同于主要在陝西和山西地區制作道教造像の北魏時期。“姜纂造像碑”和“孟阿妃造像碑”是爲个人親屬而造。這也在陝西地區北朝道教造像中是少見的。神塚淑子以“姜纂造像碑”爲中心詳細說明了道教造像佛教因素較強的特点。本文將要集中探討其中“雕檀刻削，波斯惡奇；鑄金鏤石，优填慳巧。”の句子；以“交龍螭首碑形”の造像碑形式、造像碑采納の圖像等爲中心，說明“姜纂造像碑”是在洛陽地區の土著信仰和造像傳統中形成的。同時，因爲只傳拓本の“馬天祥造像”の撰文与臨潼櫟陽鎮出土の北魏正始二年（505年）“馮神育等邑子220人道教造像碑”の撰文十分相似，說明与北魏寇謙之所提倡の新天使道の傳承有關。總之，本文將根据銘文和造像の形式和圖像等來綜合探討北齊道教造像丰富多樣的形態。

北齊道教の造像研究

蘇鉉淑 (圓光大學)

南北朝時代の道教造像は5世紀後半、すなわち北魏の太和年間から現れ始め、6世紀に至り、多く制作された。最近の統計によると制作時期が明らかなのだけでも50点余りに達する。この中で南朝の道教の造像は四川省成都出土の石造が唯一現存しており、残りは全て北朝の造像である。

北朝の道教造像は大部分陝西關中一帯に集中的に分布し、その他は山西などで若干出土されるなど、全般的に一部地域に偏重している。特に北魏滅亡以後の北朝地域の道教の造像は大部分西魏・北周に偏重していて、東魏・北齊は少数に過ぎない。東魏の場合、現在まで知られる道教の造像はなく、北齊も少数に過ぎない。最近多くの学者によって北朝の道教造像が整理され王朝別の造像の統計が可能になったが、北齊の場合、学者によってその数が異なる。その中で神塚淑子が集録した北齊の道教造像が最も数が多い。道教造像の研究として比較的早い時期である1993年の論文の中で彼女は南北朝時代の道教造像（仏道造像を含む）49点を表に整理したのだが、北魏28点、西魏1点、北周15点、北齊5点となっている。言い換えると北齊の道教の造像の数は多く見積もっても北周の三分の一に過ぎない。ところでこの5点の中にも北齊時代の制作と編年することが難しいものがあり、一点は制作年代がはっきりしない。それゆえ制作年代がはっきりとした北齊の道教造像は合わせて3点である。天統元年（565）姜纂造老君像碑（「姜纂造像碑」と略称）、武平7年（576）孟阿妃造老君像碑（「孟阿妃造像碑」と略称）、そして武平9年（578）馬天祥等八人造像（「馬天祥造像」と略称）である。前の2点とはともに河南省偃師董家村にて出土し、最後の1点は現在拓本のみ伝わっており、出土地は不明である。しかし、拓本を見ると龍門石窟の北魏石刻体と大変よく似ており、洛陽一帯における出土品である可能性が高い。そして現在絶対年代を知ることはできないが、北齊の編年の可能性がある道民大都宮主馬寄造像碑も洛陽の出土品である。

上述した北齊の道教造像は出現時期がすべて北齊後期に属し、馬天祥造像は引いては北齊滅亡後に造成されたものだ。また全て洛陽とその付近で制作され、北魏にて陝西や山西地域に道教造像が集中する状況とは異なる様相を見せる。姜纂造像碑と孟阿妃造像碑は個人の親屬のために像を造成したのだが、これも陝西地域の北朝道教の造像の中では珍しいケースだ。神塚淑子は姜纂造像碑を中心に仏教的な要素が強い道教造像に対して詳細に説明を加えたが、本発表ではその中でも「雕檀剝削，波斯惡奇，鏤金鏤石，優填慙巧」という文句に注目する。そして交龍螭首碑形の先祖碑の形態、造像碑に表現された図象等を中心に姜纂造像碑が洛陽地域の伝統的な信仰と造像伝統の中で制作されたことを辿ってみたい。

一方、拓本のみ残っている馬天祥造像の發願文は臨潼櫟陽鎮にて出土した北魏正始2年（505）馮神育等邑子二百廿人道教造像碑のものと極めて類似していて、これは北魏の寇謙之が創案した新天徳道の伝承という点と関連があると思われる。本発表文ではこのように多様な北齊の道教造像の存在様式を銘文と造像の形態、そして図象等を通じて総合的に考察したい。

西安出土
「隋 郁久閭可婆頭墓誌(開皇十二年)」について
- 「大賢真」を中心に -

平田陽一郎 (国立沼津工業高等専門学校)

西安出土「隋・郁久閭可婆頭墓誌(開皇十二年)」について

— 「大賢真」を中心に —

平田 陽一郎 (国立沼津工業高等専門学校)

はじめに筆者は、6世紀後半の中國華北における王朝交替を、北方モンゴリアの情勢と絡めて解き明かすべく、北齊の滅亡と北周による華北統一、北周から隋への革命、平陳の役と天下統一といった出來事にスポットを当てつつ、都合3篇の論考を發表してきた[1]。その中で、中國北部とモンゴリア南部が連動して揺れ動いた事實の一端を示すことはできたものの、その考察對象は、6世紀後半の中國と突厥との關係に限られてしまっている。言うまでも無く、現實の外交關係は、先行する時代や他の地域・他の勢力とも廣く関わりつつ展開し、後世に多大な影響を与えるものであるから、検討の範圍はさらに擴大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こでまず取り上げてみたいのが、突厥に先だつてモンゴリアに覇を唱えた柔然である。柔然については、諸大家の研究が存在するものの、以後、これを積極的に取り上げた研究は、決して豊富とは言えないのが現状である[2]。その最大の原因は、決定的な史料不足にあると考えられるが、この欠を補うものとして、柔然可汗の一族・郁久閭氏の墓誌がいくつか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本稿では、そのうちの一つで、近年出土した「郁久閭可婆頭墓誌」の全文を釋讀した上で、そこから浮かび上がる諸問題について、若干の考察を加えてみたい。

一、「隋・郁久閭可婆頭墓誌」試釋

本稿で取り上げる「郁久閭可婆頭墓誌」の拓本寫眞等は、王其禕・周曉薇編著『隋代墓志銘彙考②』（線裝書局、2007年、63頁）に掲載されている。これによれば、同墓誌は2005年に西安市長安縣で出土、原石は陝西省考古研究所に保管されているという[3]。墓誌本体の大きさは、縦横ともに52cmで、厚さは7cmある。文字數は25行×各行滿25字である。墓誌蓋は覆斗形で、大きさは縦横ともに52.5cmで、3行3字で「隋大將軍郁久閭公銘」と刻される。

なお、『隋代墓志銘彙考』は、隋代に關する最も包括的な墓誌史料集の一つであり、この「郁久閭可婆頭墓誌」の釋文も正確で、「附考」においては墓誌文と在來史料との基本的な對照も行われている。そこで、その成果も參考にしつつ、以下に【釋讀】【図版】【語釋】を掲げることとする。【釋讀】においては、行數を數字で表し、墓誌本文中に空格が有る場合は、その旨を記したが、破損等による文字の欠損は無い。一部の借字や誤字と思われるものについては、【釋讀】の下段に注記しておいた。【語釋】をつけた用語は、【釋讀】の中で①から②までの丸數字を付けて示したが、必要最低限にとどめてある。なお、【釋讀】では、より原石に近い字形を採用することを旨としたが、便宜上・技術上の問題か

ら、異体字を通字に改めたところが少なくないので、ご了承ください。

【积読】

1 隋故大將軍・九隴公・郁久闕公墓誌銘（以下空白）
 2 公諱可婆頭、京兆長安人。其先出自衛國、楚公子閭①之後。導若水
 3 而開源、跨軒臺而啓構、麗天形②於星月、鎮地象於山河、皆備盡縑
 4 緗、可略而言也。自秦失其鹿、漢道未昌、中源榛梗、九州幅裂。顯考
 5 避亂、漸跨北垂。明德重光、世君沙漠。茹茹主慕容可汗、則公之曾
 6 祖烏稽可汗、祖賀根吐豆弗俟利弗、父臣明吐豆弗。並王子王孫、
 7 世官世祿。信義行於殊域、威恩被其區宇。公挺鸞鳳之姿、挾金虎
 8 之氣、遠同韓白、暗合孫吳。年十七襲爵、為吐豆弗、歸齊、蒙授使持
 9 節・沙州諸軍事・沙州③刺史・大賢真備身正都督④、食平寇縣⑤幹。尋加
 10 伏波將軍⑥・假儀同三司⑦。突厥寇擾、公手梟元惡、勳授儀同三司・安
 11 德縣開國公⑧、邑五百戶、賜物一千假。三齊妖孽、四履橫流、公六奇
 12 暨陳、一鼓而滅。還拜左衛大將軍⑨。入周、例授上開府⑩・九隴郡開國
 13 公⑪。尋加大將軍⑫。（一文字空格）
 大隋肇曆、除北道行軍總管⑬。開皇五年、授長州⑭
 14 諸軍事・長州刺史。十年、拜北道行軍元師。方欲刻石燕然⑮、勒兵姑
 15 衍、斬温禺而夔鼓、尸日逐以染鏑。而與善無微、報施多爽⑯。以二月
 16 廿二日、遭疾薨於豳州⑰邸舍。春秋六十有二。魏喪郭嘉、晉亡羊祜⑱、
 17 方之（一文字空格）宸悼、未足相踰。粵以開皇十二年正月廿六日、遷塋於京
 18 兆之高陽原、禮也。靈輜戒路、旌旆啓塗。百辟對而傷嗟、三軍聞而
 19 掩淚。貽諸不朽、須勒泉陰。銘曰（以下空白）、
 20 赫赫宗源、於穆不已⑲。滔滔江漢、南國之紀⑳。爰暨龍庭、尚勗餘祉。引
 21 弓百万、歲歷千祀。齊德遠昌、寔始賔玉。衣冠是襲、福祿攸長。體資
 22 智勇、性會誠良。腰明玉具、身曜銀章。爵冠通侯、家開莫府。具瞻王
 23 佐㉑、儀形公輔。城彼朔方㉒、窮茲壯武。百身不贖、三軍失撫。玄宮眇眇、
 24 長夜漫漫。山墳冥冥、松檟深寒。不聞刀斗、長絕兵欄。如何大樹、獨
 25 有銘刊。

（以下、2行弱の空白）

※11行目 一千假 → 一千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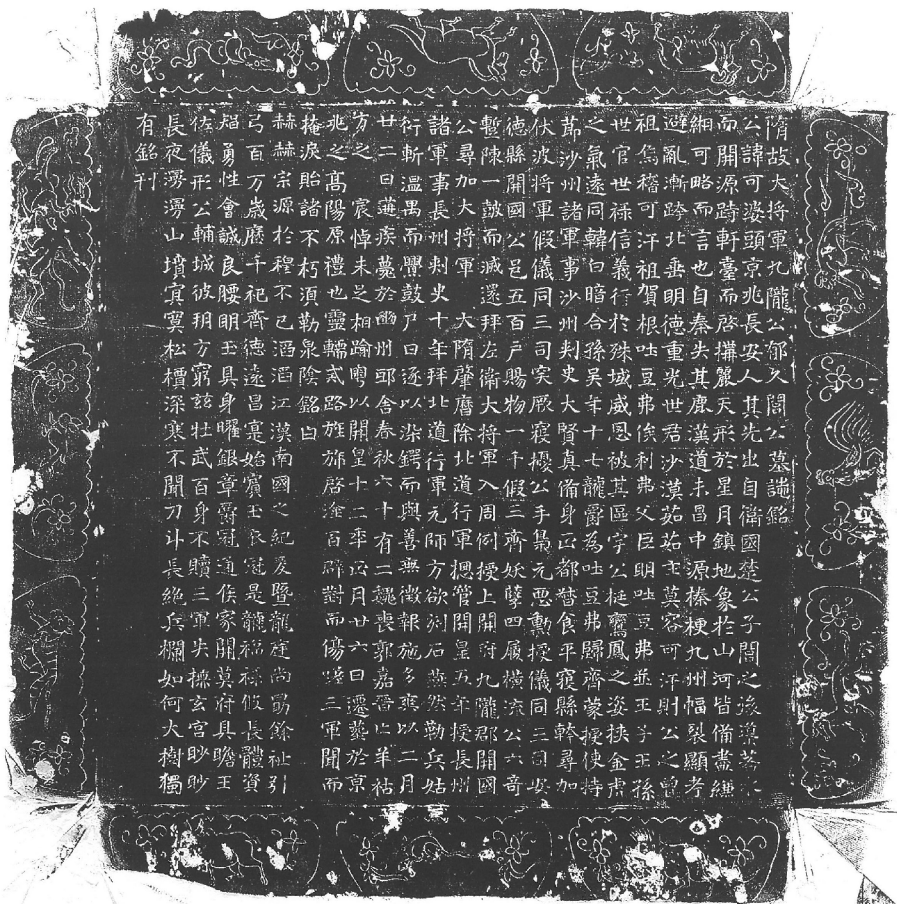
※14行目 元師 → 元帥

【図版】 1



「隋・郁久閭可婆頭墓誌」墓誌蓋
(王其禕・周曉薇編著『隋代墓志銘彙考②』線裝書局、2007年)、63頁より転載。

【図版】 2



「隋・郁久闔可婆頭墓誌」誌石
 (王其禕・周曉薇編著『隋代墓志銘彙考②』線裝書局、2007年)、64頁より転載。

【語釈】

① 楚公子閭 春秋楚の人で、平王の子、昭王の兄。昭王からの譲位の申し出を五度辞退してからようやく引き受けたが、昭王が死ぬとその子を立てて王位につけた。のち、白公勝が亂を起し、閭を立てて王にしようとしたが、これを聞き入れずに殺された（『春秋左氏伝』哀公六年、十六年の條、『史記』卷四〇、楚世家を参照）。

② 天形 文字通り「天体の形態」を言うと同時に、『世説新語』賞譽第八、王戎云、注引の『名士伝』に、「夷甫天形奇特、明秀若神」とあるような、墓主の生まれつき優れた風貌を譬えた表現であろう。

③ 沙州 五胡十六國～唐代の敦煌付近や、北周期の四川北部に置かれた州名として散見するが、北齊領内には見られない。墓主は北方柔然からの歸降者であるから、敦煌付近の架空の沙州を想定して、その長官たる州諸軍事・刺史の職を遙領させられたものであろう。

④ 大賢眞備身正都督 詳しくは、後述の考察を参照のこと。

⑤ 平寇縣 北齊の肆州付近に置かれた縣名（『隋書』卷三〇、地理志中、雁門郡・樓煩郡の條を参照）。庫狄盛（『北齊書』卷一九、本伝）・慕容猛（『北齊書』卷四一、本伝）の食邑としても、比較的詳細に史料に記述されており、實封であったと推測される。

⑥ 伏波將軍 北齊期にも見られる將軍号の一つで、陵江將軍などとともに従五品上に位置づけられる（『隋書』卷二七、百官志中、『通典』卷三八、職官二〇、北齊職品を参照）。

⑦ 儀同三司 北齊期にも見られる散官の一つで、太子三師などとともに正二品に位置づけられる（『隋書』卷二七、百官志中、『通典』卷三八、職官二〇、北齊職品を参照）。

⑧ 安德縣開國公 北齊期の冀州に安德郡があり、隋の開皇三（583）年に全国的に實施された郡組織の省廢に伴い、これが安德縣に改められている（『元和郡縣圖志』卷一七、河北道二、德州を参照）。開國郡公は従一品、開國縣公は正二品なので、語釋⑦の儀同三司と同階の後者の方が相応しいとすれば、あるいは北齊の安德郡下に、實例がなく不詳であるが、安德縣も存在したものであろうか。

⑨ 左衛大將軍 東魏・北齊では、領軍將軍一名のもとに、左右衛將軍各一名が置かれ、皇帝の禁衛軍を左右で分統する体制が取られており、必要に応じて將軍に「大」の称号が付け加えられた（『隋書』卷二七、百官志中を参照）。

⑩ 上開府 上開府儀同大將軍の略称。北周末期から隋の文帝期にかけて整備された上柱國から都督まで全十一等級ある散實官（武散官の一種）の一つ。北周制では第五等級（九命）、隋制では第五等級（従三品）に当たる（『隋書』卷二八、百官志下を参照）。

⑪ 九隴郡開國公 北周時代、南朝梁の置いた東益州を廢して九隴郡を置き、同時に管下の晋壽縣を九隴縣と改名、これが隋代の蜀郡九隴縣になったとされる（『隋書』卷二九、地理志上を参照）。開國郡公については語釋⑧を参照。

⑫ 大將軍 語釋⑩の散實官の一つ。上開府（儀同大將軍）の一つ上の第四等級で、北周制では正九命、隋制では正三品に当たる（『隋書』卷二八、百官志下を参照）。

⑬ 行軍總管 北朝から唐代にかけて、征討軍の指揮官に臨時に授けられた職名で、この行軍總

管を複数束ねる總司令官が、後出の「行軍元帥」である。おそらく墓主は、隋初には、「開皇二（582）年、突厥犯塞、以勣爲北道行軍元帥、以備邊。」（『隋書』卷三九、豆盧勣伝）とある豆盧勣麾下の一指揮官として、つづく開皇十（590）年には、「屬突厥寇邊、詔洪爲北道行軍總管。擊走虜、至磧而還」（『隋書』卷五五、和洪伝）とある和洪らを率いる行軍元帥として、「北道」（北部方面）での對突厥戦に従事したものであろう。

⑭ 長州 西魏の廢帝三（554）年に南夏州を改名して成立し、隋の大業三（607）年まで設置された州名（『周書』卷二、文帝紀下、『隋書』卷二九、地理志上を参照）。

⑮ 方欲刻石燕然 後漢の竇憲が匈奴を討って戦功をあげ、「遂登燕然山。去塞三千余里、刻石勒功、紀漢威德、令班固作銘」（『後漢書』卷二三、竇憲伝）という、班固の「封燕然山銘」（同伝・『文選』卷五六所收）が典據。なお、もとは「血尸逐以染鏑」とあったものが、墓誌文で「尸日逐以染鏑」と改められているのは、「日逐王」「尸逐骨都侯」など、匈奴の官称号が紛らわしいゆえに起きた誤引であろうが、文字は改めずにそのまま訓んでおく。

⑯ 與善無徵、報施多爽 与善は善人に与（くみ）するの意味。『老子』第七九章の「天道无親、恒与善人」が典據であるが、ここでは、司馬遷が『史記』卷六一、伯夷列伝で『老子』のこの文を引用し、さらに「天之報施善人、其何如哉…。余甚惑焉、儻所謂天道、是邪非邪？」といて慨歎しているのを踏まえた表現。墓誌文においては、善い人や立派な人が、はかなく死去することを嘆く際の常套句。

⑰ 隴州 陝西省彬縣付近に置かれた州。西魏の大統十四（548）年に南隴州が置かれ、廢帝の時に南の一字が除かれて隴州となり、隋の大業二（606）年、その北の寧州に併省された（『元和郡縣圖志』卷三、關内道三、邠州を参照）。

⑱ 魏喪郭嘉、晉亡羊祜 魏の郭嘉、字は奉孝、陽翟の人。後漢末、曹操に仕え、戦略・戦術に優れていたが壯年で病死した。のちに南征に失敗した曹操は、郭嘉が生きていればこんな目には遭わなかったと嘆いたという（『三國志』卷一四、本伝）。晋の羊祜、字は叔子、泰山南城の人。魏晋禪代に關わったのち、武帝司馬炎の信任を得て荊州諸軍事となり、對吳経略に手腕を發揮した。信義に厚い人柄から多くの人に敬慕され、その死を聞いて、敵國吳の人々も涙したという（『晋書』卷三四、本伝）。

⑲ 於穆不已 『詩經』周頌、維天之命に、周に降された天命と文王の徳を頌えて、「維天之命、於穆不已、於乎不顯、文王之徳之純」とあるのを踏まえた表現。

⑳ 滔滔江漢、南國之紀 『詩經』小雅、四月に、「滔滔江漢、南國之紀、盡瘁以仕、寧莫我有」とあるのを踏まえた表現。

㉑ 具瞻王佐 『詩經』小雅、節南山に、「赫赫師尹、民具爾瞻」とあるのを踏まえた表現。

㉒ 城彼朔方 『詩經』小雅、出車に、「天子命我、城彼朔方、赫赫南仲、玁狁于襄」とあるのを踏まえた表現。

二、墓誌文の構成とその内容

(1) 墓誌文の構成

本墓誌文は、誌題（第1行）、誌序（第2～19行）、銘（第20行以下）によって構成される。

誌序の内容は、①發辭（第4行「可略而言也」まで）、②顯考（高祖）以降、父に至る祖先の記述（第7行「被其區宇」まで）、③墓主の人格と故國柔然、および北齊・北周・隋の歴朝における事績、特に對突厥戰での活躍（第14行「行軍元帥」まで）、④墓主の死去と埋葬の記述（第19行「銘曰」まで）、に段落分けすることができよう。その後、に續く銘文は、誌序とおおむね相對應する内容を、四文字で一句、二句一對の形式をとる全三十二句の韻文で表現している。

（2）墓誌の先世記事

さて、こうした非漢族・異民族出身者の墓誌を取り上げる場合、まず何よりも墓主一族の系譜の再現が求められるのは言うまでもない。参考のために、本墓誌に見える父祖の系譜を図示すれば、次の【表1】の如くである。

【表1】本墓誌に刻される墓主・郁久閭可婆頭の父祖の系譜

顯考（楚漢戰爭期）

- □（500年以上の空白）（≡ 茹茹主・慕容可汗≠烏稽可汗？）
 - 曾祖（＝ 茹茹主・慕容可汗＝烏稽可汗？）
 - 祖（郁久閭賀根？、吐豆弗・俟利弗）
 - 父（郁久閭臣明？、吐豆弗）
 - 墓主（郁久閭可婆頭、吐豆弗）

まず、紀元前3世紀末の楚漢戰爭期に、顯考が「中源」から「北垂」に移ったというのは（第4～5行）、墓誌にはよくある先世記事であって、事實とは異なろう。また、具体名が記される「茹茹主・慕容可汗」と「曾祖烏稽可汗」は、ともに在來史料には見えず、貴重な記述といえよう。しかし、この部分の墓誌文は微妙な表現となっており、果たして「慕容可汗」が官称号を「烏稽可汗」と改めたのか、つまり両者が同一人物であるのか、それとも別の人物と考えるべきなのか、今ひとつはっきりしない。ところで、管見の限り、隋代の郁久閭氏の墓誌としてはもう一つ、「郁久閭伏仁墓誌（開皇六年）」（『隋代墓誌銘彙考①』191頁）の存在が知られるので、参考までに、そこに記された父祖の系図も図示すれば、次のとおりである。

高祖（莫洛紇蓋可汗）

- 曾祖（俟利弗）
 - 祖（吐万度吐河入弗）
 - 父（車朱渾、驃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使持節・都督兗州諸軍事・兗州刺史・太常卿）
 - 墓主（郁久閭伏仁、北齊給事中・北周大都督・隋左親衛）

ここに見える墓主の郁久閭伏仁は、墓誌文によれば、北齊武平五年に10歳で給事中を授かり、北

齊が北周に併呑されると大都督に遷り、周隋革命後の開皇元年には左親衛に任じられて、開皇六年に22歳で死去している。ここから逆算すると、北齊の河清四年 = 天統元年 = 565年の生まれとなる。次項で述べるように、当時、郁久閭可婆頭は37歳、働き盛りの年頃であり、北齊において活躍中であった。したがって、ほぼ同世代であった郁久閭伏仁の父・郁久閭車朱渾が存命中であれば、ともに北齊に仕えた柔然人として、二人の間には直接の面識すら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推測され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に、可婆頭の家系と伏仁の家系は互いに無関係ではなかったであろうが、北齊に入って初めて歸順した可婆頭系と、早くも北魏の太和年間・洛陽遷都の頃には内徙していたとされる伏仁系とは、大きく異なる部分もある。例えば、兩系統の高祖・曾祖らは、ともに可汗・俟利弗といった高い地位にあったが[4]、その名前・称号はすべて異なっており、相互に血縁関係があったかどうかは、今のところ不明とせざるを得ない。ただし、筆者未見ながら、すでに関連しそうな墓誌の存在も知られている[5]。そこからさらに何らかの手がかりを得られないかと思うが、これは今後の課題としておきたい。

【表2】本墓誌に刻される墓主・郁久閭可婆頭の事績と歴史上の出来事

年号	西暦	年齢	事績
北魏孝莊帝永安二年	529		墓主、誕生。
孝武帝永熙三年	534	6歳	十月、東魏成立。
東魏孝靜帝天平二年	535	7歳	正月、西魏成立。是歳、柔然可汗阿那瓌向東魏求婚、高歡遂以常山王妹蘭陵公主与柔然和親。
元象元年	538	10歳	二月、西魏文帝以宗女為公主嫁阿那瓌之弟塔寒為妻、又納阿那瓌之女為后。
武定三年	545	17歳	二月、西魏宇文泰遣使突厥通好。 六月、東魏高歡惧西魏与柔然連兵、遂娶阿那瓌之女、号曰蠕蠕公主。 墓主、吐豆弗を世襲。
北齊文宣帝天保元年	550	22歳	五月、高洋廢東魏孝靜帝自為皇帝、北齊成立。
二年	551	23歳	六月、突厥土門可汗擊敗鉄勒、恃強向柔然請婚。柔然不許、土門遂向西魏求婚。宇文泰以長樂公主妻土門。
三年	552	24歳	正月、突厥土門可汗擊敗柔然、阿那瓌自殺、其子庵羅辰等歸齊。柔然余衆立鉄弗為主。 十月、北齊、築長城。
四年	553	25歳	二月、北齊送柔然可汗之父登注及兄庫提還国、未幾、柔然内乱、三易可汗。 三月、突厥乙息記可汗向西魏奉獻馬匹五万、未幾死、立其弟俟斤、号為木杆可汗。 九月、北齊攻契丹、十月、擊敗契丹、俘獲十余万口、雜畜数百万頭。 十一月、柔然因突厥進攻、举国奔齊。齊帝廢其可汗庫提、立阿那瓌子庵羅辰為可汗、使居于馬邑川。齊帝追突厥、突厥請降。
五年	554	26歳	三月、柔然可汗庵羅辰反齊。齊發兵擊敗之、俘三万余口而還。 四月、柔然侵齊肆州、齊帝自領兵攻之、獲柔然可汗庵羅辰妻子等三万余口。 五月、柔然乙旃達官攻西魏、敗退。 六月、柔然余部攻齊、大敗。齊軍俘柔然名王数十人。

六年	555	27歳	六月、北齐發民一百八十万築長城。 七月、齐帝自将兵擊柔然、追至沃野、俘柔然酋長及其部衆二万余人、牛羊数十万頭、還晋陽。 十二月、突厥擊敗柔然、又攻嚙噠、驅赶契丹、吞并契骨。 墓主、この頃までには帰齊。以後、蒙授使持節・沙州諸軍事・沙州刺史・大賢真備身正都督、食平寇縣幹→尋加伏波將軍・假儀同三司→勳授儀同三司・安德縣開國公、邑五百戸、賜物一千假→還拜左衛大將軍
七年	556	28歳	十二月、北齐築長城置州鎮。
八年	557	29歳	正月、周公宇文覺称天王、是為孝閔帝、北周成立。 九月、孝閔帝被殺、明帝即位。 是歳、北齐于長城内築重城。
北齐武帝河清二年	563	35歳	九月、周遣柱国楊忠領步騎一万与突厥從北道攻齐。
三年	564	36歳	正月、北齐以銳師擊敗突厥与周兵、突厥遂劫掠晋陽。 四月、周与突厥再次連合攻齐、至北河而還。 九月、突厥攻入齐幽州、大掠而還。 十月、北周以秦・隴・巴・蜀之兵二十万人、与突厥攻齐。
後主天統元年	565	37歳	五月、突厥遣使訪齐、始与齐通好。
武平三年	572	44歳	三月、北周武帝、宇文護誅殺、親政開始。 是歳、突厥木杆可汗死、立其弟、是為他鉢可汗
北周武帝建德六年	577	49歳	二月、北周滅北齐。齐范陽王高紹義兵敗、奔突厥。 十二月、齐營州刺史高宝寧擁高紹義為帝、突厥發兵助之。 墓主、例授上開府・九隴郡開國公。尋加大將軍。
七年	578	50歳	四月、突厥攻周幽州、殺掠土民。 五月、周武帝發兵五道攻突厥、至雲陽、病死。宣帝即位。 閏六月、幽州人盧昌期在范陽起兵、迎高紹義、引突厥范陽。周将宇文神举攻盧昌期、盧昌期敗死、紹義逃還突厥。 十一月、突厥攻周酒泉、殺掠吏民。
宣帝大成元年	579	51歳	二月、突厥他鉢可汗向周請和、周許以千金公主和親、但需執送齐范陽王高紹義。周宣帝禪位、自称天元皇帝。 五月、突厥掠周并州。 六月、周發山東諸民修築長城。
静帝大象二年	580	52歳	二月、突厥遣使至周、迎娶千金公主。 五月、宣帝死、楊堅攝政。 六月、尉遲迥舉兵、敗死。周遣長孫晟等送千金公主至突厥、并遣賀若誼賄賂他鉢可汗、擒齐范陽王高紹義、徙蜀病死。
隋文帝開皇元年	581	53歳	二月、楊堅、廢周静帝、自為皇帝、隋成立。 四月、隋徵發稽胡築長城、二旬而罷。 八月、突厥阿波可汗遣使訪隋。 是歳、突厥他鉢可汗死、東面可汗撰因為沙鉢略可汗、為周復仇、遂与故齐營州刺史高宝寧攻隋邊境。
二年	582	54歳	四月、隋将韓僧寿・李充、分別在鷓頭山和河北山擊敗突厥。 五月、突厥与故齐将高宝寧勾結、發兵四十万、攻入長城。 六月、隋将在馬邑与河洛岐擊敗突厥。 十二月、突厥分兵攻入武威・延安等地、掠尽六畜、回兵出塞。 墓主、除北道行軍總管。
三年	583	55歳	二月、突厥攻隋北边。 四月、隋文帝命衛王爽為行軍元帥、分八道出塞攻突厥。隋軍擊敗沙鉢略可汗及高宝寧。宝寧奔契丹、為部下所殺。 六月、突厥寇幽州、隋将李崇帥步騎三千拒之、被围死。 八月、隋再命将擊突厥。

四年	584	56歳	二月、突厥内訌、其蘇尼部及達頭可汗向隋請降。 九月、突厥沙鉢略可汗向隋請求和親、隋以千金公主妻之。
五年	585	57歳	五月、隋遣元契訪問西突厥阿波可汗。 七月、突厥沙鉢略可汗向隋婦附稱藩、遣其子庫合真（一作窟含真）入朝、隋帝賞其甚厚。沙鉢略大悅、歲時貢獻不絶。 墓主、授長州諸軍事、長州刺史。
六年	586	58歳	正月、隋頒曆于突厥。 二月、崔仲方發丁十五万、于朔方以東、築数十城。
七年	587	59歳	二月、隋發丁男十万余人修長城、二旬而罷。 四月、沙鉢略可汗死、其弟处羅侯繼位、為莫何可汗。莫何發兵擒阿波可汗。
八年	588	60歳	十月、突厥莫何可汗死、其兄子雍虞閭繼位、為都藍可汗。
九年	589	61歳	正月、隋滅陳。
十年	590	62歳	墓主、北道行軍元帥、二月、在幽州薨→十二年正月、遷葬。

(3) 墓主生前の事績

つづいて検討していきたいのは、墓主生前の事績である。墓誌本文でそれを記すのは「③墓主の人格と故國柔然、および北齊・北周・隋の歴朝における事績、特に對突厥戦での活躍（第14行「行軍元帥」まで）」の部分であるが、そこに記された内容と、当該時期の歴史的出來事のうち、主に中國とモンゴリアとの關係を抜き出して一覽にしたのが、前掲の【表2】である。以下、この【表2】と照らし合わせつつ、墓誌文から知ることのできる墓主の生涯を振り返ってみることにしよう。

まず、第14～16行目の記述によれば、墓主の郁久閭可婆頭は隋の開皇十（590）年に62歳で死去したようであるので、その生まれは北魏末の孝莊帝の永安二（529）年であったと逆算される。墓主が生まれた頃は、柔然國內で内紛が相次ぐ中、北魏の後援によってようやく地歩を固め得たはずの柔然主の阿那瓌が、524年に勃發した六鎮の亂で北魏が大混亂に陥つたのを幸いに、急速に勢力を擴大し始めた時期に当たる。阿那瓌は、公主降嫁交渉などを通じて華北の政局に大いに干渉し、東魏の高歡、西魏の宇文泰ともに、柔然と款を通ずべく、阿那瓌の顔色を窺わねばならなかった。ところが、第8行目に記述されるように、墓主が17歳で「吐豆弗」の爵位を襲いだ545年は、奇しくも宇文泰が酒泉の胡、安諾槃陀を遣わして、柔然統治下で勢力を伸ばしつつあった突厥の君長・土門と、初めて交渉を持つことに成功した年であった。そしてここから、新たに結んだ突厥・西魏側の台頭と、兼ねて款を深めていた柔然・東魏側の劣勢という流れが始まり、果たして七年後の552年2月、柔然可汗の阿那瓌は、突厥の伊利（土門）可汗に撃破され、自殺に追い込まれたのであった[6]。

つまり墓主は、モンゴリア・華北情勢の急轉した時期に少・青年期を過ごした人物なのであり、故國柔然の滅亡に伴って、北齊に歸降したのだと考えられる。ただし、滅亡を前にした柔然は、突厥に破られ西魏に降つた鄧叔子一派や、北齊に對して叛服を繰り返した菴羅辰の一派など、いくつもの集団に分かれて複雑な動きを見せていた[7]。そのため、墓主がこれらの集団のいずれに屬し、どのタイミングで「歸齊、蒙授使持節・沙州諸軍事・沙州刺史・大賢眞備身正都督」（第8～9行目）したのか、その詳細については、不明とせざるを得ない。恐らくは、「齊德遠昌、寔始眞玉」（第21行目）という記述から推せば、時期としては、背いた柔然や敵對した突厥、さらには契丹も撃破して、遠く北方にまで武威を輝かせ

た北齊・初代文宣帝の治世初期であったとみて間違いないであろう。また、最初に授けられた官職が、遙領ながら「使持節・沙州諸軍事・沙州刺史」と決して低くないものであったことからすれば、あるいは墓主單獨では無く、麾下の柔然部民も率いて、いち早く歸順することで、北齊側からある程度高い評価を得たのかもしれないが、むろん推測の域を出ない。

なお、東魏が柔然と比較的良好な関係を築いていた関係上、後を受け継いだ北齊は、柔然を破った突厥とは、ほぼ一貫して對立関係にあった。これに對して、いち早く突厥との連携に成功した西魏・北周は、突厥の銳鋒の矢面に立たずに済んでいた。しかし【表2】からもわかるとおり、建徳六（577）年に北周が北齊を併呑して華北統一に成功すると、兩國の関係にはわか悪化した。そして、周に代わった隋は、漢・唐とは異なり、建國当初から北方遊牧勢力に強硬姿勢で臨み、巧みな離間策も奏功して、突厥に對する優位を確立したことは、筆者がかつて論じたとおりである[8]。北齊・北周・隋三代の王朝に仕えた墓主は、主に對突厥戰爭で活躍したようであり、北齊期には「伏波將軍・假儀同三司」「儀同三司・安德縣開國公」「左衛大將軍」とあるように、多くの官職を歴任している。北周期にも「上開府・九隴郡開國公。尋加大將軍」を例授されているが、隋朝成立後には、「北道行軍總管」として實戰部隊の指揮に当たったほか、開皇十年には方面軍司令長官ともいうべき「北道行軍元帥」の大任を委ねられている。柔然可汗一族に屬する貴種にして、騎兵戰術に長けていたであろう彼がこうした拔擢を受けるのは当然である。またいわば故國柔然の仇である突厥との對決は、本人も望むところであったに違いない。

ちなみに、墓主は開皇五年に「長州」の長官に任じられている。「長州」は北朝期の史書に頻見する地名ではない一方、唐の貞觀中に對突厥羈縻州の一つとして登場していることは、周知のとおりである[9]。墓主がいかなる兵士を率いて突厥と戦ったのかはわからないが、いわゆる「府兵」を率いたと考えるよりも、旧柔然系遺民のいくらかが、墓主の麾下に結集・動員されていたと考える方が、蓋然性が高いように思われる。また、さらに想像を逞しくすれば、北齊への歸順以來、墓主は一貫して自身の部民を率いて活動していた可能性もあるのではなからうか[10]。

三、墓主の得た数々の官職—大賢真を中心に—

以上見てきたように、生前、墓主は多くの爵位・官職を授けられている。それらはみな、前掲の【語釋】で解説したとおり、当時の一般官制に従って解説できる爵号・散官（散實官）・職事官ばかりなのであるが、唯一の例外が、「大賢真備身正都督」なる官名である。『隋代墓志銘彙考』の「附考」も、同官職が百官志等の史料に見えないとし、ただ一例、『北史』卷九二、恩幸（韓鳳）伝に、「鳳少聰察、有膂力、善騎射、稍遷烏賀真・大賢真正都督。後主居東宮、年尚幼、武成簡都督三十人、送令侍衛、鳳在其數。後主親就衆中牽鳳手曰、都督、看兒來。因此被識、數喚共戲」とあることを指摘するのみである。しかし、筆者の見るところによれば、この「大賢真」こそは、北朝・隋唐史研究の新たな地平を切り開く可能性を秘めたキーワードの一つ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ので、以下、少しく検討を加えてみることにしよう。

まず、「附考」は「大賢真備身・正都督」と區切っているが、『隋書』卷二七、百官志中に、北齊の官名として「太子騎官備身正（副）都督」「内直備身正（副）都督」「太子備身正（副）都

督」などが見えるので、「大賢眞備身正都督」で一つの官名と捉え、「備身正（副）都督」の一種、ないし各級各種の「正（副）都督」の一つと見て大過なからう。ちなみに、同墓誌・韓鳳伝以外に、筆者管見の限りでは、同じ隋・開皇十八年の「劉安墓誌」（『隋代墓志銘彙考②』の280頁）に、劉安が北齊時代に「大賢□□□正都督・直閣將軍」を特に授けられたとある。摩滅した3字を「眞備身」と補えるとすると、「大賢眞備身正都督」は、「直閣將軍」と同じ従四品下の官職で、前出した「太子騎官備身正都督」「内直備身正都督」と同階であったと推測される。またその職掌であるが、「備身」とは、皇帝・皇太子の警護に当たる兵士を指すので、「備身正都督」はこれら親衛兵の指揮官たる「正都督」であったと考えて大過なからう。

そうすると次に問題になるのは、「大賢眞」とはいったい何であるかということであるが、韓鳳が「大賢眞」だけではなく、「烏賀眞」にも任じられていることから分かるように、これは北朝・隋唐期に関わる史料に散見する「～眞」と称する官名の一つと見て過たない。周知のとおり、『南齊書』卷五七、魏虜伝に、

國中呼内左右爲「直眞」、外左右爲「烏矮眞」、曹局文書吏爲「比德眞」、檐衣人爲「樸大眞」、帶仗人爲「胡洛眞」、通事人爲「乞萬眞」、守門人爲「可薄眞」、僞台乘驛賤人爲「拂竹眞」、諸州乘驛人爲「咸眞」、殺人者爲「契害眞」、爲主出受辭人爲「折潰眞」、貴人作食人爲「附眞」。三公貴人、通謂之「羊眞」。

とあるように、北魏時代には、「～眞」という呼称ないし官職が多数存在していた。東洋學の大家・日本の白鳥庫吉は、この「～眞」を解釋して、モンゴル語・トルコ語で事物を司りあるいはこれを行うものを用いる際に使われるčinの鮮卑語の對音とされているが[11]、この説に據れば、郁久閭可婆頭が任じられた「大賢眞」もまた、鮮卑語に由来する官職名を付けられた、鮮卑系官職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ちなみに、この『南齊書』魏虜伝の記事以上に、北魏における鮮卑系諸官の存在感の大きさを伝えて余りあるのが、いわゆる「北魏文成帝南巡碑」である[12]。同碑文中には、「羽眞」「折紇眞」「雅樂眞」「斛洛眞」などの「～眞」の實例はむろんのこと、これに漢語を付した「（北部・南部・主客・内都坐・中都坐・外都坐）折紇眞」や「雅樂眞幢將」「斛洛眞軍將」など、「鮮卑語+漢語」の構造を持つ用語も多数見出される。ただし、ここで一つ特に注意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眞（čin=人の意）」「阿干（兄の意）」「直勲（tegin=王子の意）」「賀渾吐略渥（？）」など、鮮卑語の對音と考えられるものだけでなく、同碑に刻された「内行令」「内三郎」「内小（≡中散）」など、一見したところでは漢語としか思えないものもまた、鮮卑系の内朝官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らの事實を踏まえ、また少し時代を下った『北齊書』卷四一、皮景和伝（『北史』卷五三、同伝もほぼ同じ）に、

景和少通敏、善騎射。初以親信事高祖、後補親信副都督。武定二年、征步落稽。世宗疑賊有伏兵、令景和將五六騎深入一谷中、值賊百餘人、便共格戰、景和射數十人、莫不應弦而倒。高祖嘗令景和射一野豕、一箭而獲之、深見嗟賞、除庫直正都督

とある史料などに注目すれば、「親信」「庫直」など、「～眞」の表記を採らないものも含めて、鮮卑起源の側近官の存在を、より詳しく、より廣範に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って、北朝・隋唐史の知られざる新たな一面を、照らし出すことができるもの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ところが、先行研究においては、鮮卑系官職の存在は指摘されるものの、主に鮮卑語の對音である事例に注意が集中する傾向があり、また鮮卑系官職が機能したのは、北魏孝文帝以前においてである、という見方が支配的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しかし、そもそも西魏・北周や東魏・北齊は、北魏孝文帝以來の漢化政策と、これに反對した六鎮の亂後の混亂の中で成立した鮮卑色濃厚な政權であった。孝文帝以降も、北鎮一帯では強固に維持された胡族の伝統と、漢族の伝統とがどう關わり、または止揚されて、新たな國家なり社會なりが生み出されたのか。これがこの時代について考察する際の基本的な視座の一つとなろうが、あるいは最も鮮卑北族流で良い部分が、北中國での彼らの活動を長く支えてきた力の根源たる軍事だったのではなからうか。そのような見通しを得た筆者は、西魏・北周による華北統一、ひいては隋唐帝國成立の原動力となったとされる「二十四軍制」（いわゆる「府兵制」の前身とされる）の本質を問い直す中で、北魏内朝官の系譜を継ぐ親信・庫眞ら側近集團が、二十四軍の指揮・統轄に活躍した事實や、郷兵が擬制的部落兵として運用された實態を解明することで、この二十四軍制が、匈奴二十四長から清の八旗制に至る長い遊牧軍制の系譜に位置づ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13]。

その後、こうした理解の仕方に一定の賛同が得られたことから、筆者はさらに検討範囲を擴大し、従来からその存在が指摘されていた「庫眞」以外にも、例えば、隋代においては、「秦王叱干眞」（「于寛墓誌（開皇六年）」）、「叱寒眞」（「馮淹墓誌（大業十一年）」）と呼ばれた親王ないし皇太子の側近官や、「暴君」煬帝の仇討ちを企てて失敗し、全員が壯絶な戦死を遂げたエリート奴隸軍人とも言うべき親衛兵の「給使」の存在を見出した。また唐代についても、「庫直」「驅啞直」（「旧唐書」卷四二、職官志一。「康子相墓誌（唐・顯慶二年）」は隋官として「屈啞眞」に作る）などのほかにも、戦争捕虜・犯罪没官に由来する「皇家隸人」であった錢九龍・樊興が、唐高祖の側近で活躍し、死後は獻陵に陪葬されていること、また唐玄宗の側近に仕えた王毛仲（異民族出身者の没官に由来する奴婢）・李宜德（武勇を見込んで購入された奴婢）が、玄宗朝初期に權勢を振るって、「奴官」と呼ばれる側近集團を形成していたことなどを、順次明らかにしてきた[14]。

筆者は、こうした北朝・隋唐時代を通じて確認される側近官の存在の淵源となったのは、遊牧世界における組織原理、すなわち遊牧首領のもとに多くの遊牧戰士が結集された際、彼らが平時には遊牧首領の家人として召使いや奴隸と変わらぬ家事労働に従いながら、いざ戦時には戰士として主人のために奮戦する、という慣行ないし制度だと考えている。その代表的なものは、「阿都兀赤」（馬を牧養する人）・「昔宝赤」（鷹匠）など、接尾辭「赤（chi）」の附くモンゴルにおける怯薛（ケシク）と呼ばれる君主の侍衛組織であるが、このモンゴルにおける「赤（chi）」と、ここまで述べてきた鮮卑語の「眞」（čīn）が、ともに「～する人」を意味する同じ語源の言葉であることは、自明のこととして良いであろう。

以上、ごくおおまかに紹介したように、ここ数年來の筆者の主たる研究目的は、モンゴル・元に遙かに先行する北朝・隋唐期においても、その國家構造ないし支配機構の核心に、鮮卑起源の側近官組織があったことを、より鮮明に描き出していくことにある。本稿で取り上げた北齊の「大賢眞」も、まさにそうした側近官の例に新たに加えることができる、貴重な實例なのである。ところで、柔然人・郁久闍可婆頭は正眞正銘の胡族と称してよからうが、彼と同じく「大賢眞備身正都督」となった韓鳳もまた、「鳳恒帶刀走馬、未曾安行、瞋目張拳、有啖人之勢。每啖曰、恨不得劉漢狗飼馬。又曰、刀止可刈賊漢頭、不可

刈草」（前掲『北史』韓鳳伝の續き）とあるように、胡色を濃厚に身にまとった人物であった。その韓鳳が、「庫直」「庫直都督」から立身出世した高阿那肱（『北史』卷九二、本伝）らとともに、恩幸として政治を壟斷した北齊とは、いったいいかなる性格の國家・王朝であったのだろうか。周知のとおり、西魏・北周に比して、東魏・北齊に関する研究は比較的手薄であり、筆者もほとんど手を着けられないまま來てしまったが、「郁久閭可婆頭墓誌」以外にも、北齊における鮮卑系官職の存在を伝えてくれる墓誌が存在するはずであり、今後さらに検討を進めて行きたい[15]。

おわりに

以上、「郁久閭可婆頭墓誌」について、基礎的な考察を加えてきた。本墓誌は、柔然における「可汗」「吐豆弗」などの遊牧社會固有の官称号の検討に新たな材料を提供するにとどまらず、モンゴリアを舞台とした柔然・突厥交替劇に伴って、柔然遺民が華北に流入した動向を伝えており、國際關係史の研究にとっても有益な史料と言えよう。そしてさらに注目されるのが、これまで編纂史料でわずか一例しか確認できなかった鮮卑系官職である「大賢眞」の存在が、石刻史料によって確實に裏付けられ、しかもその官職に柔然人が就任していた事実が明らかとなったことである。北朝・隋唐諸王朝における「某々眞」などの鮮卑系官職の役割とその意義に関する新たな研究は、未だ緒に着いたばかりであるが、この分野の研究においても、石刻史料が編纂史料の欠を補い得ることを、本墓誌が改めて示している譯である。さらに言えば、今後、まったく未知の鮮卑系官職の存在が、新出石刻史料から明らかになる可能性すら残されているのである。そうした墓誌をはじめとする石刻史料の研究がよりいっそう進展し、新たな中國中古史像の構築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しつつ、この拙い報告を終えることにしたい。

参考文献

- [1] 拙稿：「突厥他鉢可汗の即位と高紹義亡命政權」東洋學報 第86卷第2号（2004），pp.1-34。“周隋革命と突厥情勢-北周・千金公主の降嫁を中心に-”唐代史研究 第12号（2009），pp.27-56。“『隋・趙世模墓誌』の譯注と考察”沼津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告 第47号（2013），pp.409-414。
- [2] 白鳥庫吉：「東胡民族考」『白鳥庫吉全集』第四卷（岩波書店，1970所収），pp.63-320。藤田豊八：「蠕蠕の國号および可汗号につきて」東洋學報 第13卷第1号（1923），pp.55-70。内田吟風『北アジア史研究-鮮卑柔然突厥篇-』（同朋舎，1975）所収の諸論考等を参照。
- [3] 筆者は、「シルクロード東部地域における貿易と文化交流の諸相（略称：新シルクロード科研）」[研究課題番号：17202018] 2005～2008年度科學研究費基盤研究（A）（一般）、責任編集：森安孝夫（大阪大學文學研究科教授）の連携研究者として中國調査に参加し、2006年8月には陝西省考古研究所を訪れたことがあるが、当該墓誌の原石について未見である。
- [4] 本墓誌にも見える柔然の官称号については、羅新『中古北族名号研究』（北京大學出版社，2009），pp.133-154. に詳しいので、参照のこと。
- [5] 『隋代墓志銘彙考②』の68頁で、「北周瀛州開國公乞扶（伏）令和妻郁久閭思盈墓誌」（2006年、

- 河南衛輝市出土) や、「郁久閻浩墓誌(唐・開元十六年)」(2007年, 西安市長安縣鳳栖原出土) の存在が指摘されている。
- [6] 以上の経緯については、“柔然時代蒙古史年表”内田前掲書所収, pp.341-396. を参照のこと。
- [7] 内田前掲注[6]論文、および“柔然の滅亡年について”内田前掲書所収, pp.319-323. を参照のこと。
- [8] 拙稿前掲注[1]の諸論文を参照のこと。
- [9] 関連する研究は多いが、最新のものとして、齊藤茂雄“突厥有力者と李世民—唐太宗朝の突厥羈縻支配について—”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 第48輯(2015), pp.77-99. を挙げるにとどめる。
- [10] 『旧唐書』卷一八八、裴子余伝に、「(唐・景龍中)時涇・岐二州有隋代蕃戸子孫數千家、司農卿趙履溫奏、悉没爲官戸奴婢、仍充賜口、以給貴幸」とあるように、隋末から百年近く経った後も、内附異民族の後裔らしき集団が、完全には編戸化されずに残されていた事實は、隋代にも相当数の羈縻州民が存在した可能性を示唆していよう。
- [11] 白鳥前掲注[2]論文, pp.170-171を参照。
- [12] 関連する研究は多いが、代表的なものとして、川本芳昭：“北魏文成帝南巡碑について”九州大學東洋史論集 第28号(2000), 同氏著『東アジア古代における諸民族と國家』(汲古書院, 2015, 再録)、および松下憲一：“北魏石刻史料に見える内朝官—「北魏文成帝南巡碑」の分析を中心に”北大史學 40号(2000), 同氏著『北魏胡族体制論』(北海道大學出版會, 2007, 再録)の二編を挙げるに止めたい。
- [13] この点については、拙稿：“西魏・北周の二十四軍と「府兵制」”東洋史研究 第70卷第2号(2011), pp.31-65. があるほか、同論文の中文譯である“西魏・北周の二十四軍与「府兵制」”中國中古史青年學者聯誼會會刊『中國中古史研究』第5卷(上海中西書局, 2015), pp.144~174.もあるので、あわせて参照されたい。
- [14] 拙稿：“隋代の『給使』について”沼津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告 第48号(2014), pp.251~256.および“北朝後期における皇帝親衛兵の系譜—二十四軍から『禁軍』へ—”中國中世(中古)社會諸形態”國際大學院生若手研究者學術交流論壇論文集第3集(2014), pp.183~193.さらに、“皇帝と奴官—唐代皇帝親衛兵組織における人的結合の一側面—”史滴 第36号(2014), pp.52~78. を参照のこと。
- [15] ちなみに『北齊書』『北史』は、東魏・北齊に「内參」と呼ばれる側近官がいたことを伝えており、『魏書』や「北魏文成帝南巡碑」にみえる「内三郎」との関わりも想定されて興味深い。また、柔然人・郁久閻可婆頭が鮮卑系職官「大賢眞」とされたのと同じく、漢族風の姓名を名乗るソグド人・翟天徳が「親信」に任じられ、隋の蜀王秀の側近に仕えたことについては、平田陽一郎・山下將司共著：“「唐・翟天徳墓誌」の譯注と考察”沼津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告 第50号(2016), pp.105-110.で検討を加えておいた。

※本報告は、拙稿“『隋・郁久閻可婆頭墓誌』の譯注と考察”沼津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告 第49号(2015), pp.75-80. を基礎に、大きく加筆・修正したものである。

西安出土

「隋 郁久閭可婆頭墓誌(開皇十二年)」について

- 「大賢真」を中心に -

平田陽一郎 (国立沼津工業高等専門学校)

筆者は、6世紀後半の中国華北における王朝交替を、北方モンゴリアの情勢と絡めて解き明かすべく、北齊の滅亡と北周による華北統一、北周から隋への革命、平陳の役と天下統一といった出来事にスポットを当てつつ、都合3篇の論考を発表してきた。その中で、中国北部とモンゴリア南部が連動して揺れ動いた事実の一端を示すことはできたものの、その考察対象は、6世紀後半の中国と突厥との関係に限られてしまっている。言うまでも無く、現実の外交関係は、先行する時代や他の地域・他の勢力とも広く関わりつつ展開し、後世に多大な影響を与えるものであるから、検討の範囲はさらに拡大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こでまず取り上げてみたいのが、突厥に先だってモンゴリアに覇を唱えた柔然である。柔然については、諸大家の研究が存在するものの、以後、これを積極的に取り上げた研究は、決して豊富とは言えないのが現状である。その最大の原因は、決定的な史料不足にあると考えられるが、この欠を補うものとして、柔然可汗の一族・郁久閭氏の墓誌がいくつか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本稿では、そのうちの一つで、近年出土した「郁久閭可婆頭墓誌」の全文を訳読した上で、そこから浮かび上がる諸問題について、若干の考察を加えてみたい。

以上、「郁久閭可婆頭墓誌」について、基礎的な考察を加えてきた。本墓誌は、柔然における「可汗」「吐豆弗」などの遊牧社会固有の官称号の検討に新たな材料を提供するにとどまらず、モンゴリアを舞台とした柔然・突厥交替劇に伴って、柔然遺民が華北に流入した動向を伝えており、国際関係史の研究にとっても有益な史料とすることができよう。そしてさらに注目されるのが、これまで編纂史料でわずか一例しか確認できなかった鮮卑系官職である「大賢真」の存在が、石刻史料によって確実に裏付けられ、しかもその官職に柔然人が就任していた事実が明らかとなったことである。北朝・隋唐諸王朝における「某某真」などの鮮卑系官職の役割とその意義に関する新たな研究は、未だ緒に着いたばかりであるが、この分野の研究においても、石刻史料が編纂史料の欠を補い得ることを、本墓誌が改めて示している訳である。さらに言えば、今後、まったく未知の鮮卑系官職の存在が、新出石刻史料から明らかになる可能性すら残されているのである。そうした墓誌をはじめとする石刻史料の研究がよりいっそう進展し、新たな中国中古史像の構築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しつつ、この拙い報告を終えることにしたい。

서안(西安) 출토 「隋郁久闍可婆頭墓誌(開皇十二年)」에 대하여 - 「大賢眞」을 중심으로 -

히라다요이치로 (国立沼津工業高等専門学校)

필자는 6세기 후반의 中國 華北에서의 왕조 교체를 북방 몽골리아의 정세와 관련시켜 해명해야 하고, 北齊의 멸망과 北周에 의한 화북 통일, 北周에서 隋로의 혁명, 陳의 평정과 천하통일이라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합 3편의 논고를 발표해 왔다. 그 중에서 중국 북부와 몽골리아 남부가 연동되어 요동쳤다는 사실의 일단을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그 고찰대상은 6세기 후반의 중국과 突厥의 관계에 한정되어 버렸다. 말할 것까지도 없이 현실의 외교관계는 선행하는 시대나 다른 지역, 다른 세력과도 널리 관계되면서 전개되고, 후세에 다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 돌궐에 앞서서 몽골리아에서 패권을 외친 柔然이다. 유연에 대해서는 여러 대가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이후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룬 연구는 결코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 최대의 원인은 결정적인 사료부족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결함을 메우는 것으로서 유연 可汗의 일족인 郁久闍 씨의 墓誌가 몇 개인가 알려지게 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그 중 하나로 근년 출토된 「郁久闍可婆頭墓誌」의 전문을 석독한 후에 거기에서 떠오르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고찰을 가해 보고자 한다.

이상, 「郁久闍可婆頭墓誌」에 대하여 기초적인 고찰을 가해 왔다. 이 묘지는 유연에서의 ‘可汗’·‘吐豆弗’ 등 유목사회 고유의 관칭호의 검토에 새로운 재료를 제공함에 그치지 않고, 몽골리아를 무대로 한 유연·돌궐 교체극에 따라서 유연 유민이 화북에 유입된 동향을 전하고 있어, 국제관계사의 연구에 매우 유익한 사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욱 주목되는 것이 지금까지 편찬사료에서 겨우 1례밖에 확인할 수 없었던 鮮卑系 관직인 ‘大賢眞’의 존재가 석각사료에 의해 확실하게 뒷받침되고, 더구나 그 관직에 유연인이 취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던 점이다. 北朝 隋唐 왕조에서의 ‘某某眞’ 등 선비계 관직의 역할과 그 의의에 관한 새로운 연구는 아직 막 실마리에 도달한 정도이지만, 이 분야의 연구에서도 석각사료가 편찬사료의 결함을 배울 수 있음을 이 묘지가 다시 보여주고 있을 터이다. 더 말하자면 앞으로 전혀 미지의 선비계 관직의 존재가 새로 출토된 석각사료에 의해 분명해질 가능성조차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묘지를 비롯한 석각사료의 연구가 한층 더 진전되고, 새로운 중국 中古時代(魏晉南北朝~隋唐: 역자주) 역사상의 구축에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보고를 마치고자 한다.

关于西安出土的《隋郁久闾可婆头墓志(开皇十二年)》研究 - 以“大贤真”为中心 -

平田阳一郎(国立沼津工业高等专门学校)

本人曾通过三篇论文主张6世纪后期的中国华北地区发生的王朝更迭应与北方蒙古局势相连接研究,并聚焦北齐的灭亡和由北周统一华北,从北周到隋朝的革命,平陈之役和天下统一等事件。其中,虽然可以看到中国北部与蒙古南部共同攻打辽东,但是其考查对象仅限于6世纪后期中国与突厥的关系。现在的外交关系,与先行历史或其他地区和其他势力相关联展开,对后代也具有重要的影响,因此,考虑范围必需要扩大。

本人一直想研究的是在突厥之前曾称霸蒙古的柔然。有关柔然,虽然有很多大师的研究,但是后继研究没有跟进。其最大原因是决定性史料不足,而能够填补其缺陷的是柔然可汗的一个家族之一的郁久闾的几个墓志。本文就是释读近年出土的《郁久闾可婆头墓志》全文后,就其中的一些问题,略加考察。

本文对《郁久闾可婆头墓志》进行了基础考察。本墓志不仅对柔然的“可汗”、“吐豆弗”等游牧社会固有的官职称号的研究提供新的资料,而且对以蒙古为舞台的柔然和突厥的更迭,柔然流民流入到华北的动向很有帮助,这对研究国际关系史也具有重要意义。另外,更受瞩目的是,通过石刻资料可以确认在现存的编纂史料中仅可看到一例的鲜卑系官职“大贤真”的存在,特别是柔然人上任这一官职的情况。在北朝和隋唐王朝,“某某真”等鲜卑系官职的作用和其意义的新的研究现在还只是一个开始,但是墓志等石刻史料可以填补编纂史料的不足。也就是说,全然未知的鲜卑系官职的存在,通过新出土的石刻史料可以得到确认。希望今后通过进一步研究墓志等石刻资料的研究,更完整地复原中国中古时期的历史面貌。

묘지명의 전통과 문서

- 南朝時期 梁代の '奉敕撰墓誌銘'의 사례를 중심으로 -

梁鎮誠 (연세대학교)

묘지명의 전통과 문서

- 南朝時期 梁代の '奉敕撰墓誌銘'의 사례를 중심으로 -

梁鎮誠 (延世大學校)

현존하는 남조시기의 墓誌銘 가운데, '奉敕撰'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 있는 것은 총 3건이다. 구체적으로는 〈梁天監元年(502)蕭融墓誌銘〉, 〈梁普通元年(520)蕭敷墓誌銘〉, 〈梁普通元年(520)蕭敷妻王氏墓誌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묘지명에 표기된 '奉敕撰'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들 문장-즉 묘지명-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奉敕撰'의 '勅'은 황제의 명령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다. 다시 말해 '勅'은 '詔勅'의 줄임말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의 '勅'은 '詔'와는 계통과 용도를 달리하는 별도의 王言文書이다. 남조에서는 황제가 문서행정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詔와 勅 두 계열의 왕언문서를 활용했다. 詔는 곧 詔書로 中書에서 原案이 작성되고 門下의 검토를 거친 후, 尙書에 전달되어 집행되었는데, 이는 전국적인 공지와 집행을 필요로 하는 '大事'에 사용되었다. 반면 勅은 신료를 대상으로 한 황제의 사적인 당부나 의견의 교환, 器物의 賜與, 詩文의 撰述 등과 같은 '小事'에 사용되었다. 또한 그 발행과정도 문하의 검토나 상서의 집행을 거치지 않고, 중서에서 작성되어 바로 집행되었다.

묘지명의 작성도 詩文의 찬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황제가 칙을 통해 묘지명의 작성을 명령하는 것은 당시 칙의 용도에도 부합한다. 또한 본 발표문에서 검토한 3건의 묘지명은 문장 내에서 조와 칙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볼 때, 묘지명에 표기된 '奉敕撰'의 '勅'은 황제의 명령에 대한 총칭이 아닌, 당시 행정에서 사용된 칙이라는 왕언문서를 가리킨다. 즉 '奉敕撰'은 황제가 '勅'이라는 왕언을 동원하여 묘지명의 작성을 명령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황제가 칙을 내려서 묘지명의 작성을 명하는 것은 당시 묘지명의 작성관행으로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기존의 묘지명은 망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발표문에서 예로든 蕭敷 부부의 묘지명은 모두 칙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蕭融 부부는 소용만 칙에 의해 묘지명이 작성되었고, 정작 그의 처인 〈王纂韶墓誌銘〉은 그렇지 않았다. 소부와 소용은 모두 사후에 왕으로 追封되었고, 소부의 처 왕씨와 소용의 처 왕씨는 모두 살아서는 太妃로 策封되어 그 지위는 같았다. 그럼에도 소부 부부와 소용의 묘지명만 칙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勑撰의 묘지명이 어떤 규정된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勑撰의 묘지명은 황제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다. 墓主의 가족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 묘지명에 '奉敕撰'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자연스럽게 묘지명의 형식을 기존의 그것과는 다르게 만들었

다. ‘奉勅撰’이라는 문구 앞에는 撰者의 관직과 이름이 열거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묘지명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방식이다. 묘지명을 지은 이의 관직과 이름을 기록하고, 그 작성이 황제의 칙에 의한 것임을 명기한 것은 梁代에 처음 확인된다. 따라서 梁의 奉勅撰墓誌銘은 그 제작의 경위, 형식으로 볼 때, 당시로서는 매우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의 묘지명은 梁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음이 주목된다. 묘지명의 서두 부분에 문장의 撰者를 명기하는 방식은 이후 陳의 묘지명에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당의 奉勑撰墓誌銘은 형식과 용도에 있어서 양의 奉勑撰墓誌銘과 유사하다. 墓誌銘의 주인공이 주로 皇室의 구성원에 한정된다는 점, 奉勑撰의 표기 방식(撰者의 관직, 성명 표기, 奉勑撰이라는 문구) 등은 양과 당이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의 奉勑撰墓誌銘은 唐朝로 계승되어 당의 奉勑撰墓誌銘의 형성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음이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양의 奉勑撰墓誌銘은 묘지명의 정형화에 있어서 계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북조의 경우 현재로서는 奉勑撰墓誌銘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남조 奉勑撰墓誌銘의 북조로의 직접적인 영향 여부, 그리고 북조에서 당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 계승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차후의 과제이다.

墓志铭的传统与文书

- 以南朝梁的“奉敕撰墓志铭”为中心 -

梁镇诚 (延世大學)

在现存的南朝时期墓志铭之中，共有三尊铭记“奉敕撰”，如梁天監元年(502年)的“萧融墓志铭”、梁普通元年(520年)的“萧敷墓志铭”以及梁普通元年(520年)的“萧敷妻王氏墓志铭”等。墓志铭中的“奉敕撰”的字眼表示，这一撰文(即墓志铭)是奉皇帝御旨而写的。不过，“奉敕撰”的“敕”并不是等同于皇帝御旨的惯用词。换句话说，这里的“敕”不是“诏敕”的缩写，而是在系统和作用上不同于“诏”的另外的王言文书。南朝时期，皇帝在文书行政上为贯彻自己的意志而采用分为“诏”和“敕”的两个不同的王言文书系统。“诏”就是诏书，中书撰写的原案经过门下的检讨，上报尚书加以执行，主要适用于需要全国公布和实施的“大事”。相比之下，“敕”适用于“小事”，指皇帝对下臣私下嘱咐、交换意见、赐予器物以及撰述诗文等。此外，“敕”的发行过程也不同，不经过门下的检讨或尚书的执行，直接由中书撰写并立即执行。

由于墓志铭的撰写也属于撰述诗文之类，因此皇帝通过“敕”下令撰写墓志铭符合当时“敕”的用途。本文探讨的三尊墓志铭，在文章内严格区分“诏”和“敕”。总之，墓志铭中“奉敕撰”的“敕”并不是皇帝下令的总称，而是指当时行政上所使用的所谓“敕”的王言文书。“奉敕撰”意味着当时皇帝调用所谓“敕”的王言而下令撰写墓志铭。

但是，考虑当时墓志铭撰写惯例，皇帝这样敕令撰写墓志铭是相当破例的。一般来讲，墓志铭是由与墓主有直接或间接关系的亲人自愿撰写。尤其是，本文举例的萧敷夫妇都由“敕”令撰写墓志铭，而萧融夫妇则不同，只有萧融由“敕”令撰写墓志铭，其妻“王纂韶墓志铭”不是这样。萧敷与萧融都死后追封为王，萧敷的妻子王氏与萧融的妻子王氏都被封为太妃，地位同等。虽然如此，只有萧敷夫妇与萧融的墓志铭“奉敕撰”。可见，敕撰的墓志铭并不依靠某种规章制度而是皇帝随兴而下。换句话说，敕撰的墓志铭只有皇帝的格外关心和照顾才能制成。所以，墓主家属为强调和突出这一点而把“奉敕撰”插入在墓志铭中。同时，这样做自然使墓志铭的格式变得不同于一般的墓志铭。具体来讲，“奉敕撰”墓志铭在前边一般列举撰者的名字和官衔，这在之前的墓志铭中是没有的。记录撰者名字和官衔的这种“奉敕撰”墓志铭在梁朝首次出现。所以，考虑到其制作经纬和格式，梁朝“奉敕撰”墓志铭在当时的环境中属于例外。不过，令人瞩目的是，这样的墓志铭并未伴随梁朝的灭亡而消失。在墓志铭的开头铭记撰者的方式，在后来陈朝墓志铭中依旧出现。尤其是，唐朝“奉敕撰”墓志铭在格式和作用上类似于梁朝的墓志铭，例如梁朝与唐朝的墓主都主要局限在皇室的成员，都采用“奉敕撰”的标记方式(包括撰者的官衔与姓名)等。可见，梁朝奉敕撰墓志铭传承到唐朝，影响到唐朝奉敕撰墓志铭的形成。因此，我认为梁朝奉敕撰墓志铭在墓志铭的定型化发展方面，起到举足轻重的作用。至于北朝，到目前为止还未发现奉敕撰墓志铭。南朝奉敕撰墓志铭有否直接影响到北朝、从北朝到唐朝的具体传承关系等问题有待进一步研究。

墓誌銘の伝統と文書

-南朝時期梁代の「奉勅撰墓誌銘」の事例を中心に-

梁鎮誠 (延世大學)

現存する南朝時期の墓誌銘の中で、「奉勅撰」という表現が明記されているものは全部で3件ある。具体的には「梁天監元年(502)蕭融墓誌銘」、「梁普通元年(520)蕭敷墓誌銘」、「梁普通元年(520)蕭敷妻王氏墓誌銘」がこれに該当する。

墓誌銘に表記された「奉勅撰」という表現を通じてこれらの文章(すなわち墓誌銘)が皇帝の命令によって作成されたことが分かる。

ところで「奉勅撰」の「勅」は皇帝の命令を意味する慣用的表現ではない。言い換えると「勅」とは「詔勅」の略語ではない。ここでの「勅」は「詔」とは系統と用途を異にする別個の王言文書である。南朝では皇帝が文書行政において本人の意志を実現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詔と勅という二つの系列の王言文書を活用した。詔とはすなわち詔書で、中書にて原案が作成され、門下の検討を経た後、尚書に伝達され執行されたのだが、これは全国的な公示と執行が必要な「大事」に使用された。一方で勅は臣僚を対象にした皇帝の私的な確認や意見の交換、器物の賜与、詩文の撰述などのような「小事」で使用された。またその発行過程も門下の検討や尚書の執行を経ずして、中書にて作成され直ちに執行された。

墓誌銘の作成も詩文の撰述に該当したために皇帝が勅を通じて墓誌銘の作成を命じることを当時の用途にも符合する。また本発表文にて検討した3件の墓誌銘は文章の中で詔と勅を厳格に区別している。よって以上のような事実に鑑みると、墓誌銘に表記された「奉勅撰」の「勅」は皇帝の命令に対する総称ではなく、当時行政にて使用されていた勅という王言文書を指す。すなわち「奉勅撰」は皇帝が「勅」という王言によって墓誌銘の作成を命令したことを意味する表現ということになる。

ところでこのように皇帝が勅を下し、墓誌銘の作成を命じることは当時の墓誌銘の作成慣行に鑑みると相当に例外的である。既存の墓誌銘は亡者と直間接的に関連を結んでいる知人たちによって自発的に作成されることが一般的であったからだ。さらに本発表文にて例示した蕭敷夫婦の墓誌銘は全て勅によって作成されたが、蕭融夫婦は蕭融のみ勅によって墓誌銘が作成され、彼の妻の「王纂詔墓誌銘」はそうではなかった。蕭敷と蕭融はともに死後に王として追封され、蕭敷の妻の王氏と蕭融の妻の王氏はともに存命中に太妃に策封され、その地位は同じだっ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

蕭敷夫婦と蕭融だけが勅によって墓誌銘が作成されたということは勅撰の墓誌銘が規定された制度によるものではなく、皇帝の恣意的な意思によってなされたことを意味する。言い換えれば勅撰の墓誌銘は皇帝の格別な関心と配慮があつてはじめて可能だったのだ。墓主の家族たちはまさにこうした点を強調し浮き彫りにするために墓誌銘に「奉勅撰」という文句を挿入したものと思われる。そしてこうした措置は自ずと墓誌銘の形式を既存のものとは異なるものにした。「奉勅撰」という文句の前に撰者の官職と名前が列挙されたのだが、これは以前の墓誌銘では確認されない方式だ。墓誌銘を作った者の官職と名前を記録し、その作成が皇帝の勅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を明記したことは梁代に最初に確認される。それゆえ梁の奉勅撰墓誌銘はその制作の経緯、形式に鑑みると当時としては極めて特殊なケースに該当すると言え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このような形式の墓誌銘は梁の消滅とともに消え去らなかつた点が注目値する。墓誌銘の初めの部分に文章の撰者を明記する方式は以後陳の墓誌銘でも確認できる。更に唐の奉勅撰墓誌銘は形式と用途において梁の奉勅撰墓誌銘と類似している。墓誌銘の主人公が主に皇室の構成員に限定されていること、奉勅撰の表記形式（撰者の官職、姓名表記、奉勅撰という文句）は一致している。よつて梁の奉勅撰墓誌銘は唐に継承され、唐の奉勅撰墓誌銘の形成に一定部分影響を与えたものと推定できる。このような点で梁の奉勅撰墓誌銘は墓誌銘の定型化において重要な契機になったものと評価できる。ただし北朝の場合現在までに奉勅撰墓誌銘の存在は確認されていない。南朝奉勅撰墓誌銘の北朝への直接的な影響の有無、そして北朝から唐へ至る具体的な継承関係を究明することが今後の課題となる。

入唐高丽百济移民社会生活研究

-以出土志碑为视角-

陈朝云（郑州大学 历史学院）

入唐高丽百济移民社会生活研究

- 以出土志碑为视角 -

陈朝云 (郑州大学)

摘

要：唐王朝灭亡百济、高丽后，数量众多的百济、高句丽移民归附唐王朝，唐两京地区成为这些移民的主要安置地之一。在唐王朝开放、包容的民族政策下，入唐百济、高丽移民凭借其优秀的军事素养，成为维护唐王朝统一与安定战争中的中坚力量，并与汉族官员一样获得勋爵。考古发掘出土的碑志铭文中所包含的百济、高丽人的读书修身及入唐后的精神生活信息，填补了史籍阙佚，揭示了百济、高丽人崇尚汉文化的民族传统与入附唐朝后的心路历程。志石资料与文献史料对于百济、高丽人一般兵士、奴婢与商人的记载，揭示出一般平民与下层民众在唐的生活情况。碑志中揭示的百济、高丽人与汉人通婚及和汉族各级官员的交往信息，反映出入唐高丽、百济人民族特性的消隐。碑志铭文对百济、高丽人的籍贯、卒葬形式以及道德评定的描述均表现出百济、高丽移民及其后裔逐渐融入唐人共同体的历史趋势。

关键词：唐代；高丽；百济；社会生活；文化融合

公元618年唐朝建立，位于朝鲜半岛北部的高丽及东南部百济随即派使节前来与唐朝建立朝贡册封关系。七世纪中叶，朝鲜半岛三国纷争不断，后起的位于半岛西南部的新罗利用自己的发展优势，采取远交近攻的策略，与唐朝建立了藩属同盟关系。由于历史问题、对朝鲜半岛的统治方式、双方滞留人口归还及统治理念的不同，导致唐与高丽、百济一系列矛盾的产生。为了重建以中国为中心的东亚世界秩序，公元645年唐太宗亲征高丽，随后又派军队三次征伐，俘获、迁徙辽东一带大量人口回归中原。660年8月，唐联合新罗灭亡百济，668年又灭了高丽，新罗最终完成了朝鲜半岛的统一。战争期间，难以计数的高丽、新罗王族、大臣、将领及百姓长途迁徙至唐朝内地。目前，中国境内发现的唐代朝鲜半岛移民碑志以高丽、百济人为主。故本文的研究着眼于流寓唐王朝的高丽、百济人群体。

目前，学界有关唐代朝鲜半岛的研究，多据有限的传世文献如两《唐书》《资治通鉴》《册府元龟》等着眼于唐与高句丽、百济、新罗的文化交流问题。上世纪20年代以来，唐代流寓中国大陆的高丽、百济人碑志被发现并整理刊布，这不仅填补了文献阙佚，也为探究入唐高丽、百济人的日常起居、政治活动、文教生活、婚姻交游等问题提供了可能。最早以洛阳北邙一带出土的高丽、百济移民墓志为研究对象进行跋证考辨的为著名金石学者罗振玉先生¹⁾，随后拜根兴²⁾、苗威³⁾、姜清波⁴⁾等学者也结合出土墓志对入唐

朝鲜半岛移民的生活状况进行了系统阐述，此外还有以中原地区移民个体或家族墓志为对象进行相关问题考辨的一些论文⁹⁾，内容涉及移民数量、移民安置、移民活动及与中原汉族人民的融合等问题。韩国、日本方面的相关研究包括对朝鲜半岛移民个案或移民流向的分析以及移民对东北亚国家间政治、文化关系及社会状况的影响探讨等⁶⁾。本文在已有研究的基础上，以中国大陆现已发现的37方入唐高丽、百济人碑志为主⁷⁾，结合传世史料，对入唐高丽、百济人的政绩及社会地位、文教及其精神生活状况、平民及下层民众的生活、婚姻交游及其汉化倾向等问题做以系统论述，拟以“人”为切入点，利用金石资料重新审视唐与朝鲜半岛的关系。不足之处，敬请方家指正。

1、入唐高丽、百济人的政绩和社会地位

据史籍记载，高丽、百济人“有气力，习战斗”⁸⁾，勇悍尚武。在唐王朝“绥之以德”⁹⁾“爱之如一”¹⁰⁾的民族政策下，内迁的高丽、百济人士充分发挥了其在军事上的杰出才能，涌现出一大批著名的将领，仅列入《新唐书·诸夷蕃将列传》的就有高丽人泉男生、泉献诚和百济人黑齿常之，此外还有单独列传的高丽人高仙芝等¹¹⁾。他们以军功获得勋爵，并为安定唐王朝的边境、促进唐王朝与朝鲜半岛的政治文化交流及重建当时东北亚的新秩序做出了重要贡献。

据史载，在灭亡高丽、百济的战争中及战后对辽东移民的安置过程中，入唐高丽、百济人发挥了不可替代的重要作用。泉男生为高丽莫离支¹²⁾泉盖苏文之子，据《旧唐书·东

1) 罗振玉：《唐代海东藩阀志存》，石刻史料新编本。

2) 拜根兴：《唐代高丽百济移民研究：以西安洛阳出土墓志为中心》，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2年。

3) 苗威：《高句丽移民研究》，长春：吉林大学出版社，2011年。

4) 姜清波：《入唐三韩人研究》，广州：暨南大学出版社，2010年。

5) 张福有、赵振华：《洛阳、西安出土北魏与唐高句丽人墓志及泉氏墓地》，《东北史地》，2005年第4期，第2-20页；拜根兴：《高句丽遗民高足酉墓志铭考释》，《碑林集刊》，2003年第00期，第27-35页；董延寿、赵振华：《洛阳、鲁山、西安出土的唐代百济人墓志探索》，《东北史地》，2007年第2期，第2-12页。

6) 如[韩]金贤淑：《中国所在高句丽遗民的动向》，《韩国古代史研究》，2001年第23期；[韩]李文基：《百济黑齿常之父子墓志铭检讨》，《韩国学报》，1991年第64期；[日]内藤隼辅：《唐代朝鲜半岛遗民的活动》，《朝鲜史研究》，京都大学东洋研究会刊，1962年。

7) 包括高丽人墓志26方，分别为泉男生、泉男产、泉献诚、泉毖、高性文、高慈、高震、高震女儿高氏、高玄、高足酉、高钦德、高远望、高德、王景曜、李怀、豆善福、李他仁、高木卢、李仁德、似先义逸、高铨苗、南单德、高牟、高乙德、高提昔、李隐之墓志，以及百济人墓志11方，分别为扶余隆、黑齿常之、黑齿俊、难元庆、祢寔进、虢王妃扶余氏、祢素士、祢仁秀、祢军、陈法子墓志和勿部珣功德记。另注董延寿、赵振华先生曾将出土于现的《诺思计墓志》归为入唐百济人墓志，从志文看其志主族属并不能确定，本文暂不收入。

8) (晋)陈寿：《三国志》卷三十，《乌丸鲜卑东夷传》，北京：中华书局，1959年，第844页。

9) (宋)司马光：《资治通鉴》卷一九八，《唐纪十四·太宗贞观二十二年》，北京：中华书局，1956年，第6253页。

10) (宋)司马光：《资治通鉴》卷一九八，《唐纪十四·太宗贞观二十一年》，北京：中华书局，1956年，第6247页。

11) (宋)欧阳修、宋祁：《新唐书》卷一三五，《列传第六十》，北京：中华书局，1975年，第4576-4579页。

夷列传》：“盖苏文死，其子男生代为莫离支，与其弟男建、男产不睦，各树朋党，以相攻击。”¹¹³泉男生因兄弟内讧而降附唐王朝，唐任命左骁卫大将军契苾何力等前往接应，并“遥拜公特进，太大兄如故，平壤道行军大总管兼使持节安抚大使领本蕃兵”¹¹⁴。之后泉男生与唐军里应外合，“与李勣攻平壤，使浮屠信诚内间，引高丽锐兵潜入，禽高藏”¹¹⁵。泉男生墓志文载“风驱电激，直临平壤城”¹¹⁶即是指他在灭亡高丽的战争中立下的汗马功劳。

史载，上元三年（676年）二月，因高丽余众的反叛，唐王朝将原置于高丽故地的安东都护府移至辽东故城¹¹⁷（今辽宁省辽阳市）；次年二月，移治于新城（今辽宁省抚顺市高尔山山城），“仍令特进充使镇府”¹¹⁸。而墓志称总章元年（668年）诏命泉男生“右卫大将军，进封卞国公，食邑三千户，特进，勋官如故”，于仪凤二年（677年）“奉敕存抚辽东，改制州县”¹¹⁹。文献与墓志相对照，可知泉男生应在新移治的安东都护府中担任类似于都护的职位。而彼时高丽末代王高藏也被遣于辽东¹²⁰，辽东都督在当时应是受辖于安东都护的，据此可推测唐王朝应利用了高丽王族高氏与权臣泉氏的微妙关系使其彼此牵制。同时，百济太子扶余隆入唐后，于仪凤二年（677年）被唐封为“熊津都督，封带方王，亦遣归安辑百济余众”¹²¹。扶余隆墓志载因“马韩余烬，狼心不悛”而“以君为熊津都督，封百济郡公，仍为熊津道总管兼马韩道安抚大使”¹²²即应指此事。高丽、百济王族及权臣不仅在其故地享有威望，而且在他们降附唐王朝时往往追随有大量的蕃众。如泉男生归降唐朝时“率国内等六城十余万户，书籍辕门”¹²³；苏定方攻破百济时，“（黑齿）常之以所部降”¹²⁴。出于对高丽、百济将酋原先地位的尊重以及对其在本蕃中政治影响的考量，唐王

- 12) “莫离支”，《旧唐书》卷一九九上《东夷列传·高丽》载：“犹中国兵部尚书兼中书令职也”，北京：中华书局，1975年，第5322页。
- 13)（后晋）刘昫：《旧唐书》卷一九九上，《东夷列传·高丽》，北京：中华书局，1975年，第5327页。
- 14)《大唐故特进行右卫大将军兼检校右羽林军仗内供奉上柱国卞国公赠并州大都督泉君（男生）墓志铭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6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20页。
- 15)（宋）欧阳修、宋祁：《新唐书》卷一一〇，《诸夷蕃将列传》，北京：中华书局，1975年，第4124页。
- 16)《大唐故特进行右卫大将军兼检校右羽林军仗内供奉上柱国卞国公赠并州大都督泉君（男生）墓志铭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6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20页。
- 17)（后晋）刘昫：《旧唐书》卷五，《本纪第五·高宗下》，北京：中华书局，1975年，第101页。
- 18)（宋）王溥：《唐会要》卷七三《安东都护府》，北京：中华书局，1955年，第1318页。
- 19)《大唐故特进行右卫大将军兼检校右羽林军仗内供奉上柱国卞国公赠并州大都督泉君（男生）墓志铭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6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20页。
- 20)（后晋）刘昫：《旧唐书》卷一九九上《东夷列传·高丽》载：“仪凤中，高宗授高藏开府仪同三司、辽东都督，封朝鲜王，居安东，镇本蕃为主”，北京：中华书局，1975年，第5328页；（宋）欧阳修、宋祁：《新唐书》卷二二〇《东夷列传·高丽》载“仪凤二年，授藏辽东都督，封朝鲜郡王，还辽东以安余民，先编侨内州者皆原遣，徙安东都护府于新城”。北京：中华书局，1975年，第6198页。
- 21)（宋）司马光：《资治通鉴》卷二百二，《唐纪十八·高宗仪凤二年》，北京：中华书局，1956年，第6382-6383页。
- 22)《大唐故光禄大夫行太常卿使持节熊津都督带方郡王扶余君（隆）墓志》，《洛阳出土历代墓志辑编》，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373页。
- 23)《大唐故特进行右卫大将军兼检校右羽林军仗内供奉上柱国卞国公赠并州大都督泉君（男生）墓志铭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6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20页。

朝对入唐蕃将多根据其在故地的族望高低而授职并委以安辑旧部的任务，这也正是唐王朝“以蕃统蕃”“以夷制夷”政策下的战略考虑。

除了对追随移民的安抚外，入唐高丽、百济将领还在效力唐王朝征讨边叛的战役中起到了关键性的作用。高慈在万岁通天元年（696年）五月随父高性文共同讨伐契丹，“缘破契丹功，授壮武将军、行左豹韬卫翊府郎将”²⁵⁾；后契丹卷土重来，高性文父子皆为契丹军所俘，因英武不屈，最终二人死于磨米城（今辽宁省本溪边牛村高丽山城），忠贞可鉴。高性文墓志铭中三处引用皇帝诏敕，诏令将高性文父子“令编入史”，“令准式例葬”，显示了唐王朝对高氏父子为唐朝捐躯之壮举的表彰。著名百济籍将领黑齿常之也曾多次参与唐朝诸多抗击边境叛乱的战事。据黑齿常之墓志文记载，仪凤年间黑齿常之在随李敬玄、刘审礼击伐吐蕃的过程中，面对唐军败退、“诸将莫不忧惧”的战况，黑齿常之“独立高岗之功，以济其难，转左武卫将军，代敬玄为大使”²⁶⁾。史籍对此事的细节记载更为详尽：“审礼败，敬玄欲引还，阻泥沟，兵不得出，贼屯高压官军。常之夜率敢死士五百人掩其营，杀掠数百人，贼酋跋地设弃军走。帝叹其才，摧左武卫将军，检校左羽林军，赐金帛殊等。进为河源军副使。”²⁷⁾黑齿常之因此大著功勋、声震河湟。垂拱二年（686年），面对突厥阿史那骨卒禄的屡次进犯，唐王朝派善战的黑齿常之前去讨伐，墓志文简略记载了此事：“骨卒禄，狂贼也，既不睹其微；……南静淮海，北扫旄头，并有力焉，故威声大振。制曰：……可封燕国公，食邑三千户”²⁸⁾。史籍对此次战争的记载也很详细：“命常之率兵拒之。蹶至两井（今河北鹿泉北），忽逢贼三千余众，常之见贼徒争下马著甲，遂领二百余骑，身当先锋直冲，贼遂弃甲而散。俄顷，贼众大至。及日将暮，常之令伐木，营中燃火如烽燧，时东南忽有大风起，贼疑有救兵相应，遂狼狈夜遁。以功进封燕国公。”²⁹⁾此也证明了黑齿常之非比寻常的军事才能。

少数民族将领不仅在安辑旧地移民、绥靖边叛等事务中发挥了不可替代的作用，随着他们在唐日久，还逐渐参与到中原王朝内部的政治活动中来。如黑齿常之曾参与平定李敬业的叛乱活动。光宅元年（684年）九月丁丑，李敬业等人以匡复庐陵王为号召发动扬州兵变。黑齿常之墓志文云：“徐敬业，逆贼也，又不量其力。南静淮海，北扫旄头，并有力焉，故威声大振。”³⁰⁾“南静淮海”即指其参与讨伐李敬业的叛乱事件。是年十一月“以左鹰扬大将军黑齿常之为江南道大总管，讨敬业”³¹⁾的历史记载可与志文相互印证。此

24) (宋) 欧阳修、宋祁：《新唐书》卷一一〇，《诸夷蕃将列传》，北京：中华书局，1975年，第4121页。

25) 《大周故壮武将军行左豹韬卫郎将赠左玉钤卫将军高公（慈）墓志铭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78页。

26) 《大周故左武威卫大将军检校左羽林军赠左玉钤卫大将军燕国公黑齿府君（常之）墓志文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52页。

27) (宋) 欧阳修、宋祁：《新唐书》卷一一〇，《诸夷蕃将列传》，北京：中华书局，1975年，第4121页。

28) 《大周故左武威卫大将军检校左羽林军赠左玉钤卫大将军燕国公黑齿府君（常之）墓志文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52页。

29) (后晋) 刘昫：《旧唐书》卷一〇九，《列传第五十九》，北京：中华书局，1975年，第3295页。

30) 《大周故左武威卫大将军检校左羽林军赠左玉钤卫大将军燕国公黑齿府君（常之）墓志文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52页。

外，据《南单德墓志》记载，故饶阳郡王、高丽移民南单德，虽非王室贵胄，但不仅在讨伐契丹和奚的离乱中立下战功，而且南氏在安史之乱中“常怀本朝”“领众归降”，最终得以蒙授“开府仪同三司、左金吾卫大将军”这样的高级官阶，也可看出唐廷对于蕃地将领“每思报主，愿竭恳诚”³²⁾的表彰。

武则天时期流寓唐王朝的高丽、百济人在维护武周政权的政治稳定方面也做出了突出贡献，突出的例子是高丽、百济人积极参与天枢的建造事件。武则天为扩大武周政权的影响，在神都（洛阳）皇城端门外建造天枢。出土墓志文载天授二年（691年）二月，泉献诚“奉敕充检校天枢子来使，兼于玄武北门押运大仪铜等事”³³⁾。参与天枢建造反映了泉氏家族在当时仍然具有极高的政治地位。但因酷吏来俊臣“秉弄刑狱，恃摇威恃，乃密于公处求金帛宝物，公悉以贿交，杜而不许”³⁴⁾，泉献诚最终被诬以谋反罪处死。此外，入唐高丽籍将领高足西也参与了天枢的建造。高足西墓志中有大段描述天枢形状、特征的文字，约占其墓志铭文总字数的7.1%³⁵⁾。天枢建造完成后，高足西被封为“高丽蕃长，渔阳郡开国公，食邑二千户”³⁶⁾。并且高足西之子名为“帝臣”，也表明其家族对唐廷的不贰忠心。入唐高丽人参与天枢建造，不仅是基于武则天借重蕃望彰显武周盛世的政治用意，而且也表明入唐高丽、百济人经过二十余年的中国生活，已经适应了唐朝的政治生存环境，因此才能够参与到武则天“以周代唐”的政治活动中去。

流寓唐地的高丽、百济人甚至还参与到唐王朝的宫廷政变中去。根据唐处士弘农杨坦所撰《李怀墓志》可知李怀家族原为中原王朝河北赵郡赞皇李氏的一脉，因“晋氏东伐，随军桑沼”³⁷⁾而寓居辽东。唐太宗亲征高丽时，太宗“访晋尚书令李公（指李怀的十世祖李胤）之后，金曰末孙敬在。帝许大用，尽室公行，爰至长安”³⁸⁾，可知李怀为已经高丽化的汉人。据李怀墓志文载，在唐玄宗平定韦氏之乱中，李怀“告难皇邸，剪除无遗，国祚中兴，实赖先觉”。因其突出的贡献，平乱之后赐拜李怀“游击将军行右卫扶风郡积善府左果毅，仍留长上”³⁹⁾。

31) (宋)司马光：《资治通鉴》卷二〇三，《唐纪十九·则天后光宅元年》，北京：中华书局，1956年，第6429页。

32) 《大唐故饶阳郡王南公（单德）墓志铭》，《西安碑林博物馆新藏墓志续编》，西安：陕西师范大学出版社，2014年，第380-382页。

33) 《大周故左卫大将军右羽林卫上下柱国下国公赠右羽林卫大将军泉君（献诚）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985页。

34) 《大周故左卫大将军右羽林卫上下柱国下国公赠右羽林卫大将军泉君（献诚）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985页。

35) 拜根兴：《高句丽移民高足西墓志铭考释》，《碑林集刊》，2003年第9期，第33页。

36) 《大周故镇军大将军高君（足西）墓志铭并序》，《洛阳新获墓志》，北京：文物出版社，1996年，第40页。

37) 《大唐故云麾将军行左龙武军翊府中郎将赵郡李公（怀）墓志铭并序》，《千唐志斋藏志》（下），北京：文物出版社，1989年，第821页。

38) 《大唐故云麾将军行左龙武军翊府中郎将赵郡李公（怀）墓志铭并序》，《千唐志斋藏志》（下），北京：文物出版社，1989年，第821页。

39) 《大唐故云麾将军行左龙武军翊府中郎将赵郡李公（怀）墓志铭并序》，《千唐志斋藏志》（下），北京：文物出版社，1989年，第821页。

此外，高丽、百济籍将领在作为蕃将参与唐王朝内外军事、政治事务的过程中，职位的授受、选调等也体现出与汉人将领的极大的一致性。如百济移民祢素士便与众多唐代官员子弟一样，以恩荫入官，且因其父职而迁转迅速。据《祢素士墓志》记载，祢素士之父祢寔进“入朝为归德将军、东明州刺史、左威卫大将军”，祢素士“以父资入侍”“年十五，授游击将军、长上”。长安三年（703年），任清夷军副使，寻加“来远郡公”（正二品），为承袭其父祢寔进“来远县开国子”的爵位。神龙元年（705年），祢素士被授予“左武卫将军”⁴⁰⁾，列秩三品，唐代被授予此勋爵的还有百济籍大将黑齿常之等，也可以看出祢氏一族在百济亦绝非等闲。

通过对入唐高丽、百济人的政绩及社会地位的分析，可以看出入唐高丽、百济将领的职守基本上与汉族将领无异，共同肩负着内讨携离、外抗强蕃的重任。同时，现已发现的高丽、百济移民墓志多为原蕃国的王室和贵族成员，在蕃国遗民中仍有强大的社会影响力，唐王朝还在“以夷制夷”的指导思想下对其灵活任用调遣，使其绥抚旧地移民、征讨边叛，而高丽、百济籍将领的“勇决习战”⁴¹⁾与对唐政权的忠顺也是其得以重用的重要原因。《新唐书·诸夷蕃将列传》称“夷狄性悖固，其能知义所在者，鸷挺不可迁”，认为蕃将“皆一其志，无有顾望，用能功绩光明，为天子倚信”⁴²⁾，入唐高丽、百济将领也正是因其“忠孝兼极，至性高于二连；义勇俱申，遗烈存于九死”⁴³⁾，从而得到唐王朝的倚重。而唐王朝在任用蕃将上不拘出身、委之以“心普之任”⁴⁴⁾的纳异气魄，也是蕃将得以“无有顾望”的重要原因，这些都为唐王朝“四海宁一”⁴⁵⁾盛世局面的出现奠定了坚实的基础。此外，唐朝初期，入唐高丽、百济将领所立功勋多是在军事征伐方面，但在高宗朝之后，尤其是武周时期至玄宗朝，高丽、百济人从单纯的率军征讨逐渐转变为参与唐王朝的政治博弈，甚至还参与到重要的宫廷政变中，这也体现了高丽、百济人在唐王朝政局变化中的角色转变。

2. 入唐高丽、百济人的文教和精神生活状况

朝鲜半岛因地缘优势，自古以来深受汉文化的影响，素有浓厚的文教氛围。《旧唐书》载，高丽人“俗爱书籍，至于衡门厮养之家，各于街衢造大屋，谓之庑堂。子弟未婚之前，昼夜于此读书习射。其书有《五经》及《史记》《汉书》、范曄《后汉书》《三国志》、孙盛《晋春秋》《玉篇》《字统》《字林》，又有《文选》，尤爱重之”⁴⁶⁾；百

40) 《祢素士墓志》

41) (宋)司马光：《资治通鉴》卷二一六，《唐纪三十二·玄宗天宝六年》，北京：中华书局，1956年，第6889页。

42) (宋)欧阳修、宋祁：《新唐书》卷一一〇，《诸夷蕃将列传赞曰》，北京：中华书局，1975年，第4130页。

43) 《大周故壮武将军行左豹韬卫郎将赠左玉钤卫将军高公（慈）墓志铭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78页

44) 马驰：《唐代蕃将》，西安：三秦出版社，1990年，第6页。

45) (宋)欧阳修、宋祁：《新唐书》卷二二一上，《西域列传》，北京：中华书局，1975年，第6231页。

济国“其书籍有五经、子、史，又表疏并依中华之法”⁴⁷⁾，且“俗尚骑射，读书史”⁴⁸⁾。入唐高丽、百济人也表现出较为普遍的向学倾向，其中一部分人汉学造诣颇深。之前学界对高丽、百济人的研究多集中在军功方面，有关其文教和精神生活方面鲜有涉及，而从出土墓志资料中却可窥见高丽、百济人修身读书以及入唐后其精神生活方面的蛛丝马迹。

据入唐高丽、百济人墓志文可以看出，其贵族从小便接受汉学教育，且在其成长过程中注重文武兼修。如泉男产“年始志学”⁴⁹⁾；黑齿常之“年甫小学，即读《春秋左氏传》及班马两史，叹曰：‘丘明耻之，丘亦耻之，诚吾师也，过此何足多哉？’”⁵⁰⁾据此可推知黑齿常之家族深受儒家文化的浸染。《泉毖墓志》中的“夫温良恭俭，人之本也；诗书传易，教之宗也”，“其有总百行之懿，禀两仪之正性，吐纳和气，佩服礼经，体仁义以立身，蕴忠贞而行己”⁵¹⁾的表述体现了高丽人崇儒尚礼的风尚。前述黑齿常之在长年征战沙场的环境下仍坚持“枕藉经书，有祭遵之樽俎”⁵²⁾；高钦德被赞以“文武洞达，识弘智深。文能济世，武可攻乱”⁵³⁾，其子高远望亦“礼乐特达，允文允武”⁵⁴⁾；百济太子扶余隆“雅好文词，尤玩经籍；慕贤才如不及，比声利于游尘”⁵⁵⁾，强调其文武双修、慕义轻利。可见高丽、百济人在故国时已经有很强的读书修身意识，并且这种意识在入唐移民及移民后裔中较好地继承保留下来。此外，《泉毖墓志》称泉毖“加以强学请益，休誉日新，韬铨遁甲之书，风角鸟情之术，莫不研幽洞奥，精迹探微”⁵⁶⁾，可知高丽人在读书时涉猎广泛，除了重视儒家文化，还热衷于道家学说。唐代科举繁盛，社会向学之风浓厚，“五尺童子耻不言文墨焉”⁵⁷⁾，入唐高丽、百济人浸染于这种社会风气，已经逐渐认同于儒家思想文化。《陈法子墓志》载陈法子曾祖陈春曾为百济学官“太学正”⁵⁸⁾，便为百济设有太学提供了直接证

- 46) (后晋)刘昫：《旧唐书》卷一九九上，《东夷列传·高丽》，北京：中华书局，1975年，第5320页。
- 47) (后晋)刘昫：《旧唐书》卷一九九上，《东夷列传·百济》，北京：中华书局，1975年，第5329页。
- 48) (唐)魏征等：《隋书》卷八一，《东夷列传·百济》，北京：中华书局，1973年，第1818页。
- 49) 《大周故金紫光禄大夫行营缮大匠上护军辽阳郡开国公泉君(男产)墓志铭并序》，《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411页。
- 50) 《大周故左武威卫大将军检校左羽林军赠左玉钤卫大将军燕国公黑齿府君(常之)墓志文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52页。
- 51) 《唐故宣德郎骠骑尉淄川县开国子泉君(毖)志铭》，《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506页。
- 52) 《大周故左武威卫大将军检校左羽林军赠左玉钤卫大将军燕国公黑齿府君(常之)墓志文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52页。
- 53) 《唐右卫将军高府君(钦德)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1416页。
- 54) 《唐故安东副都护高府君(远望)墓志铭并序》，《洛阳新获墓志续编》，北京：科学出版社，2008年，第410页。
- 55) 《大唐故光禄大夫行太常卿使持节熊津都督带方郡王扶余君(隆)墓志》，《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373页。
- 56) 《唐故宣德郎骠骑尉淄川县开国子泉君(毖)志铭》，《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506页。
- 57) (唐)杜佑：《通典》卷一五，《选举三·历代制下》，北京：中华书局，1988年，第358页。
- 58) 《武周明威将军守右卫龙亭府折冲都尉陈法子墓志》，《大唐西市博物馆藏墓志》，北京：北京大学出版社，第122页。

据。此外，据发现的墓志资料，有关读书生活等方面的记载几乎都出现于高丽、百济贵族的墓志中，而数量庞大的高丽、百济平民的文教情况则无从考证，这还有待于新的考古资料的发现与公布。

除了文教情况，墓志资料还为我们探究入唐高丽、百济人的精神世界提供了宝贵资料。归附唐廷的高丽、百济人士尤其是第一代移民，因故国不再、流寓异乡，思怀故土之情难以言表。如《泉男产墓志》记载“故国途遥，精车何日”，“辽阳何许，故国伤心；钟仪永恨，庄舄悲吟”⁵⁹⁾，反映了泉男产对故国的深切思念。《泉男产墓志》中“晨趋北阙，间簪笔于夔龙；夕宿南邻，杂笙歌于近韵”⁶⁰⁾的描写，表现了泉男产归降唐廷后独善其身、不愿干预政事的散淡心态。《高钦德墓志》称高钦德“乃羲黄上人”⁶¹⁾，“羲黄上人”又称“羲皇上人”，指伏羲氏以前生活闲适恬淡的人，暗指高钦德秉性醇厚、向往隐逸生活的心态。《陈法子墓志》中志文作者在铺叙世系时曾称百济为“本邦”，但在铭辞中称“辽海为乡”的同时又以归唐高丽化汉人的态度感叹“久客无归，异邦有寓”⁶²⁾，这种前后矛盾的表述也透露出归唐高丽化汉人在入唐之初对民族身份认同的疑虑与困惑。

作为亡国遗民，在唐王朝的政治生活中，可能是出于多方面的考虑，高丽、百济人多秉持谨慎、低调的处世理念，这种心态在墓志铭文的书写中也有较隐晦的流露。

首先，墓志文表现出对志主婚配、子嗣、书撰者等情况模糊化处理的倾向。在本文所收集的37方入唐的高丽、百济人碑志中，对志主的婚配、子嗣均有交代的仅有12方，对此不着一墨的有9方。排除归唐高丽化汉人和代际不明者，明确载录婚配及子嗣讯息的均为入唐高丽、百济的第三、第四代移民（见表1）。除了第一、第二代移民在故国可能已经婚配或出于某种原因不予书写外，也不排除志主及其后裔刻意隐瞒家族成员的可能。虽然唐王朝（包括武周时期）对入唐高丽、百济人优赐甚厚，但汉人朝臣对于高丽、百济人的警惕一直没有消除，高丽王高藏谋叛的阴影尚存，这一点也显然被高丽、百济人士所察觉。如武周天授年间，“则天尝内出金银宝物，令宰相及南北衙文武官内择善射者五人共赌之”，泉献诚虽被推为第一，但他辞让不受，奏曰：“陛下令简能射者五人，所得者多非汉官。臣恐自此已后，无汉官工射之名，伏望停寝此射”，武后“嘉而从之”⁶³⁾。可知高丽将领骁勇显贵如泉献诚者，仍须谨慎处世。泉献诚后来被诬以谋反罪处死、百济将领黑齿常之被酷吏周兴诬陷谋反而自缢身亡⁶⁴⁾等实例，说明武周时期酷吏的严苛与对谋叛之罪的警觉，都可能使高丽、百济人出于安全的考虑尽量隐晦自己的家族状况。在志

59) 《大周故金紫光禄大夫行营缮大匠上护军辽阳郡开国公泉君（男产）墓志铭并序》，《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411页。

60) 《大周故金紫光禄大夫行营缮大匠上护军辽阳郡开国公泉君（男产）墓志铭并序》，《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411页。

61) 《唐右卫将军高府君（钦德）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1416页。

62) 《武周明威将军守右卫龙亭府折冲都尉陈法子墓志》，《大唐西市博物馆藏墓志》，北京：北京大学出版社，第122页。

63) （后晋）刘昫：《旧唐书》卷一九九上，《东夷列传·高丽》，北京：中华书局，1975年，第5328页；（宋）欧阳修、宋祁：《新唐书》卷一一〇，《诸夷蕃将列传》，北京：中华书局，1975年，第4124页。

64) （宋）欧阳修、宋祁：《新唐书》卷一一〇，《诸夷蕃将列传》，北京：中华书局，1975年，第4123页。

文中提及子嗣的如投诚唐朝的高丽移民高足酉，也仅仅以“嗣子帝臣”一笔带过，对妻室及子嗣的仕宦等只字不提，行文亦十分隐讳，可能也是出于安全方面的考虑。

表1 入唐高丽、百济移民墓志基本情况统计表

祖籍	代次	志主	志文所述籍贯	婚配	子嗣	墓志出土地	资料来源
高丽	第一代	高乙德	卞国东部人	——	——	西安杜陵附近	《郑州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6年第01期，第143-144页
		高性文	辽东朝鲜人	——	左玉铃卫大将军高慈、“有子右玉铃卫大将军鞠仁”	洛阳北邙山	《千唐志斋藏志》（上册），第397页
		高足酉	辽东平壤人	——	“嗣子帝臣”	伊川县平等乡楼子沟村	《洛阳新获墓志》，第40页
		泉男生	辽东平壤城人	——	“哀子卫尉寺卿献诚”	洛阳孟津县东山岭头村	《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6册），第120页
		泉男产	辽东朝鲜人	——	——	洛阳孟津县刘坡村	《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第411页
		高牟	安东人	——	——	洛阳	《唐史论丛》（第18辑），第258-259页
		高玄	辽东三韩人	——	——	河南孟津县后李村	《千唐志斋藏志》（上册），第397页
		高木卢	渤海裔人	——	“嗣子左领军卫京兆府丰闰府折冲都尉、仗内供奉、借绯长上、上柱国履生等”	陕西西安东郊郭家滩	《唐代墓志汇编续集》（下），第520页
		泉献诚	其先高勾骊国人	——	“其男武骑尉、柳城县开国男玄隐、玄逸、玄静”	洛阳孟津县东山岭头村	《唐代墓志汇编》（上），第984-985页
		高慈	朝鲜人	——	“有子崇德，奉制袭父左豹韬卫翊府郎将”	洛阳北邙山	《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第178页
	高饶苗	辽东人	——	——	西安城南	《文博》2010年第5期，第46页	
	第二代	高提昔	国内城人	丈夫泉府君	——	西安东郊龙首原	《陕西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3年第3期，第55页
	第三代	高钦德	渤海人	“夫人太原王氏、河南程氏”	“嗣子崇节”、远望	洛阳	《唐代墓志汇编》（下），第1416页
		南单德	生居平壤，长隶辽东	“夫人兰陵萧氏”	“嗣子珍贡”“夫人口女，长未初笄”	西安灞桥区红旗乡	《西安碑林博物馆新藏墓志续编》，第380-382页
高震		渤海人	“邻国夫人真定侯氏”	“嗣子朝请大夫深泽令叔秀”	洛阳	《唐代墓志汇编》（下），第1814页	
泉毖		京兆万年人	“太子詹事、太原公王暉之子婿”	——	洛阳孟津县东山岭头村	《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第506页	
第四代	高远望	先殷人	——	“嗣子岩、嵩等”	洛阳	《洛阳新获墓志续编》，第141页	
	高震女儿	渤海人	“以配唐州”	“嗣子太福、太”	洛阳市伊川	《洛阳新获墓志》，第81页	

				慈丘县长邵公陝之室焉”	初、太虚等五人	县白元乡土门村	
百济	第一代	祢军	熊津岬夷人	——	——	西安	《社会科学战线》2011年第7期, 第123页
		扶余隆	百济辰朝人	——	——	洛阳	《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 第373页
		祢寔进	百济熊川人	——	——	西安	《东北史地》2007年第2期, 第8页
		陈法子	熊津西部人	——	“嗣子神山府果毅龙英”	洛阳	《大唐西市博物馆藏墓志》, 第122页
		黑齿常之	百济人	——	“长子俊”	洛阳北邙山南麓	《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 第152页
		黑齿俊	——	——	——	洛阳北邙山南麓	《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20册), 第33页
	第二代	祢素士	楚国琅琊人	——	“子仁秀、仁徽、仁杰、仁彦、仁俊等”	西安	《唐史论丛》(第14辑), 第53页
	第三代	难元庆	其先即黄帝之宗也, 扶余之尔类焉	“夫人丹徒县君甘氏”	“男□□□”	河南鲁山县张店乡	《新中国出土墓志·河南卷》(壹)下册, 219页
祢仁秀		曾祖祢善为东汉平原处士之后	“夫人河南□千氏”	“一男两女” “其子曰适”	西安	《唐史论丛》(第14辑), 第61页	
虢王妃扶余氏		本东方之贵世	丈夫虢王李邕	“有子五人”	陕西省富平县李邕墓	《碑林集刊》2007年第00期, 第95-96页	

(注: 1.本表所述代代依据葛剑雄先生主编的《中国移民史》以出生地划分移民与移民后裔的观点; 2.目前所见入唐高丽化汉人如李他仁、李隐之、李怀、王景曜、豆善富因与纯粹的高丽人在民族认同、婚姻等方面有一定差异, 故暂不列入此表; 3.入唐高丽人高德、似先义逸、李仁德、勿部珣因代际不明, 暂不列入此表; 4.此表各代之内依照根据志文推测的志主的生年由早至晚排序)

其次, 墓志文对志主生平的曲笔与伪饰, 对涉及其归唐前的经历等情况多缄口不言, 也表现出其对自己身世谨慎低调的态度。如泉男生本为高丽权臣, 但《泉男生墓志》中并无一处提到“高丽”, 相关的地方均被“岬夷旧壤”“五部酋豪”“三韩英杰”所代替, 可以看出在高丽灭亡的十余年后, 唐朝君臣对于高丽移民的身份表述还是很谨慎的。百济灭亡后, 作为达率的黑齿常之投诚唐军, 但鉴于唐军“纵兵大掠”^[65], 黑齿常之不久又逃出唐营转而参加百济的复兴运动, 龙朔二年(662年)又复降唐营^[66]。而墓志中并未记载黑齿常之降而复叛一事, 这种曲笔可能已不仅是一般墓志对志主生平的伪饰, 而更多的应是出于政治生存的考虑。

再次, 墓志文还出现隐藏首题的特殊书写方式。百济太子扶余隆墓志首行云: “公讳隆, 字隆, 百济辰朝人也”^[67], 并没有唐代一般墓志常见的首题行。而在其铭文最末却另起一行题“大唐故光禄大夫行太常卿使持节熊津都督带方郡王扶余君墓志”, 这种书法在唐

65) (宋) 欧阳修、宋祁: 《新唐书》卷一一〇, 《诸夷蕃将列传》, 北京: 中华书局, 1975年, 第4121页。

66) (宋) 欧阳修、宋祁: 《新唐书》卷一一〇, 《诸夷蕃将列传》, 北京: 中华书局, 1975年, 第4121页。

67) 《大唐故光禄大夫行太常卿使持节熊津都督带方郡王扶余君(隆)墓志》, 《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1年, 第373页。

代墓志铭中也绝少见到。考虑到扶余隆身份为“气盖三韩，名驰两貂”^[68]的百济太子，应该不是书丹者仓促动笔或标新立异所至，是否是刻意对志主身份有所隐讳就不得而知了。

3、唐代高丽、百济平民和下层民众的生活实况

墓志所见入唐的高丽、百济移民多是埋葬于两京及附近地区的贵族显宦，而据史料可知，跟随高丽、百济王族及将酋入附唐朝的还有数量众多的一般民众。现今出土的虽几乎都是高丽、百济贵族的墓志，但这些贵族的墓志铭文中也透露了些微三韩平民及下层民众的生活情况，为我们全面认知入唐高丽、百济人的生活状况提供了宝贵的资料。在此将高丽、百济平民和下层民众分为奴婢和普通兵士进行论述。

在唐灭百济、高丽的战争中，有大量的高丽、百济战俘被充当战利品赏赐给唐将士，成为其私人奴婢。《旧唐书》记载唐军在征伐高丽的白崖城之战中，城主孙伐音乞降后反悔，太宗“怒其反覆，许以城中人物分赐战士”。后来白崖城再次战败降唐军时，唐将李勣反对受降，曰：“战士奋厉争先，不顾矢石者，贪虏获耳。今城垂拔，奈何更许其降，无乃辜将士之心乎？”^[69]可以看出当时作为私人奴婢的高丽战俘已经成为唐军将士酬劳的重要组成部分。《旧唐书·薛仁贵传》记载，太宗亲征辽东时，薛仁贵骁勇奋战，因军功而获擢官并“赐生口十人”^[70]，此处所赐“生口”应为朝鲜半岛遗民；《新唐书·元结传》中元结的祖父元仁基曾随太宗征伐高丽，“以功赐宜君（根据文意此处应指元仁基）田二十顷，辽口并马牝牡各五十，拜宁塞令（从七品下职事官），袭常山公”^[71]。这里的“辽口”指俘获的高丽人口。此例中从七品下的官吏便可获五十名的高丽奴婢，可以推知其他将领可能获得的高丽奴婢数量更多。

除了没为私人奴婢，小部分战俘还被赦免为平民。如太宗在攻陷高丽辽东城时，因“其中抗拒王师，应没为奴婢者一万四千人”，但太宗“愍其父母妻子一朝分散，令有司准其直，以布帛赎之，赦为百姓”^[72]。但这种现象并不是经常发生。因为吕思勉曾言“俘虏没为奴婢，历代亦视为当然……则辽东之俘虏，获以赎免者，乃一时之特典耳”^[73]。

部分高丽、百济战俘还被沦为官奴婢或官户，听任唐朝各级机构差遣。如《旧唐书·王毛仲传》载：“太宗贞观中，择官户蕃口中少年骁勇者百人，每出游猎，令持弓矢于御马前射生……谓之‘百骑’。至则天时，渐加其人，谓之‘千骑’，分隶左右羽林营。孝和（注：孝和为中宗皇帝死后追封的尊号，此处应指中宗执政的公元705至709年）谓之‘万骑’，亦置使以领之。……及玄宗为皇太子监国，因奏改左右万骑左右营为龙武军，与左右

68) 《大唐故光禄大夫行太常卿使持节熊津都督带方郡王扶余君（隆）墓志》，《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373页。

69) (后晋)刘昫：《旧唐书》卷一九九上，《东夷列传·高丽》，北京：中华书局，1975年，第5324页。

70) 后晋)刘昫：《旧唐书》卷八三，《列传第三十三》，北京：中华书局，1975年，第2780页。

71) (宋)欧阳修、宋祁：《新唐书》卷一四三，《列传第六十八》，北京：中华书局，1975年，第4681页。

72) (后晋)刘昫：《旧唐书》卷一九九上，《东夷列传·高丽》，北京：中华书局，1975年，第5326页。

73) 吕思勉：《隋唐五代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4年，第803页。

羽林卫北门四军。”⁷⁴⁾可知唐廷的禁军兵员不少是从官户蕃口中挑选出来的，这其中应当包含部分高丽、百济人。且王毛仲“本高丽人”，“父游击将军职事求娄，犯事没官，生毛仲，因隶于玄宗”⁷⁵⁾，王毛仲即出身于官奴户家庭。官奴户中的蕃人因长于骑射，许多被选入北衙兵、龙武军等中央禁军系统。《高德墓志》称高德“府君祖宗，恋恩归本，属乎仗内，侍卫紫宸”⁷⁶⁾，据此推测高德的祖父可能是在高丽灭亡前归附唐朝的，并已经被选入禁军系统；高德本人也因平定外乱有功，擢官右武卫翊府郎将、右龙武军翊府中郎将，“虽官授外府，而身奉禁营”，可知高德也长期供职于宫廷禁军之中。

除了被选入禁军，还有许多高丽、百济降户被编入地方军事系统。高玄墓志称志主高玄“以永昌元年，奉敕差令诸州简高丽兵士”⁷⁷⁾。唐代军事制度中，府兵按例要经常进行查点以便增补、淘汰。《唐六典》载：“卫士皆取六品以下子孙及白丁无职役者点充，凡三年一简点。”⁷⁸⁾《新唐书·兵志》载：“玄宗开元六年（718年），始诏折冲府兵每六岁一简。”⁷⁹⁾可见“简”是当时核查士兵的词语，因此《高玄墓志》中“简”高丽兵士的记载一方面说明武后时期也有“简”各州兵士的传统，另一方面也表明“各州的高句丽兵士可能是单独集中编队的，而且在他们中间可能保持着高句丽的语言与习惯”⁸⁰⁾。《高性文墓志》中称“性文下高丽妇女三人，固守城隍，与贼苦战，各赐衣服一具，并赆物卅段”⁸¹⁾，说明危急时刻高丽妇女也曾参与唐王朝抗击边叛的军事战斗中。

《唐律疏议》规定“奴婢同于资财”⁸²⁾，“奴婢贱人，律比畜产”⁸³⁾。高丽、百济籍奴婢及普通兵士在唐代社会地位极为低下，如唐前期汉人官员曾进言反对蕃人充入禁军，“三韩杂种，十角渠魁，勿使咫尺天颜”，应“处于交戟之外”⁸⁴⁾。唐玄宗天宝六年（747年），高丽籍将领高仙芝因越级上报战况而被顶头上司夫蒙灵警怒骂为忘恩负义的“瞰狗肠高丽奴、瞰狗屎高丽奴”，认为“据高丽奴此罪，合当斩”⁸⁵⁾，也印证了唐朝社会存在役使高丽人为奴婢的现象，且当时高丽奴婢的社会地位相当低下。

入唐高丽、百济平民和下层民众虽然很少见于正史记载，相关碑志史料也比较罕见，

74) (后晋)刘昫：《旧唐书》卷一〇六，《列传第五十六》，北京：中华书局，1975年，第3252页。

75) (后晋)刘昫：《旧唐书》卷一〇六，《列传第五十六》，北京：中华书局，1975年，第3252页。

76) 《唐右龙武军翊府中郎高府君（德）墓志铭并序》，《千唐志斋藏志》（下册），北京：文物出版社，1984年，第798页。

77) 《大周故冠军大将军左豹韬卫翊府中郎高府君（玄）墓志铭并序》，《千唐志斋藏志》（上册），北京：文物出版社，1984年，第397页。

78) (唐)李林甫等撰，陈仲夫点校：《唐六典》卷五，《尚书兵部·兵部尚书》，中华书局，1992年，第156页。

79) (宋)欧阳修、宋祁：《新唐书》卷五〇，《志第四十》，北京：中华书局，1975年，第1326页。

80) 赵超：《唐代墓志中所见的高句丽与百济人士》，《揖芬集——张政烺先生九十年华诞纪念文集》，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2年，第489页。

81) 《大周故镇军大将军行左金吾卫大将军赠幽州都督上柱国柳州郡开国公公（性文）墓志铭并序》，《千唐志斋藏志》（上册），北京：文物出版社，1984年，第397页。

82) (唐)长孙无忌等：《唐律疏议》卷四《名例律》，北京：中华书局，1983年，第88页。

83) (唐)长孙无忌等：《唐律疏议》卷六《名例律》，北京：中华书局，1983年，第132页。

84) (唐)薛元超：《谏蕃官仗内射生疏》，《全唐文》卷一五九，北京：中华书局，1983年，第1830页。

85) (后晋)刘昫：《旧唐书》卷一〇四，《列传第五十四》，北京：中华书局，1975年，第3205页。

但却是入唐高丽、百济人数最多的群体。他们以战俘或商人等身份移居中国，极大地丰富了唐王朝的人口构成和物质文化生活。唐代高丽、百济奴婢的地位低下，而收入中央禁军系统的高丽、百济人中的一部分凭借其自身优秀的军事素养迅速脱颖而出成为唐廷的重要军事将领。在唐朝鲜半岛民众逐渐融入唐人共同体的过程中，朝鲜半岛的风俗习尚也极大地丰富了唐人的社会生活。如李白诗《高句丽》“金花折风帽，白马小迟回。翩翩舞广袖，似鸟海东来”^[86]，生动描绘了高丽舞者的优美轻盈的舞姿^[87]，都是朝鲜半岛移民及其文化影响、丰富汉唐文化的真实例证。

4、入唐高丽、百济人的婚姻交游

归附唐朝的高丽、百济人在婚姻与交游上也与汉族士人建立起稳固的联系。限于有限的史传资料，以往对高丽、百济人在唐的婚姻与交游较少涉及，而新发现的碑志资料为我们的研究提供了新的线索和视角。

从表1可以看出，入唐第一代高丽、百济移民在碑志中对其婚配情况绝少提及，目前所见有婚姻讯息的碑志志主多为入唐高丽、百济移民第二代及其后嗣。本文所收集到的37方碑志中，高丽人高提昔之夫泉府君为本族人，百济人勿部珣之妻系本族人黑齿常之女^[88]，另外称任秀夫人“河南口干氏”或为鲜卑族人后裔^[89]，难元庆妻丹徒县君甘氏族属尚无法断定。除此之外，志主的配偶均为汉人。从中亦可窥见，归唐高丽、百济移民在第三代以后，虽然仍存在本族内部婚配，但与汉人以及归唐其他族裔间通婚已经逐渐成为主流，且相较于百济移民，高丽移民后裔似乎更易接受与汉人缔结婚姻的婚配观念。

唐代士人婚配崇尚门第。受此影响，众多的入唐蕃酋多选择与汉人望族通婚，以期以姻亲血缘为纽带，跻身于中原汉人士族之林。如《泉晷墓志》称泉晷为“太子詹事、太原公王暉之子婿”^[90]。太原王氏为唐太宗编订《氏族志》时所列“天下五大姓”之一，在门第观念深重的唐前期，当时的太原望族王氏将女儿嫁给泉晷表明泉氏家族在当时享有较高的社会地位。但随着寓居中国日久及代际繁衍，高丽、百济人在日渐汉化的同时，一些家族也可能逐渐没落。据《高震墓志》载，高震夫人为“郟国夫人真定侯氏”^[91]。唐代的真定为今天的河北正定，真定侯氏一族应为汉人，在名望上不及其他唐代望族。高震虽贵为高丽王室后裔，但其出生并在中国生活数十年之久，其心理上高丽族的民族认同感日渐淡薄。高震女儿《高氏墓志》载其“父震，定州别驾”^[92]，可知高震生前所任最高官职为

86) (唐)李白:《高句丽》,《全唐诗》第三册,北京:中华书局,2013年,第1711页。

87) (宋)郭茂倩:《乐府诗集》卷七三,北京:中华书局,1979年,第1095页。

88) 《大唐口部将军功德记》,《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9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97页。

89) 拜根兴

90) 《唐故宣德郎骁骑尉淄川县开国子泉君(晷)志铭》,《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506页。

91) 《唐开府仪同三司工部尚书特进右金吾卫大将军安东都护郟国公上柱国高公(震)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1814页。

正五品职事官，而高震之子高叔秀所任“朝请大夫深泽令”⁹³⁾的官品也仅是从七品上，可知高氏家族至高震一代已不复享有王爵名号。高震女儿《高氏墓志》记载高氏所嫁“唐州慈丘县长邵公陝”⁹⁴⁾，据《新唐书·地理志》载，唐州“本昌州舂陵郡，治枣阳。武德五年（622年）以唐城山更名唐州，九年徙治比阳。天宝元年（742年）更郡名”。慈丘是其中的上县⁹⁵⁾，高震女婿所任慈丘县长为从六品上职事官⁹⁶⁾。高震所娶为一般汉姓女子，其女儿也嫁与品秩一般的汉族官吏，这一方面说明高丽贵族在第三、四代时与与汉族通婚已不挑门第高低，另一方面也表明此时高震一族已不再享有王室待遇。此外，《高钦德墓志》所记高钦德“夫人太原王氏、河南程氏”⁹⁷⁾，证明作为入唐高丽的第三代移民，高钦德的两任夫人均为汉人，表明其家族已深深融入汉人社会之中。

除了婚姻关系，入唐高丽、百济人在官场生活中也与汉族官员有密切的交往，这一点从墓志的撰写中可以窥其一二。古代墓志的撰写可分为三种情况，“一为制度性撰文，一为亲人自撰，一为非亲请托撰文”⁹⁸⁾。唐代的制度性撰文指有专门的部门、人物如著作郎负责为高品级的官员或贵族撰写墓志，如《新唐书·百官志》云：“著作郎掌撰碑志、祝文、祭文，与佐郎分判局事”⁹⁹⁾。《扶余隆墓志》云“司存有职，敢作铭云”¹⁰⁰⁾，说明因墓主的特殊身份，志石的撰写人可能是唐王朝专差的著作郎。而“非亲请托撰文”即请托志主的朋友、同僚、故吏、门客等代为书撰。在本文所收集的37方高丽、百济人墓志中明确载有撰书人的有10方，其中《泉毖墓志》为其父泉玄隐所撰，《高钦德墓志》为其孙婿徐察所撰，其他撰写人从姓氏推测应为志主家族之外的汉族人士。这些撰书人按官职高低可分为三类：第一类为宰辅和著名的书法家。《高性文墓志》由韦承庆所撰，《韦承庆墓志》载韦承庆为“京兆杜陵人”¹⁰¹⁾，为韦思谦之子、韦嗣立之长兄，父子三人均为宰相，皆于史有传。韦承庆文辞盖世，《旧唐书·韦承庆传》称“府中文翰，皆出于承庆，辞藻之美，擅于一时”¹⁰²⁾；《全唐书》载其诗七首，《全唐文》存其文七篇。《旧唐书》称韦承庆于长寿二年（693年）“累迁凤阁舍人，兼掌天官选事”¹⁰³⁾，与《高性文墓志》撰书者系

92) 《宣武郎唐守唐州慈丘县令邵公故夫人高氏墓志并序》，《洛阳新获墓志》，北京：文物出版社，1996年，第81页。

93) 《唐开府仪同三司工部尚书特进右金吾卫大将军安东都护郟国公上柱国高公（震）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1814页。

94) 《宣武郎唐守唐州慈丘县令邵公故夫人高氏墓志并序》，《洛阳新获墓志》，北京：文物出版社，1996年，第81页。

95) (宋) 欧阳修、宋祁：《新唐书》卷四〇，《地理志四》，北京：中华书局，1975年，第1031页。

96) (后晋) 刘昫：《旧唐书》卷四四，《职官志三》，北京：中华书局，1975年，第1921页。

97) 《唐右武卫将军高府君（钦德）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1416页。

98) 江波：《唐代墓志撰书人及相关文化问题研究》，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第60页。

99) (宋) 欧阳修、宋祁：《新唐书》卷四七，《百官志二》，北京：中华书局，1975年，第1211页。

100) 《大唐故光禄大夫行太常卿使持节熊津都督带方郡王扶余君（隆）墓志》，《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373页。

101) 《大唐故黄门侍郎兼修国史赠吏部尚书上柱国扶阳县开国子韦府君（承庆）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续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年，第422页。

102) (后晋) 刘昫：《旧唐书》卷八八，《列传三十八》，北京：中华书局，1975年，第2863页。

衔相契合，可知高性文与当朝汉臣宰辅多有交往。《泉男生墓志》书丹者是朝议大夫行司勋郎中上骑都尉渤海县开国男欧阳通，欧阳通为初唐书法四杰之一欧阳询之子，父子齐名。《旧唐书·欧阳询传》载欧阳询“初学王羲之书，后更渐变其体，笔力险劲，为一时之绝。人得其尺牍文字，咸以为楷范焉。高句丽甚重其书，尝遣使求之”¹⁰⁴⁾。《泉男生墓志》为欧阳通书丹表明泉氏在唐廷地位颇崇，从这一方面也可以看出泉氏家族与汉族官员过往甚密。第二类为当朝官员。《泉献诚墓志》为朝议大夫行文昌膳部员外郎护军梁惟忠所撰，梁惟忠应与泉献诚同朝为官者。《高震墓志》为高震家人以“文词见托”于献书待制杨慤¹⁰⁵⁾，“献书”一职不见于唐代正史，仅于宋人笔记《云麓漫钞》中见有唐太宗时期“拜(萧)翼献书侯，赐宅一区、钱币有差”¹⁰⁶⁾的记载，品级应不高。《高性文墓志》书者刘从一为前右监门长上弘农，墓志立于圣历三年(700年)，故此刘从一为一般官吏而非史籍所载德宗朝宰相刘从一。《南单德墓志》的撰者为薛仁贵曾孙行秘书省著作佐郎薛夔，南单德祖父南狄在薛仁贵攻破平壤城后归附唐朝，南单德曾在薛夔祖父汾阴公的率领下对抗两蕃，南氏与薛氏家族可谓交往颇繁。《虢王妃扶余氏墓志》的撰者为朝议郎、守中书舍人梁涉，系正六品上官员。第三类为平民。《高性文墓志》的镌刻者宜州美原县人姚处环、常智琮、刘郎仁的身份似为一般平民。一方墓志一般由一位石匠刻字镌花，也偶有二人分刻，高性文墓志由三人同镌则较为罕见，可以看出高性文身份之显贵。《李怀墓志》为处士弘农杨坦所撰，杨坦应为当时习于文辞但未入仕者，可见唐朝高丽、百济人士日常与当地的汉族平民也有往来。此外，百济将领黑齿常之的墓志虽未载撰书人，但序文末云“余尝在军，得参义府，感其道，颂其功，乃为铭曰”¹⁰⁷⁾，可知撰者曾跟随黑齿常之出征并得其奖拔、熟悉黑齿常之之人事迹的行军长史之属，墓志铭文感情真挚深切，可见与黑齿常之的交往之密。

通过以上分析可知，入唐高丽、百济人在与汉族人士长期的相处交往过程中，与不同阶层的汉人产生了密切联系。高丽、百济人不仅通过缔结婚姻与汉族俊彦建立密切关系，而且在同朝为官时，还与上至宰辅、著名书法家，下至一般官吏乃至平民都有交往，建立起较全面的社会关系网络。这不仅体现了高丽、百济人融入汉人社会、渴望得到汉人社会认可的努力，而且也反映了唐朝社会对高丽、百济人的认可与接纳，体现了唐王朝极大的包容性。

103) (后晋)刘昫：《旧唐书》卷八八，《列传三十八》，北京：中华书局，1975年，第2864页。

104) (后晋)刘昫：《旧唐书》卷一八九，《列传第一百三十九上》，北京：中华书局，1975年，第4947页。

105) 《唐开府仪同三司工部尚书特进右金吾卫大将军安东都护郑国公上柱国高公(震)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1814页。

106) (宋)赵彦卫：《云麓漫钞》卷六，北京：中华书局，1996年，第105页。

107) 《大周故左武威卫大将军检校左羽林军赠左玉钤卫大将军燕国公黑齿府君(常之)墓志文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52页。

5. 入唐高丽、百济人的汉化倾向

由于朝鲜半岛与中国大陆紧密相连、唇齿相依，自古以来交往甚繁，高丽、百济深受中原汉文化的濡染。入唐高丽、百济人经过几代人对汉文化的耳濡目染，已经逐渐融入唐人社会，表现出对汉族文化的高度认同。除了墓志中所反映的高丽、百济人与汉人望族的通婚与交游情况外，高丽、百济移民及其后裔对自己籍贯出身的认知、家族墓葬的埋葬方式和归葬习俗以及儒家观念为主导的道德评价标准等方面也体现了其融入唐朝社会的趋势。

1. 籍贯认知

从表1中对墓志所见入唐高丽、百济人籍贯的表述可以看出，从高丽、百济第一代、第二代移民到第三、第四代移民明显呈现出民族身份认知逐渐消亡、对唐王朝的归属意识逐渐增强的趋势。入唐第一代、第二代移民中，其对自己身份的表述多带有“辽东”“平壤”“朝鲜”“高句骊”“三韩”等明确标明族属的字眼，表明其对自己的种族出自还有清晰的认识和坚守，而到第三代、第四代移民的时候，族属身份逐渐被模糊化，并呈现出向中原王朝攀附的趋势，如“渤海人”甚至“京兆万年人”的表述。如果不仔细考究世系，已经很难辨别其族属身份。以泉氏家族为例，作为第一代入唐移民的《泉男生墓志》记其籍贯为“辽东平壤城人”，《泉男产墓志》记其为“辽东朝鲜人”，《泉献诚墓志》记为“其先高句骊国人”，三者的表述都与辽东和朝鲜半岛密切相关，表明第一代移民在民族意识和血统上还具有明确的高丽痕迹。至泉男生之曾孙《泉愷墓志》时，直接称自己为“京兆万年人”，而对于曾祖泉男生、祖父泉献诚、父亲泉玄隐皆称其在唐为官的官职，并未涉及到其家族迁徙及其在高丽的历史。在叙述姻亲关系时，以仪凤二年（677年）唐朝赐予高藏的头衔“开府仪同三司、朝鲜王”称高藏，而不是以“高句丽国王”称之，表明泉氏家族到泉愷一代时，已不愿再提及与高句丽的关系，对其出自朝鲜半岛的身份认知越来越模糊化，说明朝鲜半岛的旧日权贵已经在主动、刻意放弃其原有的种族出身，转而攀附中原正统，反映了其融入唐人共同体的心理历程。

除了在籍贯上主动放弃本民族的身份外，一些在唐高丽、百济显贵还在墓志书写中努力与中原汉人血统扯上关系。如高句丽末代王高藏之孙高震墓志文对其身份表述为“公讳震，字某，渤海人”，此处的“渤海”意指东汉时发轫于渤海郡的中原世家大族高氏郡望。据《新唐书·宰相世系一下》记载：“高氏出自姜姓，齐太公六世孙文公赤，生公子高，孙奚，为齐上卿，与管仲合诸侯有功。……十世孙洪，后汉渤海太守。因居渤海蓆县。”¹⁰⁸⁾渤海高氏盖由此而来。籍贯为朝鲜半岛的高震标榜自己为“渤海人”显然是在种族出身上努力向中原王朝大姓高氏攀附。同时高震墓志又称“公乃扶余贵种，辰韩令族”，“朝鲜贵族，弈叶称王”¹⁰⁹⁾，仍然表露出对高句丽贵族出身的认可，由此可知墓志文虽然带有回避

108) (宋) 欧阳修、宋祁：《新唐书》卷七一下，《宰相世系一下》，北京：中华书局，1975年，第2378页。

其高句丽出身的意味，但也透露出高震自我身份认同的矛盾心理。而至高震女儿高氏墓志文则直接放弃高句丽人身份，称“夫人姓高氏，渤海人也，齐之诸裔也”¹¹⁰⁾，对其种族出自已刻意淡化。此外，《高钦德墓志》作者称高钦德为“渤海人”¹¹¹⁾，而高钦德之子高远望的墓志文中称高远望“先殷人也”¹¹²⁾，这在其父《高钦德墓志》并未出现，呈现出明显的攀附华汉的色彩。又如百济人祢寔进、祢素士、祢仁秀祖孙三代，入唐第一代祢寔进墓志文称其为“百济熊川人”¹¹³⁾，而到第二代祢素士时其墓志称“楚国琅琊人”¹¹⁴⁾，至第三代祢仁秀时其墓志甚至称“曾祖祢善为东汉平原处士之后”¹¹⁵⁾，体现出入唐百济移民逐渐舍弃自己的种族出自、竭力溯源华汉的心理变化。

入唐高丽、百济人在籍贯出身的表述上体现出模糊自身族属、附会中原大姓的微妙心态，正是其自身民族性消退的外化表现。这种对籍贯认知的变化大致出于两方面的原因：一方面是由于与汉族通婚而产生种族血统上的淡化，由此对自己的族属认知也趋于淡漠；另一方面是入唐高丽、百济人的居住和活动范围多在唐朝内地，许多高丽、百济人在两京等地区都有固定的居所，如《泉毖墓志》载泉毖“终于京兆府兴宁里之私第”¹¹⁶⁾、《高德墓志》称高德“终于东京道政里之私第”¹¹⁷⁾，黑齿常之追随扶余隆归附唐廷后便著籍京师，“隶为万年县人也”¹¹⁸⁾。《旧唐书·杨再思传》载“郑州原武人”杨再思因“面似高丽”而被同僚取笑，杨再思不以为忤，反而“请剪纸自贴于巾……满座嗤笑”¹¹⁹⁾，可见当时中原地区的确居住有大量高丽、百济人，他们的习俗风尚已经融入汉人社会。

此外，高丽、百济人任职期间也频繁来往于两京等地，其生活起居、婚姻、任官等情况与汉族人士及无差异，而且出于其他种种考虑，高丽、百济人自身可能也不愿强调其种族身份，因此其后裔已经逐渐丧失其民族性，故随着代际播迁而完全融入唐朝社会了。

值得一提的是，在对本民族的认知中，高丽、百济人墓志中也呈现出以汉人视角为中心且带有轻蔑成分的称谓。如《高震墓志》称攘除中原王朝边境的威胁为“戡剪獯虏”¹²⁰⁾

109) 《唐开府仪同三司工部尚书特进右金吾卫大将军安东都护郟国公上柱国高公（震）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1814页。

110) 《宣武郎唐守唐州慈丘县令邵公故夫人高氏墓志并序》，《洛阳新获墓志》，北京：文物出版社，1996年，第81页。

111) 《唐右武卫将军高府君（钦德）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1416页。

112) 《唐故安东副都护高府君（远望）墓志铭并序》，《洛阳新获墓志续编》，北京：科学出版社，2008年，第410页。

113) 董延寿、赵振华：《洛阳、鲁山、西安出土的唐代百济人墓志探索》，《东北史地》2007年第2期，第8页。

114) 张全民：《新出唐百济移民祢氏家族墓志考略》，《唐史论丛》第14辑，陕西师范大学出版社，第53页。

115) 张全民：《新出唐百济移民祢氏家族墓志考略》，《唐史论丛》第14辑，陕西师范大学出版社，第61页。

116) 《唐故宣德郎骠骑尉淄川县开国子泉君（毖）志铭》，《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506页。

117) 《唐右龙武军翊府中郎高府君（德）墓志铭并序》，《千唐志斋藏志》（下册），北京：文物出版社，1984年，第798页。

118) 《大周故左武威卫大将军检校左羽林军赠左玉钤卫大将军燕国公黑齿府君（常之）墓志文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52页。

119) （后晋）刘昫：《旧唐书》卷九〇，《列传第四十》，北京：中华书局，1975年，第2919页。

，《扶余隆墓志》谈及百济复兴军时，称其为“马韩余烬，狼心不悛，鸱张辽海之滨，蚁结丸山之城”¹²¹⁾等，表露出其民族身份逐渐消亡的趋势。

2. 聚族而葬与归葬、迁葬习俗

目前所发现的唐代高丽、百济人尤其是其墓志，有不少为直系亲属关系，如泉氏家族、高震及其女儿高氏、高性文及高慈父子、高钦德及高远望父子、黑齿常之及黑齿俊父子等。从表1所列高丽、百济人的埋葬地来看，高丽移民葬于洛阳者占72%，葬于西安者占28%；百济移民葬于洛阳与西安者各占40%，葬于两京附近地区者占20%。可推知，高丽、百济移民多数选择两京及周围地区作为安葬地，“堆著黄金无买处”¹²²⁾的北邙一带亦为其安葬之地的首选，而其中一些家族成员的墓葬又呈现出集聚埋葬的特点，墓志所体现的高丽、百济人的归葬、迁葬以及聚族而葬习俗，体现了高丽、百济贵族对汉族丧葬文化的认可与接受，是其逐渐融入唐人共同体的另一重要证据。

据墓志文记载，泉氏家族入唐第一代移民泉男生以仪凤四年（679年）正月二十九日遭疾卒于安东府之官舍，其子泉献诚千里扶丧，护送灵柩到洛阳泉氏私第，朝廷派官员吊祭并主持丧事，于调露元年（679年）十二月二十六日“窆于洛阳邙山之原”¹²³⁾。唐王朝为了稳定统治秩序，对归降的蕃酋将领采取赐甲第于两京并封官赐爵的措施，连同其子嗣也不再放还故土，故泉男生虽死于安东，但并未归葬距其较近的朝鲜半岛故地，而葬于当时高宗驻蹕的洛阳；泉男生之子泉献诚之冤案被平反昭雪后，也于大足元年（701年）二月十七日“葬于芒山之旧茔”¹²⁴⁾；泉男生之曾孙泉毖以开元十七年（729年）卒于京兆府兴宁里（今陕西咸阳）之私第，以开元二十一年（733年）“迁厝于河南府洛阳县之邙山旧茔”¹²⁵⁾；因玄宗定居西京长安，泉毖等功臣之后也徙官京师，但因祖茔在洛阳，故其死后又归葬祖茔。“旧茔”当指泉男生所葬之地。根据《洛阳出土石刻时地记》载，泉男生、泉献诚、泉毖墓志同出于洛阳市孟津县东山岭头村，赵振华、张福有及拜根兴等学者通过实地踏查，明确了该地确系泉男生、泉男产、泉献诚、泉毖的家族墓冢所在，诸墓呈东西向“一”字排列，彼此相隔10米左右。在家族墓地中，因泉男生辈分最高而居中，泉男生墓左为其子泉献诚之墓，墓右为其曾孙泉毖之墓¹²⁶⁾。这一排列方式符合古代中原地区传

120) 《唐开府仪同三司工部尚书特进右金吾卫大将军安东都护郟国公上柱国高公（震）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1814页。

121) 《大唐故光禄大夫行太常卿使持节熊津都督带方郡王扶余君（隆）墓志》，《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373页。

122) 王建：《北邙行》，《全唐诗》卷二九八，北京：中华书局，1960年，第3375页。

123) 《大唐故特进行右卫大将军兼检校右羽林军仗内供奉上柱国卞国公赠并州大都督泉君（男生）墓志铭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6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20页。

124) 《大周故左卫大将军右羽林卫上下柱国卞国公赠右羽林卫大将军泉君（献诚）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985页。

125) 《唐故宣德郎骁骑尉淄川县开国子泉君（毖）志铭》，《洛阳出土历代墓志辑绳》，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1年，第506页。

统墓葬“先王之葬居中，以昭穆为左右”¹²⁷的昭穆葬法，可以确定泉氏家族成员依汉俗聚族而葬，并且泉愍死后还从今陕西咸阳归葬于洛阳旧茔，也是模仿、认同汉人传统“礼不忘其本”¹²⁸的表现。除了泉氏家族，高性文、高慈父子同死于磨米城，其后高性文“安厝于洛州合宫县平乐乡之原”¹²⁹，高慈亦“窆于洛州合宫县平乐乡之原”¹³⁰，也是依汉礼归葬祖茔的体现。

3. 道德评价标准

在入唐高丽、百济人的墓志中，对志主及其亲族的道德评定标准也深深地打上了汉族儒家文化的烙印。

入唐流寓中原高丽、百济人的墓志文中对忠君之行的褒扬非常普遍，如高性文、高慈父子二人的墓志中引用大段的诏敕，赞扬父子二人英勇不屈的行为，“忠鯁身亡，令编入史”，“又奉敕令准式葬例”¹³¹，“生死忠贞，古今昭晋”¹³²；《高足酉墓志》中也有“路登千仞，必抱忠臣之节”¹³³的赞扬之语等。

对孝悌品行的赞扬也表现了入唐高丽、百济人对汉人儒孝标准的认同。如高震嗣子高叔秀“孝逾江革，礼越王祥”¹³⁴中“江革负米养母”与“王祥卧冰求鲤事后母”均为汉族二十四孝中的故事，此种比附体现了其已完全接受汉族遵行的孝行标准。墓志文载高性文之子高鞠仁“逾考叔之纯孝，等大连之善丧”¹³⁵，“考叔”指春秋时郑国大夫颍考叔，因挖隧道安排郑庄公与其母武姜于“黄泉”会面，被《古文观止》评以“颍考叔，纯孝也。爱其母，施及庄公”¹³⁶之辞；“大连”据李善注引《礼记》：“少连、大连善居丧，三日不怠，三月不

126) 拜根兴：《唐代高丽百济移民研究：以西安洛阳出土墓志为中心》，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2年，第147页；张福有、赵振华：《洛阳、西安出土北魏与唐高句丽人墓志及泉氏墓地》，《东北史地》，2005年第4期，第16页。

127) (清)阮元校刻：《十三经注疏》，《周礼注疏》卷二二《春官宗伯第三·冢人》，北京：中华书局，1980年，第786页。

128) (清)阮元校刻：《十三经注疏》，《礼记正义》卷十《檀弓下》，北京：中华书局，1980年，第309页。

129) 《大周故镇军大将军行左金吾卫大将军赠幽州都督上柱国柳州郡开国公高公（性文）墓志铭并序》，《千唐志斋藏志》（上册），北京：文物出版社，1984年，第397页。

130) 《大周故壮武将军行左豹韬卫郎将赠左玉钤卫将军高公（慈）墓志铭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78页。

131) 《大周故壮武将军行左豹韬卫郎将赠左玉钤卫将军高公（慈）墓志铭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78页。

132) 《大周故镇军大将军行左金吾卫大将军赠幽州都督上柱国柳州郡开国公高公（性文）墓志铭并序》，《千唐志斋藏志》（上册），北京：文物出版社，1984年，第397页。

133) 《大周故镇军大将军高君（足酉）墓志铭并序》，《洛阳新获墓志》，北京：文物出版社，1996年，第40页。

134) 《唐开府仪同三司工部尚书特进右金吾卫大将军安东都护郟国公上柱国高公（震）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1814页。

135) 《大周故镇军大将军行左金吾卫大将军赠幽州都督上柱国柳州郡开国公高公（性文）墓志铭并序》，《千唐志斋藏志》（上册），北京：文物出版社，1984年，第397页。

懈”¹³⁷⁾，表明高鞠仁守丧之孝。高丽灭亡后，誓死抗唐的泉男建将要伏诛，泉男生念及手足之情为其求情，最终使泉男建免于死罪，泉男生也因此得到“友悌之极，朝野斯尚”¹³⁸⁾的称赞。

墓志文中还有对志主仁义的褒赞，如黑齿常之墓志文中“至于推财忘己，重义先物，虽刎首不顾其利，倾身不改其道”¹³⁹⁾之语，与儒家思想“君子喻于义，小人喻于利”¹⁴⁰⁾的标准一致。《泉献诚墓志》铭文称其“苟日身歿，能以仁全”¹⁴¹⁾，显示出泉氏家族对儒家“求生以害仁，有杀身以成仁”¹⁴²⁾主流思想的认同。

高丽、百济人墓志中的妇女形象也符合汉族文化对妇德标准的理想认同，如《高震墓志》载其“夫人淑质，明妇仪母训”¹⁴³⁾；《难元庆墓志》称其夫人甘氏“礼甚梁妻，贤逾班女”¹⁴⁴⁾，以孟光和班婕妤好来比喻甘氏的淑礼贤敏；《虢王妃扶余氏墓志》称扶余氏“生南国之容，对春林而红树非华，升画阁而初阳并照。间出非常之秀挺，生稀代之贤，德合则不孤，气同而相感”¹⁴⁵⁾，与传统儒家思想下对汉人妇女“四德”即“女容”“女红”“女德”“女言”的要求相契合，也是高丽、百济人逐渐向汉人社会标准趋同的反映。还有对夫妻琴瑟和谐的赞扬，如高震女儿《高氏墓志》云其“动静有如宾之敬，馈饷有齐眉之节。可谓正于内穆，亲于夫妇，夫妇顺也”¹⁴⁶⁾。

据以上分析可知，入唐高丽、百济人已经认同并践行着儒家思想文化，从思想观念上完全融入唐人社会。正如昭宗乾宁年间（894-897），面对蕃将多次救唐于危亡并越来越多地活跃于晚唐政治和军事舞台的现象，进士程晏所云：“慕中华之仁义忠信，虽身为异域，能驰心于华，吾不谓之夷矣”，“乐吾仁义忠信，愿为人伦齿者，岂不为四夷之华乎！记吾言者，夷其名尚不为夷矣。”¹⁴⁷⁾

136) (清) 吴楚材、吴调侯编选：《古文观止》卷一，北京：中华书局，1959年，第5页。

137) (清) 阮元校刻：《十三经注疏》，《礼记正义》卷四二《杂记下》，北京：中华书局，1980年，第1560页。

138) 《大唐故特进行右卫大将军兼检校右羽林军仗内供奉上柱国卞国公赠并州大都督泉君（男生）墓志铭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6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20页。

139) 《大周故左武威卫大将军检校左羽林军赠左玉钤卫大将军燕国公黑齿府君（常之）墓志文并序》，《北京图书馆藏中国历代石刻拓本汇编》（第18册），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152页。

140) (清) 阮元校刻：《十三经注疏》，《论语注疏》卷四《里仁》，北京：中华书局，1980年，第2471页。

141) 《大周故左卫大将军右羽林卫上下柱国卞国公赠右羽林卫大将军泉君（献诚）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985页。

142) (清) 阮元校刻：《十三经注疏》，《论语注疏》卷一五《卫灵公》，北京：中华书局，1980年，第2516页。

143) 《唐开府仪同三司工部尚书特进右金吾卫大将军安东都护郟国公上柱国高公（震）墓志铭并序》，《唐代墓志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年，第1814页。

144) 《大唐故宣威将军左卫汾州清胜府折冲都尉上柱国难君（元庆）墓志铭并序》，《新中国出土墓志·河南卷》（壹）下册，北京：文物出版社，1994年，第219页。

145) 《虢王妃扶余氏墓志》

146) 《宣武郎唐守唐州慈丘县令邵公故夫人高氏墓志并序》，《洛阳新获墓志》，北京：文物出版社，1996年，第81页。

147) (唐) 程晏：《内夷檄》，《全唐文》卷八二一，北京：中华书局，1983年，第1489页。

六、结语

自古以来，朝鲜半岛与中国是一衣带水的友好邻邦，古来交往甚密。早在周代，燕国就曾在辽东及朝鲜半岛北部设置右北平、辽西、辽东三郡¹⁴⁸⁾，至西汉武帝又置真番、临屯、乐浪、玄菟四郡¹⁴⁹⁾。高句丽、百济、新罗三国建立后，一直到隋唐时期，中原王朝与朝鲜半岛国家在宗藩关系下展开了频繁的贡赐往来。高丽、百济与中原王朝在频繁的往来中，不断学习和接受汉族文化，历法、服装、习尚等均深染华俗，这就为后来高丽、百济移民迅速融入汉族社会打下了坚实的基础。

百济、高丽灭亡之后，大量高丽、百济人降附唐朝，唐王朝秉持“华夷无猜”“爱之如一”的政治态度，对高丽、百济人口进行了妥善安置。如《唐六典》卷三《户部尚书》曰：“凡内附后所生子，即同百姓，不得为蕃户也”，“轻税诸州高句丽、百济应差征镇者，并令免课、役”¹⁵⁰⁾。在唐王朝高度开放包容的政治环境下，入唐高丽、百济人逐渐舍弃其民族特性而融入唐朝社会。

目前所能见到的保存地固定且出土时地明确的高丽、百济人碑志，不仅弥补了史传阙佚，而且提供了探究入唐唐代高丽、百济人生活起居等情况翔实可征的资料。入唐高丽、百济人王族和高级将首被唐廷授予官职，在安辑旧地、内讨携离、外靖边叛的过程中多次发挥砥柱作用，为唐朝边境的安定以及盛世局面的出现做出了重大贡献，甚至在中原王朝内部的政治斗争中也扮演了重要角色。许多高丽、百济人贵族还崇尚读书修身，从其碑志铭文中还可捕捉到其入唐以后的精神生活轨迹。除了显贵，入唐高丽、百济籍奴婢和一般兵士等也极大地丰富了中原王朝的社会生活。入唐高丽、百济人在婚姻交游上与汉人望族、俊彦建立起密切的关系；从碑志铭文中可以看出，唐代中原地区的高丽、百济人在籍贯认知、葬俗与道德价值标准等方面已基本与汉人无异，高丽、百济人已经逐渐融入汉族文化圈，成为唐人社会的重要组成部分。可以说，大量的碑志史料为我们多维、立体地把握唐代流寓中原地区的高丽、百济人的起居生活、婚姻交游、精神生活等情况提供了很好的范本，证实了唐朝社会极大的包容性与纳异性，为我们重新认识唐王朝与朝鲜半岛的文化交流提供了新的视角。

148) (汉)司马迁：《史记》卷一一〇，《匈奴列传》，北京：中华书局，1959年，第2886页。

149) (汉)司马迁：《史记》卷一一五，《朝鲜列传》，北京：中华书局，1959年，第2989页。

150) (唐)李林甫等撰，陈仲夫点校：《唐六典》卷三，《尚书户部·户部尚书》，中华书局，1992年，第77页。

당대 고구려 백제 이민사회 생활 연구

- 출토 묘지와 묘비를 중심으로 -

천차오원 (정저우대학)

618년 당(唐)이 건국하자,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와 동남부의 백제가 즉각 사절을 보내 당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7세기 중엽, 한반도가 세 나라로 나뉘어 싸움이 잦아, 가장 나중에 건국한 서남부의 신라가 강력한 국력으로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전략을 취해 당과 번속동맹(藩屬同盟) 관계를 맺었다. 역사문제, 한반도 통치방식, 쌍방 체류사 귀환 및 통치 이념의 차이로 인해, 당은 고구려 및 백제와 일련의 갈등을 빚었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 재건을 위해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친정(親征)하고 이후 세 차례 군대를 보내 요동 일대에서 많은 인구가 포로나 이주 등 중원으로 돌아갔다. 660년 8월, 당이 신라와 연합해 백제를 멸하고 668년 다시 고구려를 멸하면서, 신라의 한반도 통일이 완료되었다. 전쟁 당시, 수많은 고구려와 신라의 왕족, 대신, 장군 및 백성들이 멀리 당으로 이주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발견된 당의 한반도 이민 묘비와 묘지는 주로 고구려와 백제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당으로 이주한 고구려와 백제인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 동안 당대 한반도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대부분 신·구 《당서(唐書)》 《자치통감(資治通鑑)》 《책부원귀(冊府元龜)》 등의 제한적인 문헌에 근거해 당과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 교류 문제에 집중되었다. 1920년대부터 당대 중국에 살던 고구려와 백제인의 묘비와 묘지가 발견되고 정리·출간되면서, 부족한 문헌을 보완하면서 당대 고구려와 백제인의 일상 생활, 정치 활동, 문화 생활, 혼인 교류 등에 대한 연구 가능성을 열었다. 가장 먼저 뤼양(洛陽) 베이망(北邙) 일대에서 출토된 고구려와 백제 이민의 묘지를 고고학적으로 연구한 금석학자는 뤼전위(羅振玉) 선생^[1]이며, 이어 바이건싱(拜根興)^[2], 마오웨이(苗威)^[3], 장칭보(姜清波)^[4]등도 출토 묘지를 활용해 당에 이주한 한반도 이민의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이 밖에도 중원지역 이민을 개별 또는 가족 묘지 단위로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데^[5], 주로 이민의 숫자, 정착, 활약 및 중원 한족과의 융합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는 한반도 이민 사례 연구, 이민의 이동경로 분석, 동북아 정

1) 罗振玉: 《唐代海东藩属志存》, 石刻史料新编本。

2) 拜根兴: 《唐代高丽百济移民研究: 以西安洛阳出土墓志为中心》,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2年。

3) 苗威: 《高句丽移民研究》, 长春: 吉林大学出版社, 2011年。

4) 姜清波: 《入唐三韩人研究》, 广州: 暨南大学出版社, 2010年。

5) 张福有、赵振华: 《洛阳、西安出土北魏与唐高句丽人墓志及泉氏墓地》, 《东北史地》, 2005年第4期, 第2-20页; 拜根兴: 《高句丽遗民高足酉墓志铭考释》, 《碑林集刊》, 2003年第00期, 第27-35页; 董延寿、赵振华: 《洛阳、鲁山、西安出土的唐代百济人墓志探索》, 《东北史地》, 2007年第2期, 第2-12页。

치 문화 관계 및 사회 상황에 대한 이민의 영향 등을 연구했다.[6] 본고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발견된 37개의 당대 고구려와 백제인 묘비 및 묘지를 중심으로[7] 문헌 자료를 참고하면서, 당대 고구려와 백제인의 정치적 업적과 사회적 지위, 교육·문화와 정신 생활상, 평민과 하층민의 삶, 혼인 교유와 한화(漢化) 경향 등을 각각 체계적으로 기술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금석 자료를 활용해 당과 한반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한다.

자고이래 한반도와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로서 깊이 교류해왔다. 일찍이 주(周)나라 때 연(燕)이 랴오둥과 한반도 북부에 우북평(右北平), 요서(遙西), 요동(遙東)의 삼군(三郡)을 설치했고[8], 한무제(漢武帝) 역시 진번(眞番), 임둔(臨屯), 낙랑(樂浪), 현도(玄菟)의 사군(四郡)을 설치했다.[9]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부터 수당(隋唐)까지, 중원 왕조와 한반도 국가는 종번관계 하의 조공-하사 왕래가 잦았다. 고구려와 백제는 중원 왕조와 빈번한 왕래를 통해 한족 문화, 역법, 복식, 풍습을 배우는 등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는 나중에 고구려와 백제 이민이 한족 사회에 빠르게 융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고구려 및 백제인이 당에 복속했고, 당 왕조는 정치적으로 “华夷无猜”과 “爱之如一”의 태도를 견지하며 고구려와 백제인이 정착하도록 했다. 《唐六典》卷三《戶部尙書》에는“凡内附后所生子, 即同百姓, 不得为蕃户也”, “轻税诸州高句丽、百济应差征镇者,

并舍免课、役”[10]라고 적고 있다. 당의 개방적이고 포용력 있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당시 고구려와 백제인은 점차 자신의 민족적 특징을 버리고 당나라 사회에 융화되었다.

현재 확인 가능하면서 보존지역이 고정적이고 출토시기가 명확한 고구려와 백제인 묘비와 묘지는 부족한 사료를 보완할 뿐 아니라, 당대 고구려와 백제인의 거주 및 생활 등을 상세하게 고증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당으로 이주한 고구려와 백제인 왕족과 장군은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수여받고, 기존 영토를 안정시키고 안팎으로 반도(叛徒)를 평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당의 변경(邊境) 안정과 태평성대에 크게 공헌하고 나아가 중원 왕조 내부의 정치 투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인 귀족들은 대부분 독서와 수양을 숭상하였는데, 그들의 묘지와 비문에 당 이주 이후 정신적 궤적이 나타난다. 귀족들 외에, 당대 고구려와 백제 출신 노비나 일반 병사 등 역시 중원 왕조의 사회상을 다채롭게 만들었다. 당대 고구려와 백제

- 6) 如[韩]金贤淑: 《中国所在高句丽遗民的动向》, 《韩国古代史研究》, 2001年第23期; [韩]李文基: 《百济黑齿常之父子墓志铭检讨》, 《韩国学报》, 1991年第64期; [日]内藤隼辅: 《唐代朝鲜半岛遗民的活动》, 《朝鲜史研究》, 京都大学东洋研究会刊, 1962年。
- 7) 包括高丽人墓志26方, 分别为泉男生、泉男产、泉献诚、泉毖、高性文、高慈、高震、高震女儿高氏、高玄、高足西、高钦德、高远望、高德、王景曜、李怀、豆善福、李他仁、高木卢、李仁德、似先义逸、高铨苗、南单德、高牟、高乙德、高提昔、李隐之墓志, 以及百济人墓志11方, 分别为扶余隆、黑齿常之、黑齿俊、难元庆、祢寔进、虢王妃扶余氏、祢素士、祢仁秀、祢军、陈法子墓志和勿部珣功德记。另注董延寿、赵振华先生曾将出土于现的《诺思计墓志》归为入唐百济人墓志, 从志文看其志主族属并不能确定, 本文暂不收入。
- 8) (汉)司马迁: 《史记》卷一〇, 《匈奴列传》, 北京: 中华书局, 1959年, 第2886页。
- 9) (汉)司马迁: 《史记》卷一一五, 《朝鲜列传》, 北京: 中华书局, 1959年, 第2989页。
- 10) (唐)李林甫等撰, 陈仲夫点校: 《唐六典》卷三, 《尚书户部·户部尚书》, 中华书局, 1992年, 第77页。

인은 혼인 및 교유 측면에서 한인(漢人) 명문(名門) 및 재사(才士)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들이 본관 인식, 장례 의식, 도덕 및 가치관 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한인과 다르지 않아 이미 한족문화권에 점차 융화되어 당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묘지와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묘지 사료는 당대 중원으로 들어간 고구려와 백제인의 거주 생활, 혼인 교류, 정신 면모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좋은 본보기로서, 당의 사회적 포용력을 증명하고 있어 당과 한반도의 문화 교류를 재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唐代における高句麗・百濟の移民社会の生活研究

— 出土墓誌と墓碑を中心に —

陳朝雲（鄭州大学）

<序文>

618年、唐が建国されるや、韓半島北部の高句麗と東南部の百濟がすぐさま使節を送り、唐との間に朝貢-冊封関係を結んだ。7世紀中葉に韓半島が三国に分かれ紛争が頻繁になると、最も遅く建国した西南部の新羅が強い国力で遠交近攻の戦略をとり唐との藩属同盟関係を結んだ。歴史問題、韓半島統治方法、双方の滞留者帰還および統治理念の違いによって唐は高句麗と百濟との間に一連の葛藤を呈するようになった。中国中心の東アジア世界秩序再建のために645年、唐の太宗は高句麗に親征し、以降三回にわたり軍隊を派遣した。これにより遼東一帯から多くの人びとが捕虜や移住者として中原に渡ってきた。660年8月に唐が新羅と連合して百濟を滅ぼし、更に668年には高句麗を滅ぼし、新羅の韓半島統一が完了した。戦時、高句麗と百濟の多くの王族、大臣、將軍、そして一般庶民が遠く唐にまで移住してきた。現在中国で発見された唐の韓半島移民の墓碑や墓誌は主に高句麗人と百濟人のものだ。それゆえ、本稿では唐に移住した高句麗人と百濟人集団を研究対象とする。

この間、唐代の韓半島に関する研究は大部分新旧『唐書』、『資治通鑑』、『冊府元龜』など、限られた文献に根拠を置き、唐と高句麗、百濟、新羅の文化交流問題に集中していた。1920年代から唐代中国で生活した高句麗人と百濟人の墓碑と墓誌が発見され、整理・発刊されるようになり、不十分な文献資料を補完し、唐代の高句麗人と百濟人の日常生活、政治活動、文化生活、婚姻交流などに対する研究の可能性が切り開かれた。最も早く、洛陽の北邙一帯で出土した高句麗と百濟の移民の墓誌を考古学的に研究した金石文学者は羅振玉先生で、続いて拜根興、苗威、姜清波なども出土墓誌を活用し唐に移住した韓半島移民の生活相を体系的に記述した。この他にも中原地域の移民を個別的あるいは家族単位で研究した論文があるが、主に移民の数、定着と活躍および中原の漢民族との融合などの問題を扱った。韓国と日本の学界においては韓半島移民の事例研究、移民の移動経路分析、東北アジア政治文化関係及び社会状況に対する移民の影響などが研究された。本稿は先行研究を踏まえ、中国において発見された37個の唐代高句麗人と百濟人の墓碑と墓誌を中心に文献資料を参考にしながら、唐代の高句麗人と百濟人の政治的業績と社会的地位、教育文化と精神生活、平民と下層民の生活、婚姻交流と漢化傾向などをそれぞれ体系的に記述し、「人」を中心

に金石資料を活用し、唐と韓半島の関係を再照明する。至らない部分について多くの指導・練達を賜れば幸いである。

<結論>

古来韓半島と中国は友好的な隣国として交流を深めてきた。早くは周代に燕が遼東と韓半島北部に右北平、遥西、遥東の三都を設置し、漢の武帝の時には真番、臨屯、楽浪、玄菟の四郡を設置した。高句麗、百濟、新羅の建国から隋・唐まで中原王朝と韓半島国家は宗藩関係の下、朝貢-下賜の往来が頻繁にあった。高句麗と百濟は中原王朝と頻繁な往来を通じて漢族文化、易法、服飾、風習を学ぶなど中国の影響を大きく受け、これは後に高句麗と百濟移民が漢族社会に急速に融和する基盤になった。

百濟と高句麗が滅亡した後、多くの高句麗人と百濟人が唐に服属し、唐王朝は政治的に「华夷无猜」と「爱之如一」の態度を堅持し高句麗人と百濟人が定着するようにした。『唐六典』卷三「戸部尚書」には“凡内附后所生子，即同百姓，不得为蕃户也”，“轻税诸州高句丽、百济应差征镇者，并令免课、役”と記載されている。唐の開放的で抱擁力のある政治的環境の中で当時高句麗人と百濟人は漸次本人たちの民族的な特徴を捨て、唐社会に融和した。

現在確認可能で保存地域が固定的で出土時期が明確な高句麗人と百濟人の墓碑と墓誌は乏しい史料を補完できるのみならず、唐代高句麗人と百濟人の居住と生活などを詳しく考証する資料になっている。唐に移住した高句麗人と百濟人王族と將軍は朝廷より官職を授与され、既存の領土を安定させ、内外の叛徒と平定する過程で幾度となく中枢的な役割を果たし、唐の辺境の安定と太平盛代に大きく貢献し、更には中原王朝内部の政治闘争において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

また、高句麗人と百濟人貴族たちは大部分読書と修養を重視したが、彼らの墓誌と碑文には唐に移住した後の精神的軌跡が示されている。貴族たちの他に唐代の高句麗と百濟出身の奴婢や一般の兵士なども中原王朝の社会相に多彩な色どりを添えた。

唐代の高句麗と百濟人は婚姻と交流の側面で漢人の名門と才士と緊密な関係を結び、彼らが本貫（出身地）認識、葬祭意識、道德及び価値観などの側面で基本的に漢人と異ならない、既に漢族文化圏に漸次融和し、唐代社会の重要な構成員になったことを墓誌と碑文を通じて知ることができる。従って墓誌資料は唐代中原に入った高句麗人と百濟人の居住生活、婚姻交流、精神世界などを立体的に把握する上で格好の標本として、唐の社会的抱擁力を証明し、唐と韓半島の文化交流を再認識する新しい視角を提示している。

唐宋時期 新興 官僚士族의 起興

-樂安孫逖과 淸河南祖崔融 家族 墓誌를 中心으로-

이장욱 (동북아역사재단)

唐宋時期 新興 官僚士族의 起興

-樂安孫遜과 清河南祖崔融 家族 墓誌를 中心으로-

이장욱 (동북아역사재단)

20세기 중반 중국대륙의 改革開放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고고학 발굴을 통해 출토되고 있는 대량의 묘지명 자료들은 오늘날 古中世 시기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라 하겠다. 특히 중국 中原의 핵심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洛陽과 인근 지역에서의 唐宋時期 墓誌들의 발견은 과거 이 지역을 중심으로 唐宋帝國의 주요 官僚層을 형성하고 있었던 執權 엘리트에 대하여 많은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근래 들어 중국 낙양에서 발견된 唐 中期 이래 新興官僚로 성장하여 北宋 中期까지 지속적으로 집권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였던 孫遜의 樂安孫氏와 崔融의 清河南祖崔氏 家門의 興亡盛衰를 최근 出土된 묘지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 학계에서 한창 핫 이슈화 되었던 在京士族과 在地士族에 대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당 중기 則天武后 시기 唐朝는 科擧를 통해 다수의 신흥관료들을 새로이 기용하게 된다. 물론 이들 신흥관료들은 過去 魏晉南北朝時期에 번영했던 山東을 중심으로 한 門閥貴族 가문의 후예들이었으나 隋唐時期에 접어들면서 關隴貴族을 주축으로 한 당시 집권 엘리트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이들 산동사족들에 대한 축천무후의 기용은 후일 唐 玄宗 시기의 “開元의 治”를 비롯하여 당 후기를 거쳐 북송 중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의 주요 고급관료 및 名臣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것은 악안손씨나 청하남조최씨의 경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필자가 파악한 악안손적의 가문은 唐五代를 거쳐 40점을, 반면에 청하남조최씨는 당, 오대, 북송을 거치면서 모두 29점의 묘지명 자료들이 20세기 중반 이후 중국대륙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두 가문의 다수 묘지들은 이들 가족들의 주요 구성원 및 일반 가족들에 대한 傳記 資料를 보충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 가문이 “唐宋變革”이라는 거대한 중국 역사 속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고종세 시기 중국 엘리트의 변화를 거쳤고 또한 가문의 유지를 위해 끊임 없는 내부 변화의 시도와 生存戰略을 구사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다룰 악안손씨와 청하남조최씨는 같은 산동사족이면서도 성격이 전혀 다른 엘리트 집단이다. 악안손씨는 가문을 일으키는 손적과 그 부친인 孫嘉之(唐 前期 인물) 이전에는 위진남북조 시기에 평범한 中下級 귀족인 반면 청하남조최씨는 위진남북조 시기 최대 명문 가문의 하나인 산동 7大家門(范陽盧, 清河崔, 趙郡李, 博陵崔, 滎陽鄭, 太原王, 隴西姑臧李)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전혀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 두 가문은 당조에 들어오면서 王朝의 집중견제를 받으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새로이 축천무후에 의해 장려된 과거라는 인재등용의 매개체를 통해 중국 역사에 再登場하기까지 비슷한 길을 걸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양 가문의 비슷한

역사적 경험은 새로운 형태의 신흥관료 가문으로서 가문을 재구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바탕은 후대 중국사에서 집권 엘리트 구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본고는 최근 발견된 묘지 자료들이 없었다면 현존하는 文獻資料에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史料들만으로는 연구가 어려웠다. 새로운 묘지 자료들은 특히 문헌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唐末에서 北宋 初 사이의 많은 역사적 공백을 채워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연구가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처럼 중국에서 새로이 출토된 많은 수의 당송묘지들은 향후 중국사 연구자뿐만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에도 많은 주요 단서 및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금번 韓中日 삼국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개최한 동아시아 석각회의에서 한중일 삼국의 역사 및 석각 연구자들이 공통의 관심사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이 출토되는 중국에서의 묘지 자료들을 함께 연구, 분석하며 건전한 共同研究의 토대를 마련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唐宋时期闪兴官僚士族的起兴

-乐安孙遜和清河南祖崔融家族墓志为中心-

李章郁(東北亞歷史財團)

20世纪中期,中国大陆改革开放后,通过全面开展考古学挖掘而出土的大量的墓志铭,不仅成为今天研究古代中国的重要资料,而且也是研究东亚历史的不可或缺的文献。特别是坐落于中国中原重要位置的洛阳和其周围地区的唐宋时期墓志的发现,成为了解这一地区为中心形成唐宋主要官僚阶层的执权势力集团的贵重资料。本文试图通过最新出土的墓志资料,分析在中国洛阳发现唐中期以后成长为新兴官僚后,一直到北宋中期形成执权势力的孙遜的乐安孙氏和崔融的清河南祖崔氏家族的兴亡盛衰,并试图提出最近学界热议的在京士族和在地士族的未来研究方向。

唐中期则天武后时期,唐朝通过科举制度,启用大量新兴官僚。当然,这些新兴官僚大都是过去魏晋南北朝时期繁盛的山东为中心的门阀贵族家族,但是进入隋唐时期后,集中受到门陇贵族为中心的当时执权势力的集中牵制,而走下坡路。则天武后启用的这些山东士族,后来在唐玄宗时期,经过“开元之治”到唐后期到北宋中期,培养出了无数主要高层官僚和名臣,乐安孙氏和清河南祖崔氏也不例外。20世纪中期以后,在中国大陆发现的东安孙遜家族墓志铭有40件,历经唐五代,而清河南祖崔氏,共发现后29件墓志铭,历经唐、五代和北宋。这两大家族的大多数墓志,不仅可以补充他们家族主要成员和一般家人的传记资料,而且还可以了解到这些家族在“唐宋变革”的巨大中国历史变化和漩涡中,中古中国权势势力以什么样的形式发生变化,以及为延续家族,他们如何不断尝试内部的变化,谋求生存战略。

比如说,本文所涉及的乐安孙氏和清河南祖崔氏,同属山东氏族,但却是性质截然不同的权势集团。乐安孙氏在兴家族的孙遜和其父孙嘉之(唐朝前期人物)以前是魏晋南北朝时期平凡的中下层贵族,而清河南祖崔氏是魏晋南北朝时期最大名门望族的山东七大家族(范阳卢、清河崔、赵郡李、博陵崔、荥阳郑、太原王、陇西姑臧李)之一。这样全然不同历史背景的两个家族进入唐朝之后,受到王朝的集中牵制走向衰败之路,然后再通过则天武后的通过科举启用人才为契机,再次登场等,走了一条比较相近的路。这两个家族的比较相近的历史经验说明了作为新形态的新兴官僚家族,如何重新形成家族。这样的情况,对在后代中国历史执权的权势集团的形成也带来间接影响。如果没有最近所发现的墓志资料,仅靠现存文献资料上有限的史料的话,就不会有今天的研究成果。新的墓志资料,可填补几乎没有文献资料的唐末到北宋初期之间的空白,而且通过各种资料,使新的历史研究可以延伸。

所以说,中国新出土的众多唐宋墓志不仅对今后中国史的研究者,而且对研究东亚历史也可以提供各种线索和资料。今天,韩中日三国学者共聚一堂举办东亚石刻会议,这对韩中日三国的历史和石刻研究者的共同关心对象的中国以及东亚历史研究,具有深远意义,而且也在今后如何利用新出土的中国墓志资料,进行共同研究分析,打造良好研究氛围,具有重要意义。

唐宋時期新興官僚士族の起興

-樂安孫逖と清河南祖崔融家族墓誌を中心に-

李章郁（東北亞歴史財團）

20世紀中盤中国大陸の改革開放と併せて本格的に考古学発掘を通じて出土している大量の墓誌銘資料は今日、古中世時期の中国のみならず東アジアの歴史を研究する上で必須のものであると言える。特に中国中原の核心的な位置にある洛陽とその近隣地域の唐宋時期の墓誌の発見は過去にこの地域を中心に唐宋帝国の主要官僚層を形成していた執権エリートに対して多くの貴重な資料を提供している。本稿は近来になって中国洛陽にて発見された唐中期以降の新興官僚として成長し、北宋中期まで持続的に執権エリート階層を形成した孫逖の樂安孫氏と崔融の清河南祖崔氏の家門の興亡盛衰を最近出土した墓誌資料を中心に観察し、最近学会で熱い論点になっている在京士族と在地士族に対して今後の研究方向を提示したい。

唐中期の則天武后期、唐朝は科挙を通じて多数の新興官僚を新たに起用するに至った。もちろん彼ら新興官僚は過去、魏晉南北朝時期に繁栄した山東を中心にした門閥貴族家門の末裔であったが、隋唐時期になって閩隴貴族を主軸にした当時の執権エリートの集中的けん制を受けて衰退の道をたどった。彼ら山東士族たちに対する則天武後の起用は後の唐玄宗時期の「開元の治」をはじめとして唐後期を経て北宋中期に至るまで多くの主要高級官僚及び名臣を輩出し、このようなことは樂安孫氏や清河南祖崔氏の場合も当てはまる。現在筆者が把握したところでは、樂安孫氏の家門の場合、唐、五代を経て40点の墓誌銘が、一方で清河南祖崔氏の場合は唐、五代、北宋を経て併せて29点の墓誌銘が20世紀中盤以降中国大陸で発見された。このような二つの家門の数多くの墓誌は彼ら家族の主要構成員及び一般家族に対する伝記資料を補充するのみならず、更には「唐宋変革」という巨大な歴史の変化の流れの中でいかなる形で古中世時期中国エリートが変化を経たか、また家門の維持のため絶え間ない内部的変化の試みと生存戦略を駆使したのかを観察できる。

例えば本研究において扱う樂安孫氏と清河南祖崔氏は同じ山東士族でありながら、起源的な性格が全く異なるエリート集団である。樂安孫氏は家門を起こした孫逖とその父親である孫嘉之（唐前期の人物）以前の魏晉南北朝時期には平凡な中下級貴族だったのに対し、清河南祖崔氏は魏晉南北朝時期に最大の名門家門の一つ、つまり山東7大家門（范陽盧，清河崔，趙郡李，博陵崔，滎陽鄭，太原王，隴西姑臧李）の中の一つだ。

このように全く異なる歴史的背景を持つこの二つの家門は唐初になってから王朝の集中的なけん制を受けながら衰退の道を歩むようになり、新たに則天武后によって奨励された科挙という人材登用の媒介体を通して中国史に再登場するまで似たような道を歩むようになった。

このような両家門の似通った歴史的経験は新しい形態の新興官僚家門として家門を再構成するに至り、こうした基盤はその後の中国史において集権エリートの構成に間接的な影響を与えた。

本稿の研究は最近発見された墓誌資料がなかったとすれば、現存する文献資料に限定的に残っている資料のみでは難しかっただろう。新しい墓誌資料は特に文献資料がほとんど残っていない唐末から北宋初にかけての多くの歴史的空白を埋めてくれ、更には新しい歴史的研究を可能にしてくれるのだ。

このように中国において新たに出土した多くの唐宋墓誌銘は今後の中国史研究者だけでなく、更には東アジア全体の歴史にも多くの主要な端緒を提供してくれるものと信ずる。この度、韓・中・日の三ヶ国の研究者が一堂に会し開催する東アジア石刻会議が各国の歴史及び石刻研究者が共通の関心事である東アジア史を研究する重要な契機になるばかりではなく、今後新たに出土される中国の墓誌資料を共に研究、分析し健全な共同研究の土台となることを期待したい。

李阿葛羅墓誌と唐開元二十年代の契丹

速水 大 (國學院大學)

李阿葛羅墓誌と唐開元二十年代の契丹

速水 大 (國學院大學)

本報告の目的

- 1、李阿葛羅墓誌の紹介
- 2、李阿葛羅の種族の問題
- 3、「男涅禮」の問題
- 4、李阿葛羅の宿衛について

結語

本報告の目的

これまで、ほとんど注目されてこなかった洛陽出土で少数民族と考えられる李阿葛羅墓誌を取り上げ、唐開元年間の異民族支配の實態に迫り、李阿葛羅墓誌の唐代史における史料価値を明らかにする。

1、李阿葛羅墓誌の紹介

これまで「李阿葛羅墓誌」が紹介されたのは以下の墓誌史料集である。

『全唐文補遺 千唐誌齋新藏專輯』(三秦出版社、2006年)144頁

『新中國出土墓誌 河南參』(中國文物研究所・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編、文物出版社、2008年1月)109(整理番号)

『洛陽出土少数民族墓誌彙編』(李永強・余扶危主編 河南美術出版社、2011年7月)230頁。

このうち、『全唐文補遺』と『洛陽出土少数民族墓誌彙編』とは録文を載せ、『新中國出土墓誌』は録文と図版を採録する。また、『北京大學圖書館藏歷代墓誌拓片目錄』(胡海帆・湯燕・陶誠編、上海古籍出版社、2013年12月)上冊の03591にも所藏が記録されている。管見の限り論文等では言及されたものはない。

李阿葛羅墓誌の全文を『新中國出土墓誌』記載の情報に従って紹介すれば、墓誌蓋・墓誌本体の大きさは45cm×45cmの正方形である。2000年1月洛陽市孟津縣平樂村北方の邱山より出土。現在は千唐誌齋博物館に收藏され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拓本図版に基づいて各録文を参考にして移録したものが以下の録文である。なお、録文中の①～⑦の区分は、行論の便宜を図って報告者が付した。

(1) 「李阿葛羅墓誌」錄文

墓誌蓋「李君 / 誌銘」

- 01 ①大唐故冠軍大將軍左威衛大將軍李府君墓誌
- 02 ②府君諱阿葛羅、賜姓李氏、薊北人也。③乾坤肇分、中夏
- 03 攸列。造化埏殖、萬類不等。自義軒之後、析土分疆。林
- 04 胡居蒼海之西、獯鬻控白狼之北。雖生鯁異性、而人
- 05 臣道著。府君卽北鄙之雄伯也。④乃欽我 休運、慕我
- 06 唐化。棄無知之俗、投禮義之鄉。扶老携幼、願誠款天
- 07 子、乃賞以厚祿、擢以尊官、錫其姓氏、表其臣節。乃拜
- 08 冠軍大將軍·左威衛大將軍員外置同正員·左羽林
- 09 軍上下。出入丹墀、趨翔紫闕。榮參衛霍、位列韓彭。居
- 10 部落卽蕃人之領袖、踐周行卽台閣之羽翼。⑤善騎射、
- 11 發無不中。每至管飛無射、倖中玄英。扈從鑿輿田
- 12 遊禁苑。虛弦落雁、當代莫儔。發羽啼猿、無慙曩列。⑥因
- 13 臥病、旣成膏肓之疾、遽結蓼莪之讐。春秋卅有九、以
- 14 開元十四歲歲次景寅九月建戌朔廿二日景申、終
- 15 於洛陽豐財里官舍、以其年十月建亥十七日辛酉、
- 16 權窆於河南北山。男涅禮、哀々罔極、誌於泉戶。⑦銘曰、
- 17 雁山之苗、狼水之胤。惠然從化、珮我唐印。朋友款洽、
- 18 仰之以信。奉辭玉階、抱疾金谷。針灸不效、罹此殃
- 19 酷。嗚呼若人、天喪何速。

先述の書籍の中で注目すべきものは、『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彙編』が李阿葛羅を少數民族としたことである。しかし、どの種族であるかは特定されていない。

本報告では、李阿葛羅の種族について検討し、唐代における李阿葛羅墓誌の位置づけを探ってみたい。

(2) 墓誌の内容の概略

題名

「府君諱阿葛羅、賜姓李氏、薊北人也。」諱と姓および本貫を記す。

出身について記す。伝説・歴史上の北方・東方の種族名を引き、異民族であることを説明し、「雄伯」との記述でその有力者であったことを表わしている。

唐の徳をしたって歸順したこと、唐から官職を与えられ、宿衛の任に就いたことが記載される。

騎射に熟達していたことを述べる。

病に倒れ、開元14年9月22日に洛陽豐財里で死去したこと、同年10月27日に河南の北山に埋葬したこと、息子の涅禮が墓誌を作ったことを記す。

①～⑥の内容をまとめた銘文。

となっている。この内容分類を踏まえて次に李阿葛羅の出身種族について検討してみたい。

2、李阿葛羅の種族の問題

李阿葛羅が非漢族であることは、③出身記載と⑦の銘文の記載とから考えて間違いない。ただし、墓誌の記述はその出身種族を明示してはいない。その出身種族を検討するうえで、最初に注目すべき記載は、墓誌に見える種族と地名であろう。まず①に見える本貫地の「薊北」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薊北」を本貫とする墓誌は、管見の限り見えない。例えば、『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彙編』に集められた554方のうち、「薊北」を本貫地にするのは李阿葛羅のみである。唐代の薊北とは、通常、薊縣または古の薊門の北と考えるべきだろう。

用例は少なく、會昌年間のことを記した例として『舊唐書』卷180・張仲武伝では、「薊北雄武軍」とし、また、張仲武は回鶻・奚・契丹唐との戦いに功績を挙げたことを賞する紀功碑を「薊北」に建ててを請い、武宗は勅命で李德裕に「幽州紀聖功碑」（『會昌一品集』卷2）を撰文させたことがみえる。ともに、幽州を薊北としている。

そして、『資治通鑑』卷218・唐肅宗紀・至徳元載五月壬午條では、史思明が郭子儀・李光弼の軍に嘉山で敗れた後、河北十餘郡が唐側に降ったため、安祿山は汴鄭間の數州を支配するのみとなる。そして、その謀將の高尙と嚴莊とを辱める事態に至った。田乾眞が安祿山を諫めた言葉に「今四方軍壘雖多、皆新募烏合之衆、未更行陳、豈能敵我薊北勁銳之兵、何足深憂。」とあり、河北の兵を中心とした安史軍を「薊北勁銳の兵」と呼んでいる。杜甫の「聞官軍收河南河北」では、河北または安祿山の本據地である幽州を「薊北」としている。

次に②の出身記載と⑦の銘文に見える種族名・地域名の記載に注目したい。

まず最初に記載される「林胡」は、周から戦國時代の北方遊牧民とされるが、唐では、契丹に結びつけて用いられることが多い。例えば『唐大詔令集』卷42・公主・和蕃「封燕郡公主制」には

漢圖既采、蕃國是親。公主嫁烏孫之王、良家聘氍毹之長、欽若前志、抑有舊章。餘姚縣主長女慕容氏、柔懿爲德、幽閑在性、蘭儀載美、蕙問增芳。公宮之教夙成、師氏之謀可則。今林胡請屬析津、雖無外之仁、已私於上略、而由内之德、亦質於元女。宜光茲寵命、睦此蕃服、俾遵下嫁之禮、以叶大邦之好。可封爲燕郡公主、出降與松漠郡王李鬱于。

と「林胡」の語が見える。この詔勅は、唐が燕郡公主を封じて契丹王鬱于に降嫁させた時のものである。それまで衙官の可突于に擁立されて唐と敵対していた契丹王李鬱于（鬱于）が、開元10年に唐との関係を修復し唐に入朝した。その時に唐は率更令慕容嘉賓と餘姚縣主の長女の慕容氏を燕郡公主に封じて降嫁したのである（『旧唐書』卷199下・北狄・契丹伝ほか）。鬱于の入朝を「今林胡請屬析津」と表現しているのである。ここでは契丹のことを「林胡」と表現している。また、ほぼ同時期に奚の李魯蘇に降嫁された東光公主を封じた制書にも「林胡」の語が見える。『唐大詔令集』卷42・公主・和蕃「封東光公主制」は以下の通りである。

炎漢盛禮、蕃國是和。烏孫降公主之親、單于聘良家之子。永惟前史、率由舊章。故成安公主女韋氏、六行克昭、四德聿備、漸公宮之訓、承內家之則。屬林胡歸命、柳塞無虞。柔遠之恩、已歸於上略。采楚之慶、載睦於和親。宜正湯沐之封、式崇下嫁之禮。可封東光公主、出降饒樂郡王魯蘇。

この制書に見える「林胡」は奚を指す可能性も残るが、契丹可突于の第一次の反亂時、奚王李大酺は唐側に留まり契丹と戦って敗死している。その後を嗣いだのが李魯蘇であった（『旧唐書』卷199下・北狄・奚伝ほか）。一貫して唐に属していたのである。この様な経緯を考慮すれば、「歸命」した後「柳塞」が安定した「林胡」が奚であったとは考えにくい。やはり、契丹を指すものであったと考えるのが妥当である。また、開元22年に唐の張守珪によって契丹の屈烈・可突于らが平定されたときに作られた張九齡の「賀誅奚賊可突于狀并御批」（『曲江集』卷14）では

右。高力士宣示。張守珪所上逆賊契丹屈烈及可突于等首級、此等惡稔、喪敗將及、故天誘其衷、既降又貳。而感義之士、惡其翻覆、背恩之賊、既已誅鋤、幽障廓清、華夷俱靜、計其餘噍、未無動搖。陛下邊任先擇、聖謀獨斷、克稟成命、樹此戎功。且知河朔無轉輸之勞、林胡爲賦稅之地。臣等忝在樞近、預聞遠績、捷書之至、喜倍恒情、謹奉狀陳賀、以聞。謹奏。

とあり、契丹の可突于達の平定によって、「河朔に轉輸の勞が無くなり、林胡の土地が賦税を納める地となった。」と記す。この場合も、「林胡」が契丹を指し示している。

では誌文で「林胡居蒼海之西」と記され、林胡の東に接する「蒼海」とは何だろうか。それは、漢代の蒼海郡と考えられるだろう。『漢書』卷6・武帝紀元朔元年秋條に以下のようにある。

東夷薺君南閩等口二十八萬人降、爲蒼海郡。

そして「東夷薺君南閩等」に服虔は「穢貊は辰韓の北、高句麗・沃沮の南、東は大海に窮まる（穢貊在辰韓之北、高句麗沃沮之南、東窮于大海）。」と位置を注し、晉灼は薺が穢の古字であること、師古は南閩が薺（穢）の君主の名であることを注している。すなわち、この注釋に據れば「蒼海」は、中國東北部およびロシア連邦の極東地域を指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次に「林胡」の對句として記される「獯鬻」について検討したい。「獯鬻」は伝説上の北方の遊牧民であり、「葷粥」「薰鬻」等とも書かれ、『晋書』卷97四夷・北狄・匈奴伝に、

匈奴之類、總謂之北狄。匈奴地南接燕趙、北及沙漠、東連九夷、西距六戎。……夏曰薰鬻、殷曰鬼方、周曰獯鬻、漢曰匈奴。

とあるように後に匈奴となったと考えられた種族である。ただし、誌文で「獯鬻」が押さえたのが、東北方の「白狼」であること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白狼」は白狼山あるいは白狼水（大凌河）のことであり、⑦の「狼水」も白狼水を指すと考えられる。これら白狼の地名を使うことで遼東・遼西地方を示している。残る「雁山」は雁門のことと考えられ、北方に關連する語である。

以上の整理に據れば、種族と地名の表記は、北方に關する語を含みながらも、東北方面に關わる語が多いことがわかる。このことは、李阿葛羅の本貫を薊北とすることに合致する。唐代の幽州から遼西にかけての地域は、奚・契丹・靺鞨等の諸族が多數居住する漢蕃雜居の地であり、それら諸族が唐の羈縻支配に組み込まれたいたことが、近年の研究で明らかになってきた【仁愛君2008】【森部豊2010】

〔肖忠純2014〕。そのような地域に本質を持つ李阿葛羅が騎射に熟達していたこと(⑤)は当然のことであった。奚・契丹・靺鞨・室韋の諸族は風俗を同じくし、騎射に巧みであったからである〔河内春人2003〕。

さて、以上の検討によれば、李阿葛羅は北方の突厥出身である可能性は低く、遼西地域に居住していた契丹・奚などの諸族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しかし、さらにその出身種族を特定したいと考える。その鍵となるのが「男涅禮」である。

3、「男涅禮」の問題

ここで、李阿葛羅の息子で墓誌を作成した「涅禮」について考察したい。結論から言うと、唐開元年間の史料の中に涅禮という人物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涅禮は契丹人であった。ただし、契丹語からの音寫であったため、漢文史料では涅禮のほかに「泥禮」「泥裏」「涅里」「雅里」等と書かれることがあった(『遼史』卷63表1世表)。そして、涅禮の語句を『漢籍全文資料庫』(台湾中央研究院)『四庫全書』『中國基本古籍庫』等のデータベースで検索すると、人名としては唐代契丹の「涅禮」のみが的中する。極めて珍しい名前であることがわかる。この契丹の涅禮の位置づけについて考えるには、当時の唐と契丹との状況を理解する必要がある。そこで開元年間の唐と契丹の状況と涅禮の事跡を整理しておきたい。

開元4年(716)8月になると、突厥の默啜可汗の老衰による失政と玄宗の東北方面経略の強化のため、李盡忠の亂以來突厥に服属していた契丹と奚は唐に歸属した。唐は松漠・饒樂兩都督府を復置し、兩部族の首長に郡王号を授けた。開元5年(717)には營州都督府が柳城に還り、再び奚と契丹を統治することとなった。この時、唐に降った契丹の首領は李失活であった。翌開元6年、李失活が死去すると、弟の娑固が変わって唐の冊立を受ける。この娑固の代から、その「大臣」や「衝官」と記される可突于が登場し、開元22年の彼の死まで契丹内部で権力を揮った。

娑固は可突于と折り合いが悪く、排除しようとするが却って攻められ、唐に走らされている。唐は娑固と奚の首長の李大酺と共に可突于を攻めたが、娑固と李大酺は敗死し、派遣した押蕃使の薛泰は捕えられてしまう。營州都督の許澹は、一時兪關まで撤退を余儀なくされる。可突于は娑固の従父弟の鬱于を立てて、唐に謝罪したため、唐はこれを納れて鬱于を冊立した。開元10年に鬱于が、11年に可突于が唐に入朝した。この時、可突于は玄宗の并州行幸に従行している。鬱于一代は契丹内部も平穩で唐との友好関係は持続したようである。

しかし、開元12年に鬱于が死に弟の吐于が立つと、また可突于と衝突し、翌年には唐に出奔してしまう。可突于は、李盡忠の弟であった邵固を立てる。唐はまたそれを追認した。この頃、涅禮は唐に入朝している。『冊府元龜』卷975外臣部・褒異2・開元十二年二月丁巳條に

丁巳、契丹遣使涅禮來賀正、并獻方物、授將軍賜綵一百疋、放還蕃。

とあり、これが、契丹の涅禮の史料の初出となる。同年十一月の封禪には邵固が參列し、邵固が歸國すると、今度は可突于が唐に二度目の入朝をおこなった。しかし、可突于はその時の唐の対応に反發し

翌年からの再反亂に繋がることになる。

開元18年5月、可突于是邵固を殺し、契丹と奚を率いて突厥に降る。邵固に嫁いでいた東華公主と奚主の李魯蘇およびその妻東光公主が平盧軍に難を避けると、可突于是屈烈を立てて契丹を統御した。唐は直後に幽州長史の趙含章に可突于討伐を命じたが、實際に唐が契丹遠征軍を派遣するのは、開元20年に入ってからであった。同年正月信安郡王李禕が實質的な總大將として出征する。初め趙含章が白山において大敗するが、烏承玘の活躍により勝利を得た。そして李禕が三月に薊州で契丹と奚を破り、その結果、可突于是北に逃げ、奚の首領の李詩と鎖高は5000帳を率いて唐に歸屬し、幽州境内に安置された。

翌開元21年可突于是契丹と突厥の兵を率いて唐領に侵攻する。趙含章に代わって幽州長史となった薛楚玉は郭英傑等を派遣するが、閏三月に都山で可突于に大敗する。その直後の4月には反撃に出て勝利を得るが、先の大敗を挽回するほどではなく幽州長史を罷免された。

唐が9月に張守珪を京師に呼び寄せ、幽州長史に任命したことによって轉機が訪れる。張守珪は開元22年6月までに奚・契丹を征討し、ある程度の勝利を収めた。唐の朝廷はその勝利を告廟し、張守珪に授官する。その後、12月上旬までに屈烈と可突于が降服を申し出る。唐側は、当初その來降を受け入れるつもりであった。しかし一方で、万が一の事態に備えていた。張守珪は間諜の情報によって契丹の降服を偽りと判断し、謀略と力攻めとで契丹の指導者を追い詰めた。その結果、屈烈と可突于是、唐の煽動に乗った契丹の李過折に殺され、12月18日に首が洛陽にもたらされる。可突于等の殺害は、唐の朝廷において契丹の平定を意味したと考えられる。

可突于を殺害した李過折は開元23年正月に唐によって北平郡王に封ぜられ、特進檢校松漠都督・幽州節度副使に任命されている【金子修一1974】【葛承雍2003】。その李過折を殺害して契丹を率いた人物として涅禮は再登場する。そのことを『資治通鑑』卷210唐玄宗紀30開元二十三年是歲條は以下のように記載する。

是歲、契丹王過折爲其臣涅禮所殺、并其諸子、一子刺乾奔安東得免。涅禮上言「過折用刑殘虐、衆情不安故殺之」。上赦其罪、因以涅禮爲松漠都督、且賜書責之曰「卿之蕃法多無義於君長、自昔如此、朕亦知之。然過折是卿之王、有惡輒殺之、爲此王者、不亦難乎。但恐卿爲王、後人亦爾。常不自保、誰願作王。亦應防慮後事、豈得取快目前」。突厥尋引兵東侵奚・契丹、涅禮與奚王李歸國擊破之。

この時の涅禮を『旧唐書』卷199下・北狄・契丹伝は「可突于餘黨泥禮」と表記し、『新唐書』卷219北狄・契丹伝は、「可突于殘黨」とのみ記し、名前を出さない。『資治通鑑』では涅禮が「過折が刑を用いることが殘虐で、衆情が安定しなかったので之を殺した」と上言したこと、唐がそれを許して松漠都督に任じたと記載する。この上言は、おそらく張九齡『曲江集』卷9「敕契丹都督涅禮書」にみえる「亦聞殺害無罪、棒打又多、衆情不安、遂致非命」の文言を再編集したものである。ただし、「敕契丹都督涅禮書」は上言の後、涅禮が「王」となり「都督を知（知都督）」したとあることから、この都督は契丹の都督であって、松漠都督ではなかったと考えるべきである。すでに、金子修一氏は『曲江集』所収の敕書や賀狀などを用いて、「契丹都督」であった涅禮の李過折殺害は夏以前にあり、その後、突

厥の東征に對して奚の李歸國、張守珪らとともに戦い勝利を収めたことで、「松漠都督」に任命されたと論証している〔金子修一1974〕。従うべき見解であろう。なかでも、『曲江集』卷9所收の「敕契丹都督涅禮書」「敕奚都督李歸國書」「敕松漠都督涅禮書」と卷14「賀破突厥狀 并御批」等の記録と關係史料を勘案すると、涅禮がこの時の對突厥戦の中心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たとえば、『曲江集』卷14「賀破突厥狀 并御批」において、

右、張守珪表奏突厥四萬騎、前月（七月）二十五日至能訖離山。契丹涅禮等、前後斬獲俘馘數十萬、突厥可汗棄甲逃亡、奚主李歸國及平盧軍將等、追奔逐北、計日殲滅。

とあり、七月二十五日に能訖離山で行われた戦闘で大勝したことが特記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前月が七月であることは〔岑仲勉1958〕）。そして、『曲江集』卷14「賀東北累捷狀 并御批」では、張九齡が「兼見張守珪表奏、具承契丹累捷」と言及するのである。

契丹の涅禮の活動に關する記述は、開元23年に集中し、この後の事跡を伝えるものはない。しかし、後に涅禮は遼を建国した耶律氏の始祖伝説に關わる人物として『遼史』などで取り上げられることになる。涅禮が遼の太祖（耶律阿保機）の始祖となったとする説や、始祖に王位を譲った人物とする説がある。この問題については〔岡本優紀2015〕に詳細な研究整理がある。重要な問題であるが、今後の課題としたい。

以上のように、契丹の涅禮は李阿葛羅の死後を中心に活動した人物であった。そして、両者が同じ東北方面にいた非漢族の出身であることを考慮すれば、契丹の涅禮と墓誌の「男涅禮」とは同一人物であったとみなしてよいだろう。この推定が正しければ、李阿葛羅の出身種族も、契丹であったと判断できる。ただし、涅禮が最も早く記録にあらわれるのは、先に引用した『冊府元龜』卷975外臣部・褒異2・開元十二年二月丁巳條である。それに對して、開元14年に死去した時の李阿葛羅の年齢は39歳であった。開元12年の遣使は、名前が見えることから考えて、涅禮が中核とな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史書に見える涅禮が、李阿葛羅の子であるとすると、その死去の年齢から考えて、涅禮は十代～二十代前半での遣使であったことになる。少々疑問が残るが後考を待ちたい。

一方で、契丹の涅禮が李阿葛羅の子であったとすると、誌文に「男涅禮、哀々罔極、誌於泉戸」とあることから、涅禮も当時洛陽に居り、この墓誌文を撰したことになる。それは、涅禮が再度唐に入朝していたことと、墓誌文を撰するほど漢文に習熟していたことを意味しよう。このことは、異民族の宿衛や質子との關係から重要な課題となる可能性があるだろう。

4、李阿葛羅の宿衛について

最後に、李阿葛羅の宿衛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まず、宿衛をする李阿葛羅の「私第」が洛陽豊財里にあったのは、当時、玄宗が洛陽に滞在していたからである。『旧唐書』卷9玄宗本紀によれば、玄宗は開元12年11月から開元15年10月まで洛陽を據点として活動している。そのため、洛陽宮に宿衛したことになる。

李阿葛羅が契丹人であったとすると、開元前半の以下の記事が重要である。

『冊府元龜』卷974外臣部・褒異1・唐開元六年五月戊午狀

五月戊午、契丹部落孫骨訥等十八人内屬、並授游擊將軍、賜緋袍銀帶、留宿衛。甲子以契丹松漠都督李失活卒、帝深加憫悼、親爲舉哀、使使弔祭。

『冊府元龜』卷964・封冊2・開元十四年四月癸丑條

四月癸丑、契丹遣大首領李潤池等六人來朝、皆授折衝留宿衛。

これらの記述は、契丹からの使者のが武官を授けられて宿衛に留まることがあったことを表わしている。李阿葛羅も、この開元14年4月の遣使で入朝した可能性がある。ただし、墓誌の文中に、急逝したとの記述はない。

最近、契丹とともに行動することが多かった奚の質子「熱壤」墓が發掘され、質子や宿衛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西安市文物考古研究所2014〕〔葛承雍2014〕。李阿葛羅の例も、今後、唐代異民族宿衛・質子研究の資料となるものと考えられる。

結語

以上、洛陽出土「李阿葛羅墓誌」の紹介とそれを取り巻く問題について検討した。その結果、李阿葛羅が契丹人であり、涅禮の父であるとの結論に至った。本報告は、該墓誌に關わる問題の提示に留まっている点も多い。それらの問題は、今後の課題としたい。

主要考文獻〔發表年代順〕

松井等1915「契丹勃興史」（『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第一）

何格恩1941「張曲江詩文慈澍編年考」（『廣東文物』中冊、中國文化協進會、1941年）

岑仲勉1958『突厥集史』上冊（中華書局）

田村實造1964『中國征服王朝の研究』上、第二章第三節、II「唐代キタイ族の世系」（東洋史研究會）

愛宕松男『契丹古代史の研究』第三篇第四章「唐代に於けるキタイ族=遙輦氏キタイ=統一部族の時代」（東洋史研究會、1959年）

金子修一1974「唐代の國際文書形式について」（同著『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名著刊行會、2001所收初出1974年、）

東洋文庫1981 東洋文庫唐代史研究委員會『唐代詔勅目錄』（東洋文庫、1981年）

石井正敏1984「張九齡作『勅渤海王大武芸書』について」（同著『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2001年所收、初出は1984年）

古畑徹1986「唐渤紛争の展開と國際情勢」（『集刊東洋學』55、1986年）

王小甫1992『唐・吐蕃・大食政治關係史』（北京大學出版社、1992年）

齊藤達也1993「『曲江集』所收の西域關係勅書の起草時期」（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別冊19、）

石見清裕1999「唐朝發給の『國書』一覽」（『アジア遊學』3、1999年）

- 李志凡1999「唐張守珪墓誌淺釋」（『唐研究』5）
- 葛承雍2003「對西安市東郊唐墓出土契丹王墓誌的解讀」（『考古』2003年第9期）
- 河内春人2003「渤海と契丹・奚」（佐藤信編『日本と渤海の古代史』山川出版社）
- 陳建森2004「『四部叢刊』影印『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非明成化九年刻本」『唐代文學研究』2004。
- 顧建國2005『張九齡年譜』（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5年）
- 張九齡撰・熊飛校注『張九齡集校注』（中華書局、2008年）
- 仁愛君2008「唐代契丹羈縻制度与“幽州契丹”的形成」『中國邊境史地研究』2008-1
- 菅沼愛語2009「唐代的契丹と突厥第二可汗國」（同著『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 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 -』、溪水社、2013年所收、初出は2009年）
- 李小龍2010「『永樂大典』所收張九齡佚文考」（『勵耘學刊』文學卷 2010年第2期）
- 森部豊2010『ソグド人の東方活動と東ユーラシア世界の歴史的展開』（關西大學出版部）
- 西安市文物考古研究所2014「西安市唐故奚質子熱瓌墓」（『考古』2014年第10期）
- 葛承雍2014「西安唐代奚族質子熱瓌墓誌解讀」（『考古』2014年第10期）
- 速水大2014「開元22年の唐と契丹」（『明大アジア史論集』18）
- 肖忠純2014「隋唐時期遼西地區的移民及其影響」（『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2014年03期』
- 森部豊2015「唐前半期の營州における契丹と羈縻州」（『內陸アジア言語の研究』30）
- 岡本優紀2015「四一九世紀の契丹に關する研究の現狀と課題」（『史泉』121）

李阿葛羅墓誌と唐開元二十年代の契丹

速水 大 (國學院大學)

これまで、ほとんど注目されてこなかった洛陽出土で少数民族と考えられる李阿葛羅墓誌を取り上げ、唐開元年間の異民族支配の実態に迫り、李阿葛羅墓誌の唐代史における史料価値を明らかにする。

これまで「李阿葛羅墓誌」が紹介されたのは以下の墓誌史料集である。

『全唐文補遺 千唐誌齋新藏專輯』(三秦出版社、2006年)144頁

『新中国出土墓誌 河南參』(中国文物研究所・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編、文物出版社、2008年1月)109(整理番号)

『洛陽出土少数民族墓誌彙編』(李永強・余扶危主編、河南美術出版社、2011年7月)230頁。

このうち、『全唐文補遺』と『洛陽出土少数民族墓誌彙編』とは録文を載せ、『新中国出土墓誌』は録文と図版を採録する。また、『北京大学図書館蔵歴代墓誌拓片目録』(胡海帆・湯燕・陶誠編、上海古籍出版社、2013年12月)上冊の03591にも所蔵が記録されている。管見の限り論文等で言及されたものはない。

以上、洛陽出土「李阿葛羅墓誌」の紹介とそれを取り巻く問題について検討した。その結果、李阿葛羅が契丹人であり、涅礼の父であるとの結論に至った。本報告は、該当墓誌に関わる問題の提示に留まっている点も多い。それらの問題は、今後の課題としたい。

「李阿葛羅墓誌」와 唐 開元20년대의 契丹

速水 大 (國學院大學)

이 보고의 목적은 지금까지 대부분 주목되지 않았던, 洛陽 출토이고 소수민족이라고 생각되는 「李阿葛羅墓誌」를 다루어 唐 開元 연간 이민족지배의 실태에 접근하고, 「李阿葛羅墓誌」의 唐代史에서의 사료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李阿葛羅墓誌」가 소개된 것은 아래와 같은 묘지 사료집이다.

『全唐文補遺 千唐誌齋新藏專輯』(三秦出版社, 2006), 144쪽

『新中國出土墓誌 河南3』(中國文物研究所·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文物出版社, 2008년 1월) 109 (정리번호)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彙編』(李永強·余扶危 主編, 河南美術出版社, 2011년7월), 230쪽.

이 중, 『全唐文補遺』와 『洛陽出土少數民族墓誌彙編』은 석문을 게재하였고, 『新中國出土墓誌』는 석문과 도판을 채록하였다. 또, 『北京大學圖書館藏歷代墓誌拓片目錄』(胡海帆·湯燕·陶誠 編, 上海古籍出版社, 2013년12월)上册의 03591에도 소장이 기록되어 있다. 필자가 확인한 범위 내에서 논문 등에서는 언급된 것은 없다.

이상, 洛陽 출토 「李阿葛羅墓誌」의 소개와 그것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李阿葛羅가 契丹人이고, 涅禮의 아버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보고는 해당 묘지에 관한 문제의 제시에 그치고 있는 점도 많다. 그 문제들은 나중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李阿葛罗墓志》与唐朝开元年间的契丹

速水 大 (国学院大学)

本文将以尚未充分受到瞩目的、洛阳出土并被视为少数民族的《李阿葛罗墓志》为研究对象，试图了解开元年间唐朝支配异民族的真实面貌，从而确认《李阿葛罗墓志》在唐代史研究中的史料价值。

介绍《李阿葛罗墓志》的墓志史料集有，

《全唐文补遗·千唐志齋新藏专辑》（三秦出版社，2006），144页；

《新中国出土墓志·河南3》（中国文物研究所·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编，文物出版社，2008年1月）109号；

《洛阳出土少数民族墓志汇编》（李永强·余扶危主编，河南美术出版社，2011年7月），230页。

其中，《全唐文补遗》和《洛阳出土少数民族墓志汇编》采录撰文，《新中国出土墓志》则采录撰文和图版。此外，也有《北京大学图书馆藏历代墓志拓片目录》（胡海帆·汤燕·陶诚编，上海古籍出版社，2013年12月）上册的03591所藏记录。据笔者所知，目前还没有论文等专著提及《李阿葛罗墓志》。

本文只分析洛阳出土《李阿葛罗墓志》一般情况并探讨有关问题。结果发现，李阿葛罗是契丹人，也是涅礼的父亲。不过，本文只是对该墓志的有关问题提出问题而已，有关问题的深入还有待进一步研究。

